

충남미술 연구총서 3

충남미술문화사 (1900~1999)

책을 펴내며

3년 전 충청남도과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미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충남의 미술사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세 번째로 충남미술계의 전개 양상 및 충남을 기반으로 활동한 전시공간, 미술단체, 교육기관 등을 미술사적으로 조명하였다.

충남미술사 조사·연구 사업은 4개년으로 계획되어 연차별로 『충남미술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인명사 I (1870~1949년생)’, 2022년 ‘인명사 II (1950~1959년생)’를 발간하였고, 3년차인 올해는 미술문화사(1900~1999)를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내년에는 기존 연구 중 미발굴 사항과 보완점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담아 출간할 계획이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충남의 미술사를 훑어보고 한 데 엮어낸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미술관이 개관한 이후 ‘충남미술’ 담론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추후 더 많은 연구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충남미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흩어지고 잊힌 것들을 복원하여 이곳에서의 예술가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탐색하는 작업으로, 충남미술관이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지금 ‘충남미술’은 한국근현대미술사라는 큰 흐름 속에 그 형상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깨어야 할 조각들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충남미술관은 충남미술사 조사·연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아카이빙하여 충남미술 연구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도민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충남미술’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사업 추진의 뜻이 있어도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미술사학자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님의 노력과 충남미술사편찬자문위원회 김주원, 변영환, 유병호, 이만우, 이진자, 정찬국, 허진권, 황선익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무엇보다 지역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충청남도 · 충남문화관광재단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3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3단계)’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다.
2. 책의 구성은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 및 전시공간, 미술단체, 미술교육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해제한 ‘기초자료편’과 연구자들의 ‘논고’,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3. 1장의 1. 충남의 전시자료 해제문은 총 4,444건의 전시자료를 확보하여 연대별·지역별 추이를 분석한 것이며, 전시공간 해제문은 225개의 전시공간 중 100곳을 선정하여 가나다순으로 해제문과 전시이력을 수록하였다.
2. 충남 미술단체 분석 및 해제문은 연구팀이 조사한 미술단체 224개 중 88개를 선정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였다. 미술단체의 선정은 1) 창립 목적, 2) 각 분야별, 지역별 초기 단체, 3) 활동의 지속성(30년 이상 단체 유지), 4) 지역 미술문화 발전의 기여 정도, 5) 미술가 양성, 6) 현존 기록 자료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충남의 미술교육기관 해제문은 미술관련 학과의 개설 연도순으로 작성하였다.
4. II 장의 ‘논고’에는 충남미술의 전개 양상을 세 시기(개화기~1945/ 1945~1969/ 1970~1999)로 나누어 각 시기별 전문 연구자가 집필한 논문 3편과 근·현대기 충남의 주요 전시와 전시공간, 미술단체, 미술교육사에 대한 주제별 연구논문 3편을 수록하였다.
5. III 장 ‘부록’의 충남미술 전시공간 목록은 각 시군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후, 전시공간명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다. 충남 미술단체 목록은 창립 연도순이며, 미술교육자 목록은 조선미술전람회 입상 시기를 기준으로, 충남 소재 미술대학 교수 목록은 재직시기 순으로 작성하였다.
6. 표는 [], 작품명은 〈 〉, 전시명이나 화첩, 연작물은 《 》, 단행본과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는 『 』, 논문명은 「 』, 원문 인용은 “ ”, 강조는 ‘ ’로 표기하였다.
7. 본문의 지명과 학교명은 해당 시기 학교명(지명)을 그대로 쓰고, 현재 학교명(지명)은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8. 이 책에 수록된 이미지는 대전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등 여러 기관과 유병호, 이진자, 임재광, 정찬국, 허진권 작가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9. 이 책에 수록된 원고의 저작권은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사진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개별 자료에 표기한 소장처 및 출처로 귀속된다.
10.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었으며, 전자책은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목 차

책을 펴내며	2
I. 근·현대기 충남미술 기초자료 분석 및 해제	
1. 충남미술 전시자료, 전시공간 분석 및 해제	7
2. 근·현대기 충남 미술단체 분석 및 해제	143
3. 충남 미술교육기관 분석 및 해제	283
II. 논고	
1. 최경현, 도입기(개화기~1945) 충남미술의 흐름과 특징	316
2. 이안나, 해방 이후(1945~1969) 충남미술계의 새로운 분위기와 전개 양상	352
3. 허나영, 1970년 이후 충남미술계의 전개 양상-충남미술 속 실험정신과 다양성	376
4. 정경숙, 근·현대기 충남의 주요 미술전시와 전시공간 분석	396
5. 김미정, 근·현대기 충남 미술단체의 전개 양상과 특징	426
6. 임재광, 근·현대기 충남의 미술교육사	455
III. 부록	
1. 충남의 지역별 전시공간 목록	482
2. 충남 미술단체 목록	500
3. 충남 교육기관 및 미술교육자 목록	510
1) 해방 이전 충남의 교육기관과 미술교육자	510
2) 충남 소재 미술대학 교수 목록	514
참고문헌	521
찾아보기	525

I

근·현대기 충남미술 기초자료 분석 및 해제



1.

충남미술
전시자료, 전시공간
분석 및 해제

1.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의 연대별 추이

대전을 포함한 충남 전 지역에서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열린 미술전시와 전시공간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해당기간 동안 열린 전시자료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하였다.

1단계로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1945~1999년까지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I~IV 총 12권을 검토하였다.¹ 이 자료집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대전, 대구, 천안 등 전국 대도시에서 개최된 전시회 자료를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전시자료 분석을 위해 12권의 『한국미술전시자료집』에 실린 단체전과 개인전 목록 중 대전을 포함해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전시를 확인하여 1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어진 2단계 작업에서는 앞선 『한국미술전시자료집』(1945~1999) 조사에서 확보한 전시 목록을 검토하고, 누락된 전시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1976~2000년까지 발행한 총 25권의 『문예연감』을 활용하였다.² 『한국미술전시자료집』을 기반으로 정리한 목록과 『문예연감』에서 찾은 전시 목록을 비교, 검토하여 누락된 전시를 보충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다.

3단계 작업으로 『한국미술전시자료집』에서 다루지 않았던 1900~1945년까지 전시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포털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해당 포털에 ‘충남’, ‘충남미술’과 ‘미술’을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한 결과 1~2단계에서 누락된 전시기록을 추가로 찾을 수 있었다.³ 앞서 확보한 전시자료 중 불분명한 전시공간과 전시기간, 작가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시 비교, 검토하였다.

4단계로 2021년과 2022년 충남도청·충남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 미술가편람 I·II』에 실린 작가들의 해제문 중 연보를 검토하여 누락된 전시기록을 추가하였다.

1~4단계에서 확보한 전시목록 외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충남미술과 관련된 문헌과 충남 각 지역 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전시목록을 보완하였다.⁴ 또한 전시목록 작성 후 최종 검토 단계에서 충남에서 활동하는 미술사가 및 작가들과 전화나 면담을 통해 새로운

1 『한국미술전시자료집』 I 과 II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III 과 IV는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발간했다.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I 1945~1969』은 1권,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II 1970~1979』는 2권,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III 1980~1989』은 주요전시 1권과 전시목록 상·하로 구분하여 3권으로 구성되었다.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IV 1990~1999』은 총 6권으로, 1999년까지는 10년 단위로 분류되어 있다.

2 문예연감은 한해 지난 뒤에 발간되므로 1999년 자료는 『문예연감2000』에 실렸다. 문예연감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yearbook/>

3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는 2009년 4월 30일부터 네이버가 제공하는 신문 아카이브 서비스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20년부터, 『경향신문』은 1946년부터, 『매일경제신문』은 1966년, 『한겨레신문』은 창간된 1988년부터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사의 경우 1996년 이후 기사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동아일보사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해야 한다.

4 『충청남도지 24. 현대예술』(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2020 근현대미술채록사업-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충남개도 100년사(하) 미술』(충청남도, 1997); 각 문화원 홈페이지와 문화원 자료 통합사이트 참조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19 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에서 열린 총 4,444건(개인전 1,405건, 단체전 3,039건)의 전시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확보한 자료를 각 연대별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표1-1] 충남에서 열린 개인전과 단체전 수(비율)

연대	개인전	단체전	합
1969년 이전	58(42.6%)	78(57.4%)	136
1970년대	67(28.8%)	166(71.2%)	233
1980년대	429(33.0%)	871(67.0%)	1,300
1990년대	851(30.7%)	1,924(69.3%)	2,775
합	1,405(31.6%)	3,039(68.4%)	4,444

[표1-1]은 1999년까지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를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⁵ 1969년 이전까지 열렸던 개인전과 단체전의 수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1970년 이후 개인전과 단체전 개최 수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1970년대 들어서 개인전에 비해 단체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연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전체적으로 개인전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단체전 건수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증가하였다.

충남에서 열린 개인전 수는 1979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초반 충남 지역의 대학교에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⁶ 단체전의 개최 수는 197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1990년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충남에 설립된 대학에 미술관련 학과가 생기면서 미술인의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⁵ 1989년 1월 1일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되었으나 충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대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1989~1999년까지 대전에서 열린 전시회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⁶ 1970년 대전실업대 생활미술과, 1972년 목원대 미술교육과와 송전대(현 한남대) 미술교육과,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982년 충남대학교 미술학과가 각각 설립되었다.

2.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의 지역별 추이

[표1-2]는 1999년까지 충남에서 개최된 개인전 수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개인전이 개최된 건수를 보면 시기와 관계없이 대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주의 경우 1970년 이전까지는 대전 다음으로 전시가 많이 열렸으나 19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공주에 비해 대전에 미술대학 설립과 인구의 증가와 전시에 적합한 제반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1-2] 충남의 시군별 개인전 개최 건수

연대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대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연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합
1969년 이전	13		1		36		3	1					2	1		1	58
1970년대	2		1		56		2						5		1		67
1980년대	2		1	1	385	2	1	8		4		3	18			4	429
1990년대	8	2	2	3	746	1	4	13		2		1	68	1			851
합계	25	2	5	4	1223	3	10	22	0	6	0	4	93	2	1	5	1405

1980년대 들어 대전에서 개인전이 개최된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충남에서 대전 다음으로 전시회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도시로 천안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대전과 천안에서 개인전 개최 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서산을 제외한 충남의 나머지 시군은 한 해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89년 1월 1일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90년대 역시 여전히 대전에서 개인전이 많이 열린 것은 행정구역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 및 수요층의 변동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표1-3] 충남의 시군별 단체전 개최 건수

연대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대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연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합
1969년 이전	27				46					1	1		3				78
1970년대	20		5	5	123		1	4	3			1	4				166
1980년대	27	2	9	8	711	2	12	26	3	11	4	3	49	2		2	871
1990년대	58	1	16	20	1531	10	19	40	1	13	23	9	173		6	4	1924
합계	132	3	30	33	2411	12	32	70	7	25	28	13	229	2	6	6	3039

충남 지역에서 개최된 개인전 수의 연대별 변화에 이어 [표1-3]은 지역별 단체전 개최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1969년까지 단체전은 대전과 공주에 편중되어 열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현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 들어서 대전에서 열린 단체전 수가 급상승한 반면, 공주에서 개최된 단체전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미약하지만 대전과 공주에 이어 논산, 당진, 천안, 서산 등지에서도 단체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도 대전에서 열린 단체전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월등하게 많았다. 또 천안에서 열린 단체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공주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공주 다음으로 서산에서 많은 전시회가 열렸으며, 그 뒤를 이어 당진, 부여, 논산 순으로 단체전이 열렸다. 단체전 빈도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충남의 여러 지역에서 단체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통해 지역 미술계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이 충남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된 1989년 이후에도 단체전이 대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열렸다. 1990년대 들어 천안에서 열린 단체전 수가 급증했으며, 공주에서도 단체전이 활발하게 열렸다. 그 뒤를 이어 서산, 아산, 당진, 부여, 논산 순으로 전반적으로 1980년대보다 단체전 수가 늘었다. 이는 지역문화의 다양화와 작가들이 자신의 출생지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통해 1990년대까지 행정적 분리와 관계없이 충남 지역의 전시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대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1980년대 이후 천안을 비롯하여 여타 지역에서도 서서히 전시회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3. 충남 전시공간의 시기와 지역별 변화 분석

[표1-4~6]은 1999년까지 충남 전 지역에서 활용된 전시공간을 정리한 것이다. 시대별 전시공간의 변화를 보면, 1999년까지 충남 전 지역에서 문화원이 주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의 경우는 1980년대 시민회관과 개인 화랑의 등장으로 문화원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화원과 읍민회관, 군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다방에서 주로 전시회가 열렸다. 1990년대에는 문예회관 또는 문화회관의 건립으로 전시공간이 변화되는 지역도 있었으나 대전·공주·천안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비전문 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충남 각 지역별 전시공간을 보면 공주(31), 금산(4), 논산(11), 당진(12), 보령(7), 부여(11), 서산(10), 서천(3), 아산(18), 연기(3), 예산(6), 천안(22), 청양(2), 태안(3), 홍성(4), 대전(78) 총 225개의 장소가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대전에서는 1969년까지 문화원에 전시가 집중되었으나, 1970년대 대전시민회관이 문을 열고 개인 화랑들이 생기면서 전시공간이 다양해진다. 반면 공주는 사설 전시공간의 개관보다는 여전히 문화원과 문예회관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는 의존도가 높았다. 천안 역시 1980년대까지 전시공간으로 문화원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사립 전시 공간인 아라리오갤러리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활발하게 전시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까지 금산·당진·부여·서산·예산·홍성 등은 전시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로 문화원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그 외 지역은 금융기관(신협 또는 농협 등), 공공기관(읍사무소 또는 군민회관), 상업시설(다방) 등에서 여전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전시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0년대 역시 대전은 수많은 사설 화랑들이 명멸했던 데 비해, 공주·천안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공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표1-4] 1970년대까지 충남의 시군별 전시공간의 분포

시기	전지역	전시장소(전시회 수)
1900 ~ 1969	대전	개미다방(1), 대전문화원(56), 대흥동 세무사사무실(1), 라이카화랑(1), 미국공보원(2), 보정통 후생관(1), 충남공보관(4), 충남예총화랑(9), 한밭상업고등학교(1)
	공주	고원다방(1), 곰나루다방(1), 공주공립고등여학교 강당(1),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1), 공주문화원(23), 공주사범학교 강당(1), 공주읍사무소(1), 공주 기독교회(1), 다방 자유관(1), 대화정 예배당(1), 봉산구락부(2), 영명학교 강당(1), 왕궁다방(1), 중동초등학교 강당(1), 충남공보관(1), 충남도평의회장(1), 충원다실(1)
	논산	미상(1)
	부여	부여문화원(2), 홍산유치원(1)
	서산	서산문화원(1)
	아산	온양 내 전시장소 미상(1)
	천안	돌다방(1), 자연다방(1), 향촌다방(1), 장소미상(1)
	청양	청양문화원(1)
홍성	광천5가 다방(1)	
1970 ~ 1979	대전	가톨릭문화회관(2), 경암화랑(1), 舊대전소방서(1), 극동다실(1), 남계화랑(18), 대전고등학교 강당(1), 대전관광호텔(1), 대전문화원(43), 대전상공회의소 화랑(1), 대전시민회관(1), 대전여성회관(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3), 맥그리거화랑(2), 목원미술관(1), 문화화랑(1), 보성학원 화랑(2), 산강화랑(14), 송아지다실(3), 시민다실(1), 신신화랑(3), 양반다실(1), 예총화랑(1), 오원화랑(3), 일신다실(1), 중도일보회의실(6), 청자다실(3), 충남예총화랑(10), 행원다실(5), 홍명다실(미술관)(38), 홍명상가 2층 로비(1)
	공주	고려다실(1), 공주문화원(18), 신신다방(1), 예원다방(1)
	논산	궁전예식장(1), 논산 영신상가(1), 남궁다실(1), 대림다실(1), 천오다실(1)
	당진	당진교육청(1), 당진문화원(2), 상록수다방(1), 송이다방(1), 유리제과(1), 합덕지하다실(1)
	보령	대천 해변
	부여	고궁다실(1), 부여문화원(2)
	서산	반공회관(1), 서산문화원(1), 서산청년회의소(1), 향원다실(1)
	서천	서천군민회관(1), 미상(2)
	천안	백궁다방(2), 아세아다실(1), 아카데미다방(화랑)(2), 천안문화원(4)
태안	월궁다방(1)	

[표1-5] 1980년대 충남의 시군별 전시공간의 분포

시기	지역	전시장소(전시회 수)
1980 ~ 1989	대전	가톨릭문화회관(2), 계룡미술관(3), 공간사랑(33), 균화랑(1), 근대화랑(2),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기독교연합봉사회관(2), 기독교회관(3), 농협전시실(1), 대강당(1), 대성다방(1), 대전문화원(191), 대전미술관(26), 대전백화점 아트홀(9), 대전상공회의소(1), 대전시민회관(292), 대전화랑(1), 동서화랑(1), 매일화랑(1), 동아미술관(9), 동아전시관(5), 동양백화점(9), 몽셀통통(1), 문화화랑(1), 반공연맹회관(1), 반도화랑(61), 배재대학 전시관(1), 보문산 야외음악당(1), 상일갤러리(1), 상지다실(1), 송아지다실(3), 시나위화랑(1), 신세기다방(1), 신신화랑(95), 쌍인미술관(25), 앙상블소극장(1), 여일미술관(36), 연일다실(1), 영상화랑(19), 예가화랑(20), 예전화랑(1), 오원당화랑(21), 은성다실(1), 입화랑(5), 전시장소 미상(2), 전통미술도자기감상실(1), 중앙갤러리(15), 참운당화랑(1), 청년작가회관(1), 청다실(1), 청탑다방(1), 한국화랑(10), 한남대학교(4), 현대갤러리(89), 홍명화랑(4), MBC문화공간(62)
	공주	공주교대(1), 공주군청(1), 공주문화원(18),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관(4), 공주신용협동조합(2), 금강백사장(3)
	금산	금산농협(1), 금산문화원(1)
	논산	논산군민회관(1), 논산예식장(1), 대흥다실(2), 동해생명전시실(1), 박산부인과 전시실(1), 오거리다방(1), 논산읍사무소(1), 태림상가(1), 화지산신용협동조합(1)
	당진	당진문화원(6), 유림회관(1), 제일예식장(1)
	보령	귀빈다실(1), 대천문화원(1), 신정다방(2)
	부여	고궁다실(1), 공화당 사무실(1), 부여군민회관(3), 부여읍민회관(3), 부여문화원(3), 초원다실(1)
	서산	마방화랑(1), 비전다실(1), 서산문화원(29), 서산미술관(4)
	서천	서천군민회관(3), 서천문화원(1), 장항 농협 회의실(1)
	아산	동서증권 온양지점(3), 동서화랑(2), 연지다방(1), 온양민속박물관(1), 온양신용협동조합3층(1), 제일관광호텔 하비니홀(2), 청주다방(1)
	예산	삼정다방(1), 예산농업전문대 교수회관(1), 예산문화원(3), 우리전시실(1), 읍내송림다방(1)
	천안	도솔화랑(7), 로얄백화점(1), 미도백화점(3), 사랑방다실(1), 서화랑(1), 아라리오갤러리(3), 천안문화원(43), 천안시민회관(4), 태화산방(1)
	청양	예원사화랑(1), 청양문화원(1)
	홍성	도심다방(1), 해동화랑(1), 홍성문화원(4)

[표1-6] 1990년대 충남의 시군별 전시공간의 분포

시기	지역	전시장소(전시회 수)
1990 ~ 1999	대전	21세기갤러리(58), 가든 미술관(1), 갤러리 비전(3), 갤러리 우리(5), 갤러리C2(2), 갤러리마로니에(6), 갤러리심(71), 갤러리해바라기가있는정물(5), 경암갤러리(11), 계룡산미술관(1), 교보생명갤러리(16), 교보아케이드갤러리(19), 대덕갤러리(3), 대덕과학문화센터(1), 대림빌딩(1), 대전 KBS방송국(5), 대전 MBC문화공간(127), 대전 동양타임월드갤러리(66), 대전 마음의고향(3), 대전국립중앙과학관(1), 대전대학교 박물관(1), 대전대학교 한방병원(1), 대전무역전시관(1), 대전문예회관(4), 대전문화원(249), 대전미술창작마을(1), 대전백화점(2), 대전생명(2), 대전시립미술관(43), 대전시민회관(455), 대전엑스포 과학공원(1), 대전엑스포 국제회장(1), 대전엑스포 문예전시관(6), 대전엑스포 특별전시장(1), 대전엑스포 행사장(1), 대전정부청사(1), 대전중구문화원(151), 대전중구청 민원봉사실(3), 대전중앙병원(1), 대전회덕사무소전시장(1), 대화문화사랑(61), 대화상호신용금고(1), 대훈문고(3), 동아갤러리(3), 동아미술관포함대전엑스포 광장(3), 동아전시관(1), 디아갤러리(1), 롯데호텔갤러리(18), 마노갤러리(2), 마로니에갤러리(3), 백마아트홀(3), 삼성빌딩 지하갤러리(1), 삼성생명 갤러리(105), 서대전광장(2), 수갤러리(2), 시나위커피숍/갤러리(4), 신금갤러리(6), 엑스포과학공원 재생조형관(4), 엑스포미국관(1), 오원화랑(168), 우성미술관(2), 이공갤러리(13), 입화랑(2), 창신갤러리(47), 창신문구(1), 창신이벤트홀(3), 충남대 도서관과 잔디광장(1), 충남대 예술대학 미술관(1), 충남대학교(3), 충청은행 본점(1), 판화공방(1), 평송청소년수련원(13), 프린스관광호텔(1),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1), 한국타이어(1), 한남대학교 응미과 전시장(1), 한남타운 미술관(1), 한림미술관(102), 한밭도서관(22), 한신코아 아트홀(24), 현대갤러리(201), 흥인갤러리(76) YWCA명동본부(1)
	공주	계룡산조각공원(1), 공주 금강 및 곰나루(3), 공주문예회관(33), 공주문화원(16), 공주민속극박물관(1), 공주 일원(1), 국립공주박물관(3), 원골마을(3), 임림미술관(2), 산성공원(1), 산성사무소(1), 자연미술의집(1), 충남산림박물관(1), 충남운수연수원(1)
	금산	금산갤러리(2), 청산회관 전시실(1)
	논산	논산군민회관(1), 놀외금고(1), 시민생활관(1), 논산시민회관(1), 화지산신협문화공간(14)
	당진	당진갤러리(2), 당진문화원(4), 충청은행 수선화공간(9), 합덕대건신협(8)
	보령	대천문화원(3),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2), 대천해수욕장(1), 보령군청(2), 보령보건소(2), 보령시민체육관(1)
	부여	국립부여박물관(3), 구드래조각공원(3), 부여군민회관(5), 부여군청(1), 부여문화재연구소(1), 부여문화원(1), 부여청소년수련원(9)
	서산	서령미술회관(3), 서산문화원(5), 서산문화회관(18), 서산미술관(1), 서산시민회관(4), 서인사랑(21), 시대갤러리(1), 오지초등학교(1)
	서천	서천군민회관(1)
	아산	당림미술관(1), 동서증권(1), 민속박물관(1), 보명예식장(1), 아산학원 태경관(1), 아카데미예식장(2), 온양 농협(1), 온양 프라자쇼핑센터(1), 온양문화원(1), 온양우체국(1), 올림픽국민생활관(1), 정우마을금고(1), 중앙감리교회(1)
	연기	연기군민회관(1), 흥대조치원캠퍼스 야외조각공원(1)
	예산	예산문예회관(7), 예산문화원(2), 예산터미널 전시장(2)
	천안	갤러리아미술관(2), 독립운동기념관(1), 아라리오갤러리(91), 이채판화(4), 천안공업전문대학(1), 천안문예회관(1), 천안문화원(66), 천안시민회관(50), 천안여성회관(1), 충남학생회관(8), 코스모스커피숍(1), 평림화랑(9), 한양백화점 문화홀(1), 화랑 작은무대(1)
	청양	청양문화원(1)
	태안	태안문화원(4), 태안신협전시실(2)
	홍성	홍성문화원(4)

4. 충남 전시공간 해제문

조사한 충남의 전시공간 중 문화원, 시민회관, 문예회관 등 대표적인 주요 전시공간과 위치나 이미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100개 장소를 선정하여 해제문을 작성하였다.

[표1-7] 충남 전시공간의 해제문 목록

번호	지역	전시공간명	비고
1	공주	곰나루다방	
2	공주	공주공립고등여학교 강당	
3	공주	공산성	산성공원
4	공주	금강변과 곰나루	
5	공주	공주기독교교회	
6	공주	대화정 예배당	
7	공주	공주문예회관	
8	공주	공주문화원	
9	공주	봉산구락부	
10	공주	공주사범학교 강당	
11	공주	영명학교 강당	
12	공주	원골마을	
13	공주	공주읍사무소	
14	공주	임립미술관	
15	공주	자연미술의 집	
16	금산	금산문화원	
17	금산	청산회관 갤러리	
18	논산	논산군민회관	
19	논산	태림상가	
20	논산	화지산신윙협동조합	
21	당진	당진문화원	
22	당진	유림회관	
23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수선화문화공간으로도 표기함
24	당진	합덕대건신윙협동조합	
25	대전	KBS방송국	
26	대전	MBC문화공간	
27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28	대전	경암빌딩 화랑	

번호	지역	전시공간명	비고
29	대전	공간사랑	
30	대전	근대화랑	
31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2	대전	남계화랑	
33	대전	대전고등학교 강당	
34	대전	대전미술관	
35	대전	대전백화점	
36	대전	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37	대전	동양백화점	
38	대전	라이카·여일화랑	
39	대전	립화랑	입화랑으로 표기도 함
40	대전	대전문화원	
41	대전	문화화랑	
42	대전	반도화랑	
43	대전	대전상공회의소	
44	대전	대전소방서	
45	대전	시나위커피숍	시나위전시장, 시나위화랑으로도 표기
46	대전	대전시민회관	
47	대전	신신화랑	
48	대전	쌍인갤러리	
49	대전	양상블 소극장	
50	대전	예가화랑	
51	대전	오원화랑	오원당으로 시작
52	대전	중도일보 회의실	
53	대전	중앙갤러리	
54	대전	충남공보관	
55	대전	충남예총화랑	
56	대전	한국화랑	
57	대전	한남대학교	도서관, 문화전시실, 미술교육관
58	대전	한밭상업고등학교	
59	대전	현대갤러리	
60	대전	홍명다방	홍명화랑 또는 홍명미술관
61	대전	대전문화원	보령문화원
62	보령	보령군청 전시실	군청 로비
63	보령	보령보건소	
64	보령	보령시민체육관	대전체육관
65	부여	구드래조각공원	

번호	지역	전시공간명	비고
66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67	부여	부여군민회관	
68	부여	부여문화원	
69	부여	부여읍민회관	
70	부여	부여청소년수련원	
71	서산	마방화랑	
72	서산	서산문화원	
73	서산	서산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과 동일
74	서산	서령미술회관	
75	서산	서산미술관	
76	서산	서인사랑	
77	서천	서천군민회관	
78	서천	서천문화원	
79	아산	당림미술관	
80	아산	(온양)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81	아산	온양문화원	
82	연기	조치원문화원/현 세종문화원	
83	연기	연기군민회관	세종시민회관과 동일
84	예산	예산문화원	
85	예산	예산문화회관	
86	예산	예산종합터미널전시장	종합터미널 로비
87	천안	도솔화랑	
88	천안	천안문화원	
89	천안	미도백화점	로얄백화점과 동일
90	천안	천안시민회관	신부문화회관과 동일
91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92	천안	아카데미다방	
93	천안	이채관화화랑	
94	천안	충남학생회관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과 동일
95	천안	태화산방	
96	천안	평립화랑	
97	청양	청양문화원	
98	청양	예원사화랑	
99	태안	태안문화원	
100	홍성	홍성문화원	

1) 공주 곰나루다방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공주에서 다방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된 가장 이른 사례이다. 1955년 공주사범학교 졸업사진을 통해 기와지붕의 나지막한 1층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¹ 12월 16일 열린 《공주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사진전》의 안내 현수막과 화환이 있는 사진에서 ‘사교의 전당 곰나루다방’이란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작품들이 다방의 벽면에 높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곰나루다방에서는 전시회 외 토요일음악감상회도 진행해 당시 공주에서 문화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55. 12. 16~12. 18	《공주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 사진전》
1959. 12. 16~12. 20	《공주문화원 개원기념 향토미술전》



사진전이 열린 곰나루다방 입구, 1955(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6862)



곰나루다방 실내 벽면에 전시된 사진 작품들, 1955(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6863)



1959년 제40회 토요일음악감상회가 열린 곰나루다방 실내 모습(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6852)



곰나루다방 벽면에 전시된 사진 작품들, 1955(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6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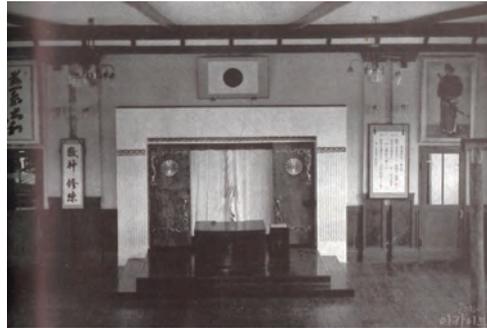
¹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2597

2) 공주공립고등여학교 강당

공주시 봉황로 75에 있었으며 1963년 공주여고길 14-1(금학동 241번지)로 이전했다.

현 공주여자고등학교의 전신으로, 1928년 2월 28일 4년제의 공주공립고등여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공주공립심상소학교에서 개교 및 입학식을 열었다.² 1933년 충청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보상책으로 1934년 당시 충청도청 청사(현 공주사대부설중고등학교)로 이전하여 1934년부터 1949년까지 공주시 봉황로 75번지에 있었다. 1949년 현재 공주교육대학교가 있는 공주시 웅진로 27로 이전하였다. 1952년 교육부 학제 개편에 따라 3년제 공주여자고등학교로 개정되었다. 1963년 5월 9일 현재의 공주여고길 14-1(금학동 241번지)로 다시 이전하였다.³

1943년 충남 공주 출생의 화가 이경배(李慶培, 1898~1960)의 서화전시회가 강당에서 열렸다.



일제강점기 공주공립고등여학교의 강당 내부(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48362)



1932년 제1회 공주공립고등여학교 졸업앨범 속 학교 전경(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47203)



공주 읍서 속 공주공립고등여학교(1934~1949)의 전경(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50000809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43. 7. 21~7. 25	《이경배서화전람회》

² 공주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gongju-gh.cnehs.kr/>

³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3) 공주 공산성(산성공원)

충남 공주시 산성동과 금성동에 자리한 사적 제12호 공산성 안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산성공원으로 부른다. 산성공원의 총 면적(251,130㎡)은 공산성 전체 면적의 53.7%에 해당한다. 산성공원에는 금서루·공북루·진남루·동문루의 4개 성문과 쌍수정·영은사·명국삼장비·임류각 등이 있다. 금강을 바라보는 자리에 깊이 9m의 연못인 연지와 정자 만하루가 놓여있다.⁴ 총 14동의 목조 건물과 7개의 고건물 터가 있다. 성 안에 6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공산성 복원 계획에 따라 2007년 모두 철거되었다.

현재까지 공주를 대표하는 야외미술제인 금강자연미술제가 공산성의 산성공원에서 열린 유일한 전시회로 확인된다.



공산성 금서루(출처: 공유마당)



공산성과 산성공원(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5	《금강자연미술제》

⁴ 디지털공주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gongju.grandculture.net/gongju>

4) 공주 금강변(백사장)과 곰나루

공주를 동서로 흐르는 금강 주변과 나루터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곰나루는 공주의 옛 이름 웅진(熊津)을 한글로 풀어 쓴 이름으로 백제 웅진시기에는 고마나루라고 불렸다. 곰나루 즉 금강 나루터는 1910년 당시 공주 남부면에 속했으나 현재는 웅진동으로 변경되었다. 곰나루는 공주인들에게 유흥지와 같은 명소로 인식되었다.

금강 주변 및 곰나루에서 1991년 《금강자연미술제-자연미술야외설치전》이 열렸으며, 1995년에도 《자연미술야외설치전》이 열렸다. 이처럼 금강변은 공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연미술가 그룹의 전시장소로 이용되었다.



1970년대 금강과 곰나루 전경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39126)



《자연미술야외설치전》 현수막을 부착하는 모습, 1995년
(출처: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등록번호 MA-03-00007229)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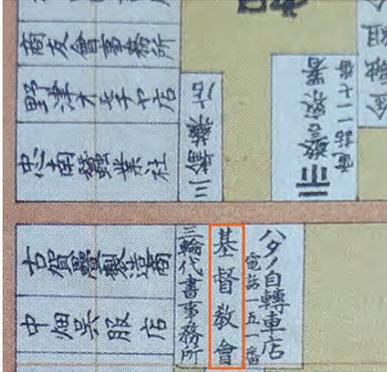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
1991. 7. 27~8. 5	《금강자연미술제-자연미술야외설치전》
1995. 8. 8~8. 14	《자연미술야외설치전》

5) 공주 기독교회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 공주시 남부면 하리동(현 앵산공원 서쪽 부근)에 있던 공주경찰서 건너편 삼륜대서사무소와 하타노자전거점 중간에 있었다.⁵

1902년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서 공주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한 후 스웨러 선교사가 김동현 전도사를 파송했다.⁶ 이 초가집에 김동현 전도사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이 기독교회(현 공주제일감리교회)의 시작이다.

북감리회에서는 협소한 예배공간의 확장을 위해 1년 후 인근의 초가 한 채를 더 구입하였다. 1908년에는 신도수가 300여 명으로 늘어 기존의 초가 교회(기독교회)가 협소해지자 미국 선교단체의 지원으로 협산자 예배당을 신축하였다.⁷ 1909년 9월 미국 감리회에서는 교파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교구역의 합의를 통해 공주를 주요 선교기지로 선정하였다. 공주제일감리교회의 연혁을 검토해 1929년 《공주서화 골동대회》가 열린 장소가 구체적으로 협산자 예배당임을 알 수 있었다.⁸



공주기독교회의 위치(출처: 『101개 공간으로 만나는 공주근대사-부록: 지도』,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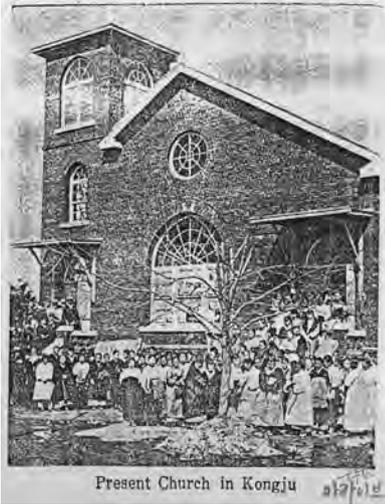
1903년 기독교회(출처: 공주기독교박물관 홈페이지)

⁵ 1926년 대전 15년에 발행된 지도를 기반으로 기독교회의 위치를 가능함. 출처: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101개 공간으로 만나는 공주근대사-부록: 지도』, 2021.

⁶ 위의 책, pp. 61~62. 공주 기독교회는 현재 공주제일감리교회의 전신이다. 공주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VAq9M9sVMVs>

⁷ 위의 책, pp. 61~62.

⁸ 제일기독교박물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당시 전시장소가 협산자 예배당임을 확인했다(2023. 10. 20).



1908년 건립된 협산자교회(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43234)



1931년 건립한 감리교회 예배당(현 공주기독교박물관)(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29	《공주서화 골동대회》

6) 공주 대화정 예배당

공주시 중학동에 있었으며 현재 영명학당 2길 33에 있다.

1926년 3월에 대화정(大和町) 예배당에서 영명여학교 주최로 《서화대회 및 학예회》가 열렸다. 당시 수백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⁹ 대화정 예배당은 근대식 생활 시설을 갖춘 붉은색 벽돌로 지은 선교사 관사를 의미한다. 선교사의 주거였던 3층의 서양식 건축물은 1920년 무렵 영명여학교의 부속 건물로 흡수되었다.¹⁰



대화정 예배당(구 선교사 가옥)(출처: <https://blog.naver.com/>)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26. 3. 18	《영명여학교의 서화대회와 학예회》

⁹ 「공주영명여학교의 서화대회와 학예회」, 『매일신보』(1926. 3. 18).

¹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엮음, 『근대도시 공주의 탄생』(메디치, 2021), p. 296.

7) 공주문예회관

공주시 고마나루길5에 있다.

1990년 10월 현재의 문예회관 건물을 준공·개관했다.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충남한국화회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등 대규모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했다. 2014년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전시실을 파트 연습실과 합창단 연습실로 변경해 현재 전시를 위한 전용공간은 없다. 즉 전시회는 열지 않고 주로 공연전용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2개의 전시실(전시실 1(140,19㎡), 전시실 2(248,70㎡))을 갖춘 아트센터고마가 개관하면서 문예회관의 전시공간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문예회관 외관(출처: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아트센터 고마의 외관(출처: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아트센터고마의 제1전시실 내부(출처: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0. 11. 1~11. 4	《제58회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1991. 10. 18~10. 23	《제59회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전》
1991. 10. 28~11. 3	《제7회 충남한국화회전》
1992. 9. 30~10. 4	《제8회 충남한국화회전》
1992. 11. 8~11. 15	《금강조각회전》
1993. 5. 13~5. 19	《공주교대 교수작품전》
1993. 6. 8~6. 14	《제20회 충남조각회전》
1993. 12. 2~12. 14	《금강조각회전》
1994. 5. 5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1994. 5. 10~5. 16	《공주대 교수작품전》
1994. 6. 15~2. 1	《한서연서전》
1994. 9. 27~10. 3	《제10회 충남한국화회전》
1994. 11. 19~11. 25	《강신철유작전》
1994. 11. 26	《공주사범대 미교과 동문전》
1995. 7. 19~7. 24	《한국부채그림전》
1996. 5. 11~5. 19	《정관모전》
1996. 5. 30~6. 3	《공주교대미교과교수작품전》
1997. 6. 11~6. 16	《최기성전》
1997. 9. 22~10. 5	《충남공예품경진대회》
1997. 10. 6~10. 11	《공주미협지부전》
1997. 10. 9~10. 12	《국제서화대전》
1997. 10. 15~10. 20	《공주전문대 산업공예디자인전》
1997. 10. 25~11. 1	《충남민족미술전》
1998. 9. 2~9. 6	《금강청년한국화전》
1998. 12. 1~12. 4	《제2회 공주시미술교수연합전》
1999. 5. 26~6. 1	《공주교육대학교수작품전》
1999. 9. 16~9. 20	《이석구전》

8)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에 있다.

1954년 2월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62년 교육청사(반죽동 274번지)로 이전했으나, 교육청사 반환으로 인해 1964년 공주읍사무소(반죽동 221-1) 2층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966년 공주읍 반죽동 184-2에 3층 건물을 준공해 옮겼다. 1994년 8월 24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법인 공주문화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1년 6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문화원 건물을 새로 건축했으며 2층에 제1전시실(162m²)을 두었다.

공주문화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나 단체의 전시회 개최에 머물지 않고, 《한국미협 공주지부전》, 《충남조각회전》, 《충남서예가협회전》 등 전국 규모의 전시를 유치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보였다. 나아가 공주 지역의 문화사업과 사회교육 사업 및 향토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54년 개원 당시 공주문화원 건물의 외관
(출처: 『공주문화원 50년사』, 2005, p. 49)



1955년 개원 1주년 서예전이 열린 공주문화원 내부
(출처: 『공주문화원 50년사』, 2005, p. 56)



현 공주문화원의 외관
(출처: https://blog.naver.com/cyber_gongju)



공주문화원 전시실 모습
(출처: <https://blog.naver.com/isle1226/221189902535>)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56	《이관구(李冠求) 향토미전》
1957	《국전 초대작가 현대회화전》
1962. 9. 21~9. 23	《공주고등학교 미우전》
1962. 11. 30~12. 3	《공주교대 교육미전》
1963	《김훈곤 · 송정기 서예개인전》
1964	《김기숙 화백 개인전》
1966. 10. 3~10. 9	《최홍수 서예 개인전》
1970	《충남서예전》
1972	《제1회 청양당한문연구회 서화전》
1973	《공주교대 정공회》
1974. 7. 12~7. 20	《하이포토회원전》
1975. 5. 6~5. 10	《제1회 그릴회》
1975	《제1회 세현서화실 작품전》
1975	《금강미회》
1976	《전국문화원합동주최전》
1979. 10. 13~10. 17	《제6회 충남조각회전》
1980. 9. 13~9. 16	《제1회 창공회전/제8회 精工전》
1984. 8. 19~8. 22	《제2회 울림 미술전시회》
1984. 11. 24~11. 28	《제4회 한국미협공주지부회원전》
1985. 12. 24~12. 28	《제8회 한길서양화전》
1987. 1. 22~1. 23	《김순기전》
1991. 9. 6~9. 8	《백제사우회창립전》
1995. 6. 1~6. 7	《임립전》
1995. 12. 23~12. 26	《제8회 늘갈회》
1997. 10. 14~10. 20	《충남서예가협회전》

9) 공주 봉산구락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공주 시내 봉황산이 있는 지역을 봉산골, 봉산동, 또는 봉촌 등으로 불렀던 점으로 미루어 봉황산길 근처로 짐작된다.¹¹ 봉산구락부의 위치를 찾고자 여러 문헌을 조사했으나 전혀 찾을 수 없었다.¹²

봉산구락부는 1921년 공주를 방문한 《김규진 서화전》과 1926년 수십 일 간 공주를 여행하던 우운 이남하의 《서화전람회》가 열렸던 장소로 전한다.¹³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21. 8. 9~8. 10	《해강 김규진 서화전》
1926. 6. 19	《우운 이남하의 서화전람회》

¹¹ 디지털공주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www.grandculture.net/gongju/>

¹² 서화전시회 외 공주청년수양회임원회를 개최한 기사를 접할 수 있어 당시 공주에서 널리 애용되었던 모임장소로 짐작된다. 『동아일보』(1922. 2. 15).

¹³ 「김규진석상후회」, 『동아일보』(1921. 8. 21) ; 「이남하 공주서화전람회」, 『시대일보』(1926. 6. 19). 구락부는 클럽(CLUB)의 일본식 표현으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기는 모임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건축학회 건축물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10) 공주사범학교 강당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있다. 1938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관립 공주여자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¹⁴ 1945년 공주공립여자사범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51년 남녀공학의 공주사범학교로 개편되었다. 1963년 사범학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주여자사범학교와 대전사범학교가 통폐합되면서 공주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82년 4년제 공주교육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3년 공주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¹⁵

1955년 공주사범학교 강당에서 《고서화전》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지만 전시된 작품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공주사범학교 전경, 1954(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2554)



공주사범학교 교문과 교사 전경, 1955(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780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55	《고서화전》

¹⁴ 「공주근대의 풍경」, 『공주학아카이브』

¹⁵ 나무위키 <https://namu.wiki/>

11) 공주 영명학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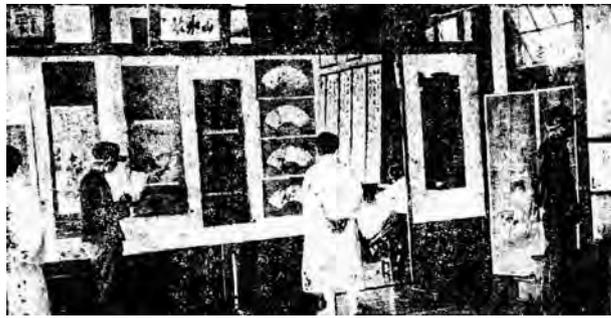
현재 공주시 영명학당 2길 33에 있다.

1906년 미국인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Frank E.C. Williams)이 설립하였다. 1921년 교사를 신축하였으나 2002년 헐렸다.

1930년 《공주 서화전람회》가 3일간 영명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나 강당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¹⁶ 학교 건물 중 비교적 넓은 공간인 강당을 전시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대 설립된 영명학교 외관(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48963)



《공주 서화전람회》, 1930, 영명학교 강당
(출처: 『동아일보』, 1930. 10. 2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30. 10. 16~10. 18	《공주 서화전람회》
1931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

¹⁶ 『동아일보』(1930. 10. 7).

12) 공주 원골마을

공주시 신충면 동원리 1(옛 원골마을)에 있다.

1990년 독일에서 귀국한 임동식이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거주하면서 “농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예술이자 생태예술”¹⁷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마을주민들과 전시를 기획했다. 이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의 회원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공동 전시《예술과 마을전》을 기획 개최하였다.¹⁸

1993년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의 회원을 비롯한 이상진·박봉기·반연희·문병탁 등 부산 지역의 청년 미술가들이 공주시 신충면 동원리 원골의 자연 환경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12월에 《제1회 예술과 마을전》을 개최했으며 연계행사 ‘예술과 원골’을 열어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청년 작가,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 열넷과 묶음, 원골 동리회가 모여 설치전과 함께 자연 미술 심포지엄을 선보였다.

《예술과 마을전》은 예술 문화와 농경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미술 작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제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예술 공연, 민속 놀이 시연 등의 축제를 벌이는 정례적인 예술제로 마을 주민들이 미술 작품 제작에 동참하면서 시골 마을에서는 유래가 없는 자연 예술 축제로 발전하였다. 2000년부터는 원골의 주민운영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작가와 학생들을 초대하여 《예술과 마을전》을 연례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제12회 예술과 마을전》은 2008년 7월~8월 원골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되었다. ‘예술이 곧 농사고 농사가 곧 예술’이라는 주제로 농사가 진정한 의미의 자연, 대지, 생태 예술임과 동시에 농민은 자연 생명 예술가임을 선언하고 주민들간의 새로운 유대감과 삶의 활력을 얻는 축제로 진행되었다.¹⁹

17 「“꽃과 푸들풀에 경배를!”」 『중앙일보』(2023. 9. 5).

18 디지털공주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gongju.grandculture.net/>

19 위의 자료



《예술과 마을제》 안내문, 2005
 (출처: 디지털공주문화대전 홈페이지)



원골예술길 안내판, 2017
 (출처: <https://blog.naver.com>)



김용수, <침묵>, 1998, 《예술과 마을전》 출품작
 (출처: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임동식 컬렉션」)



《제8회 예술과 마을 미술제전》 출품작, 2006
 (출처: <https://www.newstown.co.kr>)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3. 12. 20~1994. 1. 20	《예술과 원골전》
1998. 8. 14~8. 22	《98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제》
1998. 9. 4~9. 22	《예술과 마을》

13) 공주읍사무소

공주시 우체국길 8에 있다. 1923년 충남금융조합연합회관으로 건립됐으나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후 공실이 됐다. 1934년부터 1985년까지 공주읍사무소로 사용했으며 1986년 공주시로 승격된 이후 시청으로 활용되었다. 1989년 공주시청 건물이 신축되자 민간에 매각되어 미술학원으로 이용되었다. 2008년 공주시가 옛 시청 건물을 근대건축문화재로 새롭게 평가해 다시 매입해 2009년 등록문화재(제443호)로 지정하였다. 2014년 5월 26일 공주역사영상관으로 정비해 개관했으며, 2021년 8월 원래의 모습에 가깝도록 수리해 재개관했다. 화강암으로 된 지대석 위에 붉은 벽돌을 쌓은 후 안팎을 다른 재료로 꾸민 지상 2층의 전형적인 조적조 건물이다. 전시장으로 활용된 사례는 1956년 열린 《미국명화전》이 유일하다. 미국공보원에서 주최한 전시회로 서울 미대사관 소극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전시였다.



1954년 공주읍사무소 앞 공주사범학교 재학생 사진(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52567)



2021년 수리 후 개관(출처: <https://blog.naver.com/>)



2021년 수리 후 1층 실내 모습(출처: 공주공식블로그)



2021년 수리 후 2층 실내 모습(출처: 공주공식블로그)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56	《미국명화전》

14) 공주 임립미술관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에 있다.

공주 출신의 서양화가 임병립(임립, 1945~)이 1997년 10월에 설립하였다. 임립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입화랑도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꾸준히 공주 국제미술제를 개최하여 공주가 세계미술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999년까지 개최된 전시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2000년 이후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향토작가 초대전》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임립미술관 야외전시장(출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번호 200048980)



임립미술관 입구(출처: 임립미술관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2004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

15) 공주 자연미술의 집

1990년 8월 자연미술연구회가 공주시 반죽동에 자리한 옛 공주읍사무소를 임대해 4개월간 리모델링을 통해 ‘야투 자연미술의 집’을 열었다.²⁰ 현재는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14-1에 있다.

1990년 12월에 첫 전시 《자유로운 수단전》을 열었으며, 1991년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을 개최했다. 야투를 처음 창설한 임동식이 1990년 독일에서 귀국해 공주시 원골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 회원전이 원골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자연미술의 집 외관, 1990(출처: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 MA-03-00007212)



자연미술의 집 외관, 1991(출처: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 MA-03-00007212)



원골마을에 있는 자연미술의 집 안내판(출처: https://blog.naver.com/cyber_gongju/221115262323)



자연미술의 집 안내판(출처: https://blog.naver.com/cyber_gongju/22111526232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0. 12. 15~1. 20	《자유로운 수단전》
1991. 7. 14~8. 11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²⁰ 화가 임동식이 81년 국내 최초 자연미술운동그룹 ‘야투’(野投·'들로 던진다'는 뜻)를 설립하였다. 임동식은 독일에서 귀국 후 공주 원골마을에 거주하면서 ‘예술과 마을’ 자연예술가와 화가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지속했다.

1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로 1559에 있다.

문화원의 설립인가에 앞서 지역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 1967년 8월 금산읍 하옥리 산13-1에 전시실을 갖춘 원사를 신축했다. 1984년 원사의 노후화로 구 금산보건소가 있던 자리(금산읍 상리 176-43)로 이전하였다. 1989년 건물 보수 및 시설 보강을 진행한 후 1층에 금목회, 2층에 금동인회 등 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입주하였다. 1994년 사단법인 금산문화원에서 공익법인 금산문화원으로 변경하였다. 2004년 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도서관, 청산회관과 청산별관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인 문화의집 ‘금산다락원’(금성면 양전리 68번지)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금산문화원은 금산문화예술제의 개최를 통해 금동인회와 금목회 등 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1967년 금산문화원의 모습(출처: 『금산문화원 50년사』, 2017)



금산다락원의 전경(출처: 『디트뉴스24』, 2023. 10. 2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2. 12	《제1회 삼향시화전》
1988. 10. 8~10. 15	《제10회 금동인전》
1989	《제1회 금목회전》
1990	《제2회 금목회전》

17) 금산 청산회관 갤러리

금산군 금산로 1559에 있다.

1983년 금산 출신의 재일교포 청산 광유지가 2층 건물을 기증하여 만든 것이 청산회관이다. 1992년 광유지가 추가로 기증한 청산별관은 기와지붕의 1층 건물로 약 10여 년 인삼박물관으로 운영되었다. 현재 별관은 전시전용공간인 청산아트홀로 활용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2010년 재건축을 거쳐 현재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완성되어 금산군 소속의 여러 기관이 입주한 상태이다.²¹ 1999년 열린 금목회의 전시는 청산회관 본관에서 열렸을 가능성이 높으나 당시 본관에는 별도의 전시공간이 없었다.²²



청산아트홀(출처: 금산군 금산홍보관 누리집 <https://www.geumsan.go.kr/>)



현 청산회관의 외관(출처: 『아시아뉴스통신』, 2016. 2. 18)



청산아트홀 전시실 전경(출처: 『금산중앙신문』, 2008. 6. 2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9	《금목회전》

²¹ 『충청투데이』(2008. 12. 28).

²² 청산회관 관계자와 전화 통화로 재건축 이전 본관에 전시실 여부를 문의했는데 없었다고 하였다(2023. 10. 23).

18) 논산군민회관

논산시 시민로 270에 있다. 1985년 8월 논산군민회관으로 설립하였다. 1996년 3월 논산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1년 회관 전체의 리모델링을 실시해 ‘논산시문화예술회관’으로 새로 탄생했으며 1층에 전시실이 있었다.²³ 2021년 ‘논산아트센터’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 논산아트센터는 2개의 공연장과 사무실, 접견실, 로비로 구성되었으나 전시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논산 아트센터(구 논산군민회관)의 전경(출처: 논산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www.nonsan.go.kr/>)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7. 11. 16~11. 21	《제15회 놀뫼미술회회원전》
1997. 10. 21~10. 27	《향토미술전》

²³ 논산군민회관 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1층에 전시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2023. 10. 25).

19) 논산 태림상가

태림상가는 논산의 명동으로 불리는 변화가인 반월동에 있던 논산시 최초의 초고층빌딩인 지상 10층의 아원빌딩과 인접한 곳에 있었다.²⁴ 건물 안에 태림사진관이 있었으며 논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놀피사진회 회원들이 주로 이용했다.²⁵

1988년 1월에 결성된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가 12월 《한국미협 논산지부 창립전》을 태림상가에서 열었다.²⁶ 기록에는 특별전시실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태림상가는 미완공 상태로 2층이 비어있었다. 논산미협 회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논산미술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해 전시회 개최를 허가받았다. 당시 미완공 상태의 건물에서 전시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²⁷

현재 태림상가는 소유주가 변경돼 더 이상 상호명이 남아있지 않다. 논산에서 결성된 미술협회의 창립전이 열렸던 장소로 당시 척박했던 전시환경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태림상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논산 반월동 중심가(출처: 『충청투데이』, 2006. 2. 1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12. 17~12. 22	《한국미협 논산지부 창립전》

²⁴ 『충청투데이』(2005. 2. 17).

²⁵ 『굿모닝 논산&계룡』(2017. 8. 18.)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태림상가의 위치를 추정했다.

²⁶ 『논산계룡일보』(2019. 11. 13).

²⁷ 『2020 근현대미술채록사업-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p. 346.

20) 논산 화지산신용협동조합

전시가 개최된 장소는 논산시 중앙로 410번지 길 3(구 취암동 1047-6)에 자리한 본점으로 짐작된다. 화지산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1월 논산에서 창립되었다. 현재 논산 본점 외 중앙지점, 강경지점, 남부지점, 계룡지점을 두고 있다. 논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놀이사진회 회원전》(1986년~)과 《미협 논산지부 회원전》(1994년~)을 꾸준히 개최하였다. 신협 본점에 별도의 전시공간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3층의 회의실을 필요에 따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⁸



신협이 있는 건물의 외관
(출처: 『굿모닝 논산&계룡』, 2022. 2. 8)



신협 입구
(출처: <https://blog.naver.com>)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6. 11. 23~11. 27	《제7회 놀이사진회 회원전》
1991. 5. 7~5. 9	《제19회 놀이미술회 회원전》
1991. 12. 2~12. 6	《박춘화전》
1992. 12. 10~12. 13	《제1회 사진협회 논산지부 창립전》
1994. 11. 8~11. 11	《제7회 한국미협 논산지부 회원전》
1996. 10. 12~10. 18	《제9회 한국미협 논산지부 회원전》
1997. 10. 21~10. 27	《향토사진전》
1998. 5. 23~5. 31	《논산미술창작실순회전》
1998. 12. 5~12. 14	《제11회 한국미협 논산지부 회원전》

²⁸ 신협 총무과 직원에게 문의한 내용이다(2023.11. 10).

21) 당진문화원

당진군 남산공원길 151-16에 있다. 1955년 9월 처음 개관하였으며 1958년 주한미군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했다. 1965년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당진읍 읍내리 515에 자리 잡았다.²⁹ 1981년 당진읍 읍내리 528-3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99년 현 위치로 다시 옮겼다. 지상 3층 건물의 3층에 있는 다목적실을 필요에 따라 전시실로 활용하였다. 이전까지 전시회를 중점적으로 유치·개최한 기록은 보지 않는다. 2018년 12월 당진문화원 건물의 2층에 당진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으며, 전시회가 있을 때 건물 2~3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955년 개관한 당진문화원의 긴 역사에 비해 1979년에 열린 당진 소재 예그린 화실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가 첫 전시회로 확인된다.



옛 당진문화원(당진읍 읍내리 515 소재)
(출처: 『당진문화원40년사』, 1995, p. 19)



2023년 당진문화원 전경(출처: 『당진신문』, 2016. 10. 5)



2층 전시장을 갖춘 당진생활문화센터의 전경(출처: <https://m.blog.naver.com/dangjin2030/>)



당진생활문화센터 2층의 전시공간
(출처: 당진문화원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8. 6. 12~6. 15	《예그린 화실 제1회 작품전시회》

²⁹ 『당진문화원60년사(통산)1955~2015년』(충남당진문화원, 2015).

22) 당진 유림회관

당진시 당진시장길 124에 있다.

유림회관은 1500년대 건립돼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 당진 향교의 부속 건물로 1984년 3월 건립됐다. 유림회관의 2~4층에는 예식장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예식장을 전시회나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³⁰ 현재 유림회관에서 예식장은 철수하고 3층은 향교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다.



당진 향교(출처: 디지털당진문화대전 홈페이지)



유림회관의 모습
(출처: <https://twitter.com/Cynelle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5	《제3회 학동인전》

³⁰ 당진유림회관 사무실에 전화해 확인했다(2023. 10. 20).

23)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정확한 명칭은 충청은행 당진지점으로 1980년 12월 22일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6-27번지에 개점했다.³¹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충청은행 당진지점의 지하에 있던 수선화공간은 전문전시공간이 부족한 당진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시회 개최 및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다.³²



1980년 충청은행 개업 현수막(출처: 『충청투데이』, 2008. 2. 1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2. 10. 24~10. 30	《제19회 충남서예가협회전》
1994. 6. 28~7. 2	《서해판화조형전》
1994. 12. 1~12. 3	《아마사진클럽창립전》
1996. 10. 24~10. 30	《제23회 충남서예가협회전》
1996. 10. 30~11. 7	《제6회 새터전》
1996	《제16회 학동인전》

³¹ 충청은행은 1968년 4월 22일 대전시 중동 92-2에 자리한 4층 건물을 본점으로 개업했다. 1976년 11월 대전시 은행동 48-1번지에 본점을 신축 준공하였다. 이어 충청은행 본점은 1993년 11월 29일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6-1로 이전하였다. 「제5절 점포」, 『충청은행 20년사: 1968~1988』(충청은행, 1988), p. 171.

³² 『당진시대』(1996. 10. 14).

24) 당진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5-5번지에 있었다.³³

1966년 2월 10일 충남 대건신용협동조합을 창립했다. 1989년 자체회관(운산리 265-5)을 준공하고 1997년 순성지소(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92-6)를 개소했다. 운산리 소재 회관에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짐작된다. 1998년 신협공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나 2002년 11월 4일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폐업하였다.³⁴



합덕신협 건물 외관
(출처: 『합덕대건신협』 7호, 2001)



합덕대건신협이 연 2회 발간한 잡지의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1	《제1회 이종호 개인전》
1995	《'95 미술의 해 기념 전시회》

³³ 1966년 개소 당시는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73-64번지에 있었다. 이후 1989년 운산리 265-5로 이전하였다.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합덕대건신협』(2001. 7)에 실린 주소이다.

³⁴ 『당진시대』(1998. 3. 2).

25) 대전 KBS방송국

현재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에 있다. 정식 명칭은 KBS 대전방송총국이며, 1943년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 대전방송국으로 출발하였다.³⁵ 1961년 중구 대흥동 청사로 이전했다. 1973년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국으로 승격됐으며 1978년 중구 목동에 대전방송국 신청사를 준공했다. 건물 내 전시 전용 공간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86년 대전방송총국으로 승격됐으며 1998년 대전 서구 만년동에 신사옥을 완공 이전했다.³⁶ 신사옥 이전 후 전시를 꾸준히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사옥 본관 로비와 공개홀 로비를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다.³⁷



대전방송국 개소 기념 현수막이 걸린 충남문화회관
(출처: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대전중구문화원, 199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8. 10. 15~10. 31	《KBS미술초대전-평면 조각 설치전》
1999. 6. 18~7. 3	《유동조전》
1999. 9. 6~9. 13	《대전도예가회전》
1999. 11. 6~11. 12	《충남조각연구회전》

³⁵ 나무위키 <https://namu.wiki/>

³⁶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³⁷ KBS홍보실 전시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전시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였다(2023. 10. 25).

26) 대전 MBC문화공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4-5번지에 있다. 1964년 대전시 중구 대흥동 495번지 대한생명회관의 옛 건물에 있던 사옥에서 첫 전파 발사를 시작하였다.³⁸ 1971년 9월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방송국 내 전시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1986년 《MBC개국 기념 초대전》을 시작으로 《한국화 증견작가 초대전》 등을 열었다.³⁹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1988년 《제18회 충청남도미술대전》을 개최할 정도의 공간을 지녔으며, 전문미술인부터 학원과 동아리 중심의 아마추어까지 다양한 수준의 미술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선화동 옛 사옥(1976~2003)
(출처: <https://cafe.naver.com/tvradio>)



현 도룡동 사옥(출처: 두산백과)

전시이력

연도	연혁
1964	첫 전파 발사(대흥동 495번지 소재)
1971. 5.	대전텔레비전 방송 주식회사 개국
1971. 9.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 사명 변경
1972. 12. 29	대전시 동구 정동 36-4(일락빌딩)으로 이전
1977. 10. 7	대전시 선화동 381-171로 신축 이전
1979. 9. 26	라디오 텔레비전 개국기념일을 통합
2003. 6. 11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4-5번지 신축 이전

³⁸ 나무위키 <https://namu.wiki/>

³⁹ 대전MBC에 선화동 사옥에 있었던 ‘문화공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현 도룡동 사옥의 1층에 M갤러리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2023. 10. 25). 선화동 사옥의 1층에도 문화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일자	전시명
1986	《MBC개국기념 초대전》
1986. 11. 29~12. 5	《묵상회 회원전》
1986	《한국화 중견작가 초대전》
1987. 5. 12~5. 17	《87 르뽁상황전》
1987. 5. 27~6. 1	《석현서회전》
1987. 9. 24~9. 30	《아름다운 금강전》
1987. 12. 2~12. 8	《제10회 송암한묵회전》
1987. 10. 13~10. 19	《제1회 연우회전》
1987. 11. 24~11. 30	《제2회 충남회화10인전》
1987. 9. 12~9. 18	《일청회전》
1988. 8. 24~8. 28	《13인 모색전》
1988. 10. 25~10. 30	《1988 묵화전》
1988. 11. 11~11. 17	《대전구상작가회전》
1988. 5. 11~5. 16	《신세대묵회전》
1988. 9. 19~9. 28	《아름다운 금강전》
1988. 4. 23~5. 8	《제18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1988. 4. 4~4. 10	《제3회 충남조각연구회전》
1988. 10. 13~10. 19	《제5회 도도회전》
1988. 6. 3~6. 6	《충남서예가협회회원전》
1989. 3. 6~3. 9	《13인 모색전》
1989. 5. 4~5. 7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전》
1990. 5. 4~5. 8	《한국화 새흐름전》
1990. 7. 8~7. 14	《제5회 충청서단전》
1990	《르뽁동인회 창설 15주년 100호전》
1991. 5. 10~5. 15	《한국화 신조명전》
1991. 12. 23~12. 30	《구상작가 100인전》
1991. 12. 25~12. 29	《제3회 장연회서전》
1994. 10. 18~10. 24	《한남대교수초대전》
1994. 11. 1~11. 6	《제9회 OPUS전》

27) 대전 가톨릭문화회관

현재 대전시 중구 대종로 471(대흥1동 189번지)에 있다. 대흥동 성당 옆에 있으며 바오로 딸, 공간 1919 등이 입주한 복합용도의 건물이다.

1965년 대전교구 2대 교구장이 건립 계획을 수립해 1971년 10월 23일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500석 규모의 대강당, 120석 규모의 소강당 외 강의실, 회의실과 전시실을 갖추었다.⁴⁰ 가톨릭문화회관의 건립은 당시 대중적인 소통의 장소가 드문 대전에 대규모 전시와 문화행사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했다.⁴¹

1973년 대규모 전시인 《충청남도미술전람회》를 개최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는 종교시설로서 역할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톨릭문화회관의 모습(출처: 대전중구문화원 『향토문화자료 7 중구문화길라잡이』, 1998, p. 19)



현 가톨릭문화회관의 모습(출처: 구글맵)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3. 5. 21~5. 27	《제3회 충청남도미술전람회》
1977. 4. 24~4. 26	《대전향전(香田)회원소장 고서화전》
1977. 4. 22~4. 26	《대전우석회 제1회 수석전》
1981. 11. 19~11. 22	《제1회 송산서화전》

⁴⁰ 『향토문화자료 대흥동이야기』 제24집(대전중구문화원, 2014), p. 110.

⁴¹ 위의 책, p. 111.

28) 대전 경암빌딩 화랑

대전시 중구 중앙로 76(구 대흥동 501-1)에 있었다.⁴²

경암빌딩은 1973년 중도일보가 강제 폐간되기 이전에 사옥으로 활용한 건물이다.⁴³ 당시 경암빌딩의 지하에 화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암빌딩은 1997년 IMF 당시 모회사인 서우주택건설의 부도로 매각되어 현재는 영민빌딩으로 불린다.⁴⁴

1974년 충남 거주 홍대동문들의 모임전을 유치한 기록이 확인된다.



경암빌딩의 모습(출처: 『중도일보』, 2011. 11. 7)



현 영민(경암)빌딩의 모습
(출처: <https://blog.naver.com/>)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4. 11. 23~11. 29	《제2회 홍대동문전》

⁴² 현재는 영민빌딩으로 불린다.

⁴³ 『중도일보』(2011. 11. 7).

⁴⁴ 『충청투데이』(2003. 3. 15) 서우주택건설의 부도로 경민빌딩에 입주해 있던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산하 기관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29) 대전 공간사랑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전 문화의 중심지였던 대흥동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업종은 찻집이었으며, 대전 중심의 문화예술인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였다.⁴⁵ 많은 다방이 전시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면서 화랑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과 달리 찻집으로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활동했던 김치중, 권영우, 이재호, 김배희, 정명희 등 주요화가들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1984년 송년기획전》, 《1985년 정명희 초대전》, 《1989년 공간사랑 초대전》을 개최한 것으로 미루어 전시를 기획할만한 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기록에 의하면 늦어도 1989년까지 운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폐업 전까지 꾸준히 전시회를 유치한 듯하나 아쉽게도 시각 이미지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1. 6. 27~7. 27	《김치중 소품전》
1981. 10. 10~10. 11	《권영우 작품전》
1981. 11. 11~12. 10	《이재호 동양화 소품전》
1981. 12. 11~1. 11	《김배희 소품 초대전》
1982. 2. 12~3. 11	《이한구 서양화전》
1982. 3. 2~4. 11	《김석기 동양화전》
1982. 6. 12~7. 11	《민공기 소품전》
1982. 9. 12~10. 11	《김창규 사진전》
1982. 10. 12~11. 11	《정명희 작품전》
1982	《10인 초대전》
1983. 2. 15~3. 15	《신동주 작품전》
1983. 3. 15~4. 11	《김재선 작품전》
1983. 10. 5~10. 15	《홍용성 동판화전》
1983. 12. 4~12. 10	《정영복 유화전》
1984. 3. 20~3. 31	《대전 IMAGE전》
1984. 4. 1~4. 30	《충남한국화전》
1984. 5. 14~5. 19	《김선경 작품전》

⁴⁵ 『경향신문』(1987. 6. 13).

전시일자	전시명
1984. 5. 16~5. 31	《문정규 수채화전》
1984. 7. 15	《일요스케치 회원전》
1984. 8. 1~8. 15	《제13회 시공 '84 순회전》
1984. 11. 1~11. 15	《제3회 배수호 사진전》
1984. 12. 11~12. 20	《공간사랑송년기획전》
1985. 3. 1~3. 5	《이상봉 · 한승희 2인 사진전》
1985. 8. 1~8. 15	《윤경상 사진전》
1985. 9. 1~9. 5	《정명희 천리 금강송 초대전》
1985. 9. 16~9. 30	《윤옥희전》
1985. 10. 16~10. 31	《방묵희전》
1986. 2. 1~2. 15	《송영호 작품전》
1986. 2. 16~2. 28	《윤경상 사진전》
1989	《공간사랑 초대전》

30) 대전 근대화랑

대전 대덕군청 건너편에 있었다,

화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1982년에 열린 전시회만 확인되는데 대전지역 홍익대 회화과 동문의 모임인 《르뽀동인 초대전》을 1982년 개최한 것으로 전한다. 당시 강성렬, 권영우, 김관호, 김영배, 김세중, 박명규, 박봉춘, 신동주, 지형민 등이 참여하였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2. 2. 6~2. 11	《서태섭동양화전》
1982. 2. 15~3. 15	《제5회전: 근대화랑 개관기념 르뽀동인 초대전》
1982. 11. 10~11. 15	《정석순작품전》

31)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에 있다.

1949년 10월 대전시 동구 삼성동 387번지에서 창립한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이듬해 3월 대덕군 회덕면 중리 산 21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979년 12월 회관의 건립을 시작해 1981년 11월 대전 중구 문화동 1-31번지에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을 준공하였다.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에 허진권 작가가 운영한 갤러리가 있었다.⁴⁶ 대전시민회관과 같은 해 개관해 당시 부족한 문화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89년 11월 회관 증축을 거쳐 강당과 예식장을 갖추었다.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모습(출처: <https://blog.naver.com/drcentr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2. 8~12. 14	《84 한남디자인전》
1984	《제2회 백제미술대전》
1985. 11. 30~12. 6	《한남대 응용미술과 졸업 및 재학생전》

⁴⁶ 전시기록에서는 '기독교회관'으로 표기되었는데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이 원래 이름이다.

32) 대전 남계화랑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시청 앞 골목에 있었다.⁴⁷

서예가 남계 조종국(1943~)이 1977년 개원해 약 3년간 운영했다. 개관전으로 《6대 화가 소장품전》을 개최했으며 이후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선보인 《대전'78세대전》을 지속적으로 유치했다.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작품전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했으나 적자운영으로 폐관했다.⁴⁸ 약 3년간 다양한 전시회를 유치했으나 아쉽게도 전시관련 사진자료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7	《남계화랑 개관전-6대 화가 소장품전》
1978. 1. 17~1. 23	《이영수 동양화 도자기전》
1978. 1. 25~1. 29	《곽남배 동양화전》
1978. 2. 27~3. 6	《조종현 초대전》
1978. 3. 5~3. 20	《송전대 교수 작품전》
1978. 4. 17~4. 23	《동양화 중견 10인전》
1978. 4. 25~4. 30	《이종근 작품전》
1978. 5. 1~5. 6	《손기종 개인전》
1978. 5. 1~5. 7	《이동천 초대전》
1978. 10. 14~10. 18	《제1회 대전'78세대전》
1978. 12. 27~12. 29	《제2회 대전'78세대전》
1979. 5. 1~5. 6	《제3회 대전'78세대전》
1979. 6. 10~6. 16	《이건용 드로잉 이벤트전》
1979. 12. 4~12. 8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전》
1979. 12. 11~12. 16	《이근순 · 정태희 · 조종국 합동서예전》
1979	《임선빈 초대 개인전》
1979	《충남서예가협회전》

⁴⁷ 조종국 서예가와 전화 통화로 문의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2023. 10. 12).

⁴⁸ 조종국 서예가와 연락을 통해 남계화랑 관련 사진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자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2023. 10. 12). 남계화랑 관련 이야기는 『남계 조종국 예술혼 50년』(오늘의 문학사, 2018), pp. 34~36.

33) 대전고등학교 강당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10에 있다.

1917년 4월 관립 경성중학교 대전분실로 설치되었다. 1950년 학제 개편에 따라 대전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1975년 강당을 준공하였으며 이듬해 이곳에서 《제6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10월 교사를 신축해 전시회가 열렸던 강당은 남아있지 않다.



1927년 엽서 속 대전공립중학교(대전고등학교)
(출처: 『다트뉴스24』, 2017. 5. 15)



2023년 현재 대전고등학교 전경(출처: <https://namu.wi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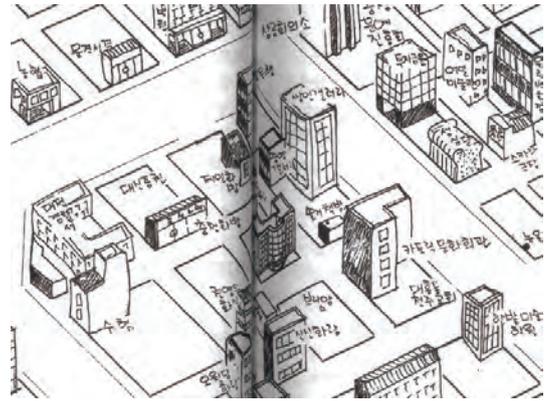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6. 6. 19~6. 29	《제6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34) 대전 대전미술관

대전시 중구 대흥동 화랑거리에 중앙갤러리, 쌍인갤러리, 솔거책방 등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다.⁴⁹ 1987년 원로작가를 초대해 개관전을 열었으며 1990년 초까지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확인되는 바가 없어 폐관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대전미술관은 약 165㎡ 규모의 오디오시설을 완비한 공간으로 지하에 있었다.⁵⁰ 당시 초대관장은 현대미술관 전시기 획자였던 윤영호가 맡았다.⁵¹

《충남구상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임립, 재불 작가 이항성 초대전 등 다양한 기획 초대전을 모색하며 활발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미술관이 있었을 대흥동 화랑거리의 지도(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1989, pp. 67~6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7. 9. 11~9. 29	《대전미술관 개관기념 원로작가 초대전》
1987. 9. 30~10. 13	《충남구상작가 초대전》
1987. 10. 15~10. 28	《전호 수채화전》
1987. 10. 30~11. 8	《임립 초대전》
1987. 11. 17~11. 26	《재불화가 이항성 초대전》
1987. 11. 27~12. 10	《백낙종 초대전》
1987. 12. 11~12. 28	《남헌 서정철의 풍속화 초대전》
1988. 1. 4~1. 31	《원로작가 신년기획전》
1988. 2. 1~2. 13	《신춘기획 서양화 16인 초대전》
1988. 3. 2~3. 16	《구상조각 12인 초대전》

⁴⁹ 『향토문화자료집 제26집-은행동이야기』(대전중구문화원, 2018), p. 13; 『대전예술 창간호』(1989)에 실린 문화지도에 쌍인갤러리, 중앙갤러리, 솔거책방 등은 등장하나 대전미술관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화번호가 등장해 이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대전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 임선빈 조각가에게 대전미술관에 관해 문의했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은행동 소재 건물 2층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2023.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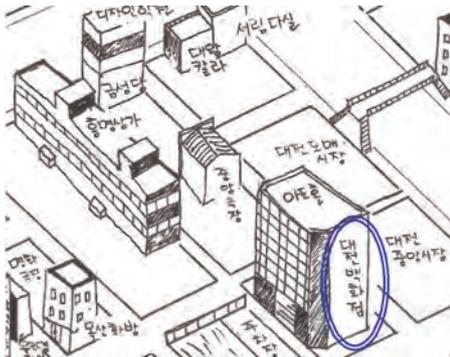
⁵⁰ 『조선일보』(1987. 9. 11). 임선빈 조각가의 기억 속 장소와 차이를 보인다.

⁵¹ 『동아일보』(1987. 9. 9).

전시일자	전시명
1988. 3. 17~3. 28	《심옹택전》
1988. 3. 31~4. 12	《전호 장미작품전》
1988. 5. 10~5. 24	《정해일전》
1988. 7. 5~7. 17	《조각 5인 신작전(임선빈, 유영교, 박병희, 신현진, 김영대)》
1988. 9. 1~9. 20	《한국현대미술초대전》
1988. 11. 15~11. 30	《박용인전》
1988. 12. 5~12. 19	《관화와 수채화의 만남전(박동일과 전호)》
1989. 1. 20~2. 2	《대전직할시 승격 기념 서양화 6인전》
1989. 2. 10~2. 28	《한국미술명가전》
1989. 3. 28~4. 4	《김영순 작품전》
1989. 5. 3~5. 16	《김명식 초대전》
1989. 10. 10~10. 19	《제1회 대전조각가협회 창립전》
1989. 12. 12~12. 19	《황상근 작품전》
1990. 1. 25~1. 31	《신춘기획전》
1990. 2. 15~2. 19	《중국현대채목전》

35) 대전백화점

대전 동구 중앙동 63-4에 있었다. 종합쇼핑몰 형태의 신도백화점을 인수해 1987년 6월 원동에 개업하였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과 5층에 아트홀이 들어선 복합문화시설이었다. 개관한 이듬해인 1988년 한해 다양한 전시를 열었으며 홍명상가, 대전도매시장, 대전중앙시장 등 상업지구에 자리했으나 1999년 12월 폐업했다.⁵²



대전백화점의 위치(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충청문화예술진흥회, 1989, p. 67)



대전백화점 외관(출처: 『중도일보』, 2009. 7. 2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1. 25~2. 7	《서양화 중견작가 7인 초대전》
1988. 2. 20~3. 1	《이항 초대전》
1988. 2. 29~3. 15	《서양화 소품 초대전》
1988. 3. 16~3. 31	《의천 정문산 목공예초대전》
1988. 4. 9~4. 11	《애호가를 위한 한국화소품전》
1988. 4. 12~4. 25	《서양화 4인 초대전》
1988. 5. 30~6. 6	《이근희전》
1988. 6. 3~6. 6	《이양선 서양화 개인전》
1988. 7. 23~8. 7	《김환경 전통목칠공예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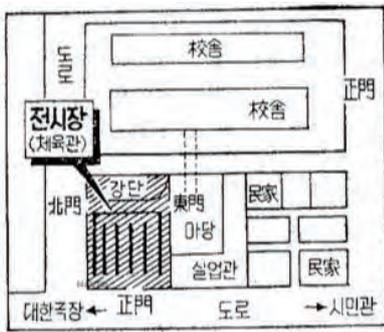
⁵² 『매일경제신문』(1999. 11. 26).

36)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대전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 31(구 중구 선화동)에 있다.

대전 유일 상업계열 고등학교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는 1948년 대전고등공민학교로 출발했다. 1959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3개 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78년과 1979년 연이어 대전여상 강당(실내체육관)에서 제8·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과 《충남미술전람회》와 같은 대규모 전시가 열렸다. 이는 1970년대 당시 대전 내에 전국적인 규모의 전시를 유치할 만한 전시공간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1978년 대전여상 강당에서 열린 《제27회 국전 입상작 순회전》(11. 7~11. 20)에서 전시종료 이틀 전 전시작품 165점 중 추천 초대작가 작품 58점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⁵⁴ 1959년 지은 건물을 지속적으로 개보수와 중축하며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나 전시회가 열린 강당에 관한 사진은 찾을 수 없었다.



1978년 도난 당시 강당의 위치를 보여주는 도면 (출처: 『동아일보』, 1978. 11. 20.)



빈 액자만 남은 전시장 모습(출처: 『동아일보』, 1978. 11. 2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8. 6. 30~7. 7	《제8회 충남미술전람회》
1978. 11. 7~11. 20	《제27회 국전 순회전》
1979. 6. 1~6. 10	《제9회 충남미술전람회》 ⁵⁵

⁵³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를 통해 학교 사진을 입수했으나 강당이 있는 사진은 없었다.

⁵⁴ 당시 속직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시관을 비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1978. 11. 20); 『조선일보』(1978. 11. 21).

⁵⁵ 충남예총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1984년 제14회부터 《충청남도미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 제28회부터는 《충청남도 미술사진서 예문인화대전》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예총충남도지회와 미술협회충남도지회, 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04년 제34회부터 다시 《충청남도미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가 주최하고 있다. 『제5절 충청남도미술대전과 미술협회전』, 『충청남도지 24』(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 223.

37) 대전 동양백화점

1980년 11월 27일 영화관 '시민관'(대전시 중구 선화동 3-14)이 있던 자리에 개업했다. 지하 4층, 지상 12층의 건물로 3층에 전문전시공간을 마련해 동양화, 초상화 등 다양한 전시회를 유치해 백화점 이용객들에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IMF와 무리한 영업장 확장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2000년 한화 갤러리아에 인수되었다.⁵⁶



1989년 동양백화점과 중앙로(출처: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1990)



동양백화점 외관(출처: 『향토문화자료 7-중구문화 길라잡이』, 199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2. 9. 13~9. 17	《동양화전》
1982. 11. 25~12. 5	《한국도예가전》
1982. 12. 18~12. 24	《제1회 도원회전》
1983. 9. 29~10. 4	《제2회 도원회전》
1983. 10. 7~10. 22	《화송회 초상화작품전》
1988. 3. 11~3. 20	《한국화 자선 초대전》

⁵⁶ 1997년 둔산동 1038번지 동양백화점 둔산점을 개점하면서 무리한 자금 조달로 한화그룹에 인수되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다시 NC백화점에 매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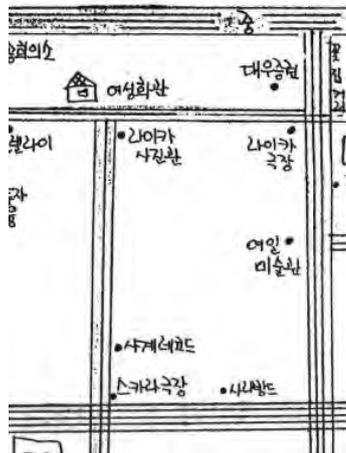
38) 대전 라이카·여일 화랑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대전 은행동에 있었던 라이카예식장 옆에 사진작가 박여일이 라이카 사진관과 여일화랑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짐작된다.⁵⁷ 당시 여일화랑이 라이카예식장 옆에 있었으므로 라이카화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⁵⁸

라이카사진관과 여일화랑을 운영한 박여일(1915~?)은 1945년 해방 직후 대전극장 앞에 라이카 사진관을 열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1964년 라이카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기록을 보면 예식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⁶⁰ 반면 1980년 여일화랑 개관전이 열린 점으로 미루어 화랑은 뒤늦게 개관한 것으로 보인다.⁶¹ 여일미술관, 여일화랑 등 명칭이 혼용되었으며 1990년 이후 전시를 개최한 이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후 폐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²



라이카다방과 라이카사진관의 위치(대전중구문화원, 『향토문화자료 : 제26집 은행동 이야기』, 2018, p. 5.)



대전문화의거리 은행동 약도
(출처: 『대전문화사랑』 7월호, 1991, p. 84에서 재인용)

⁵⁷ 『향토문화자료 25집 선화동이야기』(대전중구문화원, 2015), p. 94. 라이카예식장이 아닌 라이카극장 또는 라이카 다방으로 표기하였다. 『대전 예술 창간호』(1989)에 실린 문화지도에는 라이카 다방, 라이카 사진관과 여일미술관이 등장한다.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⁵⁸ 라이카 화랑과 여일화랑에 관해 조종국 서예가에게 문의한 결과 얻은 답변이다(2023. 10. 12).

⁵⁹ 『향토문화자료 24집 대흥동이야기』(대전중구문화원, 2014), p. 98.

⁶⁰ 『동아일보』(1964. 5. 25).

⁶¹ 『매일경제』(1980. 1. 23).

⁶² 『조선일보』(1990. 4. 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0. 1. 23~1. 30	《개관초대전 최광선전》
1980. 3. 17~3. 25	《이정우 초대전》
1980. 3. 25~3. 31	《제3회 청립전》
1980. 4. 1~4. 7	《이동천부부 소품전》
1980. 5. 9~5. 16	《김두환전》
1980. 6. 2~6. 10	《이득찬 초대전》 ⁶³
1981. 1. 24~1. 29	《강명준 도예전》
1981. 2. 20~2. 28	《신무진 환상전》
1981. 4. 4~4. 12	《안영일 서양화전》
1981. 10. 15~10. 20	《제4회 르뽁동인전》
1982. 7. 24~8. 7	《정구천 도예전》
1983. 5. 19~5. 23	《안영일 서양화전》
1983. 11. 26~12. 5	《석도륜 문인서화전》
1984. 11. 15~11. 20	《명륜 황의동 작품전》
1984. 12. 7~12. 11	《법춘스님 서예전》
1985. 4. 28~5. 14	《권음사 대웅전 중창불사도예서화전》
1985. 9. 5~9. 29	《박여일 고회 기념전》
1985. 9. 5~9. 29	《85 충남작가 초대전》
1985. 10. 7~10. 12	《제1회 유도식 한국화전》
1985. 11. 11~11. 15	《고서화 소장전》
1986. 2. 20~2. 25	《황의동 진경산수화전》
1986. 3.	《여일미술관 상설전》
1986. 6. 10~6. 16	《성주경 도예전》
1986. 11. 6~11. 9	《흥사단 충남지부서화전》
1986. 11. 15~11. 21	《김일환 유화초대전》
1987. 10. 24~10. 31	《이정하 도예전》
1988. 2. 26~3. 31	《한국원로작가초대전》
1988. 5. 28~6. 2	《허인무 문인화전》
1988. 10. 5~10. 30	《한국88올림픽미술대전》

⁶³ 『경향신문』(1980. 6. 2)에는 라이카여일미술관으로 표기됐다.

39) 대전 립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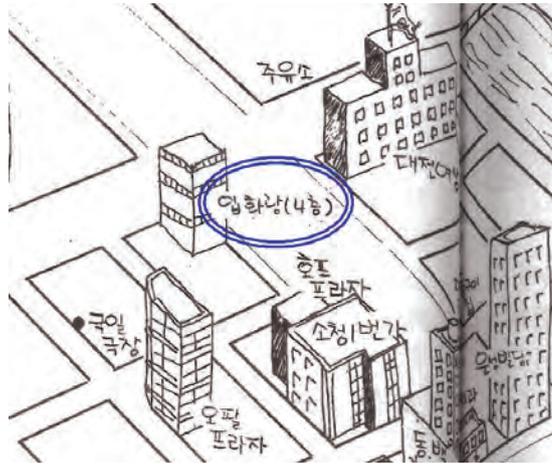
대전시 중구 대종로 563(구 중구 선화동 135-1)에 있다.

1987년 3월 30평 규모로 개관했으며 서양화가 임립(1945~)이 운영하는 화랑이다.

화가가 직접 운영하는 화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전시회를 기획, 개최하고 있다.



립화랑 건물 전경(출처: 구글맵)



립화랑의 위치(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충청문화예술진흥회, 1989, pp. 68~6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7. 3. 7~3. 13	《임립전》
1987. 3. 14~3. 20	《형상전》
1987. 5. 23~5. 29	《일신전》
1987. 9. 30~10. 5	《황용식 도예전》
1989. 11. 1~11. 9	《전성규 작품전》
1989. 12. 23	《제12회 예우전》
1993. 2. 19~2. 28	《구상 5인전》
1994. 12. 12~12. 17	《제14회 형상전》

40) 대전문화원(현 대전중구문화원)

현 대전중구문화원의 전신인 대전문화원은 중구 대흥로 109에 있었다. 1953년 대전 중구 선화동 6-2번지(현 갤러리아 동백점)에 자리한 미국공보원(USIS)이 본국으로 철수하자 기자재와 시설을 인수받아서 전국에서 최초로 개원했다.⁶⁴ 1962년 10월 1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1980년 시민관⁶⁵ 3층에서 문화동 새 건물로 이전하였다. 당시 문화원 건물에는 지하 1층에 문화사랑, 1·2층에 전시실, 3층에 유네스코 대전 충남협회 사무실, 4층에 향토사료실 등이 있었다.⁶⁶

1993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전시 구별(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1994년 12월 8일 대전문화원이 해체되고, 1995년 1월 21일 특수법인 대전중구문화원으로 개편되었다. 2009년 현 대흥동 109 소재의 건물로 이전했으며 1층에 2개의 전시실(제1·2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과 전문화랑이 개관하기 전까지 전시공간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전에서 대전문화원은 1957년 《제1회 루블미술동인작품전》을 비롯해 많은 전시회가 열리는 등 개원 목적에 맞게 향토문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55년 대전문화원(전 미공보원 건물) 전경
(출처: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 2012, p. 40)



대전문화원이 있던 극장 시민관(출처: 『사진으로 보는 대전문화 60년:문화, 시간에 담다』, 2013, p. 25)

⁶⁴ 미국공보원(USIS)은 태평양전쟁으로 패망한 일본군이 물러간 직후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미국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한미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45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1개소씩 개원하여 문화활동을 전개하였다. 1953년 재원 총당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의 공보원만 남기고 대전공보원을 폐원하였다.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대전문화원, 2013), p. 41.

⁶⁵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에 있었으며 1960년대 대전에서 가장 큰 극장으로 1980년대 동양백화점이 들어섰다. 『한겨레신문』(2022. 9. 26).

⁶⁶ 대전문화원 지하에 있던 '문화사랑'은 224㎡ 규모의 지하 소극장 겸 전시실로 150석의 의자를 배치하고 40석의 휴게실 시설도 갖춘 공간이다. 『대전문화원50년사』(대전문화원, 2003), p. 170.



대전중구문화원 외관(조사자 촬영)



대전중구문화원 제2전시실(조사자 촬영)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57. 12. 26~12. 31	《제1회 루블미술동인작품전》
1962. 9. 11~9. 18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전》
1965. 10. 1~10. 5	《제3회 미상록전》
1966. 9. 11~9. 17	《제5회 김성재 유화 개인전》
1966. 10. 31~11. 3	《제1회 상업미전》
1974. 11. 6~11. 14	《백제 미소 사진전》
1975. 7. 10~7. 20	《1400~1800년대 유네스코세계명화전》
1975. 10. 21~10. 24	《제2회 민동기 유화전》
1976. 4. 10~4. 14	《망향30년전-재일동포모국방문단전국순례보도사진전》
1979. 4. 24~4. 30	《구상작가15인전》
1984. 11. 10~11. 6	《제9회 충남향토작가 100인 초대전》
1985. 7. 20~7. 26	《고 이동훈 화백 유작전》
1988. 5. 28~6. 3	《광정 신건이사진전》
1993. 9. 4~9. 10	《우정의 만남전》
1993. 9. 20~9. 27	《93 엑스포 기념 : 대학미술의 흐름전》

41) 대전 문화화랑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보광당화랑표구사(중구 중교로 29-3)이 있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 화랑 거리의 초입에 있었다고 전한다.⁶⁷

정식 상호명은 문화화랑표구사로 1980년대 말 한샘표구사, 보광당화랑표구사, 오성화랑표구사 등과 인접해 있었다.⁶⁸ 상호명에서 알 수 있듯 표구사를 운영하면서 작품 전시와 판매를 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화화랑 표구사는 2015년까지 영업 중이었으나 이후 폐업한 것으로 짐작된다.⁶⁹ 문화화랑 표구사를 비롯해 보광당화랑표구사와 오성화랑표구사 등 당시 대전에서는 표구사가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화랑의 역할을 겸했음을 나타낸다. 1988년 10월에 열린 《두잉전》이 유일한 전시로 짐작되나 표구사에서 전시를 연 특별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중구 화랑	동촌표구사			동촌 화랑
	재일화방	대신표구사	정양관지	
중구 화랑	중앙표구사			중앙 화랑
	옥당화실			
	문화화랑 표구사	한샘 표구사	보광당 화랑 표구사	
	오성 화랑 표구 사			
중교로				

2015년 2월 대전화랑거리(출처: 『충청투데이』(2015. 2. 12)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작성했음)



현 보광당화랑표구사와 오성화랑표구사의 모습(출처: 구글 맵)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10. 22~10. 27	《두잉전》

⁶⁷ 『충청투데이』(2015. 2. 12).

⁶⁸ 현재 보광당화랑표구사와 오성화랑표구사를 제외하면 문화와 한샘 표구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오성화랑표구사는 현재 오성표구사로 상호명을 변경했음을 주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했다(2023. 10. 25).

⁶⁹ 오성화랑표구사 주인과 통화로 오래 전에 폐업했음을 확인했다(2023. 10. 25).

42) 대전 반도화랑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으나 대전 중구 가톨릭문화회관 뒤 사거리에 있던 신용철 산부인과 건물 지하에 있었다.⁷⁰ 판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호(1948~) 작가가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까지 운영했다.

1983년 《개관기념 초대전》을 열었으며 《1985년 설송구 회화전》을 끝으로 폐관했다. 《구주전》, 《대전실험작가회전》, 《19751225그룹의 10주년 기념전》, 《창형전》, 《존재전》과 《금강토회전》 등 실험적인 단체의 전시를 이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반도화랑이 있던 건물의 외관(출처: 유병호 작가 제공)



1985년 《19751225그룹 10주년 기념전》이 열린 전시장 내부(출처: 유병호 작가 제공)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3.	《반도화랑 개관 초대전》
1983. 11. 8~11. 14	《금강디자인전》
1983. 11. 15~11. 22	《김배희 작품전》
1983. 12. 21~12. 24	《수채화 6인전》
1984. 2. 25~2. 27	《제1회 구주전》
1984. 4. 21~4. 27	《대전 '84 드로잉전》
1984. 5. 26~6. 1	《김관호 작품전》
1984. 6. 9~6. 17	《제1회 대전실험작가회전》

⁷⁰ 유병호 판화가와 통화로 확인했다(2023. 10. 25).

전시일자	전시명
1984. 6. 18~6. 23	《창작판화가술회전》
1984. 8. 15~8. 23	《제6회 19751225그룹전》
1984. 9. 22~9. 28	《일요스케치 회원전》
1984. 10. 6~10. 12	《대전 실험작가회 기획 금일의 상황전》
1984. 10. 15~10. 21	《제1회 충남 시각디자이너협회전》
1984. 11. 7~11. 13	《제5회 홍익금속공예전》
1984. 11. 14~11. 17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
1984. 12. 8~12. 14	《제9회 르브동인회전》
1985. 1. 26~1. 30	《제2회 세라비전》
1985. 2. 12~2. 18	《19751225그룹 10주년 기념전》
1985. 2. 24~2. 27	《제2회 구주작품전》
1985. 3. 16~3. 22	《제1회 창형전》
1985. 5. 4~5. 10	《제1회 존재전》
1985. 6. 8~6. 14	《제3회 이종수 도예전》
1985. 7. 12~7. 19	《대전수채화협회전》
1985. 9. 7~9. 15	《제1회 금강토회전》
1985. 10. 19~10. 25	《제2회 형상79전》
1985. 12. 6~12. 12	《제1회 칠칠다섯조각전》
1985. 12. 14~12. 19	《설송 최원구 한국화전》

43) 대전상공회의소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에 있다.

1930년 11월 제정·공포된 조선상공회의소령에 의해 1932년 출범했다. 1938년 대전금융조합 건물의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하였다.⁷¹ 해방 후 미군정청과 대전시청으로 사용되었으며 1959년 시청이 대흥동으로 신축이전하면서 1층과 2층은 상공회의소로, 3층은 청소년회관으로 변경되었다.⁷² 1972년 충청남도산업진흥관 건물을 상공회의소 회장 홍광표가 사재로 매입해 기증함으로써 창립 40년 만에 상공회의소 소유 회관을 갖게 되었다.⁷³ 1972년에 구입한 건물을 지속해서 보수해 사용하다가 1995년 7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다.⁷⁴ 1985년 대흥동 시절 《제20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을 개최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다.



1938년 건립 당시의 모습(출처: 『중도일보』, 2011. 3. 14)



둔산동 소재의 상공회의소(출처: 『충청뉴스』, 2009. 1. 2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5. 10. 18~10. 22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순회전)》

⁷¹ 1936년 준공된 건물로 당시 대전부청 건물로 활용되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층은 사무실과 충남상공장려관, 2층은 회의실과 화장실, 3층은 공회당과 강당 등으로 활용되었다. 『대전근대사료집제26집-은행동 이야기』(대전중구문화원, 2018), p. 58.

⁷² 위의 책, pp. 58~59.

⁷³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대전중구문화원, 1990), 페이지 없음.

⁷⁴ 이전의 은행동 소재의 상공회의소 건물과 부지는 삼성화재에 매각했다. 위의 책, 2018, p. 59.

44) 대전소방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에 있다. 1946년 11월 충청남도 소방청 산하에 ‘대전소방서’를 중구 선화동 10번지에 설치했다. 1955년 소방서 신축을 결정했으며, 1956년 8월 선화동 63번지로 이전했다.⁷⁵ 1977년 10월 대전소방서청사를 신축해(동구 삼성2동 322-4) 이전하였다. 1989년 기존 소방서의 노후로 대전 소방본부가 서구 둔산로 100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79년 동구 삼성2동에 있는 대전소방서에서 열린 《조선오백년민족미술전시회》는 한밭라이온스 클럽이 전국체전 성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전시로 김시습의 8폭 병풍, 대원군 이하응과 추사 김정희의 작품 등 총 1,000여 점이 선보였다. 천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소방서 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대전 소방서(출처: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대전문화원, 1990, p. 29)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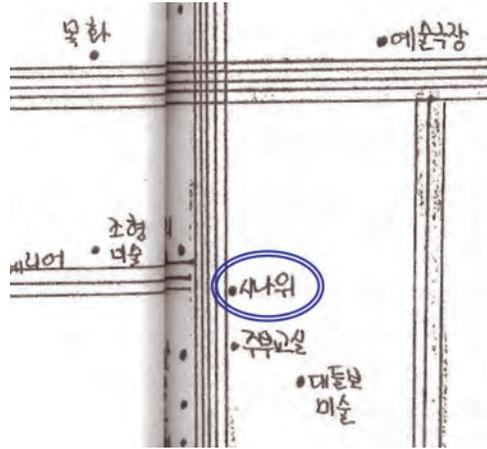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
1979	《조선오백년민족미술전》

⁷⁵ 『대전중구 문화원 향토문화자료 25집-선화동이야기』, 대전중구문화원, 2015, p. 29.

45) 대전 시나위커피숍(전시장)

대전시 중구 은행동 예술극장 근처에 있었다.

전시기록에 의하면 1989년 무렵 개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커피숍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이후 시나위갤러리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활발하게 전시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1994년 중반까지 전시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후 폐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위 커피숍이 있던 자리
(출처: 『대전문화사람』, 1991. 7, p.16~1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9. 12. 27~1. 15	《유근영 초대전》
1990. 10. 10~10. 15	《공방관화전》
1991. 2. 3~2. 15	《대전수채화협회 초대전》
1992. 2. 6~3. 14	《이어욱·최학노 부부작가 초대전》
1992. 3. 16~4. 15	《서양화가 이영우 초대전》
1992. 4. 27~6. 14	《수채화 3인전》
1992. 7. 27~8. 14	《서양화가 채경숙 개인전》
1992. 11. 23~12. 14	《김기권 초대전》
1993. 3. 5~4. 14	《지치우 초대전》
1994. 1. 15~2. 14	《'94 드로잉 방법전》

46) 대전시민회관

2015년까지 중구 문화동 1-27번지에 있었다.

육군 병참학교의 군용지를 연부상환 조건으로 승인받아 1975년 8월 15일 기공식을 하고 1979년 11월 16일 준공했다. 당시 교통 중심지였던 서대전 사거리에 세워진 시민회관은 대극장(857석 규모), 소극장(253석 규모)과 다섯 개의 전시실(총 754㎡)을 갖춘 대전에서 유일한 복합 예술공간이었다.

대전시민회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대전에 세워진 첫 공연장으로 전시와 공연, 강연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서대전이 문화 1번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85년 시민회관 뒤에 있던 반공회관을 인수해 별관으로 활용하였다.⁷⁶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이 개관하기 이전까지 대전문화원과 함께 주요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이 개관한 후에도 시민회관은 예술인 및 미술단체의 주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미술대전》과 《전국사진작가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부터 《뽀그래픽전》과 같은 소규모 단체의 창립전 등 40여 년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 시민회관은 2015년 문을 닫았다. 시민회관의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8개의 전시실과 다목적실을 갖춘 대전예술가의 집(대전문화예술센터)을 신축했다.



대전시민회관의 전경(출처: 『중도일보』, 2012. 11. 4)



대전시민회관 자리에 들어선 예술가의 집(조사자 촬영)

⁷⁶ 대전시민회관의 건립에 관해서 당시 시민회관에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의 구술자료집이 있다. 『대전예술사구술자료집 예술, 공간, 그리고 사람 대전시민회관의 역사와 기억』(대전문화재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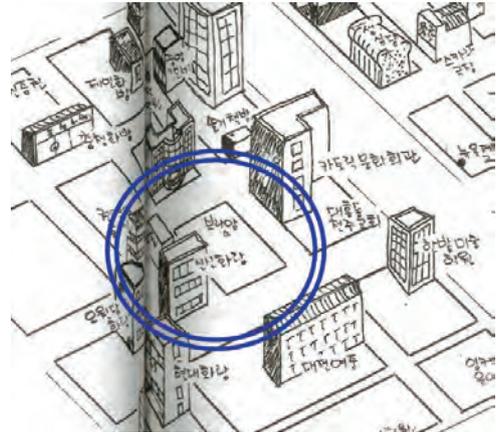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0. 3.	《송전조각회 창립전》
1980. 4. 19~4. 23	《투영회전》
1980. 6. 21~6. 30	《제10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1980. 9. 24~9. 27	《창립 뽀그래픽전》
1980. 10. 10~10. 16	《제7회 충남조각회전》
1980. 11. 12~11. 16	《한목회전》
1981. 5. 1~5. 6	《드름염색전》
1981. 7. 6~7. 20	《제11회 충남미술전람회》
1981. 11. 2~11. 30	《제7회 그릴회전》
1982. 10. 5~10. 10	《제9회 충남조각회전》
1982. 12. 23~12. 27	《제1회 목원조각회전》
1983. 4. 30~5. 6	《목원대학교교수작품전》
1983. 6. 1~6. 10	《제13회 충남미술대전》
1983. 6. 14~6. 20	《한국미술대전》
1983. 6. 18~6. 23	《전국사진작품전》

47) 대전 신신화랑

대흥동에 있었던 화랑으로 오원당 화랑, 현대 화랑, 소극장 앙상블 등과 인접한 곳에 자리했다. 신신여관을 운영하던 여주인의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건물 지하에 화랑을 개관했다.

기록에 의하면 1979년에 《강영희 동양화전》을 시작으로 충남 화단을 이끈 김치중, 유병호, 정명희, 유근영 등의 개인전을 유치했다. 매달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미루어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짐작되나 1988년 《유도식 한국화전》을 마지막으로 폐관한 것으로 보인다.⁷⁷



신신화랑의 위치 (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198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9. 3. 23~3. 29	《강영희 동양화전》
1979	《이인영 개인전》
1980	《제1회 미림미전》
1980	《제6회 상업미술전》
1982	《신체장애자돕기 동양화전》
1982. 5. 17~5. 22	《한일교류전》
1982. 10. 5~10. 10	《제9회 충남서예협회전》
1982. 11. 17~11. 23	《정경요7인 도예전》
1983. 4. 20~4. 26	《충남의 자연전 창립전》
1983. 6. 8~6. 14	《울관서예백자전》
1983. 9. 28~10. 3	《근역서가회전》
1983. 10. 12~10. 19	《충남동양화작가회 회원전》
1983. 11. 7~11. 12	《충남한국화협회전》
1983. 12. 3~12. 7	《제7회 장암묵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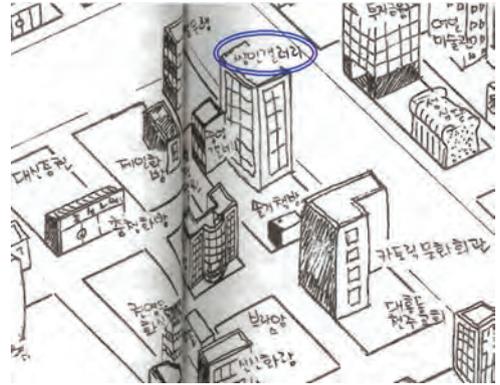
⁷⁷ 한국화가 백산 광권일의 인터뷰에서 1984년 신신여관에서 자신의 그림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개인전을 열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충청뉴스』(2006. 12. 13).

전시일자	전시명
1984. 6. 4~6. 10	《윤장렬 개인전》
1984. 9. 17~9. 27	《제19회 김인중 작품전》
1984. 10. 24~10. 31	《이재호 한국화전》
1984. 11. 1~11. 7	《제8회 오당 이영래 작품전》
1984. 11. 28~12. 4	《전형주 유화전》
1984. 12. 5~12. 10	《청사 심응길 개인전》
1986. 6. 2~6. 12	《유병호 도일기념전》
1986. 9. 25~10. 1	《제9회 기산 정명희전》
1986. 11. 21~11. 27	《김치중 소묘전》
1987. 3. 14~3. 20	《유근영 회화전》
1987. 11. 11~11. 17	《오순화 조각전》
1988. 5. 18~5. 24	《안치인 드로잉전》
1988. 5. 25~5. 31	《유도식 한국화전》

48) 대전 쌍인갤러리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으나 대전시 중구 대흥동 화랑거리에 있었다.

1986년 5월 개관전을 연 이후 《제16회 충남미술대전》과 《한국디자인협회전》 등 큰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1989년 이후 전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폐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관 전까지 약 4년간 여러 단체전과 개인전을 열며 활발하게 운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1989년 당시 쌍인갤러리의 위치(출처: 『대전예술창간호』, 1989.3, pp. 66~67)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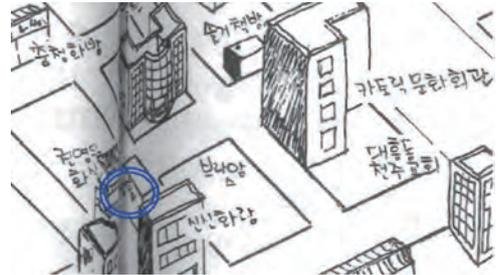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
1986. 5. 10~5. 17	《쌍인화랑 개관 초대전》
1986. 5. 23~6. 11	《제16회 충남미술대전》
1986. 6. 2~6. 8	《제3회 박명규 이명자 부부전》
1986. 9. 4~9. 9	《제1회 이수철 날염작품전》
1986. 10. 14~10. 19	《제1회 OPUS전》
1986. 12. 8~12. 12	《심응길전》
1986. 12. 20~12. 26	《제2회 한국디자인협회전》
1987. 3. 19~3. 25	《대전 '87행위예술제》
1987. 8. 27~9. 2	《'87 의식의 전개전》
1987. 9. 17~9. 23	《제1회 배재대학 미술교육과 동문전》
1987. 12. 14~12. 20	《창형전》
1987. 12. 30~1. 4	《UP전》
1988. 2. 13~2. 16	《윤주용 · 이창인 2인전》
1988. 2. 20~2. 24	《HAP전》
1988. 3. 17~3. 23	《김현우 무대사진전》
1988. 3. 26~4. 1	《고창환 금속공예전》
1988. 4. 2~4. 8	《김철겸전》
1988. 4. 9~4. 15	《제2회 오버전》

전시일자	전시명
1988. 5. 28~6. 3	《리포트프린트전》
1988. 6. 4~6. 10	《제16회 창림회전》
1988. 8. 20~8. 26	《이동기 작품전》
1988. 9. 3~9. 9	《제3회 한밭조각회전》
1988. 10. 15~10. 20	《호메조각출품전》
1988. 10. 21~10. 27	《배연전 창립전》
1988. 12. 6~12. 12	《제3회 OPUS전》

49) 대전 앙상블 소극장

대전시 중구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의 근처에 있다.

극단 앙상블이 조성한 소극장으로 1984년 2월 18일 3층에 문을 열었다.⁷⁸ 당시 대표는 이종국으로 극단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⁷⁹ 1989년 행위예술제를 개최했는데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위예술가 성능경(1944~)이 참여해 《Video 신문읽기》를 선보였다.⁸⁰



앙상블 소극장이 있는 위치(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1989. 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9	'89 대전행위예술제

⁷⁸ 대구에서 생겨난 지방 소극장 운동의 연장으로 임영주와 이종국에 의해 탄생하였다. 민경진, 「대전연극의 발전을 위하여」, 『대전예술』(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1989. 3), p. 39.

⁷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

⁸⁰ 백아트서울 홈페이지 <https://baikart.com/>

50) 대전 예가화랑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었다.

전시기록에 의하면 1986년 《오늘의 기수 16인전》이 첫 전시로 등장한다. 1988년까지 꾸준히 전시회를 열었던 것으로 보이나 1990년대 들어서 전시회를 개최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폐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가화랑의 위치
(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1989, pp. 68~6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6. 11. 3~11. 15	《오늘의 기수 16인전》
1986. 12. 1~12. 14	《목목회 소품전》
1986. 12. 15~12. 28	《원로작가 8인 초대전》
1987. 2. 23~3. 1	《일청회 소품전》
1987. 3. 7~3. 13	《오늘의 입체작가 7인전》
1987. 3. 14~3. 20	《제4회 전래식전》
1987. 3. 30~4. 5	《87 틈과 폭전》
1987. 5. 12~5. 24	《조각 소품 14인전》
1987. 6. 1~6. 7	《정명희 아름다운 금강전》
1987. 6. 12~6. 25	《임효 초대전》
1987. 9. 9~9. 20	《5인 초대전》
1987. 10. 22~10. 25	《초대 목연회 회원전》
1987. 11. 14~11. 20	《제7회 배재대학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
1987. 11. 23~11. 30	《한국화 10인 초대전》
1987. 12. 15~12. 30	《87 원로작가 7인 초대전》
1987	《기산 정명희 현대 수목화》
1988. 2. 29~3. 12	《제9회 일청회 소품전》
1988. 11. 23~11. 30	《유근영전》

51) 대전 오원화랑

1975년 개관 당시는 중구 대흥2동 471-1번지에 있었으나 2007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36으로 이전했다.⁸¹

1975년 ‘오원당’으로 시작한 오원화랑은 《유천 김화경 초대전》을 개관전으로 열었다. 2007년 현재 위치인 둔산동으로 이전했으며 2023년 개관 48주년을 맞았다. 오원화랑의 김진원 관장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이며 1995년 대전 서구문화원 초대 원장을 지냈다. 대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화랑으로 197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시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오원화랑(출처:『향토문화자료(7) 중구문화길라잡이』, 대전중구문화원, 1998, p. 15.)



오원화랑 입구(출처: 한국관광공사 <http://data.visitkorea.or.kr/resource/12985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5. 12.	《오원화랑 개관기념 유천 김화경 작품 초대전》
1976. 10.	《한국화 유명작품전》
1977. 4.	《유명작품 소장전》
1979. 4. 26~4. 30	《한국미협 대전지부 초대전》
1979. 12. 11~12. 18	《이인영 개인전》
1979	《제2회 임명철 개인전》
1980. 1. 26~1. 31	《이우선 동양화전》
1980. 8. 27	《오원당화랑 개관기념전》
1980. 12. 13~12. 17	《창립 호동인전》

⁸¹ 오원화랑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lleryowon>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2. 4~12. 18	《동양화 6대가전》
1985. 2. 1~2. 5	《서양화작품전》
1985. 10. 26~10. 31	《신진작가작품전》
1985. 11. 2~11. 8	《5인작가 초대전》
1985. 11. 9~11. 16	《제9회 제작전》
1985. 12. 7~12. 11	《묵상회전》
1985. 12. 12~12. 18	《최쌍중 석판화모음전》
1986. 2. 1~2. 7	《중견서예작가초대소품전》
1987. 4. 6~4. 12	《조각5인 초대전》
1987. 5. 4~5. 10	《제6회 갑자전》
1987. 11. 6~11. 12	《오원당화랑 선정 신예전》
1989. 10. 16~10. 22	《이종석 개인전》
1990. 6. 4~6. 10	《4인 초대전》
1991. 2. 20~2. 28	《생활 속의 판화전》
1991. 10. 8~10. 17	《가국현 · 정재성 · 예명옥전》
1991. 10. 19~10. 26	《한국화 그 동질성의 회복전》
1991. 11. 29~12. 4	《대전수채화협회전》
1991. 12. 12~12. 20	《3인 조각전》
1991. 12. 17~12. 23	《조각 2인(김석우 · 임선빈)초대전》
1992. 4. 18~4. 24	《OPUS전》
1992. 8. 17~8. 23	《원소회전》
1992. 11. 1~11. 7	《한밭조각회전》
1993. 12. 8~12. 14	《대전조각가협회전》
1994. 11. 25~12. 1	《제20회 목원대 교수작품전》

52) 대전 중도일보 회의실(화랑)

1951년 대전시 중동 10번지에 있는 개인병원의 일부를 임대해 중도매일신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1955년 '중도일보'로 신문명을 변경하고, 중구 대흥동 3번지로 이전했다. 1958년 2층 건물의 선화동 사옥을 거쳐 1972년 대흥동 501-3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사옥을 준공하였다.⁸² 당시 신축한 중도일보의 대흥동 사옥은 대전 시내 최고층 건물이었다.

1973년 유신체제 하에 '1道 1社' 정책의 언론통제에 따라 중도일보를 강제로 대전일보에 흡수 합병시켰다. 이후 1987년 복권되어 법인등기를 하고, 1988년 복간호를 발행했다. 1987년 복권된 이후 사옥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은 없다.

1990년 서구 갈마동 274-7에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신사옥을 착공하고 대전·충청지역에서 최초로 전자신문을 발간했다.⁸³ 1991년 12월 갈마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으나, 2003년 3월 무리한 신사옥 건축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간했다. 이후 충청매일일보에 인수 합병되었으나 신문명 '중도일보'는 유지하였다. 2003년 10월 중구 오류동 신사옥으로 이전해 중도일보의 새 시대를 열었다.

1971년 《제9회 보도사진전》이 중도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것을 볼 때 대흥동 사옥에 전시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이전한 대흥동 사옥(일명 경암빌딩)에는 화랑이 있었는지 중도일보가 폐간된 이후인 1974년 열린 전시 장소에 '중도일보 화랑'이라고 표기되었다.



1958~1971년 중도일보 사옥(현 교보빌딩)(출처: 중도일보사 홈페이지)



1972년~1991년 사용한 중구 대흥동 사옥(경암빌딩)
(출처: 『중앙로, 근대를 건다』, 대전근현대전시관, 2015, p. 45)

⁸² 당시 대흥동 빌딩은 경암빌딩으로 불렸다.

⁸³ 『중도일보』(2010.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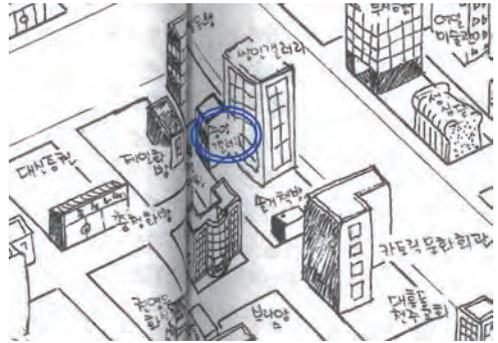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1. 9. 14~9. 20	《제9회 보도사진 전시회》
1972. 10. 29~11. 2	《충남미협전》
1972. 11. 7~12. 12	《제1회 대전실업대 생활미술과 미술전》
1972. 11. 7~12. 12	《서울대학교 미대동문전》
1974. 11. 23~11. 29	《제2회 홍대동문전》
1974	《김철호 개인전》

53) 대전 중앙갤러리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으나 대전시 중구 대흥동 화랑거리에 있었다.

1989년 자료에는 중앙갤러리가 등장하나 1987년 11월 《제9회 19751225전》 이후 전시회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다.⁸⁴



1989년 당시 중앙갤러리의 위치(출처: 『대전예술 창간호』, 1989.3, pp. 66~6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6. 5. 10~5. 16	《OPUS창립전》
1986. 11. 8~11. 14	《성장경전》
1986. 11. 29~12. 5	《금강디자인전》
1986. 12. 6~12. 12	《이재우전》
1986. 12. 20~12. 26	《충남의 자연전》
1987. 7. 16~7. 22	《대전·서울 19인의 단면전》
1987. 7. 26~3. 4	《제14회 상미회전》
1987. 8. 12~8. 18	《87 조각의 방법전》
1987. 8. 20~8. 26	《제2회 신현국 서양화전》
1987. 10. 22~10. 28	《OPUS비상그룹전》
1987. 11. 26~11. 30	《제9회 19751225전》

⁸⁴ 1989년 발간된 『대전예술-창간호』에 실린 문화지도에 중앙갤러리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1989년까지는 영업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54) 대전 충남공보관

대전시 중구 대흥로 77에 있었으며 후에 충남·대전교육문화회관으로 사용되었다. 대전방 송국내 충남공보관 전시실로 표기한 점으로 미루어 1943년 대전에 개국한 KBS방송국과 같은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⁸⁵ 이 시기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62년 1월 충남문화회관 건물에 이전 개관한 이후 《한국미술협회 충남미협전》과 《5.16혁명 1주년 기념전》을 동시에 유치하였다. 1960년대 부족한 전시공간을 대신해 미술전시회를 열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행했다.



충남공보관 개관식 안내문(출처: 『향토문화자료3.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대전문화원, 1990, 페이지 없음)



충청남도 공보관 중구 대흥로 77(출처: 『대흥동이야기』, 대전중구문화원, 2014, p. 11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62. 5. 16~5. 22	《한국미술협회 인증 제1회 미협전 & 5. 16 1주년 기념전》
1962. 10. 1~10. 7	《죽미회 5인전》

⁸⁵ 『향토문화자료3.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대전문화원연합회, 1990), 페이지 없음

55) 대전 충남예총화랑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남지부이다. 현재 예총 충남지부 사무실은 천안시 서북구 도원2길 36-3 2층에 있다.⁸⁶

1967년에는 대전시 선화동에 예총 충남지부 회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⁸⁷ 당시 예총건물에 전시회를 열기 위한 전문공간으로 화랑을 조성해 《충남미협전》 등 전시를 활발하게 열었다. 1986년 9월부터 대전이 직할시로 충남에서 분리되기 전인 1989년 1월까지 대전시민회관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었다.⁸⁸

화랑 개관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나 전시장소인 화랑의 시각 이미지를 찾을 수 없었다.



1962. 4 예총 충남지부 결성식(출처: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대전문화원, 199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60	《재경충남출신화가전》
1967. 3. 7~3. 15	《충남예총화랑개관 축하종합전시회》
1967. 11. 6~11. 10	《제7회 충남미술협회전》
1968. 7. 18~7. 25	《재경충남출신화가전》
1969. 2. 25~3. 2	《이동훈 화업 50주년 기념전》
1969. 12. 22~12. 26	《충남미협전》
1970. 6. 14~6. 18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전》
1970. 8. 6~8. 10	《충남청년미술인회(8월전)》
1971. 5. 11~5. 20	《제1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1972. 3. 9~3. 15	《제14회 세계아동미술전람회 수상작 지방순회전시》
1972. 6. 20~6. 25	《청미회 창립전》
1972. 7. 5~7. 9	《제1회 충남사진동호인전》

⁸⁶ 현재 충남예총 본부는 충남예총 회장인 오태근(연극)의 사무실로 천안에 있다.

⁸⁷ 「10일 우표전시 대전체신청 주최」, 『매일경제』(1967. 10. 9).

⁸⁸ 현 예총 충남지부 팀장과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다. 이전 선화동 지부 사무실이나 화랑 관련 사진을 문의했으나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2023.10.25).

56) 대전 한국화랑

화방으로 짐작되며 대전시 중구 중앙로 122번지 10(구 대흥동 493-1)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⁹

1984년 10월부터 1985년 10월까지 약 1년간 활발하게 전시를 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아쉬우나 한국화, 서예, 염색,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0. 25~10. 31	《호산 이완중 도화전》
1984. 11. 1~11. 7	《송순영 염색전》
1984. 11. 12~11. 18	《곽권일 한국화전》
1984. 11. 19~11. 24	《심전 이태은 작품전》
1984. 11. 30~12. 5	《설송 최원구 한국화전》
1984. 12. 6~12. 10	《강신영 한국화전》
1984. 12. 17~12. 20	《홍성규 한국화전》
1985. 6. 14~6. 20	《계운 김선철 서예전》
1985. 10. 19~10. 25	《제3회 동연회전》

⁸⁹ 조종국 선생님께 문의한 결과 화랑이 아닌 화방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2023. 10. 12).

57) 대전 한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에 있다.⁹⁰

1956년 대전대학(대전기독교학관)에서 출발해 1970년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와 통합하여 숭전대학교로 개명하였다. 1982년 지금의 한남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서울 숭실대학교와 분리하였다. 1972년 2부 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신설되었으며 1974년 문리과 대학으로, 1985년 사범대학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미술교육학과는 사범대학 소속이나 다른 학과와 달리 별도의 미술교육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1978년 문과대학에 응용미술학과가 개설되었으며 1997년 정원을 20명이나 늘릴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응용미술학과는 1999년 조형예술학부 내 디자인전공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 미술대학을 신설하면서 디자인학과로 독립하였다. 이후 단과대학명이 조형예술대학에서 2023년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으로 변경되면서 학과 역시 융합디자인학과로 개명되었다.⁹¹

한남대학교는 1982년 6월 인류역사관을 개관하고 1984년 자연사관을 설치했으며 1986년 자연사박물관으로 확대 분리하였다.⁹² 1982년 이후 장소 변동없이 현재 한남대학교 인사례교양동의 3~4층에 중앙박물관, 5층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다.⁹³

한남대학교 내 한남대 도서관(1986), 문화전시실(1988), 미술교육관(1988) 등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한남대 미술교육관 건물(출처: <https://map.naver.com/p/entry/place/>)



자연사박물관 입구
(출처: <https://blog.naver.com/daedeokgu/>)

⁹⁰ 한남대 관련 기록은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nnam.ac.kr/>

⁹¹ 대학명 변경과 학과 시설에 관해 융합디자인학과에 전화해 문의했다(2023.10.25).

⁹²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s://bakmul.hannam.ac.kr/%EC%97%B0%ED%98%81/>

⁹³ 한남대 중앙박물관에 문의해 확인했다(2023.10.25).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6. 4. 16~4. 20	《한밭조각회(한남대 도서관)》
1988. 10. 29~10. 31	《야생조류사진전(한남대 문화전시실)》
1988. 11. 16~11. 19	《8778 조각전(한남대 미술교육관)》
1989. 12. 4~12. 9	《한남디자인전(한남대학교)》

58) 대전 한밭상업고등학교

대전시 중구 선화동 98번지에 있었다.

1948년 4월에 설립된 대전고등공민학교가 한밭상업고등학교의 시작이다. 1955년 3월 상업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7월 한밭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7년 남대전상업고등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60년 12월 이전 교명인 한밭상업고등학교로 복귀하였다.⁹⁴ 1967년 대전시 중구 중촌동 14-1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며 이듬해 충남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⁹⁵ 이후 여러 번의 변화를 통해 현재 교명은 대전중앙고등학교이다.



현재 대전중앙고등학교 모습(출처: 대전중앙고등학교 홈페이지)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인 김익환 외 8명으로 구성된 상업미술회가 1966년 학교 강당에서 최초로 전시를 열었다. 이후 1980년 대전 소재 신신화랑에서 《제6회 상업미술전》이 개최된 것으로 보아 미술반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밭상업고등학교 1학년 이영수와 2학년 임양수가 1962년 대전공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과 죽미회를 결성했을 정도로 한밭상업고등학교의 미술반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밭상업고등학교의 옛 모습이 담긴 이미지는 찾을 수 없었다.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인 김익환 외 8명으로 구성된 상업미술회가 1966년 학교 강당에서 최초로 전시를 열었다. 이후 1980년 대전 소재 신신화랑에서 《제6회 상업미술전》이 개최된 것으로 보아 미술반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밭상업고등학교 1학년 이영수와 2학년 임양수가 1962년 대전공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과 죽미회를 결성했을 정도로 한밭상업고등학교의 미술반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밭상업고등학교의 옛 모습이 담긴 이미지는 찾을 수 없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66. 10. 31~11. 3	《제1회 상업미술전》 장택성 성형용 송근호 김익환 육재수 최재복 김해중 윤주영 박영우

⁹⁴ 1981년 새로 개교한 한밭상업고등학교와 다른 재단이다. 이 학교는 2003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전자신문』(2021. 11. 8).

⁹⁵ 현 대전중앙고등학교에 문의한 결과 1967년에 완공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2023. 10. 25).

59) 대전 현대갤러리

대전시 중구 중교로 33에 있다.

1984년 11월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485-1번지(현 대흥로 121번길 43) 이미동 산부인과 건물 지하에 개관했다.⁹⁶ 이후 중구 중교로 33(대흥동 465-2)으로 이전했다. 2006년 지금 위치의 지상 4층의 건물로 이전해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대전에서 가장 번화한 대흥동은 화방, 표구사, 화랑 등이 밀집한 곳이었다. 현대갤러리는 현재까지 대흥동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전문전시공간이다.



개관 당시 현대갤러리가 있던 이미동 산부인과 건물(출처: 『향토문화자료(7) 중구문화길라잡이』, 대전중구문화원, 1998, p. 16.)



현대갤러리의 외관(출처: 구글맵)



현대갤러리 내부(출처: 현대갤러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hdgallery>))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1. 24~12. 14	《현대화랑 개관기념 초대전》
1985	《이종근 수채화전》
1985	《계명디자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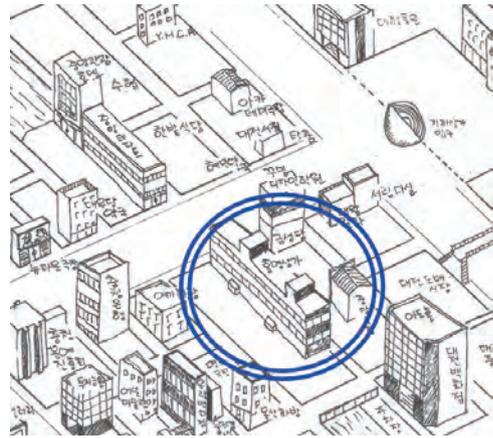
⁹⁶ 현대갤러리 김경숙 관장님과 전화통화로 확인했다(2023. 10. 25).

전시일자	전시명
1985. 9. 7	《제4회 도원회전》
1985. 9. 20~9. 26	《제8회 대전'78세대전》
1985. 10. 11~10. 17	《제17회 대전여성 상업미전》
1985. 10. 25~10. 31	《제2회 충남시각디자인협회전》
1985. 11. 22~11. 28	《제1회 대전현대조각회전》
1986. 4. 18~4. 24	《제2회 창형전》
1986. 5. 10~5. 15	《제1회 오버전》
1986. 5. 24~5. 30	《제1회 일신회 창립전》
1986. 6. 7~6. 13	《제3회 충남시각디자인협회전》
1987. 4. 4~4. 10	《하드코어20 대전코넥션전》
1987. 9. 3~9. 9	《제3회 존재전》
1987. 12. 25~12. 30	《구주전》
1988. 12. 10~12. 16	《금강디자인전》
1989. 5. 6~5. 26	《대전판화협회전》
1989. 9. 8~9. 13	《제1회 목원한국화전》
1989. 10. 11~10. 17	《89 Doing전》
1990. 2. 2~2. 7	《90 대전 구조와 탈구조전》
1990. 8. 23~8. 29	《제15회 목목회전》
1991. 9. 26~10. 2	《구조전》
1991. 12. 19~12. 25	《제5회 OPUS전》
1994. 9. 8~9. 14	《다시각전》
1996. 7. 4~7. 10	《제18회 대전한국화회전》
1996. 8. 15~8. 21	《제3판화전》
1997. 6. 5~6. 11	《목가와 신조형체전》
1997. 7. 24~7. 30	《대전한국화 오늘의 상황전》
1998. 6. 4~6. 10	《일청회전》
1998. 8. 27~9. 2	《존재전》

60) 대전 홍명다방

현재는 철거로 사라졌지만 1974년 대전 목척교 근처에 들어선 지상 5층의 홍명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⁹⁷ 홍명다방으로 개업했으나 전시를 유치하면서 화랑 또는 미술관으로 불린 것으로 짐작된다.⁹⁸ 즉 1975년 《충청남북미협미술교류전》과 1976년 《19751225전》의 기록에는 홍명다실로, 1975년 11월에 열린 《제2회 승전미전》에는 홍명화랑으로 표기하였다.

1984년까지 전시회를 연 기록은 확인되나 이후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홍명상가는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 사업으로 같은 해에 세워진 중앙데파트에 이어 2008년 철거됐다. 이후 홍명다방이나 화랑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장소 이전보다는 폐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둔산의 급부상으로 상권이 이동하기 전까지 대전의 핫플레이스 대흥동에서 홍명다방 역시 전시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전시내 문화현장 안내도에 보이는 홍명상가의 위치(출처: 『대전예술-창간호』, 1989. 3. p. 67)



성업 중인 홍명백화점의 외관(출처: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대전문화원연합회, 1990)



《19751225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홍명상가 외벽(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⁹⁷ 대전천 건너 대우당 약국에서 중앙로로 연결된 목척교 부근에 중앙데파트와 나란히 있었다. 2009년 8월 17일 철거되었다. 『충청뉴스』(2009. 8. 17). 당시 홍명상가 또는 홍명백화점으로 불렸다.

⁹⁸ 1976년 5월 7일 열린 《19751225그룹전》의 전시 안내 현수막이 걸린 건물에 홍명다실이라는 상호명이 보인다. 업종을 다방에서 화랑으로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5. 6. 26~7. 8	《충청남·북미협 미술교류전》
1975. 10. 16~10. 19	《제1회 정명희 개인전》
1975. 11. 8~11. 13	《제2회 송전미전》
1976. 3. 6	《유남식 동양화 초대전》
1976. 5. 7~5. 13	《제1회 19751225전》
1976. 5. 14~5. 18	《제2회 그릴회 회원전》
1976. 5. 21~5. 30	《제3회 충남서예협회전》
1976. 5. 24~5. 27	《제8회 충남대 서예전》
1976	《대전추상작가 구상전》
1976. 11. 9~11. 15	《제1회 송전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전》
1976. 11. 23~11. 28	《제1회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전》
1976. 12. 13~12. 19	《제16회 구상회전》
1977. 6. 7~6. 12	《충남출신화가 초대전》
1977. 10. 1~10. 6	《제3회 19751225그룹전》
1977. 10. 8~10. 12	《제4회 충남조각회전》
1978. 4. 7~4. 10	《제2회 대전 서우회전》
1978. 4. 26~4. 30	《C.T.P 사진전》
1978. 5. 15~5. 19	《충남미협회관 건립 모금전》
1978. 5. 16~5. 21	《토형회 창립전》
1978. 6. 11~6. 16	《제9회 청년작가회전》
1978. 6. 30~7. 7	《제1회 송전대 미술동문전》
1978. 9. 1~9. 7	《현대작가 11인전》
1978. 10. 14~10. 19	《제4회 동원서예회전》
1979. 9. 6~9. 10	《제1회 북우회전》
1979. 10. 1~10. 5	《제1회 참미전》
1979. 10. 7~10. 11	《제3회 19751225그룹전》
1979. 10. 12~10. 16	《제5회 동원서예전》
1980. 3. 20~3. 25	《향토작가 초대전》
1984. 11. 24~11. 28	《이복식 초대전》

61) 대천문화원(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대천동 340-2)에 있다.

대천문화원은 1956년 3월 설립되었으며 당시 미국공보원에서 기자재를 지원했다.⁹⁹ 1962년 2월 문화원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980년 3월 보령시 동대동에 소·대강당을 갖춘 3층 건물로 개원하였다. 별도의 전시실은 없었으며 1층에 있는 대강당을 필요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였다.¹⁰⁰ 대천문화원의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 D등급을 받게 되어 문화원은 2013년 11월 보령문화의 전당으로 이전했다. 2015년 2월 대천문화원에서 보령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천문화원 외관(출처: 『중앙매일』, 2012. 9. 14)



보령문화원이 있는 보령문화의전당의 모습(출처: 충남문화포털)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3. 10. 17~10. 22	《제3회 한국미협 공주지부 회원전》
1996. 10. 30~11. 5	《미협 대천·보령지부회원전》

⁹⁹ 디지털보령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boryeong.grandculture.net/>

¹⁰⁰ 보령문화원 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했다(2023. 10. 25).

62) 보령군청 전시실¹⁰¹

보령시 성주산로 77에 있다.

1986년 대천읍이 보령군에서 분리되어 대천시로 승격되었으나 1995년 1월 대천시와 보령군이 다시 통합되어 보령시가 되었다. 1994년 충남 대천시 명천동 269-4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기존 대천시 청사를 보령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다.¹⁰²

주로 보령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단체전을 유치했으며 별도의 전시공간이 없었으므로 군청 내 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현 보령시청의 전경 (출처: 보령시청 누리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6	《제9회 보령예술인회회원작품전》
1997	《제10회 보령예술인회회원작품전》

¹⁰¹ 문예연감에는 보령군청으로 기술하였으나 1995년 보령시가 된 점을 감안하면 보령시청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

¹⁰² 『보령시지』(보령시지편찬위원회, 2010), p. 422.

63) 보령보건소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에 있다.¹⁰³

1952년 보령군 내 대천면, 웅천면, 청소면 등 3개 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1956년 12월 1일 대천보건진료소를 보령보건소로 승격시키고 청소면 보건진료소와 웅천면 진료보건소를 폐지하였다.¹⁰⁴ 1986년 대천면이 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시군 통폐합에 따라 보건소 업무도 보령시로 통합되었다.

보령보건소는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154-3번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했으며, 1986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7-4번지(현 남포면 보령남로 234)로 다시 신축, 이전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오늘의 충남미술전》과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등 큰 전시를 개최했으나 건물 내 별도의 전시공간은 없으며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¹⁰⁵



1986년 이전 전 보령보건소 외관(출처: 디지털보령문화대전)



현 보령보건소(출처: 『주간보령』, 2020. 1. 2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6	《오늘의 충남미술전》
1997. 5. 17~5. 23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¹⁰³ 디지털보령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boryeong.grandculture.net/>

¹⁰⁴ 당시 보령면 보건소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4. 보건행정」, 『보령시지 상』(보령시, 2010), p. 543.

¹⁰⁵ 보령보건소 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다(2023. 10. 25).

64) 보령시민체육관(현 대천체육관)

보령시 대천로 136에 있다.

2023년 현재 보령시에는 보령국민체육센터(2006년 개장), 보령종합체육관(2016년 개장), 대천체육관(1991년 개장)과 보령종합경기장(1995년 개장)이 있다. 개장일을 고려하면 대천체육관의 옛 이름이 '보령시민체육관'에 해당된다. 대천체육관은 1991년 9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완성되었다. 지상 1층 경기장은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등 실내경기가 가능하다. 1997년 충남지역의 대규모 전시회인 충남미술대전을 위해 경기장 실내를 전시장으로 임시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천지역에서 열리는 유도, 배구 대회 등 주요 체육 행사 외에 전국노래교실 합창대축제, 보령시 한마음 화합대회 등 큰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대천체육관 외관
(출처: 디지털보령문화대전, 항목ID GC08800974)



대천체육관 내부
(출처: 디지털보령문화대전, 항목 ID GC0880097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7. 6. 27~6. 29	《충남미술대전 보령순회전》

65) 부여 구드래조각공원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으며 구드래는 부소산 서쪽 기슭의 백마강가에 있는 나루터 일대를 지칭한다.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1996~1997년에 조각예술품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으로 탄생하였다. 지역 출신 유명 조각가 작품 30점과 1999년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유명 조각가의 작품 29점 등 총 59점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야외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여시는 2018년 구드래조각공원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궁남지 오천결사대 충혼탑 등과 연계해 백제고도야경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9년 조각공원내에 금동대향로를 제작 설치하고 그 둘레에 바다분수를 만들었다. 2022년에는 조각공원내에 음악분수를 설치해 여름 내내 공원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구드래조각공원(출처: 『불교공뉴스』, 2018. 5. 24)



구드래조각공원의 조각(출처: <https://e-chungnam.tistory.com/431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8. 12. 21~12. 28	《98 구드래 야외미술제》
1999. 4. 16~5. 15	《제1회 부여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움》

66)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에 있다. 1929년 4월 재단법인 ‘부여고적 보존회’가 창립된 뒤 1939년 4월 조선총독부 박물관 부여분관이 설치되었다. 1945년 8월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으로 개정됐으며, 1971년 9월 1일 부소산 기슭에 신축 개관하였다. 1975년 8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승격되었고, 1993년 8월 현 위치인 금성산 기슭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개관 이후 꾸준히 전시를 개최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1999년까지 소수의 전시만 확인된다.



조선 객사시절 부여박물관(출처:『사진으로 본 부여의 백년』, 부여군, 2008, p. 272)



부소산에 자리한 옛 부여박물관(출처:『사진으로 본 부여의 백년』, 부여군, 2008, p. 272)



현 국립부여박물관 외관(출처: 위키백과)



국립부여박물관 내 전시실(출처: 국립부여박물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8. 10. 10~12. 9	《중국 낙양문물 명품전》
1999. 11. 26~12. 26	《백제특별전》

67) 부여군민회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에 있다.

1986년 2월 25일 2층 건물로 준공했으며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로 구성되었다.

1988년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전》을 비롯해 커누팀 창단식(1990년), 부여문화재연구소 현판식(1990) 등 다양한 공식 행사들을 진행한 장소였다. 문화예술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었던 부여에서 청소년수련원과 더불어 주요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전시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으며 군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부여문화원이 같은 건물로 이전했다. 2005년 부여군내에 공공문예회관의 성격을 지닌 국악의 전당(규암면 백제문로 388)이 조성되었으나 별도의 전시실은 없다.



1986년 부여군민회관 개관식 장면(출처: 『사진으로 본 부여백년』, 부여군, 2008, p. 263)



현 부여군민회관 전경(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5. 7~5. 14	《제1회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전》
1988. 8. 5~5. 15	《제5회 아사달청년회원전》
1989. 6. 17~6. 23	《제2회 미협 부여지부전》
1990. 9. 25~9. 28	《한일서예교류전》
1992. 12. 5~12. 9	《부신협회 부여지부&부여 예사회 합동전》

68)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에 있다. 1954년 4월 부여문화원으로 발족했으며 1964년 4월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86년 부여문화원은 부여군민회관 건물(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로 이전하였다. 1994년 9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부여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5년 부여문화원은 부여군민회관 건물에서 부여청소년수련원이 있던 현 위치로 이전했다.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진행한 다음 2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열었다.¹⁰⁶

부여문화원은 부여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하는 일을 비롯해 향토사의 조사·연구·자료수집을 통한 사료집 발간,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 축제, 열린문화공연 등 지역문화행사의 주관, 어린이 역사교실과 문화가족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⁰⁷ 1990년 이후 전시회 유치보다는 문화행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1970년대 부여문화원
(출처: 『사진으로 본 부여의 백년』, 부여군, 2008, p. 267)



부여문화원의 외관(출처: 충남문화포털)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0	《향토미전》
1983. 10. 20~10. 23	《제3회 부여예사회 회원전》
1983	《백제문화제 향토출신작가 초대전》

¹⁰⁶ 『굿모닝충청』(2015. 5. 18).

¹⁰⁷ 부여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nkccf.or.kr/buyeo/>

69) 부여읍민회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¹⁰⁸ 1960년 1월 1일 당시 부여읍소재지는 부여읍 동남리로 이곳에 부여읍민회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1년과 1982년 연이어 대전, 청주, 부여, 공주 출신 대학생들이 결성한 《아사달청년미술전》을 개최하였다. 1984년 부여군 소재 학교 미술교사들이 주최한 《제10회 부여군 미술교사 작품전》을 끝으로 더 이상 전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부여읍행정복지센터의 외관(출처: 부여군청)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1	《제2회 아사달청년미술제》
1982	《제3회 아사달청년미술제》
1984	《제10회 부여군 미술교사 작품전》

¹⁰⁸ 부여군에 부여읍사무소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현 부여읍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변동 없으며 동일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치는 같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2023. 10. 25).

70) 부여 청소년수련원

부여군 충화면 충신로 618에 있다.

1993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에 ‘충청남도 대표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원하였다. 당시 본관은 지상 2층으로 소강당과 대강당 겸 체육관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1997년 숙소 1호동을 준공하였다. 2001년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으로 새롭게 개원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을 함께 위탁 운영하였다. 2013년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어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되었다. 2014년 2월 현재 위치인 충화면 충신로 618로 이전했다. 체육관과 소강당을 조성하였으며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구비해 3월 19일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현 청소년수련원은 숙소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를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없다. 예전 수련원 자리에는 부여문화원, 김영학조각관, 부여생활문화센터가 이전했다.



1993년 개관한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의 외관(출처: <https://blog.naver.com/>)



2014년 개관한 수련원의 외관(출처: <https://bakje123.tistory.com/44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3. 10. 7~10. 11	《제3회 소부리 전국사진전람회 작품전시회》
1993. 12. 18~12. 21	《제4회 사진협회 부여지부 회원전》
1994	《한국미협 충남도지회전》
1995	《제41회 백제문화제》
1996. 10. 1~10. 5	《미협 부여지부 회원전》
1997. 8. 12~8. 18	《함중호전》
1997. 8. 15~8. 21	《아사달 청년전》
1998. 12. 22~12. 28	《제25회 충남조각회전》
1999. 3. 24~3. 31	《정찬국전》

71) 서산 마방화랑

서산시 변화1로 41-1(서산시 동문동 933-7)에 있었다.

한국미협 서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화가 정철곡이 운영하던 경양식집이다.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서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사랑방의 역할과 더불어 전시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짐작된다.¹⁰⁹

1984년 흥성소재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서미회가 개최한 전시가 유일하게 확인된다.



옛 마방화랑이 있던 건물
(출처: <https://www.facebook.com/1142275599288441/posts/1632647713584558/>)



마방의 상호가 있는 벽면(출처: <https://m.blog.naver.com/seosandaon/22249080695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제9회 서미회전》

¹⁰⁹ 『서산시대』(2019. 8. 21). <http://www.ss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 현재는 마일드치킨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마방이라는 상호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마일드치킨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마방의 윗블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마방이 약 10년 전 폐업을 하면서 건물을 구입했으며 서산 사람들에게 마방이라는 상호는 널리 알려진 곳이라 상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서산지역에서 마방의 입지가 확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2023. 10. 20). 임재광 전 공주대 교수와 서인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방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다. 즉 서산에 거주하던 예술인들이 즐겨 찾던 모임 장소이자 연배가 있는 연령층에게는 매우 친숙한 장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72) 서산문화원¹¹⁰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에 있다.

1957년 설립해 1965년 2월 정식인가를 받았다. 1987년 10월 관아문길 1에서 동헌로 149로 이전하였다. 건물의 노후화로 2001년 12월 현 위치인 부춘공원 2로 11(읍내동 516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 서산문화원 건물은 전시실 예랑(37평, 123㎡)를 비롯해 3개의 평생교육실, 다목적실, 공연장,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78년부터 1990년 말까지 꾸준히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전 문화원 건물에 별도의 전시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¹¹¹ 2003년 11월 증축을 통해 문화원 3층에 서산향토사료관을 개관해 서산지역의 향토사적 유물과 사료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2014년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모습의 서산문화원이 탄생했다.



1993년 서산문화원(서산시 동헌로 149)(출처: 『서산문화원60주년사』, 서산문화원, 2018, p. 39)



2002년 서산문화원(서산시 부춘공원2로11)(출처: 『서산문화원 60주년사』, 서산문화원, 2018, p. 39)



증축 후 현 서산문화원(출처: 충남문화포털)



현 문화원내 전시실(출처: 서산문화원)

¹¹⁰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역사의 발자취 서산문화원 60주년사』(서산문화원, 2018).

¹¹¹ 서산문화원 직원에게 이전 건물의 전시실 여부에 관해 문의했으나 관아문길과 동헌로 시절 문화원 건물에 대해 아는 직원이 없었다 (2023.10.25).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8. 11. 9~1. 12	《서산예술인협회전》
1981	《윤복희 초대전》
1982	《제2회 김영천 개인전》
1982. 9. 2~9. 8	《최원구 동양화전》
1983	《제1회 부여 국제현대조각 심포지움》
1983	《서미회전》
1985. 10. 26~10. 30	《미협 서산 천안지부전》
1985	《이환영 향토실경산수화 초대전》
1986. 5. 17~5. 24	《서양화가 3인전》
1986. 11. 15~11. 19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1987. 10. 30~11. 3	《미협서산지부전》
1987. 11. 7~11. 11	《서산서도회전》
1988. 11. 22~11. 29	《오천 이환영전》
1989. 4. 21~4. 24	《연목회전》
1989. 5. 22~5. 27	《최원고 동양화 개인전》
1989. 6. 7~6. 10	《묵양회전》
1989. 10. 28~10. 30	《사우회 사진전》
1989. 11. 24~11. 27	《제2회 목련미전》
1991. 8. 17~8. 22	《단미회전》
1993. 11. 1~11. 6	《제1회 충청남도 청년미술제》
1994	《이환영 아름다운 서산실경산수화전》
1996. 11. 1~11. 9	《환경미술전》
1997. 2. 22~3. 3	《최차열전》

73) 서산문화회관(서산문화예술회관)

서산시 문화로 52에 있다.

서산문화회관은 1985년 서산시청과 인접한 서산시 읍내동 510번지에 착공해 1990년 1월 6일 지상 3층의 건물로 완공됐다. 이후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대·소공연장과 3개의 전시실(330㎡, 지하 1개, 1층 2개)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 서산에서 활동한 서해조형작가회 및 서미회 등의 전시회와 더불어 서산시에서 주최하는 안전미술대상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였다.



서산문화회관 전경(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1. 2. 9~2. 13	《제5회 화단전》
1992. 4. 23~4. 26	《김문식전》 ¹¹²
1993. 4. 27~4. 30	《움직이는 미술관》
1993. 6. 27~7. 2	《한서연서전》
1994. 3. 25~4. 28	《제2회 한길포토라인회원전》
1995. 6. 3~6. 6	《제14회 대한민국사진전시회》
1995. 5. 8~5. 21	《이중득전》
1995. 5. 29~6. 1	《환경연합후원서화전》
1995. 10. 28~11. 2	《제15회 새터서화전》
1995. 12. 4~12. 9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1996. 10. 30~11. 7	《제6회 새터전》
1996. 12. 20~12. 26	《제5회 안전미술대상 및 한국화 공모전》
1997. 11. 3~11. 9	《서미회전》
1999. 9. 4~9. 10	《이중구전》

¹¹² 전시장소를 서산시민회관으로 표기하였으나 서산시문화회관을 의미한다. 서산시문화회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했다(2023. 10. 25).

74) 서산 서령미술회관

서령회관 3층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¹³

서령미술회관이 내포지방의 정신문화를 이어가고 도시와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1994년부터 서령예향미술제를 주최하였다¹¹⁴. 1995년 《서령미술회관 개관기념전》에는 충남 출신의 이종구, 이종상, 장순업, 정명희 등 12인의 작가 작품을 선보였다.¹¹⁵ 1996년 열린 제3회 서령예향미술제에는 당진 출신 작가 9명을 포함해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등 내포지방 출신작가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듬해 1997년 열린 제4회 서령예향미술제에 역시 서산에서 활동하는 화가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5. 5. 5~5. 15	《서령미술회관 개관기념전》
1996. 6. 10~6. 25	《제3회 서령예향미술제 봄전》
1997. 3. 24~3. 30	《제4회 서령예향미술제》

¹¹³ 서산에서 서인화랑을 이끌었던 임재광 전 교수에게 문의한 바 1995년에 서산에 있었으나 서령미술회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11. 8) 미술애호가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미술공간으로 짐작된다.

¹¹⁴ 『당진시대』(1997. 3. 24).

¹¹⁵ 『경향신문』(1995. 5. 5).

75) 서산미술관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서해조형작가회 창립전》(1990년) 도록에 실린 주소를 보면 서산버스터미널 2-5641로 되어있다.¹¹⁶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산시 안전로 190번지)이 있는 건물 2층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88~1989년까지 미술관은 운영된 것으로 짐작되며 《한국미협 충남지부전》을 유치한 점으로 미루어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⁷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건물 외관(출처: 나무위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2. 20~2. 27	《서산미술관 개관기념전》
1988	《안전탄생 570주년 기념 초대전》
1988. 9. 10~10. 20	《제56회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1989. 5. 27~5. 31	《구상작가회 기념전》

¹¹⁶ 서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서산의 문화』와 『서산문화원 60년사』(2018) 등을 검토했으나 서산미술관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서산화랑 또는 서산미술관으로 확인되는 공간은 2009년 12월1일 서산시 동문동 유경빌딩에 개관한 것으로 1988년 전시회를 연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다.

¹¹⁷ 1990년대 초 서산에서 활동한 임재광 선생님께 문의한 결과 서산미술관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2023. 11. 8).

76) 서산 서인사랑¹¹⁸

서산시 동문동 294-1번지(옛 안건로 191)에 있었다.¹¹⁹

1991년 서산터미널 건너편 서인클리닉 건물의 지하에 개관했다. 서인클리닉 개원의사들과 서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임재광을 포함한 서해조형작가회가 주축이 되어 화랑을 운영하였다. 작가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형성하여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 《김정헌·이종구전》, 《대전 충남 민족미술전(열림전)》 등 민족미술 경향의 전시를 유치했다. 단순 장소의 대여보다는 전시 기획 및 음악회,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



2007년 당시 서인클리닉 건물(출처: 네이버 지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1. 11. 9~12. 9	《서인사랑 개관 기념전》
1991. 12. 1~1992. 1	《27인의 드로잉방법전》
1992. 2.	《안승환 사진전》
1992. 2.	《현실과 시각전》
1992. 3.	《국내중견 판화작가전》
1992. 4.	《학동인전》
1992. 5.	《최치열 사진전》
1992. 6.	《남기풍 개인전》
1992. 6. 15~6. 30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1992. 7.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
1992. 8.	《표상전》
1992. 9.	《임재광 개인전》

¹¹⁸ 『한국미술전시자료집』과 『문예연감』에는 서인화랑으로 표기하였으나 서인사랑의 오류이다.

¹¹⁹ 갤러리 쉬갈을 운영하는 임재광 관장님을 통해 서해조형작가회에서 출판한 『서해사랑 1호』를 제공받았다. 당시 서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적극적인 행보와 더불어 서인사랑의 발자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전시일자	전시명
1992. 10.	《6인의 제안전》
1992. 10.	《박종근 개인전》
1992. 11. 16~11. 30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1992. 12.	《화서전》
1993. 2.	《가야사진 동우회전》
1993. 3.	《서산미술대학생 동우회 화서전》
1993. 4.	《김영천 개인전》
1993. 5.	《이수욱 개인전》
1993. 6. 8~6. 30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1993. 7.	《학동인전》
1993. 8.	《정찬국 조각전》
1993. 9.	《중국연변 조선작가전》
1993. 10.	《장진례 도예전》
1993. 10.	《제1회 충남청년작가전》
1993. 11.	《김정현 · 이종구전》
1993. 11. 22~12. 19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1993. 12.	《정현욱 도예전》
1994. 1.	《이선열 한국화전》
1994. 2.	《한우리 사진 동우회전》
1994. 3.	《정상묵 사진전》
1994. 4.	《이응우 자연미술 14년 검증전》
1994. 5.	《서해판화조형전 창립전》
1994. 6. 10~6. 17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1994. 7.	《한국화 5인전의 지 · 각 · 전》
1994. 9.	《대전 충남 민족미술전(열림전)》
1994. 9.	《조정환 사진전》
1994. 10.	《심응섭 한글 서예전》
1994. 12. 5~12. 16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1994. 12.	《서미회전》
1995. 1.	《벽 · 바닥, 그리고 의식전》
1995. 2.	《차명일 도예전》
1995. 5.	《장철식 개인전》
1995. 6.	《정성우 조각전》
1995. 8.	《충남 한국화회전》
1995. 11. 27~12. 16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77) 서천군민회관

서천군 서천읍 서천리 14번길 20(구 군사리 176-2번지)에 있었다.

1976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사무실, 식당, 강당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회관을 완공하였다. 2005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현재는 건물명이 서천문예의전당에 변경되었으며 서천군청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다.¹²⁰



현 서천문예의 전당(출처: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

서천문예의 전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77㎡ 규모이며, 대강당(698석), 소강당(200석), 교육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시실은 없다.¹²¹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9	《제1회 빙바위전》
1980	《제2회 빙바위전》
1989. 8. 10~8. 31	《서천서화초대전》
1991. 11. 28~12. 1	《제18회 서천군교사회 작품전》

¹²⁰ 서천군청에 문의한 결과 군민회관이 위치는 변동 없이 '문예의 전당'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라 하였다.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약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전화통화 2023. 10. 20).

¹²¹ 서천군청 누리집 <https://www.seocheon.go.kr/kor.do>

78)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에 있다.

1965년 1월 사단법인 서천문화원을 서천읍사무소(현 서천읍 서천로 92)에 개원했다.¹²² 1989년 2월 서천읍 군사리 176-2에 있는 서천군민회관으로 이전해 운영했다. 2001년 3월 서천읍 사곡리 62번지로 문화원을 신축, 이전했다. 지상 2층의 신축 건물(995m³) 1층에 전시실(133.3 m²)을 마련하였다. 서천에서 활동 중인 사진 동호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공간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¹²³



1989년 서천문화원 외관(출처: 『사진으로 만나는 서천문화원 50년사』, 서천문화원, 2015, p. 17)



현 서천문화원
(출처: 충남문화포털<https://cnc.cacf.or.kr>)



2022년 조동희 작가 초대전(출처: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 전시실(출처: 서천문화원)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2. 8~12. 13	《제8회 서천헤이드인사진동호회전》
1996. 4. 2~4. 9	《충청남도내문화재사진전》

¹²² 서천 향토사학자 유준광 박사에게 전화로 문의해 서천문화원이 서천읍사무소에 있었음을 확인했다(2023. 11. 10).

¹²³ 『미래 도약을 향한 서천문화원 50년사』(서천문화원, 2015).

79) 아산 당림미술관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1182번길 34-19에 있다. 1997년 6월 14일 서양화가 이종무(1916~2003)가 고향인 아산에 자신의 호 당림(棠林)을 내세워 전시실과 작업실을 겸해 개관한 미술관이다. 전시실, 야외조각공원, 카페와 더불어 이종무 화백이 생전까지 머물며 작업활동을 하던 화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린이의 감성발달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어린이 문화 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림미술관 외관(출처: 충남도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nmunman>)



이종무화백 생전 작업실(출처: 충남도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nmunman>)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7. 6. 14	《수채화 소품전》

80) 아산(온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아산시 아산시 남부로 92번지(구 용화동 423-6)에 있다.¹²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 5월에 개관했다. 당시 명칭은 온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었다. 생활체육 공간과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활용되었으며 3층에 올림픽 기념물 60여 점이 전시된 전시실을 마련했다. 《움직이는 미술관전》의 어떤 전시회를 개최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전시공간을 활발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리모델링을 실시해 전시관이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였다. 2008년 ‘시민생활관’으로, 2011년 ‘평생학습관’으로 거듭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년 1월 아산시 평생학습관, 아산시 여성회관, 아산시립도서관, 외암리민속마을관리소 등이 이전하여 같은 구역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평생학습관 건물의 지하 1층에 공연과 전시를 위한 복합공간이 있다.



현 아산시 평생학습관(출처: 디지털아산문화대전)



평생학습관 지하 1층 공연전시실 내부(출처: 아산시청 누리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4. 4. 26~4. 29	《움직이는 미술관전》

¹²⁴ 1995년 아산과 온양이 통합되면서 아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듯하다.

81) 온양문화원

1957년 5월 온양읍 온천리 57번지에서 개원하였다. 1986년 9월부터 매달 『온양소식』지를 간행해 온양 관련 소식과 함께 간간이 전시회를 소개하였다.¹²⁵ 1990년 1월 옛 온양소방대 사무실로 이전하며 전시 전용공간을 확보해 약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¹²⁶

이후 1993년 5월 현재 위치인 아산시 남산로 28에 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현 건물은 563㎡ 대지에 4층 건물로 1층에 사무국과 북카페, 2층에 원장실, 자료실, 사랑방, 3층에 다목적실, 4층에 동아리 방과 학습공간인 다락방으로 구성되었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대민 문화교육과 향토사 연구에 전념하고 있어 1993년 이후 온양문화원에서 전시회가 개최된 사례는 없다.¹²⁷



온양문화원의 외관(출처: 디지털아산문화대전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0. 12. 12~12. 17	《차은희 미술학원 미술전시회》
1991. 11. 19~11. 23	《제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순회 사진전》

¹²⁵ 온양문화원에서 간행하는 『온양소식』은 1986년 창간호부터 1991년 통권 61호까지 총 25권을 검토했으나, 문화원에서 열린 전시회는 두 건만 확인되었다. 『온양소식』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지역N문화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역N문화 홈페이지 <https://www.nculture.org/>

¹²⁶ 『온양소식』에 실린 온양문화원에 대한 안내문에 의하면 당시 문화원은 온양시 온천 1동에 있었다. 『온양소식』 제41호(온양문화원, 1990), p. 13; 1990년 1월 31일 문화원 원사의 이전 안내문에는 “건물 1층에 약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온양소식』 통권 45호(온양문화원, 1990). 현재 온양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해 문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2023. 12. 22).

¹²⁷ 온양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nkccf.or.kr/> 이지윤 과장은 현재 온양문화원 건물에는 전시회를 위한 공간이 없어 전시회를 열 수 없다고 하였다(2023. 12. 22).

82) 연기 조치원문화원

현 세종문화원의 전신이다. 1962년 연기군 교육청 건물에 임시로 조치원문화원을 개원하였다.¹²⁸ 이듬해 조치원읍사무소(조치원읍 교리 11-1)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¹²⁹ 1964년 정식으로 조치원문화원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1965년 10월 읍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사생대회를 개최했으며, 문학의 밤과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63년 조치원문화원(출처: 『세종문화원 50년사』, 세종문화원, 2014, p. 33)

1969년 조치원읍사무소가 신축 이전하면서 읍사무소 건물 전체를 문화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¹³⁰ 전시를 개최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전무했던 연기군에서 조치원문화원은 전시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¹³¹ 문화원은 도시개발 계획으로 아파트 조성단지에 포함되면서 1988년 준공된 연기군민회관(조치원읍 문화로 17) 2층으로 이전한 후 2004년부터 군민회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¹³² 2009년 연기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군민회관으로 이전한 이후 연기군의 특성을 살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지역에서 출토되는 분청사기를 발굴·연구한 결과물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하였다.¹³³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66	《학생미술전》
1986. 6. 8	《한국예총 조치원지부 사진협회 제1회 사진전》
1987. 10. 5	《사진협회 제2회 사진전》

¹²⁸ 연기군교육지원청은 연기군 조치원읍 대철로 32에 있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출범 이후 폐지되었다.

¹²⁹ 당시 조치원읍사무소 2층으로 문화원이 자리를 옮겼는데 제대로 된 사무실도 아닌 사무용 집기만 간신히 들여놓은 상태였다. 민복기(1944~) 서예가와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2023. 12. 20).

¹³⁰ 당시 조치원읍사무소는 대지 478평, 건평 126평으로 독서실 19평, 전시실 12평, 회의실겸 음악실 15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세종문화원50년사』(세종문화원, 2014), p. 58.

¹³¹ 송암 민복기 서예가와 연기지부 사진가협회 회장과 통화로 확인하였다(2023. 12. 29; 2023. 12. 21).

¹³² 세종문화원 길미숙 사무국장에게 문화원에서 개최한 전시회 관련 자료에 관해 문의했으나, 당시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 자료들을 전혀 보관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2023. 12. 19).

¹³³ 이후 조치원문화원은 분청사기 등 발굴을 지속했지만 전시회는 열지 않았다. 문화원이 연기군민회관 건물로 이전한 이후 조치원문화원에서 진행한 전시회는 '연기군민회관'에서 열렸다.

83) 연기군민회관(현 세종시민회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로 17(구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에 있다.

1988년 5월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대강당과 소회의실 겸 전시실, 향토자료실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2004년 5월 개보수를 진행했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세종문화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¹³⁴

2000년 세종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기 전 세종시의 유일한 문화예술공연장 역할을 했다. 세종문화원이 군민회관으로 이전 후 위탁관리하고 있다. 도원예술제를 매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연기군 출도 도자기전》을 이끌었다. 또한 전시공간이 부족한 연기군의 사진작가와 서화가들에게 유일한 전시공간으로 애용되었다.



연기군민회관(현 세종시민회관) 전경(출처: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0. 5. 3~5. 11	《행위예술 별무리전》
1990. 11. 27	《연기군출토도자기전》
1991. 10. 13	《제6회 연기 사진협회 회원전》
1993. 10. 25	《제1회 연맥서화전》

¹³⁴ 『중도일보』(1994. 11. 13).

84)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에 있다.

1955년 10월 미국공보원의 기자재 지원으로 예산읍사무소(예산리 429)에 임시로 개원했다.¹³⁵ 1978년 9월 예산읍 예산리 517번지로 이전했으며, 1982년 예산리 433번지로 다시 옮겼다. 1994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예산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았다.¹³⁶ 2002년 5월 천변로 90번길 3에 새로 문화원 건물을 짓고 이전했다. 3층에 작은 전시공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12월 예산문화원 제2관을 증축했다. 1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2관은 지상 3층 건물로 완공했으며, 본관 1층에 서예실, 3층에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다.



1960년대 예산문화원의 모습(출처: 예산 출신 이진자 작가 제공)



2002년 신축한 예산문화원 구관과 신관 전경(출처: 예산문화원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0. 20~10. 24	《예산문화원 창립 30주년 기념 도예전》
1984. 10. 20~10. 24	《김기철 도예전》
1989. 12. 8	《예산협회 회원작품전》
1992	《제12회 전통공예작품전》
1994. 11. 29~12. 4	《제5회 추사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수상작품전시회》

¹³⁵ 예산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nkccf.or.kr/yesan/>

¹³⁶ 예산문화원에 이전 예산리 433번지 건물에 전시실이 있었는지 문의했으나 아는 직원이 없었다(2023.10.25).

85) 예산문화회관

현재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5-14에 있다.

예산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위해 1993년 10월 건립했으며 예산문화회관, 문예회관 등으로 불린다. 505석의 공연장과 145m² 규모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1999년까지 예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중심의 한국미협 예산지부전이 꾸준히 열린 것으로 나타난다.



예산군문예회관(출처: 디지털예산문화대전, 항목ID 06601107)



전시실 전경(출처: <http://m.onulnews.com/1229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5. 4. 22~4. 23	《농어촌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순회전향토미전》
1995. 5. 25~5. 27	《북유럽의 건축물 풍경사진전》
1995. 12. 15~12. 20	《한국미협 예산지부 작품전》
1996. 6. 15~6. 21	《정상원전》
1996. 11. 29~12. 3	《한국미협 예산지부전》
1997. 11. 24~11. 30	《한국미협 예산지부전》
1998. 9. 7~9. 13	《제6회 충남청년미술제》

86) 예산 종합터미널 전시장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구 산성리 647번지)에 있다.

1988년에 4층 건물로 준공되었으며, 2~4층은 웨딩홀, 지하는 찜질방이 있었다.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전시회를 했는 지 알 수 없다.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는 협소한 대합실보다 웨딩홀을 한시적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3년 4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였다.



2022년 예산종합터미널의 전경(출처: 한국관광공식블로그)



예산종합터미널에 입주한 예식장(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2. 11. 4~11. 10	《제60회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전》
1994. 5. 17~5. 23	《천안수채화협회전》

87) 천안 도솔화랑

천안역 건너편 시대복장 건물의 2층에 있었다.¹³⁷

도솔화랑은 이돈우 전 아라리오갤러리 관장이 운영했다. 1984년 12월 개관해 1985년까지 공주, 서산, 천안 등 충남지역의 지부회원전을 개최하였다. 도솔화랑의 개관은 천안미술인들에게 “전시공간이 부족한 천안에서 흐뭇한 경사이며 도솔 화랑이 천안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막상 도솔화랑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¹³⁸ 1984~1985년 2년간 개최된 전시만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후 폐업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4. 12. 28~1. 5	《도솔화랑 개관기념 천안지부초대전》
1985	《늘빛 심응섭 초대전》
1985. 2. 1~2. 15	《그릴회전》
1985	《손석만 초대전》
1985. 2. 16~3. 1	《한국미협 서산지부초대전》
1985. 6. 2~6. 15	《한국미협 공주지부전》
1985. 10. 19~10. 31	《박명옥 염색전》
1985. 11. 1~11. 7	《한국미협 서산·천안지부전》

¹³⁷ 천안미협 고문 김재선 선생님의 기억에 따른다.

¹³⁸ 『제4편 문화』, 『천안시지 상』(천안시, 1997), p. 940.

88) 천안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에 있었다.

1954년 7월에 설립됐다. 각계의 성금으로 천안시 동남구 옛 농고7길 11-1(구 문화동 78번지)에 800평의 대지를 구입해 천안문화



1954년 문화동 시절 천안문화원(출처: 『오마이뉴스』, 2004. 7. 9)

원과 문화관을 신축했다. 1992년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 이전했다. 건물 1층에 전시실과 도서실을 구비하였다. 1997년 향토사료관을 설치하였다.¹³⁹ 천안문화원은 전문 전시공간이 없던 천안에서 1977년 제2회부터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을 꾸준히 개최한 주된 전시장이었다. 아울러 1984년부터 종합 문예정보지인 『천안군문화』와 1992년부터 『향토자료집(문화유적해설)』 등을 발간하고 있다.

2006년 천안문화원 내부의 갈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며 2007년 천안시가 건물을 인수하였다. 기존 문화원 건물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주민센터로 활용되고 있다.¹⁴⁰



1972년 천안문화원에서 열린 자유의 날 기념식(출처: 디지털천안문화대전)



성정동 천안문화원(출처: 『오마이뉴스』, 2006. 11. 4)

¹³⁹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2188&cid=40942&categoryId=31643>

¹⁴⁰ 디지털천안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cheonan.grandculture.net/>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7. 12. 16~12. 20	《제2회 한국미협천안지부전》
1978. 12. 9~12. 14	《제3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1979. 12. 3~12. 7	《제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1980. 11. 7~11. 11	《제5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1984. 7. 15~7. 19	《제9회 한국미협천안지부회원전》
1984. 12. 1~12. 3	《제3회 천안사우회회원전》
1984. 12. 12~12. 18	《서양화3인전》
1985. 9. 16~9. 21	《제12회 충남서예협회전》
1987. 8. 14	《독립기념관 개관기념-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1988. 5. 7	《한국미협 천안·온양지부 교류전》
1989. 3. 24~3. 28	《제13회 미협 천안지부 회원전》
1989. 6. 9~6. 15	《제14회 미협 천안지부 회원전》
1990. 6. 1~6. 2	《천안서예인회 창립전》
1990. 6. 8~6. 12	《제6회 PURE전》
1990. 6. 15~6. 19	《천안수채화협회 창립전》
1990. 6. 21~6. 23	《서원 서대철 작품전》
1992. 9. 22	《천안문화원 신축개관기념-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1996. 6. 16	《제5회 천안시 초등학교 미술실기대회》

89) 천안 미도백화점 (=로얄백화점)

천안시 동남구 옛 시청길 6(구 동남구 대흥동 165)에 있었다. 1982년 천안세무서가 새로 청사를 준공해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미도백화점을 신축, 개점하였다. 종합쇼핑센터로 1986년 미도백화점에서 로얄백화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국미협 천안지부전》과 《한국미협 충청남도지부전》 등 대규모 전시를 유치한 점으로 미루어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명칭은 백화점이지만 점포마다 점주가 따로 있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형태였다. 2001년 이후 정원개발에서 인수해 직영테마쇼핑몰 ‘르씨엘’로 개업하였다. 2020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주차장 기둥 일부가 파손되고 벽 등의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¹⁴¹



천안 미도백화점의 예전 위치(출처: <https://map.naver.com>)



현 르씨엘 건물 외관(출처: <https://blog.naver.com>)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3. 10. 25~10. 30	《제8회 천안지부전 및 제51회 한국미협 충남도지부전》
1984. 11. 3~11. 8	《제9회 한국미협 천안지부회전》
1986. 11. 14~11. 18	《천안지부 창립10주년 기념 천안지부회원전》
1989. 4. 15~4. 30	《천안여류화가전》

¹⁴¹ 『대전일보』(2022. 4. 13).

90) 천안시민회관(천안시 신부문화회관)

천안시 동남구 신부 2길 12에 있었다. 1987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대·소강당과 3개의 전시실을 갖춘 건물로 개관했다. 11월 《한국미협 천안지부전》과 《시민회관 개관 기념전》을 개최한 이후 꾸준히 미협 천안지부 전시를 선보였다.

천안시민회관은 2009년 여성회관으로 편입되어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¹⁴²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거쳐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의 분관 ‘신부문화회관’으로 천안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¹⁴³ 현재 신부문화회관은 1층에 제1전시실(140m²), 2층에 제2전시실(237m²), 3층에 소강당(200석 규모)를 구비하고 있다.¹⁴⁴ 2012년 개관한 천안시립미술관과 더불어 주된 전시공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 천안시민회관
(출처: 『천안문화』 27호, 천안문화원, 1998, p. 72)



현 신부문화회관(출처: 『미디어투데이』, 2021. 8. 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7. 11. 6~11. 12	《제11회 천안지부전 및 천안시민회관 개관기념전》
1987. 11. 6~11. 12	《제6회 천안사우회전》
1988. 10. 20~10. 25	《제12회 천안지부전》
1992. 5. 21~5. 26	《미협 천안지부전》
1993. 10. 12~10. 17	《미협 천안지부전 및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1994. 10. 1~10. 7	《제19회 미협 천안지부전》

¹⁴² 디지털천안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cheonan.grandculture.net/>

¹⁴³ 『동양뉴스』(2020. 5. 18).

¹⁴⁴ 『중부매일』(2023. 3. 9).

전시일자	전시명
1995. 10. 16~10. 25	《창립 20주년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1996. 7. 6~7. 9	《양태모전》
1996. 10. 18~10. 25	제21회 미협 천안지부전
1997	《오늘의 충남미술전》
1997. 4. 20~4. 26	《충남수채화협회전》
1997. 9. 16~9. 23	《장인성전》
1997. 10. 2~10. 10	《타블로전》
1997. 10. 4~10. 10	《김정서전》
1997. 10. 13~10. 20	《목요누드크로키회전》
1997. 10. 21~10. 27	《홍대미대동문전》
1997. 11. 1~11. 5	《세라믹투데이전》
1998. 5. 4~6. 2	《충남미술대전》
1999. 1. 4~1. 10	《박주남전》
1999. 5. 24~5. 30	《제29회 충남도미술대전》
1999. 10. 1~10. 10	《신경철 · 장순임 실크로드사진전》

91)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다.

1989년 주식회사 아라리오가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아라리오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 대표 김창일(예명 씨킴)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기저로 천안 시민들이 다양한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천안 아라리오 미술관 외관(출처: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홈페이지)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내부(출처: 『연합뉴스』, 2022. 6. 2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9. 10. 20~11. 15	《연변서양화가9인전》
1989. 11. 17~12. 6	《현대조각전》
1990. 2. 3~2. 18	《제15회 천안지부전》
1990. 6. 8~6. 17	《국내작가현대판화전》
1990. 11. 1~11. 7	《제2회 천안여류화가전》
1991. 1. 22~1. 31	《아라리오미술관상설전》
1991. 9. 13~9. 19	《중소도시작가전 I-천안전》
1992. 11. 9~11. 15	《제2회 천안미술작가회전》
1993. 6. 3~6. 30	《5인의 시각전》
1993. 6. 19~6. 25	《제4회 천안수채화협회전》
1994. 12. 19~12. 24	《벽·바닥, 그리고 의식》
1996. 11. 15~1. 2	《동시대작가전》
1997. 5. 23~6. 1	《천안미술사진서예초대작가전》
1998. 9. 10~10. 25	《개관9주년 기념전》

92) 천안 아카데미다방

천안역 앞 명동거리로 불리는 대흥동에 있던 아카데미극장 근처에 있던 다방으로 짐작된다.¹⁴⁵

1971년 11월에 열린 천안복자여고 교사 임응수의 시화전 안내문에는 전시장소를 천안아카데미 지하다방으로 표기했다.¹⁴⁶ 12월에 열린 서양화가 신양섭의 유화전 안내 기사문에서는 전시장소를 천안 아카데미다방으로만 기재했다.¹⁴⁷ 당시 아카데미극장은 530석 규모를 갖춘 천안시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으며 천안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전시장소를 다방으로 표기했으나 이후 화랑으로 변경한 점은 전시회를 진행하는 작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카데미 다방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약 8년간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카데미극장 간판(출처: 『오마이뉴스』, 2003. 3. 2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71. 11. 22	《임응수 시화전》
1971. 12. 8~12. 14	《서양화가 신양섭 유화개인전》
1978	《홍성규 작품전》

¹⁴⁵ 복자여자중고등학교와 복자유치원의 제1회 예술제가 천안 아카데미극장에서 열린 것에 관한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경향신문』(1964. 11. 28); 천안 아카데미극장은 1964년 이전부터 영업했음을 당시 영화 '말띠여대생'의 광고를 통해 짐작된다. 『경향신문』(1964. 1. 14).

¹⁴⁶ 「임응수시화전」, 『경향신문』(1971. 11. 22); 동대신문에서는 임응수 시화전의 광고와 함께 장소를 천안 아카데미에식장의 지하다실로 표기하였다. 『동대신문』(2012. 1. 25); 천안미협 고문인 김재선 선생님은 아카데미 다방이 아카데미 극장 입구에 있었다고 해 신문광고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2023. 11. 16).

¹⁴⁷ 동아일보(1971. 12. 8) 경향신문의 기사에서는 천안아카데미 지하다방으로 기재했다. 『경향신문』(1971. 12. 7).

93) 천안 이채관화화랑

천안시 서북구 개목9길(옛 성정1동)에 있었다.

아라리오갤러리 관장을 지낸 이돈우가 새로 조성한 판화 전문 전시관이다.¹⁴⁸ 판화가 이철수와 판화가 김상구의 개인전과 판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펼쳐진 유망판화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판화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짐작된다. 1995년에 개관해 2000년까지는 운영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5. 6. 22~7. 5	《제12회 김상구 목판화 개인전》
1995. 9. 1~9. 7	《정원철 · 황용진전》
1995. 10. 18~10. 31	《이철수 8개 도시 순회전》
1997. 7. 5~7. 11	《'97 유망판화가 순회전》

¹⁴⁸ 『서울신문』(2000. 8. 15).

94) 천안 충남학생회관(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옛 원성동)에 있다. 현재 정식명칭은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다. 1994년 9월 착공해 1997년 6월 17일 ‘충청남도 학생회관’으로 개관했다.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미래예술산업의 주역이 될 예술 영재와 스마트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예술 활동과 문화 지식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¹⁴⁹

2003년 12월 정보관을 준공, 2007년 5월 예술 영재 교육 문화원을 개원하였다. 2009년 9월 충청남도 교육청 조직 개편에 의거해 ‘충청남도 학생 교육 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9년 다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상 3층 건물로 대·소공연장과 330㎡ 규모의 전시실 갤러리를 갖추고 있다. 전시 관련 자료를 보면 천안학생회관과 충남학생회관으로 혼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안에 있으므로 천안학생회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충청남도 학생 교육 문화원(출처: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



전시실 전경(출처: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7. 8. 22~8. 24	《소원회 임시전》
1998. 10. 20~10. 25	《제9회 충남수채화협회전》
1998. 11. 7~11. 10	《제4회 소원회전》
1999. 6. 17~6. 25	《다시보는한국전쟁-우리들의자화상전》
1999. 11. 3~11. 9	《김영규전》

¹⁴⁹ 디지털천안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cheonan.grandculture.net/>

95) 천안 태화산방

태화산방 광고에 의하면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70-4 한진고속터미널 앞에 있었다.¹⁵⁰ 개점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표는 정흥제로 ‘민화의 전당’이라는 광고와 더불어 민속품·도자기·목기·골동품·고서화·현대화에서 고급표구를 취급하는 업소로 소개하고 있다.¹⁵¹ 비교적 넓은 매장에 전시보다는 골동품 매매와 표구를 전문적으로 운영했다.

1981년 《제6회 천안지부 및 천안 현대미술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장소로 소개된 광고를 1990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¹⁵²

민속품/도자기/목기/골동품/古書畫/現代畫/...고급표구



태화산방 광고 (출처: 『천안문화』 제10호, 199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1	《제6회 천안지부 및 천안 현대미술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

¹⁵⁰ 『천안문화 제10호』(천안문화원, 1990)에 실린 광고에는 터미널 앞에 있다고 보이나 천안미협 김재선 고문은 구 천안문화원 입구에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2023. 10. 25).

¹⁵¹ 소유주인 정흥제는 천안 출생으로 의용소방대장을 역임. 천안문화원 부원장과 천안향토사연구위원을 지냈다. 『천안문화』 제12호(천안문화원, 1991), p. 28.

¹⁵² 당시 천안미협 지부장 김재선 고문의 기억에 의하면 전시를 위한 적당한 공간이 없었으며 작품 매매를 위한 전시였으므로 태화산방을 전시공간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96) 천안 평림화랑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대표는 이계성으로 1998년 6월 천안에서 최초로 《미술품 경매전》을 시도해 미술품 유통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경매전은 일반전시와 특별전시로 구분해, 일반전시는 경매를 통한 판매를 진행하는 반면 특별전시는 전시장가의 60%에 작품을 판매하는 이분화된 방식을 도입하였다.¹⁵³ 1999년 《고별감사대할인전》이라는 이색적인 타이틀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폐관하였다. 김병중, 이월중, 김기창 등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 마지막 전시였다.¹⁵⁴



평림화랑의 내부(출처: 『천안문화』 제27호, 1998, p. 95)



평림화랑의 마지막 전시 안내문(출처: 『천안문화』 제28호, 1999, p. 103)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1	《한진만 제4회 개인전》
1991. 10. 2~10. 18	《한국화 사색전(김병중 이월중 황창배)》
1992	《변영환전》
1992	《제11회 이월중 개인전》
1993. 2. 13~2. 26	《현남주전》
1994	《박수룡 달구벌 미술전-판화전》
1999. 5. 6~5. 12	《고별감사 대할인전》

¹⁵³ 『천안문화』 제27호(충남천안문화원, 1998), p. 95.

¹⁵⁴ 『천안문화』 제28호(충남천안문화원, 1999), p. 103.

97)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에 있다.

1955년 청양문화원을 창립했으며 1965년 2월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9년 9월 문화원 건물 3층을 증축 완공했다. 건물 3층에는 도서실과 강당 외 다목적실이 있다. 전시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강당을 임시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다.¹⁵⁵



청양문화원 외관(출처: <https://m.blog.naver.com/yungun0352/221297460723>)



청양문화원 전시실 내부(청양문화원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57	《정영복 제1회 개인전》
1985. 12. 6~12. 12	《청양군내미술교사작품전》
1995	《복원규 청양문화원 초대전》

¹⁵⁵ 청양문화원 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했다(2023. 10. 25).

98) 청양 예원사화랑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원래는 문구점 '예원사'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전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화랑'으로 붙인 것으로 짐작된다.¹⁵⁶ 1972년 설립된 정산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이 사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¹⁵⁷ 전시회가 1회만 열렸으나 상업장소인 문구점이 학생들의 전시를 위해 공간을 제공한 점과 당시 청양 소재 고등학교 미술부의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5. 11. 28~12. 2	《제1회 정산고 미전》

¹⁵⁶ 2000년대 이후 예원사에서 성보상사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e-청양신문』(2001. 8. 20). 현재는 컴퓨터 등 OA전문점으로 변했다. <http://www.c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5>

¹⁵⁷ 학교 행사의 경우 대체로 학교 강당이나 공공시설에서 전시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소규모의 전시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정산고 '아트디자인' 동아리가 미술반의 맥을 잇고 있는 듯하다. 청양 정산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jeongsan.cnehs.kr/>

99)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번지에 있다.

1990년 10월 10일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37-9에서 창립했다. 태안과 서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화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공간은 이목회의 전시사진에서 엿볼 수 있다. 작품을 2단으로 설치한 점으로 미루어 넓은 공간을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7년 현 위치에 신축 원사를 준공 이전했다.



태안문화원 외관(출처: 충남문화포털 <https://cnc.cacf.or.kr>)



1990년 이목회전시회 장면(출처: 『태안의 문화』, 199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90. 10. 10~10. 16	《6인 초대전》
1990. 11. 1~11. 7	《이목회 서예전》
1991. 5. 31~6. 11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1992	《예술태안회 창립전》

100) 홍성문화원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구 고암리 689-4)에 있다. 1954년 개원해 1965년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73년 재일동포 정덕영으로부터 539만 원을 기증받아 495.86㎡ 규모의 홍성문화원 건물을 완공했다.¹⁵⁸ 별도의 전시실 없이 강당을 임시 전시장으로 이용하였으며, 홍성미협과 지역작가 전시를 주로 개최하였다.

2005년 현재의 위치에 문화원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다. 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본관 2층에 전시실(186.18㎡)이 마련되어 있다.



홍성문화원 전경(출처: 『원데이리』, 2019. 4. 17)



전시실 내부(출처: 『충남시대』, 2023. 10. 1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
1988. 8. 29~8. 31	《올림픽 성화맞이 기념 법광서화전》
1989	《이환영 개인전》
1991. 10. 31~11. 5	《제4회 홍주예목회전》
1992	《제1회 향토작가초대전》
1994. 9. 28~10. 1	《홍성미술협회전》
1995. 11. 11~11. 17	《홍성미술협회전: 홍성향토작가초대전》

¹⁵⁸ 홍성문화원 홈페이지 <http://hs.cnkccf.or.kr/>

2.

근·현대기 충남 미술단체 분석 및 해제

1. 충남 미술단체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

충남의 미술단체를 [표2-1]처럼 각 연대별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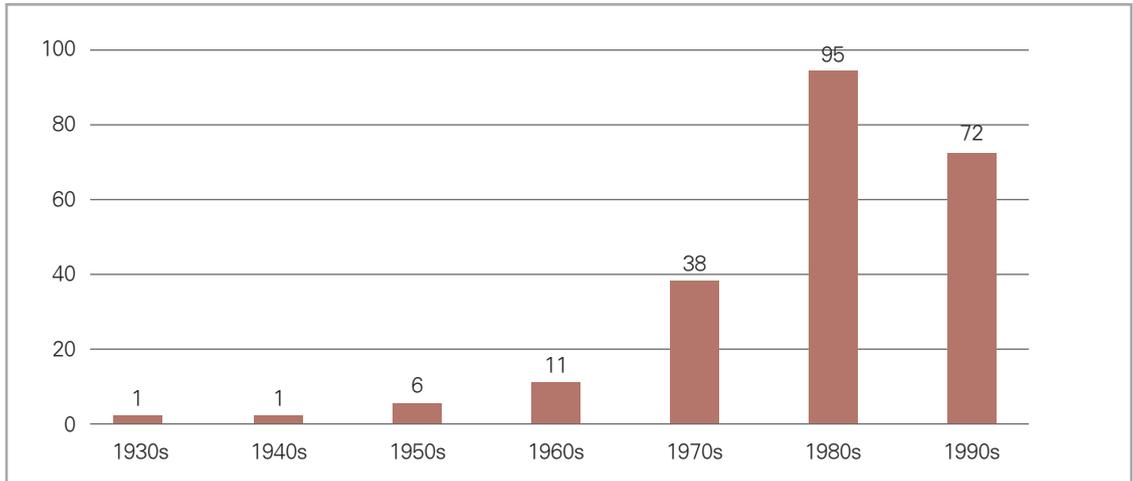
- ① 1930년대 공주지역에서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가 결성되어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공주회화회는 현재 기록으로 확인된 충남의 가장 이른 시기 결성된 미술단체이다.
- ② 1945년 광복 직후 박성섭, 이동훈 등이 뜻을 모아 ‘미술협회’를 결성하고 《해방기념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미술협회’는 한국전쟁 시기 중단되었다가 1953년 ‘충남미술협회’로 재건된다.
- ③ 1950년대에는 ‘충남미술협회’를 중심으로 미술가들이 결집하여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여러 미술단체가 결성된다. 그중 1958년 ‘녹청회’, ‘루-불미술동인’, ‘수요동인회’, ‘청포도회’가 대표적이다. ‘충남사진연우회’는 1951년 창립한 사진가 단체로 한국 전쟁시시에 결성된 충남 최초의 사진동호회다.
- ④ 1960년대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미우회, 죽미회 등이 창립되었으며, (사)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의 인준을 받은 ‘한국미협 충남지부’가 정식 출범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던 미술학도들이 모여 ‘재경 충남미술학우회’(1960)를 결성하였으며, 이후 서울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모여 ‘향미회’(1967)를 결성했다.
- ⑤ 1970년대 들어 미술단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공주와 대전 외에도 논산·서산·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미술단체가 창립되었다.
 - 공주에서는 청조회·빌리잔·청양당 한문연구회·정공회·금강미회·그릴회·한길회 등이 창단되었다. 특히 청조회와 빌리잔, 정공회는 공주교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학교 교수들이 지도를 하였다. 즉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공주교육대학교가 공주지역의 미술단체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에서는 추상회화를 추구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충남청년미술인회(1972년 ‘청미회’로 변경)를 비롯해, ‘19751225 그룹’(1975), ‘르뽀동인회’(1976), ‘대전’78세대’(1978) 등의 그룹이 결성되는 등 다양한 경향의 그룹이 등장하였다.
 - 논산에서는 1972년 서양화가 박춘화를 중심으로 ‘놀이미술회’가 창립되었다.
 - 부여에서는 ‘아사달회’(1976)가 결성되어 백제문화제 향토미전을 주관하였다.
 - 서산에서는 1976년 서산 출신 미술가 모임인 ‘서미회’가 창립되었다.

- 천안에서는 1976년 한국미협 천안지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는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 생겨난 가장 이른 한국미협 소속 단체다.
 - 대학생 조각 동아리인 '청조회'(1971)를 비롯해 '충남조각회'(1974), '토형회'(1977) 등 조각가 단체가 결성되었다.
 - 1974년 '충남서예협회'가 결성되었다.
 - 1978년 한국화 분야 동문 모임으로 목원대학교의 '목목회',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의 '청림회' 등이 생겼다.
 - 1979년 구상회화를 추구하는 작가들이 결집해 '이신회'를 창립하였는데, 이신회는 '충남구상작가회(대전구상작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어졌다.
 - 1979년 디자인 분야 단체인 '충남디자인협회'가 창립되었다.
- ⑥ 1980년대에는 장르별 · 지역별로, 새롭게 창립한 미술단체 수의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 공주 · 서산 · 온양(아산) · 천안 · 논산 · 부여에서 한국미협 소속 지부가 발족되었다. 금산 · 당진 · 서산 · 천안에서는 자생적인 미술단체들이 창립되었다.
 - 그래픽디자인 · 판화 · 수채화 · 도예 · 섬유 ·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단체가 창설되었으며, 각 대학 전공별 재학생 및 졸업생 단체의 수가 급증하였다.
 - 1970년대에 이어 '금강현대미술제'(1980),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1981), '대전실험작가회'(1984), '벽 · 바다, 그리고 의식'(1984) 등 실험적 경향의 단체 결성이 지속되었다.
 - '송전조각회'(한밭조각회, 1980), '목원조각회'(1982), '충남조각연구회'(1986), '금강조각회'(1988), '아귀-토(土) 조각회'(1988) 등 대학별로 다수의 조각 단체가 창립되었다.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각가들이 결집해 '대전조각가협회'(1989)를 창설했다.
 - 1983년 충남한국화협회 창립되었으나 1989년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화 작가의 모임으로 '대전한국화회'가 발족해 '충남한국화협회'와 분리되었다.
 - 각 대학별로 한국화 전공 단체를 창립했다. 공주교육대학교의 '늘갈회'(1987), 충남대학교의 '목가와신조형체'(1988), 배재대학교 '배연회'(1988), 목원대학교 '목원한국화회'(1989) 등이 생겨났다.
- ⑦ 1990년대에는 지역별 · 분야별 소그룹이 다수 결성되었다. 1980년대에 비해 결성 단체의 수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단체가 생성되었다.
- 예산 · 대천(보령) · 홍성 · 당진에서 한국미협 소속 지부가 발족되었다.
 - '서해조형작가회'(1990), '충남민족미술협회'(1995), '대전미술창작마을'(1998) 등의 단체가 창립되었다.
 - 도예 · 금속 · 섬유 등 공예가 단체의 결성이 활발해졌다.

[표2-1] 연대별 충남에서 결성된 미술단체(1900년부터 1999년까지)

연대	미술단체명(결성연도)
1930년대	공주회화회(1931)
1940년대	미술협회(충남미술협회, 1945)
1950년대	충남사진연우회(1951), 녹청회(1958), 루·불미술동인(1958), 수요동인회(1958), 청포도회(1959), 다켈사진동인회(1959)
1960년대	재경충남미술학우회(1960), 미술동인회(1960), 미우회(1962), 죽미회(1962), 한국미협충남지부(1962),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부(1962), 일신미술가회(1963), 미상록(1964), 일수회(1964), 향미회(1967), 일요화가회(1967)
1970년대	충남청년미술인회(1970), 빌리잔(1971), 서산예술인협회(1971), 일요스케치회(1971), 청조회(1971), 놀뫼미술회(1972), 청양당한문연구회(1972), 충남사진동호회(1972), 하이포토(1972), 서시서도회(1973), 정공회(1973), 충대동인회(1973), 녹수회(1974), 대전초중고교사전(1974), 송전미전(1974), 예우회(1974), 은영사진클럽(1974), 충남서예가협회(1974), 충남조각회(1974), 그릴회(1975), 금강미회(1975), 19751225 그룹(1975), 두령전(1976), 르뽀동인회(1976), 서미회(1976), 아사달회(1976), 향미회(1976), 한국미협 천안지부(1976), 토형회(1977), 한밭목지회(1977), 대전'78세대(1978), 목목회(1978), 송전대미술동문(1978), 청림회(1978), 한길회(1978), 북우회(1979), 이신회(1979), 참미회(1979), 충남디자인협회(1979)
1980년대	공주고미술동문(1980), 금강현대미술제(1980), 뽀 그래픽(1980), 미림회(1980), 송전조각회(1980), 아미회(1980), 호동인회(1980), 창공회(1980), 투영회(1980), Group 80-1(1980), 금동인회(1981), 드름염색회(1981), 미구스(1981), 송산서화회(1981), 야투(1981), 오오현대미술동인(1981), 한국미협 공주지부(1981), 화촌회(1981), 도원회(1982), 목원조각회(1982), 미로회(1982), 일청회(1982), 학동인회(1982), 남계문하서숙(1983), 세라비(1983), 수석회(1983), 우경회(1983), 울림미술회(1983), 청영회(1983), 충남한국화협회(1983), 한국미협 서산지부(1983), 한목회(1983), 계룡사우회(1984), 구주회(1984), 대전실험작가회(1984), 벽·바닥, 그리고 의식(1984), 철길사우회(1984), 충남시각디자인협회(1984), 충남판화협회(1984), 태우회(1984), 한남79(1984), 예산미술협회(1984), 금강토회(1985), 녹양회(1985), 대전현대조각회(1985), 영우회(1985), 정산고미전(1985), 존재회(1985), 창형회(1985), 충남대산업디자인회(1985), 충남수채화협회(1985), 칠칠다섯조각전(1985), 터Group(1985), 형상전(1985), 대전예사회(1986), 목과자연(1986), 오버전(1986), 일신회(1986), 충남서단회(1986), 충남조각연구회(1986), 충남대미술과동문회(1986), 토방회(1986), 한밭사우회(1986), OPUS(1986), 늘갈회(1987), 연우회(1987), 충남서양화회(1987), 한국미협 온양·아산지부(1987), PURE(1987), 금강조각회(1988), 다시각(1988), 목가와 신조형체(1988), 배연회(1988), 아귀-토(土) 조각회(1988), 우전서회(1988), 천안미술작가회(1988), 청란회(1988), 충남한국화연구회(1988), 화이트 포름(1988), 한국미협 논산지부(1988), 한국미협 부여지부(1988), 한의사우회(1988), 현강연서회(1988), 홍주예목회(1988), 대전디자인협회(1989), 대전조각가협회(1989), 대전한국화회(1989), 목원한국화회(1989), 석정서실연지회(1989), 신세대(1989), 장연회(1989), 천안(충남)수채화협회, 천안여류화가회(1989), 천안한국화회(1989), 충남흑백사진연구회(1989), MOVE(1989)
1990년대	대전의숨결전(1990), 보문사진예술연구회(1990), 서해조형작가회(1990), 천안서예인회(1990), 한국미협 예산지부(1990), 현대미술교류회(1990), 46번가판화가회(1990), 타타타(1991), 한국사협 천안지부(1991), 대전도예가회(1991), 대전섬유조형회(1991), 마음껏표출해보고자...(1991), 만화예술회(1991), 목원판화회(1991), 백제사우회(1991), 創梨展(1991), 한원회(한원조각회, 1991), 대전가톨릭사진가회(1992), 충남산업디자인협회(1992), 한국미협 대전·보령지부(1992), 화우회(1992), 대전금속조형회(1993), 목상회(1993), 연합전신포토클럽(1993), 예경회(1993), 예전사우회(1993), 화연회(1993), 대전미술교육연구회(1994), 대전초등교원미술회(1994), 빛과열 사진예술연구회(1994), 원목회(1994), 충남대의대생미술동호인(1994), 탐목회(1994), 한밭여성회(1994), 한벽회(1994), 한빛예사회(1994), 한우리사진동우회(1994), 홍성미술협회(1984), 86모임(1984), 대전가톨릭미술가회(1995), 소원회(1995), 충남민족미술협의회(1995), 르스풍타네(1996), 백합사우회(1996), 에미회(1996), 옥목회(1996), 청년작가실험회(1996), 채목회(1996), 화목회(1996), 가은서회(1997), 다담회(1997), 오룡사우회(1997), 초연회(1997), 대덕사진가협회(1998), 대전미술창작마을(1998), 대전서연회(1998), 맥전회(1998), 아름사우회(1998), 예강회(1998), 정담목연회(1998), 채원회(1998), 한국전업미술가회 대전충남협회(1998), 대전여류화가회(1999), 솔빛회(1999), 수목마당회(1999), 이소회(1999), 컴퓨터그래픽TOBE전(1999), 흑백사진연구회 예당(1999)

[표2-2] 시기별 충남에서 결성된 미술단체 수(224개)



[표2-1] 1900~1999년까지 충남에서 결성된 224개의 미술단체를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며, [표2-2]는 충남 미술단체 수의 증감 추이를 시기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2. 충남 미술단체 해제문

[표2-3] 해제문 작성한 충남 미술단체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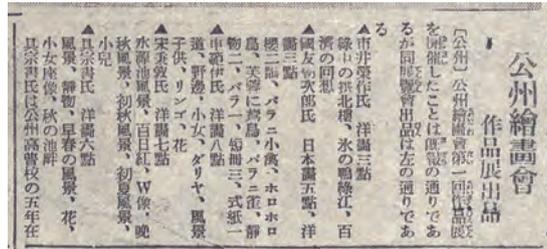
번호	미술단체명	창립연도	창립전시명(행사)
1	공주회화회	1931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1931.11.22~23, 공주공립보통학 교 강당)
2	미술협회(충남미술협회)	1945	《해방기념전람회》(1945.11.24~29, 대전 세무사사무소)
3	충남사진연우회	1951	《충남사진연우회 창립전》(1951.5.12~17, 대전 미국공보원)
4	녹청회	1958	《제1회 녹청회전》(1958.11, 천안)
5	루-불미술동인	1958	《제1회 루-불미술동인 작품전》(1958.12.26~31, 대전문화원)
6	수요동인회	1958	《수요동인전》(1958, 대전문화원)
7	청포도회	1959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1959.6.27~7.2, 천안 자연다방)
8	재경 충남미술학우회	1960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1960.1.20~26, 대전문화원)
9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1962	《5.16 혁명기념 미전》(1962.5.16~22, 대전 충남공보관)
10	미우회	1962	《미우전》(1962.9.21~23, 공주문화원)

번호	미술단체명	창립연도	창립전시명(행사)
11	죽미회	1962	《창립 죽미회 5인전》(1962.10.1~7, 충남공보관)
12	미상록	1964	《미상록 창립전》(1964.11.14~19, 대전중구문화원)
13	일수회	1964	일수회 창립(1964.8)
14	향미회	1967	향미회 창립 총회(1967.3.18, 서울 견지동 종로예식장)
15	충남청년미술인회	1970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전》(6.14~18, 충남예총화랑)
16	일요스케치회	1971	《제1회 일요스케치회전》(6.13~20, 대전문화원)
17	청조회	1971	《제1회 청조회 조각전》(1971.10.16~11, 공주문화원)
18	놀이미술회	1972	《놀이미술회 창립전》(1972.11.3~8, 논산 공전예식장)
19	충남서예가협회	1974	《충남서예협회 창립전》(1974.11, 대전)
20	충남조각회	1974	《제1회 충남조각회전》(1974.7.3~7, 공주문화원)
21	그림회	1975	《제1회 그림회전》(1975.5.6~10, 공주문화원)
22	19751225 그룹	1975	《19751225 전초전》(1975.12.25, 대전역 광장)
23	르브뵈동인회	1976	《르브뵈동인회 창립전》(1976.5.19~24, 대전문화원)
24	서미회	1976	《서미회 창립전》(1976.12.22~30, 서산 향원다실)
25	아사달회	1976	《제1회 향토미전》(1976.11.6~13, 부여문화원 아사달화실)
26	한국미협 천안지부	1976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회원전》(1976.12.24~30, 천안 백궁다방)
27	토형회	1977	《토형회전 창립전》(1977.5.16~21, 대전 홍명미술관)
28	대전 78세대	1978	《대전 78세대 창립전》(1978.10.14~18, 대전문화원)
29	목목회	1978	《제1회 목목회전》(1978.12.1, 대전문화원)
30	청림회	1978	《창립 청림전》(1978.5.27~31, 대전문화원)
31	한길회	1978	《한길미전 창립전》(1978.10, 공주문화원)
32	이신회	1979	《이신회 창립전》(1979.10.21~24, 대전문화원)
33	충남디자인협회	1979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전》(1979.12.4~8, 남계화랑)
34	금강현대미술제	1980	《금강현대미술제》(1980.11.16~22, 공주 금강 백사장)
35	뽀 그래픽	1980	《뽀 그래픽 창립전》(1980.9.24~27, 대전시민회관)
36	송전조각회	1980	《송전조각회 창립전》(1980.10, 대전시민회관)
37	금동인회	1981	《창립전》(1981.9)
38	드름염색회	1981	《제1회 드름염색전》(1981.5.1~6, 대전시민회관)
39	야투	1981	《창립 야투》(1981.8.14~19, 공주 금강 백사장)
40	오오현대미술동인	1981	《창립 오오현대미술동인전》(1981.6.20~28, 공주문화원)
41	한국미협 공주지부	1981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창립전》(1981.10.18~25, 공주문화원)
42	화촌회	1981	창립(1981.12.24, 서산 커피숍 숲속의 빈터)
43	도원회	1982	《도원회 창립전》(1982.10.18~24, 대전 동양백화점)
44	목원조각회	1982	《창립 목원조각회전》(1982.12.23~27, 대전시민회관)
45	미로회	1982	《제1회 미로회 창립전》(1982.3, 대전문화원)
46	일청회	1982	《제1회 일청회전》(1982.10.4~9, 대전시민회관)
47	학동인회	1982	《학동인 창립전》(1982.11.1~6, 당진)
48	충남한국화협회	1983	《창립 충남한국화협회전》(1983.11.7~12, 대전 신신화랑)
49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	1983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 창립전》(1983.9.3~7, 서산문화원)

번호	미술단체명	창립연도	창립전시명(행사)
50	대전실험작가회	1984	《제1회 대전실험작가회전》(1984.6.9~17, 대전 반도화랑)
51	벽·바닥·의식	1984	《벽·바닥·그리고 의식 창립전》(1984.2.25~29, 대전시민회관)
52	충남관화협회(대전관화가협회)	1984	《충남관화협회 창립전》(1984.6.2~8, 대전 반도화랑)
53	창형회	1985	《창립 창형전》(1985.3.16~22, 대전 반도화랑)
54	충남수채화협회	1985	《충남수채화협회 창립전》(1985.7.6~12, 대전 반도화랑)
55	충남조각연구회	1985	《충남조각연구회 창립전》(1985.4.14~20, 대전시민회관)
56	터Group	1985	터Group 창립 행사(1985.6)
57	형상전	1985	《제1회 형상전》(1985.3.23~29, 대전시민회관)
58	OPUS	1986	《제1회 OPUS전》(1986.10.14~20, 대전 쌍인미술관)
59	늘갈회	1987	《늘갈회 창립전》(공주교육대학교)
60	한국미술협회 온양아산지부	1987	《창립전》
61	금강조각회	1988	《금강조각회 창립전》(1988.1.19~22, 공주문화원)
62	다시각	1988	《제1회 다시각전》(1988.6.2~6, 대전시민회관)
63	목가와 신조형체	1988	《제1회 신세대 목채전》(1988.5.11~16, 대전 MBC문화공간)
64	배연회	1988	《제1회 배연전》(1988.10.21~27, 쌍인미술관)
65	아귀-토(土) 조각회	1988	《창립 8778 조각전》(1988.11.6~19,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
66	천안미술작가회	1988	《천안미술인회 창립전》(1988.9.12, 천안시민회관)
67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	1988	논산미협 창립추진위원회 결성(1988.1)
68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1988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전》(1988.5.16~21, 부여군민회관)
69	대전조각가협회	1989	《대전조각가협회 창립전》(1989.10.10~19, 대전미술관)
70	대전한국화회	1989	《대전한국화회 창립전》(1989.2.24~3.1, 대전 MBC문화공간)
71	목원한국화회	1989	《목원한국화 창립전》(1989.9.8~13, 대전 현대화랑)
72	천안(충남)수채화협회	1989	천안(충남)수채화협회 발기인대회(1989.10)
73	충남흑백사진연구회	1989	충남흑백사진연구회 창립총회(1989.4.22)
74	MOVE	1989	《MOVE 창립전》(1989.5.15~19, 대전 MBC문화공간)
75	대전의습결전	1990	《창립 대전의습결전》(대전문화원)
76	서해조형작가회	1990	《창립 서해조형작가전》(1990.11.17~20, 서산미술관)
77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1990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창립전》(1990.12.14~19, 예산문화원)
78	현대미술교류회	1990	《제1회 현대미술교류회전》(1990.9.10~16, 대전문화원)
79	46번가관화가회	1990	《창립 46번가관화가전》(1990.12.20~26, 대전 현대화랑)
80	대전도예가회	1991	《대전도예가회 창립전》(1991.7.22~28, 대전문화원)
81	대전섬유조형회	1991	《대전섬유조형회 창립전》
82	한국미술협회 대전·보령지부	1992	《한국미협 대전지부 창립작품전》(1992.10.14~18, 대전문화원)
83	대전금속조형회	1993	《금속조형회 창립전》(1993.10.22~28, 대전 흥인갤러리)
84	화연회	1993	《대전의 중견-8인작가 초대전》(1993.5.14~20, 대전 오원화랑)
85	홍성미술협회	1994	《제1회 홍성미술협회전》(1994.9.28~10.1, 홍성문화원)
86	충남민족미술협의회	1995	《충남민족미술협의회 창립전》(1995.7.31~8.14, 대전시민회관)
87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1996	《창립전》(1996.11.23~30)
88	대전미술창작마을	1998	《대전미술창작마을 창립전》(1998.12.14~1999.2.15, 대전미술창작마을)

1)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 1931~?)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는 기록으로 전하는 충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 결성된 미술단체이다. 1931년 11월, 5명의 작가가 참여한 ‘공주회화회’의 첫 전시회가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열렸다.¹ 공주회화회에 참여한 작가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서양화 작가는 도쿄 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한 송병돈과 도쿄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學)) 출신 구중서로, 이 두 사람은 《조선미전》에 거주지를 공주로 표기해 출품한 작가들이다. 그러나 공주회화회의 첫 전시가 열린 후 2년 뒤인 1933년 송병돈은 김천으로 교사 발령을 받았고, 구중서는 일본 유학을 위해 공주를 떠났다.² 이 두 작가가 공주에서 떠나고 난 뒤, 공주회화회가 더 이상의 전시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주회화회에 관한 자료는 제1회 전시에 관한 기록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³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 관련 신문기사(출처: 「공주회화회 작품전 출품」, 『조선신문』, 1931. 11. 2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31. 11. 22~11. 23.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 신범이, 송병돈, 구중서, 이치이 에이사쿠(市井榮作), 구니토모 아사지로(國友朝次郎) 등 참여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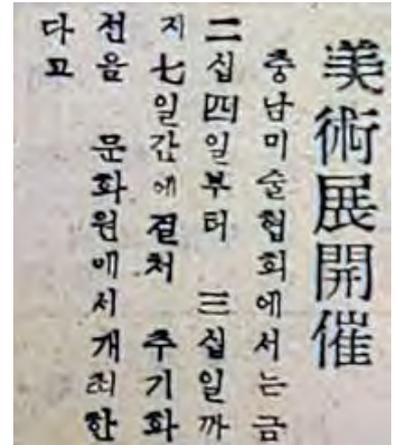
1 신범이, 송병돈, 구중서는 각각 8점, 7점, 6점의 양화를 출품했다. 또한 이치이 에이사쿠(市井榮作)는 양화(洋畫) 3점을 출품했고, 구니토모 아사지로(國友朝次郎)는 일본화 5점과 양화 3점을 출품했다. 이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에는 법원 예심판사였던 이치이 에이사쿠와 당시 공주 고등보통학교 도화과 강사였던 구니토모 아사지로라는 일본인이 명단에서 확인된다. 『公州繪畫會 作品展出品』, 『朝鮮新聞』(1931. 11. 28).

2 조은정, 「송병돈과 1950년대 서울대학교」, 『조형 아카이브』 제3호(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1), pp. 37~69.

3 김미정, 「공주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 - 1900~1945년까지 출생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4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2) 미술협회(충남미술협회, 1945~1961)

미술협회(충남미술협회)는 해방 직후 박성섭과 이동훈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미술단체이다.⁴ 평북사범학교를 졸업한 이동훈이 1945년 4월에 대전공업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하면서 당시 대전사범학교의 미술 교사로 있던 박성섭과 함께 뜻을 모아 10월 10에 '미술협회'를 구성했고, 회원 10명의 참여로 다음 달 《해방기념전람회》(11. 24~11. 29)를 개최했다.⁵ 미술협회는 한국전쟁 시기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53년 충남미술협회로 재결성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끝나기 전 1월 김기숙, 김철호, 박성섭, 박승무, 이동훈, 이인영, 임상묵 등의 주도로 지역 미술가들과 함께 재건되었다. 이때 충남미술협회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1953년 4월에 개원한 대전문화원의 출발과 함께 미술 교사를 중심으로 충남미술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후 해마다 협회전을 개최하고, 학생들의 미술 활동을 지원했다. 1962년 한국미술협회 인준을 받기 이전까지 초대 협회장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 박성섭이었었고 1958년부터 1961년까지는 김기숙이 맡았다.⁶



《미협전》 개최 기사(출처: 「미술전 개최」, 『대전일보』, 1953. 10. 2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45. 11. 24~11. 29.	《해방기념전람회》	대전 세무사 사무실
1953. 10. 24~10. 30.	《미술전》	대전문화원
1957	충청남도 문화상 제정	
1960. 11. 11~11. 15.	《제7회 미협전》	대전문화원

⁴ 충남미술협회는 1962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로 인준받기 이전까지 충남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써 그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1962년 이전까지 활동한 충남미술협회를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했음을 밝힌다.

⁵ '미술협회'는 이동훈의 개인 자료 외에 참여자의 명단이나 전시회 개최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해방 후 충남미술의 발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로써 주목할 만하다. 김경연, 『이동훈 평전』(열화당, 2012), pp. 278~279.

⁶ 충남미술협회 역대 회장단 명단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홈페이지 참조. <http://djart.or.kr/bbs/page.php?hid=p108>

3) 충남사진연우회(1951~1961)

1951년 12월 사진동호회인 충남사진연우회가 결성되었다.⁷ 창립 당시 송영헌, 김재위, 권용직, 성재경, 정헌태, 박여일, 방명환, 정희섭, 허두천, 임태준 등이 참여했으며, 회장은 충청남도 공보과장 장균(張筠)이 맡았고 1952년 12월 창립전을 개최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충남의 사진인이 거의 모두 충남사진연우회에 가담했고, 1960년 11월까지 전시를 개최했다.⁸ 대전문화원에서 총 15회에 이르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집회와 결사가 중지되었을 때 충남사진연우회의 활동도 중단되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52. 5. 12~5. 17.	《충남사진연우회 창립전》	대전 미국공보원
1953. 12. 3~12. 8.	《제2회 충남사연회전》	대전문화원
1954. 12. 10~12. 14.	《제4회 충남사연회전》	대전문화원
1955. 11. 2~11. 6.	《제6회 충남사연회전》	대전문화원
1958. 10. 1~10. 5.	《제10회 충남사연회전》	대전문화원
1960. 6. 25~6. 29.	《제15회 충남사연회전》	대전문화원
1960. 11. 6~11. 10.	《제15회 충남사연회전》	대전문화원

⁷ 『충청남도지 24: 현대예술』(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p. 511~512.

⁸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 1953~2013』(대전중구문화원, 2012), pp. 253~256.

4) 녹청회(綠靑會, 1958~1962)

녹청회는 1958년 4월 발족한 모임으로 그해 11월 천안에서 창립전을 열었다.⁹ 녹청회는 일본 유학생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발족 당시 참여한 회원은 당시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성재를 비롯해, 천안중학교 교사 김화경·조중현·한유동(합덕중학교)·허훈·황진국(조치원여자중학교)이다.

2회 때부터는 윤후근, 이동훈, 김철호가 합세해 본격적인 단체 활동을 전개했다.¹⁰ 6회 전시에는 국전에서 특선한 이인

영이 가입했고, 1962년 《제7회 녹청회전》은 김화경, 이인영, 이창호, 한유동, 김성재, 김철호, 이규호, 홍석표, 황병식, 정택은의 참여로 대전의 상공장려관 뒷길에 있던 ‘개미다방’에서 열렸다. 1962년까지 총 7번의 전시를 개최한 이후 녹청회 전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제7회 녹청회》리플릿

(출처: 『검이불루 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60』, 대전시립미술관, 201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58. 11.	《제1회 녹청회전》	천안
1958. 12.	《제2회 녹청회전》	아산(운양)
1959. 2.	《제3회 녹청회전》	광천
1959. 10.	《제4회 녹청회전》	천안
1961. 11.	《제5회 녹청회전》	천안
1961. 11.	《제6회 녹청회전》	평택
1962. 12. 18~12. 25	《제7회 녹청회전》	대전 개미다방

⁹ 「문화계소식-녹청회발족」, 『경향신문』(1958. 4. 9).

¹⁰ 녹청회의 전체 전시 횟수와 개최장소는 제7회 전시를 소개한 리플릿을 통해 작성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손글씨로 쓴 흔적이 보이며, 날짜의 기재가 중복되어 있어 추가 자료가 확보되어야 녹청회를 더욱 선명하게 조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제7회 녹청회전》 리플릿은 다음의 도록 참조. 『검이불루 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88.

5) 루-불미술동인(1958~1960)

루-불미술동인은 1958년 2월 9일에 창립된 대전 최초 고등학생 연합 미술그룹이다. 당시 대전고등학교 미술교사인 김철호와 대전여자고등학교 홍동식이 고문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다. 창립한 해인 1958년 말 대전문화원 화랑에서 《제1회 루-불동인전시회》가 열렸다. 창립 당시 대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던 윤병화가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1학년 최희권과 회화과 유희영이 찬조 출품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이근신도 창립전에 참여했다. 《제2회 루-불미술동인전》(1960. 1)에는 창립전 때 고등학생이었다가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던 김인중과 이종상도 출품했으며, 창립전 멤버인 문정수와 유병창은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외 참여작가로는 송순옥, 송영숙, 윤병화, 이근신, 이철주, 최희권 등이다. 이 전시를 끝으로 루-불미술동인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



루-불미술동인 결성 기념 사진, 1958. 2. 9 촬영
(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미술관, 2012)



《제1회 루-불미술동인전》 리플릿
(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미술관, 201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58. 7. 23.	동학사 야외스케치	공주 동학사
1958. 12. 26~12. 31.	《제1회 루-불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김인중, 문정수, 송순옥, 송영숙, 유병창, 윤병화, 이근신, 이종상, 이철주, 최희권 참여	
1960. 1. 10~1. 16.	《제2회 루-불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6) 수요일동인회(1958~1964)

수요일동인회는 1958년 대전 대흥동성당 오기선 신부를 중심으로 이남규, 이종수, 이지휘, 조영동, 최종태 등의 작가들이 모여 수요일에 음악감상회와 미술감상회를 개최하면서 결성된 모임이다.¹¹ 서양화가 이남규가 유성중학교, 조각가 최종태가 대성중학교, 서양화가 조영동이 동중학교, 서양화가 이지휘가 대전공업고등학교, 도예가 이종수가 대전실업초급대학에 재직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은 대흥동성당에서 자주 모였다. 이 모임은 '수요일동인회'라는 명칭으로 발전해 대전과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수요일동인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오기선 신부가 서울로 가고, 조영동·최종태·이지휘·이남규 등이 교수 임용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1963년 수요일동인회 기념 사진(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4. 5. 27~5. 31.	《수요일동인전》	대전문화원

¹¹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p. 59~60.

7) 청포도회(1959~?)

청포도회는 1959년 천안에서 조직된 미술단체이다. 천안중학교 교사 김화경과 천안여자중학교 교사 김성재의 주도로 자신들의 문하생과 대학에 다니던 미술학도를 모아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 당시 회장은 김화경이 맡았으며 1959년 6월 천안 자연다방에서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을 개최했다. 김화경과 김성재가 찬조 출품했고, 서라벌 대학교에 재학하던 송진세 등이 출품했다. 그러나 청포도회의 활동 내역은 창립전 이후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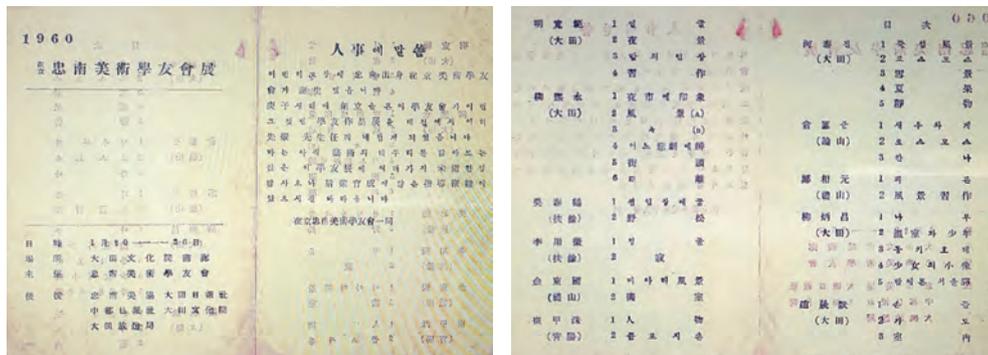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1959) 리플릿
(출처: 『검이불루 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60』, 대전시립미술관, 201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59. 6. 27~7. 2.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	천안 자연다방

8) 재경 충남미술학우회(1960~?)

재경 충남미술학우회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의 미술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1960년 새해에 창립한 후 대전문화원 화랑에서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을 열었다.¹² 충남미협, 대전일보사, 중도일보사, 대전문화원, 대전방송국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미술대학에 다니던 충남 출신의 학생들이 주최한 전시였다. 유희영(대전), 오탈학(부여), 이용휘(부여), 김동국(예산), 최갑주(청양), 하태진(대전), 유봉준(예산), 정상원(예산), 유병창(대전), 조성묵(대전) 등이 3~6점씩 출품했다.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1960) 리플릿
(출처: 『검이불루 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60』, 대전시립미술관, 201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0. 1. 20~1. 26.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 유희영, 오탈학, 이용휘, 김동국, 최갑주, 하태진(대전), 유봉준, 정상원, 유병창, 조성묵 참여	대전문화원
1963. 2. 1~2. 11.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 ¹³	

¹² 『검이불루 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13.

¹³ 대전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재경 충남미술학우회가 1963년에도 전시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미술단체가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추가로 기록 자료를 확보한 후 이 단체에 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홈페이지. <http://djjart.or.kr/bbs/page.php?hid=p107>

9)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1962~현재)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으로 약칭) 충남지부는 1962년 한국 미술협회가 사회단체로 설립 허가를 받아 1945년부터 활동한 충남미술협회가 한국미협 충남지부로 인준받아 활동을 시작한 단체이다.¹⁴ 미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이동훈의 화실과 현 동양백화점 뒷골목에 있는 서라벌 다방에서 한국미협 충남지부 창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전개해 1962년 5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당시 회장은 이동훈, 부회장은 김기숙, 간사는 정택은이 맡았다.

충남지부 인준 직후 대전방송국 안에 있던 ‘충남공보관 전시실’에서 《5·16혁명 기념 미전》(한국미협인증 제1회 미협전)이 개최되었다. 이후 해마다 전시를 열었으며, 1971년부터 《충청남도미술전람회》를 개최해 기성 작가뿐만 아니라 신인 작가에게 화단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1988년 1월 1일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었을 때 충남지부와 대전지부가 분리되어 한국미협 대전직할시지부와 한국미협 충남도지회로 구분되어 현재 두 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제51회 한국미술협회충남지부전》(1983) 리플릿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2. 5. 16~5. 22.	《5·16혁명 기념 미전》(한국미협인증 제1회 미협전)	대전방송국내 충남공보관
1962. 9. 11~9. 18.	《충남미협전》	대전문화원
1968. 11. 10~11. 13.	《충남미협전》	대전문화원
1969. 2. 25~3. 2.	《이동훈 화력 50주년 기념전》	충남예총화랑
1971. 5. 11~5. 20.	《제1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대전문화원
1973. 11. 25~12. 10.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수상작품 대전전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관
1975. 7. 3~7. 8.	《충남북 미술 협회전》	홍명미술관
1982. 9. 6~9. 12.	《충남미협지부 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8. 9. 18~9. 22.	《대전직할시지부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¹⁴ 충남에서는 한국미협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충남미술협회’가 이미 1945년부터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약하고 있다가, 1962년에 이르러 한국미협 소속 단체로 재결성되었다. 단체의 역사와 전시이력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홈페이지 참조. <http://djart.or.kr/bbs/page.php?hid=p107>

10) 미우회(美友會, 1962~1964)

미우회(美友會)는 1962년 결성된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의 모임이다. 당시 미술교사인 진문섭(홍성교육장 역임)의 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1962년 9월 첫 전시회를 열었다. 창립전은 공주고등학교와 공주문화원의 공동주최로 공주문화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출품된 작품 수는 27점이었다. 1964년부터는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자고등학교, 공주사대부고, 영명고등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일수회(一樹會)'라고 이름을 바꾸어 활동했다.



1963년 《미우전》 기념 사진(출처: 『임동식-동방소년 탐문기』, 대전시립미술관, 2016)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2. 9. 21~9. 23.	《미우전》	공주문화원
1963. 8.	《미우전》	공주문화원

11) 죽미회(竹美會, 1962)

죽미회는 1962년 대전공업고등학교와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 5명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모임이다.¹⁵ 미술반 활동 중에 정보를 주고받던 두 학교 학생들이 대나무처럼 오랜 우정 변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자는 의지로 만들었다. 창립전은 충남공보관과 한국미협 충남지부의 후원으로 1962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충남공보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참여한 학생은 김룡(대전공고 3년), 정명희(대전공고 3년), 임양수(한밭상고 2년), 이영수(한밭상고 1년)이다. 그러나 죽미회는 창립전 이후 더 이상 전시를 열지 못했다.



안영리에서 가진 죽미회 야외스케치
(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미술관, 2012)



1962년 <죽미회 5인전> 전시 모습
(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미술관, 201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2. 10. 1~10. 7.	<죽미회 5인전>	충남공보관

¹⁵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2012), p. 24.

12) 미상록(1964~2003)

미상록은 고교 연합 동아리로 1964년 11월 11일 학생 미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대전문화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립된 단체이다. 학생 문화활동에 관심이 많던 대전문화원 박동규 과장의 주선으로, 남상균과 이영수가 고교 미술씨클에 대한 협의를 한 뒤 김여성, 이준희와 더불어 '미상록'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각자 학교에 연락책을 맡은 뒤 학생을 모집했다.¹⁶ 지도교사는 서양화가 송진세가 맡았고 정관을 만들어 대전문화원 소속으로 활동했다.



1964년 11월 첫 전시 후 촬영한 미상록 회원들의 기념사진
(출처: 대전시립미술관 디지털 전시자료)

남녀 학생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던 시기에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미상록은 대전문화원의 후원을 받으며 출발해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미상록은 39년 동안 고교 씨클로 유지되다가 2003년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상록 해체 후에도 회원들은 만남을 비정기적으로 가졌는데, 2012년 10월 '미상록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4. 11. 14~11. 19.	《제1회 미상록 창립전》	대전문화원
	김여성, 김치중, 남상균, 박건용, 박창식, 이기복, 이영수, 이유섭, 이준희, 정현순, 조창례, 차선영, 최영근 등 참여	
1965. 4. 18~4. 26.	《4·19 기념 미상록전》	대전문화원
1965. 10. 1~10. 5.	《제3회 미상록전》	대전문화원
1966. 12. 9~12. 16.	《미상록 X-마스 카드전》	대전문화원
1969. 7. 15~7. 20.	《일요화가회, 미상록 동인문학회, 판도라, 청서서예동인회 합동전》	대전문화원
1969. 12. 15~12. 20.	《미상록 카드전》	대전문화원
1976. 6. 14~6. 19.	《제27회 춘계미상록미전》	대전문화원
1991. 7. 17~7. 21.	《미상록전》	대전문화원
2012. 5. 10~5. 16.	《미상록작가전》	대전중구문화원

¹⁶ 황효숙, 「대전(중구)문화원과 예술문화활동: 미술」,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 1953~2013』(대전중구문화원, 2012), pp. 204~205.

13) 일수회(一樹會, 1964~1982)

일수회는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모임으로 시작한 미우회(美友會)가 발전한 모임이다. 미우회 전시가 해를 거듭하면서 공주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어, 1964년부터 일수회(一樹會)라고 이름을 바꾸어 활동했다.¹⁷ 공주고등학교, 공주여자고등학교, 공주사대부고, 영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해 이들 학교 출신 대학생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일수회’라는 명칭은 ‘한그루 나무’라는 뜻으로 임동식이 발의했다. 박명규, 김영욱, 이용원, 임동식, 이종석, 김관호, 김원식, 임병립, 성준기, 임승록, 이은영, 배근수(이상 공주고등학교), 김지열, 오세례, 서홍원(이상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이생립(영명고등학교), 이미자, 모영자(공주여자고등학교) 등이 회원이었다.¹⁸



1965년 《일수전》 당시 교사와 학생들의 토론 모습
(출처: 『임동식-동방소년 탐문기』, 대전시립미술관, 2016)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5. 8.	《일수회 창립전》	공주문화원
1969	《제5회 일수전》	

¹⁷ 『임동식-동방소년 탐문기』(대전시립미술관, 2016), p. 70.

¹⁸ 『공주문화예술인 구술총서 01: 임동식』(공주문화재단, 2021), p. 95.

14) 향미회(鄉美會, 1967~?)

향미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충남 출신 미술인 20여 명이 모여 만든 단체로 1967년 3월에 발족했다.¹⁹ 이 모임은 재경 충남미술인 간의 친목과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미술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1967년 3월 18일 서울 견지동 종로예식장 평양관 별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당시 회장은 송병돈이 맡았다.²⁰ 부회장은 김화경과 최덕휴가 맡았다. 창립 당시 회원은 동양화부에 14명, 서양화부에 10명, 조각부에 5명, 공예부 10명, 서예부 3명으로 모두 38명이 있었다. 향미회 결성 당시 제시한 창립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 전개, 지방순회전 개최와 연구 및 강연회, 회지의 발간 등이다. 향미회 결성 후 1968년에는 이상범, 조중현, 이마동 등 14명이 참여한 《재경충남출신화가전》을 대전에 있는 충남예총화랑에서 열었다.²¹ 향미회는 한 번의 전시를 끝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것인지 이후 활동 사항은 확인되는 자료가 없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68. 7. 18~7. 25.	《재경충남출신화가전》	충남예총화랑

¹⁹ 「향미회 발족」, 『대전일보』(1967. 3. 10).

²⁰ 「향미회 창립」, 『대전일보』(1967. 3. 22).

²¹ 1968년 《재경충남출신화가전》 참여작가는 이상범, 박노수, 조중현, 민경갑, 이종상, 김화경, 전영화, 최종태, 하태진, 이마동, 최덕휴, 이종학이다. 『검이불루 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84.

15) 충남청년미술인회(청미회, 1970~1974)

충남청년미술인회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대전·충남에서 거주하던 교사와 작가들이 모여 1970년에 조직한 단체이다.²²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 때 발기를 주도한 사람은 김치중이었다. 1970년 6월 충남예총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8월에 2회전까지 치렀다. 두 번의 전시 후 충남청년미술인회는 ‘청미회(靑美會)’로 이름을 바꾸어 재결성해 1972년 대전예총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다.²³ 개편된 청미회의 창립전에는 서울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서양화 작가(김배희, 김여성, 김치중, 박명규, 이인영, 이종수, 임봉재, 이명자, 임립, 이영수, 조영동)가 주축이 되었다. 개편 후 회장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대전실업대학 미술과장을 맡고 있던 이종수였다. 이 단체는 같은 해에 전시를 한 번 더 열었고 3회까지 전시를 개최한 후, 4회전 때는 1974년 ‘충남미술가협회’로 개칭했지만, 이후 다른 활동 없이 해체되었다.



《제2회 충남청년미술인회전》리플릿
(출처: 대전시립미술관 디지털 전시자료)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0. 6. 14~6. 18.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전》	충남예총화랑
	강성렬, 김여성, 김영제, 김치중, 박관옥, 백승철, 양창제, 예종국, 우옥순, 이영희, 이윤구, 정명희, 임양수 등 참여	
1970. 8. 6~8. 10.	《제2회 충남청년미술인회》	충남예총화랑
1972. 6. 20~6. 25.	《제1회 청미회전》	대전예총화랑
1972. 12. 15~12. 23.	《제2회 청미회소품전》	대전 시민다실
1973. 12. 26~12. 31.	《제3회 청미회원전》	대전 산강화랑
1974. 10. 9~10. 15.	《충남미술가협회전》	대전 산강화랑

²² '충남청년미술인회'는 1971년 '청미회'로 흡수되었다가 1974년 '충남미술가협회'로 개칭한 후 한 차례 전시 개최 후 해체된다. 이 세 단체는 단체인명이 다르고 설립 연도가 달라 각기 단체로 보이지만, 참여작가의 연계성은 물론 충남미술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기성 작가들의 모임과 다른 성격의 모임을 결성하고자 한 목적성에서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이 세 그룹을 이 '충남청년미술인회·청미회' 항목에 묶어서 서술했다.

²³ 1970년 결성한 '충남청년미술인회'가 1972년 2번의 전시 개최한 뒤에 '청미회'로 단체명을 축약해 개칭했다.

16) 일요스케치회(대전사생회, 1971~현재)

일요스케치회는 1970년 4월 대전문화원을 기반으로 몇 명의 작가가 모여면서 초기모임이 이루어졌다. 1967년 대전문화원에서 조직된 일반인 씨클로 일요화가회가 있었지만 1970년 없어졌고 이 모임과는 성격이 다른 일요스케치회가 구성되었다. 1971년 대전문화원 주최로 창립전을 열었는데, 1970년 창립한 청미회가 이 전시를 후원했다. 창립 당시 일요스케치회 회장은 김배희였다. 이 모임은 일 년에 2번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그린 그림을 기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었다. 제2회 때부터는 일반인도 참여해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제13회 전시까지는 일요스케치회라는 단체명으로 치렀으나, 1986년부터 '대전사생회(大田寫生會)'로 명칭을 변경했다.²⁴ 충남의 미술단체 중에서 한국미협 충남지부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대전사생회는 매년 정기전 외에도 소품전, 교류전, 스케치 여행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제1회 일요스케치회전》(1971) 리플릿(출처: 대전시립미술관 전시자료)



《제47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및 6대광역시 사생회 작가 초대전》(2018) 행사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갤러리 단추')



《제48회 대전사생회 정기전》(2019) 전시장 모습(출처: 『충청매거진』, 2019. 4. 12)

24 다음 카페 '대전사생회' 전시이력 참조. <https://cafe.daum.net/tjsasang/3w7L/16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1. 6. 13~6. 20	《제1회 일요스케치회전》	대전문화원
	윤동원, 지형민, 김여성, 백승철, 김치중, 김재권, 김배희, 이영수, 김영재, 안수복 참여	
1974. 5. 29~6. 2.	《제2회 일요스케치회원전》	대전문화원
1985. 7. 22~7. 28.	《제13회 일요스케치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6. 6. 1~6. 5.	《제14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91. 10. 30~11. 3.	《제20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문화원
1994. 2. 29~3. 5.	《대전사생회 소품전》	대전 신금갤러리
1996. 10. 21~10. 26.	《제25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2001. 8. 25~8. 31.	《제30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2007. 11. 14~11. 21.	《대전사생회 36주년 사랑실천 자선전》	대전 갤러리오폰스페이스
2018. 4. 24~4. 30.	《제47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및 6대광역시 사생회 작가 초대전》	대전갤러리
2019. 4. 11~4. 16.	《제48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시청
2023. 3. 23~3. 28.	《제52회 대전사생회 회원전》	대전시청

17) 청조회(靑彫會, 1971~1982)

1971년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조직한 충남 최초 대학생 조각 동아리이다. 당시 재학생 강중식, 박명규, 정찬국, 유명숙, 김연숙, 이소자 등 6명을 주축으로 모임이 결성되었고 1982년까지 10여 년간 활동했다.²⁵ 1971년 황교영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그해에 창설된 《충남미술대전》에서 모두 수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충남지역에서 조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면서 초창기 충남의 조각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이 모임은 1982년까지 10여 년간 지속하면서 130여 명의 학생이 황교영 교수로부터 조소 지도를 받았다. 이어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조각가들은 황교영 교수를 주축으로 ‘충남조각회’에서 결집해 활동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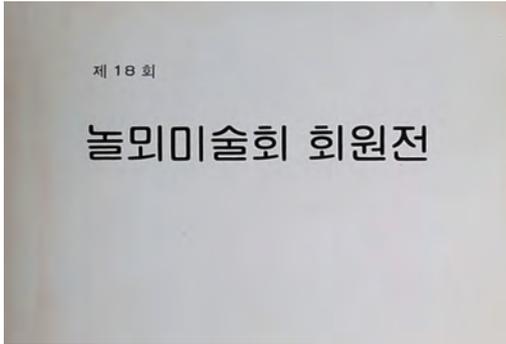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1. 10. 16~10. 11.	《제1회 청조회 조각전》	공주문화원
1980. 9. 17.	《제10회 청조회 조각전》	공주문화원

²⁵ 『충청남도지 24: 현대예술』(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 183.

18) 놀피미술회(1972~현재)

놀피미술회(현 놀피미술협회)는 논산에서 1972년 9월 서양화가 박춘화를 중심으로 발기해 현재까지 활동하는 미술단체이다.²⁶ 박춘화와 함께 논산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미술교사 김치중과 김영기, 김갑기 등 6명이 모여 1972년 9월 7일 발기인 모임을 했고 그해 11월 논산 궁전예식장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²⁷ 1978년 박춘화가 놀피미술학원을 열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매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후 정창기, 김영기, 김익규 등이 임원으로 합류했다. 1970년대 문화 불모지였던 논산에서 최초로 활동을 시작한 미술단체로써 논산 미술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단체이다.



『제18회 놀피미술회 회원전』 표지



《제48회 놀피미술협회 회원전》(2021) 전시장
(출처: 논산시 공식 블로그)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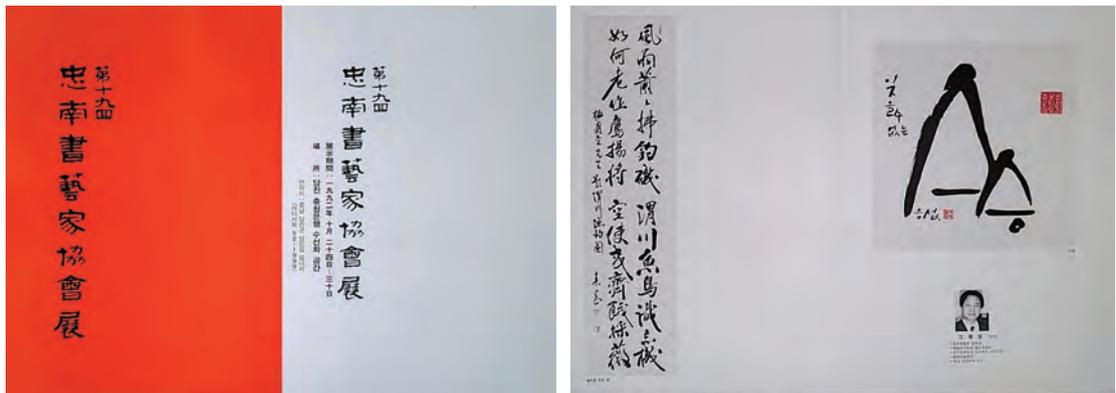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2. 11. 3~11. 8.	《놀피미술회 창립전》	논산 궁전예식장
1982. 12. 4~12. 9.	《제10회 놀피미술회 회원전》	논산 대흥다실
1989. 5. 21~5. 26.	《제17회 놀피미술회 회원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0. 5. 12~5. 18.	《제18회 놀피미술회 회원전》	논산 화지산신협 문화공간
	고한일, 이은정, 오해운, 오종근, 신현태, 장상국, 장병건, 송용희, 박춘화, 민근식, 노기원, 남상선, 김재만, 김종자, 김정호, 김원태, 김익규, 정창기	
1992. 5. 30~6. 5.	《창립 20주년 놀피미술회 회원전》	논산 화지산신협 문화공간
2009. 2. 28~3. 4.	《제37회 놀피미술회 회원전》	논산문화예술회관
2021. 12. 11~12. 15.	《제48회 놀피미술협회 회원전》	논산문화원

²⁶ 「그림으로 빛나는 인생」, 『충청베스트뉴스』(2022. 2. 11).

²⁷ 디지털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nonsan.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0557>

19) 충남서예협회(1974~현재)

충남서예협회(현 충남서예가협회)는 1974년 대전에서 창립한 서예가 단체이다. 그해 11월 대전에서 창립전을 연 후, 12월에 서울 국립공보관에서 전시를 개최했다.²⁸ 다음 해에는 대전 홍명다실에서 《제2회 충남서예협회 회원전》이 열렸고, 당시 총 3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1970년대 이전 대전을 중심으로 이근순, 임재우, 정태희, 조종국, 박승배, 이동 등의 서예가가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제자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에 따라 1971년 《충남미술대전》에 서예 부문이 신설되기도 했다. 1960~70년대 충남 서예가들의 왕성한 활동에 힘입어 1974년 충남서예협회가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중·일 서예가들과 여러 차례 교류전을 열어 각국 서예가들과 친선을 도모하기도 했다.



《제19회 충남서예가협회전》(1992) 도록 표지 및 내지(심응섭의 출품작)



《제40회 충남서예가협회전》(2013) 개막식 모습(출처: 『충청뉴스라인』(2013. 1. 28))



《제43회 충남서예가협회전: 한·중 서화국제교류전》(2016) 전시 모습

²⁸ 『충남서예협 회원전 국립공보관』, 『동아일보』(1974. 12. 2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4. 11.	《충남서예협회 창립전》	대전
1974. 12. 18~12. 24.	《충남서예협회 회원전》	서울 국립공보관
1975. 10. 27~11. 2.	《제2회 충남서예협회 회원전》	대전 홍명다실
1976. 5. 21~5. 30.	《제3회 충남서예협회 회원전》	대전 행원다실
1979	《충남서예가협회전》	대전 남계화랑
1988. 6. 3~6. 6.	《제15회 충남서예가협회전》	대전 MBC문화공간
	《제17회 충남서예가협회전》	대전시민회관
1990. 5. 13~5. 17.	김영한, 임형수, 조병호, 김일배, 김정곤, 박승배, 박일규, 심응섭, 오창환, 우정식, 윤홍식, 이강수, 이동, 이명환, 이봉연, 이성우, 이용운, 이은웅, 인영선, 임재우, 임환철, 장기일, 조사형, 조종국, 최국경, 최훈기, 허영상	
1990. 9. 25~9. 28.	《한·일서예교류전》	부여군민회관
1992. 10. 24~10. 30.	《제19회 충남서예가협회전》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 공간
1992. 11. 27~12. 6.	《충남서예가협회전: 대전신금갤러리 개관기념》	대전 신금갤러리
1995. 10. 21~10. 28.	《제22회 충남서예가협회전》	대전 신금갤러리
2009. 10. 15~10. 18.	《제36회 충남서예가협회전》	부여 청소년수련원
2013. 10. 26~10. 30.	《제40회 충남서예가협회전》	청양문화예술회관
2016. 10. 15~10. 20.	《제43회 충남서예가협회전: 한·중 서화국제교류전》	서산 중앙호수공원
2018. 10. 20~10. 27.	《한·중·일 서화 국제 교류전》	내포 충남도서관

20) 충남조각회(1974~2019)

충남조각회는 1974년 공주교육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창립한 조각가 단체이다. 충남조각회는 공주교육대학교 재학생 동아리인 ‘청조회’에서 활동하던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²⁹ 이 단체는 충남 최초의 조각가 모임으로, 초대회장은 박명규가 맡았다. 충남의 각 지역 대학에 미술과가 신설되자 각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작가 중 다수가 충남조각회에 가입해 함께 활동했다. 충남조각회는 자체 연수회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해마다 정기전을 열었으며 대전의 다른 대학 출신 조각가들의 단체인 목원조각회, 한밭조각회, 충남조각연구회와 함께 1989년 12월 《대전·충남조각회 연립전》을 가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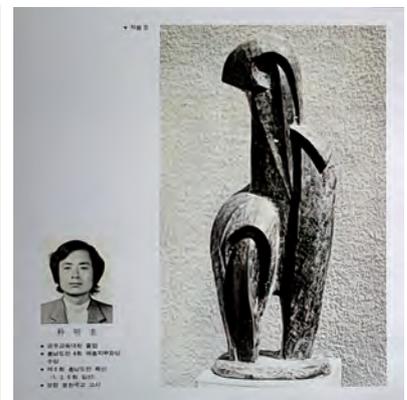
2009년에는 《계룡만남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구성된 미술단체인 그릴회, 늘갈회, 창공회와 함께 연합전을 개최했다. 《계룡만남전》은 조각 분야만이 아닌 회화 분야 단체와의 합동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남조각회 출신으로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는 박명규·정찬국·이춘호·박승수·강중식·김윤집 등이다. 이렇게 충남조각회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시작되어 충남 조각의 산역사를 보여주는 단체이다. 2019년까지 전시를 개최했지만,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제2회 충남조각회전》 도록 표지



《제11회 충남조각회전》(1984) 도록 표지 및 내지(박명규의 작품작)



²⁹ 「충남조각회 지역예술 발전 견인」, 『대전일보』(2010.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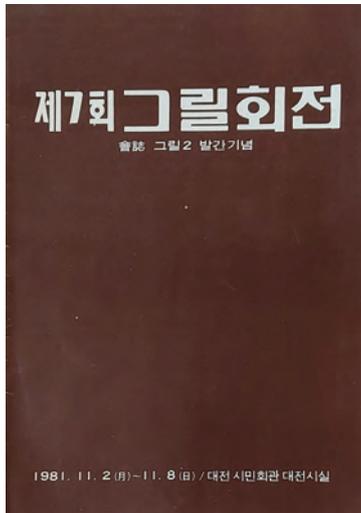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4. 7. 3~7. 7.	《제1회 충남조각회전》	공주문화원
1975. 9. 10~9. 14.	《제2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76. 10. 3~10. 8.	《제3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77. 10. 3~10. 8.	《제4회 충남조각회전》	대전 홍명미술관
1977. 10. 13~10. 17	《백제문화제 초대전》	공주문화원
1978. 10. 9~10. 13.	《제5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79. 8. 14~8. 17.	제1회 연수회	대전 청파국민학교
1980. 10. 10~10. 16.	《제7회 충남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81. 1. 18~1. 24.	제3회 연수회	
1982. 8. 21~8. 31.	제5회 연수회	공주교육대학
1983. 10. 22~10. 28.	《제10회 충남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84. 1. 18~1. 25.	제6회 연수회	공주교육대학
	《제11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84. 10. 23~10. 28.	강정숙, 김윤집, 박명규, 박승수, 박재용, 박종석, 유미선, 이춘호, 전경옥, 정찬국, 현광덕, 황교영 등 참여	
1985. 10. 7~10. 13.	《제12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86. 10. 12~10. 18.	《제13회 충남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87. 10. 13~10. 17.	《제14회 충남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88. 7. 23~7. 28.	제10회 연수회	부여작업실
1988. 8. 15~8. 20.	《제15회 충남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89. 12. 11~12. 15.	《대전·충남조각회 연립전》	대전시민회관
1990. 8. 20~8. 24.	《제17회 충남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91. 12. 20~12. 18.	《제18회 충남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92. 7. 20~7. 25.	《제19회 충남조각회전: 자연과 인간의 만남전》	대전시민회관
2003. 11. 8~11. 15.	《제30회 충남조각회전》	보령 임해수련원
2009. 8. 8~8. 22.	《2009 계룡만남전》	모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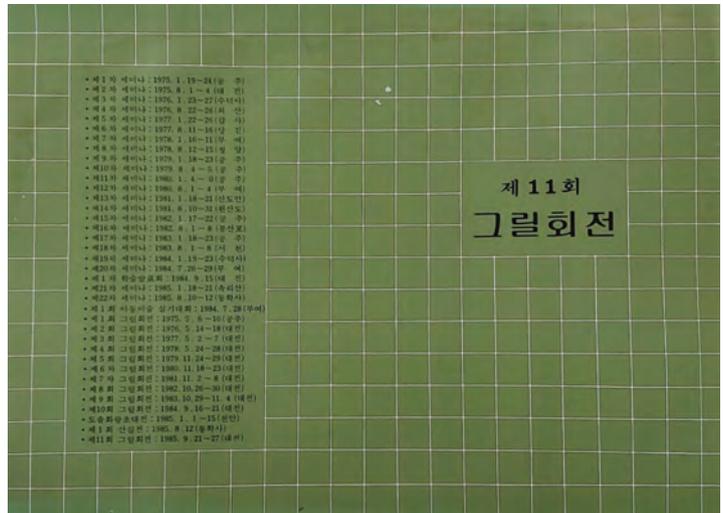
21) 그릴회(1975~현재)

그릴회는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서양화 동문이 1월 6일 부여에 모여 창립한 후 1월 19일부터 5일간 동계세미나를 개최했다.³⁰

《제1회 그릴회전》은 1975년 5월 공주문화원에서 열렸고 그해 8월에는 대천에서 하계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릴회는 1971년부터 활동하던 공주교육대학교 서양화 동아리 ‘빌리잔’이 동문 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릴회지』를 발간했으며, 해마다 방학에 전국 스케치 여행과 함께 미술 이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1984년 창립 10주년 때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외에 대전 시민회관에서 학술 발표회를 함께 개최했다. 그 외에도 아동미술 실기대회, 《계룡만남전》 등을 통해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해왔다.³¹ 그릴회에는 김관진, 김기반, 류현걸, 박선옥, 임영우, 조도현, 최재숙, 홍석출, 최무용 등이 참여했고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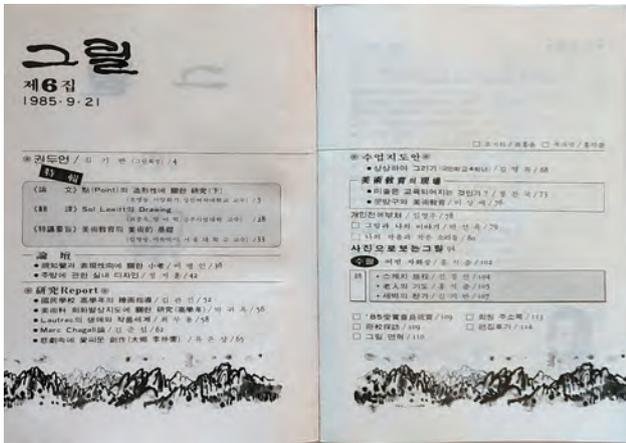
《제7회 그릴회전》(1981) 전시 도록 표지



《제11회 그릴회전》(1985) 홍보물

30 그릴회 관련 자료는 임재광 작가 제공.

31 「그릴회 여름세미나 문산포해수욕장, 『동아일보』(1982. 8. 4).



『그림』 제6집(1985) 내지



《제11회 계룡만남전》(2018) 도록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5. 1. 19~1. 24.	제1차 동계세미나 개최	공주교육대학
1975. 5. 6~5. 10.	《제1회 그릴회전》	공주문화원
1976. 5. 14~5. 18.	《제2회 그릴회전》	대전 홍명미술관
1976. 8. 22~8. 26.	제4차 세미나	부여 외산
1977. 1. 22~1. 26.	제5차 세미나	공주 갑사
1977. 5. 2~5. 7.	《제3회 그릴회전》	대전시민회관
1981. 11. 2~11. 8.	《제7회 그릴회전》	대전시민회관
1982. 8. 1~8. 8.	제16차 그릴회 여름세미나	몽산포해수욕장
1984. 9. 15.	10주년 기념 학술 발표회	대전시민회관
1984. 9. 16~9. 21.	《제10회 그릴회전》	대전시민회관
1985. 1. 1~1. 15.	《도술화랑 초대전》	천안 도술화랑
1985. 1. 18~1. 21.	제21차 세미나	속리산
1985. 9. 21~9. 27.	《제11회 그릴회전》	대전시민회관
1987. 5. 18~5. 24.	《제13회 그릴회전》	대전시민회관
1988. 8. 15~8. 21.	《88 계룡만남전》	대전시민회관
1989. 10. 21~10. 23.	《그릴회 수채화전》	대전시민회관
1990. 11. 12~11. 18.	《제16회 그릴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2010. 11. 11~11. 14.	《제36회 그릴회전》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2014. 9. 20~10. 3.	《그릴회 창립 40주년 특별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전시관
2018. 8. 1~8. 7.	《제11회 계룡만남전》	부여문화원 아사달갤러리

22) 19751225 그룹(1975~1992)

19751215 그룹은 1975년 12월 25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해프닝'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1956년 5월 정식으로 결성한 미술단체이다. 1975년 12월 25일에 행했던 전초전에서는 이종협과 정장직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해프닝을 했고, 이후 1976년 5월 7일 정길호가 합류해 홍명미술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당시 창립 멤버 세 사람은 숭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4학년이었다. 이후 이종협, 정길호, 정장직, 신동국, 유병호, 이정훈, 이창인, 심재구, 최장한, 방호성, 신현대, 함상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프닝과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으로 미술 운동을 추진하며 여러 재료와 방법을 탐구했고, 이 그룹에 속한 작가 대부분이 《금강현대미술제》(1980)에 참여했다. 1982년에는 대전에서 활약하던 다른 실험미술 그룹과 연합해 《르브똥동인회, 19751225, 대전'78세대 연합전》을 치르기도 했다. 19751215 그룹은 1992년 마지막 전시를 치르고 해체될 때까지 14회의 전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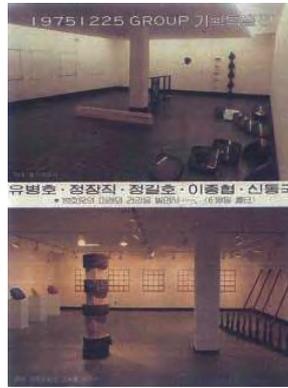
대전역 광장에서 행한 19751215 그룹의 전초전 장면(1975. 12. 15)



19751225 창립전(1976) 리플릿
(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대전 '78세대 · 르뽐 · 19751225그룹 연합전》(1982) 팸플릿



《제8회 19751225 GROUP》
(1986) 엽서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5. 12. 25.	19751215 결성, 전초전 개최	대전역 광장
1976. 1. 18.	야외 현장작업	대평리 금강 백사장
1976. 2. 15.	야외 현장작업	내탑
1976. 5. 7~5. 23.	《19751225 GROUP 창립전》	대전 홍명화랑
1977. 10. 1~10. 6.	《제2회 19751225 GROUP 전》	대전 홍명화랑
1979. 10. 7~10. 11.	《제3회 19751225 GROUP 전》	대전 홍명화랑
1979. 7. 10~7. 16.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80. 5. 17~5. 23.	《제4회 19751225 GROUP 기획판화전》	대전문화원
1982. 4. 18~4. 24.	《르뽐동인회,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4. 8. 15~8. 23.	《제6회 19751225 GROUP 1984년전》	대전 반도화랑
1985. 2. 12~2. 18.	《제7회 19751225 GROUP 10주년 기념전》	대전 현대/반도화랑
1986. 6. 6~6. 12.	《제8회 19751225 GROUP》	대전 신신화랑
1992. 10. 1~10. 6.	《제14회 19751225 GROUP》	대전문화원

23) 르뽀동인회(1976~1990)

르뽀동인회는 1976년 5월 19일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연 대전 추상화 1세대 작가들의 모임이다. 르뽀는 ‘르포르타주(reportage)’의 준말로, ‘현지’ 또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창립전에 참여한 회원은 권영우, 박명규, 박봉춘, 신동주, 유근영이었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작가들이 참여한 단체인 만큼 학교에서 보고 배운 추상을 충남에서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다른 청년 그룹들과 연합하고 소통하며 1982년 대전시민회관에서 《르뽀동인회,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을 기획해 치렀고 새로운 세대를 영입해 추상회화의 형식과 방법을 폭넓게 모색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충남 오늘의 만남전》(1987), 《충남 어제와 오늘전》(1988), 《남부현대미술제》(1989) 등을 주최하며 청년 미술인이 창작 열의를 표출할 기회를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 미술계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활동 슬로건으로 ‘대전의 구상현장에 새로운 물결은 넣어보자’라고 주장했던 르뽀동인회는 1990년까지 15번의 전시를 끝으로 해체되었다.



《르뽀동인회 창립전》(1976) 팸플릿 표지 및 내지(신동주·유근영의 출품작)



르뽀동인회 회원(좌), 1981년 좌담회(우) 모습(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6. 5. 19~5. 24.	《르뽀동인회 창립전》	대전문화원
1977. 12. 8~12. 12.	《제2회 르뽀동인회》	대전문화원
1978	《제3회 르뽀동인회》	대전문화원
1982	《제4회 르뽀동인회》	대전 여일미술관
1982. 2. 15~3. 15.	《제5회전: 근대화랑 개관기념 르뽀동인 초대전》	대전 근대화랑
1982. 4. 18~4. 24.	《대전 '78세대 · 르뽀 · 19751225그룹 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3	《제6회 르뽀동인회》	대전시민회관
1984	《제7회 르뽀동인회》	대전 양조화랑
1984	《제8회 르뽀동인회》	청주 청탑화랑
1984. 12. 8~12. 14	《제9회 르뽀동인회전》	대전 반도화랑
1985. 9. 15~9. 20.	창립 10주년 기념 《르뽀, 예뽀꼬 합동전》	대전시민회관
1986	《제2회 남부예술제》	일산시민회관
1987	《르뽀기획: '87 르뽀 상황전》	대전 MBC문화공간
1987	《제3회 남부예술제》	전주예술회관
1987. 10. 11~10. 16.	르뽀동인회 주최 《'87 충남 오늘의 만남전》	대전문화원
1988	《제4회 남부예술제》	광주 남도예술회관
1988. 8. 9~8. 14.	르뽀동인회 주최 《'88 충남 어제와 오늘전》	대전시민회관
1989. 8. 1~8. 6.	르뽀동인회 주최 《제5회 남부현대미술제》	대전시민회관/ 대전문화원
1990	《르뽀동인 창립 15주년 기념 100호전》	대전 MBC문화공간

24) 서미회(瑞美會, 1976~현재)

서미회는 서산 출신 미술인 모임으로 1976년 창립한 단체이다. 초기에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주축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서산 지역 내 작가뿐만 아니라 서산 출신 출향 작가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서산에서의 전시뿐만 아니라 1984년에는 서울 미술회관에서 《제8회 서미회전》을 열었다. 서미회는 지역의 신진작가 발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교류 및 해외작가들과의 교류전을 여러 차례 개최했다. 2015년 《국제 현대미술전: Inter-Reflection》, 2016년 《한국의 열정 인도를 보다》 등에 이어, 2020년 서산시 부석면 서해미술관에서 《한국과 키르키즈스탄의 교류전: Visual imagination》을 열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인 서미회는 서산 출신 작가들의 대표적인 미술단체로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8회 서미회전》(1984) 도록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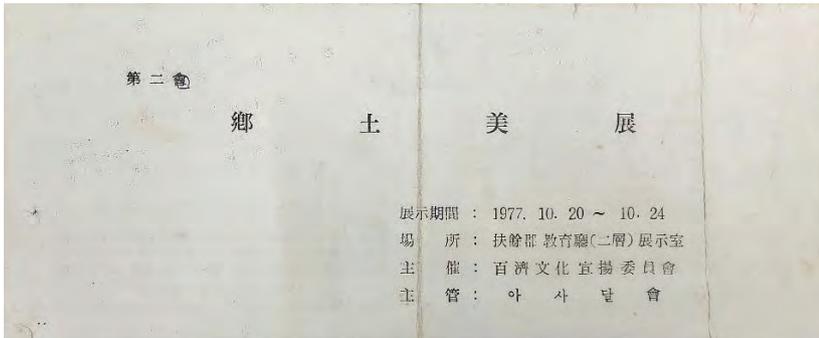
《제28회 서미회전》(2004) 포스터 및 도록 내지(이윤구·이재선·이종구·이종성의 출품작)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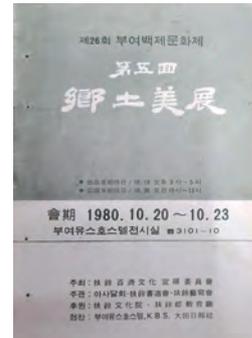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6. 12. 22~12. 30.	《창립전》	서산 향원다실
1977. 12. 23~12. 29.	《제2회 서미회전》	서산 반공회관
1989. 8. 24~8. 30.	《제16회 서미회전: 맥-흐름전》	서울 무역센터 현대미술관
1995. 10. 3~10. 9.	《제22회 서미회전》	서울 문화일보갤러리
2004. 5. 29~6. 3.	《제28회 서미회전》	서산문화회관
2020. 12. 18~12. 24	《한국과 키르키즈스탄의 교류전: Visual imagination》	서산 서해미술관

25) 아사달회(1976~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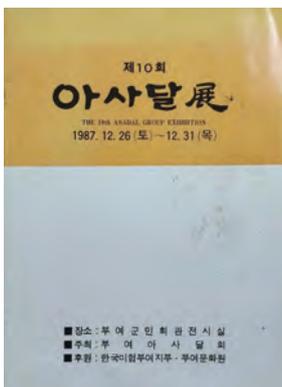
아사달회는 1976년 3월 17일 부여에서 창립한 단체로, 그해 11월 부여문화원의 아사달화실에서 창립전으로 《향토미전》을 개최했다. 창립 당시 회장 임영우(당시 부여고등학교 미술교사)와 총무 정찬국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회원이 부여문화원 회의실을 아사달 화실로 사용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향토미전'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정기전을 열었고 《제3회 향토미전》부터는 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전시를 개최하면서 규모가 확장되었다. 1980년에는 아사달회를 통해 배출한 신진 작가가 주축이 되어 아사달 청년회를 발족하기도 했는데, 청년회는 이순구가 회장을 맡았다. 아사달 청년회가 생긴 이후 《향토미전》과 《아사달청년전》으로 나누어 한 해에 두 번 전시를 열다가 1987년에는 두 전시를 합해 《아사달전》으로 개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향토미전을 개최하다가 1990년 9월 열린 《제36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11회 향토미전》을 끝으로 아사달회는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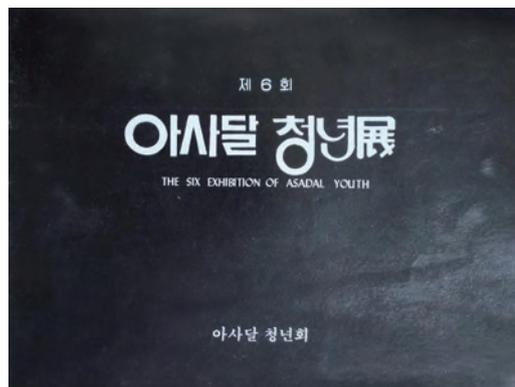
《제2회 향토미전》(1977) 리플릿 표지(출처: 정찬국 작가 제공)



《제26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5회 향토미전》(1980) 리플릿 표지(출처: 정찬국 작가 제공)



《제10회 아사달전》(1987) 도록 표지(출처: 정찬국 작가 제공)



《제6회 아사달 청년전》(1990) 도록 표지(출처: 정찬국 작가 제공)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6. 3. 17.	창립	부여문화원
	임영우, 인동환, 호두환, 신인식, 정찬국, 강명준, 김계숙, 우종복, 이병인, 서관석, 한금자, 김명자, 김치수	
1976. 11. 6~11. 13.	《제1회 향토미전》	부여문화원 아사달화실
1977. 10. 20~10. 24.	《제2회 향토미전》	부여교육청
1978. 10. 25~10. 29.	《제3회 향토미전》	부여유스호스텔
1979. 11. 10~11. 15.	《제4회 향토미전》	부여단위농협
1980. 10. 20~10. 23.	《제26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5회 향토미전》	부여유스호스텔
1981. 10. 10~10. 16.	《제6회 향토미전》	부여읍민회관
1982. 10. 18~10. 23.	《제28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7회 향토미전》	부여군청
1984. 10. 19~10. 23.	《제30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8회 향토미전》	부여군청
1986. 9. 25~9. 28.	《제32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9회 향토미전》	부여군민회관
1987. 12. 26~12. 31.	《제10회 아사달전》	부여군민회관
1988. 9. 28~10. 2.	《제34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10회 향토미전》	부여군민회관
1990. 9. 25~9. 29.	《제36회 백제문화제 기념: 제11회 향토미전》	부여군청

26) 한국미협 천안지부(1976~현재)

한국미협 천안지부는 1976년 6월 1일 천안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단체이다. 그해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12월 백궁다방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³² 1977년 초대지부장으로는 신양섭이 선출되었다.

매년 정기전을 열었고, 특별전으로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을 기념한 초대전을 개최했으며, 1989년에는 100호 크기의 작품으로 《천안지부 100호전》을 열었다. 이 외에도 1991년부터 《천안시·군 국민학교 미술실기대회》를 주최·후원했고 2003년부터는 《도솔미술대전》을 통해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했으며, 2005년에는 《생명의깃발전》을 신설·진행했다. 특히 《도솔미술대전》은 2022년 제20회 전시가 열렸으며, 천안시 대표 문화행사로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창립 40주년 기념전을 열었던 한국미협 천안지부는 2019년 《함성-그날의발자취전》을 통해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제1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지부 100호전》(1989) 도록 표지 및 내지(정세훈·정태공의 출품작)



《제48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2023) 포스터 및 전시장 모습(출처: 천안미술협회 홈페이지)

³² 한국미협 천안지부의 전시이력 및 행사 관련 자료는 천안미술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faa.or.kr/bbs/content.php?co_id=history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6. 6. 1.	천안미협 발기 창립총회	천안문화원
	신양섭, 남길희, 김영천, 김광희, 이용희, 김수길, 서경원, 고원필 등 참여	
1976. 12. 24~12. 30.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전》	천안 백궁다방
1977. 6. 10.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 1주년 기념 좌담회 (강사: 조국정 교수)	천안 상공회의소
1977. 12. 16~12. 20.	《제2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1978. 12. 9~12. 14.	《제3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1979. 12. 3~12. 7.	《제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1980. 11. 7.	한국미협 천안지부 세미나개최(강사: 최덕휴 교수)	천안문화원
1980. 11. 7~11. 11.	《제5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문화원
1981. 5. 23~5. 27.	《제6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 태화산방
1982. 9. 6~9. 12.	《제7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및 제50회 한국미협 충남도지부전》	대전시민회관
1983. 10. 25~10. 30.	《제8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 미도파백화점
1984. 11. 3~11. 8.	《제9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 미도파백화점
1984. 12. 28~1. 5.	《도술화랑 개관기념 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천안 도술화랑
1985. 5. 10.	한국미협 천안지부 야외스케치	대전항
1985. 10. 26~10. 31. 1985. 11. 1~11. 7.	《제10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서산·천안 교류전》	천안 도술화랑/ 서산문화원
1986. 11. 14~11. 18.	《창립 10주년 기념 회원전》	천안 미도파백화점
1987. 8. 13~8. 18.	《독립기념관 개관기념 한국미협 천안지부 초대전》	천안문화원
1989. 6. 9~6. 15.	《제1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지부 100호전》	천안문화원
1991. 10. 3.	《제1회 천안시·군 국민학교 미술실기대회》	천안삼거리공원
2003. 11. 5~11. 9.	《제1회 도술미술대전》	천안시민회관
2016. 6. 10~6. 19.	《천안미협 창립 40주년 기념: 천안미술의지평전》	천안예술의전당
2016. 10. 13~10. 29.	《제14회 도술미술대전》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2017. 6. 13~6. 25.	《제42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예술의전당
2018. 6. 15~6. 30.	《제43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예술의전당
2019. 5. 21~5. 26.	《함성-그날의 발자취전》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2021. 9. 7~9. 12.	《제46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시립미술관
2023. 6. 27~7. 10.	《제48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천안예술의전당
2023. 11. 3~11. 11.	《제21회 도술미술대전》	천안신부문화회관/ 천안예술의전당

27) 토형회(土形會, 1977)

토형회는 대전·충남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한 조소 전공자들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이다. 공주교육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의 조소 전공자들이 참여해 창립전을 개최했고, 창립 당시 회장은 한남대학교 미술과 출신 김지택이 맡았다. 1970년대 후반에는 창작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토형회를 통해 충남 조각계와 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창립전은 1977년 5월 대전 홍명미술관에서 열렸으며, 당시 각 대학에서 강의하던 교수·강사(김혜원, 박부찬, 백현옥, 유영교, 윤영자, 전퇴진, 조성목, 진송자, 최종태, 황교영)를 초청해 대규모 전시를 개최했다. 이 단체의 활동은 한 번의 전시로 끝났지만, 충남에 있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조각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써 의미가 있다.



《제1회 토형회조각전》
(1977) 리플릿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7. 5. 16~5. 21.	《토형회 창립전》 김규성, 김광일, 김석우, 김옥순, 김인숙, 김지택, 박병희, 박종석, 양현조, 유승옥, 윤혜연, 임선빈, 정순호, 정창훈, 조숙희, 한종환, 황성익	대전 홍명미술관

28) 대전'78세대(1978~1986)

대전'78세대는 1955년 전후로 출생한 대전에 거주하던 작가들의 모임으로, 1978년 목원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출발했다.³³ 이건용, 차대덕, 박용숙, 김장섭, 성능경을 차례로 초대해 세미나를 열었다. 창립 이후 이두한, 이재우, 김영호, 홍현표, 임근우, 진정식 등이 동참했다.

창립전은 1978년 10월 대전문화원에서 개최되었으며 2회전이 1979년 5월 대전 남계화랑에서 열렸다. 2회전을 치른 후, 다음 달에 초대전 형식으로 서울 그로리치화랑에서 전시를 열었다. 대전'78세대는 단독 전시 외에도 다른 그룹과의 연합 전시를 여러 차례 가졌다. 19751225와의 연합전이 1979년 7월 서울 청년작가회관에서 있었고, 1982년 르뽀동인회, 19751225와 함께 대전시민회관에서 연합전을 개최했다. 그해 10월에는 대구의 작가들과 함께 대구 강정 낙동강변에서 《현대미술 현장에서의 논리적 비전》이라는 야외 설치 및 행위전을 가졌다. 1986년 9회전을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³⁴



《대전'78세대 창립전》 팸플릿 표지 및 내지(강정현의 출품작)



《제4회 대전'78세대전》(1980) 포스터



《제5회 대전'78세대전》(1982) 도록 내지(강정현·안치인의 출품작)



《대전'78세대 전주퀴터 2그룹 연합전》(1986) 전시 홍보물(출처: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³³ 대전'78세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 참조.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p. 78~125.

³⁴ 조상영, 「(조상영) 대전'78세대 해체 이유는…」, 『중도일보』(2012. 1. 25).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8. 10. 14~10. 18.	《대전 '78세대 창립전》	대전문화원
	강정현, 김익규, 김철겸, 송일영, 신현태, 안치인, 이종봉, 장금자, 정상희, 지석철, 최덕희, 최병규	
1978. 12. 27~12. 29.	《제1회 야외전》	대전 해변
1979. 5. 1~5. 6.	《제2회 대전 '78세대전》	대전 남계화랑
1979. 6. 2~6. 4.	《대전 '78세대 초대전》	서울 그로리치화랑
1979. 7. 10~7. 16.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	서울 청년작가회관
1980. 1.	《제2회 야외전》	신탄진 강변
1980. 5. 14~5. 19.	《제4회 대전 '78세대전》	대전시민회관
1981. 11. 1.	《제3회 야외전》	대전문화원 공터
1982. 4. 18~4. 24.	《르뽀동인회, 19751225, 대전 '78세대 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2. 10. 10~10. 15.	《현대미술 현장에서의 논리적 비전》	대구 강정 낙동강면
1983. 9. 10~9. 15.	《제6회 대전 '78세대전》	대전문화원
1984. 8. 8~8. 14.	《제7회 대전 '78세대전》	서울 제3미술관
1986. 4. 12~4. 16.	《대전 '78세대 전주퀴전》	대전시민회관
1986. 10. 8~10. 14.	《제9회 대전 '78세대전》	대전 중앙갤러리

29) 목묵회(牧墨會, 1978~1998)

목묵회는 1978년 목원대학교 미술과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들에 의해 창립된 단체이다. 1972년 목원대학교에서 미술과가 개설된 후 동양화를 전공한 제1회 졸업생 복원규, 허진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두 회원으로 참여했고, 처음에는 목미회(牧美會)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가 제2회 전시 때부터 목묵회(牧默會)로 단체명을 개칭했다.³⁵ 목묵회는 미술사 연구모임을 운영했으며, 사생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창작 능력을 배양하며 충남 화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비중 있는 작가를 많이 배출했다. 회원 중 다수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학생 지도와 창작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⁶ 1991년 《제16회 목묵회전》은 대전문화원에서 열렸고 1995년 대전 한림갤러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1998년 전시를 끝으로 목묵회의 활동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제3회 목묵회전》(1980) 도록 표지 및 내지(복원규·허진권의 출품작)



《제20회 목묵회전》(1995) 도록 표지 및 내지(정황래·조운희의 출품작)

³⁵ 『제3회 목묵회전』(대전문화원, 1980).

³⁶ 「전시」, 『중도일보』(1995. 7. 27).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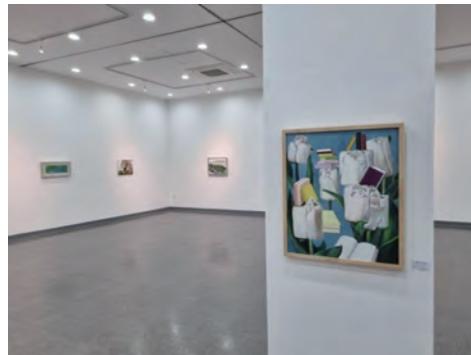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8. 12. 1	《제1회 목미회전》	대전문화원
	《제3회 목목회전》	대전문화원
1980. 12. 25~12. 31.	복원규, 허진권, 남영자, 장정란, 장성옥, 방복희, 이세영, 정구인, 정성숙, 정옥규, 정진숙, 윤명희, 최재숙 참여	
1981. 10. 10~10. 16.	《제4회 목목회전》	대전문화원
1986. 6. 16~6. 20.	《제10회 목목회전》	대전시민회관
1989. 9. 20~9. 25.	《제14회 목목회전》	서울 아람미술관
1990. 8. 23~8. 29.	《제15회 목목회전》	대전 현대화랑
1991. 8. 16~8. 20.	《제16회 목목회전》	대전문화원
1994. 9. 5~9. 10.	《제19회 목목회전》	대전문화원
1995. 7. 28~8. 3.	《제20회 목목회전》	대전 한림갤러리

30) 청림회(靑林會, 1978~현재)

청림회는 1978년 숭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단체이다.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정기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강구철, 이재호, 이계길 등이 청림회 출신 작가이다. 창립 초기 대전 일대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다가 1986년에는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충남 작가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1989년 《제13회 청림전》은 대만의 대만시립문화중심에서 열기도 했다. 청림회는 정기전 외에도 《대전 채목화의 흐름전》, 《채목의 새물결전》, 《21세기를 위한 한국화의 흐름전》 등의 특별전을 열었다. 최근 들어 수묵화, 채색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작품 경향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제45회 청림전》은 한남대학교 조형예술관에서 열린 바 있다.³⁷



《제16회 청림전》(1993) 도록 표지 및 내지(강구철의 출품작)



《제45회 청림전》(2021) 전시장 모습(출처: 네이버블로그 '미술덕후')

³⁷ 네이버블로그 '미술덕후' 참조. <https://m.blog.naver.com/gyqls1004k/222545713392?referrerCode=1>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8. 5. 27~5. 31.	《창립 청림전》	대전문화원
1979. 5. 1~5. 6.	《제2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1980. 3. 25~3. 30.	《제3회 청림전》	대전 여일화랑
1981. 12. 7~12. 13.	《제4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1982. 4. 9~4. 14.	《제5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1983. 11. 27~12. 3.	《제6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1984. 4. 14~4. 20.	《제7회 청림전》	대전시민회관
1985. 6. 3~6. 9.	《제8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1986. 3. 7~3. 13.	《제9회 청림전: 월간 미술세계 충남작가초대전》	서울 경인미술관
1986. 4. 14~4. 20.	《제10회 청림전》	대전 신신화랑
1987. 5. 21~5. 27.	《제11회 청림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8. 6. 4~6. 9.	《제12회 청림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9. 1. 14~1. 23.	《제13회 청림전》	대만 시립문화중심
1990. 5. 10.~5. 16.	《제14회 청림전》	대전문화원
1992. 6. 18.~6. 24.	《제15회 청림전》	대전현대화랑
1993. 5. 28~6. 3.	《제16회 청림전》	대전 삼성생명 전시실
1994. 5. 17~5. 22.	《제17회 청림전》	대전 한신코아아트홀
1995. 7. 5~7. 10.	《제18회 청림전》	대전 중구문화원
1995. 10. 6~10. 12.	《제19회 청림전》	대전 흥인갤러리
1996. 6. 9~6. 14.	《제20회 청림전》	대전 중구문화원
1997. 6. 24~6. 29.	《제21회 청림전: 대전채목화의 흐름》	대전 중구문화원
1998. 6. 8~6. 14.	《제22회 청림전》	대전시민회관
1999. 8. 21~8. 27.	《제23회 청림전: 채목의 새물결전》	대전 중구문화원
2001. 8. 23~8. 29.	《제25회 청림전》	대전 현대화랑
2007. 8. 3~8. 30.	《제31회 청림전》	서울 GS아트센터
2015. 12. 2~12. 8.	《제39회 청림전》	대전 MBC 갤러리M
2018. 9. 3~9. 9.	《제42회 청림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관
2021. 10. 19~10. 25.	《제45회 청림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관

31) 한길회(1978~현재)

한길회는 1978년 10월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동문 단체로 창립되었다. 1973년 12월 공주사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신설된 후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생겨난 단체이다. 1982년 15개 지방 미술단체가 함께 한 《지방미술단체 연합전》에 ‘르뽀동인회’와 같이 참여했다. 1983년 한국화과와 서양화과 전공 졸업생 모임이 나누어지면서 ‘한길한국화회’와 ‘한길서양화회’로 분리되었다.³⁸ 1984년 《제7회 한길미전》까지 두 전공이 함께 전시를 열다가 이후 한길한국화회와 한국서양화회 두 단체로 분리해 작품전을 개최했다. 이후 1985년 제8회 전시 때부터는 서양화전과 한국화전으로 분리해 전시를 개최했다.³⁹ 창립 10주년을 맞아서는 대전시민회관에서 전 장르 작가가 참여한 《제10회 한길연합전》(1987)을 열었으며, 2004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창립 30주년 기념해 《한길연합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제2회 한길전》(1979) 리플릿



《제7회 한길한국화전》(1984) 도록 표지 및 내지



《제8회 한길서양화전》
(1985) 도록 표지



《제10회 한길연합전》(1987) 리플릿

³⁸ 한길서양화회와 한길한국화회는 1983년 한길회에서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술단체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983년 이후 분리된 두 단체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항목에 기술하지 않았다.

³⁹ 다음 도록의 전시이력 참조. 『제12회 한길서양화전』(한길서양화회, 1992).



《제12회 한길서양화전》(1992) 도록 표지 및 내지(김정현·이남규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8. 10.	《한길미전 창립전》	공주문화원
1979. 11. 4~11. 7.	《제2회 한길미전》	공주문화원
1980. 11. 22~11. 26.	《제3회 한길미전》	공주문화원
1981. 11. 29~12. 3.	《제4회 한길미전》	공주신용협동조합
1982. 8. 27~9. 1.	《82 지방미술단체연합전》	서울미술회관
1982. 9. 18~9. 22.	《제5회 한길미전》	대전시민회관
1983. 12. 27~12. 31.	《제6회 한길미전》	공주문화원
	김문식, 김오수, 나길수, 박홍순, 유순식, 이병한, 최기성, 김성노, 김정목, 백인현, 이옥주, 정기해, 조원향, 한경희, 손석만, 안경수, 유영숙, 이성철, 이순희, 이종관, 임재광, 이동구, 이상숙, 조선란, 윤석숙, 정창배, 김원희, 김정숙, 김창혜, 노현숙, 신인숙, 이경우, 임규화, 이응우 등 참여	
1984. 10. 10~10. 14.	《제7회 한길 한국화전》	대전문화원
1985. 12. 24~12. 28.	《제8회 한길 서양화전》	공주문화원
1987. 7. 26.~8. 1	《제10회 한길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9. 2. 25~3. 1.	《제11회 한길 서양화전》	대전 현대화랑

32) 이사회(충남구상작가회·대전구상작가회, 以新會, 1979~현재)

이사회는 1979년 6월 한국미협 대전지부 소속 작가들 중 구상회화를 추구하는 작가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1984년 6월 제7회 전시까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치른 후 1984년 7월 한국미술협회 산하단체로 등록되면서 충남구상작가회로 개칭해 발족했다. 이후 1985년 충남한국화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해 《아름다운 금강전》을 열었고, 1986년에는 미술세계 기획 《충남작가 초대전》이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여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금강전》은 이후 1991년 대전 MBC의 《금강 미술대전》이라는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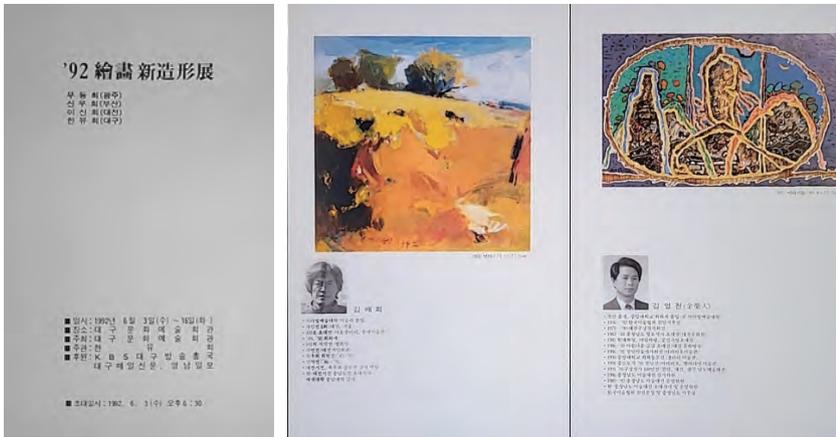
한국미협 충남지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1988년에 이르러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이사회는 대전구상작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기념 초대전》, 1991년 《구상작가 100인전》 등을 개최했는데, 1992년 1월 다시 창립 당시 명칭인 이사회로 명칭을 바꿔 7년간 활동했다. 그러다가 1998년 대전구상작가협회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회원 대부분이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들로 구성되었을 정도로 중견 작가들의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된 역사가 있지만, 이사회로 출발한 대전구상작가협회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전·충남 구상작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제7회 이사회전》(1984) 도록 표지



《아름다운 금강》(1988) 도록 내지(김철호·김치중의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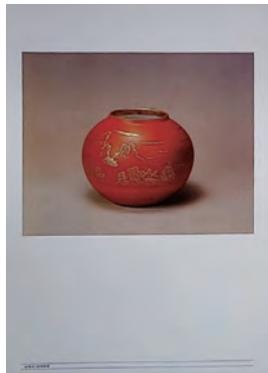
《92 회화 신조형전》(1992) 도록 내지(김배희·김영철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9. 10. 21~10. 24.	《이신회 창립전》	대전문화원
1979. 10.	《제2회 이신회전》	대전문화원
1980. 9.	《제3회 이신회전》	대전문화원
1980. 12. 19~12. 30.	《한국미술 지방미술단체연합전(구상미술)》	서울미술회관
1984. 6. 11~6. 16.	《제7회 이신회전》	대전 신신화랑
1984. 11.	《제8회 충남구상작가협회전》	대전문화원
1985. 11.	《제9회 충남구상작가 협회전: 충남 한국화 협회와 공동기획 "아름다운 금강전"》	대전시민회관
1986. 3.	《제10회 충남구상작가협회전: 미술세계기획 충남작가 초대전》	서울 경인미술관
1988. 9. 19~9. 28.	《아름다운 금강》	대전MBC문화공간
1989. 1.	《대전직할시 승격 기념초대전》	대전 신신화랑
1992. 6. 18~6. 23.	《92 이신회 정기전》	대전MBC문화공간
1992. 6. 3~6. 12.	《92 회화 신조형전》	대구문화예술회관
2009. 11. 5~11. 11.	《창립30주년 기념: 한발의 지평전》	대전중구문화원
2019. 11. 1~11. 7.	《대전구상작가협회 40주년기념 특별전》	대전 명화갤러리

33) 충남디자인협회(대전디자인협회, 1979~1989)

충남디자인협회(대전디자인협회)는 1979년 창립한 공예·디자인 분야 작가 단체이다. 그해 12월 대전에 거주하면서 당시 각 대학에 재직하던 5명의 작가가 모여 대전 남계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대전실업전문대학 강지민, 중경공업전문대학 남홍태, 목원대학교 이종훈, 배재대학교 정해조, 한남대학교 최영근이 결집해 공예·시각·제품 디자인 분야를 총망라한 모임으로 창설했다. 《제2회 충남디자인협회전》은 7년이 지난 1986년 대전 쌍인미술관에서 열렸다. 창립전에 참여한 작가가 5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2회 전시 때에는 회원이 10배가 늘어나 5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충남디자인협회는 충남과 대전이 행정구역상 분리된 해인 1989년 대전디자인협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디자인 분야 작가들은 각자 분야별로 단체를 조직하게 되고 1990년 공예가들만 모여 대전공예가협회로 활동을 시작했다.⁴⁰



《제2회 충남디자인협회전》(1986) 도록 표지 및 내지



《대전디자인협회전》(1989) 도록 표지 및 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79. 12. 4~12. 8.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전》	대전 남계화랑
1986. 12. 23~12. 29.	《제2회 충남디자인협회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9. 12. 20~12. 26.	《대전디자인협회전》	대전문화원

⁴⁰ 1990년 결성한 대전공예가협회는 '대전의숨결전'을 통해 활동을 지속했다. 이후 활동 내용은 '대전의숨결전' 해제문 참조.

34) 금강현대미술제(1980~1981)

금강현대미술제는 1980년 11월 6박 7일간 20~30대 작가들이 공주 금강 백사장에 모여 개최한 미술 행사이자 단체명이다. 이때 총감독은 임동식이 맡았으며, 2회 전시 때는 홍명섭이 총감독을 맡아 대전문화원에서 입체전과 평면전으로 나누어 전시를 열었다. 임동식, 홍명섭, 유근영 등이 주도한 《금강현대미술제》는 1970년대 후반 서울에서 학업을 마친 충남 출신 작가들인 임동식, 김영옥, 정덕영, 백준기를 비롯해, 대전 출신 홍명섭, 유근영 등의 작가들이 종종 회합해 제도권과 차별화된 미술제를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유근영, 백준기, 임동식, 홍명섭은 미술제 방법론을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창립전을 공주 금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80년 11월 약 30여 명의 작가가 야외에서 현장 작업을 선보이며 《금강현대미술제》가 시작되었다. 《금강현대미술제》는 2회의 전시를 끝으로 임동식을 주축으로 ‘야투(野投)’라는 명칭으로 전환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로 거듭났다.



1989년 동양백화점과 중앙로(출처: 『사진으로 본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만남』, 1990)



《금강현대미술제》(1980) 창립전 팸플릿 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0. 11. 16~11. 22.	《금강현대미술제》	공주 금강 백사장
1981. 4. 18~4. 30.	《금강현대미술제》	대전문화원

35) 뽀그래픽(1980~현재)

1980년 창립한 뽀그래픽은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자들의 모임이다.⁴¹ 1978년 대전·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목원대학교 산업미술학과가 개설되어 시각디자인 전공생 단체로 설립되었다.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정기전을 치렀다.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과는 2021년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뽀그래픽은 현재 3,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작품 창작의 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뽀그래픽 전시를 통해 소개된 작품들이 뉴욕 클리오 공모전을 비롯한 세계적인 공모전에서 많은 입상을 하고 있다.⁴² 뽀그래픽은 전시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광고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을 연구해 창작물을 선보였다.



《제23회 뽀그래픽전시회: 책홍보포스터전》(2002) 도록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0. 9. 24~9. 27.	《뽀그래픽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1984	《제5회 뽀그래픽전시회: 동물을 주제로한 시각디자인전》	대전시민회관/ 서울 디자인포장센터
1989. 7. 8~7. 14.	《제10회전: 뽀》	대전시민회관/ 서울 명동금강르느와르전시관
2002. 6. 14~6. 20.	《제23회전: 책홍보포스터전》	대전 롯데화랑
2010. 4. 16~4. 21.	《제31회전: 환경살리기 포스터전》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
2019. 4. 9~4. 15.	《제40회전: 공익 포스터전》	목원대학교미술관
2023. 4. 17~4. 23.	《제44회전: SAVE THE ENVIRONMENT》	목원대학교미술관

⁴¹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홈페이지. <https://www.mokwon.ac.kr/visual/html/sub04/0402.html>

⁴² 『목원대, 제40회 뽀그래픽 전시회 개최』, 『대전일보』(2019. 4. 11).

36) 송전조각회(한발조각회, 1980~현재)

1980년 3월 송전조각회(현 한발조각회)로 발족했다.⁴³ 대전 최초의 조각가 단체로서 송전대학교 조각과 졸업생이 모여 창립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교원과 조각가를 배출했다. 1982년 12월 제3회 전시까지 송전조각회로 전시를 개최하다가 한남대학교로 교명이 바뀌면서 1983년 3월 한발조각회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이후 1984년 제4회 전시부터 한발조각회전으로 전시명을 바꾸어 전시를 열었다. 그해 전시는 서울에서 개최해 조각회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8년 6월 김수평 교수를 초청해 “리얼리즘 조각”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고 대전·충남 조각 학도를 위한 학문적 이론 정립에 힘썼다. 1990년대에는 한남대학교 출신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 및 국내 작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현재 연 1회 정기전을 열며 활동하고 있다.



《제3회 송전조각회전》(1982) 도록 표지 및 내지(김지택·박병희·심춘자·양은숙의 출품작)



《제14회 송전조각회전》(1994) 도록 표지 및 내지(정찬국의 출품작)

《38 한발전》(2022) 전시포스터 및 주요 출품작

43 「“우리 文化 찾자” 한발조각회전 성황」, 『경향신문』(1990. 6. 16).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0. 10.	《송전조각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박병희, 김지택, 양현조, 박용각, 장준문, 변수현, 고웅곤, 박수용, 심춘자 등 참여	
1981. 5.	《제2회 송전조각회전》	청주문화원
1982. 12. 11~12. 14.	《제3회 송전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83. 3.	한발조각회로 개칭	
1984. 3.	《제4회 한발조각회전》	서울 제3미술관
1985. 6.	《제5회 한발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86. 4.	《제6회 한발조각회전: 한남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전》	한남대학교 미술관
1987. 9.	《제7회 한발조각회전》	대전문화원
1988. 6.	제1회 한발조각회 세미나(발표자: 김수평 교수)	
1988. 9.	《제9회 한발조각회전》	대전현대화랑
1989. 12. 11~12. 15.	《대전·충남조각연립전》	대전시민회관
1990. 6. 19~6. 24.	《제10회 한발조각전》	대전 현대화랑
1991. 6.	《제11회 한발조각전》	한남타운 미술관
1992. 11.	《제12회 한발조각전》	대전 오원화랑
1993. 9.	《제13회 한발조각전》	대전 오원화랑
1994. 8. 1~8. 12.	《제14회 한발조각전》	대전 대화문화사랑
2022. 12. 20~1. 29.	《38 한발전》	대전 화폐박물관
2023. 10. 4~10. 15.	《39 한발전》	대전 화폐박물관

37) 금동인회(1981~현재)

금동인회는 1981년 금산고등학교 미술반 출신 작가들이 모여 창설한 미술단체이다.⁴⁴ 창립 당시 여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금산에서 거주하던 작가들이 참여했고,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산의 대표 미술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부터 금산문화원 소속 단체로 등록되어 매년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며 금산문화예술제를 주도했다. 창립 회원이자 금동인회의 주요 작가인 중앙대학교 출신 이돈희는 2008년 금동인회를 통해 금산미술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공로로 '제18회 금산군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⁴⁵



《제43회 금동인전》(2017) 전시장 모습(출처: 『금산소식』, 2017. 10. 28)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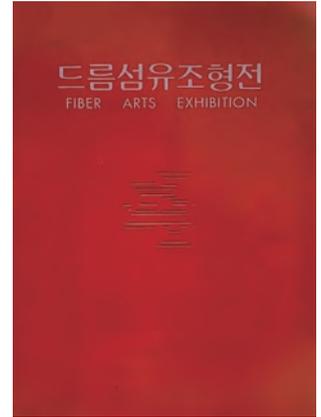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1. 9.	《창립전》	
1982. 10.	《제2회 금동인전》	
1988. 10. 8~10. 15.	《제7회 금동인전》 김동욱, 김용빈, 김윤홍, 김일도, 김창수, 백수인, 양인규, 이돈희, 장경태, 전남준, 정창길, 주완식, 최산홍, 최진영, 고재선, 이형근, 이종필, 최상근, 정황래 참여	금산문화원
1992. 8. 17~8. 19.	《금동인전》	대전문화원
2002. 10. 18~10. 21.	《금동인전》	금산 청산별관
2007. 11. 9~11. 13.	《제33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2008. 4. 7~4. 30.	《아름다운 금산 금동인전》	금산갤러리
2017. 10. 27~10. 31.	《제43회 금동인전》	금산 청산아트홀
2018. 11. 23~11. 27.	《제44회 금동인전》	금산 청산아트홀

⁴⁴ 「제44회 금동인전, 제31회 금목서화전 개최」, 『금산소식』(2018. 11. 23).

⁴⁵ 「제18회 금산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중앙매일』(2008. 8. 18).

38) 드림염색회(드림섬유조형전, 1981~현재)

드림염색회(드림섬유조형회)는 1981년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의 섬유 전공자들이 결성한 대전·충남 최초의 섬유예술 단체이다. 창립전 출품작가는 강영선, 김미현, 손계순, 우영미, 윤진경, 이재화, 이화복, 장대원, 황현주 등이었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한 단체로, 이들이 개최한 《드림염색전》을 통해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대전·충남에서 섬유를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⁴⁶ 창립 이후 매년 거르지 않고 대전시민회관에서 회원전을 열었다. 그러나 1992년 《제12회 드림섬유조형전》 이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언제까지 단체가 활동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제12회 드림섬유조형전》(1992) 도록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1. 5. 1~5. 6.	《드림염색전》	대전시민회관
	강영선, 김미현, 손계순, 우영미, 윤진경, 이재화, 이화복, 장대원, 황현주 등 참여	
1982. 7. 1~7. 6.	《제2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3. 4. 30~5. 6.	《제3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4. 4. 30.~5. 6.	《제4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5. 7. 1~7. 7.	《제5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6. 4. 25~4. 30.	《제6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7. 6. 1~6. 6.	《제7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8. 6. 8~6. 13.	《제8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89. 5. 15~5. 21.	《제9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90. 5. 23~5. 29.	《제10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91. 6. 7~6. 13.	《제11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92. 7. 15~7. 20.	《제12회 드림섬유조형전》	대전시민회관
	김영숙, 윤석지, 서남희, 김이분, 이현경, 이현주, 권명주, 류근주, 박경단, 박현경, 성열상, 신순일, 이양자, 정미숙, 조요상, 최도희, 함숙찬, 황인진 등 참여	

46 『대전미술 둘-공예·조각』(대전시립미술관, 2009), p.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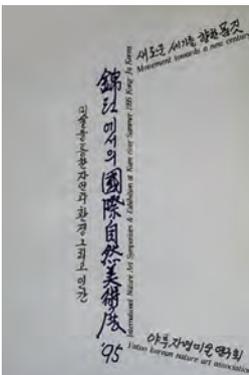
39) 야투(1981~현재)

야투(Yatoo, 野投)는 1981년 8월 임동식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공주와 금강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던 젊은 미술가 20여 명에 의해 결성된 단체이다. 야투의 문자적 의미는 야(野, 들·자연)와 투(投, 던지다)의 뜻으로, 농구에서 따온 용어이다. 초기에는 ‘야외현장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83년 1월 제7회 사계절연구회에서 ‘자연미술’이란 용어의 사용이 제기되었고, 토론과 논쟁을 거쳐 1986년부터 ‘자연미술(Nature Art)’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야투는 독일로 유학 간 임동식에 의해 1980년대 초 독일 함부르크미술대학에도 소개되었다. 1988년에는 삼시도·호도·원산도·부여 부소산·백마 강변·청양 천정호수, 칠갑산 장곡사 등에서 행한 작업을 사진·비디오·환등기·그림·작품자료집 등의 형태로 모아 대전문화원에서 실내전 형식으로 《세곳의 섬으로부터...전》을 가졌다.⁴⁷



《창립 野投》(1981) 도록 표지

야투는 1991년부터 ‘자연미술’의 정신을 확장하기 위해 《국제자연미술전》을 개최했다.⁴⁸ 《국제자연미술전》을 통해 한국의 자연미술을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한 야투는 2004년부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추진해 지역 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했다. 2011년 야투는 자연미술운동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야투-아이(Yatoo-i, 야투인터내셔널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행사를 기획해 시행했다.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1995) 도록 표지 및 내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프로젝트전》(2023) 포스터

47 《야투-세곳의 섬으로부터...전》의 리플릿에 실린 전시 소개글 참조. 『야투-세곳의 섬으로부터...전』(야투, 1988).

48 전혜숙, 「'비껴미술회'와 '야투' 그룹의 자연 미술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특성」, 『미술사학보』 51(미술사학연구회, 2018), p. 305.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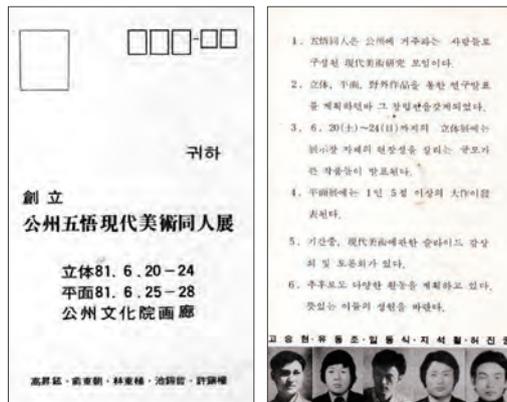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1. 8. 14~8. 19.	《창립 野投》	공주 금강 백사장
1986. 1.	《평화의 비엔날레》 참여	독일 함부르크
1987. 10.	《자연과 시간전》 참여	독일 함부르크
1988. 6. 18~6. 26.	《실내에서의 자연미술전》	대전 동아미술관
1988. 11. 8~11. 13.	《세곳의 섬으로부터...전》	대전문화원
1989. 10.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전》	독일 함부르크
1990. 10.	자연미술의 집 설립	구 공주읍사무소
1990. 12~1991. 1.	자연미술의 집 개관 기념 《자유로운 수단 전》	공주 야투자연미술의집
1991. 7. 14~8. 15.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공주 금강 일원
1992. 5.	《종이를 통한 자연 전》	공주문예회관
1992. 8. 4~8. 28.	《여름 슈베르크 국제자연미술전》	독일 슈베르크동산/ 독일 슬레스비히홀스타인
1994. 10.	《야투자연미술자료전》	독일 부퍼탈
1995. 7. 21~8. 18.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공주 금강, 산성공원, 곰나루 일원
1998. 8. 1~8. 29.	《제3회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예술과 마을》	공주 원골
2000. 8. 11~8. 31.	《2000 금강국제자연미술전: 새문을 열며》	공주 산성공원
2001. 10. 8~11. 11.	《제6회 금강국제자연미술전: 작은 풀잎으로 부터》	공주 산성공원
2004. 8. 17~10. 31.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향하여》	공주 장군봉 자연미술공원
2014. 8. 29~11. 3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옆으로 자라는 나무》	공주 쌍신공원/ 금강자연미술센터
2022. 8. 27~11. 30./ 8. 27~10. 31.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또, 다시야생(多視野生)》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자연미술센터
2023. 8. 26~10. 1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프로젝트전: 숲속의 은신처 II》	금강자연미술센터

40)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1981~1982)

오오현대미술동인은 1981년 공주에 거주하던 5명의 작가가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오오’라는 용어는 다섯 명이 모였기 때문에, 한자 다섯 ‘五’에다가 깨닫는다는 뜻의 한자 ‘悟’를 합해 ‘다섯 명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임동식을 중심으로 지석철, 유동조, 고승현, 허진권이 수시로 만나 예술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금강현대미술제》를 먼저 개최한 후, 다음 해에 《창립 공주오오현대미술동인전》을 열었다. 창립전은 공주문화원에서 개최했고, 입체전과 평면전으로 나누어 전시를 열었다. 1981년 8월 야투 창립 후, 오오현대미술동인 회원들은 야투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1981년 11월 대전문화원에서 2회 전시를 치른 후 이 단체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즉 1980년대 초 충남에서 개념미술을 추구한 작가들이 혁신적인 생각으로 뭉쳐 금강현대미술제를 개최한 후, 오오현대미술동인을 거쳐 야투를 낳게 된 것이다.



오오현대미술동인 멤버들(출처: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키프트, 2009)



《창립 공주오오현대미술동인전》 홍보 엽서 (출처: 허진권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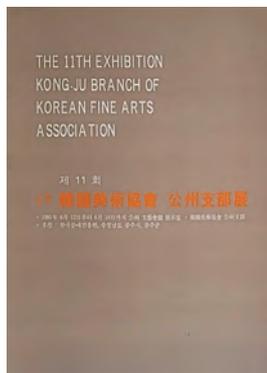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1. 6. 20~6. 28.	《창립 공주오오현대미술동인전》 고승현, 유동조, 임동식, 지석철, 허진권	공주문화원
1982. 11. 27~11. 30.	《제2회 오오현대미술동인전》	대전문화원

41) 한국미협 공주지부(1981~현재)

한국미협 공주지부는 1981년 9월 22일 한국미술협회의 인준을 받아 출범한 단체이다.⁴⁹ 초대 지부장은 공주교육대학교 안중호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화 분과에 김순기·백인현·최기성 등 7명이 참여했고 서양화 분과에 김영목·유순식·임영우 등 8명, 조소 분과에 김윤집, 공예분과에 안중호 등 4개 분과를 합해 총 18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창립 직후 1981년 10월 《제27회 백제문화제 기념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창립전》을 공주문화원 화랑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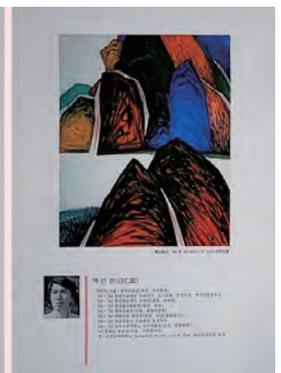
《제2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은 1982년 10월 공주신용협동조합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1988년에는 한국미협 서산지부와 연합해 《서산미술관개관기념 초대전》을 열었고, 1990년에는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를 개최했다. 한국미협 공주지부에서는 분야별로도 정기전을 개최해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술 실기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과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했다.⁵⁰ 한국미협 공주지부는 공주 미술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단체로, 2023년 6월에는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공주미술인의 100호 특별기획전》을 열기도 했다.⁵¹



《제11회 한국미협 공주지부전》(1991) 도록 표지 및 내지(강신철의 작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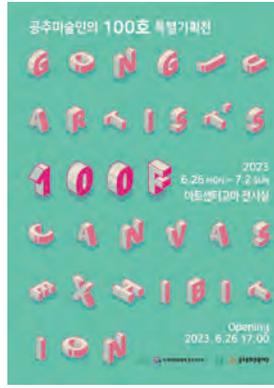
《제14회 한국미협 공주지부전》(1994) 도록 표지 및 내지(백인현의 작품작)



⁴⁹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www.grandculture.net/gongju/toc/GC01701760?search=G1/2>

⁵⁰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연구 최종보고서』(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2023), p. 40.

⁵¹ 「전문 미술인 39명 참여…藝鄉 공주 저력 과시」, 『특급뉴스』(2023. 6. 28).



《공주미술인의 100호 특별기획전》 전시 개최식 모습 및 포스터(출처: 『특급뉴스』, 2023. 6. 2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1. 9. 22.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인준	
1981. 10. 18~10. 25.	《제27회 백제문화제 기념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창립전》	공주문화원
1982. 9. 6~9. 12.	《제2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공주신용협동조합
1983. 10. 17~10. 25.	《제3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대전문화원
1985. 10. 19~10. 22.	《제5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공주문화원
1988. 2. 20~2. 27.	《서산미술관개관기념 초대전》	서산미술관
1990. 9. 20~	《한국미협 공주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전》	
1991. 6. 12~6. 16.	《제11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공주문예회관
1992. 6. 17~6. 21.	《제12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공주문예회관
1994. 4. 28~5. 5.	《제14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공주문예회관
2023. 6. 26~7. 2.	《공주미술인의 100호 특별기획전》	공주 아트센터고마
2023. 8. 28~9. 3.	《제43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	공주 민갤러리

42) 화촌회(畵村會, 1981~현재)

화촌회는 1981년 12월 24일 서산의 커피숍(숲속의 빈티)에 모여 결성한 미술인 단체로, 1982년 5월 서산문화원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⁵² '그림 그리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화촌회는 창립 당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자"라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⁵³ 창립한 해 12월 두 번째 전시를 열었고, 이후 해마다 정기전을 개최했다. 미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작가가 참여해 매월 사생회를 열었다. 1990년대 초에는 서산과 태안 두 곳에서 순회전을 개최했으며, 1995년에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해안'이라는 주제로 풍경화를 중심으로 전시를 개최했다. 화촌회는 1983년 한국미협 서산지부가 창립하기 이전 서산에서 결성된 단체로 한국미협 서산지부 창립의 원동력이 된 미술단체이다.⁵⁴



《제15회 화촌전》(1995) 도록 및 내지(나용환 · 이수옥의 출품작)



《제41회 화촌전》(2020) 포스터 및 전시장 모습
(출처: 『서산시대』, 2020. 5. 12)



《제44회 화촌전》(2023)
(출처: 네이버블로그 '로사리아의 갤러리')

⁵² 「우리고장 문화예술인을 만나다 한국미협 한동철 서산시지부장」, 『서산시대』(2015. 7. 10).

⁵³ 「향백-고장문화의 현장을 찾아: 서산」, 『경향신문』(1982. 12. 18).

⁵⁴ 「제41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려」, 『서산시대』(2020. 5. 1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1. 12. 24.	창립	서산 커피숍 숲속의 빈터
	《화촌회 창립전》	서산문화원
1982. 5. 29~6. 5.	권오철, 김병구, 김영천, 박정섭, 엄익록, 유설영, 이수옥, 이순희, 이종일, 장우의, 정진복, 정철국, 정환호, 한동철, 한형규 등 참여	
1982. 11. 27~12. 5.	《제2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3. 10. 21~10. 28.	《제3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4. 6. 2~6. 8.	《제4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5. 9. 14~9. 20.	《제5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6. 10. 18~10. 24.	《제6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7. 11. 14~11. 20.	《제7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8. 9. 30~10. 5.	《제8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89. 10. 14~10. 17.	《제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90. 8. 20~8. 25.	《제10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1991. 10. 26~11. 9.	《제11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태안문화원
1992. 10. 31~11. 13.	《제12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태안문화원
1993. 10. 22~10. 28./ 1993. 11. 5~11. 11.	《제13회 화촌전》	서산문화원/ 태안문화원
1995. 10. 21~11. 3.	《제15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 태안신용협동조합
2015. 5. 20~5. 24.	《제36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
2020. 5. 11~5. 17.	《제41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
2021. 6. 5~6. 11.	《제42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
2023. 5. 4~5. 10.	《제44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

43) 도원회(陶園會, 1982~현재)

도원회는 1982년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도자공예 전공 재학생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창립전은 1982년 10월 대전동양백화점 화랑에서 열렸으며 출품작가는 21명이었다.⁵⁵

2012년에는 황용식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한 전시와 함께,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제31회 도원회전》을 가졌다.⁵⁶ 2020년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0 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담기(談記): 이야기를 쓰다”라는 주제로 《제39회 도원회전》을 개최했다. 2021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40회 도원회전》을 ‘Beyond’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열었는데, 39명의 작가가 참여해 150여 점을 출품했다.⁵⁷ 도원회는 현재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전시를 개최해왔으며 중·장년의 졸업생 회원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도예단체다.



《도원회 창립전》(1982) 도록 표지(출처: 『대전미술 들-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2. 10. 18~10. 24.	《도원회 창립전》	대전동양백화점 화랑
	권용란, 김수겸, 이순호, 이윤자, 이재희, 주현숙, 김봉남, 김주양, 여종영, 지은희, 진남영, 김경숙, 김연동, 김원석, 김종남, 신영미, 신상돈, 이선숙, 이인순, 이은희, 유애숙, 한수정 등 참여	
1989. ?~9. 9.	《제7회 도원회전》	대전문화원
1996. 10. 1~10. 7.	《제15회 도원회전》	대전 갤러리섬
2001. 9. 13~9. 20.	《제20회 도원회전》	목원대학교 학술정보관
2012. 6. 20~6. 26.	《제31회 도원회전》	대전서구문화원
2022. 5. 24~5. 30	《제41회 도원회전》	대전서구문화원

⁵⁵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okwon.ac.kr/ceramic/html/sub05/0504.html>

⁵⁶ 황용식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985년 목원대학교에 부임해 후학을 양성했고 1991년 대전도예가회를 창립을 주도 하기도 했다. 2013년까지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⁵⁷ 「목원대, 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전 'Beyond」, 『충청뉴스』(2021. 8. 9).

44) 목원조각회(1982~?)

목원조각회는 1982년 목원대학교 조각 전공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단체로 해마다 정기전을 개최했다. 그러나 2008년 《제27회 목원조각회전》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후 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목원조각회전》 창립전 홍보물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2. 12. 23~12. 27.	《창립 목원조각회전》 김규성, 이진자, 신현진, 임선빈, 강승진, 양충모, 차상권 참여	대전시민회관
1995. 5. 14~5. 17.	《제14회 목원조각회전》	대전중구문화원
2000. 10. 28~11. 1.	《제19회 목원조각회전》	대전 한림갤러리

45) 미로회(1982~현재)

1982년 창립한 미로회는 배재대학교 작가들의 모임으로, 미술대학 설립 이후 결성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이다. 창립 당시에는 한국화와 서양화 분야 작가 모두 참여했고 창립전은 1982년 3월 대전문화원에서 개최했다. 1987년 이후 한국화 작가들이 배연회를 만들며 분리되어 서양화 작가 단체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7회 미로회 표현과 상징전》(1987) 도록 표지 및 내지(김기권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2. 3.	《제1회 미로회 창립전》	대전문화원
1983. 6.	《제2회 미로회전》	대전문화원
1984. 6.	《제3회 미로회전》/《제4회 미로회전》	대전문화원/ 배재대학 전시관
1985. 5.	《제5회 미로회전》	대전문화원
1986. 6.	《제6회 미로회전》	대전시민회관
1987. 5.	《제7회 미로회 표현과 상징전》	대전시민회관
1988. 6.	《제8회 미로회 표현과 상징전》	대전시민회관
1989. 10.	《제9회 미로회 빛과 색채전》	대전시민회관
1990. 6.	《제10회 미로회 빛과 색채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1. 6.	《제11회 미로회 삶의 정신전》	대전문화원
1992. 10.	《제12회 미로회 한쪽지평을 트이게하는 동시전》	대전문화원
1993. 11.	《제13회 미로회전》	대전 문화사랑
1994. 8. 25~8. 31.	《제14회 미로회전》	대전 현대화랑
2012. 7. 12~7. 18.	《제31회 미로회전》	대전 이공갤러리
2020. 11. 5~11. 11.	《미로회전 공존-MIRO》	대전 이공갤러리

46) 일청회(一淸會, 1982~현재)

일청회는 1982년 기산(箕山) 정명희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화 작가 단체이다. 정명희의 또 다른 호인 일청(一淸)으로 단체 이름을 만들었다. 대전·충남 출신 작가로 구성된 일청회 회원은 1970~90년대까지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 출강한 정명희의 제자가 주축이 되었다. 매년 정기전을 가지며 충남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전통 미술의 조형적 실험과 새로운 표현 형식을 연구하는 장이었다.⁵⁸

두 번째 전시는 도자기에 그린 그림을 모아 《도화전(陶畵展)》을 열었으며, 1987년과 1988년에는 한 해에 두 번을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대전 오원화랑에서 《제15회 일청회전》 연 후, 서울 백악미술관으로 옮겨 《제16회 일청회전》을 열었다. 일청회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미감을 배양하고 작가 간의 개성적 창작 활동을 통해 회원간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한 단체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13회 일청회전》(1991) 도록 표지 및 내지(정명희의 출품작)



《제35회 일청회전》(2010) 전시장 영아트갤러리 모습
(출처: 네이버 카페 '영아트갤러리' 홈페이지)



《제35회 일청회전》(2012) 포스터
(출처: 네이버 카페 '영아트갤러리' 홈페이지)

⁵⁸ 「일청회 초대전 대전 한국화 작가작품 한자리」, 『중도일보』(2007. 5. 2).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2. 10. 4~10. 9.	《제1회 일청회전》	대전시민회관
1983. 4. 25~5. 4.	《도화전(陶畵展)》	대전 근대화랑
1984. 9. 3~9. 9.	《제3회 일청회전》	대전시민회관
1984. 9. 1~9. 7.	《제4회 일청회전》	대전 신신화랑
1985. 11. 1~11. 7.	《제5회 일청회전》	대전 현대화랑
1986. 10. 18~10. 24.	《제6회 일청회전》	대전시민회관
1987. 2. 23~3. ?.	《제7회 일청회 소품전》	대전 예가화랑
1987. 9. 12~9. 18.	《제8회 일청회전》	대전 MBC문화공간
	조상열, 정명희, 정황래, 주호영, 홍승현, 김남오, 김희순, 이기호, 이진복, 강구철, 전대일, 황선도, 김기곤 등 참여	
1988. 2. 29~3. 12.	《제9회 일청회 소품전》	대전 예가화랑
1988. 10. 16~10. 22.	《제10회 일청회전》	대전시민회관
1989. 9. 23~9. 28.	《제11회 일청회전》	대전 현대화랑
1990. 12. 13~12. 17.	《제12회 일청회전》	대전시민회관
1991. 12. 4~12. 9.	《제13회 일청회전》	대전문화원
1992. 12. 6~12. 11.	《제14회 일청회전》	대전문화원
1993. 8. 1~8. 7.	《제15회 일청회전》	대전 오원화랑
1993. 8. 19~8. 25.	《제16회 일청회전》	서울 백악미술관
1994. 9. 5~9. 10.	《제17회 일청회전》	대전문화원
1995. 7. 12~7. 17.	《제18회 일청회전》	대전 한림갤러리
2010. 6. 16~6. 22.	《제32회 일청회전》	대전 영갤러리
2012. 6. 6~6. 19.	《제37회 일청회전》	대전 영아트갤러리

47) 학동인회(1982~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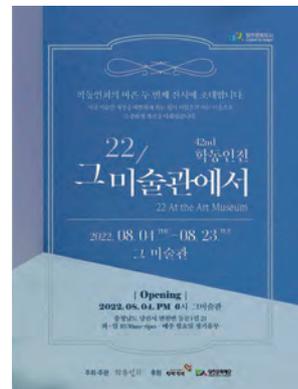
학동인회는 1982년 창립된 당진시의 미술인 모임이다. 초·중·고 미술 교사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창립된 당진 지역 최초의 미술단체로, 매년 정기 작품전과 학생미술 실기대회를 열어 지역의 미술 문화발전에 이바지해 왔다.⁵⁹ 창립전은 당진과 합덕 두 곳에서 순회전시로 열렸다.⁶⁰ 1990년부터 정기전을 상록문화제 기간에 개최해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참여하다가 2016년부터 별도의 기간에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현대미술 작가회 초청으로 교류전을 가졌으며, 2009년에 광양 현대미술 작가회 회원을 초대해 당진문화원에서 교류전을 개최했다. 2008년에 한국 미술 협회 당진 지부가 창립되면서 해체 위기가 있었으나, 작가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야외스케치 행사를 통해 창작한 작품을 모아 야외스케치전을 열기도 했다.

2022년 제42회 전시는 당진문화진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 그미술관에서”라는 제목으로 ‘면천읍성 안 그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⁶¹ 2023년 제43회 학동인회 전시는 작가 18명의 참여로 풀빛갤러리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렸다.⁶²



《제16회 학동인전》(1996) 도록 표지 및 내지(장철식·정태궁의 출품작)



《제42회 학동인전》(2022) 포스터

⁵⁹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9662&cid=60111&categoryId=60136>

⁶⁰ 『학동인전 창립 10주년 기념전』(학동인회, 1992).

⁶¹ 당진시 공식 블로그 ‘당진당진’ 참조. <https://blog.naver.com/dangjin2030/222854836777>

⁶² 「43번째 학동인회 정기전 개최」, 『당진시대』(2023. 10. 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2. 11. 1~11. 6(당진). 11. 8~11. 14(합덕).	《학동인 창립전》	당진/ 합덕
1984. 12. 6~12. 22.	《제2회 학동인전》	당진
1985. 12. 6~12. 22.	《제3회 학동인전》	당진
1986. 11. 22~11. 26.	《제4회 학동인전》	당진/ 합덕
1987. 12. 14~12. 29.	《제5회 학동인전》	당진
1988. 11. 26~11. 30.	《제6회 학동인전》	당진
1989. 12. 20~12. 25.	《제7회 학동인전》	당진
1990. 9. 15~9. 22.	《제8회 학동인전》	당진신탁전시실
1990. 9. 22.	상록문화제 학생미술잔치 개최	당진
1991. 9. 14~9. 19.	《제9회 학동인전》	당진
1991. 9. 23.	상록문화제 학생미술잔치 개최	당진
1992. 4. 5~4. 30.	《제10회 학동인전》	서산 서인사랑
1992. 9. 24~9. 28.	《제11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동인전》	당진신탁전시실
1992. 9. 25.	상록문화제 학생미술잔치 개최	당진
1993. 9. 21~9. 25.	《제12회 학동인전》	당진신탁전시실
1994. 9. 28~10. 2.	《제13회 학동인전》	당진 수선화 공간
1995. 7. 4~7. 10.	《제14회 학동인전(미술의 해 기념전)》	당진 수선화 공간
1995. 9. 30~10. 6.	《제15회 학동인전》	당진 수선화 공간
1996. 9. 20~9. 25.	《제16회 학동인전》	당진 수선화 공간/ 합덕 대건신탁
	김정숙, 김영숙, 문현수, 박기술, 손화동, 신현수, 양종숙, 이경숙, 이제일, 이종호, 최평곤, 임성실, 최진규, 장애경, 한석순, 정동월, 허덕무, 지완화, 송인강 등 참여	
2018. 12. 23~12. 29.	《학동인회 야외스케치전》	당진 다원갤러리
2021. 12. 3~12. 8.	《제40회 학동인전: 학동인회 40주년 특별기획》	당진문예의전당
2022. 8. 4~8. 23.	《제42회 학동인전: 22 그미술관에서》	면천읍성안 그 미술관
2023. 10. 2~10. 30.	《제43회 학동인전》	당진 풀빛갤러리

48) 충남한국화협회(충남한국화회, 1983~현재)

충남한국화협회는 1983년 6월 11일 발기인 총회를 하고, 11월 대전 신신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 당시 협회장은 조평휘, 부회장은 정명희가 맡았다.⁶³ 창립 다음 해에는 2월과 7월 세미나를 열었으며, 10월에 충남구상작가협회와 연합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86년에는 제4회 전시를 충남구상작가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해 《아름다운 금강전》이라는 제목으로 연합전을 열었다. 그해 말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술세계사와 경인미술관 기획 초대전인 《충남작가전》에 참여했다.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충남한국화협회’와 ‘대전한국화회’로 분리되었고, 1991년부터 ‘충남한국화회’로 개칭해 전시를 치렀다.⁶⁴ 1993년 창립 10주년 기념 《제9회 충남한국화회 회원전》은 공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995년 제11회 전시는 특별기획으로 마련되어 공주·천안·서산 세 곳에서 부채그림전이 열렸다. 1998년 제14회 전시부터는 다시 창립 때 사용한 ‘충남한국화협회’로 단체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⁶⁵ 2004년 《창립 20주년 기념전》은 “한국화와 전통 민예품의 만남전”이라는 제목으로 작가들마다 재해석한 세시풍속과 관련한 전통 민예품의 모티브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했다.⁶⁶ 2022년에는 《국제청년문화예술전》과 더불어 기획되었는데, 충남문화재단 후원으로 민갤러리에서 ‘국제청년문화교류 한국화 도자기체험’ 행사를 열었다.



《창립 충남한국화협회전》(1983) 전시 도록 표지



《제2회 충남한국화협회전》(1984) 전시 도록 내지(조평휘·최기성의 출품작)

63 『창립 충남한국화협회전』(충남한국화협회,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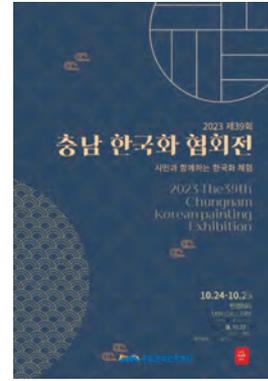
64 『충남한국화회 전시이력』, 『제8회 충남한국화회전』(충남한국화회, 1992).

65 『제14회 충남한국화회전』(충남한국화협회, 1998).

66 『충남한국화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화와 전통 민예품의 만남전』(공주문예회관, 2004).



《제38회 충남한국화협회전》(2022) 전시장 모습
(출처: 아트허브 홈페이지)



《제39회 충남한국화협회전》
(2023) 포스터(출처: 아트허브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3. 11. 7~11. 12.	《창립 충남한국화협회전》	대전 신신화랑
	강선정, 강신철, 김석기, 김세원, 김순기, 남영자, 박주영, 백인현, 어윤섭, 이석구, 이영래, 이재호, 정명희, 조평휘, 최기성, 허진권, 홍성표 등 참여	
1984. 2. 27.	현대 한국화의 동향에 관한 세미나	공주 동학사
1984. 4. 1~4. 30.	《공간사랑 초대 기획전》	대전 공간사랑
1984. 7.	하계 세미나 및 스케치	경기도 고성정, 수락산
1984. 10. 18~10. 24.	《제2회 충남한국화협회전》	대전 신신화랑
1985. 4. 1~4. 30.	《공간사랑 초대 소품전》	대전 공간사랑
1985. 11. 1~11. 7.	《제3회 충남한국화협회전》	대전시민회관
1986. 3. 7~3. 13.	《미술세계사·경인미술관 기획 초대 “충남작가전”》	서울 경인미술관
1986. 9. 6~9. 12.	《제4회 충남한국화협회전》	대전문화원
1987. 8. 29~9. 4.	《제5회 충남한국화협회전》	대전문화원
1987. 9. 24~9. 30.	《대전문화방송 기획 “아름다운 금강전”》	대전 MBC문화공간
1988. 9. 29~10. 4.	《제6회 충남한국화협회전》	대전문화원
1989. 1.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충남한국화협회, 대전한국화회 분리	
1991. 8. 11.	충남한국화회로 개칭	
1992. 9. 30~10. 4.	《제8회 충남한국화협회전》	공주문예회관
1995. 7. 19~7. 24/ 7. 26~7. 31/ 8. 2~8. 14.	《한국부채그림전: 제11회 충남한국화협회전》	공주문예회관/ 천안시민회관/ 서산 서인화랑
2004. 10. 6~10. 12.	《충남한국화협회 창립20주년 기념: 한국화와 전통 민예품의 만남전》	공주문예회관
2022. 9. 25~10. 1	《제38회 충남한국화협회전》	공주 민갤러리

49) 한국미협 서산지부(1983~현재)

한국미협 서산지부는 1983년 7월 16일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서산에서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⁶⁷ 창립 당시 지부장은 정칠곡이 맡았으며 창립전은 그해 9월 서산문화원에서 열렸다. 창립 이후 시민들의 미술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했고 지역교류 및 미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1988년에는 한국미협 서산지부와 연합해 《서산미술관개관기념 초대전》을 열었고, 서산미술협회 정기전, 아름다운 서산아트페어, 서산예술제 미술협회전, 충남미협지회전, 안전미술대전, 충남미술대전, 전국작가초대전 등 지역 미술 행사와 전국 미술 행사에 참여하며 서산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3년 제43회 전시는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서양화·한국화·서예·수채화·공예·조각 등 각 분야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 60여 점을 선보였다.⁶⁸



《제14회 한국미협 서산지부 및 향토작가전》(1994) 도록 표지 및 내지(임재광의 출품작)

《제17회 미협회원전》(1997)도록 표지 및 내지(나용환의 출품작)

⁶⁷ 한국예총 서산지회 홈페이지 참조. <https://blog.naver.com/as6671305/222774347148>

⁶⁸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 다채로운 작품 60여 점 전시」, 『충남도민신문』(2023. 6. 25).



《제28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2008) 전시장 모습
(출처: 『서산타임즈』, 2008. 11. 10)



《2020 전국작가초대 서산미술협회 40주년 기념전》
포스터(출처: 네이버 블로그 '디지털문화뉴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3. 7. 16.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 창립	
1983. 9. 3~9. 7.	《한국미협 서산지부 창립전》	서산문화원
1986. 11. 15~11. 19.	《제5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문화원
1988. 2. 20.	《서산미술관 개관기념 초대전》	서산미술관
1988. 9. 10.	《안견탄신 570주년기념 안견미술제 개최겸 제56회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1990. 10. 27~11. 1.	《향토작가초대전 및 제9회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전》	서산시문화회관
1991 .4. 30~5. 5.	《제2회 시민의 날 기념 제10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시문화회관
1991. 11. 30~12. 5.	《서산신희 문화공간 개관기념: 제11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신희종합 문화공간
1992. 5. 4~5. 9.	《제12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및 향토작가초대전》	서산시문화회관
1994. 4. 30~5. 5.	《제14회 한국미협 서산지부 및 향토작가전》	서산시문화회관
1997. 10. 11~10. 15.	《제17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시문화회관
2008. 11. 10~11. 13.	《제27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시문화회관
2011. 8. 26~8. 30.	《제31회 한국미협 서산지부전》	서산시문화회관
2020. 6. 8~6. 19.	《2020 희망모색: 한국미협 예산지부 & 서산지부 교류전》	예산군청
2020. 11. 14~11. 20.	《서산미술협회 40주년 기념전》	서산시문화회관
2022. 4. 23~4. 29.	《제42회 서산미술협회전》	서산시문화회관
2023. 6. 24~6. 30.	《제43회 서산미술협회전》	서산시문화회관

50) 대전실험작가회(1984~1986)

1984년 1월 1일 창립한 대전실험작가회는 실험미술을 추구한 단체이다. 창립전은 1984년 6월 대전 반도화랑에서 개최되었고 11명의 회원과 명예회원 5명이 참여했다. 대전 실험작가회는 실험적 창작 활동을 통해 참신하고 신선한 미술을 전개하고자 했으며, 회원의 친목 도모를 창립 목적으로 제시했다.⁶⁹ 두 번째 전시는 1985년 1월 대전 신신화랑에서 열렸으며, 전시 마지막날 홍명섭을 초청해 ‘현대미술 속의 관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회원 대부분은 대전’78세대와 금강현대미술제, 야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장르, 평면에서의 방법적 실험, 실내외에서의 설치, 몸을 통한 행위 등을 총체적으로 조합하는 실험 미술을 추구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의 활동이었지만 매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대전실험작가회는 점차 결속력이 약해져 3회 전시 이후 해체되었다.



《제3회 대전실험작가회전》(1986) 포스터(출처: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200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4. 6. 9~6. 17.	《제1회 대전실험작가회전》 고현희, 김인숙, 김정명, 나경자, 복종순, 안치인, 이두한, 이정훈, 이재우, 송일영, 조수행 참여(명예회원: 김영배, 권영우, 박명규, 유병호, 신동주)	대전 반도화랑
1984. 8. 15~8. 16.	야외작업	공주 금강
1984. 10. 6~10. 12.	《금일의 상황전》	대전 반도화랑
1985. 6. 1~6. 6.	《제2회 대전실험작가회전》	대전 신신화랑
1985. 8. 2~8. 4.	야외작업	공주 우성
1986. 6. 21~6. 26.	《제3회 대전실험작가회전》	대전시민회관
1986. 6. 27~7. 2.	《대전실험작가회 · 난지도 연합전》	대전시민회관
1986. 12. 28~12. 29.	야외작업	대전 신찬진 강변

⁶⁹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171.

51) 벽·바닥, 그리고 의식(1984~1995)

벽·바닥 그리고 의식은 1984년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모임이다. 평면적인 작품에서 탈피해 다양한 창작 방식을 활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1984년 2월에 열린 창립전에서 5명의 작가가 모두 합해 2,500여 호 크기에 이르는 평면과 입체작업을 대전시민회관에서 선보였다. 5명이 전시에 참여하다가 1990년 제6회전부터 12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이후 1995년까지 1987년, 198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1995년 이후 해체되었다.



《제6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1990) 도록 표지 및 내지



《제9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1994) 도록 내지(이응우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4. 2. 25~2. 29.	《벽·바닥, 그리고 의식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이경우, 이동구, 이응우, 이종관, 임재광 참여	
1984. 11. 14~11. 17.	《제2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현대미술 가을展》	대전 반도화랑
1985. 2. 24~2. 28.	《제3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대전시민회관
1986. 12. 24~12. 30.	《제4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서울 관훈미술관
1989. 9. 29~10. 5.	《제5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서울 나우갤러리
1990. 8. 5~8. 11.	《제6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대전문화원
1991. 2. 27~3. 5.	《제7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서울 청남미술관
1992. 7. 6~7. 12./ 1992. 7. 15~7. 31.	《제8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청주예술회관/ 서산 서인사랑
1994. 12. 10~12. 19.	《제9회 벽·바닥, 그리고 의식》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5. 1. 4~1. 16.		서산 서인사랑

52) 충남판화협회(대전판화가협회, 1984~현재)

충남판화협회(현 대전판화가협회)는 1984년 대전에서 6명의 작가(유병호·정장직, 정길호·홍용선·김진·백철)가 모여 창립한 판화가 단체이다. 창립전은 6월 대전 반도화랑에서 열렸으며, 창립 당시 회장은 홍용선이 맡았다.⁷⁰ 1987년에는 지역 판화가 단체와 연합해 광주에서 《판화의 새물결전》을 열었다. 충남판화협회는 1989년 대전판화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대전판화가협회로 다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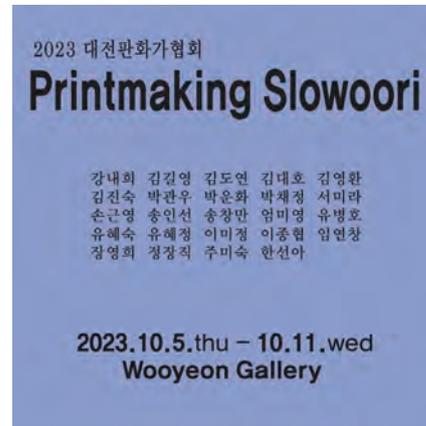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면서 1993년 《IAGA국제판화제-대전EXPO기념전》(한밭도서관)을 열었고, 1999년 《BOOK-PRINTMAKING전》(이공갤러리)에서는 판화를 책으로도 제작했는데, 이때 제작한 책자는 책장을 넘기듯이 판화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⁷¹ 2003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기획전으로 개최된 《대전판화의 오늘전》에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⁷² 2013년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주·부산·울산·광주·전북·충북 판화가협회와 연합해 《전국판화가협회교류전》을 대전 우연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창립 후 40년간 꾸준히 활동해 온 대전판화가협회는 2023년 전시에 2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충남판화협회전》(1984) 창립전 도록 표지



《제17회 전북현대판화미술제》(2023) 포스터(출처: 네이버 블로그 '재단법인 청목미술관')



《대전판화가협회전》(2023) 전시 홍보물(출처: 네이버 블로그 '보행자')

⁷⁰ 『충남판화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 1984).

⁷¹ 「판화 작품이 책으로 나왔네」, 『중도일보』(1999. 11. 29).

⁷² 「[미술관이 말을 건다](27) '복제시대의 판화미학-Edition'展을 계기로 (4) 대전 대구 광주의 판화」, 『경남연합일보』(2008. 6. 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4. 6. 2~6. 8.	《충남판화협회 창립전》	대전 반도화랑
	김진, 김치중, 김형근, 백승철, 백철, 장시웅, 정길호, 정장직, 홍용선, 황종범 등 참여	
1984. 9.	《제2회 충남판화협회전》	대전 반도화랑
1985. 6.	《제3회 충남판화협회전》	대구 맥향화랑
1986. 6.	《제4회 충남판화협회전》	대전 계룡미술관
1987. 6.	《판화의 새로운 물결전: 광주, 대구, 부산 충남판화협회》	광주 화니백화점 미술관
1987. 6. 12~6. 18.	《제5회 충남판화협회전》	대전시민회관
1990. 7. 7~7. 13.	《대전판화협회전》	대전시민회관
1991. 7. 26~7. 31.	《대전판화협회전》	대전 현대화랑
1992. 7.	《제10회 대전판화협회전》	대전문화원
1994. 9. 29~10. 12.	《대전판화협회전》	대전 경암갤러리
1995. 10. ?~10. 22.	《95 판화의 새로운 단면전》	대전중구문화원
1999. 11. ?~12. 2.	《BOOK-PTINTMAKING전》	대전 이공갤러리
2000. 10. 20~11. 1.	《판화비전 2000》	대전중구문화원
2013. 10. 24~10. 30.	《대전판화가협회30주년기념 전국판화가협회교류전》	대전 우연갤러리
2017. 8. 10~8. 16	《대전판화가협회전》	대전 이공갤러리
2022. 9. 22~9. 28.	《전국판화가협회교류 대전현대판화미술제》	대전 우연갤러리
2023. 7. 11~7. 17.	《제17회 전북현대판화미술제》	전주 청목미술관
2023. 10. 5~10. 11.	《대전판화가협회전》	대전 우연갤러리

53) 창형회(創形會, 1985~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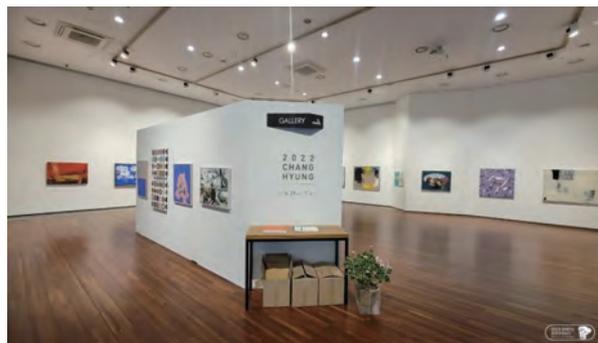
1985년 3월에 창립한 창형회는 대전 서양화 구상회화 작가의 모임이다. 단체명인 '창형(創形)'은 새로운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을 토대로 다양한 표현 형식을 표출하고자 한 작가들의 모임이다.⁷³ 창립 당시에는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작가들이 주축이 되었다. 창립전은 대전 반도화랑에서 열렸고 1986년에는 월간 미술세계와 경인미술관의 초대전인 《충남작가전》에 참여했다. 창형회는 창립 이후 매년 전시를 개최했는데, 1986년과 1995년에는 연 2회의 전시를 개최했다. 1996년에는 다른 지역 신진 구상작가들과 교류전을 가졌으며, 1997년에는 서울 서경갤러리와 대전 현대갤러리에서 순회전을 개최했다. 2005년 창립 20주년 때는 100호 작품 43점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12명을 초대해 특별전을 열었다. 회원 대부분이 각종 단체의 초대작가이며 매창립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정기전을 개최했고 여러 주제로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다.



《창형전기 기획 구상작가초대전》(1996) 도록 표지 및 내지(김동창의 출판자)



《제42회 창형전》(2019) 포스터(출처: 아트허브 홈페이지)



《제45회 창형전》(2022) 전시장 모습(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식 블로그)

⁷³ 『제15회 창형전』(창형회, 199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5. 3. 16~3. 22.	《창립 창형전》	대전 반도화랑
1986. 3. 7~3. 13.	《제2회 창형전: 월간 미술세계 초대 총남작가전》	서울 경인미술관
1986. 11. 15~11. 21.	《제3회 창형전》	대전 중앙갤러리
1987. 12. 14~12. 20.	《제4회 창형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8. 10. 28~11. 4.	《제5회 창형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9. 9. 29~10. 5.	《제6회 창형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0. 6. 23~6. 29.	《제7회 창형전》	대전 현대화랑
1991. 6. 9~6. 15.	《제8회 창형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2. 9. 17~9. 23.	《제9회 창형전》	대전 현대화랑
1993. 10. 27~11. 2.	《제10회 창형전》	대전 한신코아아트홀
1994. 9. 28~10. 3.	《제11회 창형전》	대전 한신코아아트홀
1995. 8. 15~8. 21.	《제12회 창형전》	대전 한림갤러리
1995. 12. 8~12. 13.	《제13회 창형전》	대전 오원화랑
1996. 9. 19~9. 25.	《제14회 창형전: 창형전기획 구상작가초대전》	대전 현대화랑
1997. 7. 16~7. 22.	《제15회 창형전》	서울 서경갤러리
1997. 10. 30~11. 5.	《제16회 창형전》	대전 현대화랑
1999. 6. 22~7. 1.	《제18회 창형전》	대전시립미술관
2001. 6. 26~7. 1.	《제20회 기념 창형특별기획전》	대전시립미술관
2006. 5. 25~5. 31.	《제42회 창형전》	대전 현대갤러리
2011. 12. 1~12. 14.	《제34회 창형전》	대전 모리스갤러리
2019. 4. 5~4. 30.	《제42회 창형전》	대전 레드엘갤러리
2022. 6. 29~7. 6.	《제45회 창형전》	대전 갤러리고트빈
2023. 6. 28~7. 4.	《제46회 창형전》	대전 갤러리고트빈

54) 충남수채화협회(대전수채화협회, 1985~현재)

충남수채화협회(현 대전수채화협회)는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수채화 작가가 모여 1985년 창립한 단체이다. 창립 당시 명칭인 충남수채화협회는 1989년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대전수채화협회로 개칭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창립전은 1985년 7월 대전 반도화랑에서 열렸으며, 수채화 장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탐구하고 회원 간 교류의 장으로서 매년 정기전을 개최했고 2023년 《제39회 대전수채화협회전》까지 치렀다. 현재 창립할 때부터 참여하고 있는 회원으로는 김배희, 이택우, 민동기 등이 있다. 현재 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수채화협회는 1990년 천안수채화협회라는 단체명으로 창립한 후, 1993년 충남수채화협회로 개칭했다.⁷⁴ 이에 따라 두 단체는 구성 회원과 활동 전시이력이 다른 단체이다.



《제37회전》(2021) 전사장과 회원들의 모습
(출처: 『충청데일리』, 2021. 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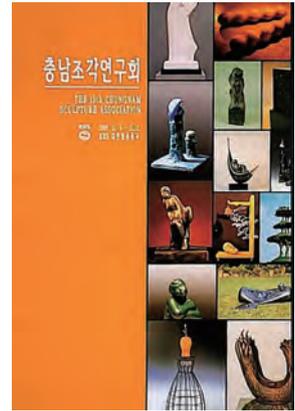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5. 7. 6~7. 12.	《충남수채화협회 창립전》	대전 반도화랑
	이택우, 김배희, 김철호, 김치중, 민동기, 임봉재, 정영복, 신현국, 허강 등 참여	
1999. 7. ?~7. 22.	《제15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 동양 타임월드갤러리
2010. 2. 25~3. 2.	《제26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시청
	《제32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시청
2016. 8. 4~8. 9.	강계순, 김배희, 김성희, 민동기, 민성동, 민영덕, 박일미, 백혜옥, 엄의숙, 이경선, 이택우, 이혜정, 임상중, 정동숙, 정미화, 하순복 등 참여	
2019. 3. 21~3. 26.	《제35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시청
2021. 5. 26~6. 1.	《제37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 MBC갤러리
2022. 7. 6~7. 12.	《제38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 갤러리고트빈
2023. 6. 21~6. 27.	《제39회 대전수채화협회전》	대전 갤러리고트빈

⁷⁴ 현재 충남수채화협회는 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창립한 천안수채화협회가 1993년 제4회 전시부터 충남수채화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수채화협회는 1985년을 창립 연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충남수채화협회는 천안수채화협회의 창립 연도인 1990년에 맞춰 정기전 회차를 정리하고 있다.

55) 충남조각연구회(1985~현재)

충남조각연구회는 충남대학교 조소 전공자들의 모임으로 1985년 5월 17일 창립했다. 창립 당시 재학생 예비회원을 포함했다가 7회 전시부터 졸업한 작가들만 회원으로 참여했다.⁷⁵ 창립전은 1986년 4월에 대전시민회관에서 개최했고 매년 정기전을 열었다. 1990년부터는 정기전 외에 야외조각전을 열기도 했다. 이 야외 조각전에는 대전·충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동참했다. 매년 다양한 작품 경향을 지닌 작가들이 참여해 시각예술과 미디어 분야를 비롯해 전통적인 구상, 비구상 입체 등의 다양한 작품이 정기전에 출품되었고 주제와 재료의 경계가 없는 참신한 작품들이 충남조각연구회 회원전을 통해 발표되었다.



《제13회 충남조각연구회전》
(1999) 도록 표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6. 4. 14~4. 20.	《충남조각연구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1988. 4. 4~4. 10.	《제3회 충남조각연구회 인체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0. 5. 1~5. 6.	《제5회 충남조각연구회전》	대전시민회관
1990. 9. 20~9. 30.	《충남대 야외조각전》	충남대 잔디광장
1992. 7. 9~7. 15.	《제7회 충남조각연구회 여름전》	대전 현대화랑
	김석우, 김현주, 김지삼, 김혜화, 노은미, 민장기, 박민규, 박천호, 석 현, 신혜경, 안의종, 윤황식, 이대일, 이범용, 임은미, 장한수, 최지환 등 참여	
1996. 5. 30~6. 5	《제10회 충남조각연구회전》	대전 오원화랑
1999. 11. 5~11. 12	《제13회 충남조각연구회전》	KBS대전방송총국
2011. 9. 29~10. 5	《제25회 충남조각연구회전》	대전 현대갤러리
2013. 10. 17~10. 23	《제27회 충남조각연구회전》	KBS대전방송총국
2015. 10. 7~10. 13	《제29회 충남조각연구회전 '마음으로 읽는 조각'》	KBS대전방송총국

⁷⁵ 남철, 「충남 조각연구회 "여름전"에 붙여」, 『제7회 충남조각연구회 여름전』(충남조각연구회, 1992).

56) 터Group(1985~1997)

터Group(터회)은 1985년 한남대학교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결집해 실험적 작품 경향을 보인 단체이다. 창립 당시 회장은 이순구가 맡았다. 터Group은 청년 미술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각 개인이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실험하고 전개하고자 결성했다.⁷⁶ 실내 전시 외에도 회원들이 야외현장미술단체인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와 ‘바깥미술회’의 야외 전시에 참여했다.

창립전은 1986년 3월 대전시민회관에서 개최했고 그해 12월 《자화상 테마전》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었다. 1987년 3월 《제2회 정기전》을 연 후 1988년 《제3회 정기전》부터는 충남대학교·목원대학교·배재대학교 등 충남의 여러 대학교 졸업생들이 합류해 서울 청년미술회관과 대전시민회관에서 순회전을 가졌다. 특히 1988년 8월 전라북도 진안군의 운일암 반일암에서 야외작업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Group은 1993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기전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며 활동하다가 1997년 대전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제10회 터Group 전》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제5회 터Group전》(1990) 전시 리플릿



《제9회 터Group전》(1996) 전시도록 표지

⁷⁶ 『한국 미술단체 자료집』(김달진미술연구소, 2013), p.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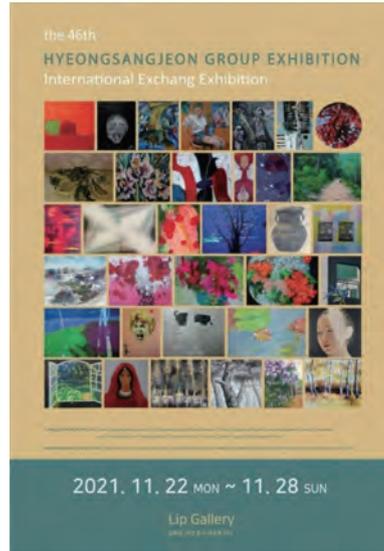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6. 3. 22~3. 28.	《터Group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1986. 12.	《자화상 테마전》	
1987. 3.	《제2회 터Group전》	대전시민회관
1988. 4~5.	《제3회 터Group전》	서울 청년미술관 / 대전시민회관
1989. 1.	야외작업	공주 갑사
1989. 4.	《제4회 터Group전》	대전시민회관
1989. 8.	야외작업	공주 공암
	《제5회 터Group전》	대전시민회관
1990. 7. 7~7. 13.	김용대, 김주영, 문창호, 박무국, 박종업, 박희옥, 심재구, 이동기, 이순구, 이준석, 이종록, 최장한 등 참여	
1991. 6.	《제6회 터Group전》	대전문화원
1992. 7. 25~7. 30.	《제7회 터Group전》	대전문화원
1993. 7.	야외작업	금산 제원면 원골
1994. 7.	《제8회 터Group전》	대전 한림갤러리
1996. 4. 20~4. 25.	《제9회 터Group전》	대전중구문화원
1997. 10.	《제10회 터Group전》	대전중구문화원

57) 형상전 (形象展, 1985~현재)

형상전은 구상·비구상을 아우르는 평면회화 작가 단체로, 1985년 3월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매년 정기전을 열었고 명예 회원제를 도입해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발표의 장을 제공했다.

창립 회원인 임립이 1997~2012년까지 회장을 맡았고 2002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해 전국단위 작가 공모전인 형상미술대전(TJB형상미술대전)을 만들어 해마다 시행했다. 이외에도 일본, 대만, 중국 등과 국제교류전을 개최했는데, 2021년에는 대전문화재단·대전광역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국제교류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형상전은 38년간 이어온 단체로, 현재 30여 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제46회 형상전-국제교류전》(2021) 전시 포스터(출처: 『충청매거진』, 2021. 11. 23).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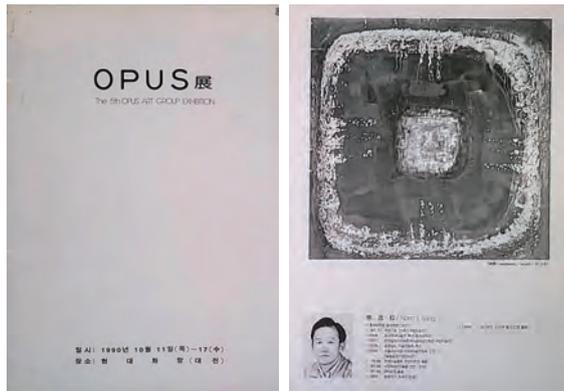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5. 3. 23~3. 29.	《제1회 형상전》	대전시민회관
	민동기, 손화동, 송인욱, 심웅택, 안재욱, 이광원, 임립, 임봉재, 정철곡, 조은진, 최경화 등 참여	
1987. 3. 14~3. 20.	《형상전》 ⁷⁷	대전 립화랑
1999. 11. 5~11. 11.	《제20회 형상전》	대전시립미술관
2002. 4. 28~5. 2.	《제1회 형상미술대전》	대전시민회관/대전중구문화원
2009. 11. 14~11. 23.	《제32회 형상전》	대전 립화랑
2011. 6. 4~7. 24.	《제34회 형상전》	공주 임립미술관
2021. 11. 22~11. 28.	《제46회 형상전-국제교류전》 ⁷⁸	대전 립화랑

⁷⁷ 『문화와 생활』, 『조선일보』(1987. 3. 17).

⁷⁸ 『제46회 형상전, 7개국 해외작가 작품 '한 자리에』, 『충청매거진』(2021. 11. 23).

58) OPUS(1986~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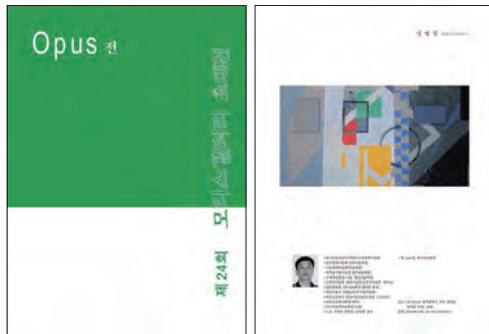
OPUS는 1986년 2월 창립된 추상회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모임이다. 출신 학교와 지역 연고를 떠나 대전에서 활동하던 20~30대 청년 작가의 모임으로 결성되었다. 단체명인 OPUS는 “제작, 저작, 작품”이라는 뜻의 음악 용어를 활용했다. 1986년 10월 쌍인화랑에서 창립전을 가졌고, 1995년 ‘미술의 해’를 맞아 OPUS는 창립 10주년 기념전을 기획해 서울과 대전에서 순회 전시를 열었다. 2009년 《제24회 OPUS전》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시를 개최했으며, 2019년 《제33회 OPUS전》에서는 전시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제5회 OPUS전》(1990) 도록 표지 및 내지(남일송의 작품작)



《제11회 OPUS전》(1996) 도록 표지 및 내지(남일송·박종하의 작품작)



《제24회 OPUS전》(2009) 도록 표지 및 내지(신일영의 작품작)



《제33회 OPUS전: 사랑나눔캠페인 특별전시회》(2019) 전시 홍보 플래카드(출처: 『중도일보』, 2019. 12. 10)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6. 10. 14~10. 20.	《제1회 OPUS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7. 10. 14~10. 20/ 10. 22~10. 28.	《제2회 OPUS전》	서울 청년미술관 대전 중앙갤러리
1988. 12. 6~12. 12.	《제3회 OPUS전》	대전 쌍인미술관
1990. 10. 11~10. 17.	《제5회 OPUS전》	대전 현대화랑
	지치우, 남일송, 박봉춘, 유순식, 김철겸, 박관우, 박종화, 문정규, 정종현, 진창훈, 신영일 등 참여	
1995. 10. 11~10. 17/ 10. 21~10. 27.	《제10회 OPUS전》	서울 터갤러리 대전 창신 갤러리
1996. 10. 17~10. 23.	《제11회 OPUS전》	대전 현대화랑
2000. 11. 23~11. 29.	《제15회 OPUS전》	대전 현대화랑
2005. 11. 17~11. 23.	《제20회 OPUS전》	대전 우연갤러리
2009. 8. 22~9. 4.	《제24회 OPUS전》	대전 모리스갤러리
2013. 4. 26~4. 28.	《제28회 OPUS전》	대전평생학습관
2017. 11. 2~11. 8.	《제31회 OPUS전》	대전중구문화원
2019. 12. 3~12. 8.	《제33회 OPUS전: 사랑나눔캠페인 특별전시회》	대전예술가의집

59) 늘갈회(1987~현재)

늘갈회는 공주교육대학교 한국화 전공자들의 동문 모임이다.⁷⁹ 늘갈회 회원 대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정기전을 통해 연마한 기량을 선보였다. 정기전 외에 세미나와 야외스케치 등 여러 행사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는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작품 창작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야외스케치 행사와 정기 답사를 시행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수덕사·원산도·제부도 등에서 스케치 행사와 세미나를 열었으며 중국 답사를 통해 천진, 단둥, 집안, 백두산 지역 등 중국 일대를 답사하기도 했다. 1988년부터는 늘갈회 내에서의 한국화 전공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3년마다 공주교육대학의 각 분야 동문 단체인 그릴회·충남조각회·창공예회와 연합해 《계룡만남전》을 열었다.⁸⁰ 중국 천진과 단둥 등에서 중국 작가들과 교류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작품 창작과 회원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0회 늘갈회전》(2007) 포스터(출처: 송계산방-백인현미술관 홈페이지)



《제21회 늘갈회전》(2008) 홍성문화원 전시장 모습 (출처: 송계산방-백인현미술관 홈페이지)



《제36회 늘갈회전》(2023) 전시 도록 표지 및 내지(출처: 송계산방-백인현미술관 홈페이지)

⁷⁹ 늘갈회의 2000년 이후 자료는 2022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정년으로 퇴임한 백인현 교수의 홈페이지에 아카이브로 정리되어 있어 늘갈회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늘갈회 관련 자료는 송계산방-백인현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s://100koreap.tistory.com/17440114>

⁸⁰ 《계룡만남전》은 1988년 8월 대전시민회관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7. 8. 30~9. 5.	《제1회 늘갈회전》	공주교육대학교
1988. 1. 5~1. 13.	동계 수련회	공주교육대학교
1988. 8. 15~8. 21.	《제2회 늘갈회전 및 계룡만남전》	대전시민회관
1988. 12. 27~12. 29.	동계 수련회	대전 대둔산
1989. 7. 28~7. 30.	하계 수련회	공주 마곡사
1989. 10. 5~10. 9.	《제3회 늘갈회전》	천안문화원
1991. 12. 23~12. 27.	《제4회 늘갈회전》	천안시민회관
1992. 12. 27~12. 30.	《제5회 늘갈회전》	천안문화원
1993. 12. 24~12. 28.	《제6회 늘갈회전》	공주문예회관
1994. 8. 13~8. 16.	《94 계룡만남전》	공주문예회관
1994. 12. 27~12. 30.	《제7회 늘갈회전》	천안문화원
2001. 8. 16~8. 17.	제14차 늘갈회 하계 세미나	대전성모초등학교
2007. 10. 27~11. 3.	《제20회 늘갈회전》	홍성문화원
2009. 8. 14~8. 20.	늘갈회 중국 특별전 및 백두산 문화답사	중국 단둥 WS예술화랑
2015. 8. 1~8. 8.	《제10회 계룡만남전》	공주교육대학교 일락갤러리
2018. 8. 1~8. 7.	《제11회 계룡만남전》	부여문화원
2023. 1. 7~1. 14.	《제36회 늘갈회전》	공주교육대학교 일락갤러리

60) 한국미협 온양지부(아산지부, 1987~현재)

한국미협 온양지부(현 한국미협 아산지부)는 온양과 아산에서 활동하던 서양화·한국화·공예·조각 등 여러 분야의 작가가 모여 1987년 6월 11일 한국미협 온양지부로 인준받아 창립한 단체이다.⁸¹ 한국미협 온양지부로 창립했다가 1989년 온양·아산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다가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시의 명칭이 아산시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단체명인 한국미협 아산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⁸² 아산에서는 1980년 1월 온양고등학교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온양미술동호인이 먼저 생겼고, 그 뒤 같은 해에 미술교사 중심으로 ‘아미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한국미협 소속 지부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창립 초기 《향토작가초대전》을 통해 온양·아산 출신 출향 작가의 작품전을 개최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미협과의 교류전인 《삼도미술교류전》을 기획해 한국미협 남원지부, 구미지부와 연합해 지속적으로 전시를 열었다. 1989년부터는 ‘아산설화예술제’ 기간에 맞춰 정기전을 열었고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온양의 지역 축제를 풍성하게 했다. 2023년에는 전국규모 공모전인 《대한민국 온궁미술대전》을 기획해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특별 전시를 열기도 했다.⁸³ 한국미협 온양·아산지부는 지역 미술계의 발전 및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2회 향토작가 초대전》(1989) 도록 표지



《제28회 한국미협 아산지부 회원전》(2013) 전시장 모습(출처: 『온양신문』, 2013. 11. 18)

⁸¹ 『충남미술사』(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1995), p. 262.

⁸² 1995년 개최된 《제10회 한국미협 온양지부 회원전》은 온양지부로 치렀고, 아산시와 온양구 통합 이후 한국미협 아산지부로 개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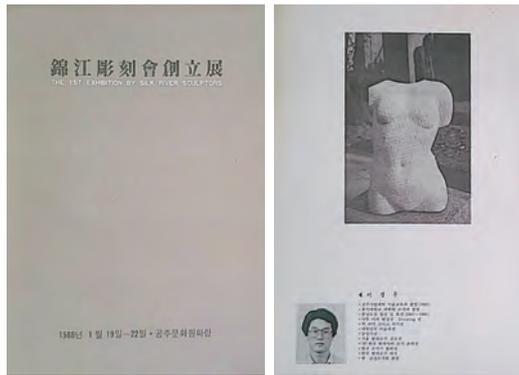
⁸³ 「제1회 대한민국 온궁미술대전 전국공모실시, 만18세 이상 누구나」, 『온양신문』(2013. 4. 15).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7. 5. 4~5. 10.	《제1회 한국미협 온양지부 창립전》 김대순, 김미경, 김지희, 김희남, 나길수, 박내후, 박종근, 박종애, 서예식, 손화동, 윤홍섭, 이만우, 전문수, 최광숙, 차은희, 최원락, 홍성표, 홍승규 등 참여	온양 프라자쇼핑
1987. 10.	《제2회 한국미협 온양지부전》	온양 프라자쇼핑
1988. 4. 26~4. 30.	《제1회 향토작가 초대전》	온양 고려당
1988. 5. 7~5. 18.	《제1회 한국미협 온양·천안지부 회원작품 교류전》	천안문화원/ 온양 고려당
1988. 9. 10.	제1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주최	아산고등학교
1988. 10. 10~10. 14.	《제2회 향토작가 초대전》	동서증권 온양지점
1988. 10. 26~10. 31.	《제3회 한국미협 온양지부전》	온양 프라자쇼핑
1989. 10. 23~10. 27.	《제4회 한국미협 온양·아산 지부전》	동서증권 온양지점
1990. 10. 26~10. 30.	《제5회 한국미협 온양·아산 지부전》	온양농협
1991. 10. 25~10. 29.	《제6회 한국미협 온양·아산 지부전》	온양 공산빌딩
1992. 10. 24~10. 30.	《제7회 한국미협 온양·아산 지부전》	온양관광호텔
1993. 10. 19~10. 25.	《제8회 한국미협 온양·아산 지부전》	도고 글로리 콘도
1995. 10. 23~10. 28.	《제10회 한국미협 온양지부 회원전》	온양중앙감리교회
1996. 10. 28~11. 1.	《제5회 3도 미술교류전》	온양 아카데미예식장
2007. 11. 9~11. 19.	《제18회 한국미협 아산지부 회원전》	아산갤러리
2013. 7. 1~7. 7.	《제1회 대한민국 온공미술대전》	아산시평생학습관
2013. 11. 15~11. 21.	《제28회 한국미협 아산지부 회원전》	아산시평생학습관
2016. 1. 6~1. 15.	《AAF/2015(ASAN ART FAIR/2015)》	아산 온양박물관 구정아트센터
2016. 6. 24~6. 30.	《제31회 한국미협 아산지부 회원전》	아산여성회관
2023. 10. 13~10. 15.	《제34회 설화예술제: 제38회 한국미협 아산지부 정기전》	아산시문화재단

61) 금강조각회(錦江彫刻會, 1988~현재)

금강조각회는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조소 전공 작가들의 동문 모임이다. 1988년 1월 공주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다.⁸⁴ 창립 당시 회장은 이은상이 맡았다. 금강조각회는 전통 조각에서부터 자유로운 실험적 탐색을 시도한 조각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선보이며, 공주사범대학 동문 모임에서 한 발 나아가 최근에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들까지 함께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해마다 정기전을 이어가며 충남 조각 분야의 전문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형성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서산 서해미술관에서 《제16회 금강조각회전》을 개최한 바 있다.



《금강조각회 창립전》(1988) 도록 표지 및 내지(이경우의 출품작)



공주문화원에서 개최된 《금강조각회 창립전》(1988) 모습 (출처: 공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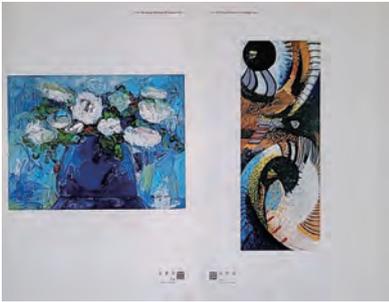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1. 19~1. 22.	《금강조각회 창립전》	공주문화원
	강성준, 김용수, 김종범, 김현주, 류장걸, 박영환, 오부손, 윤진수, 이경우, 이은상, 정해승, 김동주, 송인강, 정동원 등 참여	
1992. 11. 8~11. 15.	《92 금강조각회전》	공주문예회관
1993. 11. 28~12. 4.	《93 금강조각회전》	공주문예회관
2006	《제13회 금강조각회전》	공주문예회관
2020. 12. 2~12. 8.	《금강조각회전》	공주 갤러리쉬갈
2022. 8. 1~8. 13.	《제16회 금강조각회전》	서산 서해미술관

⁸⁴ 『금강조각회 창립전』(금강조각회, 1988).

62) 다시각(多視角, 1988~현재)

다시각은 1988년 목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선·후배 여성 작가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1988년 6월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한 이후 매년 정기전을 열었다.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면 회화를 통해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각 표현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제5회 다시각전》은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열었으며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⁸⁵



《제10회 다시각전》(1997) 도록 내지
(염운선, 오연경의 출품작)



《제32회 다시각전》(2021) 포스터 및 전시장 모습
(출처: 대전MBC 유튜브)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6. 2~6. 6.	《제1회 다시각전》	대전시민회관
1991	《제5회 다시각전》	서울 백악미술관
1997. 5. 30~6. 5.	《제10회 다시각전》	대전문화원
2007. 6. 2~6. 12.	《제27회 다시각전》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021. 12. 15~12. 21.	《제32회 다시각전》	대전 갤러리M
2022. 3. 24~3. 29.	《제33회 다시각전》	대전시청

⁸⁵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다시각전 회원전시회」, 『중도일보』(2016. 6. 1).

63) 묵가와신조형체(墨家와新造形體, 1988~현재)

묵가와신조형체는 1988년 충남대학교 회화과 동양화전공 교수와 졸업생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1982년 충남대학교에 미술학과가 개설된 후 '충남한국화연구회'를 결성했던 것이 이 동문전으로 이어졌다. 1988년 5월 《신세대 묵채전》이라는 전시명으로 대전 MBC문화공간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⁸⁶ 창립 후 《한국화 청년세대전》, 《'90 한국화 새흐름전》, 《'91 한국화 신조명전》 등의 전시명으로 해마다 전시를 개최하다가 1995년 제5회 전시부터 '묵가와신조형체'라는 단체명으로 바꾸었고 현재까지 이 단체명을 사용해 전시를 열고 있다. 2017년 30주년 기념 전시는 입지(立志), 즉 뜻을 세우는 시간인 30년을 보냈다고 해서 '이립화(而立花)'라는 전시명으로 기념전을 개최했다.⁸⁷



《제7회 묵가와신조형체전》(1994) 도록 표지 및 내지(강규성의 작품작)



《제10회 묵가와신조형체전》(1997) 도록 내지(홍푸르메의 작품작) 및 뒷표지



《제14회 묵가와신조형체전》(2001) 도록 표지 및 내지(강규성·권영찬의 작품작)

⁸⁶ 『제10회 묵가와신조형체전』(묵가와신조형체, 1997).

⁸⁷ 「(공연전시) 而立花(이립화)-묵가와신조형체 30주년 기념전, 『중도일보』(2017. 9. 7).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5. 11~5. 16.	《제1회 신세대 목채전》	대전 MBC문화공간
1989. 6. 17~6. 21.	《제2회 한국화 청년세대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0. 5. 4~5. 8.	《제3회 '90 한국화 새흐름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1. 5. 10~5. 15.	《제4회 '91 한국화 신조명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2. 5. 9~5. 14.	《제5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3. 5. 3~5. 8.	《제6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 삼성갤러리
1994. 5. 29~6. 3.	《제7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시민회관
	강규성, 김경희, 김진수, 문홍근, 배성희, 서은주, 서진석, 신나영, 유영순, 이성아, 이의성, 이정아, 이정미, 이재우, 이학천, 조규영, 주영애, 최선화 등 참여	
1995. 4. 29~5. 5.	《제8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시민회관
1996. 3. 30~4. 5.	《제9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시민회관
1997. 6. 5~6. 11.	《제10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시민회관
1998. 6. 5~6. 11.	《제11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시민회관
2017. 9. 7~9. 13.	《而立花(이립화)-목가와신조형체 30주년기념전》	대전 보다아트센터
2021. 9. 6~9. 12.	《제34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 갤러리유성
2023. 10. 18~10. 24.	《제36회 목가와신조형체전》	대전 갤러리고트빈

64) 배연회(1988~?)

배연회는 1988년 배재대학교 한국화 분야 작가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1982년 배재대학교 작가들의 모임으로 창립한 미로회에서 활동하던 중 미로회에서 한국화 분야가 분리되면서 배연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다.⁸⁸ 대전에 거주하는 한국화 작가를 중심으로, 지역 미술발전을 도모하고 작가 간 교류와 작품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운영되었다. 2008년 대전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모여 대전 롯데화랑에서 13개 그룹 연합 소품전을 열었을 때 참여했다.



《제2회 배연전》(1989) 전시 도록 표지 및 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10. 21~10. 27.	《제1회 배연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9. 10. 23~10. 27.	《제2회 배연전》	대전문화원
2002. 5. 31~6. 6.	《제14회 배연전》	대전시민회관
2003. 8. 7~8. 13.	《제15회 배연전》	대전 한림갤러리
2008. 1. ?~1. 9.	《그룹연합 소품전》	대전 롯데화랑

⁸⁸ 배연회는 2009년까지 대전 이공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한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65) 아귀-토(土) 조각회(1988~?)

아귀-토(土) 조각회는 1988년에 창립한 한남대학교 출신 조각 작가 단체로, 11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에서 9명의 작가가 모여 《8778 조각전》이라는 제목으로 창립전을 열었다. 이후 1992년 두 번째 전시를 열 때 《아귀-토(土) 조각전》으로 개칭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귀-토는 기와집 처마의 수키와 끝에 바르는 석회와 화강석이 섞인 황토를 의미한다.⁸⁹ 초기에는 한남대학교 출신 작가의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각가들이 합류하면서 출신 학교와 무관하게 회원이 구성되었다.



《8778 조각전》(1988) 창립전 홍보물(출처: 『대전미술 들-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11. 6~11. 19.	《8778 조각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
	전미정, 임재현, 이상수, 이진우, 송경숙, 심혜경, 박종오, 기우찌 거주야, 김성용 등 참여	
1999. 9. 29~10. 5.	《아귀-토(土) 조각회전》	대전 오원화랑
2003. 10. 8~10. 12.	《제9회 아귀-토(土) 조각회전》	대전 화폐박물관
2006. 11. 1~11. 12.	《제12회 아귀-토(土) 조각회전》	대전 화폐박물관

⁸⁹ 「조폐공, 제12회 아귀-토(土) 조각회전」, 『뉴스스』(2006.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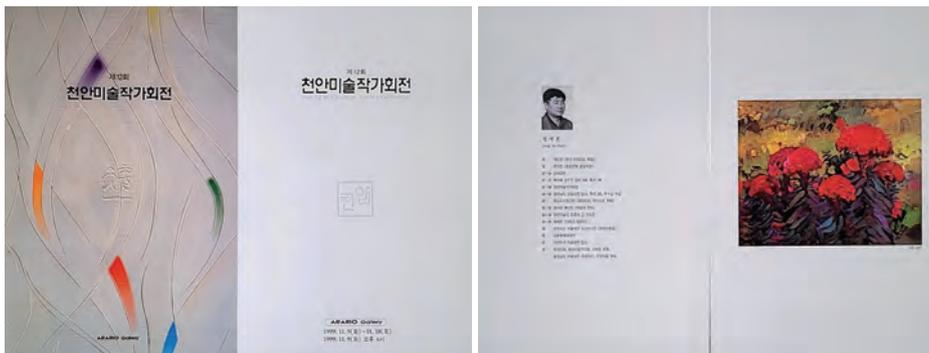
66) 천안미술인회(천안미술작가회, 1988~?)

천안미술인회(천안미술작가회)는 1988년 천안에서 활동하는 미술인이 모여 창립한 단체이다. 1988년 5월 천안 출신 11명의 작가가 모여 발기인 총회를 열었고 조각가 민종식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 창립을 선언했다. 창립 당시 단체명은 '천안미술인회'였으나 1989년 8월 '천안미술작가회'로 개칭했다.⁹⁰

매년 정기전 및 특별기획전, 미술대회 등을 개최했고, 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천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및 해외작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천안을 비롯한 대천·속리산·대야산·학암포·왜목마을 등에서 여름과 겨울 두 번의 스케치 전시회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1월에 중국을 답사해 현지 풍물과 비경을 담은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중국기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제18회 전시를 열기도 했다.⁹¹ 2008년 9월 제21회 전시회는 부산광역시 영도 해양 문화공간에서 개최했고,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열어 천안 미술의 위상 제고에 힘쓰다가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었다.



《제5회 천안미술작가회전》(1992) 도록 표지 및 내지(김영천의 작품작)



《제12회 천안미술작가회전》(1999) 도록 표지 및 내지(정세훈의 작품작)

⁹⁰ 『제5회 천안미술작가회전』(천안미술작가회, 1992).

⁹¹ 『천안미술작가회 중국기행전』, 『중도일보』(2005. 5. 16).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9. 12.	《천안미술인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김영천, 김재선, 류의열, 민종식, 박문선, 박선옥, 박인희, 도영돈, 이용희, 인영선, 정세훈, 현남주 등 참여	
1989. 11.	《제2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시민회관
1990. 5.	《제3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1. 8. 20~8. 21.	여름 스케치	태안 몽산포
1991. 11.	《제4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2. 1. 23~1. 24.	겨울 스케치	청송 주왕산
1992. 8.	여름 스케치	대전
1992. 11. 9~11. 15.	《제5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3. 11. 26~12. 2.	《제6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4. 11. 1~11. 7.	《제7회 천안미술작가회전: 100호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5. 11.	《제8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1996. 9.	《제9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문화원
1997	《제10회 천안사랑전》	
1998. 12.	《제11회 천안미술작가회전》	
1999. 11. 9~11. 18.	《제12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 아라리오갤러리
2005. 5. 9~5. 18.	《제18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중국기행전》	천안시민회관

67) 한국미협 논산지부(1988~현재)

한국미협 논산지부는 1988년 1월 창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1989년 창립한 단체이다.⁹² 1988년 2월 7일 김희직이 초대 지부장으로 취임했으며 10월 13일 한국미술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지부 인준을 받았다. 1989년 12월 논산 태림상가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이후 1989년과 1990년에는 한국미협 공주지부와 연합전을 열었다. 1995년에는 '95 미술의 해' 기념 회원전을 개최했다. 1996년부터 '논산 딸기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논산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미술 실기대회를 주최하고 있고 1998년 제1회 청소년 어울마당 미술공모전을 시행했다. 2005년 이후 일본 작가와의 교류전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 향토작가전을 별도로 열고 있다. 또한 매년 연말 정기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다.



《제32회 한국미협 논산지부 정기전》(2019) 전시장 모습
(출처: 논산시 공식 블로그)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12. 17~12. 22.	한국미협 논산지부 창립전	논산 태림상가
1990. 11. 10~11. 16.	《제3회 한국미협 논산지부전》	논산 화지산문화공간
	강성열, 김경애, 김오수, 김용대, 김유순, 김희직, 박갑순, 박종진, 박창순, 박현선, 범진우, 손수연, 송신호, 송차섭, 양길석, 유병선, 윤금중, 윤석지, 윤후근, 이경옥, 이병문, 이응우, 이정웅, 임희중, 장분남, 진병천, 최승하, 황선모 등	
1992. 10. 24~10. 30.	《제5회 한국미협 논산지부전》	논산 화지산문화공간
1993. 12. 11~12. 17.	《제6회 한국미협 논산지부전》	논산 놀미금고
1997. 11. 29~12. 5.	《한국미협 논산지부전: 창립 10주년 기념》	논산 화지산문화공간
2015. 10. 24~10. 28.	《제28회 한국미협 논산지부전》	논산문화예술회관
2017. 7. 1~7. 6.	《제7회 한국미협 논산지부 향토작가전》	백제군사박물관
2019. 11. 9~11. 13.	《제32회 한국미협 논산지부 정기전》	논산문화원

⁹² 디지털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www.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2466?search=G1/1>

68) 한국미협 부여지부(1988~현재)

한국미협 부여지부는 1988년 5월 부여군민회관과 논산박산부인과 전시실 두 곳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 회장은 정찬국이 맡았다. 창립 후 1990년 《제3회 회원전》은 ‘백제문화제 기념 초대전’의 일환으로 부여군청에서 열렸는데, 1976년부터 부여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술가 단체인 아사달회와 연합해 《제11회 향토미전》으로 개최되었다.⁹³ 현대미술 특강, 향토미전 지원, 학생 미술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미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여러 행사를 진행했고, 1991년부터 구드레미술제를 주최했다.

1999년 세계적 조각가들을 초청해 부여 구드레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제1회 부여국제현대조각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2005년에는 부여 출신 출향 작가들의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작품 등 총 41점을 모아 국립부여박물관 전시실에서 《제15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을 개최했다. 또한 2016년 《아시아국제미술교류전》을 주관하는 등 부여의 미술 문화 외교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2020년에는 부여군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우리동네 미술-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사업이 선정되어 부여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미협 부여지부창립전》(1988)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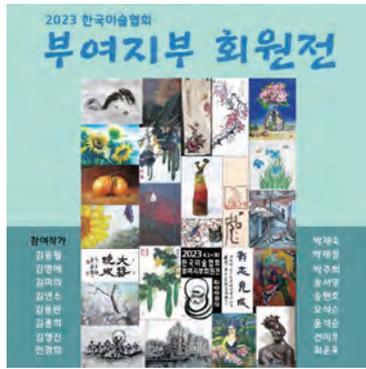


《제11회 향토미전: 제3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1990) 도록



《제1회 부여국제현대조각 심포지움》(1999) 포스터(출처: 정찬국 작가 제공)

⁹³ 아사달회는 1976년 4월 19일 창립한 단체로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 이전부터 부여의 미술인 모임으로 결성되었고 창립 당시 회장은 임여우가 맡았다. 『충남미술사』(사단법인 한국미협총회 충남지부, 1995), p. 287.



《2023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포스터 및 전시장 모습(출처: 『대한일보』, 2022. 9. 1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8. 5. 7~5. 21.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전》	부여군민회관(부여)/ 논산박산부인파(논산)
1990. 9. 25~9. 29.	《제11회 향토미전: 제3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군청
	고한일, 배장희, 구정우, 백보현, 권경태, 상성규, 김경한, 송용희, 김경희, 신운선, 김기창, 신현태, 김봉희, 이건순, 김용남, 이봉현, 김은숙, 이우규, 김익규, 이영우, 김정호, 이재경, 김호중, 임영우, 남상선, 임정화, 노기원, 정미경, 노남숙, 정진채, 류정옥, 정찬국, 박승수, 정창기, 박영복, 조용연, 박춘화, 조현진	
1991. 5. 11~5. 16.	《제4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군민회관
1992. 10. 1~10. 4.	《제38회 백제문화제 향토미전: 제5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군청
1995. 12. 23~12. 30.	《'95 향토작가 초대전: 제8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군민회관
1997. 12. 26~12. 31.	《제10회 '97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청소년수련원
1999. 4. 16~5. 15.	《제1회 부여국제현대조각 심포지움》	부여 구드래조각공원
2005. 11. 14~12. 11.	《제15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국립부여박물관
2016. 9. 25~9. 30.	《제9회 아시아국제미술교류전》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2022. 9. 7~9. 21.	《제32회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 부소갤러리
2023. 4. 1~4. 30.	《2023 한국미협 부여지부전》	부여 금강문화관

69) 대전조각가협회(1989~현재)

대전조각가협회는 1989년 10월 대전에서 활동하던 조각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대전조각가협회 이전 1985년에 결성되었던 단체로 '대전현대조각회'가 있었고, 대전현대조각회는 1985년 남철이 회장을 맡고 황교영, 최국병, 김원중, 김석우, 김영대, 신현진, 양희태, 임선빈, 장준문이 참여해 대전 현대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 전시가 열리지 못했고, 4년 뒤인 1989년에 대전조각가협회가 발족했다. 이 대전조각가협회 회장은 앞서 대전현대조각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남철이 그대로 맡았고 대전현대조각회의 창립 회원이던 최국병·김원중·김석우·신현진 등의 작가도 참여했다.

1998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대전조각의 오늘》 특별전을 열었고 신진작가에게 개인전 개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청년조각가상'을 제정해 첫 수상자로 김영석을 선정했다.⁹⁴ 창립 20주년 때는 대전조각가협회 갤러리(대전 DSA갤러리)를 개관해 '핑크해머'라는 제목으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대전조각가협회는 매해 전시를 열며 전국환경조각대전, 대전엑스포조각대전 등의 특별전을 개최했고, 대전·충남의 대표적인 조각가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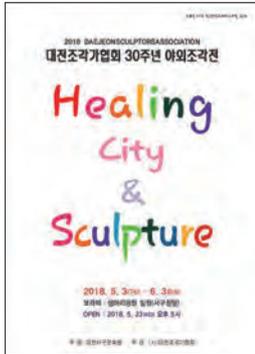


《전국환경조각대전》(1994) 전시도록 표지 및 내지(유영교·윤영자의 출품작)

94 「제1회 대전 청년조각가상 김영석씨」, 『중도일보』(1998.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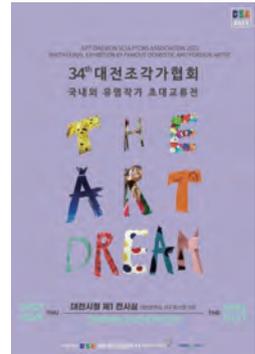
《대전조각의 오늘》(1998) 전시도록 표지 및 내지(남철·노재석의 출품작)



《대전조각가협회 30주년 야외 조각전》(2018) 포스터



《제33회 대전조각가협회전》(2021) 전시장 모습(출처: 『충청매거진』, 10. 8)



《제34회 대전조각가협회전》 포스터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10. 10~10. 19.	《대전조각가협회 창립전》	대전미술관
1994. 10. 28~11. 11.	《전국환경조각대전》	서대전 광장
1996. 9. 9~9. 14.	《제8회 대전조각가협회전》	대전중구문화원
1998. 9. 1~9. 18.	《대전조각의 오늘》	대전시립미술관
2006. 6. 8~6. 14.	《제18회 대전조각가협회전》	대전 현대갤러리
2008. 5. 20~5. 25.	《DSA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핑크해머》	대전 DSA갤러리
2018. 5. 3~6. 3.	《대전조각가협회 30주년 야외조각전》	대전 보라매·샘머리공원
2019. 11. 4~11. 20.	《제31회 대전조각가협회전: 전북조각가협회·해외조각가 초대교류전》	KBS대전방송충국
2022. 10. 6~10. 11.	《제34회 대전조각가협회전: 국내외 유명작가 초대교류전》	대전시청

70) 대전한국화회(1989~현재)

대전한국화회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한국화 작가들의 단체로,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충남한국화협회에서 분리된 단체이다. 창립 당시 회장은 조평희가 맡았으며 창립전은 2월 대전 MBC문화공간에서 열렸고 3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1990년에는 충남한국화협회, 대전구상작가회와 연합해 《아름다운 금강전》을 공동 개최했고, 1991년 《금강미술대전》이라는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이 출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1996년에는 대전·충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비롯해 대전·충남에서 출생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중원한국화 오늘의 상황전》을 기획해 충청 지역 전통 미술의 뿌리를 찾고자 했다. 2000년에는 중국 남경의 작가들과 교류전을 열기도 했다. 대전한국화회는 대전을 중심으로 정기전과 기획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전한국화회 창립전》(1989) 도록 표지 및 내지(조평희의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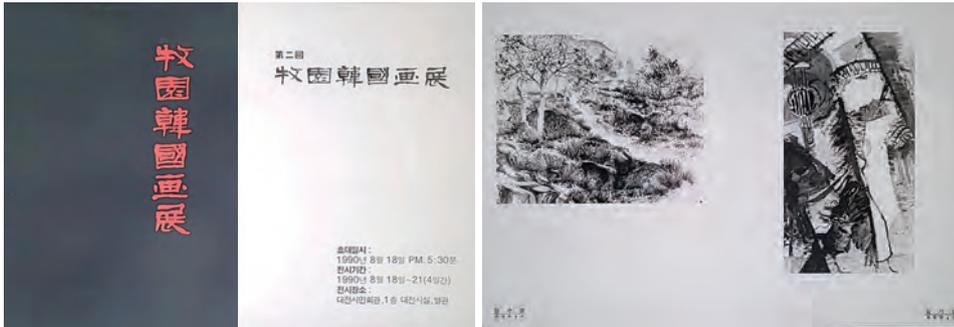
《제3회 대전한국화회전》(1991) 도록 표지 및 내지(강구철·허진권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2. 24~3. 1.	《대전한국화회 창립전》	대전 MBC문화공간
	강선정, 권경태, 김미라, 김세원, 김석기, 김성호, 김승렬, 김철규, 김현숙, 남영자, 박홍순, 배남호, 상성규, 성시복, 성장경, 송치동, 엄기환, 왕형렬, 윤여환, 이계길, 이민구, 이영래, 이장원, 이재호, 이해영, 전용덕, 정경철, 정명희, 정미현, 정황래, 조상렬, 조평휘, 최기성, 허진권, 황만영 등 참여	
1990. 6. 1~6. 7.	《제2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1. 5. 4~5. 9.	《제3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문화원
1992. 5. 1~5. 6.	《제4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문화원
1990. 9. 24~9. 30.	《제5회 아름다운 금강》	대전 MBC문화공간
1993. 6. 19~6. 24.	《제5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문화원
1994. 9. 11~9. 16.	《제6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문화원
1994. 11. 4~11. 10.	《오원화랑 초대전》	대전 오원화랑
1995. 5. 27~6. 2.	《미술의 해 기념: 향기와 맥전》	대전시민회관/ 공주문예회관
1995. 8. 25~9. 5.	《제7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 한림갤러리
1996. 4. 26~5. 1.	《중원한국화 오늘의 상황전》	대전시민회관
1996. 7. 2~7. 31.	《대전한국화회 부채전》	대전 21C갤러리
1996. 7. 4~7. 10.	《제8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 현대화랑
1998. 9. 26~9. 30.	《'98 대전 회화제》	대전 한림갤러리
2000. 5. 22~5. 27.	《대전·남경 서화교류전》	대전시민회관
2006. 10. 19~10. 25.	《제18회 대전한국화회전》	청주 현대아트센터
2015. 11. 12~11. 18.	《제27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 한국화 오늘과 내일의 탐구》	대전 우연갤러리
2019. 9. 19~9. 25.	《제31회 대전한국화회전》	대전 현대갤러리
2022. 7. 20~7. 26	《대전한국화회 여름특별전》	대전 MBC문화공간

71) 목원한국화회(1989~현재)

목원한국화회는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재학생 모임으로,⁹⁵ 1989년 9월 대전 현 대화랑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학생들이 공동발표의 장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졸업 후 한국 화단의 주역이 되어 문화발전의 역군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했다.⁹⁶ 창립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작품발표회를 열어 한국화 전공 대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교내 동아리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공모전과 전시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장 체험 사생회와 작업실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목원한국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통해 ‘종합과제전’ 형식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⁹⁷



〈제2회 목원한국화전〉(1990) 도록 표지 및 내지



〈목원한국화 페스티벌〉(2020) 포스터 및 전시장 모습(출처: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95 목원대학교에서는 1984년 회화과에 동양화전공이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작가를 배출했고, 이후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으로 전공명을 변경했다.

96 『제2회 목원한국화전』(대전한국화회, 1990).

97 목원대학교 미술학부(한국화 전공)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okwon.ac.kr/pnm/html/sub02/0201.html>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9. 8~9. 13.	《목원한국화회 창립전》	대전 현대화랑
	임재홍, 엄혜영, 박은난, 이정윤, 김동욱, 정태엽, 이형근, 전순선, 이기호, 최종철, 이용숙, 권선미, 박동구, 권혁필, 우승희, 이미령, 우이숙, 허경구, 이원호, 길준성, 전미정, 조은희, 김미정, 김성희, 장수경, 김기성, 김근애, 김정희, 오수홍, 최광선, 윤용섭, 오운세, 차상희, 박정아, 박영선, 김혜남, 김화영, 장현진 등 참여	
1990. 8. 18~8. 21.	《제2회 목원한국화전》	대전시민회관
1995. 9. 11~9. 14.	《제7회 목원한국화전》	대전 MBC문화공간
2008. 5. 15~5. 21.	《제20회 목원한국화전》	대전유성문화원
2014. 11. 27~12. 3.	《제26회 목원한국화전》	대전 현대갤러리
2015. 12. 1~12. 6.	《제27회 목원한국화전》	대전 예술가의집
2021. 11. 16~11. 22.	《2021 목원한국화 페스티벌》	목원대학교 대학미술관
2022. 11. 5~11. 21.	《2022 목원한국화 페스티벌》	목원대학교 대학미술관

72) 천안수채화협회(충남수채화협회, 1989~현재)

천안수채화협회(현 충남수채화협회)는 1989년 10월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1990년 7월 천안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다.⁹⁸ 창립 당시에는 천안수채화협회로 발족했다가 1993년 1월 제3차 정기총회에서 충남수채화협회로 개칭 후, 제4회 전시부터 현재까지 충남수채화협회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마다 전시를 통해 회원들의 작품 창작을 고취하고 워크숍 및 야외스케치,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했으며 다른 지역 수채화협회와의 교류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제9회 천안수채화협회전》(1998) 도록 표지 및 내지(변영환·황선익의 작품)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0. 6. 13~6. 19.	《천안수채화협회 창립전》	천안문화원
1991. 10. 4~10. 10.	《제2회 천안수채화협회전》	천안시민회관
	김정태, 박상국, 변영환, 손창유, 유창근, 이경호, 이동기, 이영순, 이호순, 한주섭 등 참여	
1993. 6. 19~6. 25.	《제4회 충남수채화협회전》	천안시민회관
1995. 6. 10~6. 13.	《제6회 충남수채화협회전》	천안시민회관
1998. 10. 19~10. 25.	《제9회 충남수채화협회전》	천안학생회관
2001. 11. 3~11. 9.	《제12회 충남수채화협회전》	천안문화원
2016. 6. 10~6. 19.	《충남수채화협회 초대 교류전 및 충청도 수채화협회전》	청주예술의전당
2016. 12. 1~12. 6.	《제27회 충남수채화협회 교류전》	천안시민여성문화회관
2023. 9. 1~9. 30.	《제34회 충남수채화협회전》	천안 리각미술관

⁹⁸ 『제9회 충남수채화협회전』(충남수채화협회, 1998).

73) 충남흑백사진연구회(1989~1997?)

충남흑백사진연구회는 흑백사진 연구와 회원간 사진 기술 교환을 목적으로 창립했다.⁹⁹ 1989년 4월 22일 창립총회를 열었고 창립 당시 회장은 조임환이 맡았다. 창립한 해 7월과 9월 일본인 강사(阿久澤實)를 초청해 흑백사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고, 1990년 3월 장항과 군산으로 합동 촬영회를 다녀온 후, 6월에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 회원전을 열었다. 창립전 때는 경인지역 사진가들과 연합전으로 기획해 흑백사진을 전시했다. 충남흑백사진연구회는 매년 정기전을 개최했으며 임양환·문상욱·박주석·정명오·한정식·최원진 등 전문 사진작가나 대학의 사진학 전공 교수를 초빙해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를 통해 흑백사진에 관해 연구하며 사라져가는 흑백사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충남흑백사진연구회는 1997년 이후 전시 이력이 전하지 않는다.



1989년 '제1회 학술강연회' 사진(출처: 『충남흑백사진연구회 창립전』, 충남흑백사진연구회, 1990).



《충남흑백사진연구회 창립전》(1990) 도록 내지(한상현·조임환의 출품작)



《제8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1997) 도록 표지 및 내지

99 『충남흑백사진연구회 창립전: 경인지역 흑백사진 초대전』(충남흑백사진연구회, 1990).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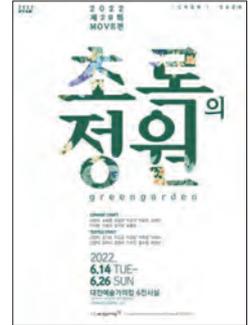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4. 22.	창립총회 개최	
1989. 7. 15.	제1회 학술강연회(강사: 阿久澤實)	
1989. 9. 9.	제2회 학술강연회(강사: 阿久澤實)	충남대학교
1990. 3. 11.	합동 촬영회	장항, 군산 일대
1990. 6. 2~6. 8.	《충남흑백사진연구회 창립전: 경인지역 흑백사진 초대전》	대전시민회관
1990. 11. 17.	제3회 학술강연회(강사: 임양환)	
1991. 6. 2.	《제2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및 한국흑백사진 초대전》	
1991. 10. 12.	제4회 학술강연회(강사: 阿久澤實)	
1992. 6. 7.	《제3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및 한국흑백사진 초대전》	
1993. 6. 20.	《제4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및 한국흑백사진 초대전》	
1994. 3. 26.	《제5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및 한국흑백사진 초대전》	
1994. 10. 21.	제8회 학술강연회(강사: 박주석)	
1994. 12. 21.	제9회 학술강연회(강사: 정명오)	
1995. 7. 26~7. 30.	《제6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1995. 11. 26.	제11회 학술강연회(강사: 한정식)	
1996. 3. 1~3. 7.	《제7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대전시민회관
	이종렬, 김창수, 홍양원, 문상욱, 윤준웅, 한경희, 조임환, 류정선, 이경우, 김형준, 최금화, 한정식, 구분창, 오상조, 권순평 등 참여	
1996. 12. 14.	제12회 학술강연회(강사: 최원진)	
1997. 7. 9~7. 13.	《제8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Black & White》	대전시민회관

74) MOVE(1989~현재)

MOVE는 1989년 4월에 창립한 충남대학교 산업미술학과 공예 전공자 모임이다.¹⁰⁰ 도자와 섬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구성된 단체이며, 현재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2020년 지소갤러리에서 열린 《제27회 MOVE전》에서는 자연소재를 이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실용적인 공예 전시를 보여주었다.¹⁰¹



《제27회 MOVE전》 포스터
(출처: 지소갤러리 홈페이지)



《제29회 MOVE전》 포스터
(출처: 네이버블로그 '타래공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89. 5. 15~5. 19.	《MOVE 창립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5. 9. 16~9. 23.	《제7회 MOVE전》	대전 교보갤러리
2020. 8. 10~8. 22.	《제27회 MOVE전》	대전 지소갤러리
2022. 6. 14~6. 26.	《제29회 MOVE전》	대전 예술가의집

¹⁰⁰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창의학과 도자·섬유 디자인전공 홈페이지. <http://cnc ceramics.net/>

¹⁰¹ 지소갤러리 홈페이지 《제27회 MOVE전》 전시홍보물 참조. <http://jiso.kr/move-mix-mint/>

75) 대전의숨결전(대전공예가협회, 1990~현재)

1990년 ‘대전외숨결전’이라는 단체전을 시작하며 결성된 모임이다.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개최했고, 1996년 ‘대전공예가협회’로 단체명을 변경했다.¹⁰² 매년 정기전을 통해 대전·충남의 공예 분야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금속·도자기·섬유·목칠·목공예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기법과 재료들로 완성한 공예 작품을 선보였다. 2019년에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대전공예-과거, 현재, 미래의 아카이브전’이라는 부제로 전시를 개최했다.¹⁰³ 2022년에는 대전문화재단의 중견예술인지원금을 받아 회원들이 제작한 작품 21점으로 《제32회 대전공예가협회전》을 열었다.



《제6회 대전외숨결전》(1995) 도록 표지 및 내지(강봉승의 출몰작)



《30주년 기념 대전공예가협회전》
(출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블로그)



《제31회 대전공예가협회전》 전시장 모습
(출처: 충청매거진, 2021. 6. 25)

¹⁰² 대전공예가협회와 관련한 여러 기사에는 1999년 단체명을 현재의 대전공예가협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제7회 대전외숨결전》 도록에 대전공예가협회라고 단체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한 해 전에 열렸던 1995년 전시에는 대전공예가협회라는 단체명을 쓰지 않았다가 다음 해인 1996에 단체명을 밝힌 것으로 보아 1999년 단체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1996년에 변경한 것으로 여겨진다. 단체명을 1996년 변경한 후 전시를 지속하다가 후에 전시 명칭을 ‘대전외숨결전’에서 ‘대전공예가협회전’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시명을 교체한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6회 대전의 숨결전』(갤러리 쉼, 1995); 『제7회 대전외숨결전』(대전공예가협회,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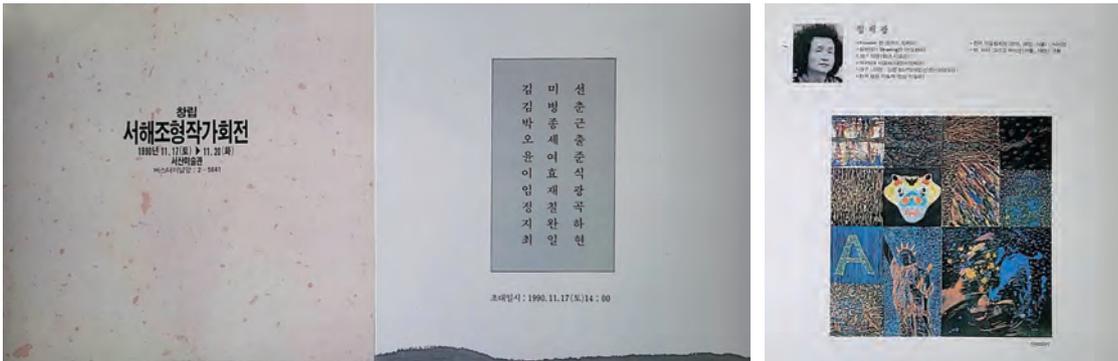
¹⁰³ 대전광역시 서구청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first_seogu/221574716196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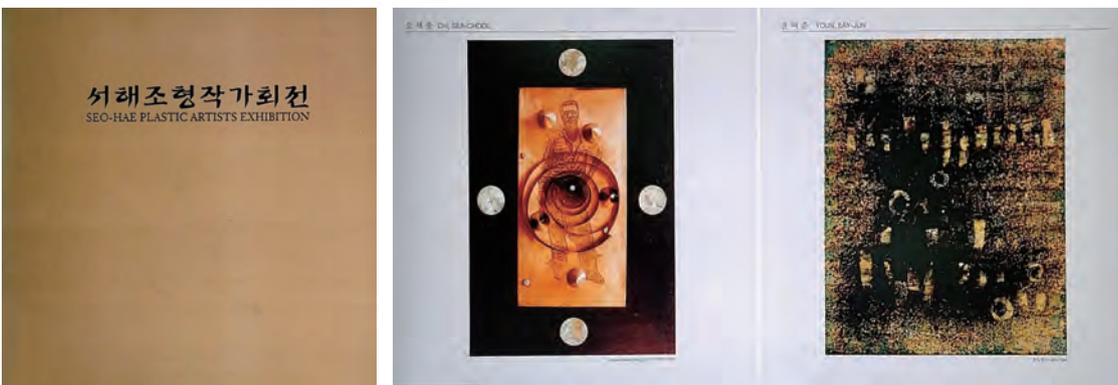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0	《창립 대전의숨결전》	대전문화원
	고창환, 남홍태, 박동교, 유경자, 이윤주, 이정순, 임미강, 임희숙, 최성재, 최영근 등 참여	
1991	《제2회 대전의숨결전》	대전 현대화랑
1992	《제3회 대전의숨결전》	대전 현대화랑/ 대전 하나사랑
1993	《제4회 대전의숨결전》	대전 한신코아아트홀
1994	《제5회 대전의숨결전》	
1995. 11. 6~11. 30.	《제6회 대전의숨결전》	갤러리 씬
1996. 12. 11~12. 17.	《제7회 대전의숨결전》	대전문화원
1999. 3. 12~3. 18.	《제9회 대전의숨결전》	대전 갤러리롯데
2012. 6. 21~6. 27.	《제23회 대전의숨결전》	대전중구문화원
2013. 4. 8~4. 17.	《제24회 대전공예가협회전: 공예에 미치다》	대전시립미술관
2016. 7. 28~8. 2.	《제27회 대전공예가협회전》	대전시청
2019. 6. 27~7. 2.	《30주년 기념 대전공예가협회전: 2019 대전공예-과거, 현재, 미래의 아카이브전》	대전시청
2021. 6. 24~6. 29.	《제31회 대전공예가협회전》	대전중구문화원
2022. 8. 4~8. 9.	《제32회 대전공예가협회전》	대전시청

76) 서해조형작가회(1990~2012)

서해조형작가회는 서산의 작가 모임으로, 1990년 11월 서산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전 도록 서문에 따르면, “문화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소외된 지역사회 문화에 조그만 파문이 되길 기대”하며 창립했다고 한다.¹⁰⁴ 창립전 운영위원은 임재광이 맡았으며, 초기에는 전업 작가 보다는 당진·서산·태안 일대에서 학교 교사나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등 미술교육을 맡고 있던 작가들이 주로 참여했다. 매년 정기전을 개최했으며 1991년에는 부여에서 열린 《구드래 야외미술제》에 동참하기도 했다.¹⁰⁵ 창립 후 23년간 활동한 서해조형작가회는 2012년 활동이 중단되었다.



《창립 서해조형작가회전》(1990) 도록 표지 및 내지(임재광의 작품작)



《서해조형작가회 제6회 정기전》(1995) 도록 표지 및 내지(오세출, 윤여준의 작품작)

¹⁰⁴ 『창립 서해조형작가회전』(서해조형작가회, 1990).

¹⁰⁵ 1991년에 개최된 《구드래 야외미술제》는 충청권의 조각가들과 공주의 ‘야투자연미술연구회’, 대전의 ‘터그룹’, ‘부산바다미술제’, ‘창원 설치미술비엔날레’, ‘아사달청년회’ 등 야외 미술그룹 작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치한 야외 미술 작업들을 선보인 미술제이다. 『91 구드래 야외미술제 열려』, 『매일경제』(1991. 12. 2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0. 11. 17~11. 20.	《창립 서해조형작가전》	서산미술관
	김미선, 김병춘, 박종근, 오세출, 윤여준, 이효식, 임재광, 정철곡, 지완하, 최일현 등 참여	
1991. 5. 31~6. 11./ 1991. 6. 5~6. 11.	《서해조형작가회 제2회 정기전》	서산문화원/ 태안문화원
1991. 11. 9~12. 9.	《서인사랑 개관 기념전》	서산 서인사랑
1991. 12. 23~12. 30.	《'91 구드래 야외미술제》	부여 구드래공원/ 백마강변
1994. 4.	미술 강좌: “야외 설치미술 중심으로 한 지역미술 운동” 개최	
1992. 6. 15~6. 30.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서산 서인사랑
1992. 11. 16~11. 30.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 서인사랑
1993. 6. 8~6. 30.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서산 서인사랑
1993. 11. 22~12. 19.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 서인사랑
1994. 6. 10~6. 17.	《서해조형작가회 여름 테마전》	서산 서인사랑
1994. 12. 5~12. 16.	《서해조형작가전》	서산 서인사랑
1995. 11. 27~12. 16.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당진 수선화공간/ 서산 서인사랑/ 태안신헌전시실
1996. 12. 4~12. 12.	《서해조형작가회 제7회 정기전》	서산문화회관
2004. 5. 14~5. 20.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서산문화회관

77) 한국미협 예산지부(1990~현재)

한국미협 예산지부는 1990년 한국미협 인준을 받아 창립한 단체로, 12월에 예산문화원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한국미협 예산지부 창립 이전 예산에서는 1979년 예산중등미술교사협회가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1984년 12월 예산미술협회로 개칭해 창립전을 열었고, 이 단체가 한국미협 예산지부로 이어졌다.¹⁰⁶ 청년미술제와 각종 학생 미술 공모전과 미술 대회를 주최했고 《향토작가초대전》 개최, 슬로시티 벽화 작업, 이종상 화백 등 원로 작가 초대전 개최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한국미협 예산지부 회원들이 예산 대흥슬로시티 마을 경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슬로시티 대흥을 알리는 벽화 그리기 사업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도 전시를 이어가며 서산지부 회원들과의 교류전을 열었고 2021년에는 아산지부와 교류전을 열었다. 2022년에는 제33회 정기전으로 《예산의 미술 계보를 잇다》를 기획해 예산미술의 역사를 조명하고 예산을 기반으로 활동한 미술가를 정리한 전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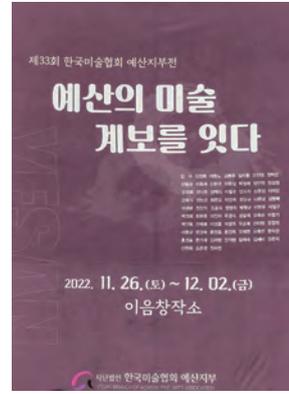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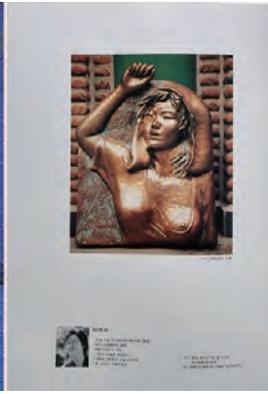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창립전》(1990) 도록 표지(출처: 이진자 작가 제공)



《제1회 향토작가 초대전》(1995) 도록 표지(출처: 이진자 작가 제공)

¹⁰⁶ 『예산의 미술 계보를 잇다』(사)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2022), p. 12.



《제7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1996) 도록 표지 및 내지(이진자의
출품작)

《예산의 미술 계보를 잇다》(2022)
전시 홍보물(출처: 이진자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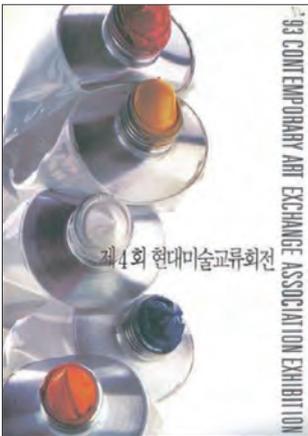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0. 12. 14~12. 19.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창립전》	예산문화원
	박정래, 송세영, 송정화, 안소자, 우재홍, 최혜정, 이경호, 이종록, 오순복, 전문수, 강성준, 나준남, 오부순, 이진자, 한윤희, 김기철, 김명배, 조은숙 등 참여	
1991. 10. 18~10. 23.	《제2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 농협
1992. 11. 4~11. 10.	《제3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1993. 6. 17.	제1회 미술 세미나(유재길 교수 초청)	
1993. 11. 29~12. 6.	《제4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1994. 10. 28~11. 6	《제5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신터미널
1995. 10. 16~10. 21.	《제1회 향토작가 초대전》	예산문화원
1995. 12. 15~12. 20.	《제6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1996. 6. 20.	미술 세미나(이중상 교수 초청)	예산문예회관
1996. 12. 3~12. 9.	《제7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1997. 10. 7~10. 12.	《제8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1998. 9. 5~9. 11.	《제6회 청년미술제 및 제9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1999. 10. 29~11. 3.	《제10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2000. 6. 12~6. 19.	《제1회 학생미술작품공모전》 개최(예산미술협회 주최)	
2000. 10. 28~11. 3.	《제11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2003. 10. 17~10. 24.	《제12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2005. 9. 26~10. 1.	《제14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문예회관
2020. 6. 8~6. 19.	《2020 희망모색》	예산군청
2021. 10. 16~10. 23.	《2021 예산군과 아산시가 함께하는 미술교류전》	예산군문예회관
2022. 11. 26~12. 2.	《제33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의 미술 계보를 잇다》	예산 이음창작소
2023. 11. 9~11. 14.	《제34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	예산 이음창작소

78) 현대미술교류회(대전현대미술협회, 1990~현재)

1990년 창립한 현대미술교류회(현 대전현대미술협회)는 다양한 표현 형식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모임이다. 평면에서 입체까지 작가의 개성과 표현 형식에 따라 다양한 작품 경향을 선보이며 대구·진주·부산 등지에서 정기전과 특별전을 가졌다.¹⁰⁷ 창립 초 대전에서 주로 활동하는 몇몇 작가들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각자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미술교류회를 만들었는데, 대전이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미술교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교류회가 확산되었다. 이후 현대미술교류회는 1998년 6월에 창립한 대전현대미술협회와 2009년 4월부터 하나의 단체로 합치면서 재조직되었다.¹⁰⁸ 대전·충남에서 활동하는 비구상·설치·실험미술 계열의 작가들이 주축이 된 대전현대미술협회는 학술세미나와 정기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대미술의 위상을 살피고 새로운 조형언어의 창출과 표현 형식의 다양성을 모색했다.

두 단체는 통합 후 1999년 4월 통합 기념 전시를 열었고, 12월에 한 차례 더 전시를 기획해 《대전현대미술교류협회전: 오마주&카타르시스》를 개최했다. 이렇게 ‘현대미술’이라는 공통분모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두 단체가 서로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단체로 뭉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제4회 현대미술교류회전》(1993) 도록 표지



《제5회 현대미술교류회전》(1994) 도록 표지



《제7회 현대미술교류회전》(1996) 도록 표지

¹⁰⁷ 『제7회 현대미술교류회전』(현대미술교류회, 1996).

¹⁰⁸ 「'시너지 날개' 대전미술 뭉친다」, 『중도일보』(2009. 12. 28).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0. 9. 10~9. 16.	《제1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대전문화원
1991. 7. 21~8. 1.	《제2회 현대미술교류회전》	전북예술회관
1992. 9. 15~9. 21.	《제3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대구문화예술회관
1993. 10. 21~10. 27.	《제4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부산문화원
1994. 10. 1~10. 6.	《제5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대전한밭도서관
1995. 10. 2~10. 7.	《제6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대전시민회관
1996. 12. 4~12. 10.	《제7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대전문화원
1997. 11. 6~11. 13.	《제8회 현대미술교류회전》	대전 타임월드갤러리
	강명자, 권현철, 김기반, 김영배, 김훈곤, 박상원, 박선영, 박인규, 박정인, 배진병, 손일성, 신동주, 신인철, 신중덕, 신현주, 오지현, 이갑재, 이경균, 이종협, 이주은, 임정연, 임혜영, 정규돈, 정장직, 주현태, 최태신 등 참여	
2002. 4. 27~5. 3.	《안면도 현대미술의 전환》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2009. 12. 19~1. 2.	《대전현대미술교류협회전: 오마주&카타르시스》	대전 모리스갤러리
2018. 11. 8~11. 14.	《대전현대미술특별전》	대전 우연갤러리
2019. 12. 8~12. 13.	《대전현대미술협회전》	대전 구석으로부터
2020. 11. 9~11. 14.	《익산-대전, 현대미술 교류전》	익산 W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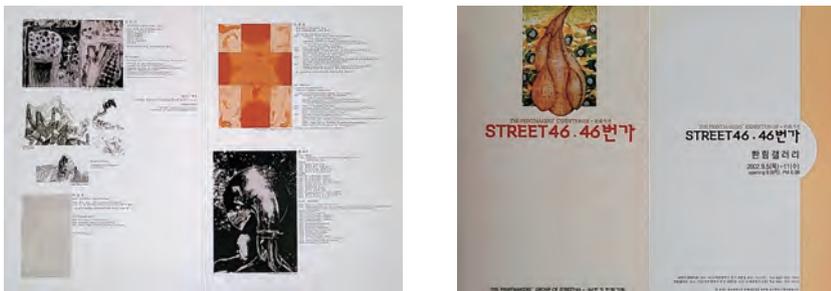
79) 46번가관화가회(1990~현재)

46번가(番街)관화가회는 1990년 12월 대전에서 창립한 관화가 단체이다. 19751225그룹의 창립 회원이었던 이종협이 도쿄 다마미술대학(多摩美術大学) 대학원에서 관화연구를 하면서 일본에서 관화 재료와 도구를 보내주어 대전 은행동 정길호의 연구실에 작은 공방을 만들었다가 이종협이 귀국한 후 중동 46번지에 대전관화공방을 열었다.¹⁰⁹ 이 대전관화공방이 있던 주소가 중동 46번지였기 때문에 ‘46번가의 관화가들’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어 단체명을 ‘46번가관화가회’로 정했다.¹¹⁰

대전 현대화랑에서 열린 창립전에는 10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1993년 두 번째 전시는 서울 소나무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서울에서의 전시 후 바로 이어서 대전오원화랑에서 《제3회 46번가관화가전》을 치렀다. 이후 6년이 지난 뒤, 1999년 8월 《제4회 46번가관화가전》을 열었고, 이 4 번째 전시 후에는 매년 정기전을 개최했다. 2002년 독일 뒤셀도르프의 관화가들과 교류전을 열었으며,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의 작가들과 교류하는 연구 그룹으로 성장했다. 2023년 《제30회 46번가관화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전 윤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46번가관화가전》(1993) 도록 표지 및 내지(송창만의 출품작)



《The Printmakers of STREET46 · DÜSSELDORF》(2022) 도록 내지

《제2회 46번가관화가전》(2022) 도록 표지

¹⁰⁹ 대전 모리스갤러리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rrisgallery.co.kr/community/board01_view.htm?No=601

¹¹⁰ 대전공예전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ngjeon.kr/product/detail.html?product_no=3240



《제29회 46번가 판화가전》(2022) 포스터



《제30회 46번가 판화가전》(2023) 포스터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0. 12. 20~12. 26.	《창립 46번가판화가전》	대전 현대화랑
	김지태, 김홍덕, 신동국, 이명희, 이성규, 이종협, 이창인, 정길호, 정장직, 한현숙 등 참여	
1993. 1. 8~1. 21.	《제2회 46번가판화가전》	서울 소나무갤러리
	고승훈, 김미경, 김홍덕, 사은실, 송창만, 이수민, 최용 등 참여	
1993. 2. 1~2. 7.	《제3회 46번가판화가전》	대전 오원화랑
1999. 8. 21~8. 27.	《제4회 46번가판화가전》	대전 롯데호텔갤러리
2000. 9. 1~9. 7.	《제5회 46번가판화가전》	대전 한림갤러리
2002. 3. 28~4. 6.	《The Printmakers of STREET46 · DÜSSELDORF》	대전 우연갤러리
2015. 10. 22~10. 28.	《제22회 46번가판화가전: Printing Image 展》	대전 모리스갤러리
2022. 12. 24~12. 31.	《제29회 46번가판화가전: 스미는 숨결_版》	대전 윤갤러리
2023. 6. 22~6. 28.	《제30회 46번가판화가전: Printmaking_Reading》	대전 윤갤러리

80) 대전도예가회(1991~현재)

1991년 창립한 대전도예가회는 대전에서 활동하던 도예가 12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고 목원대학교 황용식 교수, 충남대학교 최병진 교수, 중부대학교 이춘혜 교수 등이 뜻을 모아 대전의 1세대 도예가 이종수와 함께 대전도예가회를 시작했다.¹¹¹ 2016년 《제26회 대전도예가회전》까지 정해진 주제 없이 작가의 개성을 표출한 작품을 모아 전시를 열다가 2017년부터는 주제를 설정해 기획전으로 전시 경향의 변화를 모색했다.¹¹² 《제29회 대전도예가회전》은 ‘반(飯)·면(麪)·죽(粥) : 1인 상차림’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고 도예가 53명의 작품 260여 점을 수록한 도서를 출간해 정식 출판물로 등록했다.¹¹³



《제29회 대전도예가회전》(2019) 전시장 모습 및 출간도서 내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대전광역시 서구청' & '충청뉴스' 홈페이지)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1. 7. 22~7. 28.	《대전도예가회 창립전》	대전문화원
1994. 10. 6~10. 10.	《제4회 대전도예가회전》	대전 삼성생명
1999. ?~11. 11.	《제9회 대전도예가회전》	대전시립미술관
2001. 10. 10~10. 16.	《제11회 대전도예가회전》	대전시청
2014. 10. 22~10. 28.	《제24회 대전도예가회전》	대전서구문화회관
2019. 11. 19~11. 25.	《제29회 대전도예가회전: “반(飯)·면(麪)·죽(粥)”: 1인 상차림》	대전서구문화원
2020. 7. 28~8. 3.	《대전도예가회 30주년 기념전: Generation 2020》	대전서구문화원
2021. 5. 11~5. 17.	《제31회 대전도예가회전》	대전서구문화원

111 「대전도예가회 30주년 기념전」, 『금강일보』(2020. 7. 29).

112 「대전도예가회, 제31회 대전도예가회전: 스토어 개최」, 『대전일보』(2021. 5. 7).

113 「제29회 대전도예가회전 “반(飯)·면(麪)·죽(粥)”: 1인 상차림 기획전」, 『충청뉴스』(2019. 11. 18).

81) 대전섬유조형회(1991~현재)

대전섬유조형회는 1991년 섬유 조형 영역의 확장과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창립 당시 회장은 목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김영순이 맡았다. 섬유미술 전공자와 수공예 작업을 하는 장인으로 구성된 대전섬유조형회 회원은 주로 서울과 대전 등지에 있는 대학에서 공예과·산업미술과·섬유예술과 등을 졸업한 후에 대전·충남의 대학에서 교수나 강사로 있던 여성 작가들과 디자이너들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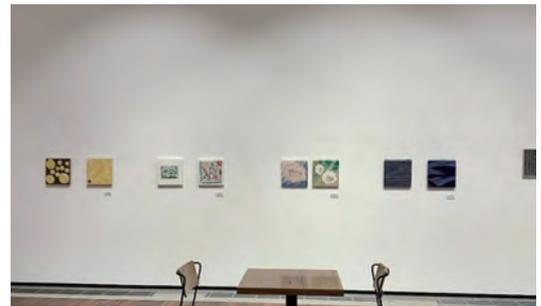
1993년에는 '93 대전엑스포' 행사에 발맞춰 '한국의 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섬유미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자 노력했다. 1994년에는 일본의 염색가를 초청해 쪽빛 염색법에 관한 특강과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했다.¹¹⁴ 매년 정기전을 통해 섬유 조형 예술의 미를 추구했으며, 2020년 30주년 기념 전시는 대전 고트빈갤러리에서 열렸다.



《제3회 대전섬유조형회전》(1993) 도록 내지(김영순·이상숙·이규례의 출품작)



《제28회 대전섬유조형회전》(2018) 전시장 모습
(출처: 네이버 블로그 '꽃나래허브')



《제30회 대전섬유조형회전》(2020) 전시장 모습
(출처: 네이버 블로그 '자연안에서 자연스럽게')

¹¹⁴ 「문화가이드」, 『중도일보』(1994. 11. 24),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1	《창립전》	
	《제2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문화원
1992. 10. 24~10. 30.	김영순, 이상숙, 이규례, 송순영, 김영숙, 홍일선, 이미령, 류금희, 장영란, 김혜정, 이순임, 손금선, 민연희, 엄희섭, 조규경, 김숙환, 이영옥, 이재선, 김미경, 이정순, 임희숙, 구경숙, 정현경, 김영숙, 유성민, 이정신, 조영미, 박영선, 오지연, 임미연, 윤석지, 권영숙, 류지원, 김지은 등 참여	
1993. 8. 16~8. 22.	《제3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문화원
1994. 11. 17~11. 23.	《제4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 한림갤러리
2003. 10. 21~10. 27.	《제13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
2015. 10. 7~10. 13.	《제25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 MBC갤러리
2016. 6. 28~7. 4.	《제26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 KBS방송국
2018. 5. 10~5. 16.	《제28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 KBS방송국
2020. 9. 2~9. 8.	《제30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 고트빈갤러리
2021. 9. 2~9. 8.	《제31회 대전섬유조형회전》	대전중구문화원

82) 한국미협 대천지부(1992~현재)

한국미협 대천지부(현 한국미협 보령지부)는 1992년 4월 12일 창립한 단체로, 창립 당시 지 부장은 조각가 박명규가 맡았다. 창립전은 그해 10월 대천문화원에서 열렸다. 창립전에는 한국 화·서양화·서예·문인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장르 작가 26명이 참여했다. 제2회 전시부터 한국미협 대천·보령지부로 개칭했다가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이 보령시로 통합되었을 때 현재의 한국미협 보령지부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1997년부터는 보령예술제에 맞춰 해마다 정기전을 열었으며, 2015년에는 ‘보령미술 海를 품자’라는 주제전을 개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지 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와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를 열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에 맞춰 보령문화의전당에서 한국미협 대전시 지회 작가들과의 교류전을 개최했고 10월에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 한 번 더 교류전을 열었다.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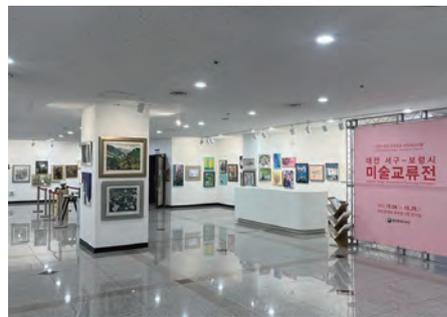
《한국미협 대천지부 창립작품전》(1992) 도록 표지 및 내지(박명규의 출 품작)



《제28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2019) 포스터(출처: 『보령시장신 문』, 2019. 9..24)



《제29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2020) 온라인 전시 포 스테



《대전 서구-보령시 미술교류전》(2022) 전시장 모습 (출처: 『굿모닝충청』, 2022. 10. 5)

¹¹⁵ 「대전 서구-보령시 지역 작가 '미술교류전' 29일까지 개최」, 『굿모닝충청』(2022. 10. 5).

전시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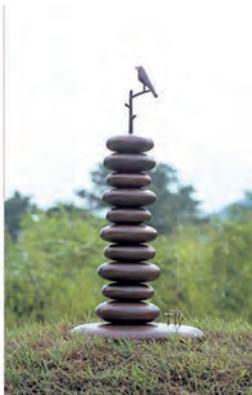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2. 10. 14~10. 18.	《한국미협 대천지부 창립작품전》	대천문화원
	강소진, 강장규, 고영욱, 김부권, 김일환, 리춘호, 문영애, 박명규, 박주부, 박혜숙, 서승일, 신두철, 안근국, 오수홍, 유천균, 이경숙, 이상민, 이선환, 이진규, 이종목, 이해경, 임기석, 장윤석, 전영희, 조진행, 홍종모 등 참여	
1993. 6. 28~7. 1.	《제2회 한국미협 대천보령지부전》	대천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994. 6. 29~7. 2.	《제3회 한국미협 대천보령지부전》	대천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10. 10. 11~10. 16.	《제19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보령문예회관
2017. 9. 21~9. 24.	《제26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보령문화의전당
2019. 9. 26~10. 2.	《제28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보령문화의전당
2020. 9. 14~9. 20.	《제29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온라인전시
2022. 10. 4~10. 9.	《대전 서구-보령시 미술교류전》	대전서구청
2023. 10. 28~11. 2.	《제32회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보령문화예술회관

83) 대전금속조형회(1993~현재?)

1993년 창립한 대전금속조형회는 대전 지역의 유일한 금속조형 단체이다. 금속공예, 주얼리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귀금속 보석 관련 대학, 교육기관, 연구소, 공방, 보석가공, 귀금속 업체 등에서 연구 또는 근무하는 대전·충남 지역 금속공예가들의 모임이다. 창립전 당시 13명의 교수·교사·전업 작가·대학원생이 참여했다. 매년 가을 정기 전시회를 통해 작가마다 창의적인 조형 기법으로 다듬어진 금속공예 및 주얼리디자인을 선보였다.¹¹⁶ 2012년 창립 20주년에는 ‘오래된 미래의 쓰임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¹¹⁷



《제18회 금속조형회전》(2010) 고창환의 작품작(출처: 네이버 블로그 '홍익주얼리아카데미')



《제22회 금속조형회전》(2014) 전시 포스터(출처: 『뉴스1코리아』, 2014. 10. 7)



《제24회 금속조형회전》(2016) 전시포스터(출처: 네이버 블로그 '블랑이')



《제25회 금속조형회전》(2017) 강봉승의 작품작(출처: 아트허브 홈페이지)

¹¹⁶ 대전금속조형회의 2017년까지 정기전 전시이력은 아트허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thub.co.kr/sub01/board03_view.htm?No=25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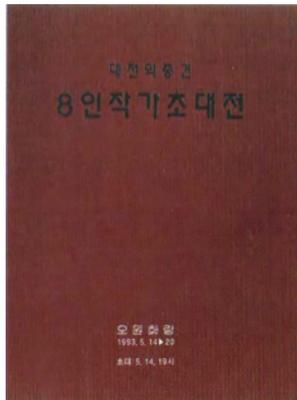
¹¹⁷ 대전금속조형회가 2017년까지 전시를 개최한 기록이 확인되지만 이후 활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3. 10. 22~10. 28.	《금속조형회 창립전》 고승관, 이충우, 고창환, 김석화, 김종희, 이윤주, 이상명, 안재혁, 강봉승, 유재중, 안명선, 이종철 등 참여	대전 홍인갤러리
1994. 10. 27~11. 6.	《제2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경암갤러리
1997. 11. 21~11. 28.	《제5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대학로21C갤러리
1998. 8. 25~8. 31.	《제6회 '98 금속조형회전: 21C를 향한 환경조형전》	대전 동양타임월드갤러리
2002. 10. 16~10. 22.	《제10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평송수련원
2004. 11. 19~11. 25.	《제12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타임월드갤러리
2010. 10. 21~10. 27.	《제18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타임월드갤러리
2012. 10. 18~10. 31.	《제20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갤러리성
2016. 11. 3~11. 9.	《제24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타임월드갤러리
2017. 12. 21~12. 27.	《제25회 금속조형회전》	대전 모리스갤러리

84) 화연회(畫緣會, 1993~현재)

‘그림으로 인연을 맺은 모임’이란 의미의 화연회는 1993년 대전 오원화랑에서 열렸던 《대전의 중견-8인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이 전시 후 8명의 작가가 다음 해에도 오원화랑에서 초대전을 열며 화연회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매년 정기전을 치르고 있다. 2000년 중국 기행 후 《중국 무릉원(武陵源) 기행 7인전》을 개최했으며, 2003년 정기전은 《제11회 화연전: 터기·중국회화기행》 특별전을 통해 해외에서 경험한 문화와 이국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아 전시를 열었다. 2022년에는 갤러리 탄에서 30주년 기념 대작(大作) 특별전을 열었다.



《대전의 중견-8인작가 초대전》(1993) 도록 표지(출처: 『제30회 화연전』, 화연회, 2022)



《중국 무릉원 기행 7인전》(2000) 홍보물(출처: 『제30회 화연전』, 화연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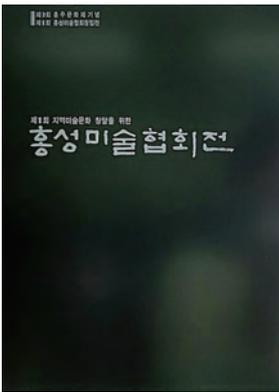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3. 5. 14~5. 20.	《대전의 중견-8인작가 초대전》	대전 오원화랑
	권영우, 김배희, 김치중, 이택우, 임봉재, 정명희, 정영복, 정철곡 등 참여	
1994. 12. 2~12. 8.	《제2회 화연전》	대전 오원화랑
2000. 10. 19~10. 25.	《중국 무릉원 기행 7인전》	대전 우연갤러리
2002. 12. 11~12. 17.	《제10회 화연전》	대전중구문화원
2012. 3. 29~4. 3.	《제20회 화연전》	대전시청
2014. 10. 2~10. 8.	《제22회 화연전》	대전중구문화원
2022. 5. 2~5. 8.	《제30회 화연전》	대전 갤러리탄
2023. 10. 5~10. 11.	《제31회 화연전》	대전중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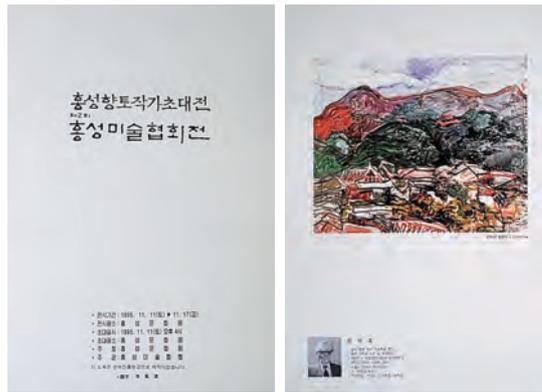
85) 홍성미술협회(1994~현재)

홍성미술협회(현 한국미협 홍성지부)는 홍성에서 활동하던 회화, 공예, 조각, 서예 등 여러 미술 분야 작가가 모여 1994년 5월에 창립한 단체이다. 창립 당시 홍성미술협회라는 단체명으로 창립했다가, 1998년 한국미협 홍성지부로 정식 인준을 받은 후 현재까지 한국미협 홍성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10월 충남 도민체전을 기념 《제8회 충청남도 청년미술제》를 홍성에서 개최했다. 2002년 제1회 고암청소년미술실기대회를 주최했고, 내포현대미술제를 제정해 내포 지역 미술문화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했다.¹¹⁸ 2020년에는 홍성군과 함께 ‘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을 진행해 홍주성, 하상주차장, 홍주시장 일대 벽화 및 조형물 제작 등을 통한 환경 개선 작업을 시행했다.¹¹⁹ 2021년에는 ‘제1회 전국공모 홍주미술대전’을 주최해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홍성미술협회는 내포현대미술제, 고암이응노미술대회, 전국공모 홍주미술대전, 찾아가는 예술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²⁰



《제1회 홍성미술협회전》 도록 표지



《제2회 홍성미술협회전》 도록 내지

¹¹⁸ 황선익, 「미래지향적 표현활동을 해 오면서」, 『홍성신문·내포타임즈』(2004. 5. 13).

¹¹⁹ 홍성군 공식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hsgstory/222430235333>

¹²⁰ 네이버 블로그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참조. <https://blog.naver.com/hsart1004/222538394453>



제20회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2022)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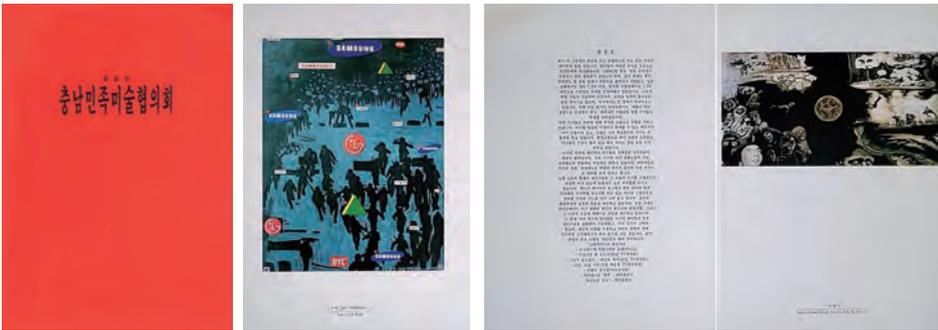
《찾아가는 예술제》(2022) 포스터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4. 9. 28~10. 1.	《제1회 홍성미술협회전》	홍성문화원
	이병철, 변수길, 이영집, 최인수, 김광찬, 류양걸, 박정근, 오정자, 우명균, 육근우, 이영숙, 이영한, 이복형, 임환철, 한승희, 복경운, 윤주민, 장정숙, 전만성, 황선익, 홍민표, 김동주, 주남수, 이기조, 이능세, 강경숙, 김용상, 김형금, 문영숙, 박경숙, 서상수, 오세자, 윤인선, 이강희, 이봉연, 이은련, 정민자, 최재순, 최현숙 등 참여	
1995. 11. 11~11. 17.	《홍성향토작가가 초대전: 제2회 홍성미술협회전》	홍성문화원
1996. 11. 9.	《제3회 홍성미술협회전》	홍성문화원
1997. 9. 29.	《제4회 홍성미술협회전》	홍성문화원
1998. 12. 12~12. 18.	《한국미협 홍성지부 인준 창립전》	홍성문화원
2009. 11. 20~12. 5.	《제7회 내포현대미술제》	홍성문화원
2014. 9. 20.	제13회 전국고암청소년미술실기대회	홍성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2023. 7. 7~7. 14.	《제21회 내포현대미술제》	홍성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2023. 7. 14~7. 19.	《제30회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회원전》	홍주문화회관
2023. 8. 12~8. 13.	《찾아가는 예술제》	홍주읍성 일원

86) 충남민족미술협회(1995~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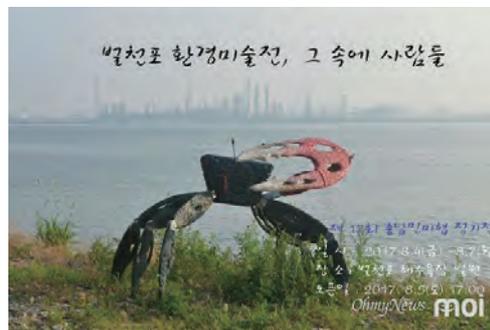
충남민족미술협회(현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충남지회)는 1995년 2월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이 창립된 것을 계기로 그해 창립 준비회를 발족했으며,¹²¹ 창립준비에 참여한 11명의 작가는 6월에 토론회를 연 후 7월부터 8월까지 대전과 당진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창립 준비위원장은 최평곤이 맡았으며, 당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정현이 창립전에 참여했다. 충남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를 열어온 충남민족미술협회는 환경미술전, 동학 혁명 기념 우금치미술제, 평화미술제, 교육 현장을 주제로 한 《학교야 뭐하니》 등의 행사를 기획했다. 충남민족미술인협회에는 화가·사진작가·설치미술가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하며, 근현대사와 정치 이슈, 환경 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예술 활동을 이어왔다.¹²²



《제1회 충남민족미술협회 창립전》 도록 표지 및 내지(김정현·함종호의 작품작)



《제6회 충남민족미술협회 정기전》(2006) 포스터



《제17회 충남민족미술협회 정기전》(2017) 포스터

¹²¹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은 1995년 기존의 전국 민족미술 협의회(전미협)를 해체하고 전국 12개 지역 미술운동 단체들을 묶어 결성한 진보적 미술인들의 통합단체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13893&cid=43137&categoryId=43137>

¹²² 「환경 노동 사회문제 예술 통해 표현」, 『홍성신문·내포타임즈』(2023. 11. 6).



《제19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벌천포, 환경미술전-그 속에 사람들》(2019) 홍보물(출처: '거리의 미술' 홈페이지)



《제3회 충남민족예술제》(2022) 포스터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5. 7. 31~8. 14.	《충남민족미술협의회 창립전》	대전시민회관/ 당진 수선화공간
	김정현, 김성준, 김인규, 송현경, 오세기, 이경식, 임명규, 장경희, 정용임, 정준채, 조성찬, 한석순, 함중호 등 참여	
2006. 8. 24~8. 31.	《제6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평화 나눔전》	천안시민회관
2012. 12. 1~12. 8.	《제10회 충남민족미술전: 삶의 조각-거울이 되어》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016. 7. 22~7. 29.	《제16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서산 벌천포해수욕장
2017. 8. 4~8. 7.	《제17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서산 벌천포해수욕장
2018. 8. 3~8. 6.	《제18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서산 벌천포해수욕장
2019. 8. 2~8. 5.	《제19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벌천포, 환경미술전-그 속에 사람들》	서산 벌천포해수욕장
2021. 7. 27~8. 7.	《제21회 충남민미협 정기전》	당진 난지삼해수욕장
2022. 9. 3.	《제3회 충남민족예술제》	장항 송림백사장

87) 한국미협 당진지부(1996~현재)

한국미협 당진지부는 1996년 4월 26일 (사)한국미협의 인준을 받았다.¹²³ 창립전은 11월에 열렸으며, 창립 당시 지부장은 박기호가 맡았고 미술교사 및 전업작가 등 17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다.¹²⁴ 1998년 정기전 기간에 학생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해 초·중·고등학생들의 현장 학습의 장을 마련했고 정기전과 더불어 2014년부터 ‘당진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¹²⁵

야외스케치전, 충남미술대전 순회전, 청년미술제 등 크고 작은 미술 행사를 주관했고 2006년부터는 ‘당진깃발미술제’를 개최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술전시회’를 개최해 미술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지역민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했다.¹²⁶ 2021년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진흥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합덕지역아동센터에 ‘꿈꾸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설치작품을 제작했으며, 2022년에는 ‘꿈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낙후된 도로나 골목에 벽화 제작사업을 진행했다.¹²⁷ 한국미협 당진지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당진시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힘쓰고 있다.



《제12회 정기전》(2007) 전시장 모습
(출처: 『당진시대』, 2007. 5. 28)



《당진 깃발미술제》(2011) 전시현장 모습
(출처: 『당진시대』, 2011. 10. 11)

¹²³ 다음 카페 '당진미술협회' 참조. <https://cafe.daum.net/dangjinart>

¹²⁴ 「(사)한국미협 당진지부 정식승인패」, 『당진시대』(1996. 4. 26).

¹²⁵ 디지털당진문화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www.grandculture.net/dangjin/toc/GC06401008>

¹²⁶ 「당진시 정미면, 2023년 찾아가는 미술 전시회 개최」, 『중도일보』(2023. 9. 16).

¹²⁷ 「척척한 벽이 공공미술의 캔버스로..당진미협 벽화 프로젝트」, 『당진신문』(2023. 11. 4).



《당진 아트페스티벌 아트페어》(2017) 전시장
(출처: 디지털당진문화대전 홈페이지)



2022 당진 공공미술벽화 프로젝트 '꿈을 그리다' 현장 모습
(출처: 당진시 공식블로그)



《2023년 찾아가는 미술 전시》 전시장 모습
(출처: 네이버 블로그 '당진교차로')



《2023 당진아트페스티벌》홍보물
(출처: 당진시 공식 블로그 '당첨당진')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6. 11. 23~11. 30.	《창립전》 박기호, 허덕무, 김영숙, 장철식, 최평근, 이경숙, 임성실, 이종호, 배효남, 문현수, 장애결, 구현숙, 박기술, 차명일, 정태궁, 박종근, 손화동 등 참여	
1997. 11. 29~12. 6.	《제2회 정기전》	당진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2007. 5. 22~5. 28.	《제12회 정기전》	당진문예의전당
2011. 10. 1~10. 3.	《당진 깃발미술제》	당진 왜목마을 해변
2014. 8. 30.	《제19회 정기전》	당진문예의전당
2016. 5. 14~5. 18.	《당진 아트페스티벌 아트페어》	당진문예의전당
2016. 7. 29~8. 7.	《전국 당진 깃발미술제》	당진 삼교천 관광지
2023. 5. 8~5. 14.	《제28회 정기전》	당진문예의전당
2023. 9. 1~9. 30	《2023년 찾아가는 미술 전시》	당진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88) 대전미술창작마을(1998~현재)

대전미술창작마을은 작가들의 작업공간이자 단체 명칭이다. 1998년 교사이면서 미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위해 대전 동구 용호동에 위치한 폐교를 창작마을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¹²⁸ 창립 당시 회장은 강정현이 맡았고, 창립전 때 서양화가 김한 교수를 초청해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미술 교원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창립 이후 틈틈이 세미나 개최 및 1일 미술학교 운영 등으로 지역민과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미술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며 지역 미술 문화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 교사의 작업공간이자 학생들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 창작마을의 운영은 중단되었지만, 교원들은 대전미술창작마을을 단체명으로 유지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¹²⁹



《제2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1999) 도록 표지 및 내지(강정현의 출품작)

전시이력

전시일자	전시명(행사)	장소
1998. 12. 14~2. 15.	《대전미술창작마을 창립전》	대전미술창작마을
	《제2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	대전 한림갤러리
1999. 9. 1~9. 20.	김석기, 강정현, 유병호, 이병한, 이근희, 조용복, 박문상, 남재용, 이경균, 이상돈, 최우선, 염재권, 최영욱 등 참여	
2010. 6. 7~7. 3.	《제13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 새롭다》	대전교육미술관
2016. 2. 15~3. 31.	《제19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	대전교육미술관
2021. 1. 4~2. 26.	《제24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	대전교육미술관
2023. 3.	《제26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	대전교육미술관

¹²⁸ 「대전미술 창작마을전」 23일까지 시립미술관서, 『중도일보』(2001. 9. 18).

¹²⁹ 「전·현직 교원들이 꾸미는 대전미술창작마을展」, 『충청투데이』(2016. 2. 15).

3.

충남 미술교육기관 분석 및 해제

1. 근현대기 충남 미술교육 기관의 변화과정

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 위주의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미술교사는 대부분 일본인들로 이루어졌다. 부록의 [표1-3]은 《조선미술전람회》입상자 중 주소지가 충남인 작가들의 명단을 수집하여, 직원록을 통해 교사로 밝혀진 일본인 교사 목록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충남에는 많은 일본인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인 교사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한 송병돈이 공주 영명여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공주회화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1931년 공주회화회를 결성하던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0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구종서는 공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학교의 도화과 강사로 신범이가 있었다. 이밖에도 이창규, 권중록, 박봉재 등 그동안 미술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10~20년대 서화가들이 만든 사설 서화교육기관이 경성 뿐만 아니라 평양, 대구 등에도 만들어지는데, 충남에서도 서화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한다. 1934년 대전 본전통에 충북 영동 출신의 박희석(朴喜奭)이 '박연계서화연구회'를 창설해, 서예·사군자·산수화 등을 지도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¹

② 해방 이후 일제 식민주의 교육정책을 청산하고 현대적 교육체제가 요구됨에 따라 교육체제 전반을 개혁하게 된다. 해방 전까지 교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교사는 부족하고, 학교 수는 급격하게 늘면서 교사의 수요가 폭증했다. 따라서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에서도 대전사범학교와 공주여자사범학교에서 교사들을 양성했다. 1945년 대전사범학교 설립 당시 도쿄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한 박성섭(朴性燮, 1903~1974)이 미술교사로 부임했으나, 1947년 대전상공회의소의 상공장려관 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해 11월 후임으로 대전공업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이동훈(李東勳, 1903~1984)을 추천했다. 대전사범학교에 부임한 이동훈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충남학생미전》을 개최하는 등 충남 지역 미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③ 충남에 설립된 대학교에서 미술 관련학과가 개설된 것은 공주사범학교가 공주교육대학교로 개편된 1962년 무렵이다. 이후 1964년 대전실업전문학교(현 우송정보대학교)에 부임한 도예가 이종수(李鍾秀, 1935~2008)가 1975년까지 생활미술과 주임교수로 재직했던 점으로 미루어 대전실업전문학교에서 도예나 기술을 요구하는 미술수업이 이루어졌

1 「박연계서화연구회 대전에서 창설(朴蓮溪書畫研究會 大田에서 創設)」, 『조선중앙일보』(1934. 4. 29).

던 것으로 보인다.

- ④ 충남 소재 대학교에서 미술인들이 본격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한 것은 목원대학교 송전대학(현 한남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개설된 1972년부터라 할 수 있다. 이어 1973년 공주사범대학(현 국립공주대학)에도 미술교육과가 개설되었는데, 당시 미술교육과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으로 전공을 나누었다.
- ⑤ 1980년대 들어 충남의 여러 지역에서 미술 관련학과가 생겼다. 1979년 산업미술과를 개설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는 이후 회화과(1984)와 공예과(1987)처럼 순수미술 위주로 학과가 설치되었다. 1980년 배재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개설되었으며,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에는 1982년 미술학과가 신설되었다. 충남대학교 미술학과는 한국화·서양화·조소·디자인·공예로 전공을 구분했으며, 1988년 산업미술학과가 생겼다. 1980년대 들어 목원대학교와 송전대학교, 공주사범대학에도 미술교육과 외에 회화과나 응용미술과가 설치되어 미술학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⑥ 1980년대 충남에 새롭게 등지를 튼 대학교에 미술 관련학과들이 속속히 생겼는데,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1984)의 산업미술학과를 시작으로 대전개방대학(현, 국립한밭대학교, 1985),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1988), 호서대학교(1988)에는 처음부터 디자인 계열의 학과가 개설되었다. 1970년대 미술대학들이 미술교육과에서 시작한 것과 달리, 1980년대 충남에 설립된 대학들은 배재대를 제외하고 산업디자인, 광고디자인학과처럼 대부분 디자인 학과들이 신설되었다. 이는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순수미술보다는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공주문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로 통합, 1988)의 경우 민속공예과, 만화예술과처럼 당시로선 생소한 학과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 ⑦ 1990년대 들어서면 천안의 남서울대학교(1994) 서산의 한서대학교(1996), 대전의 건양대학교(1994)에 미술 관련학과가 생겼는데, 건양대를 제외하고 모두 디자인 계열과 만화·영상 관련학과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드문 서예과가 1998년 대전대학교에 개설되었다.

1990년대가 되면 많은 대학들이 디자인학부, 미술학부처럼 학부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을 모집한 후 학부 내에서 전공을 구분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는 1990년 국내 최초로 디자인대학을 신설하고, 1999년에는 학부제를 도입하여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 의상디자인, 섬유디자인, 실내디자인, 요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전공)로 변경하였다. 또 칼라TV의 보급으로 영상이 중요한 매체가 되면서 호서대와 남서울대학교 등에는 애니메이션학과가 개설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전문 미술인을 양성하는 미술대학의 학과는 사회 분위기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변화해 나갔다.

2. 충남지역의 미술대학 목록과 해제문

연번	학교명	미술 관련 학과 개설연도	개설학과
1	공주(여자)사범학교 (현 공주교육대학교)	1963	미술교육(1962)
2	대전실업전문학교 (현 우송정보대학교)	1964	생활미술과(1964), 응용미술과(1979), 산업디자인과(1981), 산업디자인과(1984), 광고디자인과(1990), 정보디자인 계열(1998)
3	목원대학교	1972	미술교육과(1972), 산업미술과(1977), 건축미술과(1977), 미술학과(1981), 회화과(1984), 미술학부 디자인학부로 분리(1997)
4	송전대학교 (현 한남대학교)	1972	미술교육과(1972), 응용미술과(1979), 회화과(1986), 미술·조형디자인학부(1999), 조형예술학부(2000)
5	공주사범대학 (현 국립공주대학교)	1973	미술교육과(1973)
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1979	산업미술학과(1979), 회화과(1984), 공예과(1987) 조형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예전공(1999), 미술학부-서양화전공, 동양화전공(1999)
7	배재대학교	1980	미술교육과(1980), 산업미술학과(1994), 미술학부 내 산업미술, 순수미술 전공(1998)
8	충남대학교	1982	미술학과(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공예 전공으로 구분, 1982) 산업미술학과(1988),
9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1984	산업디자인과(1984), 사진예술학과(1985), 섬유디자인과(1987), 실내디자인학과(1987), 요업디자인학과(1987), 의상디자인학과(1987),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1990), 무대미술학과(1996), 예술대학 영상학부 사진전공(1995), 만화예술학과(1996),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1999), 예술대학 영상학부(1999)
10	대전개방대학 (현 국립한밭대학교)	1985	산업디자인학과(시각·공업디자인, 1985), 공업디자인학과(1990), 시각디자인학과(1993)
11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1988	광고디자인학과, 산업공예과(1988), 조형학부(1995), 광고·산업공예디자인학과(1995)
12	공주문화대학 (현 국립공주대학교)	1988	민속공예과(1988), 만화예술과(1989), 산업공예디자인과(1994), 1994년에 산업영상과와 1998년에 귀금속가공디자인과를 개설
13	호서대학교	1988	응용미술학과(1983), 실내디자인학과(1992), 산업디자인학과(1995), 애니메이션학과(1998)
14	남서울대학교	1994	산업디자인학과(1994), 환경조형학과(유리공예, 1995), 시각정보디자인학과(1997), 애니메이션학과(1998)
15	건양대학교	1994	미술학과(1994)
16	한서대학교	1996	산업디자인학과(1996), 영상미술학과(1996), 예술대학원 영상예술관리학과(1998), 예술대학원 예술관리학과(1999)
18	대전대학교	1998	서예과(1998),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1998)

1) 공주(여자)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는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있는 현재의 공주교육대학교로 1938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관립 공주여자사범학교로 개교하였다.² 관립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보니 정돈된 학교 건물과 기숙사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었다.³ 이러한 혜택은 공주여자사범학교를 명문학교로 인식시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는 원인이 되었다.



공주여자사범학교 전경사진(출처: 공주학 아카이브)

해방 이후에도 공주여자사범학교는 남자만 입학이 가능한 대전사범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자사범학교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사범학교 제도가 폐지되고, 교육대학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주여자사범학교와 대전사범학교가 통폐합되었고, 1962년 2년제 전문대학인 공주교육대학교로 승격되었다.

1962년 공주교육대학(2년제)으로 개교하면서 미술교육 전공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진이 꾸려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는 1953년 ‘충남미술협회’ 발족에 참여했던 김기숙(金基淑), 안중호(安鐘祐, 1926~1986) 등이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이남규(李南圭)·최종태(崔鐘泰)·조영동(趙榮東)·강신철(姜信哲)·이지휘(李志輝)·황교영(黃敎泳) 등이 교수로 재직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담당함은 물론이고, 작가로서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공주미술계의 기반을 마련했다.⁴

당시 공주교육대학교에는 조영동 교수가 지도했던 서양화 동아리 ‘빌리잔’이 1971년부터 활동을 하며 교내 미술실에서 전시를 열었다. 1975년에는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서양화 동문 모임인 ‘그릴회’가 창립되었다.

조각과는 황교영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전·충남 최초의 조각단체인 ‘충남조각회’를 결성하여 매년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대전·충남조각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제 1~4회 《충청남도미술전람회》 조각 부문에서 공주교육대 출신들이 다수의 수상을 차지하는 활

² 조선총독부는 1938년 4월 9일자 총독부 고시 제320호로 충청남도 공주(公州)에 관립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설치하고 심상과 강습과를 개설하며 부속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475>)

³ 전진희, 「일제하 공주여자사범학교 입학전형과 일본인 유학의 특징」, 『충청학과 충청문화』(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2), p. 259.

⁴ 『공주예총 창립 20주년 기념집: 공주예술 발자취』(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 2010), p. 85.

등을 보여주었다.⁵ 이 시기 보령 출신의 박명규(朴明圭) 조각가가 공주교육대학에 입학해 당시 교수였던 황교영에게 조소를 배워 ‘청조회(靑彫會)’ 결성에 참여하기도 했다.⁶ 이후 1982년 4년제 공주교육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김대열(金大烈), 구권환(丘權煥) 등이 교수로 부임했다.

연혁

연도	내용
1938. 4. 1.	공주여자사범학교로 개교(조선총독부 교육령)
1941. 4.	부속소학교를 부속국민학교로 개칭
1949. 6.	병설중학교 신설 (여자 1학급)
1951. 5. 1.	공주사범학교로 개교
1962. 2. 19.	공주교육대학(2년제)으로 개편
1962. 3. 1.	초대 윤봉수 학장 취임
1962. 3. 26.	공주교육대학 개교(대전사범학교와 통합)
1968. 4. 10.	교육연구소 설치
1982. 3. 1	공주교육대학(4년제)으로 개편
1982. 7. 9.	미술관 준공
1993. 3. 1.	공주교육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5. 11. 10.	교육대학원 개원

5 송미경, 「대전미술 '둘'-공예·조각」, 『대전미술 '둘'-공예·조각』(대전시립미술관, 2009), p. 11.

6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박명규」,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pp. 446-447.

2) 대전실업전문학교(현 우송정보대학교)

대전실업전문학교는 현재 우송정보대학교의 전신으로, 1963년 1월 18일 재단법인 동아학원에서 설립하였다.⁷ 처음에는 대전실업초급대학 2부로 인가를 받았다가 1964년 1월 22일 1부로 승격되어 인가를 받았다. 한국전쟁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직장인, 군인 등에게 면학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다. 초대 총장에 (주)동아연필 설립자인 김정우(金正雨, 1916~2005) 교수가 취임했으며, 개교와 동시에 제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⁸



대전실업전문대학교의 전경(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전실업전문학교의 연혁에 따르면, 미술과가 개설된 시기는 1979년 3월 1일이다.⁹ 대전실업전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응용미술과’가 개설된 것이다. 그러나 응용미술과가 신설되기 전, 도예가 이종수(李鍾秀, 1935~2008)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생활미술과’ 주임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응용미술과’가 개설되기 이전인 1964년부터 도예나 혹은 기술을 요구하는 생활미술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매우 이른 시기 개설된 ‘미술과’이며, 이종수 교수는 1972년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대전문화원에서 《제1회 대전실업초급대학 생활미술과 생활미술전》을 개최하기도 했다.¹⁰

‘생활미술과’가 미술이나 예술로 분류되지 못했던 데에는 초급대학의 설립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적은 교육비와 짧은 시일로 실과 기술자를 길러낸다’는 설립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시일에 교육하여 사회에서 소요되는 ‘기술’을 길러내는 것이 당시 교육의 목표였다.¹¹ 따라서 취업이나 실과 기술자를 길러내기 위해 ‘미술’보다는 ‘디자인’ 계열의 학과로 개설하였다. 생활

7 김정우(金正雨)는 1916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출생해 1941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을 졸업한 뒤, 1946년 문구사업체인 (주)동아연필을 설립했다. 동아학원은 1954년 4월 17일 설립되었다.

8 대전실업초급대학은 1960년대 있었던 초급대학 설립 붐에 맞춰 설립되었다. 대전실업초급대학이 설립되었던 1963년에는 7개의 2년제 초급대학이 설립되었다. 서울에 ‘동협초급대학’,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 ‘성신여자실업대학’, 대전에 ‘대전실업초급대학’, 부산에 ‘한성여자실업대학’, 대구에 ‘한국항공초급대학’, 경북여자초급대학’이 개교했다.

9 현 우송정보대학 연혁에는 미술과 개설이 1979년 3월 1일로 표기되어 있다.

10 ‘생활미술과’라는 정식명칭으로 설립된 것은 1970년이나, 이종수의 재직 연도가 1964년부터임을 감안하면 이미 이전부터 도예와 같은 생활미술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상현, 김창수, 『대전 향토예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대전세종연구원, 2018), p. 38.

11 대전실업초급대학에서 수학했던 정장직은 2년제 단기대학으로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동국·유병호·이중협·정길호·정장직, 「19751225 그룹 인터뷰」,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44; 「초급대학 붐」, 『경향신문』(1960. 2. 23).

미술에 도예가 들어가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도예를 예술의 범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요 교수진으로는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생활미술과 교수로 재직한 이종수가 있으며, 응용미술학 교수로 부임한 김영배(金寧培, 1939~), 강지민(1946~)이 있다. 시각디자인과 교수로는 1988년 부임한 고창환(高昌煥, 1952~), 상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한 정장직(鄭章植, 1952~)이 있다.¹²

연혁

연도	내용
1954. 4. 17.	재단법인 동아학원 설립
1963. 1. 18.	대전실업초급대학 2부 설립인가
1963. 3. 1.	초대총장 김정우 교수 취임 /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개최
1964. 1.14.	학교법인 동아학원으로 법인조직 변경
1964. 1. 22.	대전실업초급대학 1부 설립인가
1976. 12. 31.	대전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
1978. 12. 28.	대전실업전문대학으로 학제 개편
1979. 3. 1.	대전실업전문대학 개교 / 경영과, 행정과, 가정과, 식품영양과, 응용미술과, 축산과, 원예과, 경영과(야), 행정과(야)
1981. 10. 16.	의상과, 유아교육과, 상업디자인과, 전자계산과 신설
1983. 9. 19.	관광통역과, 비서과 신설 / 관광과를 관광경영과로, 법률실무과를 법률과로 명칭 변경, 응용미술과 폐과
1984. 11. 12.	상업디자인과를 산업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1990. 11. 13.	세무회계과 (야), 비서과 (야), 전자계산과 (야), 광고디자인과(야) 신설
1994. 9. 30.	광고디자인과(야) 폐과
1998. 11. 19.	산업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를 정보디자인 계열로 명칭 변경

¹² 정장직(鄭章植)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디자인과 교수를 거쳐, 컴퓨터디자인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3)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개신교(감리회) 계열 사립대학으로서 그 전신은 1954년 대전 중구 목동에 설립된 감리교 대전신학원이다.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찰스(Charles D. Stokes)에 의해 감리교 대전신학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957년 4년제 문교부 학력 인정학교인 감리교 대전신학교로 개편되었다. 1965년 감리교 대전신학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72년에 목원대학으로 개칭하였다. 1993년 목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99년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의 새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1972년 12월, 정원 30명으로 '미술교육과' 신설 인가를 받았다가 1973년 10명을 증원했다. 1973년 3월 6일 '제1회 목원대학 미술교육과' 입학식이 열렸는데, 오전 10시 목산 채플에서 남자 13명, 여자 1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목원대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목원대 교수 허진권은 당시 목원대학 미술교육과 설립은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동문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이 집중된 학교의 자랑”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¹³

수업은 1·2학년은 미술 전반을, 3·4학년은 전공, 부전공 실기와 「동·서 미술비교」와 같은 이론 과목들로 구성되었다.¹⁴

목원대학교는 당시 국전 초대작가이며 여류조각가로서 국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윤영자와 서울대학 출신 서양화가 전상수를 첫 전임교수로 초빙했다.¹⁵ 윤영자는 당시 목원대 학장이었던 남기철 학장의 의견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저녁 시간에 별도



중구 목동에 세워진 당시의 목원대학교(감리교대전신학원) 캠퍼스 전경.



윤영자교수 수업 장면, 목원대학교 실기실, 1973(출처: 『광자진취(狂者進取)-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¹³ 『광자진취(狂者進取)-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p. 42-48.

¹⁴ 허진권 교수는 4년간 202학점을 취득했고 14개의 P학점을 합하면 총 216학점을 수강하였다.

¹⁵ 위의 글, p. 44.



김한 교수 유화수업 장면, 목원대학교 실기실, 1974(출처: 『광자진취(狂者進取)-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의 수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운영자 교수의 지도는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을 함양시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학생 야외조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교육과 전공 중 조소를 최우선에 놓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등 공모전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면서 조각에 관심이 없었던 당시의 대전지역에 조각의 바람을 일으켰다.

1974년, 전상수 교수의 후임으로 홍익대학 출신 서양화가 김한, 1976년 동양화과에 조평휘

교수가 부임하며 학과의 교수진이 완성됐다. 1977년 김한이 사직하고 1978년 오세열이 전임교수로, 이건용은 전임교수 대우로 부임하였다. 1978년 산업미술과 신설과 함께 이종훈 교수가 부임하였다. 이후 1981년 미술교육과에 김홍주, 1984년 산업미술과에 오정길이 교수로 부임했고, 1984년 회화과가 신설되어 1985년 황만영, 1988년 허진권 교수가 부임하면서 1980년대까지의 교수진이 구성되었다.

연혁

연도	내용
1954. 5. 4.	감리교 대전신학원 발족, 전희철 초대교장 취임
1957. 2. 23.	재단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설립인가
1957. 5. 1.	감리교 대전신학교 설립인가(신학과 120명. 수업연한 3년)
1957. 7. 8.	감리교 대전신학교장 취임 승인(전희철 교장)
1965. 1. 13.	감리교 대전신학대학 설립인가(신학과 정원 160명)
1972. 12. 21.	목원대학으로 교명 변경 인가
1972. 12. 26.	미술교육과 30명 신설 인가 (입학식은 1973년 3월 6일)
1973. 12. 28.	미술교육과 10명 증원
1977. 1. 11.	경영학과 40명, 산업미술과 40명 신설 인가
1977. 10. 7.	건축미술과 40명, 무역학과 40명, 행정학과 40명, 수학교육과 40명, 상업교육과 40명 신설. 경영학과 40명 증원 인가
1981. 11. 25.	미술학과 신설 인가
1984	회화과 신설
1996. 10. 24.	학부제 전환, 미술대학 내 미술학부 조소 전공
1997. 10. 13	미술학부를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로 분리 미술학부 조소 전공/20명 정원 증원

4) 승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승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는 1956년 4월, 재단법인 미국 남 장로교 한 국선교회 유지재단(Thomas D. Linton)에 의해 4년제 대전기독교학관으로 설립되었다.

3년 후인 1959년 4월, 정규대학으로 승격되어 대전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초대 학장에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가 취임하였다.

1970년 9월, 대전대학은 서울 소재 숭실대학교 통합을 추진해 교명을 승전대학교(숭실의 '崇'자와 대전의 '田'자를 택함)로 개칭하여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었다.¹⁶

승전대학교 미술교육과는 1972년 12월 신설되어 1973년부터 수업이 이루어졌고, 1975년 미술교육과 내에 조소실이 준공되었다. 이에 대해 유병호는 1973년 한남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생기면서 고등학교 미술교사들에 의해 움직였던 미술활동이 대학교로 이동되었다고 회고했다.¹⁷

1973년 미술교육과가 개설되면서 강광식(姜光植), 김수평(金水平), 이인영(李仁榮), 김세원(金世源), 백현옥이 차례로 임용되면서 1970년대 교수진이 꾸려졌다. 강광식과 김수평은 승전대학교 재직 당시 학생들을 독려해 《제1회 승전대학 미술교육과 졸업전》을 개최하였으며, 백현옥은 조소 분야에서 부임된 첫 교수였다.¹⁸ 그중에서도 김수평은 대전의 탈평면화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19751225 그룹'에 영향을 준 교수로, 1970년대 쇠약한 미술대학 분위기를 딛고 대전권에서 현대미술 그룹이 자생적으로 씨앗을 터트릴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¹⁹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승전대학교는 다시 분리되어 대전 캠퍼스가 한남대학교로 독립, 서울캠퍼스는 숭실대로 환원되었다. 분리와 동시에 1982년 12월 한남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85년 사범대학을 신설하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가 되었다. 1980년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는 최국병(崔國炳), 홍용선(洪容宣), 박병희(朴炳熙), 김동창(金東昌) 등이 임용되었다. 1979년 신설된 응용미술과 교수로는 최영근(崔榮根), 변건호(卞健



승전대학(1970~1982)의 모습

16 1982년 분리되기까지 숭실대는 '승전대 서울 캠퍼스', 대전대는 '승전대 대전 캠퍼스'라고 불렀다.

17 신동국, 유병호, 이종협, 정길호, 정장직, 「19751225 그룹 인터뷰」,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43.

18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는 첫째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도 조소 분야에 전임교수가 초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조각가들이 강사로 내려와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1978년에서야 백현옥이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이때까지는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모전에 도전하여 성과를 올리면서 조소 전공이 유지되었다.

19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40.

豪), 송순영(宋淳永) 등이 부임하였고, 1985년 문리과학대에 회화과(동·서양화)가 개설되면서 교수로 이재호(李在皓)가 부임하였으며, 강사로 정명희(鄭莫熙)가 있었다.

1990년대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술학과 산업미술이 신설되었고, 응용미술과 입학정원이 6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듬해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1979년 처음 신설되었던 응용미술과를 공예·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하였고, 1985년 개설되었던 회화과를 미술·조형디자인학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응용미술과(공예·디자인전공)에 박동교(朴東教) 교수, 회화과(미술·조형디자인학부)에는 강구철(姜求鐵)이 부임하며 1990년대 교수진이 완성되었다. 1980, 90년대 부임한 교수진 중, 홍용선(洪容宣)과 박병희, 이재호(李在皓), 강사로 활동한 유명호(兪炳昊)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제1회 졸업생(1977)으로서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연혁

연도	내용
1956. 4.	4년제의 대전기독교학관(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 대표이사 Thomas D. Linton)을 설립인가
1956. 4.	대전기독교학관 개관 및 초대관장에 인톤(William A. Linton) 박사가 취임
1970	숭실대와 통합한 송전대학
1972. 12.	2부 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신설(1973년부터 실수업)
1974. 12.	2부 대학에서 문리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1975. 12.	미술교육과 조소실 준공
1977. 2.	제1회 졸업생 배출
1979. 3.	문리과학대에 응용미술과 개설
1980. 4.	재단 이사회에서 양 캠퍼스의 분리, 독립 운영의 결의
1982. 12.	한남대학으로 교명을 변경 출발
1985. 10.	문리과학대에 회화과(동·서양화) 인가(1986년 개설) 교육부로부터 종합대학 승격 인가를 받고 사범대학을 신설(미술교육과)
1985. 11.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여 한남대학교로 인가
1989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 개설
1993.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술학과 산업미술 전공 신설
1998. 3.	응용미술과 입학정원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
1999. 3.	회화과와 학부를 구성하여 미술·조형디자인학부로 개편 응용미술과를 공예·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
2000. 3.	미술·조형디자인학부를 조형예술학부로 명칭 변경 조형예술학부를 회화전공으로 개편, 공예·디자인전공을 디자인전공으로 변경
2004	디자인전공을 디자인학과로 변경

5) 공주사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

공주사범대학은 1948년 7월 31일, 주한미군 정청 문교부로부터 2년제 사범대학(초급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교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주여자사범학교와 시설을 공유하던 중 충청도청의 협조로 1949년 11월, 봉황산 아래 옛 충남 감영 터에 캠퍼스를 마련할 수 있었다.²⁰

1949년 12월, 개교 1주년 기념식을 치렀고, 1950년 6월 21일, 도립에서 국립으로 이관되며 국립공주사범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54년 2년제의 사범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다.²¹

한국전쟁 직후까지 국립공주사대는 국문과·수학과·물상과 밖에 없는 초급대학이었으나,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교육학과·국문과·수학과·물리과·화학과·생물과가 개설되었고, 정원도 460명으로 늘어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0년에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어 공주사범대학에서 '공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듬해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다.²² 이후 예산농업전문대학(1992), 공주문화대학(2001), 천안공업대학(2005)과 통합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는 1973년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개설되었다. 초기에는 정원이 20명이었으나 1976년까지 해마다 10명씩 증원되어 입학정원이 40명으로 확장되었다. 1978년 미술관이 준공되었으며,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52명까지 정원이 확장되었다.



신관동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 공주사범대학 반죽동 캠퍼스 정문, 1961.



공주사범대학 신관동 캠퍼스, 1969.

²⁰ 『공주대학교 70년사 자료집』(국립공주대학교, 2019), pp. 12-13.

²¹ 『공주대학교 70년사』(국립공주대학교, 2019), p. 59.

²² 사범대학 입학정원 455명(15개 학과/9개 전공), 인문사회과학대학 입학정원 230명(7개 학과), 이공대학 입학정원 320명(8개 학과) /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정원 435명(26개전공), 일반대학원 정원 48명(4개학과).

미술교육과 교수로는 이남규(李南圭), 김정헌(金正憲), 이석구(李錫九) 등이 있었는데, 1975년 이남규 교수가 가장 이른 시기 임용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80년대 김정헌과 임재우가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0년대에는 이석구, 최기성, 유순식, 임재광 등이 교수로 부임하였다. 공주사범대학에서는 해마다 교내미전을 개최했으며, 1977년에는 《제1회 웅진소품전》을 열었다.

1983년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동문 모임이 세라비(C'EST LA VIE)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세라비가 결성된 2년 뒤에는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이 열렸다. 1983년 창립전을 가진 '세라비'는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최초의 단체였으나 평면적 한계성을 넘지 못했다.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은 脫평면화 된 작품과 당시 신군부와 5.18 광주학살 사건을 주제로 하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²³

조소 전공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이정갑과 홍익대학 출신의 김경화 교수가 부임하면서 중등 미술교사를 배출하는 한편, 조소 전공 교육이 시작되었다.²⁴ 이후 졸업생인 이경우와 박영환, 강상희 등은 공모전과 개인전을 통하여 작가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경 〈금강조각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연혁

연도	내용
1948. 7. 31.	주한미군정청 문교부로 2년제의 충청남도립 공주사범대학 설립 인가
1949. 12. 1.	개교 1주년 기념식 거행
1950. 6. 21.	국립공주사범대학으로 이관
1954. 4. 1.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4년제로 공포
1963. 8. 12.	현재 박물관의 전신인 향토관 개설 부여고등학교 김달수 교감의 소장 유물(약 90점) 기증
1972	향토관의 박물관 승격
1973. 12. 28.	미술교육과(20명) 신설(1974년부터 모집)
1975. 12. 30.	미술교육과 10명 증원(입학정원 30명)
1976. 12. 31.	미술교육과 10명 증원(입학정원 40명)
1978. 7. 8.	(가정)미술관 준공
1981. 11. 25.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미술교육전공 신설(정원 200명)
1990. 3. 1.	국립학교설치령 개정령(대통령령제12941호)에 의거 교명을 “공주사범대학”에서 “공주대학”으로 변경
1991. 3. 1.	국립학교설치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32호)에 의거 종합대학교로 승격
1994. 11. 20.	미술교육과 개설 20주년 행사
1999. 11. 2.	대학원 석사과정 미술학과 신설

²³ 김미정, 「근·현대기 공주미술사 해제」,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연구』(공주시청, 2023), pp. 39-40.

²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제4장-조각, 현대 조각과 충남조각」, 『충청남도지 제24권 현대예술』(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 183.

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단국대학교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백범 김구의 뜻에 따라 독립운동가 범정(梵亭) 장형(張炯) 선생과 혜당(惠堂) 조희재(趙喜在) 여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1947년 낙원동에서 개교하였다.²⁵ 당시 법정학부(법률학과, 정치학과)와 문리학부(사학과, 수학과, 물리과)로 인가받아 96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해방 후 설립된 최초의 사립대학 출범을 알리는 단국대학 제1회 입학식이 1947년 12월 8일에 열렸다. 이후 1949년 12월 26일 신당동 조선전업협화장으로 교사를 이전했으나, 한국전쟁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단국대학교도 재개교를 준비해 1957년 7월 12일, 한남동 캠퍼스에 입교하였다. 1967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1978년 충청남도 천안에 종합대학교로는 최초로 분교를 건립했다. 이후 2007년 서울캠퍼스가 수지로 이전되었다.²⁶



개교 당시 낙원동 교사 전경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관 A, B동

단국대학교에 설립된 최초의 예술학과는 요업공예학과로 1972년에 개설되어 현재는 도예학과로 개칭되었다.²⁷ 천안캠퍼스에는 1978년 1월 분교가 설립되면서 1979년 9월 산업미술학과가 신설되었다. 1980년 산업미술학과 신입생 78명을 선발하였고, 1984년 산업미술학과가 예술대학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회화과·공예과(1988)가 신설되었다. 1988년 예술대학 제1회 졸업생 155명을 배출시켰으며, 같은 해 회화과를 서양화과(40명)와 동양화과(40명)로 분리하여 증설하였다. 이와 같은 미술교육의 확대 및 세분화는 전국 대학가에 불었던 조직개편의 일환 중 하나였다. 그로 인해 종래예술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미술대학이 독립하고 미술과 관련한 학과가 신설

²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과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최초의 민족사학으로 단국(檀國)이란 교명 역시 백범 김구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²⁶ 죽전캠퍼스에 문과대학·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경영경제대학·공과대학·SW융합대학·사범대학·음악·예술대학, 천안캠퍼스에 외국어대학·과학기술대학·생명공학대학·예술대학·스포츠과학대학·의과대학·공공·보건과학대학·간호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 등 설치.

²⁷ 『실용성보다 조형예술로』, 『조선일보』(1972. 4. 30).

되어 전문화 및 세분화가 가속화되었다.²⁸ 이후, 1999년에는 미술 계열 4개 학과를 조형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예전공)와 미술학부(서양화전공, 동양화전공)로 개편하였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수학한 작가로는 회화과(서양화) 전공의 변영환이 1998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 입학해 2000년 졸업한 바 있다. 한국화가 김대열은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단국대학교 회화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해 2022년 정년퇴임한 임재광 교수도 단국대학교에 출강한 바 있다.

연혁

연도	내용
1947. 11. 1.	단국대 설립
1972	(죽전) 요업공예학과 개설
1977. 6.	천안시 안서동 산 36번지 일대 6만여평 매입
1977. 8.	천안캠퍼스 신축 착공
1978. 1.	천안캠퍼스에 5개 학과의 신설 인가를 받아 3월에 개강
1979. 9.	(천안) 문교부로부터 인문과학대학 산업미술학과로 신설인가
1980	(천안) 산업미술학과 신입생 78명 선발
1983. 9.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설립인가
1984	(천안) 산업미술학과를 예술대학 소속으로 변경 (천안) 예술대학 회화과 신설
1988	(천안) 공예과 개설(1987년 9월 공예학과 설립인가) (천안) 예술대학 제1회 졸업생 155명 배출 (천안) 회화과를 서양화과와 동양화과로 분리 증설하여 총 6개학과 운영
1989	지하1층, 지상4층의 예술관 A, B동 설립
1999	(천안) 미술계열 4개학과 개편-조형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공예전공)와 미술학부(서양화전공, 동양화전공)
2011	지상3층의 예술관 C, D동 설립

²⁸ 「대학가 미술교육 확대 바람」, 『경향신문』(1988. 11. 9).

7) 배재대학교

‘배재대학교’는 대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1895년 아펜젤러 목사가 세웠던 배재학당 대학부를 계승한다.²⁹ 그러나 1925년 배재대학 교명이 일제에 의해 폐지되면서 대학부의 맥이 오랜 세월 끊기게 된다. 이후 배재대학의 동문이었던 이승만의 협조로 서울시 성북구에 대학 부지를 받았으나 4.19혁명으로 땅을 몰수당해 무산되었다.

배재대학교가 도마동에 학교를 설립하게 된 때는 1973년이다. 1977년 하워드관, 1979년 아펜젤러관이 차례로 준공됨에 따라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전보육학원의 후신인 대전여자초급대학과 1977년 합병하면서 ‘배재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80년 배재대학이 되었으며 19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게 된다.³⁰

배재대학교 미술과는 1981년 미술교육학과로 출범해 임립, 정해조(공예), 백철(디자인), 김치중(서양화), 김송열(동양화), 홍성경(조소) 교수를 초빙하였다.

이후 1994년 산업미술학과가 인가되었고, 1996년 예체능대학이 인가되어 미술학부가 되었다. 1998년에는 미술학부가 산업미술, 순수미술 전공의 두 분야로 분리되어 개설되었다.

연혁	
연도	내용
1885. 8. 3.	배재학당 창립(설립자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1895. 9. 1.	배재대학부 설치(영문학과, 국한문학과, 신학과)
1925. 9. 17.	배재학당 교명 폐지(조선총동부)
1977. 10. 14.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학교법인 대전보육학원 합병
1979. 2. 15.	아펜젤러관 준공(대전 도마동)
1979. 3. 1.	배재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1980. 12. 29.	배재대학(정규 4년제) 설립 인가(10개 학과, 400여명) 미술교육과 개설
1994. 9. 5.	산업미술학과 인가
1996. 10. 24.	예·체능대학 인가(미술학부)
1998. 10. 19.	미술학부 산업미술, 순수미술 전공으로 변경

²⁹ 배재학당은 1885년에 설립되었고, 배재학당 대학부는 1895년 개설되었다. 다만, 명칭만 ‘대학부’였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기관은 아니었다.

³⁰ 「내년부터 종합대로」, 『동아일보』(1980. 8. 29).

8)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는 6·25전쟁 중,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피난 온 민태식 교수와 한학자 김순동이 전시연합대학을 계획하면서 설립되었다.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당시 대덕군 출신 제헌국회의원 송진백이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1951년 5월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문리과, 법과, 경상과 등 3개 학과의 전시연합대학이 설립되었다.³¹ 민태식 교수가 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이 전시연합대학이 충남대학교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

충남대학교 미술학과는 1982년 3월 문과대학 내에 소속되어 한국화·서양화·조소·디자인·공예 전공으로 교과과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88년 3월 예술대학이 문과대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신설되었고, 같은 해 예술대학에 산업미술학과가 신설되면서 미술학과는 한국화·양화·조소 전공으로, 산업미술학과는 시각디자인·공예 전공으로 각각 분리되었다.³²

1989년 3월 예술대학의 미술학과가 회화과와 조소과로 개편되면서 회화과·조소과·산업미술학과 체제가 되었다. 새로운 학제 개편 이후, 각 전공수업을 위한 교수 초빙이 이루어졌다. 첫 전임교수로 홍동식(회화과)과 남철(조소과)이 부임했다. 특히 조소과는 남철 교수의 부임으로 지역 조각계에서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야외조각전을 개최하거나 각종 공모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³³ 이후 회화과에 김영배(金寧培)·임립(林立)·김영대(金榮大)·윤여환(尹汝煥) 교수가 임용되었고, 디자인에는 김진, 신언모 교수가 임용되어 1980년대 충남대학교 미술학과의 교수진을 구성하였다.



개교 1주년 기념식, 1953(출처: 『사진으로 보는 충남대학교 70년사』(충남대학교, 2022))



예술대학 현판식, 1988.

31 『대전일보』(1951. 8. 21).

32 오치규, 「1980년대 충남대학교 미술학과 설립과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광자진취(狂者進取)-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103.

33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남철」,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pp. 236-238.

충남대 미술학과의 첫 전시는 1983년 대전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982년 신설학과로 개최되는 터라 1, 2학년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전시였으나 한국화·서양화·조소·디자인 등 다양한 작품으로 충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알리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후, 미술학과가 신설된 지 단 5년 만에 1986년 조소과를 선두로 1987년 서양화, 1988년 한국화, 1989년 공예·디자인으로 각각의 동

문전이 생겨났다. 조소과는 1985년 ‘충남조각연구회’를 창립해 1986년 《제1회 충남조각연구회》를 대전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87년 서양화과에서 《충남서양화회》라는 창립전을 열었다. 한국화 전공 학생들은 1988년 《신세대 목채전》(대전 MBC문화공간)을, 공예과는 1989년 《무브(MOVE)》란 명칭으로 제1회전을 삼성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³⁴

1986년에는 전임교수와 재학생, 외부 인사들과 함께 실기수업과 점목시킬 수 있도록 이론 학술지인 『충대미술』을 발간했으며, 1988년에는 예술대학 내에 ‘예술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논문집을 발행하고 교수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야외조각전》, 1994

연혁

연도	내용
1952. 5.	도립 충남대학교 설립인가 문리과대학(문과, 이과, 법학과)
1962. 3.	도립 충북대학교를 흡수, 국립 충청대학교로 발족
1982. 3.	문과대학에 미술학과 신설
1983. 12.	충남대 미술학과 첫 전시회 개최(대전시민회관)
1986	《제1회 충남조각연구회》(대전시민회관) 개최 / 이론학술지 『충대미술』 발간
1987	《충남서양화회》 개최
1988. 8	예술대학이 문과대학으로부터 분리, 미술학과도 한국화 전공, 서양화 전공, 조소 전공으로 분리 / 산업미술학과 신설 《신세대 목채전》(대전 MBC문화공간) 개최 예술대학 내, 예술문화연구소 설립
1989. 3.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미술학과 신설 예술대학의 미술학과가 회화과와 조소과로 개편 《무브(MOVE)》(삼성갤러리) 개최
1993. 3.	교육대학원에 미술교육전공 신설
2003. 2.	디자인관 증축 완공
2005. 3.	대학원 석사학위 일반과정에 산업미술학과 신설

34 앞의 글, p. 104.

9)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명대학교는 1937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상명고등기예학원(祥明高等技藝學園)으로 창립되었다.³⁵ 일본 도쿄 고등기예학교(東京高等技藝學校) 사범과를 졸업했던 배상명(裵祥明)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조선 여성에게 수예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교수하며 가장 단기간 내에 수예 기술자의 소양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³⁶ 이후 1945년 7월 15일 해방 직전 재단법인 상명학원을 설립했으며 1965년, 상명여자사범대학으로 개교했다. 천안캠퍼스는 1984년 10월 6일 개설 인가를 받았고,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개설되었다.

1987년 예술대학이 산업대학으로 변경되었으며, 산업대학 내에 섬유디자인과·의상디자인학과·실내디자인학과(1987)가 신설되었고, 요업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과에서 분리되었다. 1990년에는 디자인대학을 설립하고 산업디자인학과를 시각디자인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년에는 학부제를 도입하여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에 6개 전공으로 구성하였다.

연혁	
연도	내용
1937. 12. 1.	상명고등기예학원(祥明高等技藝學園) 창립
1945. 7. 15.	재단법인 상명학원 설립
1965. 3. 5.	상명여자사범대학 개교, 미술교육과 신설(서울)
1978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신설(서울)
1983	상명여자사범대학에서 상명여자대학으로 학교명 변경 시 미술교육과에서 예체능학부 미술학과로 편제(서울)
1984. 6. 29.	천안캠퍼스 내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개설
1986. 11. 6.	상명여자대학교로 승격 인가
1987. 3. 1.	예술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변경 (섬유디자인학과(40명), 의상디자인학과(40명) 실내디자인학과(40명) 신설,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요업디자인학과로 분리
1990	산업대학에서 디자인대학으로 개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시각디자인학과로 명칭 변경
1996. 3.	상명여자대학 상명대학교로 학교명 변경
1999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6개 전공(시각디자인, 의상디자인, 섬유디자인, 실내디자인, 요업디자인, 제품디자인)으로 변경 디자인대학원에서 예술·디자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³⁵ 「상명고등기예학원」, 『동아일보』(1937. 11. 17): 「새로 설립된 학원 상명고등기예학원, 12월 1일부터」, 『조선일보』(1937. 11. 19)

³⁶ 개교 당시 단기기술 교육과정으로 본과(本科)·전공과(專攻科)·연구과(研究科)를 설치하였다.

10) 대전개방대학(현 국립한밭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4년제 종합대학으로, 그 전신은 1927년 충청남도 홍성에 개교한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이다. 1935년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교명을 대전공립공업전수학교로 변경하였다. 개교 이래 대전공립직업학교, 대전공립공업중학교, 대전공업전문학교, 대전공업전문대학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승격·발전해왔다.

1984년 정부의 개방대학 설치 시책에 따라 4년제 대전개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1985년 3월 1일 산업디자인학과가 신설되었다. 1984년 학과가 개설되면서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출신의 김희춘, 최영보, 중앙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의 김진용(金鎭龍), 신용순 교수가 차례로 임용되었

다. 김희춘 교수는 부임과 동시에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교과과정을 수립해 디자이너 양성에 기여했으며, 1996년 대전산업대학교 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를 맡아 지역기업의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이후 1990년 공업디자인학과가 분리되었고 산업디자인학과가 시각디자인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3년 대전공업대학에서 종합대학인 대전산업대학교로 승격되었고, 2001년 한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교사 전경, 1927.



대전개방대학 개교식, 1984

연혁

연도	내용
1927. 4. 1.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3년제) 개교(가구, 단공, 판금)
1935. 4. 1.	대전공립공업전수학교(3년제) 개편
1941. 4. 1.	대전공립직업학교(3년제) 개편
1944. 4. 1.	대전공립공업중학교(4년제) 개편
1945. 12. 31.	대전공립공업중학교(6년제) 개편
1949. 12. 31.	대전공업중학교(6년제) 개편

연도	내용
1951. 8. 31.	대전공업고등학교 및 한밭중학교로 개편
1951. 10. 10.	대전공업고등학교(3년제) 개편(1965년 폐교)
1968. 3. 1.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국립이관
1974. 3. 1.	대전공업전문학교(2년제) 개편
1979. 1. 1.	공업전문학교에서 공업전문대학 개편 인가
1984. 1. 9.	대전개방대학(4년제)으로 승격
1985. 3. 1.	산업디자인학과(시각·공업디자인) 신설
1988. 3. 1.	대전공업대학으로 교명 변경
1990. 3. 1.	공업디자인학과 분리
1993. 2. 4.	산업디자인학과 명칭을 시각디자인학과로 변경
1993. 3. 1.	대전공업대학에서 대전산업대학교로 종합대학 승격
2001. 3. 1.	한밭대학교로 교명 변경

11)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1984년, 조치원 일대가 섬유 공단 부지로 선정되어 인구와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시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부권의 교육 및 공업도시로 발돋움하였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 힘입어 1987년 건설부로부터 조치원 제2캠퍼스 공공시설을 승인받아 1988년 조치원 캠퍼스를 준공하였다.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미술대학이 순수미술 전공들로 구성된 것과는 다르게 조치원캠퍼스에 상업미술(디자인, 영상)에 초점을 맞춰 전공을 개설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1988년 광고디자인학과, 산업공예과 외 9개 학과 정원 330명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1992년 조형학부를 신설하였고, 1995년 산업공예과와 광고디자인학과를 조형학부로 개편하였다. 같은 해에 산업대학원이 설치되어 광고·산업공예디자인학과가 신설되었고, 1997년 산업공예전공을 가구·제품디자인 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도자공예·금속공예·목칠공예 등의 세부 전공으로 이루어진 산업공예과에는 도자공예에 이일로(李一魯, 1944~), 금속공예에 고승관(高丞觀, 1943~), 목칠공예에 곽대웅(郭大雄, 1941~) 등이 부임하며 교수진이 꾸려졌다. 이후 산업공예전공은 1997년 가구·제품디자인 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광고디자인과는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으로 전공명을 변경하였고, 교수진에는 홍익대 공예학부 도안과 출신의 오근재(1941~2022)와 류재우(柳在雨, 1943~)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혁	
연도	내용
1988	조치원캠퍼스 건물 준공(광고디자인학과, 산업공예과 등 11개 학과 330명 인가)
1992	1991 산업대학을 과학기술대학과 조형대학으로 개편 조형학부 신설
1995	산업공예과와 광고디자인과를 조형학부로 개편 산업대학원 설치, 광고·산업공예디자인학과 신설
1997	산업공예전공을 가구·제품디자인 전공으로 명칭 변경
1998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40명 증원
1999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과 애니메이션(신설) 통합

12) 공주문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

‘공주문화대학’은 1963년 4월 9일 간호학과
의 전신인 ‘공주간호고등기술학교’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간호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가한 1960년대의 흐름에 맞춰 공주도 공주의료
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과 인력을
이용한 간호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1973년
‘공주간호전문학교’로 승격되어 3년제로 운영되
면서 도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었고, 1979년 ‘공
주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 1982년 ‘공주전문대
학’으로 국립 이관되었다.



만화학과의 수업 광경. 연도 미상

공주문화대학의 예술대학은 1988년도 민속공예과와 1990년 만화예술과가 신설되면서 자
리를 잡았다. 민속공예과는 1995년 산업공예디자인과로 이름을 바꾸어 순수예술에 실용을 더했
다. 1994년에 산업영상과와 1998년에 귀금속가공디자인과를 개설하였으며 교육영역을 예술과
공예로 확대하여 주간 14개 학과, 야간 2개 학과 재적 학생 수 2,200여 명 규모의 전문대학으로
발전하였다.³⁷

1990년에는 국내 최초로 만화예술과를 신설해 국내 교육기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만화
예술학과 신설에 앞장섰던 임청산은 “당시 만화는 곧 퇴폐문화였고, 사회적 문제 중 하나였다”고
회고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예술로 훌륭한 작가를 양성하고 배출하고자 ‘만화예술학과’를 신
설했다고 말했다.³⁸ 초빙된 교수로는 백준기(白俊基)가 있으며, 만화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예술성
과 대중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를 마련하였다.³⁹ 국립공주대학교와 통합된 이후
에는 《세종국제만화영상전》과 같은 공모전에서 공주대학교 만화학부 김미림 교수가 심사위원장
을 맡으며 국내 만화계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1998년 대학 특성화 전략과 4년제 승격을 위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공주문화대학으로 개
칭하였다가 ‘문화대학 4년제 승격’ 운동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국립공주대학교와
통합이 추진되었다. 결국 2001년 공주대학교와 통합이 이루어졌고, 공주문화대에 있던 예술 관

37 『공주대학교 70년사』(국립공주대학교, 2019), pp. 175-176.

38 임청산, 『공주대학교 70년사 자료집』(국립공주대학교, 2019), pp. 236-237.

39 「만화의 시인 '카투니스트' 한칸에 담은 '심라만상」, 『경기일보』(2002. 4. 8).

런 학과들은 기존 공주대학교에 유사학과가 없어 '영상보건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연혁	
연도	내용
1963. 4. 9.	문교부에서 충청남도 도립 간호고등기술학교 설립인가
1963. 6. 13.	초대 교장 조태룡(도립 공주병원장) 취임
1972. 12. 18.	공주간호고등기술학교 폐지, 문교부 도립 공주간호전문학교 설립인가
1973. 3. 1.	도립 '공주간호전문학교' 개교
1979. 1. 1.	도립 '공주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 인가
1981. 5. 15.	예술관(옥룡동 캠퍼스) 준공 및 대학 본부 이전
1982. 3. 1.	공주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국립으로 이관
1988. 11. 8.	민속공예과 신설 인가(입학정원 40명, 총정원 2학급 80명)
1989. 10. 31.	만화예술과 신설 인가(입학정원 40명, 총정원 2학급 80명)
1994. 9. 4.	민속공예과가 산업공예디자인과로 학과 명칭 변경 만화예술과 40명 증원, 총정원 4학급 160명 인가
1997. 10. 12.	산업공예디자인과 40명 증원, 총정원 4학급 160명 인가
1997. 10. 16.	4년제 '문화대학교' 승격개편 추진 발기인 총회(공주문화원)
1999. 3. 1.	'공주문화대학'으로 교명 변경
2000. 3. 1.	공주대학교와 통합

13)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아산캠퍼스), 천안시 동남구(천안캠퍼스), 당진시 석문면(당진캠퍼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이다. 강석규(姜錫圭, 1913~2015) 박사가 기독교적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개신교 산하 미션스쿨이다.

강석규 박사가 중심이 되어 1978년 학교법인 '천원학원'을 설립하였고, 1979년 충남 천안시에 1979년 '천원공업전문대학'을 세워 초대 학장에 강석규 박사가 취임하였다. 1980년 12월 4

년제 대학으로 개편하여 천원학원을 '호서학원'으로, 천원공업전문대학을 '호서대학'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1984년 아산시에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였다. 이후 1988년 인문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이공대학·예술대학으로 종합대학인가를 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호서대학교에 개설된 응용미술학과는 1988년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기 전, 1983년에 정원 39명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1988년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며, 예술대학 내에 개설되었다. 1992년 실내디자인학과가 신설되었고, 1995년 산업디자인학과 내에 세부전공으로 응용미술학과와 실내디자인학과로 조정되었다. 1998년에는 예술관을 증축하였고, 1998년에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신설해 전통 있는 교육체제와 빠르게 변화하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흐름에 맞춘 커리큘럼을 적용시킨 바 있다.

교수진으로는 홍익대 도안과 출신의 이원구(李元求, 1947~),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의 나성남(羅成男, 1945~) 프랫 인스티튜드(Pratt Institute) 출신의 장욱선(張旭善, 1959~) 교수 등이 부임하였다. 나성남 교수는 시각디자이너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소속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로고를 제작한 바 있어 일찍이 호서대학교 응용미술학과와 위상을 높였다.

이원구 교수는 1987년 호서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5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2013년 퇴임하였다. 이원구 교수는 25년 동안 300회가 넘는 공모전 수상으로 유명한 호서대학교 광고 동아리 '피바(FIVA)'의 지도교수로 부임과 동시에 동아리를 탄생시켰다. "우루~사"라는 멘트로 유명한 제약 광고를 만든 광고인이었던 이원구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훈련의 기초를



수상작품집 출판기념, 호서대 응용미술학과 학생들과 이원구 지도교수, 1992.

가르쳤고, 이는 광고 동아리 '피바'가 각 공모전에서 대상을 휩쓰는 데에 일조했다. 함께 만든 광고로 받은 상금을 모아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1992년에 첫 수상 작품집도 제작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도1). 이들의 활동은 선배도 없는 지방대생이라는 의식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라는 인정을 받았다.⁴⁰ 프랫 인스티튜드(Pratt Institute) 출신의 장옥선 교수 역시 학생들과 공모전에 주력해 그 결과 세계 3대 공모전에서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호서대 시각디자인학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힘쓰기도 하였다.⁴¹

연혁	
연도	내용
1978. 3. 31.	학교법인 천원학원 설립 신청
1978. 7. 19.	학교법인 천원학원 설립 인가
1978. 12. 28.	천원공업전문대학 설립인가
1980. 12. 29.	호서대학으로 개편 인가, 천원학원을 호서학원으로 명칭 변경
1983. 9. 2.	응용미술학과 신설(39명)
1988. 10. 29.	종합대학인가(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1989. 2. 28.	제2캠퍼스 개교(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989. 10. 25.	단과대학 명칭변경: 예술대학을 예체능대학으로
1992. 7. 31.	실내디자인학과 신설(정원 30명)
1993. 2. 8.	예술관(1,331평) 준공
1994. 9. 5.	대학 학생정원 조정 응용미술학과(40명→60명)
1995. 10. 4.	대학 학생정원 조정 및 통폐합 산업디자인학과(응용미술학과 60명, 실내디자인학과 30명)
1995. 10. 18.	산업디자인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 신설(정원 15명)
1997. 11. 5.	단과대학 명칭변경: 예체능대학을 예술대학으로 변경
1998. 8. 19.	예술관(602평) 증축
1998. 10. 19.	제2공학부에 애니메이션학과 신설(1999년부터 입학생 모집) 예술학부 - 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학) / 정원100명 제2공학부 - 애니메이션학과

40 김연극, 「광고전 상금 천만원 후배에 장학금」, 『조선일보』(1991. 2. 23).

41 「호서대 시각디자인과 '세계 최고」, 『은양신문』(2014. 8. 5).

14)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사립대학이다. 1993년 개교하였으며, 1998년 지금의 남서울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3년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며 산업디자인학과를 개설하여 조형예술을 기초로 한 복합적 연구와 실험으로 예술가와 디자이너 양성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응용 산업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1995년에는 유리조형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환경조형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998년 애니메이션학과를 신설하였다.

산업디자인학과에는 1994년 박승대(朴承瞻) 교수가 취임한 이후로 선병일(宣炳一, 1958~), 김창경, 윤홍렬 교수 등이 차례로 임용되었다. 특히 윤홍렬 교수는 지역 문화산업에서 디자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애니메이션학과에는 1998년 미국에서 광고학 석사와 미술학을 전공했던 이정재 교수가 부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박윤성 교수가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산업예술 분야에 대한 육성을 인정받아 대학 교육협의회 주관 디자인 영역에서 학문 평가가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혁

연도	내용
1993. 12. 21.	남서울대학교 대학설립인가(8개 학과 840명)
1994. 2.	산업디자인학과 개설, 신입생 80명(주, 야 40명)
1995. 3. 1.	환경조형학과(유리공예) 신설
1996. 3.	신입생 120명(주, 야 60명) 입학
1997. 2.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시각정보디자인학과로 명칭 변경
1998. 5. 1.	애니메이션학과 신설
1998. 10.	제1회 남서울조형전(예술의 전당) 개최

15)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는 1991년 설립된 4년제 사립대학교로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 메디컬캠퍼스'가 있다. 대한민국의 안과 의사이자 김안과병원 설립자인 김희수(金熺洙, 1928~) 박사가 1980년 학교법인 '건양학원'으로 설립하였다. 1980년 교육부 승인을 위해 '논산대학'으로 인가신청을 제출했으나 1990년 최종적으로 건양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건양대학교 미술학과는 1994년 중어중문·일어일문·세무학과와 함께 신설되었고,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의 학생 증원이 있었다. 1995년부터 교수 충원이 이루어졌으며 박완용(朴完用, 1959~), 안의중(安義鍾, 1958~), 이장원(李長遠, 1959~), 류철호 교수(1957~)가 차례로 임용되었다.

박완용 교수는 《충남한국화협회전》, 《충남미술전》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안의중 교수는 1997년 미술학과, 도자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충남 연기군 출신이었던 안의중 교수는 충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해 한남대학교 박병희 교수를 만나 조각의 깊이를 더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여기에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출신의 류철호 교수가 1996년 임용되며 미술학과 교수진을 구성하였다.

연혁	
연도	내용
1980. 5. 16.	학교법인 '건양학원' 설립
1980. 12. 19.	가칭 '논산대학'으로 설립계획, 교육부 승인
1990. 11. 28.	건양대학으로 10학과 설립 인가(1991년부터 입학생 모집)
1992. 4. 1.	종합대학 승격
1994. 9. 5.	4개 학과 신설(중어중문, 일어일문, 미술학과, 세무학과)
1995. 10. 4.	미술학과 증원
1996. 10. 24.	미술학과 증원

16) 한서대학교

한서대학교는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에 캠퍼스를 둔 사립대학이다. 1989년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1991년 학교법인 합주학원의 합기선(咸基善, 1941~)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영어영문학과, 중국어학과, 수학과 등 10개 학과 400명 정원으로 운영되다가 1995년 총 23개 학과, 정원 910명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33개 학과, 정원 1,207명으로 증원되었다. 같은 해 예술계통의 산업디자인학과와 영상미술학과의 신설되었다.

특히 영상미술학과는 1990년대 말, 대학의 특성화와 정보화 사회에 맞추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였다.⁴² 충청남도는 뉴미디어시대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제 외국 애니메이션 업체의 유치에 나서기도 하였다.⁴³ 여기에 컴퓨터 예술가 김윤(金潤, 1959~)이 한서대 영상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김윤은 한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사이버 생명체의 창조》라는 전시를 개최하거나 한글의 아름다움을 빛낸 비디오 아트 작업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⁴⁴ 이러한 그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1999년 동아일보사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전》(이화여대 미술대학 전시관 개최)에서 한서대학교 영상미술학과에 재학중인 이승운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⁴⁵ 이 전시는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을 한눈에 파악해 산업디자인과 디지털애니메이션 등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전시였고, 이는 한서대학교의 영상미술학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혁	
연도	내용
1989. 10. 28.	한서대학교 설립계획 승인
1990. 4. 11.	한서대학교 기공식
1996. 3. 1.	산업디자인학과, 영상미술학과 신설
1997. 10. 25.	예술대학원 10명 모집 인가
1998. 3. 1.	예술대학원에 영상예술관리학과 신설
1999. 3. 1.	예술대학원 영상예술관리학과 예술관리학과로 명칭 변경

⁴² 장창환, 「인터뷰 김기주 한서대 총장, 서해안 시대 사학 명문 만들 것」, 『매일경제』(1996. 11. 21).

⁴³ 장창환, 「애니메이션 단지 세운다」, 『매일경제』(1997. 7. 21).

⁴⁴ 유인화, 「'사이버 생명체의 창조' 컴퓨터예술가 김윤 4번째 조각전」, 『경향신문』(1998. 3. 20); 김보협, 「몸으로 빛어내는 한글의 아름다움」, 『한겨레』(1998. 10. 8).

⁴⁵ 김종래, 「컴퓨터그래픽 최신동향 한 눈에」, 『동아일보』(1999. 8. 20).

17)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는 1980년 한의사 임달규(林達圭, 1931~1988)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0년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1981년 3월부터 신입생 입학하였다. 당시 캠퍼스의 완공이 미루어지자 대전 시민회관을 빌려 입학식을 거행했고, 학생들은 임시교사에서 강의를 들었다. 이후 대학의 체계를 갖추어 1988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5개 단과대학, 25개 학과, 입학정원 1,110명으로 운영되었다.



대전대학교 캠퍼스 전경, 1993.

대전대 서예과는 199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1998년 3월 2일 30명의 정원으로 본교 문과대학에 서예과가 신설되었으며, 1999년 3월부터 학부제로 문과대학 예술학부 서예전공으로 전환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교수로 부임한 서예가 정태희(鄭台喜, 1951~)는 1998년부터 대전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서단의 부흥과 지역 청년 작가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1회 대한민국 서예 청년작가전》을 개최하며 순수 예술인 서예 발전과 부흥에 힘썼다.⁴⁶

같은 시기 함께 신설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시대 변화에 따라 신설된 학과로 당시 사회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주목을 받았다.⁴⁷ 초기에는 공과대학 내에 개설되었으나 1년 뒤, 전공 명칭을 바꿔 서예학과와 함께 문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⁴⁸ 설립과 함께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출신의 김성학이 전공 교수로 임용되었다.

연혁

연도	내용
1980. 10. 30.	학교법인 혜화학원 설립인가
1981. 3. 1.	대전대학 개교
1984	박물관 개관
1988. 10. 29.	종합대학교 인가

⁴⁶ 이호영, 「대전대 김수명·박정택·황호병·정태희 교수 정년퇴직」, 『굿모닝충청』(2017. 2. 23).

⁴⁷ 김형기, 「대학정원 조정 특색」, 『조선일보』(1997. 11. 6).

⁴⁸ 1998학년도에 이과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로 입학한 자는 문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P. 95.

연도	내용
1989. 3. 1.	종합대학교 인가에 따라 “대전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7	교육부로부터 서예과 설립 인가
1998	문과대학 내 서예과 신설(정원 30명) 공과대학 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개설
1999	문과대학 내 서예과 → 문과대학 내 서예학과 변경 공과대학 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 문과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변경
1999	서예 전공 정태희 교수 취임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전공 김성학 교수 취임

III

논고

도입기(개화기~1945) 충남미술의 흐름과 특징 | 최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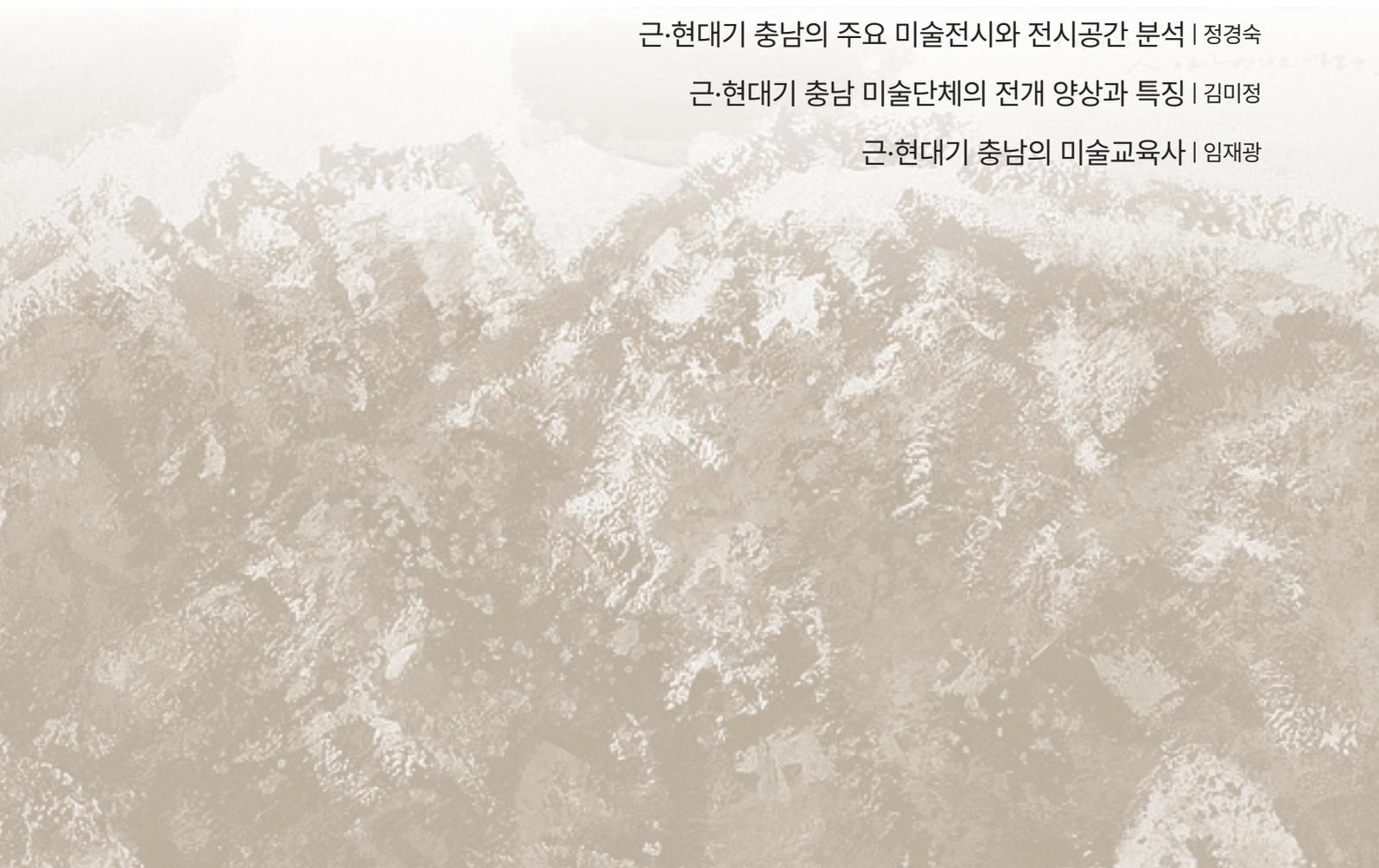
해방 이후(1945~1969) 충남미술계의 새로운 분위기와 전개 양상 | 이안나

1970년 이후 충남미술계의 전개 양상 - 충남미술 속 실험정신과 다양성 | 허나영

근·현대기 충남의 주요 미술전시와 전시공간 분석 | 정경숙

근·현대기 충남 미술단체의 전개 양상과 특징 | 김미정

근·현대기 충남의 미술교육사 | 임재광



도입기(개화기~1945) 충남미술의 흐름과 특징

최경현 | 천안시립미술관 관장

I. 머리말	IV. 서구미술의 수용과 확산
II. 조선미술전람회와 충남미술	1. 서양화
III. 전통미술의 근대적 계승 및 변형	2. 조각·공예
1. 서·사군자	V. 맺음말
2. 동양화	

I. 머리말

1876년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1910년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일상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일본식으로 재편 왜곡되었다. 이 시기는 전통과 근대, 보수와 혁신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경성(京城)을 비롯한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서구미술이 빠르게 전파된 반면, 전통미술은 쇠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한양을 무대로 한 중앙화단 이외에, 풍부한 경제력과 문화적 기반을 가진 평양·대구·개성·전주 등지에서 화가군과 후원자가 등장하며 지방화단이 형성되었다.¹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는 19세기 전반 백제의 옛 수도인 공주에서 문인화가 이계호(李繼祐, 1754~1833)가 목포도도로 화명을 알리는 정도였다.² 따라서 충남미술이라 할 수 있는 집단적 미술활동은 20세기 초를 지나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회화 방면에서는 정성원(鄭成源, 1881~1962)과 정술원(鄭述原, 1885~1955)이 산수와 화조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경배(李慶培, 1898~1960)와 조동욱(趙東旭, 1899~1944)은 목란화가로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화명을 알렸다.³ 반면 서구미술은 1910년 식민통치 이후, 일본인에 의해 근대 교육제도가 확대되면서 신흥도시 대전과 조치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충남미술의 이러한 양상은 충남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물인 『충남미술가편람

1 유홍준, 「開花期·舊韓末 書畫界의 保守性과 近代性: 1880년부터 1910년 사이 미술의 동향」, 『舊韓末의 그림』(학고재, 1989), pp. 77~93.

2 강영주, 「조선 후기 화가의 재발견: 휴당 이계호(1754~1833)의 생애와 포도도 연구」, 『대동문화연구』 120(대동문화연구원, 2022. 12), pp. 3~72.

3 김소연, 「근대기 공주의 서화계: 서화 창작과 수집, 그리고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2022. 12), pp. 39~64.

I』에서도 일부 확인된다.⁴ 또한 공주 서화계에 관한 연구성과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충남미술의 도입기, 즉 개화기부터 1945년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나 관련 자료가 드물어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충남미술과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 도록 총 19권과 관련 신문 기사 및 관보, 직원록 등에서 조사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도입기의 주요 흐름과 작가들의 면모 및 활동 등의 지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먼저 일본 총독부가 1922년부터 1943년까지 총 23회에 걸쳐 개최한 조선미전에 공주·부여·연기군(조치원)·대전 등 충청남도 지역에서 특·입선한 작가와 작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요 경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조선미전 입선 작품을 전통미술과 서구미술로 구분한 다음, 작가들을 다시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도입기 충남미술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II. 조선미술전람회와 충남미술

식민 통치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일본은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 소산이라 할 수 있는 서화(書畫) 전통을 단절시키고, 회화·조각·건축·공예 따위를 포함하는 미술(美術)로 대체하려 하였다. 이때 근대 교육의 본격적 실시로 전국에 배치된 일본인 도화(圖畫)교사들을 통해 서구미술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동시에 총독부는 서화계 인사들의 창작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일본식 미감으로의 전환을 위해 1922년 조선미전을 도입하였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조선미전은 한국 근대미술의 능동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하였다.⁶ 그러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선미전은 도입기 충남미술의 종합적 검토에 필요한 작가와 작품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충청남도에서도 1922년 1회 조선미전부터 1944년 23회까지 해마다 특·입선자가 배출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도록』 총 19권과 일제강점기의 관보 및 신문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충남에서 특·입선한 작품은 총 136점이며, 작가는 한국인 18명과 일본인 36명으로 총 54명이 확인된다. 한국인은 묵란화가 이경배와 조동욱을 비롯해 동양화가 조중현과 김화경, 서양화가 송병돈·박성섭·구중서·김두환·김인숙·이선이·이창규·황진국, 조각가 유진명 등이 활동하였다. 일본인들 가운데 조치원의 아시타 칸(明日勘)과 대전의 다카시마 이사오(高島功), 후루타

4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 학술지포지엄 자료집(2022. 2).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 신수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5 김미정, 「공주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분석」,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2022. 12), pp. 7~37; 김소연, 앞의 논문; 노유니아, 「아카이브를 통해 본 이완석의 행보: 여명기의 디자이너, 해방 후 한국미술의 후원자」,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2022. 12), pp. 65~93.

6 채승희,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식민지 문화정치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현숙, 「朝鮮美術展覽會의 官展 樣式: 東洋畫部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2005), pp. 155~184; 김시습, 「미술에 개입된 일제 식민주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5(2018. 7), pp. 7~36 등 다수.

요시헤이(古田嘉平), 스가키 사다코(須ヶ木定子), 고리야마 미토시(郡山美利), 이시바시 요시로(石橋吉郎), 안보 미치코(安保道子) 등은 조선미전에서 4번 이상의 특·입선을 차지하여 주목된다. 이밖에 대전의 근대 도예가 스기미즈 다케우에몬(杉光武右衛門)도 있다【부록】〈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에서 특·입선한 충남 작가와 작품들〉 참조).⁷ 이와 관련한 내용은 Ⅲ장 ‘전통미술의 근대적 계승 및 변형’과 Ⅳ장 ‘서구미술의 수용과 확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조선미전 1회는 1부 동양화, 2부 서양화·조각, 3부 서(書)로 구성되어 사군자(四君子)는 동양화부에 포함되었다. 사군자는 1924년 3회부터 3부 서에 편입되었으나, 1932년 11회부터 3부가 공예(工藝)로 대체되면서 다시 동양화로 편입되었다. 이때 2부 서양화에 포함되었던 조각도 사라졌다가 1935년 14회부터 3부로 다시 편입된 이후, 1944년까지 1부 동양화, 2부 서양화, 3부 조각·공예로 지속되었다. 조선미전의 이러한 장르 변화과정을 통해, 전통미술을 계승하는 서화시대에서 서구미술 위주의 미술시대로 옮겨 갔던 미술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충남미술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미전에서 특·입선을 차지했던 한국인과 일본인의 작품을 동양화, 서양화, 서·사군자, 조각·공예의 네 가지 장르로 구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표1]을 작성하였다.

[표1]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에서 특·입선한 충청남도 작가의 작품수

	동양화	서양화	서·사군자	공예·조각	합계
한국인	7	18	11	1	37
일본인	20	64	2	13	99
합계	27	93	9	14	136점

[표1]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선미전에서 특·입선을 차지한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약 3배 정도 많았으며, 장르는 서양화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충남미술이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면서 서양화가 빠르게 확산됨과 동시에 전통미술의 기반은 위축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미전 1부 동양화에 특·입선한 작품들은 대개 전통미술에 근대적 미감을 절충하거나 일본화를 수용하여 변화를 모색하였기 때문에 전통회화에서 점차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조선미전에서 전통이 지속된 분야는 서예와 사군자라고 할 수 있으며, 1932년 11회부터 3부 서·사군자가 폐지되면서 서화계의 전통 기반이 크게 위축되었다. 충청남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서·사군자로 전통 서화의 맥을 겨우 잇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조선미전에서 특·입선을 차지한 작가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출품 지역을 자세히 구분한 [표2]를 작성하였다. 이는 공주·논산·당진·대전·부여·서

⁷ 【부록】〈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에서 특·입선한 충남 작가와 작품들〉은 필자가 『조선미술전람회도록』 총 19권을 비롯해 관보, 신문 자료, 직원록 등을 비교 대조하여 이름의 오기를 바로 잡았고, 지명도 새롭게 확인한 것임을 밝혀둔다.

천·아산·연기군(조치원) 등으로 구분한 다음, 한국인과 일본인을 다시 동양화, 서양화, 서·사군자, 조각·공예의 장르별로 특·입선한 작품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2]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에서 특·입선을 배출한 도시와 작품수

		공주	논산	당진	대전	부여	서천	아산	연기군 (조치원)	예산	천안	청양	충남
한국	東	2						2	3				
	西	4			2			2	2	4	1	4	1
	書	10							1				
	工			1									
일본	東	1			9		5		1				4
	西	4	4	3	33	1			9	3	1		4
	書						2						
	工	1			9						2		1
총136		22	4	4	53	1	7	4	16	7	4	4	10

(※ 사군자는 1부 동양화부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필자는 서·사군자로 분류함)

이를 통해 공주에서는 한국인이 서·사군자 방면에서 주로 입선하며 전통미술이 강세였다면, 서양화는 대전의 일본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전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서구미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1905년 경부선 개설과 1932년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의 이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충남미술의 센터가 역사도시 공주(公州)에서 행정도시 대전(大田)으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방화단은 정치·경제·문화 등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사회 안정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1922년 시작된 조선미전이 근대작가로의 등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작가들은 풍부한 경제력과 후원자를 찾아 도시를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충청남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공주의 이상범(李象範, 1897~1972)과 홍성의 이응노(李應魯, 1904~1989)가 일찍이 상경하여 미술교육을 받고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문인화가 정성원(鄭成源, 1881~1962)과 부여 출신 서예가 유치웅(兪致雄, 1901~1998)도 1922년과 1923년 각각 경성으로 이주하였다. 어쨌든 대전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력이 풍부해지면서 충남의 근대미술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더불어 공주·연기군(조치원)·아산·예산·청양·천안 등 지에서도 한국인이 조선미전 서양화부에 입선한 사실은, 충남미술이 서구미술 위주로 재편되어 갔음을 알려준다.

다음 장에서는 충남미술의 도입기에 활동한 한국인과 일본인 작가들의 행적 및 어떠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Ⅲ. 전통미술의 근대적 계승 및 변형

전통 서화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장르인 서·사군자는 공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공주와 부여에서 수묵채색화를 비롯한 사군자, 서예, 전각 등의 전통적인 창작활동 및 향유가 이루어졌다. 1921년 8월 20일 공주의 공자묘 명륜장에서 열린 백일장이나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이 공주와 부여를 찾아 각각 공주서화회(公州書畫會)와 부여서화전람회(扶餘書畫展覽會)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사실에 설득력을 더해준다.⁸

동양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화법을 계승·지속한 경우와, 일본화나 근대적 미감 및 일본식 표현기법 등을 절충하여 조선미전에 입선한 그림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공주 출신 정성원과 정술원을 꼽을 수 있으며, 후자는 조선미전 동양화부에 입선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에 해당된다.

1. 서·사군자

한국인은 서·사군자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공주 출신의 이경배(李慶培)와 조동욱(趙東旭)은 조선미전에서 각각 4번과 6번의 입선을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때문에 이들의 묵란화는 『매일신보』를 비롯한 『동아일보』 등에 신년휘호(新年揮毫)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경배는 공주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성의 선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이때 고모(영의정을 지낸 김병학 며느리) 집에 머물며 김용진(金容鎭, 1878~1968)에게 묵란화를 배웠다. 그는 스승의 영향을 받아 민영익(閔泳翊, 1860~1914) 묵란화법에 호방한 기운을 더하여 개성적 화풍을 완성하였다. 이후 1929년 8회 조선미전부터 1932년 11회까지 연속 입선을 하면서 묵란화가로 이름을 알렸다.⁹ 1929년 조선미전에 입선한 그의 〈묵란도〉(도1)는 노근란(露根蘭)으로 민영익 특유의 묵란화풍을 계승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그가 1931년 3월 1일 전주공회당에서 변관식(卞寬植, 1899~1976)과 함께 서화전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매일신보(每日申報)』 기사에서 “석연 이경배 화백(일명은 素剛山人)씨의 특장은 사군자로서 수십년간을 故 芸眉 민영익씨의 제자가 되어 연구한 결과 조선미술전람회 외 경성서화협회전람회에 입선 혹은 특선의 영예를 득하여 사계의 명성이 혁혁하다.”라고 한 것에서도 사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¹⁰ 더불어 1930년대 초에 이르면 이경배가 변관식과 함께 전람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회적 인지도가 상당하였음도 알려준다.

조동욱은 1922년 1회 조선미전에서 〈수류화개(水流花開)〉(도2)를 이리에서 출품하여 입선한 이후, 1925년 4회 조선미전에서 〈석란도〉 2점이 입선하며 본격적으로 등단하였다. 1922년 입

8 『매일신보』(1921. 8. 21); 『매일신보』(1921. 8. 20).

9 이경배는 조선미전에서 〈묵란〉(공주 1929), 〈菊〉(공주 1930), 〈幽谷香〉(공주 1931), 〈石蘭〉(공주 1932)으로 4번 입선했다. 『조선미술전람회도록』 8~11권(1929~1932).

10 「小亭 石淵 兩畫伯 展覽會開催: 벌써부터 請求者 逕至로 盛況 三月一日 全州公會堂에서」, 『毎日新報』(1931. 2. 18).

선한 묵란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난초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청대 양주화파 정섭(鄭燮, 1693~1765)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 반면 1925년 〈석란도〉(도3)는 이하응(李晙應, 1820~1898)의 묵란화법도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후 조선미전에서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연속 입선을 차지하며, 이경배와 함께 공주를 대표하는 묵란화가로 자리매김하였다.¹¹ 일례로 조동욱과 이경배가 1931년 7월 18일 정오부터 충남도평의회장에서 전람회를 개최한다는 광고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도



도1. 이경배, <묵란>, 1929, 제8회 조선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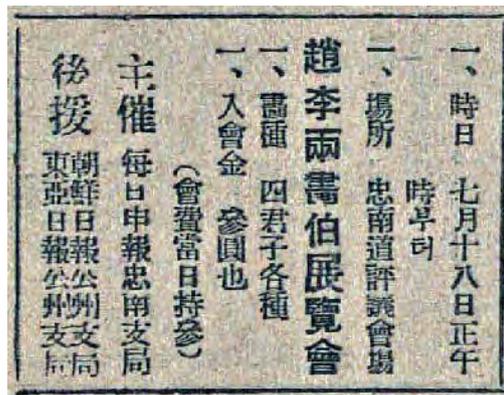


도2. 조동욱, <수류화개>, 1922, 제1회 조선미전



도3. 조동욱, <묵란>, 1925, 제4회 조선미전

4).¹² 이밖에 그는 공주를 비롯한 대구·광주·군산·경성 등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도5).¹³ 1936년 무렵 조동욱의 명성과 사회적 위치는 상당하였으며, 다음의 기사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4. 조이양화백전람회(趙李兩畫伯展覽會)
(출처: 『매일신보』, 1931. 7. 8)



도5. 조동욱 개인전 광경(출처: 『松齋 趙東旭 個展』,
『매일신보』 1941.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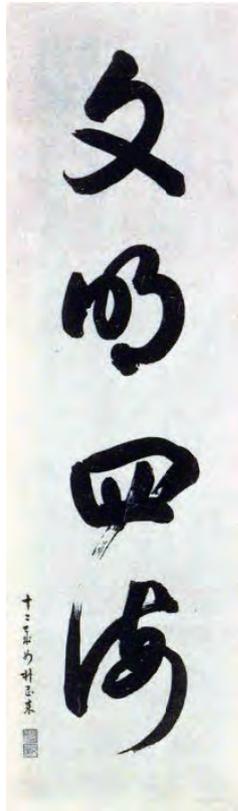
11 조동욱은 조선미전에서 <수류개화(水流花開)>(이리, 1922), <蘭> 2점(공주 1925)을 비롯해 <蘭>(공주 1931), <石蘭>(공주 1932), <石蘭>(공주 1934), <수류개화>(이리 1936)으로 6번 입선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 4, 10, 11, 13권(1922, 1925, 1931, 1932, 1934).

12 『每日申報』(1931. 7. 8).

13 「趙松齋畫伯作品展覽會 廿六日大邱公會堂서」, 『每日申報』(1934. 5. 26); 「松齋畫伯展覽會盛況」, 『每日申報』(1934. 9. 13); 「畫家趙東旭氏 作品展覽會」, 『朝鮮中央日報』(1936. 2. 17); 「裡里松齋畫伯 書畫展覽會 群山서 開催」, 『每日申報』(1936. 6. 2).



도6. 김진우, <묵매>, 1928, 제7회 조선미전



도7. 박창래, <문명사해>, 1924, 제3회 조선미전



도8. 박창래 사진과 기사(출처: 『매일신보』 1924. 6. 4)

(군산) 석란화의 권위로 명성이 높은 송재 조동욱 화백 작품전람회는 29일 府廳樓上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필력의 웅건과 고아한 풍격에 입장자는 압도되어 그 頒布를 구하는 자가 많아 갑자기 30여 폭의 신청자가 있었지만 그는 미술 애호의 정신을 인정 그러한 풍조를 배양하기 위해 염가로 비단 1폭을 5원에 제공하였고, 화백 후원회 조직에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磯部謙哉, 花岡鶴松, 李鍾國, 李喆衡, 李晚秀, 大澤藤十郎, 河上藤太郎, 竹部政俊, 牛尾正一, 上田勝, 文鎮龜, 洪麒植, 東仲兵衛, 有澤作治, 有馬長次郎, 秋山忠三郎, 佐藤德軍, 北村直甫, 宮崎保一, 徐鴻善 ……¹⁴

또 다른 공주 출신의 친일관료 김우진(金字鎭)도 1928년 7회 조선미전 서·사군자에 매화 그림으로 입선하였다(도6). 이는 공주에서 시서화일치를 중시하는 사군자를 매개로 전통미술의 창작 및 향유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밖에 조치원의 박창래(朴昌來)가 1924년 3회 조선미전에서 <문명사해(文明四海)>(도7)로 입선하였다. 이러한 첫 입선을 알리는 1924년 6월 4일 『매일신보』의 다음 기사를 통해 인적사항과 사승관계를 알 수 있다(도8).

14 「松齋畫伯의作品展, 石蘭畫의權威」, 『朝鮮新聞』(1936. 7. 3).

이번에 미술전람회에 진열한 총 점수 225점 중에 제일 많은 인기를 끌며 보는 사람마다 경탄함을 마지 않게 하는 글씨 한 폭이 있다. 그는 충남 조치원공립보통학교 제6학년생 박창래로 당년 12세 소녀가 출품한 文明四海라 쓴 초서인데 그 글씨가 불과 녀자에 지나지 못하는데 大字이로대 그 신묘한 필법은 풍운의 조화가 들어있는 듯하고 더욱 이 글씨를 쓴 주인공이 나이 제일 어린 여학생으로 작품이 다른 유명한 서화대가의 출품을 압도할 만큼 되었으므로 관중은 두 번 세 번 거듭보며 그의 천재를 무한히 칭찬하는 바 박창래는 일곱 살에 보통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에 번번히 우량한 성적으로 진급하여 왔는데 글씨에 대하여는 그 학교 선생들도 박창래의 필적을 따를 수 없다고 양보한다 하며 그는 학교에 다녀와서 학과를 복습한 여가에는 다시 그 조부 朴東根 씨에게 서법을 배워 익히는 중인데 ……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해강 金奎鎭 씨에게 나아가서 몇 해 동안 글씨를 전문으로 배울 예정이라 한다. (후략).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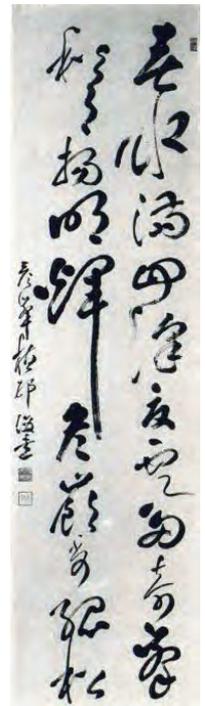
이에 의하면 박창래는 12세 여학생으로 조치원공립보통학교 6학년이며, 입선한 큰 글씨의 <문명사해>가 전시장에서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할아버지 박동근(朴東根)에게 가학으로 서예를 배웠으며, 졸업하면 경성의 김규진을 찾아 글씨를 배울 예정이라는 장래 포부까지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미전 첫 입선을 계기로 박창래는 화재성을 지닌 여성 서예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1925년 『매일신보』에 그녀가 쓴 <축매일신보(祝每日新報)>라는 글씨가 신년회호로 소개되어 있다(도9).

일본인으로 서예 방면에서 존재를 드러낸 인물은 우에무라 이츠사쿠(植村逸策)가 유일하며, 그는 1925년 4회와 1927년 6회 조선미전에서 초서로 쓴 <사계일절(四季一絶)>(도10)과 <야천풍물(野川風物)>로 입선하였다. 그는 서전에서 공공 의료업무에 종사했던 공의(公醫)로 여가에 서예를 즐기는 문인화가였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미술을 계승한 서·사군자는 조선미전에서 한국인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전통적 방식의 사승관계를 통해 서예와 사군자를 학습하였다. 그럼에도 이경배와 조동육은 물론 초등학교 여학생 박창래가 조선미전을 통해 서화가로



도9. 박창래, 신년회호
(출처: 『매일신보』,
1925. 1. 3)



도10. 植村逸策, <사계일절>, 1925,
제4회 조선미전

¹⁵ 「12세 미만의 朴昌來嬢: 그의 신묘한 필법에는 풍운의 조화가 어린 듯」, 『每日申報』(1924. 6. 4).

¹⁶ 신문 광고에서 “舒川 公醫 植村逸策”가 확인된다. 『京城日報』(1935. 2. 16; 1937. 12. 28; 1939. 3. 6).

서의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에서 시대적 변화가 감지된다.

2. 동양화

충청남도에 거주한 일본인은 조선미전 동양화부에서 꾸준히 특·입선을 차지한 반면, 한국인은 1930년대 중반부터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동양화는 지필묵을 사용한 일본화(日本畫)이거나 전통회화에 동시대의 미감과 일본식 표현기법 등을 절충한 근대화화를 의미한다. 일본인으로는 노구치 야스무(野口保)¹⁷와 고바야시 지로(小林二郎)가 1923년 2회 조선미전에 각각 <달이 뜬 밤은 예쁘다(月は淀える夜は曳ける)>(도11)와 <선암조양(仙巖照陽)>(도12) 2점으로 입선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전의 이와타 요시노스케(岩田吉之助)가 1931년 10회와 1932년 11회에 각각 <금강산외 만상정(金剛外山 萬相亭)>(도13)과 <대경성(大京城)>으로 입선하였다. 그는 대전연초회사(大田煙草會社) 지점장인 니시무라 데츠지로(西村哲次郎)의 동생이며, 1930년 가을 대전에 도착해 금강산을 탐승하고 그린 <금강산외 만상정>이 첫 입선을 했던 것이다.¹⁸ 이 작품은 관념산수화에서 벗어나 경물을 서양의 일점투시도법으로 포착하여 실경산수화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며, 아련한 안개 표현 등에서 일본화의 특징들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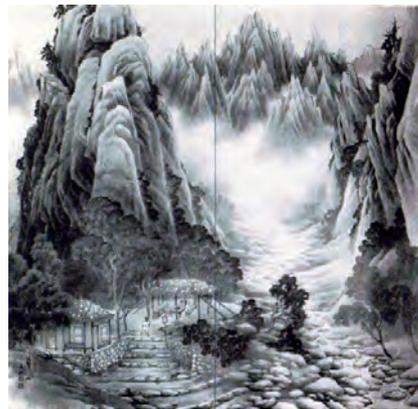
대전의 이시바시 요시로(石橋吉郎)는 1935년 14회 조선미전에서 <천춘(淺春)>과 <국화(菊)>로 각각 특선과 입선을 하였고, 1936년 15회는 <초하(初夏)>로, 1937년 16회는 <금강청추(金剛淸秋)>로 입선하였다. 특선의 <천춘>은 비둘기가 대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일본적 미감을 강하게 드러낸다(도14). 그는 1931년부터 1942년까지 대전중학교 교사(敎諭)로 재직했



도11. 野口保, <달이 뜬 밤은 예쁘다>, 1923, 제2회 조선미전



도12. 小林二郎, <선암조양> 1, 1923, 제2회 조선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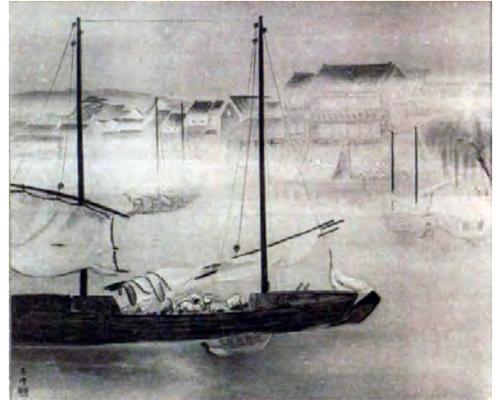
도13. 岩田吉之助, <금강산외 만상정>, 1931, 제10회 조선미전

¹⁷ 노구치 야스무(野口保)의 1927년 6회 <首夏의光>과 1935년 14회 <いちほつ>, 1943년 22회 <新粧>은 모두 부산에서 출품해 입선하였으며, 이로 보아 1920년대 후반 충남에서 부산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¹⁸ 「忠淸南道 鮮展初入選: 즐거움 가득한 가정」, 『京城日報』(1931. 5. 22); 각주 32 참조.



도14. 石橋吉郎, 〈춘춘〉, 1935, 제14회 조선미전



도15. 古谷鍊介, 〈명석항의 아침〉, 1935, 제14회 조선미전

며,¹⁹ 조선미전에 입선한 작품들은 이시바시 요시로가 도화교사였음을 입증해준다. 역시 대전에서 활동한 후루야 겐스케(古谷鍊介)는 일본의 항구 마을을 풍경화처럼 그려낸 〈명석항의 아침(明石港の朝)〉(도15)으로 1935년 14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하였고, 1936년 15회에는 〈초하(初夏)〉로 입선하였다. 그러나 1939년부터 입선한 〈계곡의 봄(溪谷の春)〉(18회 1939)을 비롯한 〈소나무(松)〉(19회 1940), 〈만춘(晩春)〉(20회 1941), 〈춘광(春光)〉(21회 1942), 〈소나무〉(23회 1944)는 모두 경성 출품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미전에 입선한 작품의 출품지가 대전에서 경성으로 바뀐 것은, 후루야 겐스케의 근무지가 이동되었음을 알려준다.



도16. 安保道子, 〈총후〉, 1938, 제17회 조선미전

또 다른 일본인 루키야 미치코(安保道子)²⁰는 〈어린이(こども)〉로 1936년 15회 조선미전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이때 출품 지역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장항제련소(長項製鍊所) 사택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루키야 미치코는 일본인 아내 또는 자녀였던 것으로 유추된다. 그녀는 어린이 놀이를 소재로 한 〈돌깨기(石けり)〉로 1937년 16회에서 무감사 특선하였고, 1938년 17회와 1939년 18회에서 각각 〈총후(銃後)〉(도16)와 〈소요(素遙)〉로 입선하였다. 일본인 화가 마츠다 레이코(松田黎光, 1898~1941)는 1938년 입선한 〈총후〉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색조를 사용했지만 이 작가는 어린이 세계를 접고 벗어나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작품도 어린이의 오른손은 잘 표현했다.”라고 평하였다.²¹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루키야 미치코는 소녀나 여성의 일상을 전형적인 일본화법으로 묘사하는 인물화가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¹⁹ <https://www.history.go.kr>(2023. 10. 15 검색)

²⁰ 荒井 經・日比野 民蓉, 「朝鮮美術展覧会における日本人画家・安保道子について」, 『東京藝術大学美術学部紀要』 52(2014. 12), pp. 47~64.

²¹ 松田黎光, 「日本畫評(中)」, 『朝鮮新聞』(1938. 6. 11).



도17. 조중현. <가네하학>, 1936, 제15회 조선미전

이밖에 대전의 나카니시 츠히사키(中西津久技)는 <꽃(花)>으로 1941년 20회 조선미전에서, 서천의 마사로 기노리(眞城奇範)는 <한계(寒溪)>와 <산가연우(山家煙雨)>로 각각 1942년 21회와 1943년 22회에서, 공주의 야스다 치카요시(安田近義)는 <고가(古家)>로 1943년 22회에서, 조치원의 하시모토 모토타카(橋本元孝)는 <지도세가(指導歲家)>로 1944년 23회에서 입선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도록이 제작되지 않아 이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충청남도에서 일본인 화가들의 창작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동양화가들의 활동은 전통회화가 근대화화로 옮겨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1936년 연기군의 조중현(趙重顯, 1917~1982)이 조선미전을 통해 동양화가로 처음 등단하였다. 그는 1936년 15회 조선미전에서 <가네하학(アネハ鶴)>(도17)으로 첫 입선을 하였으며, 1936년 5월 13일 『매일신보』의 기사는 그림에 입문했던 조중현의 초기 상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入選은 意外 今後도 精進: 조중현군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출생으로 당년 20세의 청년이다. 4년 전에 연기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세의 빈궁으로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있으면서 틈있는 대로 그림에 취미를 붙여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림에 열중하였다 한다. 금번 입선은 意外로 금후에도 더욱 정진하겠다고 한다(도18).²²

이는 조중현이 김은호 문하에 입문하기 이전, 독학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가 1937년 16회와 1938년 17회 조선미전에서 각각 입선한 <만추(晩秋)>와 <웅시(雄視)>는 경성 출품이며,²³ 첫 입선 이후 김은호 문하에 입문했다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 이후 그는 1942년 21회에서 독수리들을 관찰하고 그린 <독수리(鷲)>(도19)로 첫 특선을 하였으며, 1942년 5월 29일 『매일신보(每日新報)』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수리 作者 松岡重顯씨: 동양화 독수리(鷲)로 초특선을 한 嘉會町 31번지의 96호 송강중현씨는 충청남도 출신으로 고향에서 소학을 마친 뒤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김은호씨의 지도를 받

²² 「美術의 龍門에 오른(2) 新人들의 깃분은」, 『每日申報』(1936. 5. 13).

²³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0. 15).



도18. 조중현 사진과 첫 입선 신문기사(출처: 『매일신보』 1936. 5. 13)



도19. 조중현, <독수리>(특선), 1942(출처: 「初特選의 깃뭉치」, 『매일신보』 1942. 5. 29)

고 7년 전에 선전에 초입선을 하였다. 그후 동경미술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하고 작년에는 <닭>과 <꽃> 두 가지로 입선을 하였다. 씨를 자택으로 찾으니 외출하고 그의 모당 김씨가 초특선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새는 몹시도 궁극한 듯이 자리가 붙지 않더니 이 기쁨을 빨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그림은 동물원에 40일 동안이나 다녔고 집에 와서도 스무날이나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힘든인 보람이 나와서 껍이나 기뻐할 것입니다.'²⁴

위의 내용을 보면 조중현은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다 김은호에게 배웠고,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서 1년 동안 그림을 연구하다 귀국해 1941년 20회 조선미전에서 <종려(棕栢)>와 <닭(鷄)>이 입선했다고 한다. 그런데 <종려>와 <닭>은 조중현의 고향인 연기군 출품으로 되어 있어, 일본에서 고향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2년 21회 때 특선한 <독수리(鷲)>와 1943년 22회 입선의 <악어(鱷)>, 1944년 23회 특선의 <대기(待機)>는 모두 경성 출품으로 1941년 이후 중앙화단에서 활동하였음을 입증해준다.²⁵ 또한 조중현이 스승 김은호의 영향을 받아 1940년대 전반까지는 사생(寫生)에 기반한 공필진채의 동물화와 화훼화에 천작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 다른 공주 출신 이팔찬(李八燦, 1919~1962)도 1935년 대성중학교를 3년 수료한 다음 경성의 김은호를 찾아 그림을 배웠다. 그리고 조중현처럼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일본화과에 입학하여 1943년 9월 졸업했다. 그는 일본 유학 중에 그린 <타조(駝鳥)>(도20)가 1940년 19회 조선미전에 입선하면서 등단하였다. 이어서 1942년 21회와 1943년 22회 조선미전에서 각각 입선한 <설모(雪暮)>와 <중국 부인(支那의婦人)> 역시 유학 중에 그린 것이다. 이팔찬은 유학하는 동안 세 번 입선하였는데, 1940년 <타조>는 경성, 1942년 <설모>와 1943년 <중국 부인>은 공주 출품으로 지역이 다르다. 이는 귀국해서 잠시 머물던 지역을 조선미전의 출품지로 표기하면서 지역이 달라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팔찬 역시 1940년대 전반에는 스승 김은호의

²⁴ 「初特選의 깃뭉치」, 『毎日新報』, 1942.5.29.

²⁵ 조중현은 일본식으로 개명한 松岡重顯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함.



도20. 이팔찬, <타조>, 1940, 제19회 조선미전



도21. 김화경, <세배>, 1940, 제19회 조선미전

영향을 받아 공필진체의 동물화와 인물화를 주로 그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산의 김화경(金華慶, 1922~1979)은 15세였던 1936년 김은호, 박광진, 허백련, 김복진이 종합미술학원으로 개설한 조선미술원(朝鮮美術院)의 연구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조선미술원이 문을 닫으면서 낙청헌으로 옮겨 그림을 배웠다. 그는 1940년 19회 조선미전에 경성 출품의 <세배(歲拜)>(도21)가 입선하면서 동양화가로 등단하였다. 이 작품은 스승 김은호의 인물화풍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1940년 6월 2일 『동아일보(東亞日報)』에 실린 첫 입선 관련 기사는 그 무렵의 활동상을 알려준다.

전조선 미술전람회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인데 영예의 입선된 분이 388점입니다. 그중에는 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입선된 분이 있으니 동양화계에 중진인 李象範씨와 그의 아드님이며, 형제가 입선한 분은 林鴻恩씨와 그의 아우 林同恩씨입니다. 그리고 허립씨와 허건씨 두 형제도 역시 함께 입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우리 어린 어린이 일요지에 번번히 만화를 발표해서 여러분의 갈채를 받아오던 金華慶 씨가 이번에 동양화에 입선이 되었습니다. 은사되시는 金殷鎬 선생의 장려와 채죽질로 밤잠을 아니자고 공부한 결과로 이번에 영예의 입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무들의 언니되시는 여러 분이 입선을 하신 중에 우리와 만화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김화경씨의 입선을 보게 된 것은 실로 기쁜 일입니다(도22).²⁶

이를 통해 김화경이 1940년 무렵 『동아일보』의 어린이 만화를 그렸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그도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워 인물화로 첫 입선을 한 다음 해인 1941년 9월 일본의 제국미술학교 일본화과에 입학하여 1943년 11월 중퇴할 때까지 중퇴와 입학의 반복하였다. 이 시기에 그린 김화경의 <세 여인(三人の女)>과 <온양교외(溫陽郊外)>가 각각 1942년

26 「全朝鮮美術展覽會에 입선자 三八八인」, 『동아일보』 1940.6.2(『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p. 112 재인용).

21회와 1943년 22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하였는데, 모두 충남 '아산'으로 출품되었다.²⁷ 이는 조중현처럼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조선미전에 출품할 때에는 고향 아산이라 표기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인 동양화가 조중현과 이팔찬, 김화경은 충남보다는 경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충남 출신의 조중현, 이팔찬, 김화경이 일본 유학 중에 고향인 연기군, 공주, 아산이라 적어 조선미전에 출품한 사실은, 그들이 고향과 경성, 일본을 오가며 창작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기반은 김은호 화풍이 충청남도에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서 충남미술이 후소회(後素會)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직접적 배경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²⁸



도22. 김화경 사진과 첫 입선 신문기사(출처: 『동아일보』 1940. 6. 2)

IV. 서구미술의 수용과 확산

서양화로 대표되는 서구미술은 대전의 일본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도화교사였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일본인은 도화교사로 후학을 양성함과 동시에 작가로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모색하는 이중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1950년대에 충청남도에서 미술교사들이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충남에서 서양화가로 처음 등단했던 송병준이 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 조선미전에 입선한 것은, 서구미술의 확산에 일본인 도화교사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조각 방면에서 기야마 마사아키는 유일한 조선미전 입선자이며, 공예의 경우는 대전의 스키미즈 다케우에몬이 계룡소를 운영하며 조선미전의 연속 입선으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도입기에 조각과 공예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1. 서양화

일본인은 1922년 1회 조선미전부터 1944년 23회까지 서양화부에서 다수 특·입선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특히 대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조선미전에서 각각 7번과 6번 특·입선을 한 다카시마 이사오(高島功)와 후루타 요시헤이(古田嘉平)가 주목된다. 먼

²⁷ 김화경은 이때 일본식으로 개명한 '金山華慶'이라는 이름을 사용함.
²⁸ 이만나, 『충남화단으로 이어진 후소회의 맥』, 『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2022. 2), pp. 35~43.



도23. 高島功, 〈아이들〉(특선), 1938, 제17회 조선미전

저 다카시마 이사오는 1930년 9회 조선미전에서 〈푸른 옷을 입은 남자(靑い服を着たる男)〉로 입선한 이후, 1931년 10회 입선의 〈야채바구니를 든 여인(野菜籠を持てる女)〉, 1932년 11회 입선의 〈부인좌상(婦人座像)〉, 1933년 12회 입선의 〈파이프를 든 남자(パイプを持つ男)〉, 1938년 17회 특선의 〈아이들(子供達)〉(도23), 1941년 20회 입선의 〈비행기 이야기(飛行機ノ話)〉, 1942년 21회 입선의 〈노모(老母)〉가 확인된다. 이러한 작품

들은 수준은 높지 않지만, 근대 문물을 수용한 인물이나 어린이를 소재로 다루며 조선의 향토색을 드러내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카시마 이사오는 1929년부터 1942년까지 대전고등여학교에 근무했던 도화교사로 창작활동을 병행하였다.²⁹

후루타 요시헤이는 1931년 10회 조선미전에 〈정물〉이 입선하면서 등단하였다. 이때 그를 포함한 이와타 요시노스케(岩田吉之助), 다카시마 이사오, 사이토 오미시로(齋藤三四郎), 오에스미코(大江澄子) 4명이 동시에 입선하였으며,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경성일보(京城日報)』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0회 선전에서 대전 출품은 10여 점이었으며 제1부(동양화)는 岩田吉之助, 제2부(서양화)는 高島功, 齋藤三四郎, 古田嘉平, 大江澄子 4명이 입선의 영예를 누리니 본인은 물론 각 가정도 첫 입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대전).

岩田吉之助씨-秀湖가 호이며 大田煙草會社 지점장 西村哲次郎의 令弟이며 작년 가을 대전에 와서 금강산 탐승하고 그린 작품.

高島功씨-미술학교 졸업 후 이 방면에 정진한 지 오래이며 大田高女에 봉직한 이래 선전에 입선을 3번이나 할 정도로 걸작이며, 양화가로서 이름이 높다.

古田嘉平군-올해 12세, 대전중학교 졸업 후 화가를 지망해 상경 藤島화백에게 師事하고 열심히 연구해 입선의 영예를 누렸지만 출품 그림 반입 이래 경성 누나 집에서 머무는 중.

齋藤三四郎군-매우 다행히 겸손하며 작년 가을 학교에서 철도동호인들의 素人展覽會를 개최하였으며, 대전 시위를 묘사하는 것에 심취해 있으며 …… 이로 인해 군은 福島縣立師範學校 재학중 故 佐藤溱씨에게 사사하여 연습하고 있으며 현재 大田小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大江澄子양-대전고등여학교 4년생이며 회화는 천재적으로 소학교 6년부터 매회 빠짐없이 출

²⁹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 2023. 11. 5)



도24. 吉田嘉子, 〈정물〉, 1931, 제10회 조선미전



도25. 吉田嘉子, 〈개와 스토브〉, 1939, 제18회 조선미전

품해 5번만에 입선한 澄子양은 물론 父君 대전상업학교 大江의 선생 집은 몹시 즐거워하지만 양은 전혀 의외이며 나는 아직 수련생에 지나지 않는데 출발이 좋으며, 高島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것에 겸손해하더라.³⁰

이를 통해 후루타 요시헤이와 사이토 오미시로, 오에 스미코의 주요 행적들이 확인된다. 먼저 후루타는 대전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의 후지시마(藤島) 화백에게 그림을 배워 1931년 10회 조선 미전에서 〈정물〉로 첫 입선을 했으며 이때 그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였다. 몇 년의 공백기를 지나 1937년 16회 〈조선부인좌상〉, 1938년 17회 〈기타가 있는 정물〉, 1939년 18회 〈개와 스토브〉, 1940년 19회 〈화복좌상(和服坐像)〉, 1941년 20회 〈자화상〉으로 5회 연속 입선하였다. 그의 1931년 입선작 〈정물〉(도24)과 1937년 〈개와 스토브〉(도25)를 비교하면, 몇 년 사이에 후루타 요시헤이의 그림 실력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데, 이는 그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대동고등 여학교와 대전공업전수학교의 도화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진 때문일 것이다.³¹

사이토 오미시로는 후쿠시마(福島)현립 사범학교에 다니는 동안 사토 소우(佐藤湊)에게 개인적으로 그림을 배웠으며, 1931년 10회에 〈초가을(初秋) 풍경〉(도26)으로 입선할 당시에는 대전심상고등소학교에서 도화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³²



도26. 齋藤三四郎, 〈초가을 풍경〉, 1931, 제10회 조선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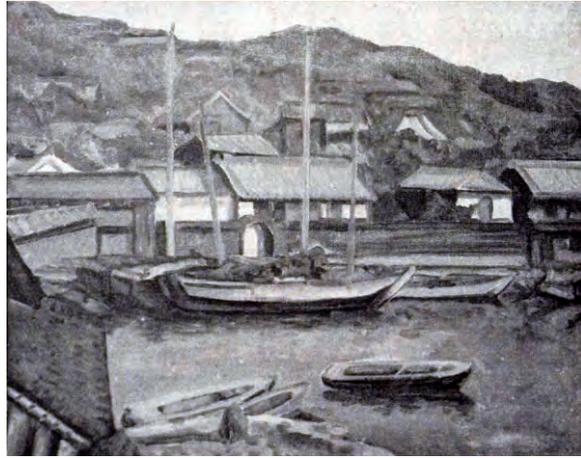
30 「忠清南道 鮮展初入選: 즐거움 가득한 가정」, 『京城日報』(1931. 5. 22).

3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32 사이토 오미시로(齋藤三四郎)는 1929~1931년 대전심상고등소학교 교사, 1933~1936년 규암리심상고등소학교 교장, 1938~1940년 동명



도27. 大江澄子, 〈창가의 정물〉, 1936, 제15회 조선미전



도28. 郡山美利, 〈어느 어항〉, 1928년 제7회 조선미전

또 다른 오에 스미코는 대전고등여학교 4학년으로 1931년 10회 조선미전에 〈정물 3〉으로 입선하였으며, 조선미전에 함께 입선한 도화교사 다카시마 이사오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녀는 첫 입선 이후 1932년 11회에는 경성 출품의 〈정물〉이 입선한 것으로 미루어 그림을 배우기 위해 상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33년부터 1936년까지 대전제2보통학교의 도화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³³ 이로 인해 1936년 15회에 입선한 그녀의 〈창가의 정물(窓際の静物)〉(도27)은 대전 출품이며, 1941년 20회에 입선한 〈나물꽃(菜の花)〉의 출품지가 논산으로 바뀐 것은 근무지 이동을 짐작케 한다. 오에 스미코는 도화교사와 창작을 겸했던 여류화가이며, 정물화의 소재로 새로 유입된 근대 문물들을 다루고 있어 일상적인 공간에 애정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은 대전의 일본인 4명이 1931년 10회 조선미전에 입선한 소식을 전한 1931년 5월 22일 『경성일보』에서 확인한 것이다.

고리야마 미토시(郡山美利)와 스가키 사다코(須ヶ木定子)는 조선미전에서 4번이나 입선하였다. 먼저 고리야마 미토시는 1926년 5회 입선의 〈물가의 봄(水邊の春)〉을 대전에서 출품했지만, 1927년 6회 입선의 〈읍내 풍경〉을 비롯해 1928년 7회의 〈어느 어항(或る漁港)〉(도28), 1929년 8회의 〈소도(沼島) 풍경〉은 모두 예산 출품으로 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그가 사생(寫生)에 기반한 풍경화를 즐겨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입선작의 출품지가 1927년부터 대전에서 예산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근무지 이동과 일치를 보여준다. 그는 1920년 황해도 신막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22년에는 대전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전직하였고, 1924년

심상소학교 교장, 1942년 공주여자사범학교 교사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³³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2. 8).



도29. 須ヶ木定子, 〈枯花〉, 1934, 제13회 조선미전



도30. 毛利克己, 〈斜陽〉, 1930, 제9회 조선미전

대전공립고등여학교를 거쳐 대전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옮긴 뒤에는 1926년까지 재직하였다. 1927년 예산심상고등소학교 교장으로 승진 전보하였으며, 1931년에는 대흥보통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1934~1942년까지는 황해도의 사리원제1보통학교와 은흥보통학교, 청계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다.³⁴ 그의 작품이 1930년 조선미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은, 교장으로 승진하면서 창작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전에서 활동한 스가키 사다코는 1932년 11회 조선미전에서 〈정물〉로 입선하며 존재를 드러냈다. 그의 행적은 찾지 못하였지만, 1934년 13회에는 〈스토브와 꽃〉·〈고화(枯花)〉 2점, 1936년 15회에는 〈꽃(花)〉, 1937년 16회에는 〈정물〉이 입선하였다. 일례로 1934년에 그린 〈고화〉(도29)를 보면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거친 붓터치로 작가의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 주의적 기법이 확인되며, 그림 실력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다코’라는 이름과 꽃을 소재로 한 정물화를 즐겨 그렸던 것으로 미루어 여성화가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일본인 화가들도 대전에서 도화교사로 근무하며 창작활동을 겸하였다. 1930년 9회 〈사양(斜陽)〉(도30)으로 입선한 모리 가즈미(毛利克己)는 대전심상고등소학교에서 근무하였고,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미전에 입선한 사토 신마로(佐藤信鷹)는 대전춘일초등학교 교사였으며,³⁵ 1943년 〈푸른 자켓(青いジャケツ)〉으로 입선한 가이 스스무(甲斐進)도 1942년 대전영정초등학교에 근무하였다.³⁶ 특히 모리 가즈미와 사이토 오미시로는 대전심상고등소학교

³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³⁵ 사토 신마로(佐藤信鷹)는 1941년 20회 〈언덕의 집(丘の家)〉과 1942년 21회 〈지도를 바라보는 아이(地圖に見入る子供)〉, 1943년 22회 〈푸른 세타(青いセーター)〉·〈봄 풍경(春ノ風景)〉으로 입선하였다.

³⁶ 가이 스스무(甲斐進)는 1943년 22회 〈푸른 자켓(青いジャケツ)〉으로 입선했다. 그는 1939년 대전 진잠심상소학교, 1940년 계룡시 두마심상소



도31. 明日勸, 〈노인〉(특선), 1935, 제14회 조선미전

에 함께 근무했던 것이 흥미로우며, 모리의 〈사양〉과 사이토의 〈초가을 풍경〉은 사생에 기반한 풍경화라는 점에서 두 교사가 수업방식이나 창작방식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1932년 11회에 〈정물〉로 입선한 미노우라 미치코(箕浦道子)와 1942년 21회에 〈녹음(綠陰)〉으로 입선한 하시모토 다카오(橋本隆夫)가 대전에서 출품하였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의 도화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조선미전 입선을 통해 작가를 지망하는 이중생활을 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하여 충남미술 도입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후루타 요시헤이와 오에 스미코처럼 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조선미전에서 스승과 함께 작가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화교사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갔다.

다음으로 조치원에서 많은 특·입선자가 배출되었으며, 아시타 칸(明日勸)은 1932년 11회 때 부여 출품의 〈인물〉이 입선한 이후 1939년 18회까지 8회 연속 입선하였다. 1933년 12회 때 특선한 〈인물〉과 1934년 13회 입선의 〈인물〉·〈풍경 가을(秋)〉은 당진 출품이며, 1935년 14회 특선의 〈노인〉(도31)부터 1936년 15회 입선의 〈친자(親子)〉·〈정물〉, 1937년 16회 입선의 〈형제〉, 1938년 17회 입선의 〈교실 모퉁이(教室の一隅)〉·〈여름 정원(夏の庭)〉, 1939년 18회 입선의 〈조일(朝日)〉은 모두 조치원 출품으로 되어 있다.³⁸ 이로 인해 그는 화명이 높았으며, 1938년 11월 3일 개인전 개최를 알리는 『조선신문(朝鮮新聞)』의 다음 기사는 그러한 사실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해마다 선전에서 특선, 무감사 등의 입선으로 조선에 이름을 알리면서 조치원의 자랑이며, 천재화가 明日堪씨는 교사로서 바쁜 직업임에도 이 방면에 열심히 정진한 결과 여름 이래 약 50점의 대소 유화를 완성하였는데 각각 독특한 경지에 올랐다. …… 岡村 署長을 비롯해 馬場塙山 小學校長, 根岸女學校 教頭 등이 明日씨를 격려하고 예술진흥을 위해 오는 11월 3일 明治節

학교, 1941년 아산 선장국민학교, 1942년 대전영정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37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0~11(1931~1932).

38 아시타 칸(明日勸)은 조선미전 특·입선작의 출품 지역이 모두 '충남'으로 되어 있었으나,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이동에 따라 출품 지역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도32. 明日勤, 〈교실 모퉁이〉, 1938, 제17회 조선미전



도33. 吉原甲藏, 〈이중교(二重橋)〉, 1936(출처: 「鳥致院小校, 二重橋の洋畫」, 『朝鮮新聞』, 1936. 11. 18)

을 마치고 여학교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한다.³⁹

아시타 칸의 조선미전 출품지가 부여와 당진, 조치원으로 달라진 것은, 근무지 이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직원록에 의하면 그는 1927년에는 공주보통학교 교사(훈도)였으나 1928년 이인보통학교, 1929년 성환심상고등소학교, 1930~1932년 부여심상고등소학교, 1933~1934년 당진의 송산보통학교, 1935~1939년 조치원의 보통학교와 침산심상소학교로 근무지가 바뀌었다.⁴⁰ 이로 보아 그는 도화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창작활동을 병행했던 것이 분명하며, 1938년 입선작 〈교실 모퉁이〉(도32)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그의 직업을 간접적으로 유추케 한다. 조선미전에서 특·입선한 그의 작품들은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인물화의 비중이 높고 정물화와 풍경화를 주로 다루고 있어 일본에서 아카데미한 미술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치원에서 입선한 또 다른 화가로는 도미나카 마사후사(富中正房)와 도사카 요시미(登坂喜美)가 있으며, 이들은 1922년 1회와 1926년 5회 조선미전에서 각각 〈초여름(初夏)〉과 〈풍경〉 2점으로 입선하였다. 또한 1936년 3월 7일과 11월 18일 『조선신문』 기사에 의하면, 조치원소학교의 교장 오카자키 다이치(岡崎爲一)는 태평양화연구회(太平洋畫研究會) 회원인 요시하라 고조(吉原甲藏)가 조치원에 온 것을 기회로 군인 시라이 소스케(白井素介)의 후원을 받아 완성한 〈이중교(二重橋)〉(도33)를 학생들의 정신 교양 함양을 위해 강당에 걸었다고 한다.⁴¹ 이는 도화수업 이외에 서양화 작품을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설치하여 서구미술의 확산뿐만 아니라 근대적 미감 형성에 학교가 적극 개입하였던 사례로 주목된다.

요시하라 고조는 1931년 10회 조선미전에 충남으로 출품한 〈부인좌상〉(도34)이 입선하면서 존재를 드러냈다. 그는 1936년 4월 18~19일 대전의 동본원사(東本原寺)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39 「明日畫伯個展」, 『朝鮮新聞』(1938. 11. 2).

4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41 「二重橋の洋畫小學校へ寄贈, 白井素介氏的美學」, 『朝鮮新聞』(1936. 3. 7); 「鳥致院小校, 二重橋の洋畫」, 『朝鮮新聞』(1936. 11. 18).



도34. 吉原甲藏, 〈부인좌상〉, 1931, 제10회 조선미전



도35. 小林武文, 〈5월의 어느 날〉, 1924, 제3회 조선미전

정도로 화명이 높았으며,⁴² 1930년대 전반에는 논산, 대전, 조치원을 오가며 충남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6년 15회 입선의 〈소녀좌상(少女座像)〉은 경성 출품이라 되어 있어 중앙화단으로 옮겨갔던 것이라 이해된다. 이는 그의 유화 금강산 작품전이 미쓰코시(三越) 화랑에서 열리고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다는 1944년 12월 26일 『경성일보』 기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⁴³

논산에서는 고바야시 다케후미(小林武文)가 1924년 3회 조선미전에서 〈5월의 어느 날(五月の或日)〉(도35)로 등단하였고, 도요나가 시게유키(豊永重行)는 1939년 18회 〈이른 봄(早春)〉과 1940년 19회 〈5월의 언덕(五月ノ丘)〉으로 입선하였다. 두 화가는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고바야시 다케후미는 1923~1926년 논산에 위치한 강경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교사였으며, 1927~1928년 공주심상고등소학교, 1929년 홍산심상소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도요나가 시게유키는 1933~1936년은 서천군 시초보통학교의 교사였으나, 1937~1940년 논산의 두마심상소학교, 1941~1942년 대전본정초등학교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⁴⁴ 도요나가 시게유키의 경우, 논산의 두마심상소학교에 재직하면서 조선미전에 입선한 1939년과 1940년 작품은 출품지가 논산이며, 대전본정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입선한 1942년 21회의 〈소녀〉와 1943년 22회의 〈소년검사(少年劒士)〉는 대전 출품으로 되어 있다.

공주에서 입선한 일본인으로는 1938년 17회에 〈사도(仕度)〉로 입선한 가메카와 타다시(龜川忠)를 비롯해 1938년 17회와 1939년 18회에서 각각 〈독서〉와 〈근로보국(勤勞報國)〉으로 입선한 다나카 덴키치(田中傳吉), 1942년 21회 〈재편(再編)〉으로 입선한 사노 마타오(佐野又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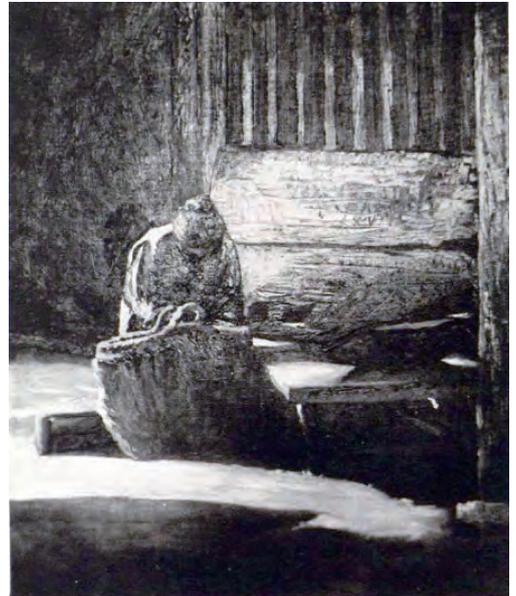
42 「吉原畫伯個展」, 『京城日報』(1936. 4. 18).

43 「金剛山油繪展廿八日まで」, 『京城日報』(1944. 12. 26).

4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조선미전 입선작은 거의 인물화이며, 일본인 가와무라 신타로(河村信太郎)와 나가노 히로시(中野博)는 가메카와 타다시의 <사도>(도36)를 관람하고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河村信太郎는 ‘메이지 초기의 유화가 갈색으로 어둡게 표현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중후하다. 그러나 정말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中野博는 ‘그림의 중앙에 광선이 있는 등 렘브란트 그림을 생각해 한다. 변화된 모티브, 변화된 색감이 전시장에서는 진귀하다. 회화는 그 시대 문명의 소산이다. 우리의 그림은 고전의 토대에서 세워진 동시에 가장 새로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연원이다.’라고 하였다.⁴⁵



도36. 龜川忠, <사도(仕度)>, 1938, 제17회 조선미전

가메카와 타다시는 1935년부터 1941년까지 공주우편국의 서기(書記)로 근무하였다. 그는 앞서 소개한 일본인 서양화가들이 거의 도화교사였던 것과 달리, 일반 아마추어 화가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면 다나카 덴키치는 1938-1940년 공주여자사범학교 교사였고, 사노 마타오는 1942년 공주여자사범학교에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된다.⁴⁶ 이밖에 ‘충남’으로 출품한 일본인은 1930년 9회에서 <옆을 보는 부인(横むきの婦人)>·<탁자 위 과일(卓上果物)>로 입선한 니칸 후지마로(二官不二鷹)와 1935년 14회에 <이른 봄>으로 입선한 아마노 키요시(淺野清)가 있다. 아마노 키요시는 바로 다음해인 1936년 15회에는 <인물>을 천안에서 출품하여 입선한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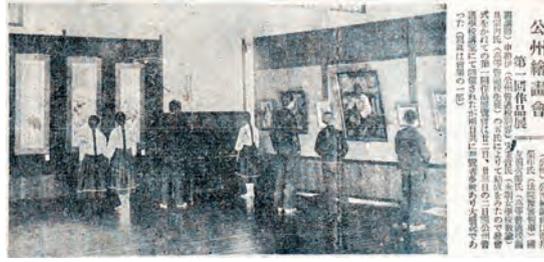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은 조선미전의 서양화부에서 특·입선을 차지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1932년 조선미전부터 8회 연속 입선한 아시타 칸은 공주·성환·부여·당진·조치원 등의 학교에서 도화교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서양화가로서의 화명도 높아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6회 입선의 다카시마 이사오와 5회 입선의 후루타 카코, 4회 입선의 고리야마 미토시, 모리 가츠미, 사이토 오미시로, 사토 신마로, 가이 스스무 등은 대전의 여러 학교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도화교사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전에 도화교사들이 많았던 것은, 경부선 개통과 도청 이전 등으로 대전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급성장했던 시대적

45 『趣味と学藝, 鮮展批評, 洋畫の部(2)』, 『京城日報』(1938. 6. 10).

4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도37. 송병돈, <초여름의 금강>, 1924, 제3회 조선미전



도38. 공주회화회 제1회 전람회(출처: 『朝鮮新聞』, 1931. 11. 27)

상황을 나타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미술 도입기의 서양화는 대전의 도화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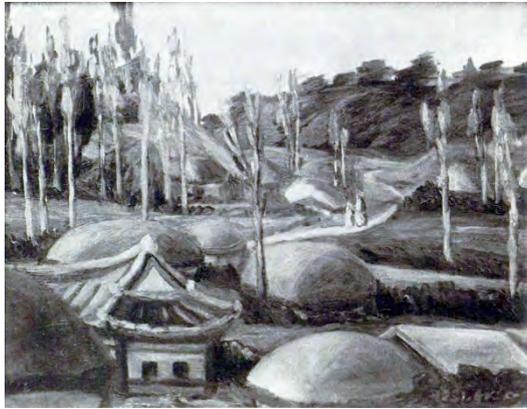
한국인으로 조선미전을 통해 서양화가로 등단한 최초의 인물은 1924년 3회에 <초여름의 금강(初夏의錦江)>(도37)으로 입선한 공주의 송병돈(宋秉敦, 1902~1967)이다. 그의 첫 입선을 소개하는 기사가 1924년 6월 3일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실려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주) <初夏의 錦江>이라는 명제의 서양화를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의 영예를 얻게 된 공주 宋秉敦씨는 실로 斯界에 천재적 기능을 유하여 공직에 근무함에 불구하고 그 閑隙를 이용하여 獨習 力作 23세의 청년으로 能히 입선의 영광에 接게 되었으며 일반은 氏의 장래에 기대함이 多하더라.⁴⁷

이를 통해 송병돈은 공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연구하여 입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다음해인 1925년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30년 졸업한 이후 고향인 공주 영명여학교(永明女學校)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는 근대식 학교에서 도화교육을 받은 이후 일본에서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고 귀국한 다음 도화교사로 후학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송병돈은 도화교사로 근무하면서 충청남도 최초의 서양화 단체인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를 결성하였다.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가 공주보통학교 강당에서 1931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렸으며, 공주고등보통학교 교사 신범이(申範伊), 영명여학교 교사 송병돈, 일본인 법원 예심판사 이치이 에이사쿠(市井榮作), 공주 고등보통학교 도화과 강사 구니토모 아사지로(國友朝次郎)와 공주고등보통학교 5학년 구종서(具宗書, 1912~1988)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도38). 이때 학생 신분인 구종서가 공주회화회의 발기인에 포함된 이유는 1931년 10회 조선미

47 「美展 입선의 初夏 錦江의 揮毫: 공주 宋秉敦氏의 영예」, 『每日申報』(1924. 6. 3).



도39. 구종서, <이른 봄 풍경>, 1931, 제10회 조선미전



도40. 이창규, <시골의 봄>, 1930, 제9회 조선미전

전에서 <이른 봄 풍경(早春の風景)>(도39)으로 입선하며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주회화회 제1회 전람회 때 송병돈은 <수원지(水源池) 풍경>을 비롯해 <백일홍(百日紅)>·<W상(像)>·<늦가을 풍경>·<초가을 풍경>·<초여름 풍경>·<어린이(小兒)>의 7점, 구종서는 <풍경>·<정물>·<이른 봄(早春)의 풍경>·<꽃(花)>·<소녀좌상(小女座像)>·<가을의 연못가(秋의 池畔)> 6점을 출품하였다.⁴⁸ 공주회화회는 제1회 전람회 이후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미전 입선과 일본에서 정식 미술교육을 받은 서양화가 송병돈이 도화교사로 재직하며 서양화 단체를 결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주회화회 창립 멤버였던 구종서는 1933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해 1938년 졸업하였다. 귀국 직후 그도 동덕고등여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1940년 19회 조선미전 입선의 <도선(渡船)>은 신의주에서 출품되었는데, 이때부터 1945년까지 신의주상업학교 도화교사로 근무했다.⁴⁹

천안의 이창규(李暢圭, ?-?)도 1930년 9회 조선미전에서 <시골의 봄(田舎の春)>(도40)으로 입선하였다. 이 작품에 대해 김주경은 “현재주의 예술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독일 민족적 열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특별히 구름을 우측 상단으로 끌어낸 것이 절충주의자로는 안 될 일이다. 기술도 상당히 훌륭하고 촉망을 두게 하는 쾌작(快作)이다.”라고 평하였다.⁵⁰ 그에 관한 인적사항은 거의 알려진 바 없지만, 직원록에 의하면 1928-1930년 천안보통학교 교사, 1931~1932년 청양의 정산보통학교 교사였다가 1934년부터는 경기도 개성제1보통학교, 1935~1936년 개성중앙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다가 1938~1939년에는 평양세무서의 세무리(稅務吏)로 근무했다고 한다.⁵¹ 또한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1933년 12회의 <개성풍경 습작>과 1934년 13호의 <만추>, 1935

⁴⁸ 김미정, 「공주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 1900~1945년까지 출생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2022 하반기), pp. 11~12.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에 신범이 8점, 송병돈 7점, 구종서 6점, 이치이 에이사쿠 양화 3점, 구니토모 아사지로 일본화 5점과 양화 3점을 출품하여 총 32점이 전시되었다. 「公州繪畫會, 作品展出品」, 『朝鮮新聞』(1931. 11. 28).

⁴⁹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p. 62.

⁵⁰ 金周經, 「第九回 朝鮮美展」, 『별건곤』 제30호(1930. 7), p. 155.

⁵¹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도41. 이창규, 〈시골 길(田舍道)〉, 1937, 제16회 조선미전



도42. 박성섭, 〈정물〉, 1932, 제11회 조선미전

년 14회의 〈농촌〉은 모두 개성에서 출품되었고, 1937년 16회의 〈시골 길(田舍道)〉(도41)은 평양 출품으로 근무지 이동과 일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조선미전 입선 작품들의 수준이 높지 않고, 교사에서 세무사로 직업을 바꾼 것으로 미루어 이창규는 여가에 풍경화를 즐겨 그렸던 아마추어 화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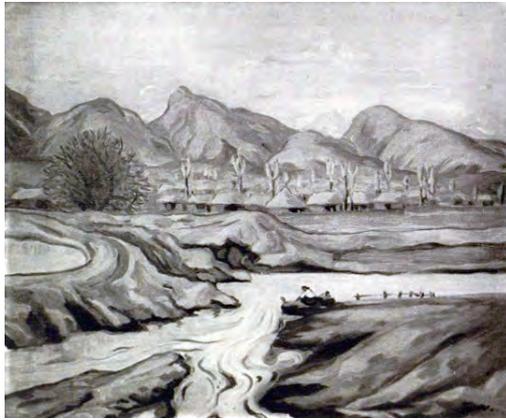
박성섭(朴性燮, 1903~1974)은 청양 출신으로 배재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경미술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1931년 10회와 1932년 11회 조선미전에 각각 〈벽천리 춘색(壁泉里春色)〉과 〈정물〉(도42)로 입선하면서 서양화가로 등단하였다. 두 작품은 청양 출품으로 되어 있어 일본에서 귀국한 뒤에는 고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혜석은 박성섭의 1932년 조선미전에 입선한 〈정물〉에 대해 "역작인 만큼 온화한 기분을 내는 作이다."라고 평하였다.⁵² 그리고 1932년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여의 홍산유치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부여) 충남 홍산에서는 오는 23~24 양일간 鴻山幼稚園에서 본보 부여지국 주최와 중앙일보 부여지국 후원으로 朴性燮씨의 작품을 출품하여 양화전람회를 개최하는 바 씨는 일찍부터 미술에 천재가 있어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조선에 건너온 이래 수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조선미술품전람회에 특선까지 입상되어 양화계에 世寵으로서 금번 백제의 고적을 여실히 묘사한 것은 누구나 보는 이로 찬탄 않는 이 없다.⁵³

위의 내용 가운데 박성섭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독학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조선미전에서 특선했다고 한 것은, 기자의 오해로 잘못 보도된 것이다. 그가 1932년 양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부여의 백제 고적을 그린 풍경화를 전시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창작에 전념했던 것으로

52 나혜석, 「朝鮮美術展覽會 西洋畫總評」, 『삼천리』 제4권 제8호(1932. 7), p. 40.

53 「洋畫展覽會 夫餘支局主催」, 『동아일보』 1932.12.21(『충남미술가편람 1』, 2021, p. 112 재인용).



도43. 권중록, <시내가 있는 풍경>, 1933, 제12회 조선미전



도44. 박봉재, <다리가 보이는 풍경>, 1934, 제13회 조선미전

유추된다.

대전에서 활동한 권중록(權重祿, 1930년대 활동)은 1932년 11회와 1933년 12회 때 각각 <초가을의 시골(初秋の田舎)>과 <시내가 있는 풍경(川のある風景)>(도43)이 입선하면서 서양화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홍성 태생으로 공주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1925년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1935까지 약 10년이란 긴 세월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⁵⁴ 이후 1936년부터 1939년까지는 논산의 강경상업학교, 강경보통학교, 강경중점심상소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⁵⁵ 따라서 권중록은 도화교사로 학생에게 미술을 가르침과 동시에 서양화가로 창작활동에도 전념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에서 박봉재(朴鳳在, 1912~1988)가 1934년 13회 조선미전에 <다리가 보이는 풍경(橋の見える風景)>(도44)으로 입선하였다. 원래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였고 1931년 10회와 1932년 11회 조선미전에 각각 <풍경>과 <이른 봄의 햇살(早春の光)>으로 입선하였으며, 이때는 출품 지역이 대구였다. 직원록에 의하면 그는 1934년 예산의 광시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으며, 1935~1937년 대전제일보통학교, 1938~1939년 대전영정심상소학교, 1940년 대전의 산내심상소학교에 근무하며 도화교사로 후학을 배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934년 13회 입선작은 그가 고향을 떠나 충남 예산의 광시보통학교 도화교사로 근무하면서 입선한 것으로 창작활동도 병행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아산의 김인숙(金仁淑, ?~?)이 1940년 19회와 1941년 20회에 각각 <풍경>(도45)과 <월미도 초가을(月尾島 初秋)>로 입선하며 등단하였다. 그녀는 조선총독부 교원양성소에서 배출된 교사로 원래 조선공립보통학교 훈도였다가 1917년 4월 1일자로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임명되었다.⁵⁶ 따라서 그녀는 조선미전 설립 이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18년까지 부

⁵⁴ 「大田第一公普 權重錄訓導의 勤績十週年表彰」, 『朝鮮中央日報』(1935. 3. 20).

⁵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1. 5).

⁵⁶ 「金仁淑氏訓導任命」, 『釜山日報』(1917. 4. 2).



도45. 김인숙, <풍경>, 1940, 제19회 조선미전



도46. 김두환, <어린이 2>, 1940, 제19회 조선미전

산진공립보통학교에 있다가 1922 대구여자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9~1940년 둔포심상소학교에 근무하였다.⁵⁷ 이로 보아 그녀는 교사로 활동하면서 뒤늦게 그림을 시작한 아마추어 화가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산 출신의 김두환(金斗煥, 1913~1994)은 1932년 경성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를 3년간 다닌 다음, 1935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⁵⁸ 귀국한 그는 고향에서 김두환회화연구소를 개설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한 결과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미전에 <어린이(子供) 2>(19회 1940, 도46), <일하는 기쁨(働く喜び)>(20회 1941), <아마씨(あまさん)>(21회, 1942)로 연속 입선하였다. 그는 1940년에는 이름을 김환(金煥)이라고 하였으나, 1941년과 1942년에는 창씨개명한 ‘가네코 도오루(金子斗煥)’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조선미전 입선작은 그가 일본 미술교육의 영향을 받아 인물화를 주로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밖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이선이(李善伊, ?~?)도 1933년 12회에 <고란사(皐蘭寺)>가 입선하며 도입기의 충남미술을 풍요롭게 했다.

끝으로 조치원에서 히로타 구니지로(廣田國司郎)가 1943년 22회 조선미전에 <가각소견도(街角所見圖)>(도47)로 입선하였다. 필자는 히로타 구니지로를 일본인이라 생각하였으나 한국인 황진국(黃鎭國, 1911~1969)이며, 엽서로 전하는 <가각소견도>의 이미지를 최근 확인하였다. 또한 대전에서 도화교사로 활동한 후루타 요시헤이와는 우편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⁵⁹ 이밖에 그는 조선미술협회가 주최한 징병제실시기념 총후미술전(銃後美術

⁵⁷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최종검색일: 2023. 12. 10).

⁵⁸ 신수경, 「김두환: 생동감 넘치는 색채의 향연」, 『월성 김두환전』(진고원갤러리, 2009), p. 10

⁵⁹ 2023년 12월 6일 황진국의 아들 황원서님이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고, 이때 확보된 귀한 정보와 자료를 필자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신 송미경 학예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展) 유희부(油繪部)에도 입선하였다.⁶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 송병돈과 구중서는 근대 교육의 일환으로 접한 서양화에 재능을 발휘하였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뒤에는 도화교사로 후학을 양성하며 창작활동을 병행하였다. 또한 이창규와 권중록, 박봉재도 도화교사와 창작을 병행하였으나 박성섭과 김두환은 순수하게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이밖에 황진국이 1943년 22회에 '히로타 구니지로'라



도47. 廣田國司郎(황진국), 〈기각소견도〉, 1943, 제22회 조선미전

는 일본 이름으로 첫 입선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하였다. 어쨌든 도입기 충남미술에서 서양화는 일본인과 한국인 도화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각·공예

서양화는 학교의 도화수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었던 것과 달리, 조각과 공예는 관심 밖에 놓이면서 예술 장르로 온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입기 충남미술에서 조각과 공예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조각 방면에서는 월북 조각가 유진명(兪鎭明, 1916~1984)이 1944년 23회 조선미전에 '기야마 마이야키(杞山鎭明)'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출품한 <두상(首)>이 입선한 것이 유일하다. 그는 1939년 일본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조각을 배웠으며, 1942년 졸업한 후에는 조각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근무하였다.⁶¹ 귀국한 그는 경성에서 활동하며 출품한 1943년 22회 조선미전에서 <습작(習作)>이 첫 입선을 하였다. 이후 당진에 정착한 그는 창작에 전념하였으며, 이곳에서 출품한 <두상>이 1944년 23회에 입선을 한 것이다.

유진명(杞山鎭明)은 일본 유학 중에 동경미술관(東京美術館)에서 주최하는 제14회 괴인사 조각전(塊人社彫塑展)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1941년 4월 1일 『매일신보』에 괴인사 조각전과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다.

4월 하순 東京美術館에서 열린 제14회 塊人社彫塑展에 출품한 李國銓, 尹承旭, 杞山鎭明 세 君의 작품은 대체로 평판이 좋았다. 동경 彫界의 평을 종합하면 李君의 작품은 자연과 맞결어 자연의 정수를 잡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연하여 그 진지한 태도가 좋고, 尹君의 것은 포스라든지 테크닉이 자연스럽고 능해 보이는 작품이요, 杞山君의 것은 순수하게 자연을 보아서 작자가 모르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비평의 대략이다. 김복진씨가 간 후 뒤이어 나온 젊은이들의

60 「絢爛한 統後美術展」, 『毎日新報』, 1943.11.4.

61 신수경, 「1950~60년대 북한 조각계와 월북 조각가들의 활동」, 『분단의 미술사 잊혀진 미술가들』(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p. 249.



도48. 杞山鎮明(유진명), 〈머리〉, 1941, 일본 동경 14회 塊人社彫塑展



도49. 杉光武右衛門, 〈白磁辰砂畫水差〉, 1935, 제14회 조선미전

긴투를 빌어 마치 않는 바이다(사진은 杞山鎮明君 作 〈머리〉).⁶²

이때 유진명이 만든 〈머리〉(도48)라는 조각품이 일본에서 조각을 공부하던 이국전(李國銓, 1915~?), 윤승욱(尹承旭, 1915~?)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었다. 사진으로 소개된 유진명의 조각은 자연스러운 조형적 표현이 돋보이며, 1944년 23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두상(首)〉도 1941년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공예 방면에서는 일본인만이 조선미전을 통해 근대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스키미즈 다케우에몬(杉光武右衛門)은 청자와 백자를 재현하는 도예가로 1930년 총독부가 주최한 가정공예품평회(家庭工藝品評會)에서 2등으로 존재를 드러내었다.⁶³ 그리고 1932년 10월에는 대전실업협회가 주최한 특산물 심사에서 스키미즈 다케우에몬이 운영하는 계룡소(鷄龍燒)의 작품이 최우수에 선정되었고,⁶⁴ 1934년 나가사키(長崎) 주최로 3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리는 국제산업관광박람회에 계룡소(스키미즈 다케우에몬)의 작품이 출품되기도 하였다.⁶⁵ 이처럼 스키미즈 다케우에몬은 계룡소라는 도업소를 운영하였고, 이곳에서 대량 생산된 근대 백자와 청자들이 대전 특산품으로 일본에 소개될 정도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1933년부터 1935년에 걸쳐 『경성일보』의 신년광고에 계룡소가 포함된 것에서도 입증된다.⁶⁶

계룡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스키미즈 다케우에몬은 1935년 14회 조선미전에 〈백자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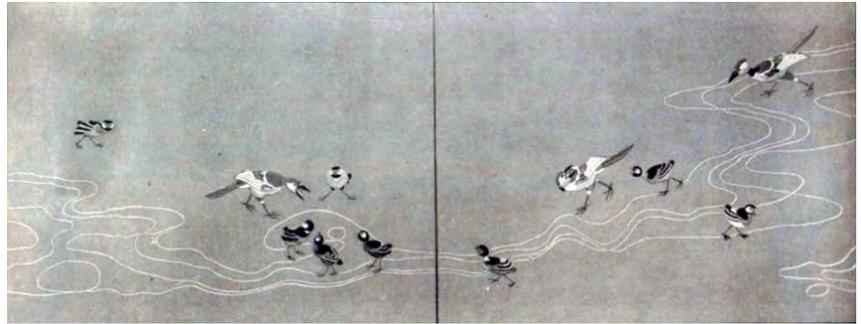
62 「塊人社彫塑展: 李, 尹, 杞山君의 作品」, 『毎日新報』(1943. 11. 4).

63 「總督府主催 家庭工藝品評會 受賞者氏名 (一)」, 『毎日申報』(1930. 10. 19).

64 「大田特産品審査報告會」, 『京城日報』(1932. 10. 13).

65 「忠清南道, 國際産業觀光博覽會 出品 忠南より四點」, 『朝鮮新聞』(1934. 2. 23).

66 「大田春日町一丁目 鷄龍窯業元 杉光武右衛門」, 『京城日報』(1933. 1. 1; 1934. 1. 5; 1935. 1. 5).



도50.鈴木牧榮,〈승조(勝鳥=かちがらす)〉, 1939, 제18회 조선미전

화주자(白磁辰砂畫水差)를 출품해 입선하였다(도49). 이후 1936년 15회 조선미전의 〈고려청자 충남부여평제탑(高麗靑磁忠南扶餘平濟塔)〉·〈박청자철사및진사입화병(薄靑磁鐵砂及辰砂入花瓶)〉을 비롯해 1937년 16회의 〈박버터식청자화병(薄버터式靑磁花瓶)〉·〈박청자염부진사입화병(薄靑磁染付辰砂入花瓶)〉, 1938년 17회의 〈환형화병(丸形花瓶)〉, 1939년 19회의 〈청자이부조 모양화병(靑磁耳付鳥模樣花瓶)〉, 1941년 20회의 〈화병花瓶〉, 1943년 22회의 〈염부진사입화병(染付辰砂入花瓶)〉·〈청자이중투조화병(靑磁二重透彫花瓶)〉이 연속 입선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천안의 스즈키 마키에이(鈴木牧榮)는 1939년 18회에서 〈승조(勝鳥=かちがらす)〉(도50)로 무감사 특선을 받았다. 총독부 중앙시험소 공예부장인 후지무라 히코시로(藤村彦四郎)가 이 작품에 대한 품평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1939년 6월 16일 『경성일보』에 실려 있다.

かちがらす(鈴木牧榮氏作) 흥아의 봄과 맞추어 여성 특선이 쌍벽, 많은 정성을 기울인 작품이지만 상당히 강렬한 배색의 무난히 가라앉힌 부분에 경의를 표하며, 바탕색의 맛도 좋고 리드미컬한 선의 흐름도 아름답다.⁶⁷

그녀는 1941년 20회에서도 〈조선자수명풍 월광(朝鮮刺繡屏風, 月光)〉으로 입선하였다. 공주에서는 다나카 마사노리(田中正徳)가 1941년 20회에 〈야츠테 목조찬장(八ツ手木彫戸棚)〉으로 입선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조각 방면에서는 ‘기야마 마사야키’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한 월북 조각가 유진명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공예 방면에서는 계룡소를 운영한 대전의 스기미츠 다케우에몬이 독보적이며, 천안의 스즈키 마키에이와 공주의 다나카 마사노리가 조선미전에 입선한 것은 고급 장식품의 판로와 직결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도입기 충남미술에서 동양화, 서양화, 서예와 조각은 순수창작으로 작가성이 중요했다면, 공예는 장식성을 지닌 고급 실용품으

67 藤村彦四郎, 「鮮展の工藝品(30, 名作者に捧げる感謝と願望)」, 『京城日報』(1939. 6. 16).

로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V. 맺음말

충남미술의 도입기는 역사적 암흑기인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면서 관련 작품이나 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구체적인 양상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 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에서 활동한 작가와 작품을 동양화, 서양화, 서·사군자, 조각·공예의 네 장르로 구분한 다음, 한국인과 일본인의 행적과 작품을 조사 분석하여 도입기 충남미술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을 시도하였다.

도입기의 전통 서화는 백제의 옛 수도인 역사도시 공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서양화와 공예 같은 서구미술은 철도 개설과 행정도시 이전으로 급성장한 대전이 주도했던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때 전통 서화는 가학(家學)이나 개인적 사사(師事) 같은 도제식 학습에 의해 지속되었으며, 근대 문물의 유입과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었다. 반면 서구미술은 근대식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도화교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서·사군자 방면에서는 공주의 이경배와 조동욱이 묵란화가로 화명을 알리며 전통 서화의 기반을 유지하였고, 박창래는 조치원공립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 서예 방면에서 천부적 재능을 발휘하며 도입기 충남미술에서 전통미술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에무라 이츠사쿠는 유일한 일본인 서예가이며, 직업이 의사로 여가에 서예를 하는 문인화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양화는 전통 서화의 기법을 근간으로 일본화나 서구미술 및 근대적 미감을 절충하면서 근대화화로 옮겨갔다. 이때 일본인들은 조선미전에서 1회부터 특·입선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한국인은 1930년 중반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인 노구치 야스무를 비롯해 고바야시 지로, 이와타 요시노스케, 후루야 겐스케, 루키야 미치코 등이 활동하였지만 직원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가에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이해된다. 유일하게 이시바시 요시로만이 대전중학교 도화교사로 미술교육과 창작활동을 병행하였다. 한국인은 조중현, 이팔찬, 김화경이 일본 유학하는 동안 조선미전 출품지를 고향인 연기군, 공주, 아산이라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김은호와 사제관계를 맺으며 경성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기반은 충남미술이 후 소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구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는 대전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일본인은 대부분 도화교사로 후학을 양성함과 동시에 작가로서의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대전의 도화교사 다카시마 이사오를 비롯해 사이토 오미시로, 고리야마 미토시, 모리 가즈미, 사토 신마로, 가이 스

스무 등이 조선미전을 통해 등단하였다. 조치원의 도화교사 아시타 칸은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미전에 연속 입선하였으며 개인전을 개최할 정도로 화명이 높았다. 논산의 고바야시 다케후미와 도요나가 시게유키 등도 도화교사와 창작활동을 병행하였다. 또한 대전고등여학교의 도화교사 다카시마 이사오와 같은 학교 제자 4학년 여학생인 오에 스미코가 1931년 10회 조선미전에 동시에 입선한 것이 흥미롭다.

한국인 역시 일본인처럼 도화교사와 창작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송병돈을 비롯해 이창규, 권중록, 박봉재, 권인숙, 구종서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송병돈과 구종서는 학교에서 배운 서양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귀국해 교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밖에 조치원에서 입선한 히로타 구니지로는 한국인 황진국(黃鎭國, 1911~1969)이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하였다.

조각과 공예는 도입기 충남미술에서 그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조각에서는 조선미전을 통해 등단한 당진의 기야마 마사아키(杞山鎭明)가 유일하다. 이는 월북 조각가 유진명(兪鎭明, 1916~1984)의 일본식 이름임을 확인하였다. 공예 방면에서는 대전에서 계룡소를 운영한 스기미츠 타케우에몬(杉光武右衛門)이 근대 도예가로 명성이 높았으며, 천안의 스즈키 마키에이와 공주의 다나카 마사노리는 각각 자수와 목가구로 조선미전에 입선하였다. 그러나 공예는 장식성을 지닌 고급 실용품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인식되며 동양화나 서양화, 조각 등의 순수예술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충남미술의 도입기에 전통미술이라 할 수 있는 사군자와 서예는 가학이나 도제식 방식으로 학습 계승된 반면, 서구미술은 신흥도시인 대전과 조치원을 중심으로 일본인 도화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중요한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근대 한국미술사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남미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록】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에서 특·입선 충남 작가와 작품들⁶⁸

회차 (연도)	미술 장르	지역	작품 제목	호	성명	비고
1 (1922)	서양화	조치원	初夏		畠(富)中正房	
2 (1923)	동양화	충남	月は淀える夜は曳ける	古杖	野口保	
			仙巖照陽 其一	天籟	小林二郎	
			仙巖照陽 其二	天籟	小林二郎	
3 (1924)	서양화	공주	初夏の錦江		송병돈(宋秉敦)	
		논산	五月の或日		小林武文	
4 (1925)	서	서천	四季一絶	彦峰	植村逸策	
	사군자	공주	蘭	松齋	조동욱(趙東旭)	
		공주	蘭	松齋	조동욱(趙東旭)	
5 (1926)	서양화	조치원	風景		登坂喜美	
		조치원	風景		登坂喜美	
		공주	早春		송병돈(宋秉敦)	
		공주	五月のH嬢		송병돈(宋秉敦)	
		대전	水邊の春		郡山美利	
6 (1927)	서양화	예산	邑内風景		郡山美利	
	서	서천	초서 野川風物	彦峰	植村逸策	
7 (1928)	서양화	예산	或る漁港		郡山美利	
	사군자	공주	梅	天養	김우진(金宇鎭)	
8 (1929)	서양화	예산	沼島風景		郡山美利	
	사군자	공주	墨蘭	石淵	이경배(李慶培)	
9 (1930)	서양화	충남	横むきの婦人		二官不二麿	
		충남	卓上果物		二官不二麿	
		천안	田舎の春		이창규(李暢圭)	
		대전	靑い服を着たる男		高島功	
		대전	斜陽		毛利克己	
서	공주	菊	石淵	이경배(李慶培)		
10 (1931)	동양화	대전	金剛外山 萬相亭	秀湖	岩田吉之助	
		청양	壁泉里春色	亞武	박성섭(朴性燮)	
	서양화	청양	丘		이창규(李暢圭)	
		대전	靜物 三		大江登子	
		충남	婦人座像		吉原甲藏	
		대전	野菜籠を持てる女	童顔	高島功	
		공주	早春の風景		구중서(具宗書)	
		대전	靜物		古田嘉平	
		대전	初秋風景		齋藤三四郎	
	서	공주	蘭	松齋	조동욱(趙東旭)	
공주		幽谷香	石淵	이경배(李慶培)		
11 (1932)	동양화	대전	大京城	秀湖	岩田吉之助	
		공주	石蘭	松齋	조동욱(趙東旭)	
		공주	石蘭	石淵	이경배(李慶培)	
	서양화	청양	靜物	亞武	박성섭(朴性燮)	

68 【부록】은 필자가 『조선미술전람회도록』, 조선총독부 관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을 비교해 인명 오류와 출품 도시를 최대한 바로잡은 것임을 밝혀둔다.

회차 (연도)	미술 장르	지역	작품 제목	호	성명	비고	
11 (1932)	서양화	청양	春の村		이창규(李暢圭)		
		대전	婦人座像		高島功		
		대전	初秋の田舎		권중록(權重祿)		
		부여	人物		明日勸		
		대전	靜物		箕浦道子		
12 (1933)	서양화	대전	靜物		須ヶ木定子		
		충남	阜蘭寺		이선이(李善伊)		
		대전	パイプを持つ男		高島功		
		대전	川のある風景		권중록(權重祿)		
13 (1934)	서양화	당진	人物(특선)		明日勸		
		동양화	공주	石蘭	松齋	조동욱(趙東旭)	
		대전	スドーブと花		須ヶ木定子		
		대전	枯花		須ヶ木定子		
		예산	橋の見える風景		박봉재(朴鳳在)		
14 (1935)	동양화	대전	淺春(특선)		石橋吉郎		
		대전	菊		石橋吉郎		
		대전	明石港の朝	素雪	古谷鍊介		
	서양화	충남	早春		淺野清		
		조치원	老人(특선)		明日勸		
공예	충남	白磁辰砂畫水差		杉光武右衛門			
15 (1936)	동양화	서천	こども(특선)		安保道子		
		대전	春野		石橋吉郎		
		대전	初夏	素雪	古谷鍊介		
		연기군	アネハ鶴		조중현(趙重顯)		
	서양화	조치원	親子		明日勸		
		조치원	靜物(무감사)		明日勸		
		대전	窓際の靜物		大江登子		
		천안	人物		淺野清		
	공예	대전	花		須ヶ木定子		
대전		高麗靑磁忠南扶餘平濟塔		杉光武右衛門			
대전	薄靑磁鐵砂及辰砂入花瓶		杉光武右衛門				
16 (1937)	동양화	서천	石けり(특선 무감사)		安保道子		
		대전	金剛清秋		石橋吉郎		
	서양화	조치원	兄弟		明日勸		
		대전	靜物		須ヶ木定子		
		대전	朝鮮婦女坐像		古田嘉平		
	공예	대전	薄버터式靑磁花瓶		杉光武右衛門		
대전		薄靑磁染付辰砂入花瓶		杉光武右衛門			
17 (1938)	동양화	舒川郡	銃後		安保道子		
		조치원	教室の一隅		明日勸		
	서양화	조치원	夏の庭		明日勸		
		공주	仕度		龜川忠		
		공주	讀書		田中傳吉		
		대전	子供達(특선)		高島功		
	서양화	대전	기타 있는 靜物		古田嘉平		
공예	대전	丸形花瓶		杉光武右衛門			

회차 (연도)	미술 장르	지역	작품 제목	호	성명	비고
18 (1939)	동양화	서천군	素謠		安保道子	
	서양화	조치원	朝日		明日勤	
		공주	勤勞報國		田中傳吉	
		논산	早春		豊永重行	
		대전	犬をモチーフ		古田嘉平	
	공예	천안	かちがらす		鈴木牧榮	
대전		青磁耳付鳥模様花瓶		杉光武右衛門		
19 (1940)	서양화	아산	풍경		김인숙(金仁淑)	
		예산	子供 2		김환(金煥)	김두환
		논산	五月ノ丘		豊永重行	
		대전	和服坐像		古田嘉平	
20 (1941)	동양화	연기군	棕櫚		松岡重顯	조중현
		대전	花		中西津久技	
		연기군	鶏		松岡重顯	조중현
	서양화	아산	月尾島初秋		김인숙(金仁淑)	
		논산군	菜の花		大江澄子	
		대전	飛行機ノ話		高島功	
		예산군	働く喜こび		金子斗煥	김두환
		대전	自畫像		古田嘉平	
		대전	丘の家		佐藤信麿	
공예	공주부	八ッ手木彫戸棚		田中正徳		
	대전	花瓶		杉光武右衛門		
	천안군	朝鮮刺繡屏風(月光)		鈴木牧榮		
21 (1942)	동양화	서천	寒碓		眞城奇範	
		아산	三人の女		金山華慶	김화경
		공주	雪暮		이팔찬(李八燦)	
	서양화	대전	老母		高島功	
		대전	地圖に見入る子供		佐藤信麿	
		대전	少女		豊永重行	
		공주	再編		佐野又雄	
		대전	綠陰		橋本隆夫	
예산	あまさん		金子斗煥	김두환		
22 (1943)	동양화	공주읍	古家		安田近義	
		아산	溫陽郊外		金山華慶	김화경
		공주읍	支那の婦人		이팔찬(李八燦)	
		舒川郡	山家煙雨		眞城奇範	
	서양화	대전	青いセーター		佐藤信麿	
		대전	春ノ風景		佐藤信麿	
		대전	青いジャケット		甲斐進	
		대전	少女ト彫刻		古田嘉平	
		조치원	街角所見圖		廣田國司郎	황진국
		대전	少年劔士		豊永重行	
공예	대전	陶器(染付辰砂入花瓶)		杉光武右衛門		
	대전	陶器(青磁二重透彫花瓶)		杉光武右衛門		
23 (1944)	동양화	조치원	指導歳家		橋本元孝	
	조각	당진	首		杞山鎮明	유진명 *일북 조각가

참고문헌

<국문논저>

- 김미정, 「공주(公州)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 1900~1945년까지 출생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 미술사학』 44, 2022. 12.
- 김소연, 「1930년대 서양화단의 성장과 학생화가들: 도화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1, 2016. 12.
- _____, 「근대기 공주의 서화계: 서화 창작과 수집, 그리고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 2022. 12. 강영주, 「조선 후기 화가의 재발견: 휴당 이계호(1754~1833)의 생애와 포도도 연구」, 『대동문화연구』 120(대동 문화연구원, 2022. 12).
- 김시습, 「미술에 개입된 일제 식민주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5, 2018. 7.
- 김현숙, 「朝鮮美術展覽會의 官展 樣式: 東洋畫部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2005.
- 송미경, 「충남미술의 흐름(1900~1960)과 국내 국립미술관의 현황」, 『충남도립미술관 설립방향 및 추진전략 전문가 포럼』 발표요지문(2019. 7. 15)
- 신수경, 「김두환: 생동감 넘치는 색채의 향연」, 『월성 김두환전』, 진고원갤러리, 2009.
- _____, 「1950-60년대 북한 조각계와 월북 조각가들의 활동」, 『분단의 미술사 잊혀진 미술가들』, 국립문화재 연구소, 2019.
- 유홍준, 「開花期 · 舊韓末 書畫界의 보수성과 近代性: 1880년부터 1910년 사이 미술의 동향」, 『舊韓末의 그림』, 학교재, 1989.
- 이안나, 「충남화단으로 이어진 후소회의 맥」, 『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 2022. 2.
- 채승희,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식민지 문화정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 학술지포지엄 자료집, 2022. 2.
- 『충남미술가편람 I』, 충남문화재단, 2021.

<기초자료>

『朝鮮美術展覽會圖錄』 총 19권, 1922~1940.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해방 이후(1945~1969) 충남미술계의 새로운 분위기와 전개 양상

이안나 | 명지대학교

I. 서론	1. 동양화 · 서예
II. 해방 직후의 충남미술계	2. 서양화
III.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충남미술	3. 조각
IV. 1950, 60년대 충남미술의 장르별 양상	V. 결론

I. 서론

이 글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초 충남 지역의 대학교에 미술 관련학과가 생기면서 이 지역 대학 출신 미술가들로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인 1950, 60년대 충남미술의 전개 양상과 흐름을 다룬다. 근현대기 충남미술사의 두 번째 시기를 1945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해방과 함께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충남 미술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대전공업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한 이동훈(李東勳, 1903~1984)과 대전 사범학교의 미술교사로 있던 박성섭(朴性燮, 1903~1974)이 중심이 되어 ‘미술협회’를 결성하고 《해방기념전시회》를 개최했다. 미술협회는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3월이 되어서야 ‘충남미술협회’로 재건되었지만, 충남미술협회의 결성은 해방 이후 충남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하던 미술교사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조직된 ‘충남미술협회’는 충남의 미술가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미술교사들을 중심으로 미술계가 조직되면서 1960년대가 되면 활기를 띠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9년까지 충남미술계를 살펴보기 위해 II 장에서는 미술가들의 세대별 환경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1950~60년대 충남화단을 이끌었던 1920년대생까지가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이나 가업, 화숙을 통해 미술공부를 했던 세대라면, 1930년대생들은 당시 20대로 국내 미술대학을 통해 교육을 받고, 미술가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던 시기였다. 또한 해방 직후 좌우익 미술 논쟁 속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고향을 떠나 북으로 올라간 미술가들이 발생한 것도 이 시기다. 해방 직후 충남에서는 어떤 작가들이 고향을 떠났고, 또 이주해 들어

와서 미술계를 이끌어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1950~60년대 많은 미술가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에서 활약한 충남 출신의 미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동훈을 비롯해 1960년대 활동한 이인영(李仁榮, 1932~2021)까지 충남에서 태어났거나, 충남을 기반으로 활동한 미술가들 다수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에서, 해방 이후에는 국전을 통해 화단에 입문하거나,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관전에서 활동하던 충남의 작가들은 1970년대가 되면 국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미술전람회》가 시작되자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며, 충남 미술계에 정착하게 된다.¹

IV장에서는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충남미술협회'가 재결성되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1950~60년대 충남미술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각 장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방 직후의 충남미술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맞은 민족 해방은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른바 '해방기(1945~1948)'에 미술가들은 우리 미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민족미술 수립을 위해 많은 방법을 모색했다.²

해방된 지 3일째 되던 1945년 8월 18일, 남쪽에서는 전국 문화 예술인을 규합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그 산하에 '조선미술건설본부(이하, '미건')'가 발 빠르게 결성되었다. 과거 친일 행적이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한 전 분야의 미술인 187명이 여기에 가입했다. 건국 사업을 도와 민족문화 건설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미건은 중앙위원장에 고희동, 서기장에는 정현웅이 맡아 활동했으며, 동양화·서양화·조각·공예 및 도안부와 함께 아동미술부, 선전미술대 총 6개의 분과로 이루어졌다.³

미건에 가입한 회원 중에는 충남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충남 출신 조각가 이국전(李國銓, 1915~?)은 조각부 위원으로, 이순석(李順石, 1905~1986)과 김재석(金在奭, 1916~1987)은 각각 공예 및 도안부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였다.⁴ 회원으로 활동한 작가로 동양화에 김화경(金華慶, 1922~1979), 이팔찬(李八燦, 1919~1962), 장욱진(張旭鎭, 1917~1990), 조중현(趙重顯, 1917~1982), 황영준(黃

1 『충청남도지 24. 현대편』(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 120.

2 신수경, 「변혁기미술: 해방과 전쟁의 파고를 넘어」, 『한국미술 1900-2020』(국립현대미술관, 2021), p. 92.

3 신수경, 위의 글.

4 최 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열화당, 2006), p. 80.

榮俊, 1919~2002) 등이 가입했고, 서양화에 구종서(具宗書, 1912~1988), 김두환(金斗煥, 1913~1994), 박상옥(朴商玉, 1915~1968), 이마동(李馬銅, 1906~1981) 등이 참여했으며, 공예 및 도안에 이완석(李完錫, 1915~1969)이 있었다.⁵ 이들은 일찍이 미술을 배우고자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오거나, 경성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다.

이 외에 '미건'의 결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화가로는 공주 출신의 이상범(李象範, 1897~1972), 홍성 출신의 이응노(李應魯, 1904~1989)와 부여 출신의 서예가 김기승(金基昇, 1909~2000) 등이 있다. 이들은 출향작가로 주로 중앙화단이나 국외에서 활동하였다. 이응노는 1958년 프랑스로 떠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거주하며 동양의 서예 전통을 서양의 추상적 기법에 녹여 내는 작업을 통해 한국의 미감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일조했다. 이상범 역시 주변의 친근한 풍경에 동시대인의 보편적 감성을 담아 1950년대에 이르러 이른바 '청전양식'이라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다. 한국 사경산수화의 전형을 완성한 이상범은 전통시대와 근·현대 화단을 잇는 작가로 한국 근현대 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록 이들의 화풍이 충남 지역의 화풍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활약은 충남 미술가들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해방 직후 전개된 충청남도의 미술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국현대사의 절곡을 상징하는 이른바 '월북작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각가 이국진(李國鎰, 1915~?), 유진명(兪鎭明, 1916~1984), 조선휘 화가 이팔찬(李八燦, 1919~1962), 황영준(黃榮俊, 1919~2002), 유화를 그렸던 최창식(崔昌植, 1920~?), 김장한(金長漢, 1928~?)이 그들이다.⁶ 이들은 1945년 해방을 맞이했으나 일본군을 무장해제 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았다. 월북 후 이국진과 유진명은 <천리마 동상> 등 기념비 조각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이팔찬, 황영준은 조선휘 화가로 이름을 남겼다. 최창식과 황영준은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으며, 김장한은 평양미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해방 직후 충남미술은 공주·부여·예산 등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과 대전·천안·서산 등 중부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⁷ 특히 해방 후 국내에도 미술대학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충남미술계도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이던 미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다.⁸ 실례로 대전에서는 해방 이전 5개에 불과했던 중·고등학교가 해방 이후 18개로 늘어날 정도로 학교의 설립은 계속 증가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미술교사의 유입은 화단에 활

5 충남 공주 출신의 청전 이상범은 일제 부역화가로 지목되어 미건에 가입할 수 없었다.

6 유진명은 일본에서 조각수업을 받다가 1943년 귀국, 고향인 충남 당진에 머무르던 중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이후 일제부역파 규탄 및 사회질서 유지 활동에 참가했고, 1946년 초 상경했는데 충청남도 인민위원회 산하 당진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리재현, 「유진명」, 『조선력대미술가편람』(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 341.

7 『충청남도지 24. 현대편』(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 120.

8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1896-1996) 下권』(충청남도, 1997), p. 930.

력을 붙여넣었다.⁹ 특히 1945년 10월 10일, 대전에서 각각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박성섭과 이동훈이 결성한 ‘충남미술협회’는 각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미술교사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해방 이후 충남미술이 활기를 띠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시기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활동하던 박성섭, 이동훈, 김기숙(金基淑, 1924~2002) 등은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동훈과 함께 ‘충남미술협회’를 설립해 충남미술의 발전을 도모했던 박성섭은 1945년 대전사범학교 설립 당시 미술 교사로 부임했으며, 이동훈은 1945년 대전공업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대전화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동훈은 1946년과 1948년, 대전에서 두 차례의 개인전을 치르며 활발하게 작품을 제작했고, 1969년 정년퇴임 때까지 충남에 머무르며 충남화단을 형성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1953년 충남미술협회의 발족에 참여했던 김기숙 역시 1946년부터 1960년까지 충남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박성섭, 이동훈과 함께 충남미술협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 외에 지역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한 화가로 구종서(具宗書, 1912~1988), 정택은(鄭澤殷, 1925~2005), 김두환(金斗煥, 1913~1994), 최덕휴(崔德休, 1922~1998), 김철호(金哲鎬, 1925~2011), 윤후근(尹厚根, 1923~2008)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해방을 맞이한 뒤에 낙향하여 본인의 고향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공주 출신의 구종서는 1945년부터 충남 도내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예산 출신의 정택은은 경성옥정상업미술연구소를 거쳐 국사과 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한 뒤, 예산으로 내려와 삼교공립국민학교와 서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¹⁰ 같은 예산 출신 김두환도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예산에 내려와 예산농업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홍성 출신 최덕휴 역시 해방 이후 홍성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기군 출신의 김철호는 연기군 소재의 금남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¹¹

이처럼 해방 직후, 충남지역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화가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화가들로 이들 중 일부는 경성 혹은 일본의 전문 미술교육기관에서 그림을 배워 조선미전 입상 경력을 갖고 있었다.¹² 이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예산 출신 화가 김두환의 활동이다.

김두환은 1946년부터 예산농업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김두환회화연구소’를 개설하였다.¹³ ‘김두환회화연구소’는 개인 화실이자 사설 교습소 역할을 했다. 당시 신문기사에 “김

9 김미정, 「1950~60년대 충남 서양화단의 전개 양상: 미술교사의 활동과 작품세계」, 『학술대회 자료집-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2022), pp. 26~33.

10 「정택은」, 『충남미술가편람』(충남문화재단, 2021), pp. 137~138.

11 김철호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대한 정보는 2007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김철호 개인전』(2007. 2. 14~3. 25) 도록 참조. 대전시립미술관, 『김철호』(대전시립미술관, 2007), pp. 86~87.

12 박성섭은 제10·11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한 바 있으며, 이동훈은 제7·10·11·13·14·15·6·18·1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다.

13 이 화실은 ‘김두환회화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김두환유화도장’이라는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백지홍, 「설봉 김두환, 근대미술사의 맞춰지지 않은 퍼즐」, 『미술세계』76(미술세계, 2018), p. 119.



도1. 서울대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후배들과 기념 촬영(1959.4.9.), 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2012), 자료제공: 이종상

두환이 고향 충청남도 예산에서 최근 십 년 동안 김두환회화연구도장을 운영해왔다.”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연구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김두환의 회화연구소는 시대적 분위기에 조응한 것으로, 충남미술사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방 직후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중시되었다. 많은 미술가들이 교습소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민족미술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1946년, 제국미

술학교 출신의 이쾌대(李快大, 1913~1965)는 서울 성북동에 성북회화연구소를 개설했으며, 배운성(裴雲成, 1900~1978)은 1945년, 서울 御成町 86(현재 의주로 2가) 제일빌딩 안에 조형미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¹⁵ 이외에 길진섭(吉鎭燮, 1907~1975)의 남산미술연구소, 백영수회화연구소(1947), 이인성(李仁星, 1912~1950)의 국화회연구소(1948), 흑석동에 문을 연 남관(南寬, 1911~1990)의 창림미술연구소(1948) 등이 모두 해방기에 새로 만들어진 미술교습소들이다.

김두환이 미술연구소를 개설한 데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일본 유학 직후부터 교육자로 활동했던 경험, 즉 교육자로서의 자부심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습소가 서울에 세워졌던 것과 달리 김두환은 미술이 그다지 저변화 되지 않았던 고향 예산에 세웠다. 그런 점에서 김두환회화연구소의 설립은 애향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두환이 설립한 ‘회화연구소’는 예산 지역 화가 지망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아, 이 연구소가 후학을 양성하는 미술기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한편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에 출생한 작가들은 충남 도내에 미술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1946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나 1949년 문을 연 홍익대학교에 진학하였다. 박노수(朴魯壽, 1927~2013)를 시작으로 최종걸(崔鍾傑, 1927~2000), 전영화(全榮華, 1929~), 민경갑(閔庚甲, 1933~2018), 강신철(姜信哲, 1934~1993), 장선백(張善栢, 1934~2009), 신영상(辛永常, 1935~2017), 이종상(李鍾祥, 1938~), 이철주(李撤周, 1941~) 등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홍익대학교에 진학한 작가는 제1회 졸업생인 이희세(李喜世, 1932~2016)를 비롯해 김동수(金東洙, 1935~2011), 이용휘(李容徽, 1937~2016), 오태학(吳泰鶴, 1938~), 하태진(河泰晉, 1938~), 김철성(金徹性, 1941~),

14 「김환회화연구도장」, 『중앙신문』(1948. 3. 25).

15 배운성은 해방 전부터 ‘운성회화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방 이후 조형미술연구소로 개칭하였다. 조형미술연구소는 1948년 폐쇄되었다.

16 신수경, 「예산 출신 미술가들의 계보와 작품세계」, 『2021년 내포문화 진흥포럼 자료집』(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pp. 46~47.

황만영(黃滿泳, 1941~2015), 이영수(李寧秀, 1944~) 등이 있다. 1940년대 출생한 작가군에서는 성장경(成昌慶, 1942~)과 전래식(全來植, 1942~)처럼 서라벌예술대학으로 진학한 작가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후대 세대들은 국내 미술대학에서 정규 미술교육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미술가의 수도 대폭 증가한다. 하지만 졸업 후 대다수가 서울에서 작가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서울대 재학생 미술전》이나 ‘재경 충남미술학우회’ 등을 만들며 전시를 개최하였다. 특히 1958년 결성된 루-불미술동인에 참여했던 이종상과 이철주는 서울대학교에 진학 이후에도, 서울대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한 대전고 학생들을 응원하며 미술교류를 이어갔다(도1).

Ⅲ.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충남미술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제1회 국전》이 열렸다. 전람회의 목적은 “민족미술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였다. 이는 식민지를 겪은 이후 민족적 자긍심을 찬란한 문화유산에서 찾으려는 노력이자 근대에 유행한 문화강국론의 반영이기도 했다.¹⁷ 후에 심사위원 및 특선작품 선정에 미술계 제도와 권위가 지나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의 진작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1949년 설립 당시 국전은 동양화·서양화·조각·공예·서예의 다섯 부로 운영되었다. 이후 《제4회 국전》부터 건축부가 신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부별 구성이 바뀌고, 제도 개편을 단행하며 전후 한국 사회의 변화된 흐름을 반영했다.¹⁸ 대표적으로 《제1회 국전》부터 진통을 겪었던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¹⁹ 원로화가들과 중견작가들의 명예로운 참여를 장려하고자 만들었던 제도가 미술계 일각에서 비판의 소리를 듣자 추천작가 위주로 초대작가제를 신설해 기성작가 우대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구성에 편파성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충남 출신 화가들 역시 《제1회 국전》부터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제1회 국전》에서 이상범(동양화), 이마동(서양화), 이순석(공예)이 추천작가로, 심사위원으로는 이국전(조각), 김재석(공예)이 활동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출향한 작가들로, 일제강점기부터 중앙화단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출향 작가들이 국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대전에 정착해 후학을 양성하며 활동하던 서양화가 이동훈의 특선 소식은 충남화단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이동훈은 《제1회

17 조은정, 「전후 현대미술가의 관심과 국전」, 『한국미술 1900-2020』(국립현대미술관, 2021), p. 132.

18 권영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상 아카데미즘」, 『한국근현대미술가학』35(2018), p. 153.

19 제24조: (심사위원회는) 예술원의 전형을 거쳐 본회 회장(문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술원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초대작가에 한한다.



도2. 이동훈, <농촌의 봄>, 1958, 캔버스에 유채, 80×100cm, 국립현대미술관



도3. 정환섭, <취월(醉月)>, 1956,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전> 출품작

국전>에서 <목장의 아침>으로 특선을 수상하였고, 연이어 <제2회 국전>에서 <목장>으로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국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한 이동훈의 활약은 대전과 중앙화단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영선은 이동훈과 그의 작품에 대해 “견실한 작가로써 오직 농촌 향기를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려고 노력한 의욕이 화면에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⁰ 이동훈이 국전에서 특선한 작품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1958년 그린 <농촌의 봄>(도2)은 박영선의 평가처럼 농촌을 소재로 견실한 화풍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제1회 국전> 수상작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충남 출신 작가로 서양화부에 최창식(崔昌植, 1920~?), 서예부에 김기승과 정환섭(鄭桓燮, 1926~2010)이 있다. 홍성 출신으로 당시 무명작가였던 최창식은 <석고 있는 정물>로 특선을 수상했고, 정환섭은 <전서대련(篆書對聯)>으로 특선을 받았다. 또 부여 출신의 김기승은 <고시행서이폭(古詩行書二幅)>을 출품해 문교부장관상을 받았으며, 휴전 이후 치러진 제2~4회 <국전>에 <해서칠언대련(楷書七言對聯)>, <죽서오언대련(竹書五言對聯)>, <전자칠언절구(篆字七言絕句)>를 출품하며 특선과 함께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서예부에서 특선을 차지한 정환섭은 박노수와 같은 1946년 서울대 미술대학에 입학했다. 응용미술과 제1회 입학생인 정환섭은 재학 중 손재형의 영향으로 전공을 바꾸어 서예를 배웠다.²¹ 국전 출품작은 아니나 1956년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취월>(도3)을 통해 정환섭 작품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서예는 미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서예부가 국전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환섭의 작품은 “새로운 조형적 처리에 있어서 발상과 수법이 서예술의 본질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서예를 그림의 한 요소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갔다.²²

20 박영선, 「제1회 국전 서양화평», 『민성』(1950.1);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열화당, 2006), p. 213에서 재인용.

21 이렇게 해서 손재형에게 사사 받게 된 정환섭은 손재형으로부터 정환섭의 고향인 학산리의 학(鶴)을 의미하는 ‘학남(鶴南)’이라는 호를 받게 된다. 『정환섭』, 『충남미술가편람』(충남문화재단, 2021), p. 146.

22 이동원, 『학남 정환섭의 서예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논문, 2017), p. 5.

한국전쟁으로 4년간 국전을 치르지 못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몇 달 후인 1953년 11월 《제2회 국전》이 열렸다. 이 전시에서 동양화에 충남 연기군 출신의 박노수가 까만 치마저고리가 매우 강렬한 대비효과를 주는 〈청상부(淸想賦)〉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선소운(仙簫韻)〉(도4)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노수는 이른 나이에 추천작가를 거쳐 심사위원, 운영위원에 위촉되었다.²³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입학과 동시에 상경하여 출향작가로 분류되었던 박노수는 충남미술사에서 자세히 다루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제30회 국전》까지 약 30회에 걸쳐 지속된 박노수의 국전 참가는 한 작가의 성장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동양화의 시대적 특성도 잘 드러난다.



도4. 박노수, 〈선소운〉, 1955, 《제4회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

한편,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제2회 국전》의 특색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작가들은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소를 화폭에 담았다. 동양화부에서 충남 아산 출신 화가 김화경은 〈설중남하(雪中南下)〉(1953)를 출품하였고, 같은 아산 출신이었던 이종무는 서양화부에서 〈폐허의 충무로 부근〉(1953)을 출품해 입선하였다.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 출품작은 알 수 없으나 이종무가 1950년 제작한 〈전쟁이 지나간 도시〉(도5)를 통해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잿빛 하늘에 벽체만 남은 건물을 배경으로 절망, 암울, 상실이라는 전쟁의 분위기가 색채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²⁴

《제8회 국전》이 개최된 1959년까지 동양화의 경우 서울대학교 출신의 민경갑(논산), 전영화(천안), 최종걸(공주), 장선백(당진) 등과 같은 작가들이 국전 동양화부에서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며 크게 활약했다. 먼저 논산 출신의 민경갑과 천안 출신의 전영화는 세밀한 수묵 선묘를 가미한 여인을 그린 인물화를 그려 국전에 입선했다. 민경갑이 제작한 〈밤거리의 여상〉이나 전영화의 〈휴정〉은 당시 전형



도5. 이종무, 〈전쟁이 지나간 도시〉, 1950, 캔버스에 유채, 45.5×37.3cm, 고려대학교박물관.

23 「미술전입선자 백구십칠명을 결정」, 『동아일보』(1949. 11. 19).

24 「이종무」, 『충남미술가편람』(충남문화재단, 2021), p. .



도6. 최종걸, <산수>, 1957, 《제6회 국전》 입선작



도7. 오태학, <전우>, 1961, 종이에 채색, 180×271cm, 《제10회 국전》 문교부장관상 수상작, 국립현대미술관.

적인 서울대 풍의 국전양식을 보여준다. 여기에 산세의 표현에 전통적인 준법을 적용하여 원경과 중경, 근경의 거리가 뚜렷한 작품을 제작한 최종걸이 <산수>(도6)로 입선하였고, 서양화부와 동양화부를 넘나들며 활약한 당진 출신의 장선백의 활약은 매우 이채롭다.

그러나 《제9회 국전》에서 부여 출신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온 오태학이 <닭장>으로 특선을 차지하던 1960년대 들어 국전 동양화부는 서울대와 홍익대라는 크게 두 개의 계파로 나뉘어진다. 《제4회 국전》과 《제5회 국전》에 홍성 출신으로, 고암 이용노의 조카인 이희세가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출신으로 입선을 차지하며 이미 이름을 올린 바 있으나, 국전이라는 대규모 전람회에 충남 출신 작가들이 앞다투어 특선을 차지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²⁵ 오태학(1938~)은 1960년 특선 수상 이후 《제10회 국전》에서 <전우>(도7)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제11회 국전》에서 <회>로 연이어 세 번의 특선을 차지하며 1963년, 25세의 나이에 국전 추천작가가 되어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예산 출신의 이종상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태학과 활동 시기가 비슷하여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장>으로 특선을 차지했다. 이종상의 작품은 국전 양식을 따르는 구상적인 인물화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볼 수 없었던 노동과 일상의 현장을 재현했다. 이종상은 과감한 구도와 실험적인 선염법을 통해 제11, 12회 국전에서 <작업>과 <장비>(도8)를 출품해 각각 내각수반상과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²⁶

국전에서 볼 수 있는 충남 출신 작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1950년대 말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한 한국 현대 수묵채색화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모임인 '묵림회(墨林會)'와 홍익대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신수회(新樹會)', 그리고 재야작가의 모임이었던 '백양회(白陽會)' 등의 새로운 미술단체에 충남 출신 작가들이 참여하여 동양화단의 흐름에

²⁵ 홍익대학교 제1회 졸업생이다.

²⁶ 국전에 출품되었던 이종상의 작품들은 국전 역사상 가장 최대 크기였다. 그러나 당시 경복궁미술관의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입선작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작품의 크기가 컸던 이종상의 작품은 의도치 않게 입선작의 수를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종상의 작품으로 인해 1963년부터 국전작품의 규격 제한이 생기게 된다. 김형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동양화 이종상(한국미술아카이브, 2015), p. 130.



도8. 이종상, 〈장비〉, 1963, 종이에 수묵담채, 290×205cm, 《제12회 국전》 무감사 특선작, 국립현대미술관



도9. 하태진, 〈나무구성〉, 1964, 종이에 수묵담채, 32×32cm(출처: 『하태진의 예술세계, 심수상응(心手相應)』,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7)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²⁷

먼저 가장 이른 시기인 1957년에 조직된 백양회에서 조중현, 김화경이 활동하며 충남 출신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백양회는 현대적인 동양화를 지향한다는 기치 아래, 해방 후 최초로 대만과 홍콩, 일본 등지에서 해외전을 개최하였으며, 무엇보다 당시 관전인 국전에 버금가는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김화경은 백양회 활동 중인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춘가〉로 특선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백양회가 이미 화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견작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목림회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국내 미술대학에서 고등미술교육을 받았던 젊은 작가들이 결성한 첫 미술 단체라 할 수 있다.²⁸ 1960년 그룹을 결성한 목림회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1회 졸업생인 전영화·장선백·최종걸·민경갑이 《제1회 회원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서울대 목림회 활동에 자극받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생들은 1963년 '신수회'를 결성했다. 목림회가 기성 화단의 형태와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태도를 중시했다면, 신수회는 이념보다는 새로운 조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특히 신수회가 충남의 동양화단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신수회를 결성한 초기 여섯 명의 동인들 중 대부분이 충남 출신 작가

²⁷ 1960년 서울대와 홍익대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일신회를 결성하였으나 학교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단 1회전을 끝으로 와해되었다. 신수경, 「구술사적 분석을 통한 한국 현대 수묵화 읽기: 조평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p. 161.

²⁸ 조희성, 「한국 현대 수묵채색화단의 태동-백양회, 목림회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 54.

라는 점 때문이다. 서천 출신 김동수(1935~2011), 금산 출신 하태진(1938~), 부여 출신 오태학(1938~)과 이용휘(1937~2016)가 모두 신수회 멤버들이다.

하태진의 회고에 따르면 1960년대 초는 추상미술이 전개되며 마치 '열병'과도 같았던 앵포르멜 시대로 들어선 때였다. 추상미술의 흐름에 맞춰 하태진은 자연적 표현보다 먹의 변화에 집중한 <나무구성>(도9)과 같은 작품을 제작했다.²⁹ 이용휘와 김동수는 신수회에서 활동했으나 추상화의 유행에서 벗어나 '동양화의 전통'을 찾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이용휘는 <귀로>와 같이 고향 풍경과 민담을 소재로 한 풍속화를 제작했고 김동수는 전통 산수화의 필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철저히 사생에 의한 작업에 천착했다.

IV. 1950, 60년대 충남미술의 장르별 양상

1. 동양화 · 서예³⁰

충남에서 전개된 동양화단의 양상은 미술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장치의 여부에 따라 서술되어 왔다. 즉 도내의 대학에 미술교육과가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동양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개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등에서 전공을 하고 중앙화단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³¹ III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충남미술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전의 특선 수상작들이 대부분 출향작가들로 구성된 점은 이러한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충남미술사 조사를 통해 충남 지역 내에서도 새로운 화단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동양화단의 1세대의 화가라 할 수 있는 박승무가 대전에 정착해 전통화단에 두각을 나타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승무가 충남에서 가지는 의미는 1957년 '제1회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으로 대변된다.³²

박승무와 함께 충남 화단에 영향을 미쳤던 공주 출신의 이경배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다수의 입선과 특선을 수상했고, 《서화협회전》에서도 활동했던 이경배는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목란>(도10)으로 특선을 수상해 사군자의 예맥이 충남 지역에 이어져 오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60년 작고하기 전까지 공주중학교, 온양중학교 등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인전을 개최하며, 공

29 이구열은 하태진의 작품에 대해 "기술적으로 화선지를 적시며 묵색을 자연적인 효과에 맡긴다. 그리고 복잡한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평한 바 있다. 이구열, 「젊은 세대의 동양화가들 청토회와 신수회화전」, 『경향신문』(1970. 10. 15).

30 공식적으로 '한국화'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로, 이 글에서는 국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출품 분야인 '동양화' 명칭을 사용하였다.

31 『충남근현대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75.

32 충남 출신 작가는 아니었으나 박승무는 1957년 대전시 대흥 2동 49-25번지의 주소에 정착하며 만년을 줄곧 대전에서 보내며 지역의 미술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충남근현대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53.

주 출신의 사군자 화가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 주었다.³³

비슷한 시기 전통화풍을 고수한 동양화가로 우민형(禹民亨, 1906~1978)이 있다. 1953년 결성된 ‘충남미술협회’에서 박승무와 함께 초기 일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우민형은 충남 지역 출신 작가는 아니지만, 한국전쟁 이후 대전에 정착하여 1957년부터 1970년까지 보문고등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우민형의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필획이 초초한 문인화풍의 산수화인 <동학사 설경>, <산수>(도 11)가 있다.

그러나 충남미술사 조사 연구를 통해 유족에게 입수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우민형의 또 다른 작풍(作風)을 보여준다. 『대전일보』에 소개된 스케치풍의 소품 3점은 우민형의 그림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한 것이다(도 12). 우측 상단에 “폭격권 내에서 신음하는 가족의 안위를 우려하면서…”라는 글과 함께 “단기 四二八四”가 적혀 있어 1951년 한국전쟁 기간 떨어져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작품은 일종의 기록화로, 우민형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사제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우민형의 다양한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도 10. 이경배, <묵란(墨蘭)>, 1959, <제8회 국전> 서예부 특선작



도 11. 우민형, <산수>, 1960년대, 32×130cm, 한지에 먹, 유족소장



도 12. 우민형, <좌측부터> <孤孤一身(고고일신)>, <춘양원(春陽園) 주인 은거(隱居)의 땅>, <폭격권 내>, 1951, 유족소장

33 「동양문화회의 중진 석연 이경배 화백 개인전 개최」, 『대전일보』(1953. 8. 9); 「석연 개인전 성황」, 『대전일보』(1955. 5. 8); 「석연 동양화 개인전회 상황」, 『대전일보』(1958. 1. 18).



도13. 권탁원, <송학>, 1962, 65x80, 한지에 붓채·먹, 65x80cm



도14. 이명희 <칠면조>, 1960, 《제9회 국전》 입선작



도15. 조중현, <송학>, 1959.

충남 지역 동양화단의 전개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특징으로 이당 김은호의 지도를 받았던 낙청현 출신 작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서화 지망생의 증가에 따라 개인 교습소였던 화숙의 경영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활성화되었다. 그중 가장 명성이 높았던 낙청현은 채색 인물화로 명망이 높았던 김은호가 운영하던 곳으로 동양화가 2세대를 가장 많이 배출한 화숙이기도 했다.³⁴ 충남이 고향인 한유동·조중현·김화경·김재배·이팔찬·이창호 등은 1936년 창설된 ‘후소회(後素會)’ 회원들이다. 후소회는 김은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동문 모임으로 한국전쟁으로 월북한 이팔찬을 제외하면, 1960년을 전후로 한유동·조중현·김화경·김재배는 중앙에서 활동하지만, 그 전까지 충남에서 활동했다. 특히 한유동, 김화경은 1950년대 각각 충남 합덕중학교와 천안의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했으며, 1958년 ‘녹청회’를 조직해 지역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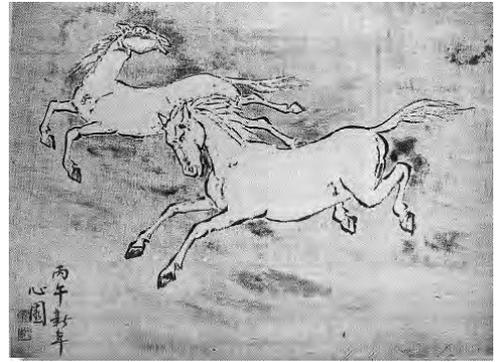
무엇보다 1961년 중앙화단으로 가기 전까지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던 조중현의 행보는 충남 지역 동양화단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중현은 대전에 거주하며 스승 김은호에게서 배운 공필채색화법의 화조·영모화를 꾸준히 제작했는데 이는 조중현을 사사한 이명희(李明熙, 1938~)와 권탁원(權卓遠, 1938~)의 작품에서 보이는 화풍에서 잘 드러난다.

세 작품 모두 공필채색화법의 화조화로 그중에서도 이명희와 권탁원은 조중현을 사사한 뒤 국전에서 다수의 입선을 차지해 대전 최초의 여성작가로 기록되었다(도13, 14).³⁵ 특히 권탁원의 <송학>(도13)은 조중현의 작품인 <송학>(1959, 도15)과 소재와 구도가 매우 유사하다. 두 작품 모두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소재인 학과 소나무를 그렸으며, 권탁원은 스승 조중현이 그린 중

34 송미숙, 『이당 김은호 회화세계 연구, 인물화를 중심으로』(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2016), p. 130.

35 권탁원은 제9·10·12회 <국전>에서 각각 <타조>와 <짓 짜는 소>, <산양>으로 입선하였고, 이명희는 제9~12회 <국전>에서 <칠면조>, <칠면조>, <추일화>, <닭장>으로 입선을 수상하였다. 이명희와 권탁원이 조중현 문하에 들어가게 된 데에는 이동훈의 역할이 컸다. 이명희는 이동훈의 딸이었고 권탁원은 대전사범학교를 다녔던 이동훈의 제자였다. 『충남근현대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59.

폭의 <송학>에 양옆이 생략된 소나무를 그렸다. 조평휘는 권탁원의 작품을 두고 “채색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초기작은 심원(心園)의 영향으로 인물과 동물 등이 주제가 되어 완성된 기량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³⁶ 이명희 역시 권탁원과 비슷하게 조중현의 영향을 받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가적이고 향토적인 경물을 배치한 화조를 소재로 삼아 향토적 감흥을 보여주는 <칠면조>(도14)를 제작했다.



도16. 1966년 대전일보에 수록된 조중현의 신년시화(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조중현은 1961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대전을 떠나기 전까지 충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후에도 1966년 『대전일보』에 신년시화를 보내거나 지역미술전람회와 《충청남도미술대전》의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도16).³⁷ 이와 같은 행보로 조중현은 지역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9년 박승무의 뒤를 이어 ‘제3회 충남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렇듯 이 시기 충남지역의 동양화단은 주로 일제강점기 화숙을 통해 미술에 입문했던 화가들이 충남 각 지역에 머무르며 후학을 양성했다.

2. 서양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초기 충남 서양화단은 미술교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³⁸ 이 시기 충남의 서양화단은 충남 출신의 화가들이 중앙화단에서 큰 역할을 했던 동양화단과 달리 오히려 충남 지역에 머무르며 서양화를 보급했던 화가들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 충남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화단을 주도해 나갔다. 대표적으로 박성섭·이동훈·김기숙에 이어서 김철호·윤후근·김성재·신봉균·이인영·정택은·홍동식 등이 있으며 해방기부터 개인전을 개최해 작품을 소개했다.

1946년 10월, 대전에서 30여 점의 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던 이동훈을 시작으로 1953년 전북 김제 출신 김성재(1923~1968)가 강경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후 차례로 김기숙, 임봉재, 김철호, 신봉균 등이 개인전을 개최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1953년 1월 전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던 ‘충남미술협회’가 박성섭, 이동훈, 김기숙을 중심으로 재건되며 충남미술의 발전을 예고했고, 이후 해마다 ‘충남미술협회전’을 개최하고 학생들의 미술활동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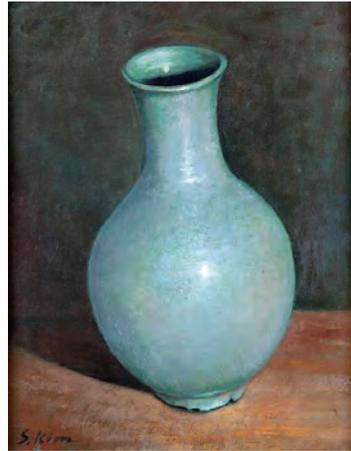
³⁶ 조평휘, 「권탁원 개인전에 부쳐」, 『권탁원화집』(공평아트갤러리, 2002), p. 4.

³⁷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73.

³⁸ 김미정, 「1950~60년대 충남 서양화단의 전개 양상: 미술교사의 활동과 작품세계」, 『학술대회 자료집-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2022), pp. 26~33.



도17. 이동훈, <뜰>, 1950, 100×72.7cm,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도18. 김성재, <자기(瓷器)>, 1960, 캔버스에 유채, 37×30cm

원했다.

충남미술계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이동훈이다. 전술한 대로, 이동훈은 국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추천작가·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동훈의 활약은 충남 지역 화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동훈의 작품은 작품이 화려하거나 뛰어난 기교보다는 관조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화면을 운영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³⁹ 대부분 농촌의 일상이 담겨있는 향토색 짙은 풍경화를 제작했으며 대상을 생략하거나 재구성하는 화면 경영보다는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담았다. 1950년에 제작한 <뜰>(도17)이 바로 이런 유형의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화초 줄기와 구름이 유려한 선을 만들고 있으며, 화려한 색채를 구사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이동훈의 작품은 성실하고 소박한 필치를 통해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자연에 대한 순수한 감정이 정직하게 표현되었다는 평을 받는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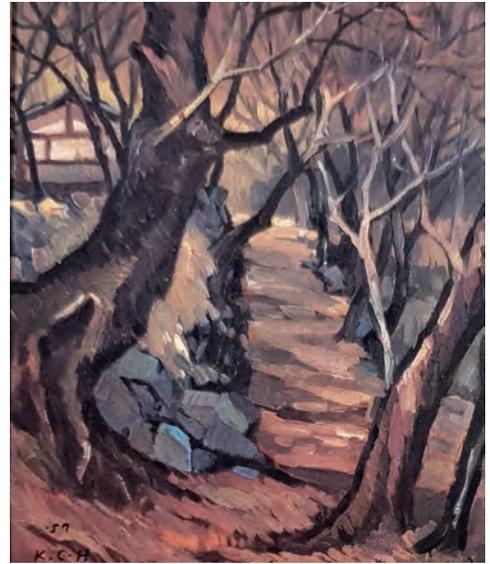
한편 김성재는 1953년 강경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천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1968년 작고할 때까지 태평양미술학교 출신 동문인 박득순·손응성·조병덕·남관 등과 꾸준히 교류하며 충남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김성재는 주로 사실적인 묘사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1960년에 그린 <자기(瓷器)>(도18)는 기울어진 푸른 자기를 화면 가득 차게 배치해 자기의 입체감과 광택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그가 1963년에 그린 <호두>는 지역의 특산물인 호두를 소재로, 위에서 내려다 본 구도로 그린 작품이다. 붉고 짙은 갈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확한 데생을 바탕으로 화면 가득 호두를 묘사한 이 작품은 김성재의 필력과 구상회화 작가

39 정준모, 「순진한 눈과 소박한 마음의 작가 무애(無涯) 이동훈의 삶과 예술」, 『탄생100주년 기념 이동훈 회고전 도록』(대전시립미술관, 2003), p. 12.

40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14.

로서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대전고등학교, 호수돈여고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미술교사로 활동하며 그림을 그렸던 김철호(金哲鎬, 1925~2011)의 작품은 인물화나 초상화도 있지만, 사실주의 계열의 풍경과 정물이 주를 이룬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잠시 추상을 시도하며, 관념적 사상을 화폭에 담아낸 시기도 있었다. 1957년 작 <고산사>(도19)는 사찰로 진입하는 흙길과 주변의 고목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의 어느 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⁴¹ 김철호는 포착한 대상을 굵은 터치를 사용해 단순한 구도로 표현했다. 이는 야외 현장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창작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김철호의 작품은 주로 소품이 많다.



도19. 김철호, <고산사>, 1957, 캔버스에 유채, 53×45.5cm, 대전시립미술관

김철호와 함께 루-불미술동인회 지도교사로 활동했던 홍동식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55년 대전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전에 정착했다. 홍동식은 1966년부터 충남대학교에 출강하며, 색채와 관련한 미술 이론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실내외의 색채와 광선에 관한 이론 연구 때문인지 홍동식은 빛·공기·색채가 지닌 순간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강조했다.⁴² 하지만 풍경과 꽃을 주제로 한 1980년대 작품들은 평온한 우리의 산천을 포착해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 특히 물감을 짙게 여러 번 겹쳐 올리며 두터운 마티에르를 화면에 구현했는데, 이러한 채색 방법은 붓이 아닌 나이프를 활용했다. 그래서인지 가까이에서 보면 상당히 거칠어 보이지만 조화로운 색의 조합으로 인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특히 광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기와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의 색채를 표현한 점과 풍경을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점이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를 연상시킨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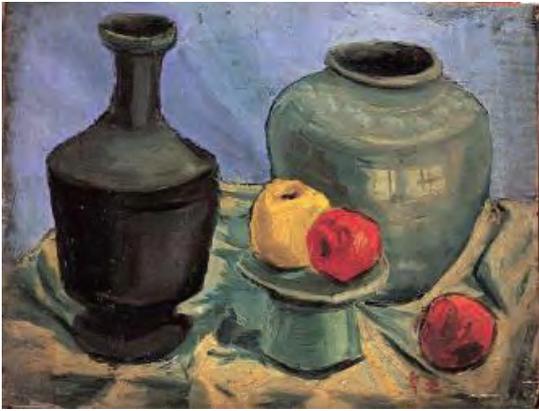
김철호, 홍동식과 함께 활동했던 미술교사로 윤후근도 있다. 초기 충남 화단에서 개인전 기록이 보이지는 않지만, 윤후근은 1949년 논산 강경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발령받으면서 김철호, 이인영 등 대전미술계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윤후근의 작품은 이동훈과 비슷한 화풍으로 감지된다.⁴⁴ 윤후근이 《제1회 충남미전》에서 입선한 작품은 아니지만 1950년에 그린 <정물>(도

41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p. 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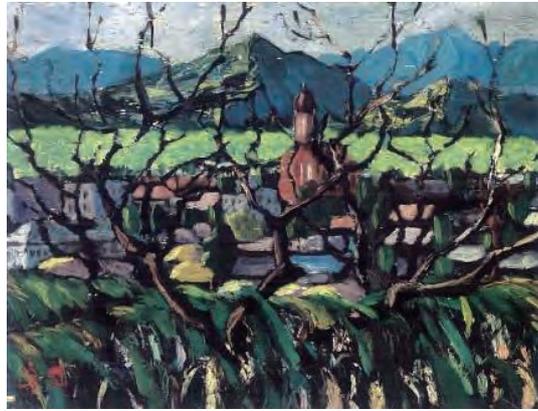
42 현재 확인되는 홍동식의 작품은 대부분 1992년 정년퇴임을 기념하며 가졌던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들이어서 초기 화풍은 분석이 어려운 형편이다. 『정년퇴임기념 초대-홍동식작품전』(대전문화원, 1992) 도록 참조.

43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p. 149.

44 윤후근은 1956년에는 대한미술교육회 회원이 되었고, 1958년 충남도지사로부터 우수공무원상을 받는 등 공직에 충실했다. 그리고 강경상업고



도20. 윤후근, <정물>, 1950, 39.8×52cm, 패널에 유채, 대전시립미술관



도21. 윤후근, <논산 시내>, 1955, 38×45.5cm, 캔버스에 유채, 대전시립미술관

20)을 보면, 안정적인 구도로 투박한 전통 도기들과 과일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는 다소 굵은 붓질로 그은 윤곽선과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채색이 보인다. 그림 하단에 ‘후근’이라고 붉은색으로 쓴 한글 사인은 마치 박수근의 사인처럼 단순하고 투박하다. 윤후근은 1962년 『대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작품 경향에 대해 “화려(華麗)한 꾸밈보다 꾸밈없는 소박(素朴)한 무장식(無裝飾)의 것이 마음에 든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⁴⁵ 그가 남긴 미에 관한 소신처럼 윤후근이 논산공업고등학교 시절에 그린 <논산 시내>(도21)에도 소박한 논산 풍경이 담겨있다. 이 작품에는 전면에 큰 나무를 배치하고 잎이 없는 나무 뒤로 논산의 풍경이 보이며, 화면 상단의 원경에는 나지막한 산이 솟아있다. <논산 시내>는 세잔의 생빅투아르 산과 유사한 구도와 색채가 보이며, 앞서 보았던 <정물>도 세잔 정물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초 앙포르멜 계열의 작품이 국전의 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1962년 4.19와 5.16으로 국내 정세가 변화가 극심했던 시기, 충남에서는 한국예총 충남지부가 만들어졌고, 기념전으로 충남공보관에서 《5.16기념 미전》을 열었다. 충남미협 소속의 많은 화가가 출품했는데, 이 기념전에 참여한 서양화가는 김성재·홍동식·윤후근·이남규·조영동·신봉균은 미술교사들이었다. 특히 이남규·조영동·신봉균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충남에 교사로 발령받았던 추상계열의 작가로, 신봉균과 조영동은 각각 1960년과 1961년 대전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들이 보여준 화풍은 1950년대부터 사실주의 풍경화와 정물 위주로 작업을 해오던 이전 세대 작가들과는 다른 추상적인 양식이 충남에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상회화 창작 비중이 높았던 충남 화단에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어 넣은 작가로 신봉균(申鳳均, 1929~2000)을 들 수 있다. 신봉균은 1960년 3월 총 29점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이 전시는 ‘새로운 회화 세계의 창조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전시’로 소개됐

등학교 이후, 논산공업고등학교, 연산중학교, 대전여자중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의 미술교육을 위해 활약했다. <윤후근 교장 정년기념 회고전>(1. 23~1. 27) 소책자(대전문화원, 1988).

⁴⁵ 윤후근, 「虛實한 裝飾이 싫다」, 『대전일보』, 1962. 6. 19(『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11에서 재인용).

다. 신봉균은 흙빛의 목가구를 연상시키는 작품 〈고향〉(1959, 도22)을 제작했는데, 이 작품은 목가구의 형태를 해체하여 화면에 재배치하고, 구획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61년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미술작가초대전》에 출품해 추상미술의 흐름에 동참했던 신봉균은 1964년 《제3회 개인전》(대전문화원)과 1966년 《제4회 개인전》(대전, 예총회관)을 열며 작고할 때까지 대전·충남 화단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추상미술을 전개한 1세대 작가이다.

신봉균이 기하학적인 도형에 가까운 형태로 면을 구획하고 분할하는 화면 구성을 보여주었다면, 조영동(趙榮東, 1933~)은 색의 번짐과 긁어내고 흘뿌리는 효과 등을 살린 추상을 선보였다. 그는 추상미술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1960년대 초반 큐비즘에 관한 미술 이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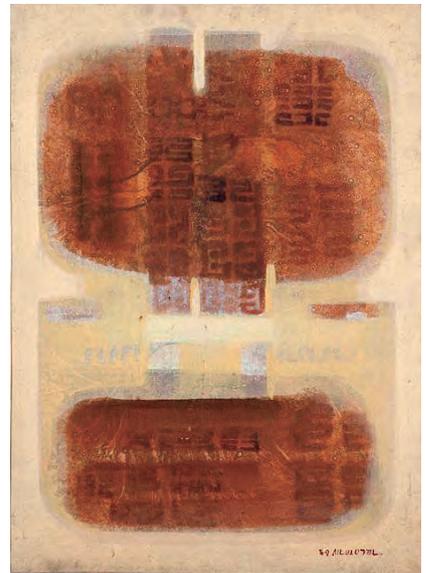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조영동은 문화예술모임에서 함께했던 작가들과 수요동인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주로 구상 계열의 작품을 제작하던 이남규 역시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해가는 변화를 보여준 작가이다.

온화한 파스텔조의 색면에 자연의 이미지가 반영된 〈Work〉(1960, 도23)에서 이남규는 나뭇잎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초기 구상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을 찾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1960년대 중반 부터 점과 선을 활용해 세포(cell) 같은 색면들로 화면을 가득 채운 작품을 제작했다.

1969년 작 〈Work〉(도24)는 화면을 구획하고 사각형의 화면 안에 또 다른 큰 테두리를 그려 넣어 마치 그림 속의 그림을 보는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빛을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남규는 잔 붓질을 반복했는데, 유화에 표현된 이러한 잔 붓질의 반복 또한 스테인드글라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녹청회를 비롯한 동인전과 교사들의 개인전이 꾸준히 열렸고, 학생들의 그룹전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1962년 지역 출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재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서울미대학생전》을 열었다.⁴⁶ 김인중, 하동철 등이 참여했는데 추상미술을 추구했던 김인중과 하동철은 서울에서 배운 새로운 감각을 지역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1966년 이인영이 《제15회 국전》에서 〈오후〉로 국회의장상(서양화부 대상)을 받은 일은 지역 화단에 더없이 큰 경사였다.⁴⁷ 1963년 국전에 첫 입선을 했던 이인영은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국전에서 4회 연속 특선을 수상했는데, 스승이나 학연 없이 독학으로 이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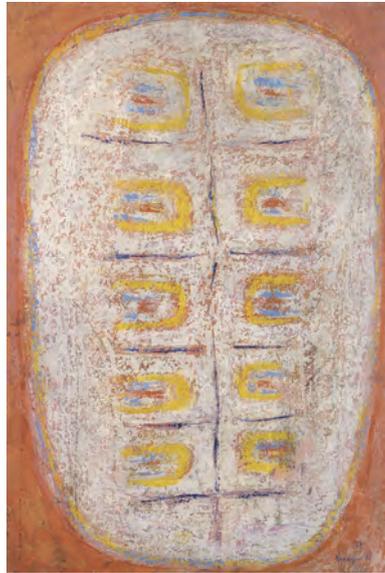
도22. 신봉균, 〈고향〉, 1959, 캔버스에 혼합재료, 72.5×52.7cm, 대전시립미술관

46 「서울미대학생전 ... 오늘부터 공보관서」, 『대전일보』(1962. 7. 23).

47 류철하, 「색채의 탐미-자연의 빛을 따라간 화가」,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대전시립미술관, 2017), p. 5.



도23. 이남규, <Work>, 1960, 캔버스에 유채, 52×45cm, 국립현대미술관



도24. 이남규, <Work>, 1969, 캔버스에 유채, 73×52cm, 국립현대미술관

였다. 1968년 국전 초대작가가 된 이인영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구상미술 작가들의 모임인 ‘목우회’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인영은 2009년까지 약 30회의 개인전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교육자를 양성하는 등 충남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성재와 함께 민족기록화 작가로도 선정되어 1964년 <대민사업과 한월친선>을 제작하기도 했다. 1960년대 이인영의 작품은 국전풍의 인물화 위주로, 주요 대상인 인물을 화면 가득 배치하고, 배경을 충실하게 묘사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당시 한밭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기숙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한 임봉재는 이후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다.⁴⁸ 그러나 어려운 경제 형편과 신장병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중도에 그만두고 대전으로 내려와 1957년 대전공업고등학교 강사를 시작으로 대전 일대의 미술교사로 근무했다.⁴⁹ 1961년 개인전까지는 수채 풍경화를 선보였던 임봉재는 1950년대 말부터 유화를 시작해 대담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과 향토적 색채를 보여주었다.⁵⁰ 1960년대에는 모더니즘 경향의 서양미술과 한국의 전통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반구상 경향의 작품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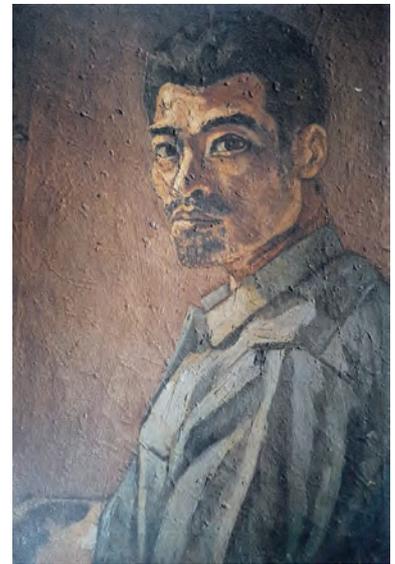
대전 중심으로 활약했던 화가들 외에도 홍성, 예산 등지에서 미술교육과 작품 창작이라는 두 영역을 드나들며 현재까지 화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로 정영복, 신현국(申鉉國, 1938~) 등이 있다. 정영복은 1959년(22세)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과 야간반에 입학했고,

48 이용호, 「임봉재(林奉宰) 이야기」, 『임봉재: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2019), p. 80.

49 신항섭, 「임봉재의 작품세계: 개별적인 형식을 향한 여정, 그 출발점」, 『대전원로작가회 아카이브 I : 임봉재 ·故김치중화백 회고전』(원로작가회 화연전, 2017), p. 14.

50 김민기,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봉재」, 앞의 도록(2019), p. 8.

입학하던 해에 《제1회 개인전》(청양문화원)을 개최할 정도로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1964년(27세) 홍성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던 정영복은 1960~1970년대에 주로 사생을 바탕으로 한 풍경화를 제작하며, 건실한 화면 구성과 안료의 질감이 강조된 화풍을 보여주었다.⁵¹ 이 시기 세간의 삶과 회화에 매료되어 붓의 터치로써 면을 만들어내며 화면을 구성했고, 실제로 찾아다닌 자연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풍경화를 많이 그린 정영복은 인물화에서도 강한 인상을 주는데, 옆모습을 그린 〈자화상〉(1969, 도25)은 거친 갈색 바탕에 같은 색조의 얼굴을 그렸다. 정영복은 교편생활을 하며 충남미술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 중 한 명이며, 서정적인 시골의 정취를 담은 풍경화를 꾸준히 그리고 있다.



도25. 정영복, 〈자화상〉, 1969, 캔버스에 유채, 72.7×53cm

신현국은 충청남도 예산 출생으로, 예산국민학교 3학년 때 김두환에게 스케치와 데생을 배우면서 미술을 시작했다. 1960년대 앵포르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현국은 1974년 대전에 홍명미술관을 개관해 이동훈, 이마동, 남농 허건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당시의 비구상작업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이나 사립문 등 고향 풍경을 연상시키는 자신의 체험적 삶과 연관이 깊은 이미지를 담았다. 이후에는 계룡산을 주제로 산 그림 연작을 선보이며 ‘계룡산 화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3. 조각

충남 출신 조각가 중에서 근대조각가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미술학교 출신의 이국전(1915~?)과 유진명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조각가로 이국전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김복진 문하에서 조각을 배웠으며, 유진명은 예산 출신으로 조각 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근무하며, 귀국 후 고향에 머물며 작품을 제작했다. 그러나 이국전과 유진명 모두 한국전쟁 이후 월북하여 현재 전해지는 작품은 없다.

해방이 되고 1946년과 1950년에 각각 서울대학과 홍익대학에 조각과가 생기며 우리나라 조각계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충남지역에서도 각 대학으로 조각을 배우기 위해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부여 출신의 김영학(1926~2006)과 대전 출신으로 초창기 지역 조각계를 선도한 최종태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 현대조각의 태동기에 충남 조각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926년에 출생해 194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에 입학한 김영학은 졸업 이후

51 정영복의 시기별 작품 경향에 대해서는 이순구, 「부드러운 풍경-도원향(桃園鄉)」, 위의 도록, pp. 38~39 참조.



도26. 김영학, 〈사슴〉, 1958, 청동, 75×63×15cm



도27. 강태성, 〈해울〉, 1966, 《제15회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제1회 김영학 조각 개인전》을 가지며 작가로서 빠른 활동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1963년 서울대와 홍익대 출신의 조각가들과 함께 ‘전위조각’을 모토로 의기투합한 ‘원형회(原形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⁵² 그는 1958년 서울 공보관에서 최초의 개인전에 출품했던 작품들과 개인 소장품 전부를 부여군에 기증하여 ‘정산 김영학 조각관’을 만들었다. 김영학은 전후 현대 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로, 김영학 조각관은 그러한 충남 조각이 한국 현대 조각의 선봉장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학의 작품은 대체로 표면의 질감을 살려 재료의 물성을 강조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제1회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 중, 〈사슴〉(도26)이 대표적인데, 김영학은 단순한 형태와 리드미컬한 선의 유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김영학의 작품은 당시 한국 근현대 조각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였던 추상조각의 양상을 보여준다. 1950년대 후반기 회화부문처럼 조각계에서도 추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추상조각에 대한 관심은 재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이제까지의 나무, 돌, 청동이 주가 되었던 조각의 재료에 철조를 비롯한 금속이 새로운 재료로 등장하였다.⁵³

서울대학교 조각과에 입학해 김종영과 윤승욱에게 조각을 배운 공주 출신 조각가 강태성 역시 형상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을 하며 이를 위해 대리석, 화강암, 검은 돌, 청동 등으로 재료를 확대해 작품을 제작했다. 특히 부드러운 곡선과 율동감을 구현한 〈해울〉(도27)을 제작해 《제15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강태성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전으로 피난을 내려와 당시 연합대학 형태로 수업에 참여하던 중 이동훈의 부탁으로 조각을 강의하기

52 원형회는 “일체의 타협적인 형식을 부정하고 전위적 행동의 조형의식을 가지고, 공간과 재질의 새 질서를 추구하여 새로운 조형윤리를 형성한다.”는 선언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전위 조각가들이 총망라된 단체였다.

53 김영나, 「한국 근대 조각의 흐름과 성격」, 『미술사학제8호』(1994. 8), p. 57.

도 했다.⁵⁴

1950년대 후반, 추상조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1960년대 현대조각으로 이행하던 시기에 여느 미술 분야나 그렇듯 조각계 역시 새로운 현대조각의 실험이 한창일 때 보수적으로 치부되는 구상조각을 제작하며 자신의 미술세계를 모색한 화가들도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출신의 송영수(1930~1970)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겪으며 한국 조각계의 흐름을 여실히 드러냈다. 송영수는 인체의 사실적 표현에 집중하던 1950년대 전반 조각계의 흐름을 따라 이 시기 작품은 자매, 가족을 주제로 한 석고 입체 조각상을 주로 제작했다. 실제로 여인을 소재로 한 입상 〈희망〉을 제작해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첫 특선을 수상한 후, 제5회까지 연이어 특선을 차지한 바 있다.⁵⁵ 이러한 송영수에게서 직접 용접 조각을 배운 대전 출신 조각가 남철은 드럼통의 철판과 양철 파편, 금속 파이프, 기계 부속품 등 다양한 철물을 결합한 용접 조각을 제작해 《제10회 국전》에서 〈환상〉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조각 분야에서 충남미술에 큰 공헌을 남긴 작가는 최종태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서울대에 입학해,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석고로 제작한 〈서 있는 여인〉으로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 미술에 활기를 더했다. 공주고등학교, 천안여자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 대전 대성고 교사로 재직하며 국전에 참여했으며, 1964년 대전문화원에서 제1회 개인조각전을 개최하였다. 최종태는 이처럼 지역 미술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충남문화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제1회 개인전》은 조각 부문에서 열린 첫 개인전으로 기록되고 있어 그의 활동은 조각이 충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태는 가톨릭교회를 위한 조각상을 주로 제작했지만 전형적인 성당조각상의 형태를 답습하지 않았다. 실례로 한국의 사찰이나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장승이나 이집트 조각에서 보이는 부동성이나 정면성을 자신의 조각 작품에 반영해 종교 조각 제작을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 조각의 현대화와 토착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⁵⁶

이 시기 국전과 대립되는 재야전의 성격을 가지고 첨예한 전위적 미학을 표방했던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한 《현대미술가 초대전》에도 참여 하였는데 실제 충남 출신의 강태성, 김영학 등이 있어 초기 충남 출신 작가들이 진취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에도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충남 조각의 1세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한국 현대조각의 흐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 현대조각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54 황효순, 「대전 조각의 선구자들」, 『대전문화』26(대전광역시, 2017), p. 114.

55 「송영수」, 『충남미술가편람』(충남문화재단, 2021), pp. 172~173.

56 「관음의 미소는 성모를 닮았다」, 『한겨레21』(2000. 6. 1).

V. 결론

지금까지 해방 직후부터 1969년까지 충남미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해방이 되자마자 결성된 전국 규모의 미술단체인 미건에 가입한 충남 출신의 작가들이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활동한 작가들은 일찍부터 미술을 배우고자 상경하여, 경성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유학을 경험한 세대들이다. 여기에는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상징하는 '월북작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남미술사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 활동하면서도 1967년, 서울에 거주하는 충남 출신 미술가들은 향미회(鄉美會)를 발족하며 《재경충남 출신화가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영향을 끼쳤다.

한편, 1949년부터 개최된 국전에서 입·특선한 충남 출신 작가로 서양화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동훈과 서예에서 문교부장관상과 특선을 받은 김기승과 정환섭의 활동은 충남화단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기승과 정환섭은 충남화단에 서예의 예맥이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처럼 국전에서 활동한 작가들 중 이 글에서는 출향작가들의 활약을 살펴보는 동시에 충남 지역의 미술전개 양상을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장르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동양화단에서 활동한 이경배, 우민형처럼 이 시기 충남화단은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1950~19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폐허에서 점차 벗어나 충남화단 나름의 조직을 갖출 준비를 하지만,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국내 정세가 극심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다. 1960년대 초가 되면 충남화단에도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이 유입되는데, 이는 이남규·조영동·신봉균과 같은 작가들이 미술교사로 충남지역으로 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충남미협에도 영향을 미쳐 충남미협이 한국예총 충남지부로 체제로 전환되고, 기념전으로 충남공보관에서 《5.16기념 미전》을 열었다. 또한 국전을 발판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부상하고, 미술단체들이 늘어나는 등 충남미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각분야 역시 김영학, 최종태 등과 같은 작가들을 통해 한국 현대조각의 태동기에 충남 조각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다. '전위조각'을 모토로 했던 '원형회'에서 활동한 김영학이 활동하는 등 한국 현대조각의 발전에 충남 조각계의 1세대들이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1950, 60년대는 충남미술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충남미술을 살펴보는 일은 일제가 막을 내리고, 남북으로 분단된 격변의 시기이자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시기 충남미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1970년대부터 《충청남도미술대전》의 개최와 충남 지역 대학(목원대, 송전대, 공주사대)에 미술교육과가 개설되는 등 큰 변화를 앞둔 시기다. 즉 대학교에서 전문 미술인들이 배출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단계로, 대체로 미술교사들이 주도하면서 충남미술의 정체성을 찾아나간 모색기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 「관음의 미소는 성모를 닮았다」, 『한겨레21』(2000. 6. 1).
- 「김환회화연구도장」, 『중앙신문』(1948. 3. 25).
- 「미술전입선자 백구십칠명을 결정」, 『동아일보』(1949. 11. 19).
- 『대전원로작가회 아카이브 I : 임봉재 ·故김치중화백 회고전』, 원로작가회 화연전, 2017.
- 『충남미술가편람』, 충남문화재단, 2021.
-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1896-1996) 下권』, 충청남도, 1997
- 『충청남도지 24. 현대편』,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 『한국미술 1900-2020』, 국립현대미술관, 2021

<논저>

- 권영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상 아카데미즘」, 『한국근현대미술가학』35, 2018.
- 김미정, 「1950~60년대 충남 서양화단의 전개 양상: 미술교사의 활동과 작품세계」, 『학술대회 자료집-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 2022.
- 김영나, 「한국 근대 조각의 흐름과 성격」, 『미술사학』 8, 1994, p. 57.
- 대전시립미술관, 『김철호』, 대전시립미술관, 2007.
- _____,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 대전시립미술관, 2017.
- _____, 『임봉재: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 대전시립미술관, 2019.
- 박영선, 「제1회 국전 서양화평」, 『민성』, 1950. 1.
- 백지홍, 「설봉 김두환, 근대미술사의 맞춰지지 않은 퍼즐」, 『미술세계』 76, 2018.
- 송미숙, 『이당 김은호 회화세계 연구, 인물화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2016.
- 신수경, 「구술사적 분석을 통한 한국 현대 수묵화 읽기: 조평휘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2011.
- _____, 「변혁기미술: 해방과 전쟁의 파고를 넘어」, 『한국미술 1900-2020』, 국립현대미술관, 2021.
- _____, 「예산 출신 미술가들의 계보와 작품세계」, 『2021년 내포문화 진흥포럼 자료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 이동원, 『학남 정환섭의 서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논문,
- 최 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 황효순, 「대전 조각의 선구자들」, 『대전문화』 26, 대전광역시, 2017.

1970년 이후 충남미술계의 전개 양상

- 충남미술 속 실험정신과 다양성

허나영 | 목원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글	III. 실험정신의 시도와 구현
II. 지역미술 저변의 확대와 다양화	1. 19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
1. 장르의 다양화	2. 충남의 실험미술
2. 타 지역과의 교류	IV. 자연미술의 시작과 확장
	V.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최근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중앙과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위계적인 층위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다양한 지역의 집합으로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술 문화 담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미술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화단 뿐 아니라 지역별로 호남화단, 영남화단, 제주화단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충청화단 등 각기 다른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화단이 형성되었다. 각기 조금씩 상이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지역미술의 주요한 특성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충청지역의 경우, 스스로 '문화의 불모지'라고 평가할 정도로¹ 지역미술과 문화에 대한 명확한 특성이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견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충남지역의 미술을 대표할 만한 특정한 화풍이 없고, 중앙화단의 흐름과 직접적인 연결이나 능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앙화단의 흐름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또한 금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미술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근 그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과 공주를 비롯해 충청남도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학에서 미술학과가 만들어지고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그간 미술교사와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몇몇 예술가들이 이끌어오던 충남미술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예

1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p. 200~203 참고.

술가뿐 아니라,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전문인이 된 예술인들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단체와 전시 활동이 늘어났다.

일제강점기에 놓인 철도를 통해 근대적 도시로 성장한 대전과 백제의 수도로 기능했고, 오랫동안 금강 유역의 중심도시였던 공주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논산 부여·보령·아산·서산·태안·당진·홍성·예산·부여·천안 등 다른 충청남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각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예술가나 학교에 부임한 미술교사, 이주한 예술가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협회와 단체가 형성되었고, 갤러리나 미술관과 같은 미술 관련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렇지만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고,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형성되면서 보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던 대전시가 1989년 대전직할시가 되면서 충남에서 분리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행정적인 구분으로 인해 대전을 분리하여 충남지역만 놓고 보면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오랜 시간 역사를 공유했고,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 미술의 관계를 단절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더욱이 1993년 대전엑스포가 열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1998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이 개관하면서 대전은 충남지역 미술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² 또한 충남지역 미술가들은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형성하면서도, 타지역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특히 충남을 가로지르는 금강을 예술의 장이자 도구와 소재로 바라보면서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미술과 국제미술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그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충남미술협회와 일부 단체에서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서 미술인들의 활동을 정리한 바 있으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³

본 글에서는 1970년대 이후 충남화단의 분위기를 간단히 개괄하면서 당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했던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실험적 예술이 형성되면서 중앙화단이나 타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했고, 더 나아가 국외 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충남이라는 지역을 넘어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예술로 형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금강의 물결처럼 유유히 흐르면서, 이전보다 풍성해진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루어진 진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충남화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고에서 다루는 범위가 197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충남미술이므로, 역사적 궤적에 따라 1989년 직할시로 분리되기 이전의 대전은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후에 대전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다.

3 충남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2016), 『충남미술 연구총서-충남미술가편람 Ⅰ』(2021), 『충남미술 연구총서-충남미술가편람 Ⅱ』(2022)이 있다. 그리고 충남미술의 흐름을 대전이 분리되기 전 대전미술을 다룬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초기 대전의 미술을 다루었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2012);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대전미술 아카이브 :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2018);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2019);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지역미술 다시보기 vol 1: 대전』 자료집(2019)이 있다. 또한 조상영의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을 통해 충남지역의 실험미술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고, 김미정의 논문 「공주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 - 1900~1945년까지 출생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4집(2022)에서는 공주 지역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록과 연구가 있다.

II. 지역미술 저변의 확대와 다양화

해방 후 한국미술계는 해외 미술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생적이고 새로운 미술을 일궈나가기도 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의 아카데미한 화풍에 반발하면서 1960년대에는 젊은 미술학도들에 의해 앵포르멜이 등장하기도 했고, 아방가르드 정신을 기반으로 장르를 파괴하는 실험미술이나 개념미술도 등장했다. 한국의 정치적인 이러한 미술들이 발생하는 데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에 등장한 행위예술⁴이 퇴폐미술로 낙인 찍히기도 했고, 1980년대의 민중미술은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하면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오히려 현실과 유리된 예술의 순수성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주류가 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예술의 움직임도 강렬했다. 이러한 한국 미술의 흐름은 충남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앙화단에 비하여 예술인의 수가 적었던 만큼 충남미술계는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1. 장르의 다양화

해방 후 1950년대~60년대 충남미술은 주로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했다.⁵ 이들의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지만, 1970년대는 보다 새로운 분위기가 더해졌다.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충남미술의 경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⁶

서양화와 한국화 작가의 비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유화에서는 향토적 색채가 진한 자연과 농촌의 풍경을 그린 박성섭과 이동훈, 김기숙이 윤후근 등에 영향을 주면서 아름다운 풍경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리고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는 인물을 그린 임립이나 김영덕이 있으며, 이 인영은 목가적인 풍경화를 표현하기도 했다. ‘계룡산 화가’라 불리는 신현국은 산세의 기운을 표



도1. 신현국, <계룡산>, 1998년, 캔버스에 혼합재료, 53.8×72.8cm, 대전시립미술관

현하였고(도1), 김배히는 강렬한 색채로 풍경을 표현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외에 김홍주나 김정현 등은 사실적인 묘사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반추상의 형태를 표현한 이종무가 있으며, 이남규, 조영동, 임봉재, 임재광, 전형주 등은 추상회화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쳤다. 또한 김한, 김수평, 하동철, 송번수, 지치우, 유근영 등도 개성 있는 추상적 표현을 발전시켰다. 이렇듯 충남미술계는 구상과 추상이 공

4 당시에는 이벤트나 해프닝으로 일컬어졌다.

5 김미정, 앞의 논문 참고.

6 모든 작가에 대해 언급이 된 것은 아니며, 경향을 연상할 수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존하고 있었다.

한국화에서도 전통산수를 바탕으로 한 수묵화와 함께 추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전통산수에 집중했던 최종걸, 1990년대 ‘운산산수(雲山山水)’를 개창한 조평휘(도2), 실경



도2. 조평휘, <계룡산>, 1992년, 한지에 수묵담채, 170×229cm, 대전시립미술관

산수를 그린 김동수와 박홍순 등이 있으며, 김철겸과 이재호 역시 수묵 산수의 묘를 보여주었다. 반면 이용노를 비롯하여, 민경갑, 이종상, 오숙환 등은 수묵과 채색으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명희나 성장경 등은 수묵 외의 다른 재료를 통해 탈 장르적 시도를 하였다. 또한 윤여환, 조중현, 김세원, 이계길 등은 채색화를 그렸고, 김만희와 이영수는 민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조각에서는 주로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윤영자, 최종태, 유영교, 김영대, 황교영 등이 그러했으며, 이종각은 레일 연작으로 추상적인 조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북중순은 두드리는 행위를 통한 금속 조각을, 정광호는 무게감이 없는 비조각적 조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장르⁷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자리 잡았다. 유병호·이종협·홍용선·정택은 등은 판화작업을 하였으며, 박여일·육명심·황규태·박영숙 등은 사진을 매체로 사용하였다. 또한 김순기와 김해민은 비디오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이외에도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작업을 한 이순석·김교만·문우식 등이 있으며, 황용식은 세라믹 디자인을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공예에서 김재석은 근대적 도예를 시작하였으며, 정해조, 이종수, 구권환 등이 있다. 또한 양승호는 걸트임 효과라는 개성적인 표현을 하였다. 또한 석공예가로 이창호가 있으며, 금속 공예가로는 고창환이 있다. 또한 최영근과 박동교는 옷칠로 현대적인 미감을 표현하였고, 김영순은 섬유로, 김영숙과 송순영은 염색을 매체로 현대미술작업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가들은 자신의 개성적인 표현으로 메시지를 담은 현대적인 작업을 하였다. 또한 각기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화실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화단에도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실험미술의 도입으로 정장직·유병호·임동식·이종협·문정규·안치인·조성진·허진권·안치인·허강 등이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던 윤진섭·성능경·이건용 등과 함께 전위적인 미술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들은 각기 회화나 판화, 조각 등의 작업을 하면서도 함께 모임을 이루어 행위예술이나 설치미술 등 탈장르적 작업도 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목원대의

⁷ 서예 역시 중요한 미술 분야이며, 충남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서예 관련 단체와 전시, 그리고 서예가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건용(李健鏞, 1942~)과 한남대의 김수평(金水平, 1942~1989)에게 배운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회화와 조각 등 전통적 장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후배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1980년대에도 활발한 그룹활동과 개인적인 활동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비록 많은 그룹들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들어서 해체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예술을 변화 및 발전시켜갔으며 충남화단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가꾸게 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장르가 시도된 데에는 1970년대 충남지역의 대학에 미술학과가 형성되면서 기반을 이루었다. 관련한 교수와 강사, 그리고 학생의 증가로 미술인의 수가 늘어났고, 활동 범위도 다양해졌다.⁸ 이전에는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타지역에서 수학을 한 후 돌아온 예술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렇듯 지역 대학에 미술학과가 개설되면서 대학에서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배우면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인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 간,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교 외부 예술인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즉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함께 미술에 대해 연구하고 전시를 했다. 더불어 한국미술의 흐름 역시 급변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충남 지역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2. 타 지역과의 교류

1950-60년대가 미술교사나 고등학생들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1970년대에는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늘어났다. 당시 20대였던 작가들이 1974년 결성한 ‘충남미술가협회’가 있었고, 1971년에 시작한 충청남도 미술전람회가 대전이 분리된 1989년까지 이루어지면서, 충남미술계에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예술창작 의욕을 고취시켰다. 또한 지역별로 미술협회가 창립되면서, 지역 작가들의 활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에는 대학의 미술학과가 늘어나면서 부임한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많았다. 당시 송진대(현 한남대) 미술대학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19751225 그룹’은 고전적인 경향의 미술을 타파하고 이미지에서 탈피하며 행위와 설치를 통한 개념적인 예술을 제시하였다. 같은 시기 목원대학교 출신의 예술인들은 당시 목원대에서 강의를 하던 이건용과 AG의 멤버였던 김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대전’78세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출신인 유근영, 권영우 등이 창립한 ‘르뽀동인회(이하 르뽀)’가 1976년 대전문화원에서 첫 전시를 열었다. 르뽀는 새로운 회화적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이 세 그룹은 각기 다른 출신학교의 젊은 예술가들이 결성했지만, 아카데미하고 정형화된 예술을 지양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예술적 방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당시 이러한 시

8 1973년 대전에서는 목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당시 송진대)의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는 배재대학교에, 1983년에는 충남대학교에 미술 관련 학과가 생겼다. 또한 공주대학교의 사범대에서 1973년에 미술교육과가 만들어졌지만, 이미 1960년대 공주교육대학의 미술교육과를 통해 예술가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또한 1978년에는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열렸고, 1988년경에는 아산의 호서대에 미대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천안의 남서울대에서 미술 관련 학과가 만들어졌다.

도가 대전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어도 미술계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들은 함께 연합전을 열기도 했는데, 1982년 대전시민회관에서 세 단체가 함께 한 전시가 그것이다. 그리고 1979년에는 서울의 한국미술청년작가회관에서 대전 '78세대와 19751225가 연합전을 열기도 했다. 각 단체는 고정된 인원



도3. 《충남어제오늘전》(르뿌동인회, 1987) 도록 표지



도4. 《오늘의 만남전》(르뿌동인회, 1987) 도록 표지

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실천해 나갔다.⁹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자 한 예술가들의 활동이 있었다면, 진지하게 미술 장르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간 모임도 있었다. 구상회화에 대한 고민을 해온 '구상작가회'¹⁰, 한국화분야에서는 목원대 출신의 '목목회', 한남대의 '청림회', 공주사범대의 '한길 한국화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조각에서는 공주대 출신의 '충남조각회', 공주대 미술교육과의 조소 동문들이 '금강조각회', 송전대 출신 '한밭조각회', 목원대의 '목원조각회', 충남대학교의 '충남조각연구회' 등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학과와 전공 중심의 동문이 결성한 모임이 형성되면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충남지역에서 동일한 장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 전시를 하면서 미술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단단하게 구축해갔다.

서양화, 한국화, 조각과 같은 전통적 장르뿐 아니라, 미술대학의 학과가 다양해지면서 지역의 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모임도 형성되었다. 1979년에 '충남디자인회'가 시작되었고 1981년에 목원대 산업미술학과 섬유전공 예술가들이 모인 '드림염색전'이 결성되었다. 이외에도 '도원회'는 목원대 도자전공자들이었으며, 비록 2회의 전시로 막을 내렸지만 한남대 응용미술학과 도자전공자들이 결성한 '금강토전'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예인들의 정신은 계룡산에서 조선시

⁹ 이외에도 실험적인 작업을 한 그룹들이 만들어졌는데, 한남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후 충남대, 목원대, 배재대 등 여러 대학 출신의 작가들로 구성된 '터그룹'이 1986년 만들어졌다. 또한 1986년 창립된 'OPUS'는 추상미술 중심의 작업을 지속했으며, 배재대학교 출신의 동문이 중심이 된 'OVER'가 1985년부터 4년여간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전 '78세대'가 해체될 무렵 창립한 '대전실험작가회'는 전일국·문정규·복종순·안치인·권영우·유병호·신동주 등이 참가하여 실험미술 '난지도'와 함께 교류전(1986)도 하고 세미나와 야외작업, 3회의 전시를 하였다. 이러한 실험미술 그룹들은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점차 규모가 작아지고, 개인적인 작업과 발표를 해나갔다. 공주에서는 1981년 공주에서 거주하던 다섯명의 작가 임동식·지석철·유동조·고승현·허진권이 '다섯 명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로 《공주 오오현대미술동인전(오오전)》을 열기도 했다. 공주 문화원에서 작품전과 미술이론 발표회도 함께 열었다. 또한 공주사범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1984년 '벽·바닥, 그리고 의식'이 결성되어 반도화랑, 대전문화원, 대전시민회관, 천안 아라리오, 인사동 등에서 기획전을 가졌다. 이들은 미술이라는 것은 바닥과 벽이 있으며, 그 공간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985년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린 전시에서는 신군부와 1980년 5.18광주항쟁이라는 시대적 의식을 반영하였으며, 1995년에 아홉번째 전시를 서산시 서인화랑에서 개최한 뒤 해체하였다. 이외에도 공주대 미술교육과 동문전인 '한길전'과 1983년 창립한 그룹 '세라비'가 있었다.

¹⁰ 1979년 '이신회'로 조직되었고 이후 '구상작가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회원들은 충남 지역에서 단체전뿐만 아니라 개인전과 교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터 이어져온 철화분청사기의 전통과 결합되면서 1993년에 ‘계룡산 도자예술촌’으로 이어졌다. 이곳에서 상주하는 도예인들의 활동을 통하여 계룡산은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도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단체가 있었고, 작가들은 개인전뿐 아니라 단체전을 통하여 충남미술을 공고히 만들어나갔다. 그리고 충남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타 지역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가졌다.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의 배경에는 당시 미술계에서 중앙에 집중되는 미술계의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¹¹ 이는 1980년대 들어 지방자치체의 도입으로 ‘지방화 시대’와 ‘지방 문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균등한 문화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¹² 이에 1974년 서울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출범된 ‘한국미술청년작가회’는 1975년부터 지방도시에서 회원들의 순회전을 하였다. 그 중 대전에서는 1978년 전시가 열렸다.¹³ 그리고 대구에서도 1970년대에 기성 미술계에 도전하면서 다양한 실험미술을 펼친 《대구현대미술제》가 이루어졌다. 1977년의 《제3회 대구현대미술제》에는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한국 최초의 집단적 이벤트가 펼쳐졌다.¹⁴ 또한 ‘문화예술의 탈중앙집권화’를 내세우면서, 지방의 작가들이 규합하여 ‘하나의 집단적 운동’을 세우는 취지로 《남부현대미술제》가 열리기도 했다.¹⁵ 여기에 대전의 ‘르뽀’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참여하였다.¹⁶

1990년 르포 15주년 기념 전시 서문에서 유근영은 1980년대에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를 모색”하게 되면서, “하나의 제스춰로써” “보다 젊은 층의 그룹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한 ‘비서울화가들의 총체적인 만남의 계기’가 《남부현대미술제》였다. 이 전시에서 “표방한 정신은 하나의 통일된 이념에의 추구가 아니라 각 개인의 일로부터 출발하는 생명력 넘치는 작품과의 발로”라고 보면서, “순연한 삶의 모습의 추구로서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이러한 정신을 현실화하기 위해 르뽀는 충남미술의 연합을 위하여 이와 함께 《충남 오늘의 만남전》을 1987년과 1988년 기획하였다. 이 전시에서 서울·부산·광주 등의 주요 도시 및 전국의 작가들이 대전에서 만나는 전시를 열었다. 르뽀는 이를 “대전에서 처음으로 펼쳐는 전국 규모의 범 현대미술전”이라 평가하였다.

11 지방문화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한 《지방작가초대전》(1974),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도한 《향토작가초대전》(1977), 이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최한 《지방미술단체연합전》(1980) 등 1970년대부터 지방작가의 서울 전시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작가들이 서울에서 전시를 하면서 타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하는 일이 늘어났다. 양은희, 『1970~1980년대 제주미술의 지역성과 초지역적 연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4집(2022), p. 161.

12 양은희, 위의 논문, p. 162.

13 양은희, 위의 논문, pp. 166~167.

14 이후 그 명맥이 끊겼지만, 2012년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로 다시 시작하여 현재 12회를 맞고 있다(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홈페이지, <http://www.dalseongart.com/content/menu02/content01.html>, 최종검색 2023. 10. 23.)

15 정창환, 「지방 현대미술 구심점 마련」, 『매일경제』(1989.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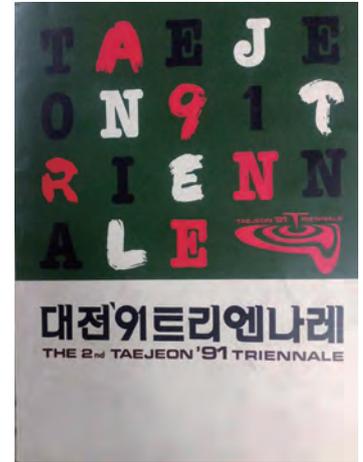
16 1986년 전시는 일산시민회관, 1987년은 전주예술회관, 1988년은 광주의 남도예술회관, 1989년은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렸다.

17 유근영, 『르뽀 동인 창립 15주년 기념 100호전』, 도록: 조상영, 앞의 책, pp. 75~77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대전에서 첫번째 국제적인 전시인 《대전 '87 청년 트리엔나레》가 1987년에 시작되었다. 대전 트리엔날레를 처음 제시한 이건용은 대전이 한국의 중앙이며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이건용은 군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대



도5. 《대전 '87청년트리엔나레》 도록, 1987



도6. 《대전 '91트리엔나레》 도록, 1991

전의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 관련하여 도움이 될 자료를 주기도 하고, 서문도 써주었다. 이건용은 서문에서 “《대전 '87 청년 트리엔나레》는 1987년도에 지역적으로 한국의 중심부인 대전에서 개최됨으로써 다음 회기는 1990년이라는 의미로 볼 때 90년대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려는 의지적 의미가 깊다.”고 그 의미를 적었다.¹⁸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전'78세대의 강정현·안치인·양충모·신영일과 르뽀의 박관우, 19751225의 정길호·정장직, 그리고 배제대의 문정규·김기권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1회 트리엔나레를 열었다.¹⁹ 이들은 당시 전위적인 작품과 예술 활동을 해왔던 작가들이었다. 당시 유근영이 서문에 밝힌 것처럼 “미술에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이 미술제를 통하여 한국, 대전의 독자적인 모습의 부각”을 보이교자 하였다.²⁰

대전이 분리된 이후에도 충남지역 작가들도 함께 트리엔날레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래서 2회는 1991년에, 3회는 1994년에 열리면서 연속성을 갖고자 하였다. 하지만 진취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아쉽게도 이어지지 못했다.²¹ 2회에서는 대전시나 한국문예진흥기금을 일부 지원받기도 했지만,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기에 당시 30대의 젊은 작가들이 화랑 등에서 후원을 받고 각자의 사비를 모아 국제 전시를 열어왔기 때문에, 기획력의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²²

이러한 정신은 금강에서 꽃을 피웠다. 새로운 예술에 대한 도전은 공주에서 정착한 임동식과 함께 공주의 금강변에서 이루어진 《금강현대미술제》로 이어졌다. 이들은 ‘금강’이 갖는 자연적 장소에 관심을 두는 작업활동을 하였다. 금강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야외 전시 뿐 아니

18 이건용, 『대전 '87 청년트리엔나레』(1987).

19 조상영, 앞의 책, p. 210.

20 유근영, 『대전 '87 청년트리엔나레』(1987) 서문.

21 이에 대해 김기권은 1994년 3회 트리엔날레에 대한 글에서 “80년대 집단 회의 전시 형태에서 90년대 개인전이나 소규모 기획 전 등 개인주의적 심화에 따른 여파 때문인지 일단 제3회전을 치러내기 위한 30대 작가들의 인적 구성원이 미비”했고, “대전의 30대 작가 영향력이 타지방에 비해 소극적이고 개인 중심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김기권, 「'94트리엔날레」, 『오원미술』 창간호(1994), p. 41.

22 이재호 인터뷰(2019. 3. 8).

라 금강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실내에 설치한 전시도 이어졌다. 1981년 결성된 ‘야투’는 점차 ‘자연미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들만의 예술개념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도 활동한 임동식의 역할로 독일 뿐 아니라 타 국가와도 ‘자연미술’이라는 기치 하에 교류하고 전시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고 1991년에는 한국미협이 부여지부가 주최한 《부여 구드래 야외미술제》에서 야외조각과 설치미술, 그리고 행위예술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타 지역 예술가들과의 교류 및 국제적인 예술활동을 하면서, 충남지역 미술 역시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 및 예술적 개념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국제행사가 늘어나면서, 미술계에서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²³ 그리고 해외미술문화에 대한 정보가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미술계 전반에 예술의 범주가 다양화되었듯이 충남미술 역시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는 이전과 달리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 것인가보다는 주로 친목이나 인적 교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주제나 예술적 표현에 있어 개인적인 활동이 늘었다.²⁴

1990년대 들어와서 미술계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충남미술계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소위 포스트모던 미술이 유행하면서 거대서사보다는 개인의 삶이나 개별 문화권, 혹은 맥락에 충실한 소서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연 한국에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이 있느냐는 심층적인 논의 이전에 미술계에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매체나 형식은 개인의 소서사를 제시하는 도구가 되면서, 충남미술은 그룹을 만들고 함께 실험하고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

Ⅲ. 실험정신의 시도와 구현

충남미술계에 미술대학이 생기고 크고 작은 미술단체가 형성되면서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시민회관이나 문화원, 화랑 등,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업을 이전보다 자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충남미술계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1993년 대전엑스포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하면서 국제적 문화의 유입과 미술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비록 서울과 수도권, 소위 중앙에 미술행사와 전시가 집중되었지만, 충남은 지리적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서울대·홍익대·서라벌예대(현 중앙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예술가들이 충남미술에 참여하면서

23 이준, 「한국의 미술제도와 전시의 문화정치학 -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2, No.4(2011).

24 허나영, 「1980-1990년대 대전미술 : 변화의 시기 속 고요한 다양화」,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지역미술 다시보기 vol 1: 대전』 자료집, 앞의 책.

긴밀한 교류로 흐름을 함께 했다. 특히 한국의 실험미술 정신은 1970년대 말부터 충남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제화되고 다양해진 한국미술의 흐름이 충남에도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1. 19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

1960년대 말부터 한국미술계에서는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과 같은 장르와 형식을 벗어난 전위미술의 시도가 늘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그룹이나 단체 활동을 통하여 본격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무동인’, ‘오리진’, ‘한국아방가르드협회(이하, AG)’, ‘신체제’, ‘제4집단’, ‘ST 조형예술학회(Space and Time, 이하 ST)’ 등이 있었다. 이들은 예술가와 평론가들이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세미나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9년 12월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한국청년작가연립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되는 퍼포먼스 〈비닐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이 열리기도 하였다. 핵폭발과 전쟁, 강대국과 약소국의 문제 등 정치적 시대적 은유를 담은 작품이었다. 이후 해프닝이나 이벤트로 불리는 일종의 퍼포먼스와 함께 설치미술, 비디오 아트 등을 비롯한 탈장르적 예술이 형성되었다.

충남미술계에도 영향을 주었던 ST는 이건용, 성능경, 김용민, 장석원, 김홍주, 윤진섭 등의 작가가 1969년에 결성한 단체로, 1971년부터 1981년까지 8번의 전시를 하였다. 회화 중심의 기성화단에 반기를 들면서, 미술평론가 김복영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원서를 번역하여 읽으며 연구 활동을 병행하였다. 개념미술 이론과 현상을 공부하면서도 현상학과 기호학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점이 바탕이 되어 이건용의 ‘로지컬-이벤트’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곽훈, 김구림, 김차섭,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승원, 이승조, 최명영, 하중현 등의 작가와 이론가 오광수와 이일이 주축이 된 AG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전위예술단체이다. 1970년에 창립전을 열고 1975년까지 총 4회 전시와 AG 협회지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전위미술가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실험미술’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실험영화나 실험음악과 같이 타 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미술에도 반영된 것이다.²⁵

그리고 제4집단은 정신과 물질을 일체화한다는 무체사상(無體思想)을 세우면서 음악·영화·무용·문학 등이 종합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0년 8월 15일 오전 11시 사직공원에서 행위예술로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을 하고 공원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했다. 기성문화와 사회체제의 모순을 장례식을 통해 비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꽃과 태극기를 들고 선언문을 넣은 흰관을 매고 행진을 하였다. 본래 목적지는 한강변이었으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중단되고,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도로

²⁵ 조수진, 「전위의 실험에서 실험미술로: 대안적 한국 모더니즘의 역사」,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국립현대미술관, 2023), p. 19.



도7. 제4집단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에 대한 신문기사, 『주간여성』 1970년 8월 26일(출처: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2023, p. 137)

교통법 위반' 등의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공권력에 의한 예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²⁶

이 사건으로 제4집단은 해제되었고, 이후 '퇴폐풍조 추방운동'의 여파로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실험미술이 유신체제 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퇴폐미술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²⁷ 그래서 실험미술가들은 보다 순수예술로서 독자적 미학을 정립하고, 새로운 매체와 방법론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또한 논리와 이론을 갖추기 위하여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인 개념을 연구하고 작품에 도입하였다.

그 결과 AG와 ST 소속 미술가들이 선보인 작품의 양상은 더 이상 미술계의 개혁을 요구하거나 세태 풍자적인 모습을 띠지 않았으며, 구체제에 대한 저항보다는 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실험의 결과로서의 탈정치화된 형식 지향 미술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이 시점부터는 미술계에서 실험이라는 용어를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추세가 강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충남의 실험미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2. 충남의 실험미술

당시 한국미술계에서 실험미술은 소그룹을 결성하면서 아방가르드적 예술을 추구하던 분위기와 함께했다. 또한 국전 중심의 보수적인 구상미술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반대급부적인 움직임이었다. 이와 유사한 흐름이 당시 충청남도에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소그룹 '19751225 그룹', '대전'78세대(이하 '78세대)'와 '르뽀동인회(이하 르뽀)'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중앙미술계와 떨어져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뜻이 맞는 지역작가들과 함께 실험미술을 시도하고 교류했다. 이들의 실험적 움직임은 충남지역 미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 르뽀동인회

'르뽀'는 보도 용어인 르포르타주(Reportage)에서 따온 용어이며, 이 말에 내재한 현지 또는 현장이라는 의미를 그룹명으로 사용하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권영우, 박명규,

²⁶ 조수진, 위의 책, p. 136.

²⁷ 조수진, 앞의 글, pp. 19~20.

박봉춘, 신동주, 유근영 5명이 1976년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고, “대전 구상 현장에 새로운 물결을 넣어보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²⁸ 이들은 당시 충남미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구상 회화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회화 매체 외에 연필, 붓대, 풀, 탄소 등을 활용한 추상미술을 시도하였다. 이후 15번의 전시를 진행하면서, 회원의 수와 구성은 변했다.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앵포르멜 회화가 중앙화단에서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는 단색화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대학재학 시절에 이러한 미술계의 분위기를 익힌 르뽀 작가의 추상작업은 새로운 미술에 대한 시도이자 자연스러운 행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충남미술계의 저변이 확대된 지 얼마 안 된 당시 상황에서, 이들의 작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 당시 사실적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을 그린다는 단편적인 비판이 있었을 뿐더러, 국전의 구상미술(회화 및 조각 포함)을 지지하던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술 밖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돌발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했다.²⁹

이들의 작업은 실제의 형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근영과 같이 추상적 조형의 배치를 통하여 개념을 담기도 하고, 박봉춘의 <깃발>처럼 매체와 안료가 지지체(캔버스)에 부착되고 탈각되는 물성을 기반으로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AG에서 보여주었던 회화 매체의 물성에 대한 실험적 시도나 단색화나 앵포르멜 등 추상회화에서 보이는 회화의 평면성의 강조라는 모더니즘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충남미술계는 개별적인 작가의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한 구상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받기 힘들었다. 하지만 르뽀 작가들과 그 후배격인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점차 1970년대 충남미술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2) 19751225 그룹

르뽀가 창립전을 하기 한 해 전인 1975년 12월 25일 오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전역 광장에서 정장직, 정길호, 이종협은 이벤트를 벌였다. 종이와 신문을 바닥에 깔고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외치는 행위를 하였는데, 대전역인 만큼 일부 시민들은 ‘뺨장수’인 줄 알고 구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는 집단적이고 선동적인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만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다행히 서울에서 1970년에 제4집단의 행진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중단된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건이었다.³⁰

이들은 캔버스를 넘어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³¹ 이후 유병호, 신동국 등이 참여하고, 1976년에는 대평리와 내탑에서 또 다른 이벤트를 시간차를 두고 벌였다. 그리고 1976년 홍명미술관에서 1회 창립전을 가졌다. 대평리에서는 유근영도 함께 했는데, 이들은

28 조상영, 앞의 책, p. 57.

29 조상영, 위의 책, p. 54.

30 조연 기, 「한국 실험미술, 무엇이 실험적인가?」,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국립현대미술관, 2023), p. 52.

31 이종협 인터뷰(2022. 12. 27).



도8. 《19751225그룹 전초전》, 1975, 대전역 광장(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도9. 《19751225 그룹 10주년 기념전》(1985, 반도화랑) 리플릿 표지. 사진은 좌측부터 신동국·정길호·정장직·이중협·유병호

유근영을 시체로 삼아 장례를 하듯 염을 하고, 시신을 묻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는 일종의 행위예술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들은 그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에 ‘이벤트’ 혹은 ‘옥외 미술’이라 불렸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는 작은 간행물인 『미술수첩』을 보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식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회화의 제한된 평면을 벗어나기 위하여 ‘야외’에서 ‘행위’로서 표현을 하였고, 이후에 실내 전시를 할 때에도 탈평면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였다.³² 이들의 시도는 이미 중앙화단의 분위기를 익힌 유근영을 비롯한 선배작가들과의 교류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한남대학교에 교수로 온 서양화가 김수평의 가르침

에도 영향을 받았다. 전위적인 예술이 꽃피운 독일과 유럽의 미술을 경험한 김수평은 현대이론 수업과 새로운 작업 시도에 대한 격려에 영향을 받았다. 이중협은 김수평에게 수업을 들은 후, 인사동에 가서 전시를 보면 재미가 없었다고 회고한다.³³

또한 목원대에 출강한 이진용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19751225의 전시서문을 써주기도 했으며³⁴, 이중협을 자신이 참여하는 ST그룹에 소개³⁵하여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32 당시 유병호는 『미술수첩』을 즐겨보면서 백남준의 예술에 매료되었는데, TV 브라운관을 캔버스 삼아 하얗게 칠한 조형적인 작품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전자매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병호와 인터뷰(2019. 3. 4).

33 이중협 인터뷰(2022. 12. 27).

34 조상영, “실험미술그룹 19751225의 출발”, 중도일보(2011. 3. 8)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103080000213>, 최종검색 2023.10.24.

35 이중협 인터뷰(2022. 12. 27).

19751225는 이후 1992년까지 14회의 전시를 개최하고 1980년대부터는 ‘금강현대미술제’ 및 ‘야투’에 참여하면서 실험 정신을 이어갔다.

3) 대전'78세대

이어 등장한 ‘대전 '78세대’는 AG 그룹 멤버였던 목원대의 김한(金漢, 1938-2008)과 이건용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들이 결성한 그룹이었다.³⁶ 첫 전시는 이름에서처럼 1978년 대전문화원 화랑에서 처음 열렸다. 이 전시에는 강정현, 김익규, 김철겸, 송일영, 안치인, 지식철 등이 참여하였으며, 행위예술이나 설치 작업, 그리고 극사실적 회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저 전시만을 한 것이 아니라 AG나 ST가 그랬듯 이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함께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김복영은 대전'78세대의 작업에 대해서 “오히려 이 방법들은 오늘 현대미술의 공통적이고 보편화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78세대 그룹의 작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에 대해 “어떻게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³⁷ 이후 대전'78세대는 후배 작가를 영입하면서 1986년까지 9회의 전시와 4회의 세미나를 하였다.

이들에게 영향을 준 김한은 공모전과 같은 미술계의 체계에 들어가는 것에 비판적이었으며, 보다 순수한 예술을 지향할 것을 가르쳤고 이러한 정신을 대전'78세대에 참여한 작가들이 따랐다.³⁸ 김한은 목원대에서 4~5년 정도 강의를 하고 이후에는 대전'78세대 전시 오픈에 참석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의를 나오게 된 이건용은 현대미술의 이론과 내용을 알리면서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ST에서 공부했던 언어분석철학,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1945-)의 미술이론³⁹, 현상학, 1960-70년대 실험미술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⁴⁰ 또한 목원대의 연구실에서 여러 작업을 하면서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출품하기도 하고, 리스본 국제드로잉 대회에서 <신체 드



도10. 《李健鏞드로잉·이벤트展》(남계화랑, 1979) 리플릿 표지



도11. 《제1회 大田'78세대展》(대전문화원화랑, 1978) 브로슈어 표지

36 장서윤, 「키워드 읽는 이건용」, 『미술세계』 제69권(2018. 6), p. 59

37 김복영, 《대전'78세대 서울전》 팸플릿 서문, 1976: 조상영, 앞의 책, p. 104에서 재인용.

38 조상영, 앞의 책, pp. 79~81.

39 조셉 코수스는 개념미술(Conceptual art) 작가로,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의 영향을 받은 언어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한 이론을 개진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실제 의자와 의자를 찍은 사진, 그리고 의자(chair)의 사전적 정의를 병렬한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One and three Chairs>(1965)가 있다.

40 장서윤, 앞의 글, p. 61.

로잉)으로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군산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대전의 젊은 작가들과 교류하며 정신적 지지자가 되었다.

대전에서 선보인 이건용의 활동은 충남미술계에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1979년에 대전 남계화랑(현 오원화랑)의 개인전을 했을 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때 이건용의 대표작이 되는 <달팽이 걸음>을 선보였다.⁴¹ 맨발로 쪼그려 앉아 바로 앞의 분필로 좌우로 선을 그리고 바로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선이 지워지게 되는 행위예술로, 그리는 것과 지우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 작품은 《제15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도 선보였으며, 이건용을 대표하는 작업이다.

이렇듯 이건용의 대전 전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는 사실은 전위적인 미술에 대한 충남 미술인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9년 남계화랑에서 입장료를 받았음에도 성황리에 열렸고 많은 예술인들이 이건용의 미술을 관람했다. 이와 함께 이건용은 김복영, 박용숙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대담회를 개최하고, 충남 작가들과 좌담회를 하면서 당시 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²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관심은 이후 젊은 작가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르뽀, 19751225 그룹, 대전'78세대는 개별활동과 함께 연합전도 열었다. 1982년에는 르뽀와 19751225, 대전'78세대의 연합전이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렸고, 1985년에는 르뽀와 광주의 에뽀끄가 함께하는 전시가 열렸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듯, '터그룹'·'OPUS'·'OVER'·'대전실험작가회'·'오오현대미술동인'·'벽·바닥, 의식전' 등 다양한 실험미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1970년대 충남미술계는 기성 화단과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던 젊은 작가들의 모색과 시도가 이어졌다. 반면 호남과 서울, 수도권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던 민중적 예술, 사회참여적 예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르뽀 15주년 전시에서 유근영은 자신들의 예술이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민중 차원 미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점을 병기하였다.⁴³ 이 글에서 보면 현실사회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 의미에서의 삶을 생각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보다는 실험적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41 장서윤, 위의 글, p. 61.

42 조상영, 앞의 책, p. 314.

43 유근영, 『르뽀동인회 창립 15주년 기념 100호전』, 1990(조상영, 앞의 책, p. 76).

44 비단 대전뿐 아니라, 비교적 지역미술의 정체성이 강한 대구 역시 사회적 참여 예술은 지양되었다.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술에 사회적 내용을 담기보다는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조형성이나 상징적 메시지를 추구하였다(박남희, 「대구미술의 정체성과 향방」,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전』 강연회 : 지역미술 활성화 및 정체성 모색, 자료집(대전시립미술관, 2001) 참조).

IV. 자연미술의 시작과 확장

중앙미술계의 실험미술 분위기가 르뽁동인회와 대전'78세대, 19751225 그룹 등 젊은 예술가들에 의하여 충남지역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5년에 정관모, 임동식 등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한국미술청년작가회'가 충남 안면도 꽃지해변과 경기도 광릉숲 등에서 《제1회 야외작품을 위한 캠핑》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회장 정관모는 전시 서문에서 현대미술의 중앙 집중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지방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예술과 대지예술을 기획한다고 밝혔다.⁴⁵ 그리고 1976년에는 '19751225 그룹'의 일원인 유근영·이종협·정길호·정장직이 공주 금강에서 《대평리 이벤트(다시 깨어나다-부활)》를 하였고, 1978년에는 대전'78세대가 대천해변과 보령에서 야외전을 열기도 했다. 이렇듯 충남지역의 실험예술은 실내를 벗어나 야외에서의 퍼포먼스도 시도하였다.⁴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충남의 예술가들은 1980년부터 공주 인근 금강 유역에서 자연과 미술의 관계성을 고민하는 '자연미술'을 시도하게 된다. 최근의 생태미술과도 연결된 자연미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며 다양한 형식의 예술로 표현되었다. 기획자 임동식의 주도로 공주의 금강 백사장에서 홍명섭·유근영·백준기·김용익·정덕영·곽남신·정광호 등 30여 명의 작가들이 함께 야외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는 대전문화원에서 입체와 평면을 나눠서 실내 전시를 하였다.

이듬해에는 '춘하추동 사계절연구회'로 명칭을 전환하고, 이름처럼 사계절에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함께 예술에 대해 토론하고 야외전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전시장 밖의 자연을 재료와 소재로 삼아서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실험미술 그룹들과는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지역의 작가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전시를 열고, 그것을 중앙화단이 평가하는" 지역작가전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서 출신의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면서도 뜻이 맞는 타 지역 출신 작가도 함께 전시하는 형태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⁴⁷

임동식은 자연과 예술과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보자는 취지에서 '들판으로 던지다'라는 뜻의 '야투(野投)'라는 이름을 비유적으로 덧붙였다. 이후 이들 그룹은 '야투'⁴⁸로 통칭된다. 그러면서 처음 '야외현장미술'이라 부르던 그들의 작업에 대해 점차 '자연미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임동식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찾는 자연스럽게 행하는 미술이

45 조상영, 앞의 책, pp. 129~130.

46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국립현대미술관, 2023), pp. 276~278 참조.

47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 충청남도문화재단, 2016, pp. 142~143.

48 '야투(野投)'는 자연미술(自然美術)을 연구하는 미술단체인 한국자연미술가협회의 명칭으로, 원뜻은 '들에서 던지다'이며, 농구에서 따온 용어이다. 한자어로 '야(野)=들=자연, 투(投)=던지다=표현하다'를 의미한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natureartbiennale.org/home/theme/kor/html/company/b_introduce.php(최종검색일: 2023. 10. 28).



도12. 《7회 野投》(1983) 리플릿



도13. 《금강현대미술제》(1980) 창립전 팸플릿에 수록된 '차기 대전전시 안내문'

어야 하므로 야외미술보다는 자연미술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⁴⁹ '야외'는 실내를 중심으로 보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자연과 자연스

러운 것을 찾는 미술을 한다는 점이 더 적절함을 말한다. 그래서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라는 이름은 1980년대 중반 '자연미술연구회'로 바뀌게 되고, 1981년 대전에서 《실내에서의 자연미술전》을 가지며 공식화되었다.⁵⁰ 이렇게 야투는 '자연미술'을 말하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인간-미술-자연”사이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상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고자 하였다.⁵¹

초기에 주축이 되었던 임동식이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가 고승현과 작가들은 야투를 이어나갔다. 고승현은 금강은 '전시가 열리는 장소적 의미 그 이상'으로, '현장미술'에서 '자연미술'로의 정체성을 찾은 곳이라는 점에서 야투 그룹을 대표하는 자연이라 의미를 붙인다. 그리고 이러한 금강을 장소적 의미이자 소재, 그리고 영감의 대상으로 삼아 전시를 해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⁵²

이러한 정신은 199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야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자연미술미술가협회'는 자연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작가들과 함께 교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2004년부터 격년제로 여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금강자연비엔날레에서는 작품들이 일정기간 동안에만 현장에 설치되고 전시된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운송하거나 이전하지 않고, 설치된 장소의 특성에 따라 작가들이 미리 구상하면서 다른 작가들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작업한다. 그리고 설치된 작품은 마치 자연처럼 그 수명이 다할 때 교체된다.⁵³ 이렇듯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에 순응하며, 장소이면서도 작품의 매체로

49 조상영, 앞의 책, p. 155.

5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는 '자연미술'을 이렇게 정의한다. "1980년대 초 야투(野投)가 표방한, 간단한 행위 혹은 일시적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강한 미술이다. 자연이 미술 표현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미술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미술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한국적 자연관이 담긴 야투적 표현방식이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natureartbiennale.org/home/theme/kor/html/company/b_introduce.php, 최종검색 2023.10. 28.

51 김성호, 「자연미술가 고승현 - 몸의 정신생태학과 자연미술 큐레이팅」, 『자연미술가 고승현 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3, p. 13.

52 고승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미래적 비전과 과제」, 『2022 자연미술학술세미나-재야생과 자연미술의 과제』(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22), p. 6.

53 위의 글, p.6.

서 자연을 이해하는 ‘자연미술’은 비록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환경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생태예술 혹은 생태미학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뿐 아니라 유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교류를 해온 임동식을 중심으로 1989년에 《‘야투’ 함브르크전》이 열려 독일 미술계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점차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⁵⁴

최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2020)을 통해, 한 작가 개인의 활동 속에서 야투와 자연미술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학술대회와 임동식과 고승현의 작가연구 세미나 등을 통해 자연미술에 대한 야투의 정신과 작품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재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충남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이 이전보다 국제화되면서 더이상 새로운 미술 형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형성되었던 많은 그룹을 통한 새로운 실험과 달리 개별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실상 1990년대 이후의 미술은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만큼 지역성을 한정 짓기 힘들다. 더욱이 여러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등 다양한 국제미술행사에서도 개최지 혹은 개최국으로 한정을 짓기보다는 보다 인류 보편의 문제로 다가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편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 개인 혹은 작가의 문화적 개별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모여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합해 충남미술 역시 1990년대 이후에는 개별 작가들의 예술세계가 형성되었다.

V. 나가는 글

과거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닌, 지역 자체의 문화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점에서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연구 역시 그에 대한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충청남도 미술계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술계의 구심점이 되거나 중심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미술 흐름은 없었지만, 1970년대 들어 미술대학과 단체가 늘어나고 중앙화단의 실험미술 분위기가 결합되면서 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전위미술의 시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충남의 중심을 흐르는 금강에서 자연미술로 꽃을 피웠음을 야투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타 지역과 다른 충남지역만의 차별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당시에는 활발했던 실험미술과 자연미술의 활동에 비해서, 미술사에서는

54 신남철, 「신남철의 스케치 여행」; 이성원, 「자연미술가로서의 임동식」, 『대전생태예술의 맥아를 찾아서: 임동식과 자연』(생태미학연구소, 2021), p. 9 재인용.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까지도 충남이 미술의 불모지라는 저평가가 있었다. 또한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치밀한 붓질이나 성실하고도 반복적인 행위 등으로 바라보는 등으로 분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일부 소규모 모임이나 혹은 개별적으로 개성 있는 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점이 충남미술의 특성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이분법이 아닌, 여러 형식과 매체의 작업이 예술가 나름의 방식으로 공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앙화단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고 생각해왔지만⁵⁵ 당시 이종협을 비롯한 젊은 작가들은 ST그룹의 작가들과 교류했다고 회고하였으며, 학생들과 젊은 작가들이 정기적으로 인사동 등지에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또한 타 지역 미술그룹이나 작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전과 활동을 하면서 그저 충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한국 미술의 흐름 뿐 아니라 국제미술과 함께 하면서 충남미술의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이후 충남미술은 각 지자체 단위로 협회가 활성화되고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등의 기관 지원이 접목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더욱이 대전에만 있던 시립미술관이 2019년에는 천안에서도 문을 열었고, 공주에서는 2014년 개관한 아트센터고마와 2016년에 열린 공주문화예술촌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2026년 충남미술관이 홍성에 개관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어져온 충남미술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공주의 임립미술관, 아산의 당림미술관, 부여의 정산 김영학 조각관과 천안의 리각미술관, 보령의 모산조형미술관, 당진의 아미미술관 등 다수의 미술관도 운영 중이다.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을 발표하는 장이 되고 주민에게는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술관과 갤러리, 기관들이 활동하면서 충남미술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역 주민에게도 충남미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55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충청남도문화재단, 2016), p. 134.

참고문헌

<사료> (발행 연도순)

- 『대전'78세대』, 1987.
- 『대전'87 행위예술제』, 1987.
- 『대전'87 청년트리엔나레』, 1987.
- 『'87 충남 오늘의 만남전』, 르뽐동인회, 1987.
- 『'88 충남의 어제와 오늘전』, 르뽐동인회, 1988.
- 『대전 '91 트리엔나레』 도록, 1991.
- 『오원미술』 창간호, 1994/ 『오원미술』 2, 1995.
- 『'97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심포지엄: 대전미술의 발전을 위한 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자료, 1997년 12월 17일 대전 중구문화원.
-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 강연회 : 지역미술 활성화 및 정체성 모색』 자료집, 대전시립미술관, 2001.
-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 충청남도문화재단, 2016.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지역미술 다시보기 vol 1: 대전』, 2019.
- 『대전생태예술의 맥아를 찾아서: 임동식과 자연』, 생태미학연구소, 2021.
- 『2022 자연미술학술세미나-재야생과 자연미술의 과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22.
- 『자연미술가 고승현 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3.
-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2023.

<논저>

- 강혜승, 「1970년대 이진용의 행위예술과 몸의 복권」, 『미학예술학연구』 59집, 2020.
- 김미정, 「공주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 - 1900~1945년까지 출생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4집, 2022.
- 장서윤, 「키워드로 읽는 이진용」, 『미술세계』 제69권(통권 제403호), 2018. 6.
- 정창환, 「지방 현대미술 구심점 마련」, 『매일경제』, 1989. 8. 5.
-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2009.
- 양은희, 「1970~1980년대 제주미술의 지역성과 초지역적 연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4집, 2022.
- 이 준, 「한국의 미술제도와 전시의 문화정치학: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2, No.4, 2011.
- 임양수 외,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1995.

<기타>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누리집, <http://natureartbiennale.org>.
-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홈페이지, <http://www.dalseongart.com/content/menu02/content01.html>.
- 정연민, “문화시평- 미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미술”, 충청신문방송사(2011.8.30.), <http://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7561>.

근·현대기 충남의 주요 미술전시와 전시공간 분석

정경숙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 | |
|---------------------|---------------------|
| I. 머리말 | IV. 지역별 주요 전시공간의 특징 |
| II. 충남미술의 지리·역사적 배경 | V. 맺음말 |
| III. 주요 미술전시의 특징 | |
| 1. 시기별 특징 | |
| 2. 지역별 특징 | |

I. 머리말

지금까지 충남미술에 관한 연구는 충남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하며 활동한 미술가와 충남에서 결성된 미술단체에 집중되어 있었다.¹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미술전시를 전수 조사하여 시기별·지역별 경향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나아가 충남에서 전시회가 진행된 공간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에서 개최된 미술전시의 특징을 시기별·지역별로 살펴보고, 각 지역에서 활용된 전시공간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의 미술전시 공간을 살피기 위해서는 충남의 지리·역사적 환경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II장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충남미술의 지리·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대전을 포함한 충남 전 지역을 중심으로 1900년~1999년까지 열린 미술전시와 전시공간에 대해서 각각 분석할 것이다. 해당 시기 동안 열린 전시자료는 김달진미술연구소와 문예연감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충남도청·충남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두 권의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 & II』를 비롯해 여러 문헌자료와 리플릿, 당시 활동했던 작가들의 증언 등을 참고하였다.² 충남의 모든 지역에서 열린 전시회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했음에도 확보한 자료가 대도시에 편중되었으며, 지역적 편차가 심했다. 사실 전시자료와 전시공간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의 성격을 일일이 분석해야 하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서 열린 전시회의 건수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시

1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간행한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 & II』가 있다.

2 자세한 연구방법은 이 책의 '1. 근·현대기 충남미술 전시자료와 전시공간의 분석 및 해제'에 나와 있다. 이 글은 그 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기별, 지역별 흐름을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네 시기(1900~1969년, 1970~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로 구분하여 시기의 변화에 따른 전시회 수의 추이와 지역별 전시회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어 전시가 이루어진 공간을 대상으로 충남미술의 지역별 특징과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1990년대까지 충남에서 전개된 전시회의 시기별, 지역별 특징과 전시공간에 대해서 연구한 이 글은 향후 충남미술사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충남미술의 지리·역사적 배경

1. 지리적 환경

충청남도는 중부지방의 서쪽에 위치하며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해와 아산만에 인접한 북서부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금강 유역에 속한 남동부 지역은 호남지방과 친연성을 지닌다.³ 충남도청은 일제강점기부터 대전에 있었으나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2013년 홍성군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까지 거리는 약 104km, 부산광역시까지의 거리는 약 209km, 광주광역시까지의 거리는 약 167km로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다.⁴

충남의 대표적인 산으로 서대산(904.1m), 대둔산(878.9m)과 계룡산(846.5m)이 있다. 대표적인 강은 금강으로 길이 394.79km로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강이다. 전북 장수읍 신무산에서 발원한 금강은 북서방향으로 흐르다가 대청댐을 지나면서 남서로 방향이 바뀐다. 충남을 가로지르는 금강으로 인해 주위에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또한 금강은 유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어 예로부터 서해와 내륙을 잇는 수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⁵

조선시대 실학자 이종환(1690~1752)은 충청도의 지리적 위치(관계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남쪽의 반은 차령 남쪽에 위치하여 전라도와 가깝고, 반은 차령 북편에 있어 경기도와 이웃이다. 물산은 영호남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이 평평하고 예쁘며 서울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로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에다 전담과

³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리지』(2020), p. 13.

⁴ 충청남도, 위의 책, p. 271.

⁵ 충청남도, 위의 책, p. 271.

[표1]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현황표

	2010년		2020년	
	면적(km ²)	인구(명)	면적(km ²)	인구(명)
계룡시	60.72	41,528	60.72	42,416
공주시	864.20	122,153	864.1	106,038
논산시	555.16	119,222	555.16	116,852
당진시	705.40	137,006	705.5	171,192
보령시	574.08	97,770	586.92	96,511
서산시	741.31	156,843	742.28	177,947
아산시	542.79	278,676	542.58	363,197
천안시	636.22	574,623	636.2	687,951
금산군	577.22	52,952	578.63	52,399
부여군	624.52	67,584	624.5	61,481
서천군	366.14	53,914	366.13	49,509
예산군	542.63	77,830	542.7	76,967
청양군	479.11	29,755	479.13	29,761
태안군	515.83	53,888	515.96	60,654
홍성군	444.08	82,811	446.69	100,339
연기군	361.40	83,504	2012년 세종시로 통합	
계	8,229.21	2,028,002	8,247.2	2,193,214

주택을 마련하여서 생활의 근본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은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심한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만하다.”⁶

이중환의 표현처럼 충남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발달했다. 일제강점기 경부선(1905년)과 호남선(1914년)이 개통되면서 대전의 발전을 견인해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2년 충남선(현 장항선)과 1925년 안성선이 개통되면서 기차역이 설치되었으며, 역사(驛舍)와 인근 지역을 잇는 도로들이 신설되었다. 2004년 4월 ktx천안아산역의 개통과 2005년 수도권 1호선의 병점-천안 구간 연장 개통, 2008년 12월 수도권 1호선의 천안-신창 구간 연장 개통 등은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천안과 아산은 수도권의 생활에 편입되었으며, 전철역과 고속철도역 주변에 신도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규제로 기업들이 충청남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여 중부권 최대의 산업집적지로 성장했으며, 이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충청남도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12만 2,355명(외국인 제외)이며, 이중 천안시가

6 충청남도, 앞의 책, p. 13.

652,845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으며, 청양군이 31,577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다. 홍성군은 2013년 내포신도시로 충청남도청이 이전한 이후 지역이 발전하면서 면적의 확대와 함께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보였다. 충청남도의 시군별 인구분포는 도시화와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⁷

충남의 면적은 2020년 기준 8,212.36km²로 전국(100,377.7km²)의 8.19%에 해당한다.⁸ 대전의 면적은 2005년 기준 539,77km²로 1989년 537,25km²보다 증가하였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충청남도의 면적과 인구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기준 시군별로 면적을 보면 공주시(864.20km²), 서산시(741.31km²), 당진시(705.40km²) 순으로 넓었으며, 인구는 천안시(653,816명), 아산시(313,875명), 서산시(174,596명) 순으로 많았다. 면적은 연기군(361.40km²), 서천군(366.14km²) 순으로, 인구는 청양군(29,755명), 계룡시(41,528명) 순으로 적었다.⁹

2. 역사적 배경

충남은 고려시대에 하남도·양광도·충청주도·충청도 등으로 불렸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기도와 통합·분리를 반복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조 4년(1396) 양광도가 충청도와 경기도로 분리되었으며, 선조 31년(1598) 충주에서 공주로 감영을 이전하였다. 이후 충청도의 명칭은 공청도·공흥도·충청도·충흥도·공충도 등으로 여러 차례 개칭되었다. 순조 34년(1834) 공청도에서 충청도로 환원되었으며, 고종 33년(1896) 칙령 제36호에 의거해 전국이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와 분리되어 37개 군을 둔 ‘충청남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¹⁰

1910년 한일병합에 이어 1913년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충청남도는 1부 14개 군으로 통합되었다. 1932년에는 충청남도청이 공주시에서 대전군으로 이전하였다. 1963년 1월 전라북도에 속한 금산군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충청남도로 편입되었으며, 천안읍이 천안시로 승격되었다. 1986년 기준으로 충남은 6개시(대전·천안·아산·서산·보령·공주) 10개군(예산·당진·태안·홍성·서천·청양·부여·연기·금산·논산)이 되었다.

1989년 1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충남에서 분리되었으며, 서산군은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분리 승격되었다. 1996년 3월 논산군이 시로 승격되어 충남은 6개시(천안·아산·서산·보령·공주·논산) 9개군(예산·당진·태안·홍성·서천·청양·부여·연기·금산)으로 개편되었다. 2003년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되어 7개 시 9개 군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2월 충청남도청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던 청사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삼교읍

⁷ 충청남도, 앞의 책, p. 311; 2010년 인구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를 참고하였다. 2020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 2015 인구총조사 인구부문(<https://kosis.kr/>)을 참고하였으며, 각 시군별 인구는 논산시청, 보령시청, 아산시청, 금산군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예산군청, 청양군청, 태안군청, 홍성군청 누리에 실린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⁸ 2018년 8,229.2km²에 비해 약 17km² 감소했다.

⁹ 충청남도, 앞의 책, p. 300.

¹⁰ 충청남도 도청 누리집 참조 <http://www.chungnam.go.kr/>; 충청남도, 앞의 책, p. 16.



도1.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지도(출처: 충청남도청 누리집)

일원으로 이전 확정하고 신도시 개발을 계획했다. 2010년 신도시의 명칭을 내포로 확정했으며 2012년 충청남도청과 도의회 신청사가 완공돼 이전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장기면·의당면·반포면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 분리되었다. 2023년 현재 충남은 8개시(당진·서산·보령·아산·천안·공주·계룡·논산) 7개군(예산·금산·부여·태안·홍성·청양·서천)으로 행정구역을 분류하고 있다.¹¹

Ⅲ. 주요 미술전시의 특징

1. 시기별 특징

[표2]는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충남에서 개최된 총 4,444건의 전시회 중 개인전 1,405건, 단체전 3,039건이 확인되었다.¹² 개인전과 단체전의 수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 평균 3대 7의 비율을 유지했다.

1900년부터 1969년까지 충남에서 열린 개인전으로는 1921년 공주에서 열린 《해강 김규진의 서화전》을 시작으로 1969년 대전에서 열린 《이영복 동양화전》까지 50여 년간 약 58건 정도로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겪으면서 미술전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열렸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시회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된 사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들어서 충남에서 열린 개인전은 증가했으나 67건 정도로 여전히 미미하다. 당시 30~40대였던 강영희(1934~?), 김치중(1947~2012, 경희대), 이인영(1932~2021, 독학), 임봉재(1933~ , 서울대), 신양섭(1942~ , 서라벌예대), 정명희(1945~ , 홍익대) 등이 2~3회 정도 개인전을 열었다. 이인영을 제외하고 작가들 대부분이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을 보면, 1962년 공주교육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미술전공 교육이 시작된 후 대전실업대 생활미술과(1970), 목원대 미술교육과(1972), 송전대 미술교육과(1972)(현 한남대학교),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1974) 등 미술 관련 학과가 다수 개설되었으나 아직 그 효과가 가시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¹¹ 충청남도청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¹² 1989년 1월 1일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되었으나 충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대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1989~1999년까지 대전에서 열린 전시회도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2] 1999년까지 충남에서 열린 개인전과 단체전 수(건)

4,444	개인전(%)	단체전(%)	합
1969년 이전	58(42.6)	78(57.4)	136
1970년대	67(28.8)	166(71.2)	232
1980년대	429(33.0)	871(67.0)	1,300
1989년 대전 ¹³	42	108	150
1990년대	851(30.7)	1,924(69.3)	2,775
1990년대 대전 ¹⁴	746	1531	2277
합	1,405(31.6)	3,039(68.4)	4,444

1980년대 열린 개인전 수는 429건으로, 1970년대에 비해 약 7배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지역 대학 내 미술 관련 학과에서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전문작가군이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즉 미술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개인전을 개최한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충남에 들어선 전시 전문공간의 증가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미술 관련학과 개설, 전문미술인의 증가, 전문공간의 개관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1990년대 개최된 개인전의 수는 429건에서 851건으로 2배 정도 증가세를 보였다.

단체전의 경우 역시 1969년 이전 충남에서 열린 단체전의 수는 78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는 1,92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1950년까지 충남에서 개최된 단체전은 충남미술협회 주최로 열린 《해방기념미술전람회》가 유일하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루-불동인’(1958), ‘녹청회’(1958), ‘청포도회’(1959) 등 새로운 미술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은 미술단체의 탄생은 1960년대에도 이어져 공주고등학교의 ‘미우회’(1962), ‘죽미회’(1962), 대전의 고등학생들 미술모임 ‘미상록’(1964) 등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소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전시회가 꾸준히 개최되면서 미술계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1970년대 충남에서 열린 단체전은 166건으로 1969년까지의 7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70년대 단체전의 증가 역시 같은 시기 개인전처럼 충남 소재 대학의 미술 관련 학과의 개설에 따른 영향으로 짐작된다. 즉 1970년대 충남에서 열린 단체전들은 미술 관련 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공별 전시회와 졸업작품전, 졸업생들의 동문전 등 다양한 전시회에 이어 서예전과 사진전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즉 작가들의 모임인 ‘일요스케치회’(1971), 공주교대 재학생 모임인 ‘청조회’(1971)와 ‘정공회’(1973), 공주교대 서양화 전공 졸업생 모임인 ‘그릴회’(1975), 한림대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 졸업생의 모임인 ‘청림회’(1978), 송전대(현 한남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송전미전》(1974) 등 여러 학교에서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이 결국 단체전으로 집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남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르뽀동인회(1976),

¹³ 1989년 1월 1일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되었으므로 1989년 대전에서 열린 전시회는 별도로 산정하였다.

¹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전시회의 수이다. 대전이 1989년 충남에서 분리되므로 본 조사에서는 1990년 이후 대전에서 생성된 전시공간은 다루지 않았다.

‘19751225 그룹’(1976)과 ‘대전’78세대전’(1978) 등 실험정신을 내세운 모임이 1970년 중반 이후 발생하였다. 이처럼 미술인들의 꾸준한 모임 결성은 1970년대 단체전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들어 충청남도에서 열린 단체전은 871건으로 1970년대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요인으로는 앞서 결성된 미술단체의 꾸준한 활동과 함께 1970년대 충남 소재 대학에서 순수미술 전공자보다는 미술교육자의 양성에 주력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미술교육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전업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보다는 교직과 작품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전보다는 소집단 결성을 통한 단체전을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충남대학교(1982), 단국대 천안캠퍼스(1983),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1984), 대전개방대학(1985)과 호서대학교(1985) 등에 1980년대 들어 미술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학교에서 배출된 미술인의 증가와 함께 1980년대 들어서는 화실의 수강생들이 중심이 된 《한목회전》, 《미림미전》, 《립동인전》, 《일청회》, 《한국목화회전》 등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충남 각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회관의 미술 관련 강좌를 통해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양산과 특정 스승의 문하에서 배출된 제자들의 동호인 모임을 중심으로 열린 크고 작은 전시회 역시 단체전의 증가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미협이나 민예총 등 미술 단체들의 충남 내 지부의 결성 역시 단체전 수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80년대 충남에서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1989년 대전의 행정적 분리였다. 1989년 한해 동안 대전시에서 열린 전시회를 보면 약 150건(개인전 42건, 단체전 108건)으로 충남에서 열린 전시회 193건(개인전 48건, 단체전 145건)의 77.7%를 차지한다. 도청소재지로서 모든 문화기반 시설이 안정적으로 구비된 대전시가 전시회 개최에 최적의 장소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 1980년대 열린 단체전 87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924건의 단체전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대학교에 미술 관련 학과의 개설을 통해 미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졸업생이 누적되면서 미술인 수가 증가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전업작가로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전시회 수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의 형성과 풍부한 전시 인프라의 구축도 전시회가 늘어난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시기별로 충남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를 정량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전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역별 특징

[표3]는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 16개 시·군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해 정리한 것이다. 16개 시·군에서 열린 전시의 빈도를 보면 지역 차가 매우 선명하게

[표3] 충남 각 지역의 시기별 전시회 수(건)

시기 지역	개인전					단체전					전체
	1969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합	1969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합	합
공주	13	2	2	8	25	27	20	27	58	132	157
금산	·	·	·	2	2	·	·	2	1	3	5
논산	1	1	1	2	5	·	5	9	16	30	35
당진	·	·	1	3	4	·	5	8	20	33	37
대전	36	56	385	746	1,223	46	123	711	1,531	2,411	3,634
보령	·	·	2	1	3	·	·	2	10	12	15
부여	3	2	1	4	10	·	1	12	19	32	42
서산	1	·	8	13	22	·	4	26	40	70	92
서천	·	·	·	·	0	·	3	3	1	7	7
아산	·	·	4	2	6	1	·	11	13	25	31
연기	·	·	·	·	0	1	·	4	23	28	28
예산	·	·	3	1	4	·	1	3	9	13	17
천안	2	5	18	68	93	3	4	49	173	229	322
청양	1	·	·	1	2	·	·	2	·	2	4
태안	·	1	·	·	1	·	·	·	6	6	7
홍성	1	·	4	·	5	·	·	2	4	6	11
합	58	67	429	851	1,405	78	166	871	1,924	3,039	4,444

나타났다. 1979년까지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대전시(92건+169건)와 공주시(15건+47건)에 집중되었으며, 1980~1989년에는 대전시에 이어 천안시·공주시·서산시 순으로 전시회가 자주 열려 순위에도 변동을 보였다. 1990년대에도 대전시는 변함없이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그 뒤를 천안시·공주시·서산시 순서로 따르고 있다.

제한된 지면 관계상 1999년까지 개최된 전시회(개인전과 단체전) 건수가 100건이 넘는 대전시, 천안시와 공주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지역은 함께 살펴보겠다.

1) 대전시

시기의 변화와 관계없이 충남에서 전시회가 가장 많이 열렸던 대전시의 경우 1999년까지 열린 개인전 1,223건에 비해 단체전 수는 2,411건으로 월등하게 높았다. 대전에서 열린 전시회 수는 시기별로 개인전의 경우 36건→56건→385건→746건, 단체전의 경우 46건→123건→711건→1,53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서 열린 첫 전시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미술전람회로 박성섭, 이동훈 등이 참가했으며, 6일간 대흥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열렸다.¹⁵

¹⁵ 김달진미술연구소·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미술 전시자료집 I 1949-1969』(2014), p. 11.

이 시기에는 또 《루-불미술동인 작품전》, 《죽미회전》, 《미상록전》, 《상업미술전》과 《보문고 미전》 등 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체전이 자주 열렸다.

1969년 이전 대전군에서 열린 개인전은 후학을 양성하며 충남미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동훈의 전시회가 1946년 열린 것을 시작으로, 이인영(1957, 대전문화원), 김기숙(1959, 대전문화원)과 김철호(1959, 대전문화원) 등의 전시회가 이어졌다. 이어 고등학생으로 개인 전시회를 연 송번수(1960, 대전문화원)와 임양수(1963, 대전문화원) 등의 활약이 있었다.

1970년대 대전시에서 열린 전시회는 123건으로 르뽀동인회(1976, 대전문화원), 19751225 그룹전(1976, 홍명다실)과 대전'78세대전(1978, 대전문화원)처럼 실험적인 미술활동을 전개한 미술단체들의 전시가 주목된다. 아울러 서양화·한국화·서예·사진 등 장르별로 활발한 모임 결성의 결과물이 전시회로 이어졌다.

1980년대 들어 대전시에서 열린 전시회 수는 개인전 385건, 단체전 711건으로 1970년대 개인전 56건과 단체전 123건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9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개인전 746건, 단체전 1,531건에 이른다. 단체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1970년대 결성된 미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립동인회(1980), 뽀그래픽(1980), 도원회(1982), 일청회(1982), 충남판화협회(1984), 존재회(1985), 창형회(1985), 형상회(1985), OPUS(1986), 오버회(1986) 등 새로운 단체가 등장해 전시를 이끌었다. 이처럼 활발한 미술단체의 결성으로 대전시에서는 1980년대 전시회 수가 수직 상승했으며, 1990년대 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2) 천안시

1970년까지 천안시에서 열린 전시회는 개인전 7건, 단체전 7건 총 14건으로 매우 소략하다. 이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 전시회를 이끌 미술인과 전시공간 등 제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1980년대부터 전시회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개인전(18건)에 비해 단체전(49건) 수가 훨씬 앞섰다. 이는 1980년대 단국대 천안캠퍼스(1983)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1984) 등 천안 소재 대학의 설립과 함께 교통망의 구축으로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1990년대에도 개인전 68건과 단체전 173건으로, 전시회 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전에 비해 단체전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9년 이전까지 천안시에서 열린 전시회는 미술부 학생의 모임인 '녹청회'(1958), '청포도회'(1959) 등과 김성재의 개인전(1963·1964) 등이 있었으나 기간에 비해 열린 전시회의 수가 매우 적었다. 1970년대에도 천안시에서 열린 전시회는 개인전 5건, 단체전 4건으로 수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1976년 창립한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이 매년 열렸으나 아직 천안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회는 보이지 않았다.

1980년대 천안시에서 열린 개인전은 총 18건으로 《김영덕 서화전》(1982)·《심용길 한국화

전》(1985)·《홍재표 도예전》(1986)·《조문구 서예전》(1986)과 《박명옥 염색전》(1985)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단체전은 총 49건으로 1976년 창립 후 매년 열린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1982년 결성된 천안사우회 전시회와 PURE전 등을 제외하면 1980년대와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¹⁶

1990년대 천안시의 전시회는 개인전 68건, 단체전 173건으로 급증하였다. 매년 전시회를 개최한 《한국미협 천안지부전》과 《천안수채화협회전》(1990년 창단), 《천안미술작가회전》(1991년 결성), 《오늘의 천안미술전》 등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새로운 단체의 결성과 함께 1989년 아라리오갤러리의 개관이 단체전 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라리오갤러리는 개관 후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천안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1990년대 열린 173건의 단체전 중 51건, 68건의 개인전 중 41건이 사립 화랑인 아라리오갤러리에서 개최된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공주시

1969년 이전까지 공주시에서 열린 전시회는 개인전 13건과 단체전 27건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대전시 다음으로 자주 전시가 열렸던 도시다. 공주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전시가 비교적 활발하게 열렸는데, 단체전 내용을 보면 《미우전》, 《수요문학회 시화전》과 《서예전》이 주를 이루었다. 개인전 역시 《이창수 서도전》, 《최흥수 서예전》, 《임강림 시화전》 등의 서예전과 《배상욱 동양화전》과 《박익준 동양화전》처럼 전통 서화전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공주시에서 열린 전시회 수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감소했는데 개인전의 감소 폭이 13건에서 2건으로 더 컸다. 공주시에서 개인전이 감소하는 현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단체전에 비해 개인전의 가파른 감소는 공주시에 설립된 대학들에서 배출된 미술인의 대다수가 순수미술이 아닌 미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미술교육과 출신이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개최된 단체전 수는 27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개인전은 2건에 머물렀다. 공주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전이 감소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특성상 미술교육자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대학을 졸업한 후 공주에 정착해 지역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교직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직생활을 하면서 개별적인 작품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여건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는 단체전의 꾸준한 증가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공주 지역 출신의 미술가들이 교직과 작품활동을 병행하면서 개인전보다는 학교 동문전(울림미전과 공주사대미술전, 늘갈회전), 또는 같은 전공 분야 전시회(한길서양화전과 금강조각회 등)처럼 미술단체의 일원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공주에서 열

¹⁶ 천안사우회는 1982년 결성해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린 단체전 중 야투는 야외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1980년 탄생한 야투는 공주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창공회(1980), 태우회(1984), 금강조각회(1988), 우전서회(1988) 등의 결성과 활발한 활동이 1980년대 단체전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개인전 8건과 단체전 58건으로 나란히 증가했는데, 여전히 개인전보다는 단체전 수가 많은 것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교육도시인 공주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술관련 학과의 개설은 타 도시보다 앞섰으나, 교통접근성과 전시를 위한 인프라 등 제반시설이 뒤처지면서 전시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4) 기타 지역

대전·천안·공주 등의 도시를 제외하면 충남의 다른 지역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단체전 위주의 전시회가 서서히 개최되었다. 숫자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개인전은 서산, 단체전은 서산과 당진에서 전시회 개최 빈도수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여·논산·연기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개인전에 비해 단체전 수가 빠르게 상승했다. 금산과 청양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합한 숫자가 5건 이하로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단체 결성과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산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전시회 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 괄목한 성장을 나타냈다. 이는 1976년 서산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서미회'의 꾸준한 활동과 1990년 '서해조형작가회'가 창단되면서 단체전의 개최가 많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¹⁷ 미술단체의 결성과 함께 서산문화원, 서산문화회관과 서인사랑 등 전시 전문공간의 조성 역시 서산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에 영향을 미쳤다.

당진의 경우 1973년 당진 교육청과 합덕지하다방 2곳에서 열린 《청림회전》이 당진에서 개최된 최초의 단체전이다.¹⁸ 당진 출신의 작가인 손화동과 안창모 등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짐작되나 이후 활동을 찾을 수 없다. 당진에서 열린 전시회 수를 보면 개인전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단체전은 1980년대 8건에 비해 1990년대 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1982년 창립한 학동인회가 당진 미술계를 주도하면서 1990년대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로 해석된다.

부여는 미미하지만 개인전이 꾸준히 있었으며, 단체전은 1970년대부터 진행한 지역행사인 백제문화제 내 향토미전과 1980년 초 시작된 구드래야외조각전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부여미술계는 1980년 창단된 아사달청년회와 1981년 한국미협 부여지부 인가를 통해 활기를 찾

¹⁷ 박상우, 성장경, 신영상, 윤복희, 이종구, 장순업 등이 결성하였다.

¹⁸ 「청림회그룹전 사진」, 당시 청림회그룹전에 류조균, 김광희, 조정동, 안창모, 최정일, 손화동, 강중식, 이천종 등이 참가했다. 천안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cfaa.or.kr/>

왔다. 1990년대 이르면 지속적인 지역행사 내 미술작품 전시와 앞서 설립된 단체의 꾸준한 활동에 이어 1990년 사진협회 부여지부의 창단으로 전시회 개최 수가 증가하였다.

논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전 개최 수는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으나, 단체전은 1970년대 5건에서 1990년대 1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72년 논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놀이미술회'에 이어 사진가들의 모임인 '놀이사진회'(1980)와 논산의 지역축제인 '놀이향토제'(1987), '논산교사사우회'(1990)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난 변화로 생각된다. 특히 1992년 사진협회 논산지부가 탄생하면서 논산에서 사진을 매개로 한 미술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산·당진·부여·논산에 비해 부각되지 않으나, 연기·아산·보령에서도 개인전에 비해 단체전 개최 수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1900년부터 1999년까지 개인전과 단체전의 개최 수가 청양은 개인전 2건, 단체전 2건이며 금산은 개인전 2건, 단체전 3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전시회 수가 적은 편이다. 이처럼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적인 미술환경의 차이 외에도 전시자료의 보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고,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V. 지역별 주요 전시공간의 특징

이 장에서는 앞서 수집과정을 거쳐 확보한 전시자료를 토대로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전시회가 열린 공간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은 1999년을 기준으로 16개 시·군으로 구분되는데, 전 지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지역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¹⁹ 따라서 1999년까지 개최된 전시회(개인전+단체전) 수가 50건을 넘는 지역인 대전·천안·공주·서산은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나머지 지역은 5개 권역(당진·태안/아산·예산·홍성/부여·논산/보령·서천·청양/금산·연기)으로 묶어서 살펴볼 것이다.²⁰

1. 대전시

대전시는 1989년 충남에서 분리되기 전 면적은 5379.25km², 인구는 1,016,907명에서 면적은 큰 변화가 없으나 인구는 1,444,106명(2022년)으로 약 70% 증가했다.²¹ 1900년부터 1988년까지

¹⁹ 대전의 경우 1989년 충남에서 분리되었으나 충남 미술계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 1988년까지 대전에서 생성된 전시공간을 함께 다루었다.

²⁰ 『충청남도지』(2006, p. 276)에서 충남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점을 참조하였다.

²¹ 1985년 대전 인구는 나무위키, 2022년 기준 면적과 인구는 대전광역시 누리집 자료를 참고하였다.

대전에서 전시회가 열린 공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4]와 같다.²²

[표4] 대전시의 시기별 전시공간

시기	전시공간명
1969년 이전	개미다방, 대전문화원, 대흥동 라이카화랑, 미국공보원, 보정동 후생관, 세무사사무실, 충남공보관, 충남예총화랑, 한밭상업고등학교 강당
1970년대	가톨릭문화회관, 경암화랑, 舊대전소방서, 극동다실, 남계화랑, 대전고등학교강당, 대전관광호텔, 대전문화원, 상공회의소 화랑, 대전시민회관, 대전여성강당, 대전여성회관, 맥그리거화랑, 목원미술관, 문화화랑, 보성학원화랑, 산강화랑, 송아지다실, 신신화랑, 예총화랑, 오원화랑, 일신다실, 중도일보회의실, 청자다실, 충남예총화랑, 행원다실, 홍명다실, 홍명상가 2층 로비
1980년대	MBC문화공간, 가톨릭문화회관, 계몽미술관, 공간사랑, 군화랑, 근대화랑,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대강당,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기독교회관, 농협전시실, 대성다방, 대전문화원, 대전미술관, 대전백화점,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민회관, 대전화랑, 동서화랑, 동양백화점, 매일화랑, 몽셀통통, 문화화랑, 반공연맹회관, 반도화랑, 상일갤러리, 상지다실, 송아지다실, 신세기다방, 신신화랑, 쌍인미술관, 야외음악당, 여일미술관, 연일다실, 영상화랑, 예가화랑, 예전화랑, 오원당화랑, 은성다실, 입화랑, 전통미술도자기감상실, 중앙갤러리, 참운당화랑, 청년작가회관, 청다실, 청탑다방, 한국화랑, 한남대학교, 현대갤러리, 홍명화랑



도2. 1950년대 대전문화원의 모습(전 미국 공보원 건물)(출처: 『중앙로, 근대를 걷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015, p. 31)

대전시에서 전시회가 열린 공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9년까지 미국공보원, 대전문화원, 다방, 학교 강당 등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문화원(도2)은 1953년 미국공보원이 폐원하자 설비와 기자재를 인수해 충남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0월 《충남미술협회전》을 개최했으며, 1969년까지 열린 총 82건의 전시회 중 58건을 유치해 대표적인 전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967년 충남예술총연합회 건물 내 화랑이 개관했으나 전시는 여전히 대전

문화원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 대전에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전문 화랑들이 서서히 문을 열었다. 미술전문 공간으로 산강화랑(1973)과 오원당화랑(1975), 서예가 조종국이 직접 운영한 남계화랑(1977), 홍명다방(1974)과 문화화랑, 미술애호가인 자신의 여관 건물에 개원한 신신화랑(1979) 등이 등장했다.

다방으로 운영된 홍명다실(1974)과 표구 전문점인 문화화랑은 전시 작가의 이미지를 고려해 전시용 리플렛이나 도록에 실제 상호가 아닌 화랑으로 전시장소를 기재하였다. 이외에도 보성학원, 상공회의소와 중도일보의 경우 역시 회의실이나 기타 여유 공간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²² 지역별 개최된 전시 수에서는 1999년까지 대전에서 있었던 전시회를 반영했으나 전시공간에서는 대전이 분리된 1989년 이후 생긴 전시공간은 논외로 하였다. 따라서 1989년 조사 대상에 포함된 동아미술관, 시너위화랑, 앙상블스극장 등은 배제하였다.

화랑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은 약 20평 규모로 공간이 협소해 국전 순회전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전시회는 공간이 비교적 넓은 학교 강당이 이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제27회 국전 입상작 순회전》(11. 7~11. 20)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으나 전시 기간 중 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²³ 강당이라는 개방형 공간의 특성상 보안이 취약해서 일어났던 사고였다. 도



도3. 1970년대 대전시민회관의 모습(출처: 『중도일보』, 2012. 11. 4)

난 사건 이후 1979년 개관한 대전시민회관(도3)은 대전시립미술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대전의 대표적인 전시공간 역할을 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문을 열었던 남계화랑, 산강화랑, 맥그리거 화랑 등 전문 전시공간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2~3년 후 폐업했다.

1980년대를 보면 대전시민회관과 문화원이 전시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외 신신화랑과 오원당화랑이 여전히 전시를 기획·운영하고 있었으며, 현대화랑(1984)을 비롯해 약 16개의 화랑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이들 화랑 중 화가 유병호(1948~)가 일본 유학 전 약 3년간(1983~1985) 운영한 반도화랑 역시 짧은 기간이지만 실험적인 단체의 전시회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다방이 전시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 시나위다방·대성다방·상지다실·송아지다실 등 여러 곳이 있었다.²⁴ 이들 다방에서 전시회가 1~2회 정도 열렸으나 기록으로만 전하고 이미지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시기 새로 등장한 전시공간으로 상업 시설인 동양백화점과 대전백화점, 방송매체인 MBC방송국 내 문화공간 등이 있다. 백화점에서는 이벤트성 또는 문화센터에 개설한 미술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전들을 주로 개최하였다. 1986년 개관한 MBC문화공간은 임시로 활용하는 장소가 아닌 전시 전용공간을 마련해 1980년대 전시공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충남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시회가 활발하게 열렸던 대전시는 충남도청 소재지라는 잇점과 미술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들이 포진해 있어 작가층이 단단하고, 미술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문화랑과 시립미술관 등 전문공간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천안시

천안시는 대전시에 이어 충남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 1996년 충청남도의 인구는 1,878,130명, 천안시 인구는 35만 2294명으로 충청남도의 16개 시·군 중 가장 인구수가 많

²³ 당시 숙직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시관을 비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1978. 11. 20).

²⁴ 시나위다방의 경우 전시자료에는 시나위화랑으로 표기하였다. 자문을 통해 화랑이 아닌 다방임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다방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화랑으로 변모한 경우들이 있다.

[표5] 천안시의 시기별 전시공간

시기	전시공간명
1969년 이전	자연다방, 향촌다방, 돌다방
1970년대	백궁다방, 아세아다실, 아카데미다방(화랑), 천안문화원
1980년대	도술화랑, 로얄백화점(미도백화점), 사랑방다실, 서화랑, 아라리오갤러리, 천안문화원, 천안시민회관, 태화산방
1990년대	갤러리아미술관, 독립운동기념관, 아라리오갤러리, 이채판화, 천안공업전문대학, 천안문화원, 천안시민회관, 충남학생회관, 코스모스커피숍, 평림화랑, 한양백화점 문화홀, 화랑작은무대



도4. 천안시민회관 외관(출처: 『nate뉴스』, 2021. 8. 8)



도5. 아라리오갤러리 앞 조각광장에 설치된 데미안 허스트의 「찬가」(출처: 아라리오 갤러리 홈페이지)

은 18.76%을 차지하였다.²⁵ 천안시는 충청남도 내 가장 큰 도시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대전에 버금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천안이 빠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까지 천안시에서 전시회가 주로 열린 장소는 상업시설인 다방이다. 1953년 대전문화원이 출범한 후 전시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된 점과 다르게 천안문화원은 1954년 개원했으나 별다른 움직임 없이 1976년 창립한 천안미술협회전만 꾸준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는 천안문화원이 단층의 작은 건물로, 협소한 공간 탓에 개원 초기에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접어들어 천안시에서 열린 전시회가 많아지며 천안문화원의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복합문화시설인 천안문화원 외에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던 천안시에서 1984년 화가 이돈우가 도술화랑을 열어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그 기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²⁷ 도술화랑은 약 2년간 서산, 공주, 천안 지부전 등 충남 내 미협 지부전을 활발하게 개최했으나, 천안 미술계의 기대와 달리 일찍 폐업했으며, 관련 시각자료도 전하지 않는다. 전시공간 측면에서 1980년대

²⁵ 디지털천안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www.grandculture.net/>

²⁶ 1976년 《천안미술협회 창립전》은 백궁다방에서 열렸다. 제2회 천안지부전부터 천안문화원에서 개최했다.

²⁷ 「제4편 문화」, 『천안시지 상』(천안시지편집위원회, 1997), p. 940.

천안 미술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복합문화시설인 천안시민회관(1987)과 아라리오갤러리(1989)의 개관이다(도4, 5).

1987년 개관한 천안시민회관은 3개의 전시실을 구비한 전문문화공간으로, 1990년 이후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초기에는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등 지역미술가 중심의 전시를 주로 열었으나, 이후 《충남미술대전》, 《충남수채화협회전》 등 대규모 전시를 개최했다. 뒤이어 개관한 사립미술관인 아라리오갤러리는 현대미술가로 활동하는 김창일(예명 CI Kim, 1951~)의 뛰어난 감각으로 조성한 조각광장에 데미안 허스트, 키스해링, 고헤이 나화, 수보드 굽타 등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다른 지역에서도 천안시를 주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0년에 들어 아라리오갤러리는 천안문화원과 천안시민회관 등 공공시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1990년대 천안에서 열린 173건의 단체전 중 아라리오갤러리에서 51건 개최해, 천안문화원 56건과 천안시민회관 41건과 버금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천안시에 단국대 천안캠퍼스(1978), 호서대(1983), 상명대 천안캠퍼스(1985), 선문대학교(1991), 남서울대학교(1994) 등에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대학 캠퍼스 내 조성된 전시 공간을 운용한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²⁸ 천안시의 전시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방과 백화점 이벤트홀 등 비전문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문화원, 시민회관과 아라리오갤러리 등 전문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공주시

2020년 기준 공주시는 면적 864.10km², 인구 106,038명으로 충남에서 면적이 가장 넓다. 그러나 면적대비 인구밀도는 낮은 편이다.²⁹ 1932년 대전으로 도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충남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도시인 공주시는 비교적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일제강점기부터 김규진(1921), 조동욱과 이경배(1931)의 전시와 고서화 중심의 전시가 열렸다.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유락시설인 봉산구락부, 종교시설인 예배당이나 교회와 교육기관인 영명학교 등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도6. 영명학교 외관(출처: 공주학아카이브 등록번호 200025823)

1926년 《서화대회 및 학예회》가 열린 대화정 예배당은 당시에는 보기 드문 벽돌로 지어진 3

²⁸ 1983년 호서대학교에 응용미술학과가 개설되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 1985년 산업디자인학과, 1988년 요업디자인·섬유디자인·사진예술학과 등이 개설되었다.

²⁹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누리집 <https://kostat.go.kr/ansk/>

[표6] 공주시의 시기별 전시공간

시기	전시공간명
1969년 이전	고원다방, 곰나루다방, 공주공립고등여학교강당, 공주문화원, 공주사범학교강당, 공주읍사무소, 공주 기독교회, 다방자유관, 대화정 예배당, 봉산구락부, 영명학교강당, 왕궁다방, 중동초등학교강당, 충남공보관, 충남도평의회장, 충원다실
1970년대	공주문화원, 고려다실, 신신다방, 예원다방
1980년대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문화원,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관, 금강백사장, 금강변
1990년대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원, 국립공주박물관, 원골마을, 임립미술관, 계룡산조각공원, 금강 및 곰나루, 공주 일원, 공주민속극박물관, 산성공원, 산성사무소, 자연미술의집, 충남산림박물관, 충남운수연구원



도7. 금강현대미술제가 열린 금강 백사장(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층의 근대식 건물로,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사택이었다. 예배 장소로 이용한 선교사 가옥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영명학교(도6) 역시 공주에 파견된 감리교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이 설립했다.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강당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1921년에 신축한 학교 건물 내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고원다방·곰나루다방·왕궁다방·다방 자유관·충원다실 등 당시 문화인들이 주로 드나들던 다방들이 전시공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에

의존한 전시회는 1955년 공주문화원이 개원하면서 바뀌었다. 1969년까지 공주문화원은 공주미술계의 대표적인 전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들어서도 공주문화원이 중심적인 전시공간으로, 주요 전시회가 여기서 열렸다. 문화원과 함께 신신다방(1971), 예원다방(1974), 고려다실(1974)에서도 전시회가 열렸으나 이들 장소가 전시공간이 아닌 다방으로 영업을 한 탓인지 장소의 위치나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다.

1980년 실험적인 현장미술 단체인 야투가 탄생하면서 공주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강 주변과 백사장 등 야외공간이 전시장으로 활용되어 주목된다. 1980년 공주터미널 앞 금강 백사장에서 개최된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야외작품전》을 시작으로 《제1회 야투현장미술연구회전》이 열렸다(도7). 또 야투를 이끌었던 임동식(1945~)은 독일에서 귀국한 후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원골마을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예술과 마을’ 프로젝트를 기획해 원골마을 전체를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창의력을 보였다.

늦은 감이 있으나 공주문화원에 이어 1990년 대·소 2개의 전시실을 구비한 공주문예회관이 개관했다. 《한국미협 충남지부전》(1990), 《충남한국화회전》(1991),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전》(1994) 등 충남과 공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시를 꾸준히 개최했다.

공주시 역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전문공간이 부족한 시기에는 다방이나 교회, 학교 강당 등을 활용하였으나, 문화원과 문예회관 등이 개원하면서 이곳에서 주요 전시들이 이루어졌다.

4. 서산시

태안군과 서쪽으로 맞닿아 있는 서산시는 면적 742.28km², 인구 177,947명으로 공주시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³⁰ 서산시는 마애여래삼존상 등 백제시대 불교조상을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조운선이 있던 지역이다.³¹

[표기] 서산시의 시기별 전시공간

시기	전시공간명
1969년 이전	서산문화원
1970년대	서산문화원, 서산청년회의소, 향원다실
1980년대	마방화랑, 서산문화원, 서산미술관
1990년대	서산문화회관, 서인사랑, 서산시민회관, 서산문화원, 서령미술회관, 서산미술관, 시대갤러리, 오지초등학교

1970년대까지 서산에서 열린 전시회는 5건(개인전 1건, 단체전 4건)으로 전시회는 주로 1957년 개원한 서산문화원(도8)이 전담했다. 개원 초기 서산문화원은 단층 건물로 내부에 별도의 전시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76년 서산 출신 작가들이 서미회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곳에서 주로 전시회가 열렸다.³²

1980년 들어 서산미술계는 잇단 단체 결성으로 활기를 찾았다. 1970년대 4건에 불과했던 전시는 1980년대 26건으로 증가했다.³³ 이는 화촌회(1981), 미협 서산지부(1983), 화서회(1987) 등의 결성과 서미회(1976) 작가들의 꾸준한 전시, 사진 모임인 사우회와 서예 단체인 서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였다.³⁴ 단체전 26건 중 21건이 문화원에서 열려 해를 거듭할수록 서산미술계의 전시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개관한 서산문화회관(도9)은 3개의 전시실(330m², 지하 1개, 1층 2개)을 구비한 전문 전시공간으로 탄생하였다. 특히 공공기관과 달리 작가들과 지역 의사들의 노력으로 1991년 클

30 통계청 누리집 <https://kostat.go.kr/>

31 『충청남도지 2. 충남의 인문환경』(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pp. 290~328.

32 서산 출신으로 서울 경기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윤희, 「지역별미술의 전개 서산」, 『충남근현대예술사: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181.

33 1976년 창단된 서미회의 연혁을 고려하면 1970년대 개최된 전시 중 누락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34 화촌미술동호인회는 임의록을 회장으로 창립된 순수미술 동호회이다. 이윤희, 앞의 책, p. 179.



도8. 1957년 당시 서산문화원의 모습(서산시 연당1로 1)(출처: 『서산문화원60주년사』, 서산문화원, 2018, p. 38)



도9. 서산시문화회관의 모습(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리닉 건물 지하에 문을 연 서인사랑은 민족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기획을 통해 1995년까지 약 5년간 서산미술계의 부흥을 주도했다. 1990년대 서산에서 개최된 49건의 전시가 서산문화회관(16건)과 서인사랑(21건)에서 주로 열려 문화원의 역할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당진시와 태안군

당진시는 2020년 기준 면적 705.50km², 인구 171,192명의 중소도시이다.³⁵ 대체로 넓은 평야 지대로 이루어진 농업과 철강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태안군은 면적 515.83km², 인구 53,888명으로 당진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³⁶

[표8] 당진과 태안의 시기별 전시공간

지역	시기	전시공간명
당진	1969년 이전	전시 없음
	1970년대	당진교육청, 당진문화원, 상록수다방, 송이다방, 유리제과, 합덕 지하다실
	1980년대	당진문화원, 유림회관, 제일예식장
	1990년대	당진갤러리, 당진문화원, 충청은행 당진지점 수선화공간,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태안	1969년 이전	전시 없음
	1970년대	월궁다방
	1980년대	전시 없음
	1990년대	태안문화원, 태안실험전시실

당진과 태안에서 1969년 이전까지 열린 전시회는 찾을 수 없었다. 당진에서 개최된 최초의 전시회는 1973년 당진 교육청과 합덕지하다방 2곳에서 열린 《청림회전》으로 확인된다.³⁷ 1955년 개원한 당진문화원(도10)에서 열린 첫 전시는 1978년 《예그린화실 제1회 작품전시회》

³⁵ 통계청 누리집 <https://kostat.go.kr/ans/>

³⁶ 통계청 누리집 <https://kostat.go.kr/ans/>

³⁷ 「청림회그림전 사진」, 당시 청림회그림전에 류조균·김광희·조정동·안창모·최정일·손화동·강중식·이천중 등이 참가했다. 천안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cfaa.or.kr/>



도10. 당진문화원의 외관(출처: 네이버 개인블로그)



도11. 태안문화원의 외관(출처: 태안문화원 홈페이지)

(6.12~6.15)로 전한다.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상업시설인 다방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문화원이 전시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서면 1970년대와 달리 당진에서는 전시회를 여는 빈도수가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니,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된 태안군에서는 여전히 전시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다. 1982년 당진 소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미술교사들이 결성한 '학동인회'는 당진시 최초의 미술 단체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동인회와 함께 1987년 당진학생미전의 탄생이 1980년대 당진미술계를 주도했다.

1990년대 당진에서 전시회가 열린 주요 공간으로 금융기관인 충청은행 당진지점 건물 지하에 조성한 수선화공간과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건물을 들 수 있다. 당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동인회의 정기전은 두 전시공간에서 주로 열렸다. 충청은행 당진지점 수선화공간에서는 《제 14회 충남서예가협회전》(1992)과 《서해관화조형전》(1994, 1995)이 열렸다. 지역 미술계를 위해 전시공간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된 수선화공간은 1998년 충청은행이 외환위기로 하나는행에 합병되면서 문을 닫았다.

당진에 본점을 둔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은 1989년 운산리에 회관을 준공한 후 공간의 일부를 전시실로 활용해 당진미술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동인회의 정기전과 《한국미협 당진지부 창립전》(1996) 등의 전시가 열렸던 공간이다. 두 금융기관은 당진에서 문화원보다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주요 전시공간 역할을 했으나, 부실은행으로 영업정지를 받고 당진미술계에서 사라졌다.³⁸

태안군은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되었다. 1970년대 유일한 전시인 《임명철 개인전》(1974)이 월궁다방에서 열린 점은 당시 태안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서산군과 분리되기 이전에는 전시회가 주로 서산군에서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술인들의 모임 결성도 1970년대까지는

³⁸ 1990년대 당진에서 전시회가 열린 장소를 보면 당진문화원 4건, 충청은행 당진지점 9건, 합덕대건신협 8건으로 문화원보다 적극적으로 전시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은 2002년 11월 4일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하였다.

보이지 않는다. 태안고등학교 미술부 출신으로 이루어진 ‘예술태안회’가 1986년 창단되었으나 6년이 지난 1992년 창립전을 개최했다. 또한 한국미협 태안지부가 2005년에 창립된 점 역시 태안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술계 활동이 더뎠음을 말해준다. 1990년대 태안에서 열린 전시회에 대한 기록은 1995년까지만 확인 가능한 상황이라 단언하기 어려우나 1990년 개원한 태안문화원(도 11)이 주요 전시공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아산(온양)시, 예산군과 홍성군

예산군을 가운데 두고 아산시와 홍성군이 인접해 있다. 1995년 1월 1일 아산군과 온양시의 통합으로 아산시가 탄생했다. 홍성군은 2012년 내포신도시로 충청도청의 이전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2020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면적을 보면, 아산시 542.58km², 예산군 542.7km², 홍성군 448.70km²로 홍성군이 가장 적다. 인구는 아산시 363,197명, 예산군 약 76,967명, 홍성군 97,442명으로 면적에 비해 도청이 있는 홍성군 인구가 예산군보다 많다.

[표9] 아산, 예산 그리고 홍성의 시기별 전시공간

지역	시기	전시공간명
아산	1969년 이전	온양 내 전시장소 미상
	1970년대	전시 없음
	1980년대	동서증권 강당(동서화랑), 연지다방, 온양민속박물관, 온양신용협동조합3층, 온양제일관광호텔 하비니홀, 청주다방
	1990년대	당림미술관, 동서증권, 보명예식장,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원 태경관, 아카데미예식장, 온양농협, 온양문화원, 온양 프라자쇼핑센터, 온양우체국, 올림픽생활관, 정우마을금고
예산	1969년 이전	전시 없음
	1970년대	예산군청 회의실
	1980년대	삼정다방, 송림다방, 예산농업전문대 교수회관, 예산문화원
	1990년대	예산문예회관, 예산문화원, 예산터미널 전시장
홍성	1969년 이전	광천5가 다방
	1970년대	전시 없음
	1980년대	도심다방, 홍성문화원, 해동화랑
	1990년대	홍성문화원

1979년까지 아산, 예산과 홍성, 세 지역에서 열린 전시회 수를 보면 아산(온양)과 예산에서 단체전 각 1건과 홍성에서 개인전 1건 외 전시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다. 1958년 미술교사들의 모임인 녹청회의 전시회가 온양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되나 아쉽게도 전시공간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80년대 아산에서 개인전 4건과 단체전 11건, 예산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각 3건, 홍성에서 개인전 4건과 단체전 2건이 확인된다. 1980년 온양시 아산군 내 중등미술교사들이 ‘아미회’를



도12. 예산문화원의 외관(출처: 디지털예산문화대전 웹사이트)



도13. 홍성문화원의 외관(출처: 『홍성신문·내포타임즈』, 2013. 3. 8)



도14. 아산 올림픽기념생활관의 외관(출처: 『충청투데이』, 2023. 12.18)

결성해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였으나, 전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³⁹ 1986년 온양아산지부의 창립 이후 꾸준히 전시회를 열었으나 문화원이 아닌 상업시설인 프라자쇼핑이나 동서증권 온양지점 등을 이용했다.

예산은 추사의 고향으로 서예 관련 전시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짐작했으나 1990년에 시작한 '추사선생추모 전국서예

백일장' 외에는 전시회가 많지 않았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예산문화원 기획으로 1973년 《예산명현유목소장전》이 서울·대전·예산 순회전으로 열렸음을 알 수 있었는데,⁴⁰ 이는 예산문화원(도12)이 전시공간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일종의 기획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64년 홍성군에서 확인되는 전시회는 공주 출신으로 당시 서라벌예대(현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정영복(1937~)의 개인전으로 장소는 홍성군내 광천5가 다방이었다. 1980년대 홍성에서 열린 전시회는 개인전 4건과 단체전 2건이 확인되며, 1990년대의 경우 개인전은 보이지 않고 《홍성미술협회전》과 《홍주예목회전》 등 단체전 4건만이 홍성문화원(도13)에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대전이나 공주와 비슷한 시기에 홍성(1954), 예산(1955), 온양(1957)에도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세 지역 모두 1950년대 문화원이 개원되었으나 1970년대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사를 위해 검토한 자료집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990년 차은희 미술학원 원생들의 작품전시회가 온양문화원에서 3일간 열린 기록으로 미루어 이 시기 문화원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1990년대까지 아산에서 전시가 열린 공간은

³⁹ 1986년 9월 온양문화원에서 온양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온양소식』에 의하면 '아미회'는 1986년 《제7회 정기전》을 온양프라자쇼핑 2층에서 개최하였다. 『온양소식』 제2호(온양문화원, 1986), p. 3.

⁴⁰ 『예산문화원보 1~5집』(예산문화원, 1978), 추사 김정희의 정신을 내세워 김구·이산해·이경전·신계영·조의 등의 서화작품을 전시하였다.

⁴¹ 『온양소식』 제51호(온양문화원, 1990), p. 4. 『온양소식』은 온양문화원에서 1986년 9월 이후 매달 간행했다.

상업시설인 다방과 호텔, 음식점, 금융기관인 신탁과 증권회사 건물, 올림픽 기념생활관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었다. 1992년 개관한 올림픽기념 생활관(도14)은 건물 3층에 기념관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상설전시회 외 전시를 유치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공간은 2011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지하에 전시장 겸 복합공간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 예산에서 열린 전시회 공간을 보면 145㎡ 규모의 전시실을 완비하고 1993년 개관한 문화회관이 주요 전시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짐작된다. 흥성문화원의 경우 전시회 개최 수는 많지 않았지만 1990년대 주요전시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아산, 예산, 흥성의 경우 모두 미협 기부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결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전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짐작된다.

7. 부여군과 논산시

논산시는 2020년 기준 면적 555.16km², 인구 119,222명, 부여군은 면적 624.52km², 인구 67,584명으로 논산시의 인구밀집도가 부여군에 비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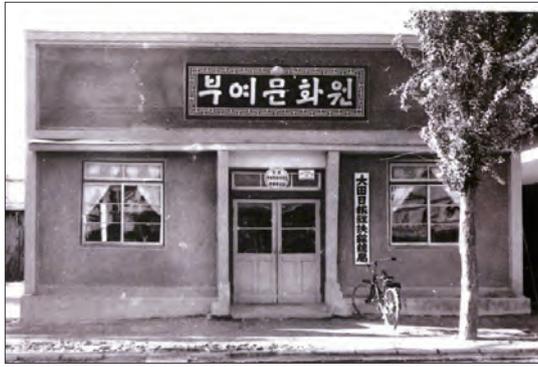
[표10] 부여군과 논산시의 시기별 전시공간

지역	시기	전시공간명
부여군	1969년 이전	부여문화원, 홍산유치원
	1970년대	고궁다실, 부여문화원
	1980년대	고궁다실, 공화당사무실, 부여군민회관, 부여문화원, 읍민회관, 초원다실
	1990년대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구드래조각공원, 부여군민회관,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청소년수련원
논산군	1969년 이전	없음
	1970년대	궁전음식장, 논산 영신상가
	1980년대	논산군민회관, 논산음식장, 대흥다실, 동해생명전시실, 박산부인과 전시실, 오거리다방, 태립상가, 화지산신용협동조합
	1990년대	논산군민회관, 시민생활관, 논산시민회관, 화지산신탁문화공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찬란한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지만 1999년까지 열린 전시회(개인전+단체전) 수가 41건에 불과하다. 부여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전시회는 1932년 홍산면 홍산유치원에서 개최한 《박성섭-양화전람회》이다.⁴² 당시 홍산유치원은 1931년 개원한 교육시설로, 지방유지들의 염원에 의해 설립되었다.⁴³ 충남 청양 출생으로, 동경미술학교를 나와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서 특선까지 수상한 촉망받는 화가가 부여읍도 아닌 홍산면의 유치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점이 특이하다. 이후 1954년 개원한 부여문화원(도15)에서 부여 출

42 「洋畫展覽會 夫餘支局主催」, 『동아일보』(1932. 12. 21).

43 「홍산유치원서광-유지의 기부금 답지」, 『동아일보』(1933. 4. 29).



도 15. 1960년대 부여문화원(출처: 『사진으로 본 부여의 백년』, 부여문화원, 2008, p. 267)



도 16. 화지산 신용협동조합 본점 건물(출처: 『굿모닝 논산&계룡』, 2022. 2. 8)

신의 서예가 조종국(1943~)의 《제1회 서예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시회가 열렸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문화블모지로 평가되는 부여는 1970년대에도 5건 미만(개인전 2건과 단체전 1건)의 전시회가 열렸다. 부여미술교사회(1975), 아사달회(1976)와 부여서도회(1977) 등이 창립되어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했다는 연구⁴⁴를 볼 때 적지 않은 전시회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전시회가 개최된 장소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더 이상 논의를 진척시킬 수는 없으나 부여문화원이 주요 전시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남계 조종국 귀향전》이 고궁다실에서 열렸듯이 1980년대에도 다방이 전시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1980년 무렵 《아사달청년회전》과 《부여군미술교사작품전》 등이 부여읍민회관에서 열렸으며, 1980년 후반에는 1986년 개관한 부여군민회관에서 주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공간이 읍민회관에서 군민회관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주요 전시회들이 열렸다. 부여에서 확인되는 개인미술관은 청소년수련원 내 자리한 부여 출신 조각가 김영학 조각관이 유일하다. 기획이나 특별전시 없이 기증받은 김영학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부여와 달리 1999년까지 논산에서는 약 35건 정도의 전시회가 열렸다. 1969년 이전까지 열린 전시회는 《김성재 유화전》(1953)이 유일하나 전시공간은 알 수 없다. 이후 1972년 논산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박춘화를 중심으로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늘피미술회 창립전》이 궁전예식장에서 열렸다. 이후 늘피미술회 전시회는 천오다실·남궁다실·대림다실·영신상가 등 상업시설인 예식장과 다방, 빈 상가 등에서 계속 열려 논산의 열악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문화원이 전시공간의 역할을 한 것과 달리 1999년까지 논산에는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았다. 즉 전시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원의 부재가 논산미술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44 이윤희, 앞의 책, pp. 190~191.

1980년대에도 놀피미술회를 비롯한 논산의 미술인들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예식장, 다방, 상가, 병원 등 비전문시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1988년 한국미협 논산지부의 창립전이 준공이 안 된 상가 건물에서 열린 점 역시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논산 미술계의 실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1990년 이후 논산 지역의 전시공간 역할을 한 곳이 금융기관인 화지산 신용협동조합의 3층 회의실이다.⁴⁵ 화지산신용협동조합(도16)은 1972년 논산에서 창립된 금융기관으로 《한국미협 논산지부전》과 《놀피미술회 회원전》, 《논산교사사우회전》 등 다수의 단체전을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8. 보령시, 서천군과 청양군

보령시와 서천군은 충남의 서남부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청양군은 보령시와 서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2010년 기준 보령시 면적은 574.08km², 인구 97,770명, 서천군 면적은 366.14km² 인구 53,914명, 청양군의 면적은 479.11km², 인구 29,755명이다. 보령시의 인구밀도가 두 도시보다 높으며, 청양군은 충남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1969년 이전까지 보령, 서천, 청양 세 지역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1건으로 1959년 청양문화원에서 열린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정영복(1937~)의 개인전이 유일하다. 세 지역의 문화원이 각각 청양문화원(1955, 도16), 대천문화원(1956, 현 보령문화원, 도17), 서천문화원(1965, 도18)의 순서로 일찍이 개원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 보령시와 청양군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서천시의 경우 서천에서 활동하는 미술교사들이 결성한 '서천미술교원회'가 1974년 창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짐작되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전시회는 문화원이 아닌 군민회관에서 열렸다. 1980년대에도 세 지역에서 열린 전시회가 10건 미만으로 미술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전체 전시회 건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보령의 경우 신정다방이 문화원보다 선호되었으며, 서천군에서는 군민회관이, 청양군에서는 문화원과 화랑에서 전시회가 주로 열렸다.

1990년대 들어 보령시의 경우 1992년 한국미협 보령지부와 초등미술교사연구회가 창단되었다. 보령지부전은 보령문화원 외 보령군청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령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전시공간으로 주로 활용했다. 서천문화원은 단독 건물 없이 서천읍사무소에 이어 서천군민회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였다. 서천군의 경우 《서천군교사회전》이 1991년 군민회관에서 열린 이후 꾸준히 전시회를 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후 자료가 발굴된다면 서천군 미술계의 활동사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⁴⁵ 기록에는 화지산신용협동조합의 전시실로 기재되었으나 실험에 문외한 결과 3층의 회의실을 종종 전시실로 허용했다고 한다. 1990년대까지 논산에서 열린 35건의 전시회 중 13건이 화지산실험 회의실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나 전시공간으로 꾸준히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1]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의 시기별 전시공간

지역	시기	전시공간명
보령시	1969년 이전	전시 없음
	1970년대	전시 없음
	1980년대	귀빈다실, 대천문화원, 신정다방
	1990년대	대천문화원, 대천해수욕장, 보령군청, 보령보건소, 보령시민체육관
서천군	1969년 이전	전시 없음
	1970년대	서천군민회관
	1980년대	서천군민회관, 서천문화원, 장항 농협 회의실
	1990년대	서천군민회관
청양군	1969년 이전	청양문화원
	1970년대	전시 없음
	1980년대	예원사화랑, 조치원문화원
	1990년대	청양문화원



도17. 대천문화원 외관(출처: 『중앙매일』, 2012. 9. 14)



도18. 서천문화원의 외관(출처: 충남문화포털 홈페이지)



도19. 청양문화원의 외관(출처: 『백제 NEWS』, 2023. 6. 15)

1990년대 전시가 열린 대천문화원(보령 문화원)과 청양문화원 역시 별도의 전시를 위한 공간 없이 강당을 임시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천문화원에서는 《미협 보령지부 창립회원전》(1996)을, 보령군청에서는 《보령예술인회 회원작품전》(1996)을 개최했다. 보령군청의 경우 군청 1층 열린 공간인 로비가 전시공간으로 이용되

었다. 즉 이들 세 지역에서 전문 전시공간을 대신해 군민회관이나 군청, 농협 회의실 등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전시회 개최 빈도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전시 전문공간의 설립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다.

9. 금산군과 연기군

금산은 대전과 교통로가 개선되면서 대전의 생활권으로 흡수되는 상황이다.⁴⁶ 금산군은 면적 577.22km², 인구 52,952명 연기군은 면적 361.53km² 인구 83,504명으로 연기군은 금산군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았다.⁴⁷

[표12] 금산군과 연기군에서 전시가 열린 공간들

지역	시기구분	전시공간
금산	1969년 이전	전시 없음
	1970년대	전시 없음
	1980년대	금산농협, 금산문화원
	1990년대	금산갤러리, 청산회관 전시실
연기	1969년 이전	조치원문화원
	1970년대	전시 없음
	1980년대	연기군민회관, 조치원문화원
	1990년대	연기군민회관,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도20. 금산문화원의 외관(출처: 『금산문화원 50년사』, 2017)



도21. 연기군민회관내 조치원문화원의 외관(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누리집)

1999년까지 금산군에서 열린 전시회(개인전+단체전)는 5건, 연기군의 경우는 28건이 확인된다. 1967년 금산문화원이 개원하였으나 연기군에는 1964년 조치원문화원이 설립되었다. 금산군은 1989년까지, 연기군은 1999년까지 개인 전시회가 열린 기록이 없다. 개인전과 달리 연기군에서는 1990년대 단체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연맥서예회와 연기사진회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적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펼쳐진 전시회에 대한 기록의 누락에 의한 결과로 짐작된다.

금산군의 경우 1980년대에는 금산문화원(도20)과 금산농협, 1990년대에는 금산군청과 청산회관이 전시공간으로 미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⁴⁸ 특히 금산 출신 미술인들로 결성된 단체인 금

46 『충청남도지 2. 인문지리』(2006), p. 407.

47 연기군은 2005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폐지되었다.

48 자료에는 금산군청 갤러리로 소개되었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갤러리는 없으며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동인회가 1981년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원과 금산농협, 청산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단체전과 달리 개인전의 경우 금산군청 내에 있는 전시공간인 금산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연기군의 경우 조치원문화원이 1964년 개원한 이후 도원예술제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전시회를 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기군에서 문화원과 군민회관은 전시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화원에서 이전 전시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연기군미술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그나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협회를 통해 1986년 이후 조치원문화원에서 꾸준히 전시를 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치원문화원은 도시개발에 떠밀려 군민회관에 입주하며 명칭이 연기문화원에서 세종문화원으로 변경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한 송암 민복기의 문하생을 중심으로 연맥서화회기 10여년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1990년대까지 문화원과 군민회관이 연기군 미술계의 활동무대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은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 16개 시군에서 열린 미술전시의 특징을 시기별·지역별로 검토하였다. 개별 전시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기보다는 수집한 전시회 수를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1999년 이전까지 충남에서 열린 전시회에 대한 조사는 『한국미술전시자료집』(1945~1999) 12권과 『문예연감』(1976~2000) 25권에서 추출한 전시회 목록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보완 작업으로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2021)과 『충남미술가편람 II』(2022)를 참조하였다. 이외 후속 작업을 통해 전시회 총 4,444(개인전 1,405건, 단체전 3,039건)을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수집한 자료들을 네 시기로 나누어 충남에서 열린 단체전과 개인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1969년 이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단체전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1990년대까지 이러한 경향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지속되었다.

지역별로 전시회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시회는 1999년까지 꾸준히 대전시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1989년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된 이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전시 이외 충남에서 괄목한 변화를 보인 지역은 천안시다. 1980년대부터 전시회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대전시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1990년대에는 충남에서 가장 전시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천안시의 이러한 변화에는 1989년 개관한 아라리오갤러리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공주시의 경우 충남에서 가장 먼저 미술 관련학과가 개설된 지역이지만, 전시회 수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는 공주교육대학과 공주사범대학에서 미술교육과가 개설되어 미술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었던 환경 때문으로 짐작된다.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이외 지역에서는 전시회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서산시에서는 지역화가들로 결성된 서미회를 중심으로 미술계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열린 전시회에 관한 자료가 더 수집되어 분석대상의 지역 편차가 줄어들었다면 지역에서 개최된 전시회 수의 시기별·지역별 해석을 위한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회 자료를 기반으로 충남 각 지역에서 시기별로 어떤 전시공간이 생성되고 활용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대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전문 전시공간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다방이나 공공시설, 교육기관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과 더불어 전시공간으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각 지역에 세워진 문화원이다. 대전시의 경우 특히 문화원의 역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당진·온양·홍성·청양 등에 개원한 문화원은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다. 그런가 하면 1999년까지 논산에는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전시회 개최 수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내 대학의 존재와 더불어 대학 내 미술 관련학과의 개설 여부였다. 미술 관련학과가 설립된 대학이 있는 지역의 경우 전문 미술인의 배출과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전시공간의 설치 등 인프라 형성으로 연결되어 적절한 전시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미술인이 배출되면서 점차 미술단체를 통한 활동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미술단체의 결성과 꾸준한 전시회 개최는 지역미술계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는 이러한 전문미술인 집단의 결속은 지역 내 미술계에 대한 호응으로 연결되어 시설 화랑의 개관이나 미술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술시장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시회를 중심으로 정량분석을 진행했으나 지역별로 누락된 기록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풍부한 전시회 관련 자료들이 발굴된다면 충남 전 지역 미술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충남 전 지역에서 열렸던 미술 전시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시기별 추이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과 더불어 지역별 전시공간의 실태와 변화를 검토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료>

- 『2020 근현대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 『공주문화원 50년사』, 공주문화원, 2005.
-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2023.
- 『公州文化院五十年史』, 공주문화원, 2005.
- 『금산문화원 50년사』, 금산문화원, 2017.
- 『논산문화원 60년사: 1957~2017』, 논산문화원, 2017.
- 『대전중구문화원 50년사 1953~2003』, 대전중구문화원, 2002.
-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 1953~2013』, 대전중구문화원, 2012.
- 『대전중구문화원 향토문화자료 7. 중구문화길리잡이』, 대전중구문화원, 1998.
-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 『사진으로 본 부여의 백년』, 부여문화원, 2008.
- 『서산문화원60주년사』, 서산문화원, 2018.
- 『세종문화원50년사』, 세종문화원, 2014.
- 『온양소식』 제2호, 온양문화원, 1986.
- 『온양소식』 제51호, 온양문화원, 1990.
- 『예산문화원보』, 예산문화원, 1978.
- 『중앙로 근대를 걷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2015.
-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 충남문화재단, 2016.
-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 충남문화재단, 2021.
-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I』, 충남문화재단, 2022.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근대도시 공주의 탄생』, 메디치, 2021.
- 『충청남도 지리지』, 충청남도, 2020.
- 『충청남도지 2 충남의 인문환경』,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 『충청남도지 24 현대예술』,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 『충청은행 20년사』, 충청은행, 1988.
- 『천안시지 상』, 천안시지편집위원회, 1997.
- 『한국미술전시자료집 I · II · III · IV』, 김달진미술연구소, 2014 · 2016 · 2017.
- 『합덕대건신협』 통권 7호,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2001.

<기타>

『굿모닝 논산&계룡』, 『중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미디어투데이』, 『동아일보』, 『중앙매일』, 『원데이리』, 『충청투데이』

통계청 누리집 <https://kostat.go.kr/>

충남문화포털 <https://cnc.cacf.or.kr>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kjha.kongju.ac.kr/>

근·현대기 충남 미술단체의 전개 양상과 특징

김미정 | 근현대미술연구소 상임연구원

I. 머리말	IV. 1980년대: 분야별·지역별 미술단체 증가의 가속화
II. 일제강점기~1960년대: 서화 애호 풍조와 미술단체의 출발	V. 맺음말
III. 1970년대: 동문 미술단체와 지역 미술단체의 결성	

I. 머리말

이 글은 충남의 미술단체를 중심으로, 충남에서 펼쳐진 미술 문화사의 전개 과정을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¹ 한 지역의 미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작가 조사와 연구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미술단체를 통해 지역미술계의 조직과 동향을 살피는 것 또한 지역미술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 충남에서는 많은 미술단체가 형성되었으며, 그중 상당수의 미술단체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충남에서 발생한 미술단체는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200여 개가 훨씬 넘는다. 이처럼 많은 미술단체가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충남의 미술단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² 1997년 대전시립미술관이 출범한 이후에는 전시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이 도록으로 발행되었으며, 이 도록들에는 여러 미술단체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었다.³ 학술연구로는 대전의 미술계와 미술단체를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공주의 서양화가들을 고찰한 논고 등을 통해서 충남의 일부 지역 미술단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1 2023년 수행한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3단계)」 연구 용역 사업에서는 주요 미술단체 관련 기록 자료를 확보해 목록화한 다음, 단체 활동 기록을 연표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이미지를 디지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창립 사실을 확인한 단체 수는 총 224개이며, 이 단체 중에서 88개 단체의 해제와 연혁을 정리하여 I 장에 수록했다. 이 논고에서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미술단체의 연혁과 작품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미술단체의 역사를 검토했다.

2 『충남미술사』(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1995); 『충청남도지: 제24권 현대미술』(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충남미술가편람 I·II』(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 2021·2022).

3 『대전미술 둘-공예·조각』(대전시립미술관, 2009);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검야불후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등의 도록이 발간되었다.

4 황효순, 「대전미술사의 현황과 과제」, 『대전문화』 18호(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황효순, 「1930년대~1960년 대전 화단의 동향」, 『대전

이처럼 충남미술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술단체 관련 연구도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충남 전체 지역의 미술단체를 총체적으로 살피고, 시대별로 단체의 양상을 조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충남의 미술단체 연구는 주로 대전과 공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충남 전역에서 생성되었다가 사라졌거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미술단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미술단체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⁵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근대기 충남 미술계의 서화 애호 풍조를 살피면서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초기 미술단체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시 활동에 관한 기록 자료를 토대로 각 단체의 전시와 회원 구성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1970년대 들어 각 분야에서 최초로 결성한 단체가 많이 등장하고, 각 대학에 여러 동문 단체가 탄생하므로, 분야별·대학별 초기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시기 충남의 몇몇 시군 권역에서 창립된 지역 미술단체를 통해 충남미술가들의 움직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1980년대의 분야별·지역별 주요 단체에 집중해 어떤 단체가 충남 미술계를 주도하면서 개별 단체로, 혹은 다른 단체와 공조해 충남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했는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른 충남 미술단체의 전개 양상을 살핌으로써, 개인전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집단적으로 발현된 충남 작가들의 창작 정신, 나아가 충남미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일제강점기~1960년대: 서화 애호 풍조와 미술단체의 출발

충남에서는 행정·역사·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하던 공주를 중심으로, 근대까지 서화 애호 풍조가 면면히 이어졌다.⁶ 공주에서는 1921년 해강 김규진(金圭鎭, 1868~1933)과 같은 유명 서화가의 전람회 열었으며 서화가를 초청해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사인 석상휘호(席上揮毫)가 성행했다.⁷ 특히 1916년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양화과(洋畵科)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관호(金觀鎬, 1890~1959)가 3주간 공주에 머물며 휘호를 했다는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일찌감치 전통 서화가들뿐만 아니라 서양화가에 관한 지역민의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 김관

문화』29호(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김미정, 「공주(公州)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1900~1945년 출생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5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단체의 기준으로는 다음의 기준, 즉 설립 목적, 지역별·분야별 초기 단체, 지속 기간, 미술가 양성과 교육, 미술계 기여도 등에 따라 주요 단체로 설정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시기를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는 1989년까지로 설정했으며, 연구 대상 지역은 대전·충남권 전체의 미술단체를 모두 포함했다.

6 김소연, 「근대기 공주의 서화계-서화 창작과 수집, 그리고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pp. 40~64.

7 「김해강서화회(金海岡書畵會)」, 『매일신보』(1921. 8. 10); 「공주서화전람회」, 『시대일보』(1924. 6. 19); 「공주서화골동대회」, 『조선신문』(1929. 11. 29).

8 「公州에서, 洋畵家 來公」, 『매일신보』(1916. 8. 26).

호가 공주를 다녀간 후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1924년에는 공주공립보통학교 출신 송병돈(宋秉敦, 1902~1967)이 독학으로 그림을 익혀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조선미전)》에 〈초여름의 금강(初夏錦江)〉으로 입선했다.⁹

일제강점기에는 지방의 사군자 애호층이 두터운 곳을 중심으로 서화회가 성행했는데,¹⁰ 서화회를 비롯해 미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자료는 공주뿐만 아니라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21년 부여에서는 김규진을 초청해 《부여서화전람회》를 열었으며, 1932년에는 공주 출신의 서화가인 이경배(李慶培, 1898~1960)의 서화회도 개최했다.¹¹ 이외에 대전과 천안에서도 여러 차례 서화전람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전한다.¹² 그뿐만 아니라 1930년대 들어 이경배와 조동욱(趙東旭, 1899~1947) 등의 서화가들이 충남 전통 화단의 대표 작가로 활약했다.

이러한 미술문화 향유 풍토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결성한 충남의 미술단체로는 1931년 공주에서 전시회를 연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가 있다. 공주회화회는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충남 미술단체이다. 공주회화회가 결성될 당시 충남의 도청소재지였고, 1932년 대전으로 충남도청이 옮겨가기 전까지 충남의 중심지였던 공주에서 1931년 11월 공주회화회의 첫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¹³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를 소개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시장소는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이였으며 회원은 공주 거주 작가들로 구성되었다.¹⁴

공주회화회에 참여한 작가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는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한 송병돈과 도쿄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學)) 출신 구중서(具宗書, 1912~1988)로, 이 두 사람은 조선미전에 거주지를 공주로 표기했다. 송병돈은 1930년 도쿄미술학교 동문이 모여 조직한 ‘동미회(東美會)’에 김용준·이종우·길진섭·홍득순 등과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미술단체 결성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술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송병돈이 귀국한 후, 영명여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공주회화회 결성을 주도했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공주 출신의 고등학생 구중서가 1931년 공주회화회 결성 당시 《제10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했다. 구중서가 《조선미전》에서 입상하자 당시 그가 다니던 공주 고등보통학교의

9 「美展入選の(初夏錦江)の揮毫-공주 宋秉敦氏の 영예」, 『매일신보』(1924. 6. 3).

10 일제강점기에 성행한 서화회는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많이 개최되었는데,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성행했던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서화회에서는 일정한 참가비를 내고 서화작품을 사은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으며 즉석 휘호 후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살 수 있었던 것이 서화회의 장점이었다. 강민기, 「일제 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서화회 연구」, 『미술사연구』 28(미술사연구회, 2014), p. 298.

11 「부여서화전람회(부여서화전람회)」, 『조선일보』(1921. 8. 21); 「석연 이경배씨 서화전」, 『매일신보』(1932. 9. 17).

12 공주와 부여 외에도 1924년 대전에서 김규진을 초빙해 전람회를 열었고, 1930년대 들어 고서화 전람회인 《서화반포회(書 頒布會)》와 묵죽화가 김진우(1883~1950) 개인 서화전 등을 개최했다. 1932년 천안에서도 이경배를 초청해 서화전람회를 개최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서화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성황의 대전서화」, 『조선일보』(1924. 5. 7); 「양화백의 서화반포회(兩畫伯의 書畫頒布會)」, 『중외일보』(1930. 4. 6); 「양 지국 주치의 천안서화전람회, 지난 십구일에 개최 대성황」, 『중앙일보』(1932. 4. 24).

13 「공주회화회 작품전출품(公州繪畫會 作品展出品)」, 『朝鮮新聞』(1931. 11. 28).

14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는 공주 고등보통학교 교사 신범이(申範伊), 영명여학교 교사 송병돈, 공주 고등보통학교 5년생 구중서를 비롯해 일본인들이 함께한 전시이다. 신범이, 송병돈, 구중서는 각각 8점, 7점, 6점의 양화를 출품했다. 또한 이치이 에이사쿠(市井樂作)는 양화(洋畫) 3점을 출품했고, 쿠니토모 아사지로(國友朝次郎)는 일본화 5점과 양화 3점을 출품했다. 이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에는 법원 예심판사였던 이치이 에이사쿠와 당시 공주 고등보통학교 도화과 강사였던 쿠니토모 아사지로라는 일본인이 명단에서 확인된다. 「공주회화회 제1회 작품전(公州繪畫會第一回作品展)」, 『朝鮮新聞』(1931. 11. 27).

도화과 강사였던 신범이(申範伊)와 영명학교 교사였던 송병돈과 함께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가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주회화회의 첫 전시가 열린 후 2년 뒤인 1933년 송병돈은 김천 고등보통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했고, 1949년 이후부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에서 제자 양성과 작품활동을 이어갔다.¹⁵ 구중서 또한 1933년 제국미술학교 입학 을 위해 일본으로 갔다. 이들이 공주를 떠나고 난 뒤, 공주회화회가 더 이상의 전시를 열지 않았던 것인지, 제1회 전시의 자료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선미전에 입상한 미술가가 충남에서 미술연구회를 설립해 서화를 지도한 기록도 전한다. 1934년 충북 영동 출신의 박희석(朴喜奭)이라는 서화가가 대전 본전통에서 자신의 호를 딴 ‘박연계서화연구회’를 창설해, 서예·사군자·산수화 등을 지도했다는 기록이 『조선중앙일보』 기사에 남아 있다.¹⁶ 기사에 따르면 신흥도시인 대전에 서화 취미와 연구의 의지를 지닌 사람은 많은데 교육 기관이 없어서 창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 서화연구회의 활동이나 전시회 이력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1930년대 충남에서 서화를 지도한 개인 교육기관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충남에서 전시를 열며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미술단체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미전 도록에서 충남에서 활동한 일본인 교사의 명단이 30여 명 이상 확인되므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단체나 또 다른 미술단체들이 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해방기는 충남에 정착한 미술가들이 본격적으로 미술단체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이다. 1945년 결성한 ‘미술협회’는 박성섭(朴性燮, 1903~1974)과 이동훈(李東勳, 1903~1984)이 의기투합해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조직된 충남 미술단체이다(도1). 해방 직전 평북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서양화 강습을 받은 이동훈이 1945년 4월 대전공업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했고, 당시 대전사범학교의 미술교사로 있던 박성섭과 함께 뜻을 모아 그해 10월에 ‘미술협회’를 조직했다.¹⁷ 단체 조직 후 회원 10명의 참여로 《해방기념전람회》(11. 24~11.



도1. 《제5회 미협전》 관련 신문기사(출처: 『대전일보』, 1958. 10. 7)

15 조은정, 「송병돈과 1950년대 서울대학교」, 『조형 아카이브』 제3호(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1), pp. 37~69.

16 박희석은 연계(蓮溪)라는 호를 쓴 충북 영동 출신 서화가이다. 박희석은 1930년 영동의 심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조선미전에서 입선했으며, 1932년과 1935년 충주에서 서화전람회 를 연 기록이 있다. 대전 에 서화연구회를 열기 전인 1932년 영동에서 ‘박연계서도연구회’를 설립한 바 있다.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19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types=1930-13-121-0978-06532>; 「朴蓮溪畫伯 書幅頒布會」, 『매일신보』(1932. 2. 16); 「朴蓮溪書畫硏究會 大田에서 創設」, 『조선중앙일보』(1934. 4. 29); 「忠州書畫展覽會: 朴喜奭先生 來忠期」, 『동아일보』(1935. 2. 7).

17 박성섭은 동경미술학교를 나와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서 특선한 충남 청양 출생의 서양화 작가로, 1932년 홍산(현 부여군 홍산면)에서 개인전인 《양화전람회》(1932. 12. 23~12. 24)를 가졌던 인물이다. 「洋畫展覽會 夫餘支局主催」, 『동아일보』(1932. 12. 21).

29)를 개최했다.¹⁸ 이 전시는 충남미술가들이 미술협회를 구성하자마자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광복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던 것이다. 해방기에 이동훈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 미술협회는 한국전쟁 시기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휴전협정이 끝나기 전인 1953년 1월 김기숙·김철호·박성섭·박승무·이동훈·이인영·임상묵 등의 주도로 재결성되었다. 이 중에서 박승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조직을 정비하자마자 1953년 3월 《삼일기념미협전》을 개최해 충남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했다.¹⁹ 이후 해마다 협회전을 개최하고, 도내 학생들의 미술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일본과 서울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충남에 정착한 작가가 점차 늘어났다. 이들은 충남 각지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1년에 한 번 치르는 충남미술협회 정기전 출품을 위해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충남미술협회를 통해 활동한 미술가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았지만,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보다는 교직에 있으면서 작품 활동을 병행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미술 경향을 추구하고 독창적 창작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미술계는 기존 화단의 권위에 반발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1957년 무렵 창작미술가협회, 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 백양회 등 많은 단체가 결성되었다. 충남에서도 미술교사와 작가 활동을 병행하던 충남미술협회 소속 작가 중에서 새로운 미술운동을 주창하며 미술단체를 결성했다. 서구 모더니즘 미술을 추구하는 단체를 표명하면서 젊은 미술가들이 만든 단체가 ‘녹청회’이다. 이 녹청회를 필두로 1950년대 후반 충남에서도 여러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루-불미술동인, 수요동인회, 청포도회가 이 무렵 탄생한 미술단체들이다(표1).

[표1] 1950년대 창립한 충남 주요 미술단체

단체명	녹청회(1958)	루-불미술동인(1958)	수요동인회(1958)	청포도회(1959)
단체 관련 이미지				
이미지 설명	《제1회 녹청회미술전》 전시장	《제1회 루-불 미술동인전》 전시장 앞 기념사진	1963년 수요동인회 기념 사진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 리플릿

18 '미술협회'는 이동훈의 개인 자료 외에 공식 자료에서 참여자의 명단이나 전시회 개최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해방 후 충남미술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주목된다. 김경연, 『이동훈 평전』(열화당, 2012), pp. 278~279.

19 위의 책, p. 201.

녹청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한 작가들이 충남에 자리를 잡으면서 결성한 단체이다. 제국미술학교 출신 김화경, 일본대학(日本大學) 출신 조중현(趙重顯, 1917~1982), 태평양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 출신 김성재(金星在, 1923~1968), 우에노(上野)미술전문학교 출신 한유동(韓維東, 1913~2002) 등 주요 회원들이 1950년대 후반 천안과 합덕 등지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미술교사들의 회합으로 시작한 녹청회는 1957년 광천의 십자성다방에서 충남 최초의 모더니스트를 자부하며 함께 전시를 열었던 것이 단체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²⁰ 녹청회는 1958년 4월 발족 행사를 하고, 그해 11월 천안에서 창립전을 열었다.²¹ 이후 현대미술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던 작가들은 천안·온양·광천·평택·대전 등으로 전시장소를 바꾸어 가며 1961년까지 전시를 이어갔다.²² 즉 이 모임은 ‘최신미술을 전개하자’는 뜻을 모으고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미술사조에 대한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이렇게 미술을 전공한 젊은 교사들이 충남에서 새로운 미술 그룹인 녹청회를 조직해 활발한 창작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술교사를 통해 각 지역에 작가 정신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학교마다 양질의 미술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대전과 천안에서는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학생 미술단체가 결성되었다.

한편으로 195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 유학한 작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한 충남 출신 작가 중에서 몇몇 작가가 고향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대전 대흥동 성당에 자주 모였다. 1957년 무렵 대학교를 졸업한 이남규(李南圭, 1931~1993), 조영동(趙榮東, 1933~2022)이 각각 유성중학교와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다. 이후 1958년 대전 대흥동성당 오기선 신부를 중심으로 수요일에 음악감상회와 미술감상회를 개최하면서 예술가 모임이 만들어졌다.²³ 이 문화 모임이 진행된 날이 매주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문화모임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후 서울대학교 동문인 이지휘(李志輝, 1935~?), 최종태(崔鐘泰, 1932~), 이종수(李鍾秀, 1935~2008) 등도 교사로 발령받아 대전에서 미술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요일동인회에 합류했다. 이 수요일동인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오기선 신부가 서울로 가고, 조영동·최종태·이지휘·이남규 등이 교수 임용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루-불미술동인은 1958년 2월 9일에 창립된 대전 최초 고등학생 연합 미술그룹으로, 1958년과 1960년 두 번의 전시를 개최했다(도2). 루-불미술동인 창립전에 참가한 학생은 대전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서라벌여자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등 대전 시내 학생들과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이던 유희영(柳熙永, 1940~), 이근신(李根伸, 1940~) 등이었다. 1958년 유희영은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해 1960년 《제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

20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홈페이지. <http://www.djart.or.kr/bbs/page.php?hid=p107>

21 「문화계소식-녹청회발족」, 『경향신문』(1958. 4. 9).

22 녹청회는 1962년까지 총 7번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이후 녹청회 전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23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p. 59~60.



도2. 《제1회 루-불 미술동인전》 기념사진(출처: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미술관, 2012)

하 국전)》에서 입선했으며, 이근신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이처럼 1958년 2월 루-불미술동인 창립때 이미 대학에 합격한 학생도 참여했는데, 이후 1960년에 열린 2회 전시에는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출품했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미술교사 김철호(金哲鎬, 1925~2011), 대전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동식(洪東植, 1926~2003),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 임봉재(林奉宰, 1933~)가 루-불미술동인의 학생들을 지도했다.²⁴ ‘루-불미술동인’이라는 명칭은 당시 미술인들이 최대의 꿈으로 여겼던 프랑스 루브르미술관을 동경하며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²⁵ 창립한 해인 1958년 여름에 동학사 야외스케치를 다녀왔으며, 그해 말 대전문화원 화랑에서 《제1회 루-불동인전시회》가 열렸다. 창립전 리플릿에 표기된 후원기관으로는 충남미협, 대전일보사, 대전문화원이 기재되어 있어 예비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모인 학생 미술단체이지만, 충남 미술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단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특히 충남 출신의 많은 작가가 루-불미술동인을 통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루-불미술동인의 의의가 크다.

이렇게 대전에서 미술교사들이 학생들을 모아 루-불미술동인을 만들고 난 뒤, 천안에서는 1959년 청포도회가 조직되었다. 아산 출신으로 당시 천안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화경과 1955년부터 천안여자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있던 김성재의 주도로 자신들의 문하생과 대학에 다니던 미술학도를 모아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 당시 회장은 김화경이 맡았으며 1959년 6월 천안 자연다방에서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을 개최했다. 김화경과 김성재가 찬조 출품했고, 서라벌대학교(현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서양화가 송진세(宋鎭世, 1938~)가 참가했다. 청포도회를 주도한 김화경과 김성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1958년 일본에서 유학한 작가들이 결성한 녹청회를 통해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천안의 학생들과 함께 청포도회라는 미술단체를 조직했던 것이다. 그러나 1회 전시 외에 전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김화경이 1960년 천안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면서 청포도회는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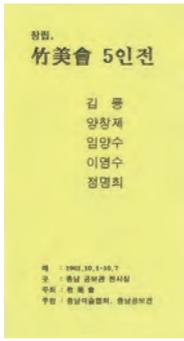
지금까지 소개한 단체들은 1960년대 초 모두 와해되어 모임이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활

24 독학으로 그림을 익힌 김철호는 1954년 중등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강경상업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정년퇴임 때까지 40년 동안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홍동식은 1955년 대전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전에 정착한 인물이다. 임봉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고 대전에서 미술교사를 시작했다. 『충남미술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2), pp. 129~131 · 148~149 · 213~215.

25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2012), p. 46.

26 루-불 동인은 충남 서양화단의 발전 시기 고등학생과 대학생 미술학도로 구성된 그룹으로써, ‘청맥’이라는 잡지를 발간할 만큼 열정적인 모임이었다. 아쉽게도 루-불 미술동인은 2회의 전시만으로 그쳤지만, 이 그룹 출신 중에서 이종상, 유희영, 이철주 등은 국전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의 도록, p. 46.

[표2] 1960년대 창립한 충남 주요 미술단체

단체명	한국미협 충남지부 (1962)	죽미회(1962)	미우회(1962)	미상록(1964)
단체 관련 이미지				
이미지 설명	《5·16혁명 기념 미전》(1962) 리플릿	《죽미회 5인전》 (1962) 리플릿	《미우전》(1962) 초청장	1965년 《제3회 미상록전》 리플릿

동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이 단체에 참가한 작가 중 상당수가 이후 충남미술계의 중심에서 활약한 작가로 성장했으며, 한국미술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작가도 여럿이다. 따라서 녹청회·루-불미술동인·수요동인회·청포도회 모두 미술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충남의 초기 미술단체에서 미술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1961년 12월 18일 대한미술협회와 한국미술가협회가 통합되어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가 공식 출범했다. 충남에서는 한국미협이 출범하기 전부터 미술가들과 지역민들의 의지로 충남미술협회가 조직되어 이미 작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미협 공식 출범 이후 충남미술협회는 1962년 5월 15일 한국미협 소속 충남지부로 인준받아 활동을 지속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한국미협 충남지부는 가을에 대전공업고등학교와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이 의기투합해 만든 죽미회(竹美會)라는 단체를 후원했다(표2).²⁷

죽미회는 대전공업고등학교와 한밭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개최된 미술실기대회에 관한 정보 공유와 미술 기량을 넓히기 위해 함께 실기 연습을 하다가 1962년 봄 충남공보관에서 《양창제 개인전》(1962. 3. 23~4. 3)이 열렸을 때 전시장에서 모여 모임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성 후 그해 가을 창립전을 개최한 죽미회 회원은 결성 전부터 야외스케치를 나가고 미술 실기대회에도 같이 다니면서 미술가의 꿈을 키웠던 친구 사이이다. 아쉽게도 창립전 이후 대학 진학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며 더 이상 전시를 열지 못했고, 당시 죽미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이영수(李寧秀, 1944~)는 이후 1964년 창립한 대전 시내 고등학생 연합 미술동아리인 미상록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즉 죽미회는 한 번의 전시 개최 이후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1950년대 후반의 이러한 소규모 그룹 활동은 지역 미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1960년

27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2012), p. 24.

대가 되면서 대규모 고등학생 연합 미술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진다

1964년 공주에서는 공주고등학교 미술부에서 출발한 일수회(一樹會)가 활약했고, 같은 시기 대전에서는 미상록(美相綠)이 만들어졌다. 먼저 공주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면, 공주에서는 1962년 가을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의 모임인 미우회(美友會)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미술교사인 진문섭(홍성교육장 역임)에게 지도받으며 체계적으로 단체를 조직해서 1962년 9월 첫 전시회를 열었다. 미우회 창립전은 공주고등학교와 공주문화원의 공동주최로 공주문화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미우회는 당시 공주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김관호(金琯鎬, 1945~)와 임동식(林東植, 1945~) 등이 주도했다. 미우회의 활동은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졌고 주말에는 이젤과 화판을 들고 야외로 나가 풍경화를 그렸다고 한다.²⁸ 미우회는 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공주의 대표적인 예술행사로서 지역 예술인의 성원을 받으며 활동을 지속했고, 전시를 거듭하면서 점차 공주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다.²⁹ 이에 따라 미우회는 공주고등학교·공주여자고등학교·공주사대부고·영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해 이들 학교 출신 대학생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으며, 1964년부터 ‘일수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활동했다. 이렇듯 공주에서는 미우회로부터 발전한 일수회가 공주문화원의 후원을 받으며 매년 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미술가의 꿈을 키우고 실력을 함께 다졌다.

이 무렵 대전에서도 공주의 일수회와 비슷한 성격의 고교 연합동아리인 미상록이 탄생했다. 대전문화원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결성한 미상록의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모임을 했고, 매월 두 번 사생대회를 열었다. 작품전은 매년 2회 개최했으며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전시를 열었고 그 수입금을 양로원에 기탁했다. 학생 미술단체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이어졌던 미상록은 39년 동안 고교씨클로 유지되다가 2003년 해체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후반부터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미술단체가 결성되면서 1960년대에는 이들 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들의 열정적인 단체 활동은 1960년대 말까지 충남 소재 대학에 미술 관련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특히 지역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고등학생 미술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미술가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공공기관까지 협력하며 형성된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 분위기 속에서, 이 시기 고등학생 미술단체에서 활동한 많은 작가는 이후 대전·충남 미술계를 이끈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1930년대 초부터 시작된 초기 충남의 미술단체는 그 중심에 작가 활동과 교직을 병행한 미술교사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자극받은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미술단체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기 주로 구상회화 부분에서 강세를 보인 충남 화단에서는 일부 작가들에 의해 서구의 다양한 양식을 수용하면서 조형적 실험을 도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충남화단을 주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일본이나 서울에서 미술

28 『공주고 100년사』(공주고100년사 편찬위원회, 2022), p. 300.

29 『임동식-동방소년 탐문기』(대전시립미술관, 2016), p. 70.



도3. 《청미회 창립전》(1972) 리플릿(출처: 대전시립미술관 디지털 전시자료)



도4. 《청미회 창립전》(1972) 전시장인 대전예총화랑의 당시 모습(출처: 대전시립미술관 디지털 전시자료)

대학을 다니며 전문적으로 미술을 수학한 작가를 중심으로 녹청회나 수요미술동인과 같은 단체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서양 미술 사조를 함께 탐구하고 학습하며 새로운 창작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III. 1970년대: 동문 미술단체와 지역 미술단체의 결성

1970년대 들어 충남 미술계에서는 1960년대에 비해 많은 수의 단체가 결성되었다. 게다가 1971년에는 《충남미술대전》이 창설되어 미술인들이 매년 근작을 선보이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에 미술 관련 학과가 속속 설치되면서 충남 내에서도 미술 분야 전공 교수들로부터 교육받은 미술인들이 양성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회화 분야에서 구상회화에 주력 하던 작가들이 대다수였던 분위기에서 탈피해,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발생해 다양한 미술운동을 펼쳤다. 특히 서울대학교·홍익대학교·서라벌예술대학 등 서울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충남 출신 작가들과 충남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수와 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던 미술가들이 충남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즉 이 시기에는 급격히 증가한 미술가들로 인해 여러 미술 분야에서 충남 최초의 단체가 결성되었고, 지역별로도 자체적인 미술가 모임이 생기는 등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다채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먼저 1970년 충남청년미술인회가 조직되었다. 충남청년미술인회의 창립 이유는 작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었는데, 충남미술협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정기전만 열었기 때문에 신진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회를 만든 것이다.³⁰ 충남청년미술인회는 1970년 6월 충남예총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는데, 창립전에 관한 평론이 실린 신문 기사를 보면 “나날이 침체되어 가는 충남미협이 고식적이고 고루한 마음가짐에 좀 더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의 활

30 조상영, 「서양화 최초 그룹 충남청년미술인회」, 『중도일보』(2011. 2. 22).



도5. 『그릴』 제2집(1981) 표지(출처: 입재광 작가 제공)

등을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다.³¹ 평론을 쓴 예산 출신의 신봉균(申鳳均, 1929~2000)은 서라벌예술대학을 졸업한 추상회화 작가로, 이 기사에서 밝혔듯이 당시 충남미술계에서는 충남청년미술인회를 통해 새로운 청년세대의 활약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의 전시 후 충남청년미술인회는 ‘청미회(靑美會)’로 이름을 바꾸고 재결성해 1972년 대전예총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다(도3).³² 개편된 후 열린 《청미회 창립전》 개막식 사진에서는 회화 작품이 벽에 걸린 전시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벽면에는 판넬이 덧대어져 있고 심지어 전시장 바닥은 흙바닥이다(도4). 이 시각 자료는 당시 대전예총화랑 전시장이 미술작품 전시를 열기에 부족한 장소임을 알려 주는데, 사진을 통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전시를 치른 청년 작가들의 열정과 당시 전시시설 상황을 엿볼 수 있다.³³

충남청년미술인회는 1970년대 청년 세대의 활약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이후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목원대학교·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등에서 미술을 전공한 작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으며, 대학의 미술 관련 학과에서는 전공별로 미술단체를 결성했다. 대표적인 단체로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출범한 서양화 전공의 ‘빌리잔’과 조각 전공의 ‘청조회’와 ‘충남조각회’가 있다. 송전대학교에서는 ‘송전미회’가 생겼고, 목원대학교에는 한국화 전공자들의 단체인 ‘목목회(牧默會)’가 창립되었다. 공주대학교에서도 회화전공 전체 동문 모임으로 ‘한길회’가 조직되었다. 이 시기 창설한 동문단체 중에서 회원 수가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한 몇몇 단체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부터 공주교육대학에서 조영동 교수가 지도했던 서양화 동아리 ‘빌리잔’은 1971년부터 교내 미술실에서 매년 전시를 열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출신 조영동은 이 학교에 미술교육과가 개설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작가이다. 조영동은 빌리잔을 통해 미술교육과 학생들에게 회화의 기초와 서양화 기법을 충실히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던 추상회화의 형식을 전파했다. 이후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조영동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1975년 그릴회를 조직해 동문전을 가진 것이 《그릴회전》으로 이어졌다.³⁴ 그릴회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회지인 『그릴』(총 6권)을 발간했으며, 연구세미나, 스케치 답사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도5).

서양화 동아리 빌리잔과 더불어 공주교육대학에서는 1971년 조각 동아리 청조회가 만

31 신봉균은 기대했던 바와 달리 기준 이하 작품이 허다하다고 평하고 있어 청년 작가들의 새로운 미술 경향에 관한 기성세대 작가들의 기대와 실망이 공존했음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봉균, 「충남청년미술대회: 창립전을 보고」, 『대전일보』(1970. 6. 24).

32 「청미회 창립전시회 대전예총화랑서」, 『조선일보』(1972. 6. 23).

33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2013), pp. 53~54.

34 그릴회 관련 자료는 다음 카페 ‘그릴회’ 참조. <http://cafe.daum.net/gleel>



도6. 《제1회 토형회조각전》(1977) 리플릿(출처: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들어졌다. 당시 공주교육대학교에는 1969년 부임한 서울대학교 조소과 출신 황교영(黃敎泳, 1939~1986) 교수가 있었다. 청조회는 황교영으로부터 지도받은 학생 6명을 주축으로 결성되었고 1982년까지 10여 년간 활동했다.³⁵ 황교영은 초기 구상 조각을 제작하다가 1960년대 이후 추상 조각을 추구한 작가로, 이에 영향을 받은 이 학생들은 그해에 창설된 《충남미술대전》에서 모두 수상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청조회에서 활동한 학생들은 졸업 후 1974년 충남 최초의 조각가 모임인 충남조각회를 결성해 활동을 이어갔으며, 초대회장은 보령 출신의 박명규(朴明圭, 1947~)가 맡았다.³⁶ 이후 충남의 여러 대학에 미술과가 신설되자 각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작가 중 다수가 충남조각회에 가입해 함께 활동했다. 조각계의 이러한 분위기는 토형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토형회는 1977년 대전·충남의 대학에서 수학한 조각 전공자들이 모여 작품 발표의 장을 넓히고자 결성한 단체이다(도6). 창립전을 1977년 대전 홍명미술관에서 열었으며, 당시 공주교육대학교·목원대학교·승전대학교 등 각 대학에서 강의하던 교수들을 대거 초청해 대규모 전시를 개최했다. 창립 당시 회장은 청주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승전대학교 미술과에 들어가 조각을 전공한 김지택이 맡았는데, 김지택은 《제1회 충북도전》에서 최고상인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김지택 외에도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다니던 정창훈과 목원대학교 재학 중에 입대해 군복무 중이던 한중환까지, 출신 대학을 가리지 않고 토형회에 참가했다. 이처럼 출신지와 학교를 막론하고 충남 전역 조각가들이 연합해 전시를 열었는데, 토형회는 사회적 환경과 창작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작가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1970년대 충남 조각계의 현실을 보여준다.³⁷ 이 토형회의 활동은 한 번의 전시로 끝났지만, 충남 조각가들이 하나로 결속한 미술단체로써 결성 의의가 크다.

회화와 조각 분야 작가들에 이어 1970년대 후반에는 실험미술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대학

35 청조회 초기 멤버는 강중식, 박명규, 정찬국, 유명숙, 김연숙, 이소자이다. 『충청남도지 24: 현대예술』(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p. 183.

36 「충남조각회 지역예술 발전 견인」, 『대전일보』(2010. 2. 21).

37 1970년대 후반에는 주변의 산에서 흙을 퍼 나르며 작품을 제작하던 시기로, 시멘트로 원형을 만들어 청동 느낌이 나도록 색을 칠하거나 석고나 나무들이 작품 재료로 주로 활용되었다. 토형회 전시에 참여한 박병화가 전시를 위해 누드 작품을 트럭에 싣고 전시장으로 가던 중 경찰서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전미술 둘-공예·조각』(대전시립미술관, 2009), p. 11.



도7. 《19751225 GROUP 창립전》 리플릿 속 지(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별로 결집했다. 가장 먼저 1975년 연말에 전초전을 연 송전대학교 재학생 모임인 19751225 그룹이 결성되었다. 19751215그룹은 1975년 12월 25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이중협(李鍾協, 1954~)과 정장직(鄭章植, 1952~)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선보인 ‘해프닝’을 시작으로, 결성한 미술단체이다. 이후 정길호(鄭佶浩, 1953~2022)가 합류해 1976년 5월 홍명미술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당시 송전대학교 4학년이었던 창립회원 세 사람은 사회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심한 시기 ‘미술운동을 흥미롭게 전개해보자’라는 슬로건으로 미술 실험을 구상했다. 그 일환으로 1976년 초에 이벤트(EVENT)라고 명명한 야외에서의 행위 미술을 2차례 치렀고, 그때 기록으로 남긴 사진을 창립전 리플릿에 소개했다(도7).

송전대학교에 학생들에 이어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에서 활동하던 작가 5명이 르뽀동인회를 결성했다. 르뽀는 ‘르포르타주(reportage)’의 준말로, ‘현지’ 또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르뽀동인회는 1976년 19751225그룹이 창립전을 열었을 때, 같은 달에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르뽀 창립전 회원은 당시 구상회화가 강제였던 충남 미술계에서 주변 사물(연필, 붓대, 풀, 색연필, 탁본)을 활용해 색다른 재료를 탐색하며 새로운 표현방식의 추상미술을 추구했다. 즉 이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배운 추상미술을 대전·충남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듯 1976년부터 19751225그룹과 르뽀동인회가 실험미술을 추구하는 미술단체로 대전에서 전위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2년 뒤 목원대학교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도 실험미술 그룹이 결성되었다. 1978년에 생긴 대전’78세대는 1955년 전후로 출생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출발했다.³⁸ 당시 목원대학교에는 다양한 조형 실험을 했던 ‘AG’의 회원 김한(金漢, 1938~2008)이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출강했고, ‘S.T 그룹’ 창립 멤버인 이건용(李健鏞, 1942~)이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현대미술 그룹에서 추구한 실험정신과 실천 성향이 대전·충남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이건용은 목원대학교 출강 시절 대전’78세대에 깊이 관여하며 본격적인 탈(脫)장르를 전파했다.

이렇듯 대전의 송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출신을 비롯해 서울에서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작가들까지, 1970년대 후반 충남에서는 탈 장르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폭넓게 펼쳐졌고, 이들은 미술 이론을 바탕으로 평면에서의 실험을 비롯해, 실내외 설치와 행위미술의 발전을 모색하며 새로운 창작 방식을 고민했다. 그리고 다른 그룹들과 연합하고 소통하며 대규모 연합전을 기획해 1982

38 대전’78세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 참조.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p. 78~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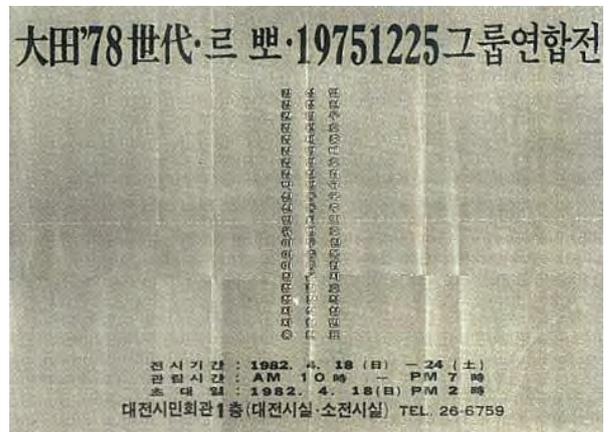
년 《르뽀동인회 · 19751225 · 대전'78세대 연합전》을 개최했다(도8).

1970년대 후반 실험미술 장르의 출현과 함께 충남미술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미술단체가 형성 ·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화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단체도 결성되었다. 청림회는 송전대학교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 졸업생을 주축으로 1978년 5월 창립한 단체이다. 당시 송전대학교에서는 1976년 부임한 서울대학교 출신 김세원(金世源, 1940~)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현재 충남 한국화 화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강구철 · 이재호 · 이계길 등이 청림회에서 활동한 작가인데, 이들은 창립전부터 참가한 작가들로, 이재호는 2018년 퇴임때 까지 한남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강구철과 이계길은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청림회가 창립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공주사범대학에서는 1978년 10월 회화전공 동문 전체가 참여한 한길회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후에 한길한국화회와 한길서양화회로 분리될 때까지 회화 전공자 모두가 같이 활동했다. 한길회 회원들은 대학 졸업 후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기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창작 의지를 이어갔다. 한길회는 창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82년 15개 지방 미술단체가 함께 한 《지방미술단체 연합전》(8. 28~9. 1)에 '르뽀동인회'와 같이 참여할 정도로 충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모임으로 성장했다.³⁹

청림회와 한길회에 이어 같은 해 12월 목원대학교 미술과의 동양화전공 작가들에 의해 목목회가 탄생했다. 1972년 목원대학교에 미술과가 개설된 후 동양화를 전공한 제1회 졸업생 복원규(卜元圭, 1953~), 허진권(許鎭權, 1955~)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것이다.⁴⁰ 당시 목원대학교에서는 홍익대학교 출신 조평휘(趙平暉, 1932~)가 한국화 전공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회원 대부분이 졸업 후 중 · 고등학교 미술 교육에 힘쓰면서 창작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복원규와 허진권은 목원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이들 외에도 목목회를 통해 충남 화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 작가가 많이 배출되었다.⁴¹

이 세 개의 한국화 분야 동문 단체들은 교내 전시 공간과 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창립전을 공주문화원이나 대전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공간에서 대규모로 치러진 다



도8. 《대전 78세대 · 르뽀 · 19751225그룹 연합전》(1982) 팸플릿 (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39 지방미술단체연합전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한 전시로, 1980년 구상 계열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열렸고 1982년에는 150점의 추상 계열작품을 선보였다. 15개의 단체가 참여한 이 전시에 충남에서는 르뽀동인회, 한길회가 대표로 참여했다.

40 처음에는 '목미회(牧美術)'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가 제2회 전시 때부터 목목회로 단체명을 개칭했다. 『제3회 목목회전』(대전문화원, 1980).

41 『전시』, 『중도일보』(1995. 7. 27).



도9. 창립 20주년기념 《놀이미술회 회원전》(1992) 도록 표지 및 박춘화의 출품작

양한 동문전을 지켜보며 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들은 다른 대학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신진 작가들은 다른 학교 작품 경향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조형 기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작품 제작방식을 탐구했으리라 여겨진다. 더욱이 각 동문 단체 창립회원 중에는 각각 자신이 졸업한 학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이 이후 이 단체들을 지속해서 이끌었다.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에는 대학마다 전공별로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주로 실험미술·조각·회화 분야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분야 뿐만 아니라 서예와 디자인 분야에서도 새로운 단체가 조직되었다. 1974년 대전에서 충남서예가협회가 창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1979년에는 충남디자인협회가 생기면서 공예·시각·제품 디자인 분야 작가들을 결집해 현재까지 '대전의 숨결전'이라는 전시명으로 매년 정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 게다가 1979년 10월 한국미협 대전지부 소속 작가 중에서 구상회화를 추구하던 작가들이 모여 '이신회(以新會)'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신회는 현재 사용하는 대전구상작가회로 명칭을 변경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전·충남 구상작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지금까지 분야별로 살펴본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충남의 여러 시·군에서 미술단체가 생겼다. 각지에서 생긴 미술단체는 대체로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미술교사로 발령받아 지역에 정착한 작가들이 뜻을 모아 결성된 경우가 많다. 1972년 논산에서 결성된 놀피미술회에 이어, 1976년에는 한 해에 나란히 부여·서산·천안에서 미술단체가 탄생했다(표3).

[표3] 1970년대 대전·공주 외 지역에서 창립한 충남 주요 미술단체 현황

연번	창립연도	단체명	창립전	창립전 장소	창립전 시기
1	1972	놀이미술회	놀이미술회 창립전	논산 궁전예식장	11.3~11.8
2	1976	아사달회	제1회 향토미전	부여문화원	11.6~11.13
3	1976	서미회	서미회 창립전	서산 향원다실	12.22~12.30
4	1976	한국미협 천안지부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전	천안백궁다방	12.24~12.30

놀이미술회는 서양화가 박춘화를 중심으로 창립된 논산 최초의 미술단체로써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도9). 박춘화는 독학으로 그림을 익힌 작가로, 놀피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이 단체를 이끌었다. 놀피미술회의 창립 초기인 1970~80년대에는 논산의 다방이나 읍사무소, 군민회관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⁴²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놀피미술회 회원들은 논산에서 열리는 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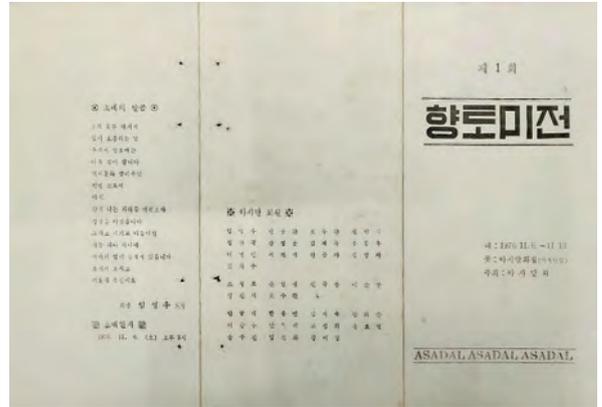
대회 지원에 힘썼고 전시 공간의 부족을 알려 논산에 전시 공간이 확대되는데 이바지했다.

부여의 아사달회는 공주교육대학교 출신 서양화가 임영우와 한남대학교 출신 조각가 정찬국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1976년 11월 부여문화원에서 《제1회 향토미전》을 열면서 창립을 알렸다(도10).⁴³ 부여에서는 임영우가 회장을 맡은 부여군 미술교사회가 1975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

었지만, 아사달회는 미술교사회에 이어 교사 외에 여러 직업의 작가가 함께하는 단체를 만든 것이다. 아사달회는 백제문화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설화에 등장하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의 이름을 단체명으로 선택했고, 부여문화원의 안에 아사달화실을 마련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창립전에는 공주교육대학에서 임영우를 지도한 조영동 교수가 찬조 출품했다. 이후 아사달회를 통해 성장한 청년 작가들이 1980년 아사달 청년회를 조직해 활동할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었으며, 아사달회는 부여 미술 문화를 주도한 단체로써 부여의 대표적인 예술문화 축제인 백제문화제를 주관했다. 아사달회는 아쉽게도 1990년 전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이후 1987년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의 토대가 되었다.

1976년 서산에서는 부여의 아사달회가 창립한 때와 비슷한 시기 서미회를 결성했고, 12월 서산 향원다실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 당시 회장을 맡은 한국화가 최기성(崔基成, 1954~)은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강신철(姜信哲, 1935~1993)과 정승섭(鄭承燮, 1941~)에게 지도 받았다. 초기에는 서산 내 미술교사를 주축으로 활동했으나 차츰 서산에서 활동한 작가뿐만 아니라 출향작가까지 포함한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1984년에 열렸던 《제8회 서미회전》 도록을 보면 고향 서산의 풍경을 극사실화로 화폭에 담아낸 작가 이종구(李鍾九, 1954~)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서미회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도11, 11-1). 서미회와 더불어 1981년 서산에서 또 하나의 미술단체인 화촌회가 창립하게 되는데, 1986년 서미회는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를 화촌회와 한국미협 서산지부와 연합전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와 출향작가까지 아우르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미회는 서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미술단체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처럼 논산·부여·서산에서는 한국미협에 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며 지역 미술계를 주도했다. 반면 천안에서는 처음부터 한국미협 소속 단체로 규합했다. 1970년대 천안에서는 서라벌예술대학 출신으로 국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서양화가 신양섭(申養燮, 1942~)



도10. 아사달회 창립전으로 열린 《제1회 향토미전》 리플릿(출처: 정찬국 작가 제공)

42 『창립 20주년 놀뫼미술회 회원전』(놀뫼미술회, 1992).

43 부여 아사달회, 아사달청년회와 관련한 창립전 자료 및 각종 자료는 정찬국 작가가 제공해 주셨다. 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



도11. 《제8회 서미회전》(1984) 도록에 실린 이종구의 출품작 이미지



도11-1. 이종구, 《연혁-아버지》, 1984, 부대종이에 아크릴·콜라주, 85x110cm(출처: 아르크예술기록원 홈페이지)

이 활동하고 있었다. 신앙섭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미협 충남지부 부회장을 역임했는데, 신앙섭의 서라벌예술대학 후배인 김영천(金榮天, 1948~2012)이 1970년 졸업 후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해 한국미협 천안지부를 발족했다. 1976년 6월 천안문화원에 모여 창립총회를 연 한국미협 천안지부는 한국미협 소속 단체로써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창립한 단체로,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충남미술계에서는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전개된 미술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풍성한 행사와 전시가 이루어졌다. 충남의 각 대학에서는 서울에서 교수와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을 지도했고, 충남 출생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작가들이 충남의 각 대학에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충남의 대학에서 배출한 작가들이 조각·실험미술·회화·디자인 분야 등에서 동문 미술단체를 여러 개 결성하면서 다채로운 미술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대학에서의 미술교육과 활동은 지역예술의 발전과 직결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IV. 1980년대: 분야별·지역별 미술단체 증가의 가속화

1980년대 충남 미술단체 수는 1970년대에 비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 이 시기 충남미술계는 그야말로 미술단체 결성과 활동의 전성기였다. 1980년대에는 충남 소재 미술대학에서 대학별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그래픽디자인·도예·섬유·공예·판화·수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가 창설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충남에서 시도된 실험미술 분야 작가들의 활동 또한 1980년대 들어 더욱 풍성하게 전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반 자연미술을 추구하는 단체인 야투(野投, Yatoo)가 공주 일대에서 탄생해 이 분야 주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1980년대에 전개된 충남 미술단체의 수가 이전 시기보다 상당히 많아진 만큼, 이 장에서는 각

분야와 지역별로 구분해 미술단체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80년대 창립한 미술단체의 분야별 전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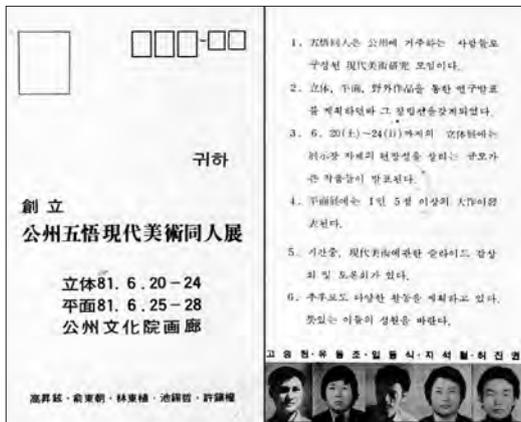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 시책으로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1982년 문화공보부에서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종합문화회관 건립, 중앙예술단체의 지방 순회 활동, 지방 문화 재보존 사업, 문예 진흥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⁴⁴ 이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정책을 추진해 국가 전체의 문화 의식을 고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문예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1980년대 초부터 지방 문예활동에 관한 정책과 문화계 예산이 증가했고, 미술단체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데다가 1980년대에 충남 미술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전공이 세분화하면서 분화된 전공별로 미술단체를 결성하는 움직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표 4). 특히 1980년대 초반 목원대학교에서는 그래픽디자인·섬유·도예 전공 모임을 만들어 대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영역을 확장했다.

[표4] 1980년대 창립한 충남 주요 동문 미술단체

연번	창립연도	단체명	학교	창립전 장소	창립전 시기
1	1980	뽕그래픽	목원대학교	대전시민회관	9.24~9.27
2	1980	송전조각회	송전대학교	대전시민회관	10월
3	1981	드름염색회	목원대학교	대전시민회관	5.1~5.6
4	1982	미로회	배재대학교	대전문화원	3월
5	1982	도원회	목원대학교	대전동양백화점 화랑	10.18~10.24
6	1982	목원조각회	목원대학교	대전시민회관	12.23~12.27
7	1984	벽·바닥 그리고 의식	공주사범대학	대전시민회관	2.25~2.29
8	1985	충남조각연구회	충남대학교	대전시민회관	4.14~4.20
9	1985	터Group	한남대학교	대전시민회관	3.22~3.28
10	1987	늘갈회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
11	1988	금강조각회	공주사범대학	공주문화원	1.19~1.22
12	1988	목가와신조형체	충남대학교	대전 MBC문화공간	5.11~5.16
13	1988	다시각	목원대학교	대전시민회관	6.2~6.6
14	1988	배연회	배재대학교	대전 쌍인미술관	10.21~10.27
15	1988	아귀-토(土) 조각회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	11.6~11.19
16	1989	목원한국화회	목원대학교	대전 현대화랑	9.8~9.13
17	1989	MOVE	충남대학교	대전 MBC문화공간	5.15~5.19

44 「지역간 문화격차 없앤다」, 『동아일보』(1982. 2. 17).



도12. 《창립 오오현대미술동인전》(1981) 홍보 엽서
(출처: 허진권 작가 제공)

목원대학교에서는 1980년 시각디자인 전공자 모임으로 ‘뽕그래픽’이 생겼고, 다음 해에는 대전·충남 최초의 섬유예술 단체인 ‘드름염색회’가 탄생했다.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도자공예 전공 재학생들은 1982년 ‘도원회’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목원조각회도 같은 해에 결성되었다. 송전대학교에서는 1980년 ‘송전조각회’를 만들었고, 1982년 회화를 전공한 학생들이 ‘미로회’를 결성했다.

이렇듯 1980년대 초 동문 미술단체의 활발한 결성과 함께, 1980년대 충남 미술단체의 전개에 있어서 큰 흐름 중 하나는 자연미술과 실험미술 등 새로운 미술 형식에 도전하던 작가들이 모여 금강현대미술제(1980)와 야투(1981) 등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충남에서 탈평면화를 추구하면서 야외 현장 미술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거기에 더해 오오현대미술동인(悟五現代美術同人, 1981), 대전실험작가회(1984), 벽·바닥, 그리고 의식(1984) 등 실험적 경향의 단체가 계속 탄생하면서 충남의 실험미술 분야는 다채로우면서도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미술 형식에 도전한 단체 중에서 1980년대 들어 가장 먼저 문을 연 단체는 금강현대미술제이다. 금강현대미술제는 1980년 11월, 20~30대 작가들이 6박 7일간 공주 금강 백사장에서 개최한 미술 행사이자 단체명이다. 이들은 공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금강’이라는 지명을 이용해 ‘금강현대미술제’라는 명칭을 채택했고, 작가들은 야외에서의 현장 작업을 통해 예술 언어의 확장을 모색했다. 또 실내(작업장)를 벗어나 자연에서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창작 방식을 고민했다.⁴⁵ 《금강현대미술제》는 2회의 전시를 끝으로 ‘야투(野投)’라는 명칭으로 전환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로 거듭났다.

야투의 결성에 앞서 ‘오오현대미술동인’이라는 소규모 모임이 결성되었다. 오오현대미술동인은 1981년 6월 20일 공주에 거주하던 5명의 작가가 모여 창립한 단체로, 《제2회 금강현대미술제》가 폐막하고 80여 일 후에 공주문화원에서 《창립 공주오오현대미술동인전》을 개최했다(도12). 임동식을 중심으로 지식철, 유동조, 고승현, 허진권이 수시로 만나 예술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금강현대미술제》를 먼저 개최한 후, 다음 해에 《창립 오오현대미술동인전》을 열었던 것이다. 창립전에서는 입체·평면·야외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과 작업을 선보였고 전시 기간 중 현대미술에 관한 슬라이드 감상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⁴⁶ 창립 때 입체전과 평면전으로

45 김영호, 「금강현대미술제의 의의와 역할 고찰: 1980 금강현대미술제에 관한 소고」,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149.

46 ‘오오’라는 용어는 다섯 명이 모였기 때문에, 한자 다섯 ‘五’에다가 깨닫는다는 뜻의 한자 ‘뽕’을 합해 ‘다섯 명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창립 공주오오현대미술동인전》 당시 전시 홍보물로 제작된 엽서 참조. 오오현대미술동인에 관한 자료는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허진권 선

나누어 전시를 열었는데, 평면전에는 1인당 5점 이상의 대작을 출품했다. 오오현대미술동인은 1980년대 초 충남에서 실험미술을 추구한 작가들이 혁신적인 생각으로 뭉쳤고 금강현대미술제를 개최한 후, 오오현대미술동인을 거쳐 야투를 결성한 다음, 이후 야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오오현대미술동인이 창립전을 가진 뒤,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야투가 탄생했다. 야투는 1981년 8월 공주와 금강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던 젊은 미술가 20여 명이 모여 야외미술 연구 모임으로 출발했다.⁴⁷ 처음에는 ‘야외현장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83년 1월 제7회 사계절연구회에서 ‘자연미술(Nature Art)’이란 용어의 사용이 제기되었고, 이후 토론과 논쟁을 거쳐 1986년부터 ‘자연미술’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⁴⁸ 야투는 충남에서 출발해 한국 자연미술 분야의 시작을 알린 단체이며, 자연미술에 관심을 둔 작가들이 야투를 통해 결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4년 1월 1일 창립한 대전실험작가회는 회원 대부분은 대전’78세대와 금강현대미술제, 야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 장르, 평면에서의 방법적 실험, 실내외에서의 설치, 몸을 통한 행위 등을 총체적으로 조합하는 실험미술을 추구했다. 대전실험작가회는 학연과 지연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참신하고 신선한 미술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1986년 해체되었다.⁴⁹ 대전실험작가회가 창립한 1984년에는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도 ‘벽·바닥 그리고 의식’이라는 실험미술을 추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1983년 세라비가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의 회화 단체로써 활동하고 있었으나 주로 평면 회화를 제작했던 것에 비해, ‘벽·바닥, 그리고 의식’은 평면 회화에서 탈피한 실험적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⁵⁰

연이어 1985년에는 한남대학교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터Group(터회)이 만들어졌다. 터Group은 공모전 입상을 위한 전형적인 활동과 선배나 교수들의 작업을 따라가는 풍토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 결성했다.⁵¹ 이 그룹도 실내 전시 외에 야투와 바깥미술회와의 연합전에도 참여하며 야외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터Group은 1988년 《제3회 정기전》부터 목원대학교·배재대학교·충남대학교 등 충남의 각 대학교 졸업생들과 연합해, 새로운 창작 방법론을 모색하며 1997년까지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해체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 중반부터 실험미술 그룹이 발생한 충남에서는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며 참신한 미술 형식과 실험적인 창작 정신을 추구하는 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한국 미술계에서는 미술가와 평론가들이 서서히 작품의 내용에서는 정신적인 것, 형식적으로는 평면 위주의 작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단색화단이 모더니즘 미술의 주류

생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47 『창립 野投』(야외현장미술연구회, 1980).

48 전혜숙, 「'바깥미술회'와 '야투' 그룹의 자연 미술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특성」, 『미술사학보』 51(미술사학연구회, 2018), p. 301.

49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171.

50 『한국 미술단체 자료집』(김달진미술연구소, 2013), p. 89.

51 위의 책, p. 194.



도13. 《창립 충남한국화협회전》(1983) 도록 표지 및 정명희·조평희의 작품작(출처: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를 담당하게 되었다.⁵² 이에 더해 1980년대 민중미술이 부상하고 화단이 모더니즘 진영과 현실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자, 실험미술은 작품이 서구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국성이 부족하고 현실 인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난해함으로 인해 대중에게 외면받은 미술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충남 미술계에서도 198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열던 실험미술 단체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를 거치며 점차 활동이 줄어들었다.

조각 분야에서는 1980년대 초 충남의 각 대학에서 조각회가 만들어졌다. 1980년 송전조각회(현 한밭조각회)가 1970년대에 창설한 공주교육대학교의 충남조각회에 이어 충남의 조각 분야에서 두 번째로 대학동문 조각가 단체로 결성되었다. 이후 1982년 목원대학교의 목원조각회, 1986년 충남대학교의 충남조각연구회, 1988년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의 금강조각회가 모두 1980년대에 각 대학의 동문 모임으로 탄생했다. 이 시기에 결성한 조각 분야 동문 단체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작품 창작과 전시의 장을 제공했는데, 이 단체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중에서 송전조각회, 금강조각회는 동문 모임에서 한 발 나아가 본 대학 출신 작가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는 대학별로 활동하던 작가들이 결집해 대전조각가협회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한국화 분야에서는 1983년 충남한국화협회가 발족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 전체가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도13). 충남한국화협회는 조평희와 정명희(鄭冀熙, 1945~)를 중심으로 충남에서 활동하던 한국화 분야 작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1986년부터 충남구상작가회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금강전》을 기획해 대규모 연합전을 열었다.⁵³ 그해 말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술세계사와 경인미술관 기획 초대전인 《충남작가전》에도 참여했다. 충남한국화협회는 1989년 행정구역상으로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전한국화회가 발족해 두 단체로 분리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 대학에서는 한국화 전공 작가가 다수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공

52 조수진, 「전위의 실험에서 실험미술로: 대안적 한국 모더니즘의 역사」,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국립현대미술관, 2023), pp. 26~27.

53 충남구상작가회는 1979년 창립한 구상회화 단체인 '이신회'에서 1984년 단체명을 바꾸어 활동했고 1989년 '대전구상작가회'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주교육대학교 늘갈회(1987), 충남대학교 목가와신조형체(1988), 배재대학교 배연회(1988),⁵⁴ 목원대학교 목원한국화회(1989) 등이 창설되어 대부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특히 목가와신조형체는 1982년 충남대학교에 미술학과가 개설된 후 ‘충남한국화연구회’를 결성했던 것이 동문전으로 이어진 것인데, 《한국화 청년세대전》, 《'90 한국화



도14. 《충남관화협회 창립전》(1984) 도록 표지 및 정장직의 작품작(출처: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새흐름전》, 《'91 한국화 신조명전》 등의 전시명으로 해마다 전시를 개최하다가 1995년 제5회 전시부터 ‘목가와신조형체’라는 단체명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이 단체명으로 전시를 열고 있다.

서양화 분야에서는 추상미술을 추구한 작가들의 결집체인 OPUS를 결성했다. 이 OPUS는 1986년 충남에서 활동하던 20~40대 작가들이 출신 학교나 연고 등으로부터의 결속을 떠나서 작가의 개성과 미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통해 예술적 교감을 나누고자 만들어졌다. OPUS는 관행처럼 따지던 지연과 학연을 벗어나 순수하게 그룹을 운영하고 추상미술의 진보를 추구하자는 취지로 활동했다. 단체명인 OPUS는 ‘제작, 저작, 작품’이라는 뜻의 음악 용어를 차용했는데, 이 명칭은 창립 회원인 지치우(池治宇, 1943~)가 발의했다. 구성원 대부분 평면 추상회화를 주로 창작했으나, 문정규(文正圭, 1956~)는 퍼포먼스와 설치, 행위 등의 작품 경향을 선보였다.

관화 분야에서는 1984년 충남 최초의 관화가 단체이면서 대전·충남의 전체 관화가를 아우르는 모임을 결성했다. 그때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던 관화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의 단체로 결집해 충남관화협회를 창설했다(도14).⁵⁵ 충남관화협회는 대전에서 6명의 작가(유병호·정장직, 정길호·홍용선·김진·백철)가 모여 1984년 6월 반도화랑에서 창립전을 열었다.⁵⁶ 충남관화협회는 대전·충남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관화가 단체로, 정기전 개최를 비롯해 다른 지역 관화가들과의 교류전을 이어가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85년 창립한 충남수채화협회는 미술 장르의 하나로써 수채화의 위상을 높이고 수채화 장르의 발전을 위해 결성되었다. 충남수채화협회는 1989년 대전수채화협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정기전과 야외스케치 행사를 통해 다양한 기법을 탐구하며 회원 간 교류에 힘썼다.⁵⁷ 이처럼 1980년

⁵⁴ 배연회는 1982년 배재대학교 회화 전공생들이 만든 ‘미로회’에서 서양화와 한국화 분야가 분리하면서 1988년 시작된 단체이다.

⁵⁵ 충남관화협회는 1989년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었을 때 ‘대전관화협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을 지속했고, 이후 ‘대전관화가협회’로 다시 이름을 변경했다.

⁵⁶ 『충남관화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 1984).

⁵⁷ 현재 충남수채화협회는 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창립한 천안수채화협회가 1993년 제4회 전시부터 충남수채화협회로 명칭을 변

대에는 관화나 수채화 등 기존에 생성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의 미술단체도 생겨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열렸고 작가에게는 창작의 무대가, 일반인에게는 폭넓은 문화 예술 향유의 공간과 기회가 제공되었다.

2. 1980년대 창립한 미술단체의 지역별 전개 양상

논산·부여·서산·천안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역별로 작가들이 뜻을 모아 결속한 미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1980년대 들어서자 금산·당진·아산 등 그동안 지역의 미술인이 결집할 만한 단체가 없던 곳에서도 미술단체가 생겨났다. 게다가 서산과 천안에서는 기존의 단체 외에 또 다른 미술단체가 결성되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아산의 아미회(1980), 부여의 아사달 청년회(1980), 금산의 금동인회(1981), 서산의 화촌회(1981), 당진의 학동인회(1982), 천안의 천안미술인회(1988) 등이 1980년대에 조직되어 지역마다 특색있는 미술 활동을 전개했다(표5).

[표5] 1980년대 충남 각 지역 주요 미술단체 창립 현황(한국미협 소속 지부 제외)

연번	연도	단체명	지역	창립전	창립전 장소	창립전 시기
1	1980	온양미술동호회	온양	향10인전	장소 미상	4월
2	1980	아사달 청년회	부여	제1회 아사달 청년회전	공화당사무실	8.15~8.20
3	1980	아미회	온양	제1회 아미전	온양신협	11.26~12.1
4	1981	금동인회	금산	금동인회 창립전	장소 미상	5월
5	1981	화촌회	서산	화촌회 창립전(1982)	서산문화원	5.29~6.5
6	1982	학동인회	당진	학동인 창립전	당진/ 합덕	11.1~11.6/ 11.8~11.14
7	1988	천안한국화회	천안	제1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10.19~10.25
8	1988	천안미술인회	천안	천안미술인회 창립전	천안시민회관	9.12~?

1980년에 이르러 아산에서는 두 개의 미술단체가 조직되었다. 하나는 온양고 출신 작가들이 모여 1월에 창립한 온양미술동호회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중심으로 조직된 아미회(아산군 미술교사회)이다. 온양미술동호회는 창립 후 4월에 《향10인전》을 개최했다.⁵⁸ 아미회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온양신협에서 《제1회 아미전》(11.26~12.1)을 열었으며, 이들의 활동은 1987년 한국미협 소속 아산지부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금산에서는 1981년 금산고등학교 미술반 출신 작가들이 모여 금동인회를 만들었다.⁵⁹ 금동

경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수채화협회는 1985년, 충남수채화협회는 1990년을 창립 연도로 설정해서 정기전 회차를 정리하고 있다.

58 『충남미술사』(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1995), pp. 263~264.

59 「제44회 금동인전, 제31회 금묵서화전 개최」, 『금산소식』(2018. 11. 23).

인회에는 여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금산에서 거주하던 작가들이 참여했다. 1988년부터 금동인회는 금산문화원 소속 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했고, 2002년 한국미협 금산지부가 발족하기 전까지 금산 작가들의 유일한 단체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산의 대표 미술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산문화예술제를 주도하고 있다.

1981년에는 서산에서도 ‘그림 그리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화촌회를 조직했다. 화촌회는 1981년 12월 24일 서산의 커피숍(숲속의 빈터)에 모여 결성한 단체로, 1982년 5월 서산문화원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⁶⁰ 화촌회는 창립 당시 회화 분야 작가만 참여했는데, 미술교사가 많이 참여한 만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자”라는 목적을 내세우며 결성되었다.⁶¹ 창립한 해 12월 두 번째 전시를 열었고, 이후 해마다 정기전을 개최했다. 미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작가가 참여해 매월 사생회를 가지기도 했다. 화촌회는 1976년 창립한 서미회와 더불어, 1983년에 이르러 한국미협 서산지부가 창립하기 이전부터 서산의 주요 단체로써 한국미협 서산지부 창립의 원동력이 된 미술단체이다.⁶²

당진에서는 1982년 당진 지역 최초의 미술단체인 학동인회가 창립되었다. 학동인회에는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당진에서 거주하던 작가가 대부분 참여했다. 주로 초·중·고 미술 교사들과 화실을 경영하는 작가가 많았는데, 매년 정기전과 학생미술 실기대회를 열며 지역의 미술 문화발전에 이바지했다.⁶³ 창립전은 당진과 합덕 두 곳에서 순회전시로 열렸으며,⁶⁴ 1990년부터 정기전을 상록문화제 기간에 개최해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참여하다가 2016년부터 별도의 기간에 정기전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미협 소속 지부로써 충남에서는 1962년 충남지부와 1976년 천안지부가 창설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5개의 지부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공주·서산·온양·아산·논산·부여에서 한국미협 소속 지부가 발족하며 작가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표6).

1980년대에 들어 한국미협에 소속된 지부는 공주에서 먼저 생겼다. 한국미협 공주지부는 1981년 9월 22일 한국미협 인준을 받아 출범했다.⁶⁵ 공주에서는 공주사범대학과 공주교육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1970년대부터 동문별로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었지만, 공주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한 지역 작가들이 모여 한국미협 소속으로 미술단체를 창설한 것이다. 초대 지부장은 공주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1962년 공주교육대학교에 부임한 안종호(安鐘祐, 1926~1986) 교수가 맡았고, 창립하자마자 《제27회 백제문화제 기념 한국미술협

60 「우리교장 문화예술인을 만나다 한국미협 한동철 서산시지부장」, 『서산시대』(2015. 7. 10).

61 「항맥-고장문화의 현장을 찾아: 서산」, 『경향신문』(1982. 12. 18).

62 「제41회 화촌전, 서산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려」, 『서산시대』(2020. 5. 12).

6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9662&cid=60111&categoryId=60136>

64 『학동인전 창립 10주년 기념전』(학동인회, 1992).

65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www.grandculture.net/gongju/toc/GC01701760?search=G1/2>

[표6] 1980년대까지 출범한 한국미협 충남지역 지회·지부의 창립전 정보

연번	창립연도	지회지부명	창립전	창립전 장소	창립전 시기
1	1962	충청남도지회	5·16혁명 기념 미전	대전방송국내 충남공보관	5.16~5.22
2	1976	천안지부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전	천안 백궁다방	12.24~12.30
3	1981	공주지부	한국미협 공주지부 창립전	공주문화원	10.18~10.25
4	1983	서산지부	한국미협 서산지부 창립전	서산문화원	9.3~9.7
5	1987	온양 지부 (현 아산지부)	한국미협 온양지부 창립전	온양 프라자쇼핑	5.4~5.10
6	1988	부여지부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전	부여군민회관(부여)/ 논산박산부인과(논산)	5.7~5.21
7	1988	논산지부	한국미협 논산지부 창립전(1989)	논산 태림상가	12.17~12.22



도 15. 1985년 공주문화원에서 열린 《제5회 한국미협 공주지부전》 전시장 모습(출처: 『공주문화원오십년사』, 공주문화원, 2005)

회 공주지부 창립전》을 공주문화원에서 개최했다. 1985년 개최된 《제5회 한국미협 공주지부전》 전시장 모습을 보면, 한국화·서양화·도예·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실에 함께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도15). 한국미협 공주지부에서는 분야별로도 따로 정기전을 개최해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했으며,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실기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이 예술적 기량을 높이고 재능을 계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⁶⁶

공주지부 다음으로, 서산에서는 1983년 7월 16일 서산·태안·당진·홍성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서산에 모여 한국미협 서산지부를 발족했다.⁶⁷ 창립 당시 지부장은 서산에서 마방화랑을 운영하던 정칠곡이 맡았으며 창립전은 그해 9월 서산문화원에서 열렸다. 창립 이후 시민들의 미술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했고, 지역교류 및 미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1988년 한국미협 공주지부와 연합해 《서산미술관개관기념 초대전》을 열었고, 각종 지역 미술 행사와 다양한 전국 단위 미술 행사에 참여하며 서산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온양, 논산, 부여 순으로 한국미협의 인준을 받아 미술단체를 정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온양지부 창립전부터 온양과 아산에서는 1980년 온양미술동호인과 아미회가 있었고, 한국미협 소속 지부가 생기기 전의 이러한 미술가들의 활동이 온양과 아산 일대에서 전개되면서, 1987년 한국미협 소속 온양지부(현 아산지부)의 창립으로 이어졌다.⁶⁸ 한

66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연구 최종보고서』(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2023), p. 40.

67 한국예총 서산지회 홈페이지 참조. <https://blog.naver.com/as6671305/222774347148>

68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미협 온양지부였고, 1989년 온양·아산지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미협 인준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5월에 창립전을 열었고, 10월에 바로 제2회 전시를 개최했다. 창립 다음 해부터 봄에는 온양에서 활동한 중견작가를 중심으로 《향토작가초대전》을 열고 가을에는 전체 회원이 모두 참여한 정기전을 개최했다.

한국미협 논산지부는 1988년 1월 창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그해 연말 창립전을 열었다.⁶⁹ 1988년 2월 7일 서라벌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논산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서양화 작가 김회직(金會直, 1944~)이 초대 지부장으로 취임했으며, 10월 13일 한국미협으로부터 정식으로 지부 인준을 받았다. 이후 1988년 12월 논산 태림상가에서 창립전을 열었는데, 이후 1989년과 1990년에는 한국미협 공주지부와 연합전을 열기도 했다.

이 해에는 한국미협 부여지부도 창립했는데, 부여지부는 1988년 5월 부여와 논산 두 곳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부여지부 창립 당시 지부장은 조각가 정찬국이 맡았다. 1990년에 열린 《제3회 회원전》은 ‘백제문화제 기념초대전’의 일환으로 부여군청에서 열렸는데, 1976년부터 부여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술단체인 아사달회와 연합해 《제11회 향토미전》으로 개최했다.⁷⁰ 특히 부여에서는 한국미협 부여지부가 출범하기 전인 1975년부터 부여군미술교사회가 조직되어 미술교사 중심으로 회원전과 향토미전 등이 열리고 있었고, 한국미협 부여지부가 출범하면서 지부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결집했다.

천안에서는 1988년 천안미술인회(천안미술작가회)가 탄생했다. 1988년 5월 11명의 천안 출신 작가가 모여 발기인 총회를 열었고 조각가 민종식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 창립을 선언했다. 창립 당시 단체명은 ‘천안미술인회’였으나 1989년 8월 ‘천안미술작가회’로 개칭했다.⁷¹ 매년 정기전 및 특별기획전, 미술대회 등을 개최했고, 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천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해외작가들과도 교류하며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했다.⁷²

이처럼 1980년대 들어 충남 곳곳에서 설립된 한국미협 소속 지부는 지역별로 작가들이 모여 지역 미술 축제를 주도하며 작가 간 교류와 소통을 유지하고 정기전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즉 각 지역마다 설립된 한국미협 소속 지부의 정기전은 지역 작가들로 하여금 창작 욕구를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으며,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다른 지역 단체와 교류하는 등 각 지역 미술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통합시의 명칭이 아산시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단체명인 한국미협 아산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충남미술사』(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1995), p. 262.

69 디지털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참조. <http://www.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2466?search=G1/1>

70 아사달회는 1976년 4월 19일 창립한 단체로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 이전부터 부여의 미술인 모임으로 결정되었고 창립 당시 회장은 임영우가 맡았다. 『충남미술사』(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1995), p. 287.

71 『제5회 천안미술작가회전』(천안미술작가회, 1992).

72 천안미술인회는 2008년 9월 제21회 전시를 부산광역시 영도 해양 문화공간에서 개최하기도 했고,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천안 미술의 위상 제고에 힘썼다. 하지만 2012년 제25회 전시까지만 천안미술작가회의 전시 이력이 확인되며,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었다.

V. 맺음말

이 논고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 생성된 충남 미술단체의 창립 목적과 활동 내용을 시대순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그 결과 충남 미술단체가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전개 양상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충남의 대학에 미술 관련 학과가 생기기 전과 후 미술 단체의 전개 양상이 뚜렷하게 다르다.

근대기 충남에는 일찍부터 미술가에 관한 관심과 서화를 즐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1920~30년대 서화 애호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1931년 공주에서 '공주회화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1945년 광복 직후에는 박성섭, 이동훈 등이 의기투합해 '충남미술협회'를 만들면서 이를 중심으로 미술가들이 결집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청년 세대 작가 혹은 학생들이 결성한 '녹청회', '루-불 미술동인', '수요동인회', '청포도회' 등이 탄생했다. 비록 활동 기간이 길지 않지만, 이 단체들을 통해 충남 미술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많은 미술가들의 초기 활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1962년 '한국미협 충남지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대부분이 이 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충남 미술계의 구심점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한국미협 충남지부, 대전문화원, 공주문화원 등의 기관이 학생 미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고등학생 미술단체인 '죽미회', '미우회', '미상록' 등이 결성되었다. 특히 이 단체 출신 작가 중에서 상당수가 이후 충남 미술계의 중심에서 활약한 작가로 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1970년대 이전에는 한국미협 충남지부를 제외하면, 소규모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대부분의 단체가 활동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나 1969년 공주교육대학교에 미술교육학과가 생기고, 1970년대 초반 충남에 있는 대학에 미술 관련 학과의 창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결성한 미술단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서울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작가들이 미술교사, 대학교수로 충남 각 지역에 부임했고, 충남 내에서도 미술을 전공한 작가들이 대거 배출되어 미술단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각·회화·실협미술 등의 분야는 대학별로 단체가 결성되면서 장르별 저변이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 창설한 대학동문 미술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충남의 각 시·군으로 발령을 받은 미술교사들은 그 지역 미술가들과 결집해 미술단체를 조직했으며, 그중 많은 단체는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충남지역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생긴 미술단체 수의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공예·디자인·판화·수채화·자연미술 등의 분야에서 충남 최초의 단체가 속속 설립되었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미술문화를 향유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대학교가 있는 대전과 공주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작가들이 결속해 미술단체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소속 지부가 여러 곳에서 출범함으로써 지역 축제와 연계한 미술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부터 충남에서는 수많은 미술단체가 결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들과 대학의 교수·강사들은 미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충남미술사에서 미술 교육계에 종사한 작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70년대에 창립한 서산의 '서미회'와 부여의 '아사달회'를 비롯해서, 1980년대에 생긴 금산 '금동인회', 당진 '학동인회', 서산 '화촌회' 등은 부족한 전시 시설과 작업 여건에서도 교사들의 주도로 창립해, 이후 꾸준히 단체를 유지하며 지역 미술의 발전을 견인했다. 개인전을 준비할 시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던 미술 교사들은 자신의 창작 욕구를 단체전을 통해 발현하면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충남은 특히 다른 지방에 비해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근대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명 화가를 초청해 전람회를 여는 것이 빈번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미술가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충남의 지리적 이점은 다른 지역 미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충남 출신이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서울 화단에서 활동하기 위해 충남을 떠나는 기회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충남 미술가들의 미술단체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 글을 계기로 충남 각 시·군 지역 곳곳에서 충남 미술계의 발전에 일임을 다 한 소규모 단체에 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사료>

- 『경향신문』, 『금산소식』, 『대전일보』, 『동아일보』, 『서산시대』, 『朝鮮新聞』,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도일보』, 『충남일보』, 『e-금강뉴스』
-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9.
- 『開元五周年 記念行事要覽』, 공주문화원, 1959.
- 『公州郡誌』 제1편, 공주군지편찬위원회, 1957.
-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 대전시립미술관, 2020.
- 『대전미술 들-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1.
-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미협 대전시지회, 1995.
- 『임동식: 동방소년 탐문기』, 대전시립미술관, 2016.

<논저>

- 김경연, 『이동훈 평전』, 열화당, 2012.
- 김미정, 「공주(公州)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1900~1945년 출생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 김영호, 「금강현대미술제의 의의와 역할 고찰: 1980 금강현대미술제에 관한 소고」,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 신수경, 「예산 출신 미술가들의 계보와 작품세계」, 『2021년 내포문화 진흥포럼: 내포문화의 다양성과 의미를 논하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2009.
- 조수진, 「전위의 실험에서 실험미술로: 대안적 한국 모더니즘의 역사」,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2023.
- 조은정, 「송병돈과 1950년대 서울대학교」, 『조형 아카이브』 제3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1.
- 진선희, 「한국자연미술가 협회 야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충남문화재단,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 충남문화재단, 2016.
- 황효순, 「대전미술사의 현황과 과제」, 『대전문화』 18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 황효순, 「1930년대~1960년 대전 화단의 동향」, 『대전문화』 29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 『공주고육십년사』, 공주고등학교육십년사편찬위원회, 1982.
- 『公州文化院五十年史』, 공주문화원, 2005.
-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2023.
-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 1953~2013』, 대전중구문화원, 2012.

근·현대기 충남의 미술교육사

임재광 | 전 공주대학교 교수

- | | |
|----------------------------------------|--------------------|
| I. 머리말 | IV. 미술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
| II. 근대기의 미술교육(개화기~일제강점기) | V. 비제도권 미술교육 |
| III. 현대적 미술교육의 도입과 전개(해방 후
~1980년대) | VI. 맺음말 |

I. 머리말

미술교육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대별 전반적인 교육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교육도 큰 틀의 교육제도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청남도의 교육 전반에 걸친 흐름을 점검해 가면서 미술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본 고에서 다루는 시대적인 기점은 근대적 학교 교육의 시작이라고 보는 1895년 한성사범학교 설립을 즈음한 시점으로 하며 일제강점기를 거쳐오는 기간을 근대 미술교육의 도입과 정착의 시기로 보고 이때의 미술계 상황을 교육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945년 이후 해방과 함께 시작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시기를 현대적 미술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미군정청에 의한 정책 입안 시기, 그리고 대학의 설립과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거쳐 1970년대의 사범대 미술교육과 설립 등 교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해 현대 미술교육의 기틀을 정리해 볼 것이다.

미술교육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전문미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고, 두 번째로 일반 학생들의 기본 소양으로 다루는 보통의 미술교육이며,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관점의 취미와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별 학교 교육의 변화와 함께 주변부의 전반적인 미술교육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1989년 대전이 직할시가 되어 충남과 분리되기 이전까지 대전은 충남의 도청소재지로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미술 활동 역시 대전에서 이루어졌다. 충남의 각 시군 단위의 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전시 활동은 대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따라서 대전에서의 미술 활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제도권 미술교육은 학교 외의 기관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차원의 미

술교육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대략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많은 작가들이 교육자의 신분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의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근대기의 미술교육(개화기~일제강점기)

1. 근대 미술교육의 시작

개화기는 일반적으로 1876년 개항으로부터 1910년의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다. 개화기의 근대교육은 선교 목적의 기독교계 학교와 교육 구국의 인재 양성을 기치로 한 민족사학, 그리고 정부에 의한 관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1910년까지 설립된 근대사학기관은 5000여 교에 이르렀으나, 민족 민중교육으로 인한 독립정신 고취를 우려한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의해 거의 모든 사학이 폐쇄되었다.¹

근대 미술교육의 시작은 1895년 관립 한성사범학교가 건립되면서 내린 '교육소서'가 소위 신교육 형태인 습자(習字)와 도화(圖畫) 교육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시작된 도화 교육은 미술 교과목의 초기 모습이었다.

1895년 소학교령 반포 이후 새로운 학제에 의해 1899년에 설립된 상공학교에서 도화가 교과목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본래 도화는 조선시대에는 왕실 및 관청의 행사를 기록하거나 소용되는 그림을 그리는 기관인 도화서에 사용되는 용어였다. 근대에 들어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식 미술개념과 미술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도화 교과목으로 가르쳤다. 초기의 도화는 도안술이나 제도술 같은 실용적인 내용으로 공학에 필요한 학문이었으나, 소학교 교과로 채택하면서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익히는 교과로 인식되었다. 도화교과서로는 1907년에 『도화임본(圖畫臨本)』이 처음 발간되었는데, 그린 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도영(李道榮, 1884~1934)이 원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병합 이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교육령을 발포함에 따라 도화는 초등과 및 중고등과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되었다. 이 교과명은 1945년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미국식 교육제도가 채택되면서 교과명이 '미술'로 바뀔 때까지 사용되었다.

도화임본은 1906년 제정된 보통학교령에 의한 시행규칙에 따라 학부에서 편찬해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교과서이다. 한국인의 생활모습이나 용품, 자연 정경 등 우리나라의 소재들이 수록되어, 모필화(毛筆畵)에 의한 서양화법을 도입하면서도 민족의 주체의식이나 미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이도영이 그린 원화에는 용기화(用器畵)와 자재화(自在畵)로 구성되었다.²

1 충청남도교육청 편, 『충남교육사』(충청남도교육청, 2006), p. 133.

2 김형숙, 『한국미술교육의 지평』(교육과학사, 2019), p. 25.

신교육이 기초적이거나 시행되고 있을 때 1910년 한일병합이 체결되어 일제 교육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36년간 일본식 교육이 실시되었다. 1916년부터 서예(습자)는 국어, 한문 교과에 포함되었고 미술은 도화 및 수예 또는 공작 등으로 구성되었다. 1911~1922년까지를 조선교육령시대라 하는데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미술 관련 교과는 도화·수공·재봉 및 수예·운침의 류 정도가 있었다.

2. 개화기 전문 미술교육의 양태

1881년 영선사(領選使) 일행으로 청나라 텐진(天津)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혔던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은 중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돌아와 서울 종로구의 당주동 자택에 화실이자 사설 교육기관인 경묵당(耕墨堂)을 운영하며 이도영(李道榮), 고희동(高羲東) 등을 가르쳤다.

1911년에는 개인 화숙(畵塾)이 집단화되고 체계화된 '경성서화미술원(京城書畵美術院)'이 발족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학원인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로 명칭을 바꾸고, 3년 교육과정을 갖춰 청소년 학생들에게 전통적 필법을 지도했다. 교수진은 당대 쌍벽을 이루던 안중식과 조석진(小琳 趙錫晉, 1853~1920)을 중심으로 쟁쟁한 서화가들이 포함되었다. 서화미술회는 강습소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매년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하여 서과(書科)와 화과(畵科) 과정 중 1년씩 3개년을 수학하는 방식이었다. 이곳에서 근대화단을 대표하는 김은호(金殷鎬, 1892~1979), 노수현(盧壽鉉, 1899~1978), 이용우(李用雨, 1902~1952), 최우석(崔禹錫, 1899~1965)과 연구생으로 참여한 변관식(卞寬植, 1899년~1976) 등의 작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충남미술사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작가들도 이곳을 거쳤다.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1893~1980)가 3기생으로 1914년 입학하여 1917년 졸업하였으며, 충남 공주 출신의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1897~1972)이 4기생으로 1918년 졸업했다. 서화미술회 출신의 화가들 중에는 후에 독립하여 화숙을 운영하였는데, 이당(以堂) 김은호의 낙청헌(絡靑軒)과 이상범의 청전화숙(靑田畵塾)이 유명했다.

서화가들의 사설 서화교육기관은 1910년을 전후하여 유행처럼 번졌다. 1907년 김규진(金圭鎭)과 김유탉(金有鐸)이 '교육서화관(教育書畵館)'을 세웠고, 김규진은 1915년 단독으로 서화연구회(書畵研究會)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방에는 1914년 평양에 '기성서화미술회(箕城書畵美術會)'가 1922년 대구에 '교남서화연구회(嶠南書畵研究會)'가 생겼다. 충남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다. 사숙 외에 대학 등 근대적인 미술교육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신교육이 실시되고 교육과정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수채화나 유화 등 새로운 매체

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었다

조선인 학생들이 관립 성격의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입학하게 되면 총독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났고, 이들은 돌아와 일본식 근대 미술교육을 국내에 전파하는 데 일조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충남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은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당시 미술활동은 서울에서 열리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 목록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미술전람회도록』에 의하면 충남 거주 작가들 중 한국인은 박창래(朴昌來)·이경배(李慶培)·조동욱(趙東旭)·이창규(李暢圭)·송병돈(宋秉敦)·구종서(具宗書)·박성섭(朴性燮)·권중록(權重祿)·이선이(李善伊)·김인숙(金仁淑)·이팔찬(李八燦)·조중현(趙重顯)·김화경(金華慶)·김두환(金斗煥) 등이 있다. 여기에 충남 출신이면서 서울 등 외지에 거주 중 입상한 경력은 제외되었다. 이들은 해방 후에 대부분 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인만을 위한 학교도 드물었고, 일본인 위주의 학교가 많았기에 미술교사는 거의 일본인들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전문적 소양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간단한 양성 과정을 거쳐 교사로 채용되기도 했다.

3. 근대기 충남교육 개요

충남의 해방 당시 중등학교의 실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제 통치하의 학제를 살펴보면 일제의 학제는 복선제 학제로서 중등학교의 종류가 남여·인문·실업·갑종·2중·각종학교 등 다양하였다. 일제는 학교 명칭도 일인학교는 중학교, 한인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다르게 칭하다가 일제 말기에 와서 민족차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명칭을 모두 중학교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고등보통학교)이며, 고등학교는 대학 예과 과정으로 현재의 대학 교양 과정에 해당된다. 전문학교와 고등공업학교 등은 지금의 전문대학과 같은 과정이다.

일제는 한국인의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를 막고자 대학교육과 연결될 수 없는 단기 실업학교를 많이 세웠다. 그것도 농업계로 치우쳐 조선을 일본의 식량기지로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1930년까지 세워진 충남의 갑종학교는 공주중·강경상업·예산농업·공주농업·대동여고·공주여고 등 6개 학교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제 말기에 세워졌거나 갑종으로 승격된 학교들이다. 해방 당시 충남의 중등학교는 전체 27개교뿐 이었다.³

³ 충청남도교육청 편, 앞의 책, p. 206~242.

Ⅲ. 현대적 미술교육의 도입과 전개(해방후~1980년대)

1. 교원 양성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였다. 그 후 일제 초기에는 독립된 보통학교 양성기관을 두지 않고 고보와 여고보 졸업자를 1년간 훈련하던 사범과제를 통해 수요를 충당하였고, 1922년부터는 각도별로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주로 한국인 교사를 양성하였다. 중등교사 양성 전담 기관은 따로 없었고 1927년부터 임시 중등교원양성소가 전문학교 부설로 운영되었다. 이때는 학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다 1945년 해방 직후 초등교원의 40% 이상과 중등교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이 떠남으로써 교사 부족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학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에 사범학교에 강습과와 임시 초등교원양성과를 부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도에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여 적게는 2개월에서 1년까지 강습을 통해 교사를 충원하였다. 처음에는 초급대학 이상 졸업자들이 대상이었으나, 1960년대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시켜 준교사 자격증을 주는 보수교육이 시행되었다. 근현대 미술사에서 초창기 지역의 미술활동이 미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런 제도에 따라 비전공 미술인들이 교직에 진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1961년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적용하여 중등교사는 모두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에 급증하던 초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1960년대 말부터는 중학교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모자라는 중등교원의 보충 수단으로 중등교원양성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사립 사범대학들이 대량으로 설치·인가되었다. 1970년대에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학 전공이 늘어나고 거의 모든 대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수강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교사 자격의 취득 기회는 만인에게 개방되었다. 사범대학도 증가하여 1980년에는 국립사범대학이 10개 교나 되고, 사립사범대학이 16개 교나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부(당시 문교부)는 교사 교육의 질적 저하와 무능한 지망생의 증가를 통감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부터 사범대학 증원통제와 축소계획을 시도하고 1985년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설립 계획이 시행되었다.⁴

2. 미술교사들의 화단활동

해방 이후 일본인 교사들이 떠난 자리를 메꾸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를 충원하였다. 단기 양성 과정을 거쳐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기도 하고 전문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경 유학을 통해 미술을 전공했거나 유사 자격이 인정되는 작가

⁴ 충청남도교육청 편, 앞의 책, 발췌 요약.

들이 대거 교사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해방 후 지역 미술을 이끌어 온 주역들은 학교의 미술교사들이었고, 사실상 교사들을 제외하면 지역에는 작가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학교의 미술 교사들은 당시 지역미술계에서 가장 엘리트였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 지역에 미술대학이 설치되면서 대거 대학으로 옮겨 갔고, 역시 7,80년대 지역 미술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참고로 [표1] 제7회 충남미협전(1960. 11. 11~15)의 리플릿에는 출판 작가들의 재직 학교가 명시되어 있어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서양화부에 출판한 작가는 16명이었는데, 목포교육대학으로 간 조영동 역시 충남 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 교사 심상규를 제외하면 전원 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화부에는 호수돈여고의 우민형을 제외하면 교사가 아닌 작가들인데, 당시 미술교사들의 구성이 서양화 중심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

충남미협 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 활동도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57년 결성된 녹청회는 충남지역 최초로 결성된 미술단체로 미술교사들로 구성 되었는데,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진지한 연구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녹청회는 조중현과 당시 천안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화경, 천안여중의 김성재, 조치원여중의 교사 황진국, 합덕중학교의 한유동 등이 안면도에서 모여 결성되었다. 이 그룹이 결성된 배경에는 합덕중학교에서 열린 도 지정 연구발표회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이 최신미술을 추구하는 모임을 만들기로 뜻을 모으면서 출발한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의 현장에서 의기투합하여 결성되었고,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여는 등 훗날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교사 모임의 전형이 되었다.

1983년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린 《우경회전》(1983. 2. 16~2. 22)의 참가 작가들은 미술과 검정고시 출신 교사들이었다. 김윤기·강현서·소재성·김철호·진문섭·김동식·손중성·임명철·김찬중·양태의·임영우·김경애가 참가하였다. 공주의 ‘금강미회’(1975) 같은 단체도 처음부터 교사 모임을 표방하고 전시를 진행하였다, 영명중고등학교의 현광국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김치중 등이 참여하였다.

이렇듯 각 시군에서 교사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교사들이 전시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교육과 관련된 세미나와 워크숍을 하는 등 교육관련 연구모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미술교사 모임을 표방한 최초의 단체는 박은순이 주축이었던 ‘부여군미술교사회’로 1975년부터 시작하여 10회의 회원전을 열었다. 1980년에 보령의 중등미술교사 모임인 ‘연미회’가 결성됐으며 이 단체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현재 ‘보령중등미술교사연구회’로 바뀌어 활동하고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학생지도를 위한 중고 실기대회와 회원작품전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당진의 ‘학동인회’는 1973년에 손화동이 주축이 되어 미술교사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문호를 개방하여 교사가 아닌 작가들도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5 『대전 미술 하나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29~330.

[표1] 제7회 충남미협전(1960.11.11.~15) 작품작가 명단

분야	작가 이름	작품 제목	직장명
서양화부	이인영	마곡사, 나무 오후	한밭여중
	이지홍	고란사, 은진미륵	충남중
	윤완호	가을, 해바라기	강경여중
	심상규	소녀, 개, 새	원동국교
	황진국	봉숭아	조치원중
	임봉재	가을, 절규	대전공고
	이남규	앉은 여인	대전중
	김철호	풍경, 개나리 있는 풍경	대전고
	김기숙	맨드라미	도 장학사
	윤후근	복전함 풍경	대전여중
	신봉균	추심	한밭중
	김동승	얼굴, 정물	한밭여중
	이동훈	꽃	충남여중
	김태주	여인	대성중
	박태호	투견	온양중
	조영동	등나무	목포교육대
동양화부	고경자	풍경	
	김동순	음과 양, 풍죽	표구사
	성낙일	도옥(陶屋)	
	우민형	동경(冬景), 무속	호수돈여고
	허훈	수선	
	김상순	욕망에의 고독	
조소부	최종태	두상	대성고교
디자인부	임상묵	어(魚)	보문고교

그밖에 충남지역의 교사 모임은 온양미술교사회(1980~), 보령시 초등미술교사 연구회(1992~), 서산미술교과연구회(1992~), 태안군중등미술교육연구회(1994~) 등이 있다.

3. 학생들의 전시 활동

1960년대에는 고등학생들의 전시가 많았다. 이는 당시 작가로 활동하던 미술교사들이 각 학교의 미술부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면서 교내를 넘어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지역에 미술대학이 없었던 만큼 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이 젊은 작가로서 인정 받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었다.

1958년에 결성된 루-불동인회가 서울대에 진학한 이종상·이철주·김인중 등에 의해 재정 충남미술학우회 등으로 이어졌고, 훗날 지역미술의 씨앗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이동훈, 조중현 화실의 제자들 전시였던 《미술동인전》(1960.11.1.-5, 대전문화원), 정명희·임양수 등 당시 고등학생들의 모임인 ‘죽미회’(1962.10.1-7, 충남공보관화랑), 그리고 대전 시내 고등학교 연합 미술 씨클로 모임 《미상록》(1964)전이 열렸는데 규모도 컸고, 이들은 작가가 된 후까지 계속 단체를 이어오고 있다. 공주에는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의 전시 ‘미우회’(1962)가 전문직 교사의 지도로 열렸고 후에 졸업생들이 ‘일수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다.

또한 충남 지역 출신 재경 대학생들의 전시도 이어졌다. 지역에 미술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했는데 이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전시를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재경 충남미술학우회’(1963)와 ‘수요동인회’(1964)가 있다. 이런 형태는 대전 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도 열려 방학을 이용하여 그동안 각자 타지의 학교에서 배운 그림 실력을 고향의 부모형제 이웃들에게 전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서산 출신 대학생들의 모임 ‘화서전’(1987)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4. 충청남도교육청 미술교사 현황(2023년)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각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미술교사는 224명이다. 교사 자격 부여 기관별로 보면 국립사범대 미술교육과가 102명으로 가장 많고, 사립사범대 미술교육과 46명, 교직과정 40명, 교육대학원 34명, 양성소 1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해방 직후에는 미술 전문가로 인정되면 자격을 주어 교사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작가들이 교사가 되었고, 1970년대 사범대 미술교육과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양성소에서 단기 미술교육을 받고 교사로 발령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양성소 출신은 현재 단 1명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아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현재의 교사 임용제도에서 중등교원 자격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학부를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나오거나,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을 수료 하거나, 미술대학에 개설된 교직이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교사 자격을 갖게 되면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현재의 교사들은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거쳐 교직에 들어왔다. 국립대 미술교육과는 현재 공주대·교원대·경상대가 있고, 사립사범대는 목원대와 한남대(전 송전대), 경남대가 남아있다.

6 2022년 충남교육통계 연보 역설편자,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cne.go.kr/> (최종검색일: 2023. 12. 15).

IV. 미술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1. 미술대학의 설립

해방 이후 일제 식민주의 교육정책을 청산하고 현대적 교육체제가 요구됨에 따라 교육체제 전반을 개혁하게 된다. 해방 당시 한국에 있던 교육기관으로는 일제 식민지 고급 관리 양성과 식민지 경영에 참여할 고등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성제국대학과 직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립, 사립 전문학교가 전부였다.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국공립학교를 통합해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에 미술학과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인가 되기 전인 1945년 예림원에 미술과가 개설된 것을 필두로, 1946년에는 국립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창설되었고, 같은 해 조선대학교에는 문예학부 예술과가 개설되었다. 1949년에는 홍익대학교의 대학 인가와 함께 미술과가 창설되었고, 1947년 서울여자학원으로 출발한 수도여사대(현 세종대학교)에 1951년에, 1953년에 2년제 예술학교로 개교한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1956년 미술과가 개설되었다.

1) 충남의 고등교육

충남의 고등교육기관 출범은 1947년 대전에 개설된 호서민중대학과 1948년 공주에 설립된 도립 공주사범대학(초급)에서 비롯되었다. 호서민중대학은 1951년 1회 졸업생을 끝으로 해체되었고 공주사범대학은 1954년 4년제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1년에는 6.25전쟁 중 대전전시연합대학이 발족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대전에 대학을 설립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어 1952년 도립종합대학인 충남대학이 출범(1954년 개교)하였다.

충전대학은 1956년 대전대학(대전기독교학관)으로 설립되어 대전기독교학관 대학 인가 후 1959년 정규 4년제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목원대학교는 1965년 감리교 대전신학교로부터 출발하여 1972년 목원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71년 송대학교 대전 캠퍼스를 설립하여 한남대학으로 변경하였다.

[표2] 설립연대별 충남의 고등교육기관⁷

	충남		대전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1940년대	공주사범대학		호서민중대	
1950년대			충남대, 한남대	
1960년대	공주교육대학교		목원대	우송공업대, 우송정보대, 혜천대

⁷ 충청남도교육청 편, 앞의 책, p. 1428.

	충남		대전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1970년대	순천향대, 호서대	천안연암대	침례신학대, 한밭대	대전보건대학
1980년대	나사렛대학교	혜전대학	대전대, 배재대	대덕대학
1990년대	건양대, 남서울대, 대전 카톨릭대, 신문대, 중부대, 천안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공주영상정보대, 백석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청양대		
2000년대	금강대, 성민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대전이 분리된 이후(1989)는 대전지역 제외

[표3] 충남의 시군별 소재 고등교육기관⁸

소재지	대학	전문대학	기타
천안	나사렛대학교(1985) 선문대학교(1991) 한국기술교육대학교(1992) 남서울대학교(1994) 단국대 천안캠퍼스(1947) 상명대 천안캠퍼스(1937) 고신대학교	연암대학교(1979) 백석문화대학교(1994)	글로벌사이버대학 국제보육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공주	공주사범대학(1948) 공주교육대학교(1962)	공주영상정보대학(1992)	
보령		아주자동차대학(1995)	
아산	순천향대학교(1978) 호서대학교(1978) 경찰대학교(1981) 유원대 아산캠퍼스(1994)	한국폴리텍 IV대학	
서산	한서대학교(1992)		
논산	건양대학교(1992) 금강대학교(2002) 국방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금산	중부대학교(1993)		
연기	대전카톨릭대학교(1993)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청양		충남도립대학교(1998)	
홍성	청운대학교(1994)	혜전대학(1982). 한국폴리텍 IV대학	
당진	세한대 당진캠퍼스	신성대학(1994)	

3. 지역대학 미술교육과의 개설

충남에서 진정한 지역미술이 형성되는 시점은 목원대와 송전대, 그리고 공주사대에 미술교육과 개설되어 졸업생이 배출되는 1970년대 중반 이후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수급을 위해 전국의 대학에 미술교육과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충남 지역에서는 목원대와 송전대가 1972년에, 공주사대가 1973년에 인가를 받아 다음 해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

초창기 학생들은 미술교육과라는 학과의 교육적 정체성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방향성을 갖

⁸ 충청남도교육청 편, 앞의 책, p. 1213.

고 작품활동에 치중하는 편이었다. 교수들도 미술교육에 대한 소양이나 이론적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경력에 의해 임용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실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수나 학생들 모두 작품활동을 통해 지역미술 태동기의 여러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전·충청권 미술사에서 지역미술의 대표적인 활동 기록으로 소개되는 송전대 재학생들의 '19751225그룹'과 목원대 출신들의 '대전'78세대'는 이 학교들의 초창기 졸업생들의 성과였다. 공주사대 쪽에서는 조금 늦게 1980년대 상황에서 '벽·바닥, 그리고 의식'이라는 그룹이 활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미술교육과의 특성에 따라 '동·서·디·조', 즉 동양화·서양화·디자인·조소가 학과의 기본 구조였다. 2학년까지는 공통적으로 동·서·디·조의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3학년부터는 심화과정으로 각 전공별 집중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미술교육과 출신이지만 졸업 후 활동에서 전공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목원대와 한남대는 1980년대 이후 미술대학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미술교육과 출신들이 회화과·조소과, 디자인계열 각 학과의 교수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미술교육과의 학과 특성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목원대학교는 1954년 감리교 대전신학원으로 발족하여 이듬해 감리교 대전신학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72년에 목원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정원 30명의 미술교육과가 설립인가 되었다. 이후 1977년 산업미술과와 건축미술과, 1983년 회화과가 개설되어 199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미술대학으로 편성되었고, 미술교육과는 2006년 미술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렀다.⁹

미술교육과는 학과 개설 초기에 서양화에 전상수와 조소에 윤영자가 부임하여 운영하였으나 전상수는 바로 그만두고, 이후 서양화 파트는 교수가 계속 바뀌면서 변화가 있는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운영자에 의해 조소 전공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 목원대 미술교육과의 초기 학과 이미지는 그래서 조소 쪽으로 강하게 형성되었다.

윤영자(尹英子, 1924~2016)는 홍익대에 조각과 1기로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한 선구적인 여성 조각가로 한국 조소 개척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술교육에 헌신한 미술교육자이다.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보면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으며, 경희대학 등에서 강사를 하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재직하였고, 1973년 목원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개설되면서 교수로 부임하여 1990년까

⁹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mokwon.ac.kr/kr/>(최종검색일: 2023. 12. 10)

지 근무하였다.

초창기 목원대학이 조각과가 아닌 미술교육과이면서도 출중한 조각가들을 배출하였던 배경에는 운영자 교수의 조각가로서의 열정 덕분이다. 운영자의 직접 지도를 받은 목원대 미술교육과 출신의 많은 조각가들이 스승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리는 모습을 통해 작가로서의 개인적 성취보다는 가르치고 베푸는 교육자로서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퇴직 후 재단법인 석주문화재단을 창립하여 석주미술상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공리적이고 교육적인 사상에서 나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회화·조각·공예·설치·평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0세~59세 중견 여성미술인들을 대상으로하여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석주미술상 역대 수상자를 보면 한국미술계의 중요한 여성 미술인들이 망라되어 있다. 현재 석주문화재단은 설립자의 아들이며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윤재원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조소 전공 강사로 이승택·전국광·오영태 등의 실험적인 작가들이 출강하였으나 정착하지 못했고, 1985년에 홍익대 출신의 이영길, 1995년에 모교 출신 이창수가 조소과로 들어와 강의를 했다. 2004년 모교 출신이며 이태리 까라라국립미술원에 유학을 다녀온 김태호가 부임하여 미술교육과 조소 전공자들을 이끌고 있다.

서양화 전공은 AG그룹의 창립 멤버였던 김한이 들어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전임강사로 학생들에게 현대미술의 실험성을 강조하였고, 이진용이 강사 신분으로 잠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에 '대전'78세대전'의 창립을 유도하였다. 1978년에 오세열이 그 뒤를 이어받아 서양화 전공을 지도하면서 반구상적인 화풍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983년에 회화과가 신설되면서 오세열은 회화과의 서양화 전공을 맡고 1981년에 부임한 김홍주가 미술교육과의 서양화 전공을 맡아 지도하였다.

이진용(李建鏞, 1942~)은 충남미술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대전'78세대전'이 창립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황해도 사리원 출생이며 서울에서 자라고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나왔다. 1970년에 김복영과 함께 S.T(Space and Time)그룹을 창립하여 한국의 실험미술을 선도하였고, 신체 퍼포먼스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1978년에 대전에 내려와 목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연구실이 제공되는 특이한 위치의 강사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임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위치였던 것 같다.

그는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아카이브전 도록으로 나온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2018)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요약해 보면, 당시 학생들이 집중력이 강해서 3~4학년 학생들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하면 대전미술의 버팀목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첫째 여름 3개월간 세미나를 진행하여 틀을 잡아준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당시 목원대의 전임으로 있던 김한 교수가 개간 해놓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미술평론가 김복영, 공간편집장 박용숙, S.T 그룹의 김장섭, 성능경 그리고 대전의 작가

홍명섭·유근영·백준기 등을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을 한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당시의 목원대 학생들로서는 획기적인 교육적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어디서 지원 해주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서울에서 초청되어 내려오는 평론가들에게도 강사료를 주는 형편도 못 되었을 것이다. 이런 황폐한 상황에서 오로지 순수한 열정만으로 이끌어 낸 소중한 결실이 바로 대전 현대미술의 씨앗이 된 ‘대전’78세대’ 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서양화 전공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던 김한, 이건용 등은 학교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고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오세열(吳世烈, 1945~)이 부임하였다. 그는 서울 출생으로 서라벌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에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어 1983년도에 미술대학 회화과를 만들면서 적을 옮겼다.

1981년도에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교수 수요가 많아지면서 서양화 파트에 김홍주(金洪疇, 1945~)가 충원되었다. 그는 충북 보은 출생으로 당시 초등교사 양성기관이었던 청주사범학교를 나와 경북 상주의 내서국민학교에서 1963년부터 2년간 근무하다가 뜻한 바 있어 학교를 그만두고 1965년에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여 1969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충주중학교에 근무하다 서울로 올라가 은광여고, 대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였다. 1981년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목원대학교의 미술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어 2010년까지 재직하였다.

김홍주는 목원대학교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권의 타 대학 출신 젊은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대형 캔버스에 클로즈업된 꽃 한 송이는 언뜻 보면 큰 붓으로 단순하게 그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밀한 붓 터치로 촉각적 감각을 극대화하여 그린 것이다. 그는 동양화용 세필로 쇠털처럼 많은 터치를 올려 거대하고 균일한 화면을 만든다. 이러한 집적과 집중의 제작 과정은 대전화단의 특색으로 보일 만큼 추종하는 작가들이 생겨났다. 김동유 등의 목원대학 출신들은 물론 이웃 학교의 윤종석 같은 작가도 이러한 영향권으로 읽힌다.

김홍주가 퇴직하면서 모교 출신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김동유(金東旻, 1965~)를 후임으로 영입하였으나, 바쁜 작품활동 일정으로 학교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수차에 걸쳐 사의를 표한 끝에 받아들여졌고, 후임으로 공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오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경섭이 임용되었다.

동양화 전공은 1976년에 조평휘 교수가 부임하여 1999년까지 큰 흐름을 잡아 왔다. 운산 조평휘(趙平彙, 1932~)는 1932년 황해도 출생으로 6·25전쟁 때 남하하여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1955년 서울대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에서 2년을 수학하고, 홍익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인천 대건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이후 1976년까지 김포 성서중학교·성서상업고등학교·삼선중학교·덕수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는 중에 서라벌예술대학에 출강하였고, 1976년에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부임하여 1999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다. 목원대학에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하여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가 시리즈 《구름과 산-조평회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술이론은 이은기(李銀基, 1951~)가 맡아서 강의하였다.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 하였으나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로 진로를 바꿔 이탈리아 피사대학에서 서양미술사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에 목원대학에 부임하여 2017년에 정년 퇴임하였다. 재임 기간 중 세 차례의 학과장을 하면서 미술교육과의 운영에 헌신하였다. 프린스턴 대학 객원 연구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서양미술사학회 회장과 한국미술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전·충청지역 미술대학의 거의 유일한 미술이론 전공 교수였으며, 실기 중심의 미술대학 풍토에서 당면한 여러 역할을 맡아 하였다.

서양의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의 전문가로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저서로는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시공사, 2002), 『서양미술사』(공저 미진사, 2006), 『욕망하는 중세』(사회평론, 2013), 『권력이 묻고 이미지가 답하다』(아트북스, 2016)가 있다. 2017년에 서울교대 출신이며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미술교육으로 학위를 받은 강주희가 임용되어 미술교육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미술교육과는 오늘날 미술디자인대학의 뿌리로서 인적자원을 공급했다. 1977년에 산업미술학과 건축미술과, 그리고 1983년에 회화과가 개설되었다. 이어서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로 양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교육과 교수들이 설립 업무를 하며 옮겨 가기도 하고 미술교육과 출신 동문 졸업생들이 교수로 부임하기도 하는 등 학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미술교육과 출신 동문 교수를 살펴보면, 한국화 전공의 1회 졸업생 허진권은 미술학부 교수로 들어와 미술교육과와 회화과를 겸직해서 지도하다 기독교미술과를 개설하여 나갔고, 그밖에 조소 전공의 이창수는 조형컨텐츠학부의 조소 전공, 김영호는 회화과 서양화 전공, 김광환, 진정식은 만화 애니메이션과, 정황래는 회화과의 한국화 전공, 전범주는 조형컨텐츠학부의 조소 전공을 맡아 지도하고 있다. 또한 타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졸업생으로는 김종설이 아주자동차대학에 그리고 이승재가 평택재활복지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미술교육과의 전공을 살려 많은 졸업생들이 교직에 진출하였으나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고 그중 교장으로 근무 또는 퇴직한 사람은 조기성·지석철·강정현·이근희·강신호·김순기·조생연·강규정·남승환 등이다. 교직으로 나가지 않고 작가나 미술 관련 업종으로 나가 두각을 나타낸 동문에는 서양화가로 송인현·윤장렬·이준호·박정용 등이 있고, 한국화가에 권경태·이종필·박석신·이민구, 그리고 조각가 차상권·이경재·최소동·김인태 등과 조현영(미술관장)·김경란(갤러리오브제 대표)·안현준(문화공간 주차 대표) 등이 있다. 한편 목원대 미술교육과 출신들이 만든 동문전은 미술교육과 1회 출신들이 1976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대전문화원에서 열었던 《두령전》을 비롯해, 목목회(1978년)·목미회·목원조각회 등의 미술단체들이 열었던 전시가 있다.¹⁰

2)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1956년 대전대학(대전기독교학관)으로 설립된 한남대학교는 1970년 송실대학교와 통합되어 송전대학교로, 1982년 다시 분리되어 지금의 한남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미술교육과는 1972년 문리과대학 소속으로 신설되어 1977년 첫 졸업생 배출하였다. 1985년에는 종합대학 승격 인가를 받으면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 소속되었다.¹¹

1973년 미술교육과가 개설되고 맨 처음 부임한 교수는 서양화 전공의 김수평(金水平, 1942~1989)이었다. 김수평은 대구출생으로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대구 대륜고등학교 교사로 1년간 근무했다.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1971년 청주사범대학교(현 서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부임하였고, 1974년에 송전대학교로 옮겨 1978년까지 근무하다 학교를 휴직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체류하면서 오스트리아 빈(Wien)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긴 유럽 체류 기간에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학교와 기센대학교의 객원교수, 오스트리아 현대미술관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1986년 송전대학에 교수로 복귀해 근무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끝에 만 4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김수평 교수는 송전대학교 미술교육과 개설 초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교수로 졸업생들이 회고한다. 충남미술사의 중요한 장면의 하나인 19751225그룹 멤버들이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2018. 1. 19~3. 11)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수평 교수의 수업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송전대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일찍 독일로 떠나 오래 체류하였고 학교로 복직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교수로 기억되고 있다. 김수평 교수는 국내 대학원의 석사와 독일에서의 박사학위가 모두 미술교육 전공으로, 충청권 유일의 미술교육 전문가였다. 주요 제자로는 이종협, 정길호, 정장직 등 ‘19751225 그룹’ 멤버들이 있다.

1974년에는 정규교육이 아닌 독학으로 미술에 입문한 이인영(李仁榮, 1932~2021)이 부임하였다. 부여에서 출생하여 강경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된 그는 중학교 교사, 전문학교를 거쳐 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하였다. 논산국민학교를 첫 발령지로 교사의 길에 들어선 이인영은 1955년부터 1969년까지 강경중학교, 한밭여자중학교, 대전성모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69년 대전공업전문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1974년에는 청주교육대학으로 옮겨다가 1975년에 한남대학교에 전임강사가 되었다. 이후 회화과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옮겨 1997년 정년까지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인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으로 교직에 들어온 후 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인영의 성장의 발판은 국전에서 국회의장상(서양화부 대상)을 수상한 것

10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p. 383~394.

11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hannam.ac.kr/> (최종검색일: 2023. 12. 10).

이었는데, 1963년 첫 입선을 한 후 1967년까지 4회 연속 특선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크나큰 성과였다. 당시 지방의 작가들에게 국전은 필생의 도전 대상이었으며, 한번이라도 입선을 하면 국전 작가라는 호칭으로 대우를 받는 꿈의 무대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더 나아가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인영은 지역 화단에서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전대학교에서도 대학의 화풍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976년에는 강광식(姜光植, 1939~)이 부임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3년부터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에 재직하다 1976년에 송전대학교로 옮겨 2003년에 정년 퇴임하였다. 김수평이 외국으로 나가 오래 머무는 동안 미술교육과의 서양화 파트를 맡아 강의를 이끌었다. 1984년에 장순업(張淳業, 1947~)이 부임하여 2016까지 재직하였다. 서산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을 나왔다. 반구상 계열의 작품세계를 이어오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화 전공은 1974년에 부임한 김세원(金世源, 1940~)이 2005년 정년 퇴임까지 꾸준하게 이끌어 왔다. 그는 평안남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나왔다. 서울대에서 수학하면서 박노수, 장우성의 영향을 받아 단정하고 섬세한 필선에 의한 인물화를 그렸다. 따라서 송전대에서 한국화를 심화 전공으로 졸업한 작가들에게도 이러한 화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제자인 이재호, 강구철, 이상욱은 한남대학교 회화과의 한국화 전공 교수로 임용되었고 이제길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미술교육과에서 김세원의 뒤를 이어 한국화 파트를 맡아 운영해 왔다. 2009년에 임용된 추계예대 출신 정경철이 한국화 전공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조소 전공은 백현옥(白顯錡, 1939~)이 1977년 부임했으나 1980년에 인하대학교로 옮겨가고, 최국병(崔國炳, 1938~)이 뒤를 이었다. 최국병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1981년 송전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부임하여 2003년 정년퇴임하였다. 조소 전공의 교수로는 모교 출신의 박병희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하며 지도하였고, 2009년에 모교 출신 김성용이 임용되어 조소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미술교육 이론 교수는 2023년에야 처음으로 교과교육 전공을 채용하였다. 미술교육 이론은 성균관대 출신의 박남정 교수가 맡아 하고 있다.

미술교육과 출신의 동문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작가 외에도 서재홍(서양화)·김종필(조소)이 있다. 또한 회화과의 동문 교수로 서양화를 전공한 김동창·박경범·이종우가 있다. 타 대학의 교수로 진출한 작가는 김지택(청주대학교)·허강(중부대학교)·고용곤(건양대학교)·정장직(우송대학교)·김시찬(서정대학교)·고석원(부산대학교)이 있다. 서양화가 유병호·가국현·정재성·최장한·박용·김석중·윤종석·전원길·이순구 등과 조각가 박수용, 김태수 등이 모두 송전대 출신으로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인사로 손부일(교장)·이종협(전 대전시립미술관장)·정찬국(부여문화원장)·권상우(영화배우)가 있다.

송전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 동문전으로 《송전미전》(1974. 11. 9~11. 14, 대전상공회의소),

《청림회전》(1978. 5. 27~5. 31, 대전문화원), 《송전조각회》(1980, 3, 대전시민회관), 《토우회》(1982. 9. 25~9. 30, 대전문화원)전이 있었다.¹²

3)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1948년 8월 2년제 교원 양성기관으로 도립공주사범대학 설립되어 1954년 4년제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73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미술교육과 신설되었고 1981년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미술교육전공과 1999년 대학원 석사과정 미술학과가 개설되었다.¹³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제정하면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무시험으로 우선 채용 했다. 뿐만 아니라 공주사대는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었던 국립사대였기 때문에 교사 부족 충원을 위해 졸업 후 3년간 의무적으로 학교에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각시도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전국의 중고등학교로 배치되었는데 성적에 따라 반 강제로 발령을 받았다. 덕분에 공주사대 미술교육과 출신들은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의 각 학교로 산개하여 근무하면서 한국 미술교육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80년대에 수요 조절에 실패하여 적체가 누적되자 1990년에 헌법소원을 거쳐 임용고시를 실시하게 되었고 공주사대도 무시험이 아닌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공주사대는 임용고시에도 강점을 보여 매년 평균 15명 정도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학교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공주사대 미술교육과는 초기에 이남규(李南圭, 1931~1993)가 부임하여 학과의 틀을 잡았다. 이남규는 충남 대덕군 유성읍에서 출생하여 대전사범학교를 나왔고, 1951년에 공주사범대학 국문과에 들어갔다가 1953년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였다. 1957년부터 1965년까지 유성중학교·대전중학교·충남고등학교·대전사범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1965년부터 1968년까지 공주교육대학에 교수로 근무하였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오스트리아 수리허바흐 수도원 스테인드글라스 공방 및 프랑스 파리에서 연수하고 귀국하여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1975년에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 부임하여 1993년 작고할 때까지 초기 학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57년 서울대학교 장발 학장의 소개로 천주교에 입교하여 기독교 미술에 일가를 이루었으며, 스테인드글라스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겨 서울 약현성당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50여 곳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 설치했다.

1981년 졸업정원제에 의하여 모집 단위가 커지고 교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81년 김정헌(金正憲, 1946~)이 서양화 전공으로 부임하였다. 김정헌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자랐으며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80년에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 옮겨 2010년에 정년퇴직을 하였

¹²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83~394.

¹³ 국립공주대학교 누리집 <http://www.kongju.ac.kr> (최종검색일: 2023. 12. 10).



도1. 《제7회 한국화전》(대전문화원, 1984), 공주시범대학 미술과 한길한국회동문전 팸플릿 표지



도2. 《제10회 한길연합전》(대전시민회관, 1987), 공주시범대학 미술과 동문전 팸플릿 표지

다. 1979년 결성한 현실과 발언 창립 멤버이며 민중미술계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특히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민중미술 계열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

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김인규를 비롯한 많은 졸업생들이 교단의 진보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민중미술 계열의 작품을 하게 되었다.

1983년에 조선대 출신의 강길원이 부임하여 2004년까지 남도 오지호 풍의 구상미술을 바탕으로 서양화 파트를 지도하였다. 이후 서양화 파트는 김정현이 퇴직한 후임으로 모교 출신의 뉴욕 롱아일랜드대학에서 수학한 임재광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하였고, 이어서 홍익대와 영국 이스트런던에서 박사를 수료한 김하영이 임용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화 전공은 초기에 강신철(姜信哲, 1934~1993)이 담당하였다. 강신철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0년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9년부터 공주교육대학에 근무하다 1978년에 공주사대 미술교육과로 옮겨 재직하던 중 1993년 작고하였다.

한국화 교수로는 이석구(李錫九, 1942~)가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하였다. 이석구는 194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청주에서 청주상고를 졸업하였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졸업을 했다. 1980년 29회 국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주대학에서 한국화 전공 학생들의 교내전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다른 한국화 전공 교수로는 모교 출신의 최기성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재직하였고, 후임으로 2022년부터 숙명여대 출신의 안해경이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다.

디자인 전공은 1975년 부임한 손정리 교수가 교원대로 자리를 옮긴 후 1986년 이재희가 부임했으나 2002년 작고하고 그 뒤를 이어 2004년부터 홍익대를 나오고 독일에서 공부한 윤희수가 2024년까지 맡아 지도하였다. 조소 전공은 1976년 서울대 출신의 이정갑이 부임하여 지도했고, 1980년에 홍익대 출신의 김경화가 맡아 2012년 정년 퇴임 때까지 지도하였다. 그 후임으로 2011년 모교 출신의 이경우가 임용되었다.

2005년에 모교 출신으로 영국에서 박사 수료한 김영길이 처음으로 미술교육 이론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8년 퇴직한 후 부산대 출신으로 교원대에서 미술교육 박사를 한 정연희가 미술 교육 이론을 지도하고 있다.

공주사대 출신 동문그룹전으로 《한길전》, 한국화 전공 동문전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한길한국화전》, 조각 전공 동문들의 동문전으로 역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금강조각회전》 등이 있다(도1, 2). 이외에도 《벽·바닥, 그리고 의식》(1984), 《토방전》·《구주전》과 미술 단체 세라비(1983)의 활동이 있었다.

4) 공주교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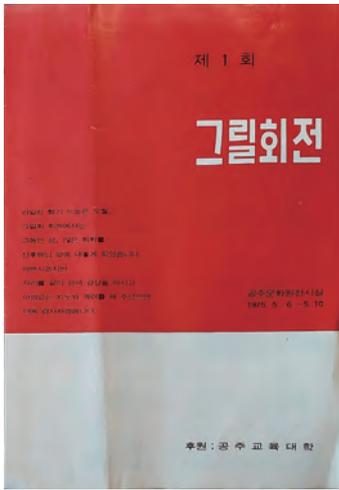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말기에 초등학교의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교원의 수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범 학교를 신설하였다. 공주교대는 1938년에 공주여자사범학교로 개교했는데, 당시 경성여자사범 학교와 함께 전국에 단 2개뿐인 여자 교사(당시 훈도)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 나라 여성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해방 후 1951년에 공주사범학교로 1962년에 공주교육대학(2년제)으로 개편되었고 1982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 1993년 현재의 공주교육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충청지역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최초로 미술 전임교수에 의한 미술 전공 교육이 시작된 학교라 할 수 있다. 심화교육 과정으로 미술교육과가 설치되어 이 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은 파트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¹⁴

1962년에 공주사범학교가 공주교육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공주사범학교에 미술교사로 근무 하던 안중호(安鐘祐, 1926~1986)가 자연스럽게 미술교육 전공 교과를 이어가게 되었다. 안중호는 1921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해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대신고등학교와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경기도 광주 근지암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중등학교와 공주사범학교 교사를 거쳐 1962년에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공예 파트의 재학생으로 정공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졸업 동문들이 창공예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1988년에 모교 출신의 구권환(丘權煥, 1951~)이 뒤를 이어 공예 파트를 맡아 2017년까지 지도하였다.

1965년에는 서양화 파트에 이남규가 부임하여 1968년도 오스트리아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지도하였고, 이어서 조영동(趙榮東, 1933~2022)이 1968년도부터 1985년까지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조영동은 1933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성 안법고등학교, 대전 동중학교, 공주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를 하였고, 1965년에 목포교육대학 교수로 있다가 1967년 공주교육대학으로 옮겨 1984년까지 재직하였다. 1984년에 성신여자대학으로 옮겨 1998년 정년퇴직하였다. 이때 서양화 파트의 학생들이 '빌리잔'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졸업한 후에 '그릴회'

¹⁴ 공주교육대학교 누리집 <https://www.gjue.ac.kr> (최종검색일: 2023. 12. 10).



도3. 《제6회 그릴회전》(공주문화원 전시실, 1975) 팸플릿 표지



도4. 『그릴』 제5집(그릴회, 1984. 9. 15)



도5. 그릴회 여름방학 세미나, 1978. 동학사 상가 앞 거리에서 회원들이 길거리 전시를 위해 작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리는 명칭으로 매년 전시회와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도3~5).

이어서 1985년 서울대 출신으로 공주문화대학에 있던 김남진이 부임하여 1990년까지 근무하다 서울산업대로 옮겼다. 그 후임으로 홍익대학교 출신의 판화가로 활동하던 박동윤이 부임하여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서양화를 지도하였다.

조소 파트에는 1967년에 최종태가 부임했으나 한 학기 만에 전직하였다. 이어서 1969년 황교영(黃敎泳, 1939~1986)이 부임하여 1986년 작고할 때까지 담당하였다. 황교영은 1939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4년 강원도 양구 중·농업고등학교 임시교사로 시작하여 태백공고를 거쳐 서울 성정여자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였다. 1969년 공주교육대학에 내려와 재직 중 1986년 학생들을 인솔하고 현장 활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작고하였다. 1988년 지인과 동료, 후학들이 황교영 선생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유작집 『고리와 섭리』를 발간하였다.

이때 지도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조회’(1971~1982)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이들은 졸업 후에 충남조각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하였다. 단체 명칭을 충남조각회로 할 만큼 충남지역의 조각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홍익대 출신의 김대열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재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17년에 김범수가 임용되어 지도하고 있다.

한국화 파트에는 강신철이 1969년에 부임하여 1978년까지 재직하다 공주사대로 전직 한 후 1981년에 부임한 박주영이 1986년에 교원대로 전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1987년에 공주사대 미술교육과 출신의 백인현이 부임하여 2022년에 정년퇴임하였다.

이론 분야는 공주사대 출신의 박홍순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도하였고, 1995년에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나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와 영국 서리대학에서 미술교육 이론을 전공한 박

정애가 부임하여 강의하였다. 2016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출신 이민정, 2022년에 한국교원대 출신 진은정이 부임하여 지도하고 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초등미술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최근 교수진을 전통적인 장르 기준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022년에 임용된 하진, 박정선은 회화와 창의융합 입체를 지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공주교대 출신의 동문 그룹전과 모임으로 1971년부터 1982년까지 활동했던 '청조회(황교영 교수 작고 후 '충남조각회'로 명칭 변경)', '빌리잔'(1971년), '그릴회'(1975), '정공회', 정공회 출신 졸업생들의 그룹인 '창공회'(1980년), '늘갈회', 그릴회·늘갈회·충남조각회·창공예회 연합전인 《계룡만남전》 등이 있었다(도6).



도6. 《제11회 계룡만남전》(부여문화원 아사달갤러리), 공주교육대학교 동문연합전 팸플릿 표지

5)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1980년 4년제 대학 인가와 함께 미술교육과가 신설되었으나, 1995년에 폐과되었다. 정해조(공예), 백철(디자인), 김치중(서양화), 김송열(한국화), 홍성경(조소) 등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V. 비제도권 미술교육

정규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이 아닌 비제도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술가들이 작품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사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가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따라서 비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미술교육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사설강습소와 서실, 화실 등은 기록을 찾기 어려워 전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문하생들이 전시를 열었던 기록에 의해 일부가 파악될 뿐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도 교습소는 있었을 것인데 아쉽게도 다루지 못했다.

1. 사설학원

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역할과 함께 평생교육의 한 축을 맡아왔다. 특히 미술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의 실기 지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미술과 취미미술 등 광범위한 미술 실기 지도의 영역을 맡아 왔다.

시설강습소에 관한 최초의 공문서는 일제하에서 강습회나 야학에서 이루어졌던 민중교육, 또는 민족교육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포되었던 '시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이었다. 여기에는 강습회 개최 시에는 지방장관(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강습회 활동이 부적당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규제 사항이 내포되어 있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법적 규정 없이 이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규제되었다.

해방 후 통계에 잡힌 1958년의 충남 시설강습소 현황을 보면 대전 포함 충남 각 지역에서 총 34개였고, 1년 뒤 1959년에는 57개가 되었다. 시설강습소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1961년에 국가에서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분야별 시설강습소 현황이 파악되는데, 전체 270개의 시설강습소 중에 예능 분야는 24개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러다 1980년대에는 전체 740개의 시설강습소 중 예능이 219개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예능교육에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설강습소로 불리다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1989.6.16.)에 의거 명칭이 학원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충남의 학원은 2,046개였고 그중 예능계 학원 수는 889개였다. 2005년의 통계에서는 총 2,748개소의 학원 중 예능학원이 1,056개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수치에 대전은 직할시로 분할 된 이후이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¹⁵

근현대기 미술사에서 화실로 불리우는 시설강습소는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화실은 입시 준비를 떠나 작가적 소양을 쌓는 매우 고양된 예술의 현장이었다. 따라서 어느 화실 출신인지에 따라 특별한 성향이 드러날 정도로 교육적 토양이 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개인 서실이나 화실의 문하생 전시가 이어져서 일부 존재가 파악된다.¹⁶ 송암 정태희의 문하생인 박운하·박성숙·박세각·박원용·박인숙·박지역·백정자가 참가한 《한목회》(대전시민회관, 1980. 11. 12~11. 16), 임병립(임립) 화실 출신의 작가들인 송인욱·나진기·신진호·심용택·이돈희 등이 참가한 《立동인전》(오원화랑 1980. 12. 13~12. 17)이 1980년에 열렸다. 1981년 들어 송산 박승배 서실의 문하생들인 윤익선·공귀임·구달희·이완중·차숙자·구자선·권영수·김길수·김동선·김순남이 참가한 《송산서회》(대전카톨릭문화회관 1981.11.19.~11.22) 전이 열렸는데, 이 단체전은 이후에도 20여 년을 이어왔다. 기산 정명희 문하생 심화영·심상규·손차룡·이기호·이성영·이종필·조상렬·정황래·정미현으로 이루어진 《일청회》(대전시민회관 1982.10.4.~10.9)가 있었으며, 이재호·김숙자·김갑순·박진현·한영필·최광순 등 이영래 문하생 전시인 《한국목화회전》(1982~2005)이 모두 시설학원에서 시작된 전시였다.

¹⁵ 충청남도교육청, 앞의 책, p. 1277~1285.

¹⁶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83~394.

2. 문화원

1950년대 초 문화원, 공보관, 유엔관 등의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며, 1954년에는 전국에 15개의 문화원이 있었다. 이후 1962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어 문공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게 되어 문화원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5년 전국에 134개의 문화원이 설치되었고, 그중 충남은 17개의 문화원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일부 문화원이 폐원되어 15곳이 운영되다가 2023년 현재 계룡문화원이 신설되어 총 16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원은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문화학교의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기교육을 하고 있으며, 향토작가 초대전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남의 문화원 설립 시기 별로 보면 맨 처음 1954년에 공주문화원과 부여문화원이 설립되었고, 1955년 예산문화원과 청양문화원, 1956년에 보령문화원이 대천문화원으로 발족되었다. 이어서 1957년에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서산문화원, 1958년에 천안 동남구문화원이 사설 백전문화원으로 발족되어 이후 아우내문화원이라는 명칭 변경을 거쳐 지금의 천안 동남구문화원이 되었다. 천안 서북구 문화원은 1963년 성환문화원으로 발족하였고, 1965년에 서천문화원, 1967년에 금산문화원이 개원되었으며 1990년에 태안문화원이 설립되었다.¹⁷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이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내세우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사업은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총 19개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이 많은 천안시는 총 8개의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여·서천·태안군은 대학이 없어 대학평생교육원이 없다.

4.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기관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은 도서관과 박물관이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던 도서관을 인계받아 조선도서관협회 준비위원회가 발족, 충남지역에는 1922년 공립 대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2023년 현재 충남에는 86개의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다.

박물관은 구 총독부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면서 공주, 부여, 개성에 분관을 두고 운영하였다. 2023년도 충남의 박물관, 미술관은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¹⁷ 충청남도교육청 편, 앞의 책, p. 1237~1276.

VI. 맺음말

미술교육은 미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토양에 관한 것이다. 교육이 없이 이루어지는 예술이나 학문은 없다. 그러나 교육은 스스로 빛나지 않으면서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이루어 내야 하기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술사 연구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없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근현대기의 충남 미술교육은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남의 교육환경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 안팎에서 이루어진 미술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까지의 기록에서 교사들의 화단 활동이 많았던데 비해, 그 이후에는 작품활동의 기록이 많지 않다. 이는 학교의 교육환경이 변해서 교사들이 교외 활동에 제약이 많아진 탓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예전처럼 작가를 지향하여 창작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하여 미술을 교육적 측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작가가 본업이고 교사는 생계를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됐는데, 현재는 교사가 본업으로 미술교육에 전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작가적 측면의 미술사가 아니라 미술교육의 본류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충청남도교육청 편, 『충남교육사』 충남교육청, 2006

『충남미술가편람 I·II』, 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 2021·2022.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연구』, 공주시, 2023.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 충남문화재단, 2016.

『공주의 인물』, 공주문화원·공주문화재단, 2023.

<논저>

조상영, 『대전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2008.

김형숙, 『한국미술교육의 지평』, 교육과학사, 2018.

<기타>

공주교육대학교 누리집 <https://www.giue.ac.kr>

국립공주대학교 누리집 <http://www.kongju.ac.kr>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mokwon.ac.kr/kr/>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cne.go.kr/>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hannam.ac.kr/>

III

부록

1. 충남의 지역별 전시공간 목록
2. 충남 미술단체 목록
3. 충남 교육기관 및 미술교육자 목록



1. 충남의 지역별 전시공간 목록

1999년까지 충남은 8개 시(공주, 논산, 대전(1989년 분리),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천안)와 8개 군(금산, 부여, 서천, 연기, 예산, 청양, 태안, 홍성)으로 이루어졌다.¹ 이 목록은 지역별로 도출한 전시공간명과 개요를 정리한 목록이다.

공주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고려다실	· 위치 미상 · 1974년 《제2회 하이포토회원전》 개최
2	고원다방	· 위치 미상 · 1966년 《이정수 서도전》 개최
3	곰나루	· 공주의 옛 이름 웅진(熊津)의 한글명 · 금강의 나루터를 지칭 · 1991년 《자연미술아외설치전》 개최
4	곰나루다방	· 현 웅진동 (1910년 당시 공주 남부면) · 1959년 《향토미전》 개최
5	공산성/산성공원	· 공주 산성동과 금성동에 자리한 근린공원 · 공산성 안에 조성되어 산성공원으로 부름 · 1963년 사적 제12호로 지정 · 1995년 《금강자연미술제》 개최
6	공주공립고등여학교 강당	· 공주시 봉황로 75 · 1963년 공주여고길 14-1로 이전 · 1928년 2월 28일 설립인가 · 1934년 충남도청 청사로 이전(현 공주사대부설중고등학교) · 1946년 공주공립여자중학교로 개편 · 1943년 《이경배 서화전람회》 개최
7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	· 공주시 웅진로 146. 옛 공주 객사 자리에 설립 · 1906년 개교 · 1949년 공주중동국민학교로 개칭 · 1931년 《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 개최
8	공주문예회관	· 공주시 웅진동 · 1990년 10월 20일 준공 · 1996년 제2전시실 신축 · 연 건평 3,820㎡ 대강당, 소강당, 제1·2전시실, 문예인 사랑방 등 · 1990년 《제58회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개최
9	공주문화원	· 공주시 반죽동 184-2 · 1954년 12월 개원 · 1957년 《국전초대작가 현대회화전》 개최

¹ 1989년 대전시 독립. 1996년 논산군은 논산시로 승격. 2003년 논산에서 계룡시가 분리되었음.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변경.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0	공주민속극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357 · 시설 민속극 전문 박물관 · 1996년 10월 3일 민속학자 심우성이 준공, 10월 4일 개관 · 9,398㎡ 부지에 건평 500㎡ 전시실 2개, 작업실 1개, 사무실 1개, 자료실, 강당으로 구성 · 2008년 5월 이후 내부사정으로 전시나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997년 《공주민속극박물관 기획전》 개최
11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교육대학교와 동일
12	공주사범학교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공주대로 56 · 1938년 공주여자사범학교 개교 · 1951년 공주사범학교로 명칭 변경 · 1962년 대전사범학교와 통합 · 1993년 공주교육대학교로 교명 변경 · 1955년 《고서화전》 개최
13	공주읍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반죽동 · 1923년에 건립 · 1956년 《미국명화전》 개최 · 2009년 등록문화재 지정
14	국립공주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 1946년 4월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개관 ·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분관으로 개칭 · 1975년 8월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개칭 · 1998년 《박물관에서 보는 문화의 향기전》 개최
15	금강변/금강백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단체 야투가 금강 백사장에서 전시 · 1981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전》 개최
16	공주 기독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공주경찰서 건너편에 있었음 · 원래 명칭은 공주기독교회당 · 1929년 《공주서화골동대회》 개최
17	다방 자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60년 《소석 배상옥 동양화전》 개최
18	대화정 예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정 3번지 (현 영명학당 2길 33) · 북감리교회 선교사 주택 · 1920년 영명여학교 건물로 사용됨 · 1926년 《영명여학교의 서화대회와 학예회》 개최
19	봉(황)산구락부 (鳳山俱樂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21년 《해강 김규진 서화전》 개최
20	신신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1년 《최학규 시화전》 개최
21	영명학교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영명학당 2길 33 · 1930년 《공주서화전람회》 개최
22	예원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4년 《二人도화전》 개최
23	왕궁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64년 《是耕 朴益俊 동양화 개인전》 개최
24	원골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 1990년 임동식이 독일에서 귀국 후 거주한 마을 · 1993년 《예술과 원골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25	임립미술관	·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 · 1997년 서양화가 임립이 개관 · 특별전시관 ABC동, 야외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조각공원, 도예체험관, 세미나실, 카페 · 1999년 《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개최
26	자연미술의 집	· 신평면 동원리 14-1(원골예술길 181) · 1991년 《자유로운 수단전》 개최
27	중동초등학교 강당	· 공주시 웅진로 146-5 · 1906년 공주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1949년 공주중동국민학교로 개칭 · 1965년 《전국 국민학교 간행물 전시회》 개최
28	충남도평의회장	· 정식 명칭은 충청남도평의원회의장 · 일제강점기 충남도청 근처에 있었음 · 1931년 《조동욱과 이경배 전시회》 개최
29	충남산림박물관	· 현 세종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 1993년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가 통합되어 탄생 · 1997년 10월 말 개관 · 지하1층 지상 2층 5개 전시실로 구성 · 1999년 《충남산림박물관 서각전》 개최
30	충남운수연수원	· 공주시 연수원길 83 · 1987년 12월 30일 청사 완공 · 1988년 6월 12일 사단법인 충남운수연수원으로 개원 · 2007년 6월 1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으로 개칭 · 67,244㎡ 본관, 강당, 생활관, 후생관 · 1995년 《자연미술심포지엄》 개최
31	충원다실	· 위치 미상 · 1969년 《시화전》 개최

금산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금산갤러리	·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금산군청 종합민원실 내부 공간 활용 · 1993년 《정남영전》 개최
2	금산농협	· 위치 미상 · 1985년 《제2회 금동인미전》 개최
3	금산문화원	· 금산군 금산로 1559 · 1967년 개원 · 1988년 《제10회 금동인전》 개최
4	청산회관 갤러리	· 금산군 금산로 1559 · 1983년 금산 출신 제일교포 청산 광유지가 2층 건물을 기증 · 1992년 광유지가 청산별관 기증 · 2009년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로 신축 · 1999년 《금목회전》 개최

논산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논산군민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시민로 270 · 1985년 8월 논산 군민회관으로 설립 · 1996년 3월 시민회관으로 개칭 · 2001년 회관 전체 리모델링 · 2002년 3월 논산시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 변경 · 2021년 3월 논산시 아트센터로 개칭 · 1987년 《제15회 놀뢰미술회 회원전》 개최
2	궁전에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2년 《놀뢰미술회 창립전시회》 개최
3	논산예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음 · 1989년 《논산 사우회 회원전》 개최
4	동해생명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3년 3월 동해생명보험 설립 · 1983년 12월 동아그룹으로 편입 후 동아생명보험으로 상호 변경 · 1983년 《제4회 놀뢰사진전》 개최
5	대흥다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1년 《이학열 사진전》 개최 · 1982년 《놀뢰미술회전》 개최
6	박산부인과 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8년 《제1회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전(순회전)》 개최
7	시민생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97년 《미협 논산지부회원전》 개최
8	영신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8년 《놀뢰미술회회원전》 개최
9	오거리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5년 《놀뢰미술회전》 개최
10	태림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 반월동 · 1988년 《논산미협 창립전》 개최
11	화지산신용협동조합 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1월 논산시 중앙로 410번지 길3에 창립 · 3층 회의실을 전시장으로 활용 · 1986년 《제7회 놀뢰사진회 회원전》 개최

당진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당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남부로 186 · 1973년 《청림회 창립전》(합덕지하다실에서 동시에 개최)
2	당진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99년 《권오선전》 개최
3	당진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9월 개관 · 1965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당진읍 읍내리 515) · 1981년 당진읍 읍내리 528-3번지로 이사 · 1999년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당진읍 읍내리 50-6)로 이전 · 1978년 《전국새마을미술입선작품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4	당진신용협동조합 지하전시실	· 1979년 2월 창업 · 1990년 당진군 중앙2로에 본점 개점 · 1992년 《제10회 학동인전》 개최
5	상록수 다방	· 위치 미상 · 1978년 《전국초대작가 사진전》 개최
6	송이다방	· 위치 미상 · 1978년 《전국초대작가 사진전》 개최
7	유리제과	· 위치 미상 · 1978년 《불우이웃돕기 시화전》 개최
8	유림회관	· 당진시 당진시장길 124 · 1984년 유림회관 건립 · 1986년 당진향교 유림회관 별관 건립 · 1985년 《제3회 학동인전》 개최
9	제일예식장	· 당진시 중앙로 39-3 · 1984년 《제2회 학동인전》 개최
10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 당진읍 읍내리 546-27번지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으로 지정돼 퇴출 · 1994년 《서해관화조형전》 개최
11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 합덕읍 운산리 265-5 · 1991년 《제1회 이종호 개인전》 개최
12	합덕지하다실	· 위치 미상 · 1973년 《청림회전》 개최

대전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대전 KBS방송국	· KBS 대전방송총국 ·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 · 1943년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 대전방송국으로 창설 · 1986년 대전방송총국으로 승격 · 1998년 《KBS미술초대전》 개최
2	MBC문화공간	· 1964년 대전 중구 대흥동 사옥(대전 중구 대흥동 495)에서 첫 전파 발사 시작 · 1971년 5월 대전텔레비전방송주식회사 개국 · 1971년 9월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 · 1972년 12월 대전 동구 정동 36-4 준공 · 1977년 10월 대전시 선화동 381-171에 신사옥 준공 · 1986년 《묵상회화원전》 개최
3	가톨릭문화회관	· 중구 대종로 471 · 1971년 300석 규모로 개관 · 2017년 3월 공연장 폐관 · 1973년 《제3회 충청남도미술전람회》 개최
4	개미다방	· 대전상공회의소 뒷길 · 1962년 《제7회 녹청회전》 개최
5	경암빌딩	· 중구 중앙로 76 (현 영민빌딩) · 1974년 《제2회 홍대동문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6	계룡미술관	· 위치 미상 · 관장 박영득 · 1986년 《계룡미술관개관기념전》 개최
7	공간사랑	· 중구 대흥동 · 1984년 《충남한국화전》 개최 · 1985년 《1000리 금강송전》 개최
8	舊 대전소방서	· 1937년 동구 삼성2동 322-4 · 1946년 11월 대전소방서 개서 · 1985년 12월 서대전소방서 분리 · 1989년 대전직할시 소방본부 설치(대전 둔산로 100) · 1991년 5월 대전대덕소방서(구 대전중부소방서) 분리 · 2019년 1월 대전동부소방서로 변경 · 1979년 《조선오백년민족미술전》 개최
9	군화랑	· 위치 미상 · 1988년 《서양화 3인 윤영일·임종만·강영호 소품전》 개최
10	극동다실	· 중구 은행동 대전소방서 건너편 · 1974년 《제2회 동계 흥성도 서예전》 개최
11	근대화랑	· 대덕구청(현 대덕구청) 건너편 · 1982년 《제5회 르브르 동인초대전》 개최
12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대강당	· 중구 대화동 · 1984년 6월 개관 · 1998년 대전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 · 1985년 《김완규 호랑이백태전》 개최
13	기독교회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중구 계백로 1712 · 1984년 《84 한남디자인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개최 · 1984년 《제2회 백제미술대전》(기독교회관) 개최
14	남계화랑	· 서예가 남계 조종국이 운영함 · 중구 대흥동 · 1977년 개관 · 1978년 《이영수 동양화·도자기전》 개최
15	농협전시실	· 위치 미상 · 1989년 《제7회 학동인전》 개최
16	대성다방	· 대전역 건너편 건물 · 대전 문인들의 명소 · 1970년대 말 문을 닫고 동양백화점 뒤에 새롭게 개업 · 1981년 《김기호·강용호·강태호 동양화전》 개최
17	대전 미공보원	· 위치 미상 · 1945년 광복 후 설립 · 1952년 《제1회 충남사진 연우회 창립전》 개최 · 1953년 대전시에서 인수 대전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8	대전 본정통 후생관	· 위치 미상 · 1946년 《이동훈전》 개최
19	대전고등학교	· 중구 대흥로 110 · 1917년 관립 경성중학교 대전분실로 설치 · 1976년 《제6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개최
20	대전관광호텔 1층 전시실	· 동구 동서대로 1683번길 46-8 · 대전복합터미널 뒤편에 위치 · 1978년 《청풍 동양화초대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21	대전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미국공보원의 폐원으로 시설과 기구를 인수해 설립 · 미국 공보원 대전분원 병설(대전시 선화동 6-2) · 1962년 대전문화원 설립인가 · 1963년 신축 전시실 30평, 도서실 25평, 소회의실과 사무실 25평 · 1979년 중구 문화동 1-166 대지 100평 구입 원사 신축 기공 · 1980년 신축 이전 전시실(148.76㎡) 구비 · 1953년 《충남미술협회전》 개최
22	대전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대흥동 · 1986년 《대전미술관 개관전》 개최 · 1987년 《전호 수채화전》 개최
23	대전백화점 5층 아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백화점을 인수하여 1987년 6월 동구 중앙동 63-4에 개업 · 수영장, 볼링장, 미술관, 영화관 등이 있었음 · 1999년 12월 폐업(『매일경제』 1999. 11. 26) · 1988년 《서양화 4인 초대전》 개최 · 1988년 《서양화 중견작가 7인 초대전》 개최
24	대전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로 이전 · 1985년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순회전)》 개최
25	대전시민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문화동 1-27번지에 있었음 · 1979년 건립 · 2005년 시립연정국악원이 입주하면서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 · 2012년 기존 건물을 헐고 대전문화예술센터(예술가의집)를 지었음 · 1980년 《송전조각회 창립전》 개최
26	대전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7년 《한밭지목회전》 개최
27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대흥로 550번길 31 · 1959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인가 3학급 · 1978년 《제27회 국전 순회전》 개최
28	대전전통미술도자기 감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0년 《홍재표 도예전》 개최
29	대전중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대흥로 109 · 전신은 대전문화원 · 1995년 대전중구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 1995년 《목원대회회화와 판화전》 개최
30	대전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9년 《그릴회 수채화전》 개최
31	대흥동 세무사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45년 《해방기념미술전람회》 개최
32	동아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8년 《홍명섭 개인전》 개최 · 1988년 《박종순 개인전》 개최
33	동양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선화동 · 1980년 11월 27일 개업 대전의 첫 백화점 · 지하 4층, 지상 12층 건물 3층에 전시장 · 1982년 《동양화전》 개최 · 1982년 《도원회전》 개최
34	라이카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은행동 · 1980년 《서양화가 최광선 초대전》 개최 · 1988년 《한국88올림픽미술대전》 개최
35	매일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9년 《경북대 미술과 동문작품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36	맥그리거 다방(화랑)	· 위치 미상 · 1975년 《신봉균 제5회 개인전》 개최
37	목원미술관	· 목원대학교 내에 있었던 미술전시공간 · 정식 미술관은 2017년 9월 개관 · 1975년 《목원미전》 개최
38	몽셀통통	· 위치 미상 · 1988년 《대전사생회 소품전》 개최
39	문화화랑	· 중구 대흥동 · 1988년 《두잉전》 개최
40	반공연맹회관	· 1964년 11월 30일 한국반공연맹 충남도지부 창설 · 1986년 구 대전교도소 자리(중구 중촌동)에 자유회관 건립 · 1984년 《진학중 서예전》 개최
41	반도화랑	· 중구 대흥동 신용철 산부인과 지하 · 판화가 유병호가 운영 · 1983년 《김철호 개관 초대전》 개최 · 1984년 《대전 '84 드로잉전》 개최
42	보문산 야외음악당	· 중구 대사동 · 1966년 조성 · 2014년 숲속 공연장으로 명칭 변경 · 1986년 《96보문산현장예술제》 개최
43	보성학원 화랑	· 위치 미상 · 1974년 《제4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개최 · 1975년 《제5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개최
44	산강화랑	· 위치 미상 · 1973년 대전 중구 선화동 · 1973년 《이응노 개관초대전》 개최
45	상일갤러리	· 위치 미상 · 1988년 《상일갤러리 소장품 상설기획전》 개최
46	상지다실	· 위치 미상 · 1980년 《신승복 동양화전》 개최
47	성림다방	· 위치 미상 · 1953년 《이응로전》 개최
48	송아지다실	· 동구 중앙로 대전역 건너편 · 1974년 《충남 녹수회 동양화전》 개최 · 1979년 《서화합작전》 개최
49	시나위커피숍(갤러리)	· 위치 미상 · 1989년 《유근영전》 개최
50	신세기다방	· 위치 미상 · 1982년 《이민범 서예작품전》 개최
51	신신화랑	· 중구 대흥동 · 1980년 《미림미전》 개최 · 1982년 《이중수 도예전》 개최
52	쌍인미술관(화랑)	· 중구 대흥동 · 1986년 《쌍인화랑개관 초대전》 개최 · 1986년 《opus 창립 단체전》 개최
53	양상불소극장	· 중구 대흥동 · 1989년 《'89 행위예술제》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54	여일미술관	· 중구 은행동 · 1980년 개관 · 1981년 《강명준 도예전》 개최 · 1986년 《여일미술관 상설전》 개최
55	연일다실	· 위치 미상 · 1983년 《김정기 서예전》 개최
56	영상화랑	· 위치 미상 · 1981년 《김재명전》 개최 · 1982년 《그래픽 7인전》 개최
57	예가화랑	· 중구 대흥동 · 1986년 《목목회 소품전》 개최 · 1986년 《원로작가 8인 초대전》 개최
58	예전화랑	· 위치 미상 · 1984년 제3회 《최장환 개인전》 개최 · 1987년 《예가 예가전》 개최
59	오원당화랑/오원화랑	· 1975년 오원당 화랑으로 오픈 · 서구 둔산중로 78번지 36(둔산동 1393 청우빌딩 36) · 1980년 《오원당 화랑 개관기념전》 개최 · 1985년 《이완중 합죽선전》 개최
60	은성다실	· 위치 미상 · 1986년 《김종선 소품전》 개최
61	일신다실	· 위치 미상 · 1976년 《한성기 시화전》 개최
62	입화랑	· 중구 대종로 563 · 화가 임립이 운영 · 1987년 《일신전》 개최 · 1989년 《전성규 작품전》 개최
63	중도일보(회의실/화랑)	· 1951년 창간호 발간 · 1955년 중동에서 대흥동으로 이전 · 1958년 대흥동에서 선화동 현 교보빌딩 자리로 이전 · 1972년 대흥동 501 경암빌딩 지상 10층 신사옥 준공 · 1972년 5월 우신체제에서 1도 1社제도에 의해 강제 폐간 · 1987년 12월 12일 법인등기 · 1990년 5월 신사옥 기공(대전 서구 갈마동 274-7) · 1971년 《제10회 보도사진전시회》 개최 · 1972년 《충남미협전》 개최
64	중앙갤러리	· 중구 대흥동 · 1986년 《성장경전》 개최 · 1986년 《이재우전》 개최
65	참운당화랑	· 위치 미상 · 1980년 《곽권옥 작품전》 개최
66	청다실	· 위치 미상 · 1980년 《김우중 서예전》 개최
67	청자다실	· 위치 미상 · 1978년 《이달재 동양화전》 개최 · 1978년 《양우승 고서화 소장전》 개최
68	청탐다방	· 위치 미상 · 1980년 《최원구 동양화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69	충남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대흥로 77 대전방송국내 충남공보관 전시실 · 1962년 《제1회 한국미술협회인증 미협전》 개최 · 1962년 《죽미회 5인전》 개최
70	충남예총(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선화동 · 1961년 3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 지부로 인준 · 1989년 1월 대전·충남지회로 변경 · 1992년 대전시와 충남지회의 조직 분리 · 1967년 《충남예총화랑개관 축하 종합전시회》 · 1967년 《제7회 충남미술협회전》 · 1989년 대전 충남지회로 변경 · 1992년 대전지회와 충남지회 분리
71	한국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중앙로 122번지 10 · 1984년 《서양화 25인전》 개최 · 1985년 《제3회 동연회전》 개최
72	한남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구 한남로 70 · 1986년 《한발 조각회전》 개최
73	한남대 문화전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8년 《야생조류사진전》 개최
74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12월 2부 대학 소속으로 개설 · 1974년 문리과 대학 소속으로 변경 · 1985년 종합대학 승격으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 명칭 변경 · 1986년 미술교육과만 사범대학 옆에 있는 미술교육관 건물을 단독으로 이용 · 2019년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으로 학과 이전 · 1988년 《78조각전》 개최
75	한밭상업고등학교 (현 대전중앙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대종로 364 · 1955년 3월 창성상업고등학교9선화동 98번지) 설립인가 · 1955년 7월 한밭상업고등학교 · 1967년 3월 충촌동 14-1번지로 교사 신축 이전 · 1968년 1월 충남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87년 3월 대전중앙고등학교로 개명 · 1966년 《제1회 상업미술전》 개최
76	행원(杏苑)다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76년 《장찬홍 작품전》 개최 · 1976년 《제3회 충남서예협회전》 개최
77	현대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종교로 33 · 1985년 《이종근 수채화전》 개최 · 1987년 《제3회 존재전》 개최
78	홍명다실(홍명미술관/ 홍명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명상가 2층에 있었음 · 1975년 《제2회 송전미전》 개최 · 1976년 《유남식 동양화 초대전》 개최

보령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귀빈다실	· 위치 미상 · 1984년 《제4회 대천서부사우회 사진전》 개최
2	대천문화원(보령문화원)	· 보령시 대흥로 63 · 1962년 12월 문화공보부 허가 · 1980년 준공 건축면적 498.68㎡ · 대강당, 소강당, 서예 한국화교실, 회의실, 사료실, 사무실 등 · 2013년 11월 보령문화의전당으로 이전 · 1983년 《제3회 한국미협 공주지부회원전》 개최
3	대천신정다방	· 위치 미상 · 1981년 《김덕철 동양화전》 개최 · 1983년 《이창호 화백 초대전》 개최
4	대천해수욕장	· 보령시 신후동 · 1997년 《전국사진공모전 및 회원연합사진전》 개최
5	보령군청전시실(로비)	· 보령시 성주산로 77 · 1996년 《제9회 보령예술인회 회원작품전》 개최 · 1997년 《제10회 보령예술인회 회원작품전》 개최
6	보령보건소	· 1956년 12월 1일 대천보건진료소를 보령보건소로 승격 ·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현 보건소 위치) · 1996년 《오늘의 충남미술전》 개최 · 1997년 《한국미협 보령지부전》 개최
7	보령시민체육관 (=대천체육관)	· 보령시 대천로 136 · 1997년 《충남미술대전보령순회전》 개최

부여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고궁다실	· 위치 미상 · 1982년 《권용호 · 이순구 2인전》 개최
2	공화당 사무실	· 위치 미상 · 1980년 《제1회 아사달청년회전》 개최
3	구드래조각공원	· 백강로 148 백마강과 인접 ·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 · 1996~1997년 조각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으로 새 단장 · 1991년 《'91 구드래 야외미술제》 개최
4	국립부여박물관	·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 1939년 4월 조선총독부 박물관 부여분관 설치 · 1945년 10월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으로 개칭 · 1975년 8월 국립부여박물관 승격(대통령령 제7745호) · 1998년 《중국 낙양문물명품전》 개최
5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 부여군 충화면 충신로 618 · 1993년 충청남도 대표 청소년수련시설 개원 · 1993년 《제3회 소부리 전국사진전람회 작품전시회》 개최
6	부여군민회관	· 부여읍 사비로 41 · 1986년 2월 25일 개관 회의실 · 전시실 · 사무실로 구성 · 1988년 《제5회 아사달청년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7	부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부여읍 사비로 41 · 1954년 4월 발족 · 1986년 2월 부여군민회관으로 이전 · 1994년 9월 부여문화원 설립인가 · 2015년 옛 청소년수련원 건물로 이전 · 1965년 《조종국 제1회 서예개인전》 개최
8	부여문화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암면 총절로 2316길 34 · 1990년 5월 문화재연구소 개소 · 1995년 《문화유적사진전》 개최
9	부여읍민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민회관'의 이전 명칭으로 추정됨 · 1960년 부여면에서 부여읍으로 승격 · 읍소재지인 동남리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 · 1981년 《제2회 아사달청년미술전》 개최
10	초원다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산면 만수리 18-4(외산면 무량로 33) 부여초원장 여관 1층에 있었음 · 1980년 12월 31일 개업 · 1984년 《청암 김덕현 서예전》 개최
11	홍산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32년 《박성섭전》 개최

서산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마방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화1로 41-1 · 화가 정철곡이 운영하던 경양식집 · 1984년 《제9회 서미회전》 개최
2	서령미술회관(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서령회관 3층에 미술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1995년 《서령미술회관 개관기념전》 · 1996년 《제3회 서령예향미술제 봄전》 주최
3	오지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신읍 오지검은고지길 1-10 · 1991년 《이중구개인전 · 오지리사람들》 개최
4	서산문화회관 (서산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로 52 · 1985년 서산시청과 인접한 읍내동 510번지에 공사 시작 · 1990년 1월 5일 완공 6일 개관 · 1994년 대공연장 무대와 현관 로비 확장 · 지상 4층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1층에 3개 전시실이 있음) · 서산시민회관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으나 서산시문화회관이 정식명칭임 · 1991년 《제5회 화단전》 개최
5	서산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6월 15일 초대원장 취임 · 1965년 2월 11일 설립(공보처장관 승인) · 읍내동 472-2에서 읍내동 268번지로 이전 · 1991년 태안문화원 분리 · 2001년 신축원사 이전(읍내동 268번지에서 서산시 부춘공원로 2) · 1978년 《서산예술인협회전》 개최
6	서산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버스터미널 2-5641 · 1988년 《서산미술관 개관기념전》 개최
7	서산청년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충의로 29-17 · 1970년 5월 10일 사단법인 서산청년회의소 인증 · 1978년 《서심서도회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8	서인사랑	· 동문동 294-1번지 · 1991 11월 개관 · 1992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 개최
9	시대갤러리	· 위치 미상 · 1992년 《서미회전》 개최
10	향원다실(방)	· 위치 미상 · 1976년 《제1회 서미회전》 개최

서천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서천군민회관(문예의전당)	· 서천읍 서천리 14번길 20 (2007년 자료에는 군사리 356) · 사무실, 강당, 전시실, 식당 등(1996년 설치 및 운영 조례) · 1979년 《바위전》 개최
2	서천문화원	· 1965년 설립 · 1989년 2월 서천군민회관(서천읍 군사리 176-2)으로 이전 · 2000년 서천문화원사 준공 · 2001년 서천읍 사곡리 62번지 이전(현 서천읍 화금서길 29-18) · 1984년 《제8회 서천헤이드인 사진 동호회전·순회전》 개최
3	장항 농협 회의실	· 장항읍 장항로 139번길 3 · 1970년 12월 15일 설립 · 1972년 구 청사 준공 · 1992년 12월 27일 종합청사 신축 이전 · 1993년 1월 1일 복지농협 승격 · 1984년 《제8회 서천헤이드인 사진 동호회전·순회전》 개최

아산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당림미술관	· 송악면 외암리 429-14 · 1997년 6월 14일 개관 · 당림 이종무 화백이 산산에 설립한 미술관 · 1997년 《당림미술관 개관전·이종무 수채화 소품전》 개최
2	동서증권 온양지점 강당	· 온양시 온천동 300번지(구 아산군청) · 1989년 《미협 천안 온양지부회원전》 개최 · 1994년 《이성순전》 개최
3	동서화랑	· 위치 미상 · 1987년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아산전시회》 개최 · 1989년 《서양화 4인전》 개최
4	보명예식장	· 위치 미상 · 1996년 《온양 서우회 서예전》 개최
5	아산갤러리	· 위치 미상 · 1986~2009년 《한국미협 온양지부전》 개최
6	아산학원 태경관	· 아산고등학교 체육관 명칭 · 아산시 변영로 115번길 21 · 1973년 개교 · 1997년 《제15회 청소년 미술제》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7	아카데미에식장 전시장	· 아산시 충무로8번길 11 · 1960년 개업 · 1998년 《제66회 한국미협 충남도지회전》 개최
8	연지다방	· 위치 미상 · 1984년 《한국미협천안지부회원전》 개최
9	온양 농협	· 온천대로 1269 · 1970년 설립(온양읍 8개 리 · 동조합 합병)온양리농업협동조합 발족 · 1974년 온양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97년 신창농협과 합병 · 1990년 《연서전》 개최
10	온양문화원	· 아산시 남산로28 · 1957년 온양읍 온천리 57번지에 개원 · 옛 소방대 건물에는 별도의 전시공간이 1층에 있었음 · 1991년 《제4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순회 사진전》 개최
11	온양민속박물관	· 아산시 충무로 123 · 1978년 10월 25일 개관 · 1982년 4월 26일 구정미술관 준공 (설계 이타미 준) · 1990년 9월 17일 구정미술관 생활문화관으로 명칭 변경 재개관 · 1987년 《김용환전》 개최
12	온양신용협동조합 3층	· 온천동 94-2 · 1970년 창업 2002년 폐업 · 1982년 《제7회 천안미협 아미회와 합동전》 개최
13	온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 아산시 남부로 92번지 · 1992년 개관 3층에 전시실 · 2004년 리모델링 전시관 1층으로 이전 · 2008년 시민생활관으로 명칭 변경 · 2011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 아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동일 · 1994년 《움직이는 미술관전》 개최
14	온양 우체국(아산우체국)	· 아산시 시민로 455 · 1998년 《온양문화제 · 우표전시회》 개최
15	정우(새)마을금고 전시실	· 아산시 온양1동 307-20 · 1994년 《제9회 한국미협 온양 아산지부전》 개최
16	제일호텔 하비니홀	· 아산시 온천대로 1462번지 · 1979년 6월 8일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 오픈 · 온양제일관광호텔로 개관, 1981년 이후 제일호텔로 변경한 듯 · 1980년 《온양미술동문회 제1회 정기전》 개최 · 1986년 《법광스님 서예전》 개최
17	淸州다방	· 아산시 온천동 86-6 · 1988년 《김암환 호랑이전》 개최
18	프라자쇼핑센터	· 위치 미상 · 1990년 《온양사진 동우회 사진전》 개최

연기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연기군민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5월 20일 연기군 조천읍 문화로 17(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21-1) · 2004년 5월 개보수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 2012년 7월 1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세종시민회관으로 개칭 개관 · 1990년 《행위예술별무리》 개최
2	조치원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세종문화원의 전신 · 1964년 설립 · 조치원읍 교동 59-1번지에 개원 · 1988년 군민회관으로 이전 · 1989년 《한국예총 조치원지부 사진협회 제1회 사진전》
3	홍대조치원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 홍익대학교 조치원 제2캠퍼스로 인가 · 1988년 준공 · 1997년 《제1회 야외조각대상전》 개최

예산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삼정다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 · 1980년 《예산향토작가 초대전》 개최
2	송림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 · 1989년 《박학규 추사판각전시회》 개최
3	예산(군)문화회관 (예산문예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 아리랑로 185-14 · 1993년 10월 16일 개관 공연장과 전시실(145㎡) 구성 · 1995년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순회전》 개최
4	예산터미널 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 금오대로 35-14 · 1988년 준공 · 1992년 《제60회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전》(예산터미널 전시장) · 1994년 《천안수채화협회전》(예산신터미널 전시장) 개최
5	예산농업전문대학 교수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예산읍 군청로 22 · 1910년 공주농림학교로 설립 · 1946년 예산공립농업중학교로 변경 · 1951년 예산농업고등학교, 예산중학교로 개편 · 1966년 예산농업고등전문학교로 변경 · 1974년 예산농업전문학교로 변경 · 1979년 예산농업전문대학으로 개편 · 1992년 공주대학교와 통합으로 인해 폐교 · 1984년 《녹원 김문식 초대전》 개최
6	예산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 10월 예산읍 예산리 429번지에 개원 · 1978년 9월 예산읍 예산리 517번지로 이전 · 1982년 예산읍 예산리 433번지로 이전 · 2002년 5월 예산읍 천번로 90번길 3으로 신축 이전 · 1984년 《예산문화원 창립30주년 기념 도예전》 개최

천안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갤러리아미술관 (한양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9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 개점 · 2010년 12월 서북구 불당동으로 신축 이전 · 현주소 서북구 공원로 227 · 1994년 《국내5인 도자기 작품전》 개최
2	도술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역 건너편 시대복장 건물 2층에 있었음 · 1984년 개관 · 1984년 《화랑 도술개관기념 천안지부 초대전》 개최
3	독립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 1999년 《임정수립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4	리각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유량동/동남구 태조산길 245 · 1993년 3월 개관 · 조각가 이종각(1937~)을 기념하기 위한 미술관
5	미도백화점(로얄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옛 시청길 6 · 천안 구도심 중심지였던 대흥동 한복판에 있었던 종합쇼핑센터 · 1982년 천안세무서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오픈 · 1986년 로얄백화점으로 명칭 변경 · 1989년 버스터미널이 신부동으로 이전하고 갤러리아센터시티가 입점하면서 코너별 분양으로 운영 · 2001년 정원개발에서 직영 테마쇼핑몰로 '르씨엘'로 변신 · 1983년 《제8회 천안지부전 및 제51회 한국미협 충남도지부전》 개최
6	백궁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역 사거리에 있던 건물의 지하에 있었음 · 1976년 《미협 천안지부 창립전》 개최
7	사랑방 다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대흥동 아카데미 극장(현 CGV) 아랫층에 있었음 · 1982년 《김영덕 서화전》 개최
8	서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88 《묵창산 초대전》 개최
9	아라리오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만남로 43 · 1989년 주식회사 아라리오가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아라리오 조각공원을 조성 · 1988년 《충남미술대전》 개최
10	아세아다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역 근처 · 1979년 《강영희 개인전》 개최
11	아카데미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흥동 아카데미 극장 입구에 있었음 · 1971년 《신양섭 개인전》(아카데미 다방으로 표기) 개최 · 1978년 묵암 《홍성규작품전》(아카데미 화랑으로 표기) 개최
12	이채(판화)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구 개목 9길 · 전 아라리오갤러리 관장 이돈우 운영 · 20평 정도의 공간에 판화작품만 전시 · 1995년 《이철수 8개 도시 순회전》 개최
13	자연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59년 《청포도회》 개최
14	천안공업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 1973년 공립 천안공업전문학교로 개교 · 천안공업고등학교 교실을 공유 · 1979년 1월 천안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 · 1981년 3월 천안대로 1223-24로 이전 · 2005년 3월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통합 개편 · 1999년 《제24회 한국미협 천안지부전》 개최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5	천안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동남구 옛농고7길 11-1 · 1964년 7월 10일 개원 · 1987년 부설 천안 향토사 연구소를 설립 · 1992년 신축이전(성정8길 5)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 지상 1층에 전시실 · 1997년 향토사료관을 설치 · 2006년 내부 갈등으로 파행 운영 · 2007년 천안시가 건물을 환수하며 운영 중단 · 천안문화원 건물은 성정1동 주민센터로 활용 · 1979년 《신양섭 개인전》 개최
16	천안시민회관 (천안시 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부동 시민회관길 120 · 1987년 11월 1일 개관 · 2005년 1월 21일 폐관(천안시민회관) · 1987년 《제11회 천안지부전 및 천안시민회관 개관기념전》 개최
17	충남학생회관 (천안학생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옛 농고1길 41 · 현재 정식 명칭은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 1997년 4월 12일 준공 6월 17일 충청남도 학생회관 개관 · 2009년 9월 1일 충청남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 1997년 《소원회 임시전》 개최
18	코스모스 커피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91년 《공전 손호근 전》 개최
19	태화산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구 대흥동 70-4 한진고속터미널 앞 · 골동품 전문점 · 1981년 《제6회 천안지부전 및 현대미술관 건립기금마련전》 개최
20	평림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91년 《한진만 제4회 개인전》 개최
21	향촌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61년 《P.A.S.동인회 소품전》 개최 · 1963년 《김성재 미술소품전》 개최
22	화랑 작은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1999년 《고영환 초대전》 개최

청양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예원사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미상 · 문구점으로 추정 · 1985년 《제1회 정산고 미전》 개최
2	청양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읍 중앙로 129 · 1955년 청양문화원 창립 · 1965년 2월 청양문화원 설립 · 1989년 9월 원사 3층 중축 완공 · 1959년 《정영복 제1회 개인전》 개최 · 1985년 《청양군내 미술교사 작품전》 개최

태안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월궁다방	· 위치 미상 · 1974년 《임명철 개인전》 개최
2	태안문화원	· 태안읍 백화로 192번지 · 1990년 창립 · 1990년 《6인 초대전》 개최
3	태안신협전시실	· 태안읍 시장5길 42 · 1995년 《서해조형작가회 정기전》 개최

홍성군

번호	전시공간명	개요
1	광천 5가 다방	· 위치 미상 · 1964년 《제2회 정영복 개인전》 개최
2	도심다방	· 위치 미상 · 1981년 《제6회 서미회전》 개최
3	홍성문화원	· 1954년 창립 · 1965년 설립인가 · 홍성 군청 건너편에 있던 홍성보건소 건물로 이전 · 1973년 495.87㎡ 규모로 완공 · 2005년 홍성읍 고암리 689-4 신축 이전 · 1988년 《올림픽 성화맞이 기념 범광 서화전》 개최
4	해동화랑	· 위치 미상 · 1980년 《해동화랑 초대 제1회 이환영 개인전》 개최

2. 충남 미술단체 목록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	공주회화회	1931	· 기록 상 가장 이른 시기 결성된 충남 미술단체 · 1931년 《제1회 공주회화회 전람회》(11.22~23, 공주공립보통학교 강당)
2	미술협회 (충남미술협회)	1945	· 1945년 4월 이동훈, 박성섭 등 결성 · 1945년 《해방기념전람회》(11.24~29, 세무사사무소) · 1953년 충남미술협회로 재결성
3	충남사진연우회	1951	· 충남 최초 사진동호회 · 1951년 《충남사진연우회 창립전》(12.4~?)
4	녹청회	1958	· 일본 유학생 모임 · 1958년 《제1회 녹청회전》(11월, 천안)
5	루-불미술동인	1958	· 충남 최초 고등학생 연합 미술 그룹 · 1958년 《제1회 루-불미술동인 작품전》(12.26~31, 대전문화원)
6	수요동인회	1958	· 대전 대흥동성당 수요 문화 모임 · 1958년 《수요동인전》(대전문화원)
7	청포도회	1959	· 천안 미술교사 김화경, 김성재 주도로 조직 · 1959년 《제1회 청포도회 미술작품전》(6.27~7.2, 천안 자연다방)
8	다켈사진동인회	1959	· 대전에서 박여일 주도로 창립
9	재경 충남미술학우회	1960	· 서울의 미술대학에 진학한 충남 출신 학생 단체 · 1960년 《제1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전》(1.2~26, 대전문화원)
10	미술동인회	1960	· 이동훈과 조중현 제자 모임 · 이동훈의 딸 이명희, 조중현의 제자 권탁연 등이 참여 · 1960년 《제1회 미술동인전》(11.1~11.5, 대전문화원)
11	미우회	1962	·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학생 모임 · 《미우전》(9.21~23, 공주문화원)
12	죽미회	1962	· 대전공업고등학교 ·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반 학생 5명이 결성 · 《죽미회 5인전》(10.1~7, 충남공보관)
13	한국미협 충남지부	1962	· 《5·16 혁명기념 미전》(5.16~22, 대전방송국내 충남공보관)
14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부	1962	· 1962년 2월 발족, 초대 지부장 박여일 · 1년간 활동 후 해산, 1966년 4월 재결성 · 《창립기념 전국저명작가 사진 초대전》
15	일신미술가회	1963	· 《일신미술가 동인회전》(공주문화원)
16	미상록	1964	· 고교 연합 동아리 · 대전문화원 후원 학생 단체 · 《미상록 창립전》(11월, 대전중구문화원)
17	일수회	1965	· 공주고등학교 미술부 단체 '미우회'에서 발전한 단체 · 공주 시내 고등학교 연합 동아리 · 《일수회 창립전》(8월, 공주문화원)
18	향미회	1967	· 1967년 3월 발족, 서울 거주 충남 출신 미술인 단체 · 초대 회장 송병돈, 부회장 김화경 · 최덕휴 · 《향미회 창립전》(7.18~25, 충남예총화랑)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9	일요화가회	1968	· 대전문화원 후원의 일반인 미술단체 · 《청맥, 판도라, 일요화가회, 미상록 합동전》(5.15~25, 대전문화원)
20	충남청년미술인회	1970	· 충남 거주 미술대학 출신 교사와 작가들의 단체 · 1972년 청미회(靑美會)로 개칭 ·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전》(6.14~18, 충남예총화랑)
21	빌리잔	1971	· 공주교육대학교 서양화 동아리 · 조영동 교수가 지도
22	서산예술인협회	1971	· 서산 미술교사 중심 단체 · 1971년 《서산예술인협회 창립 기념 미술전》(12. 19) · 1971. 12. 29. 사회단체(충청남도 1호) 등록
23	일요스케치회	1971	· 대전문화원 거점, 아외스케치 작품 정기전 개최 · 《제1회 일요스케치회전》(6.15~20, 대전문화원) · 1986년 '대전사생활'로 명칭 변경
24	청조회	1971	· 공주교육대학교 조각 동아리 · 황교영 교수가 지도 · 《제1회 청조회 조각전》(공주문화원)
25	놀뫼미술회	1972	· 논산 놀뫼미술학원(원장 박춘화)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 · 《놀뫼미술회》(11월, 논산공전예식장)
26	청양당 한문연구회	1972	· 《제1회 청양당 한문연구회 서회전》(공주문화원)
27	충남사진동호회	1972	· 《제1회 충남사진동호인전》(7.5~9, 충남예총화랑)
28	하이포토회	1972	· 공주 사진 동호회
29	서심(瑞心)서도회	1973	· 1973. 10. 29. 발족, 서산·태안 지역 서예 그룹 · 《서심(瑞心)서도회전》(10.10~15, 서산청년회의소)
30	정공회	1973	· 공주교육대학교 공예 전공 재학생 모임 · 《공주교대 정공회》(공주문화원)
31	충대동인회	1973	· 충남대학교 흥동식 교수 문학생 회화 동아리 · 《창립 충대 동인전》(10.1~7)
32	녹수회	1974	· 《제1회 충남 녹수회 동양화전》(4.16~23, 송아지다실) · 오희창, 국권환, 이영래, 이중부, 이대훈, 이완중, 전영기, 오창환 등 참여
33	대전초중고교사회	1974	· 대전시교육청 미술교사 단체 · 《대전 초중고 교사전》(10.11~10.14, 학생과학관)
34	송전미회	1974	·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회화 전공 단체 · 《제1회 송전미전》(11.9~14, 대전상공회의소)
35	예우회	1974	· 《창립 예우회전》(10.27~31, 산강화랑)
36	은영사진클럽	1974	· 《제1회 은영사진클럽 회원전》(11.16~24, 송아지다실)
37	충남서예가협회	1974	· 대전 서예가 단체 · 《충남서예협회 창립전》(11월, 대전)
38	충남조각회	1974	· 공주교육대학 출신 작가, 충남 최초 조각가 단체 · 재학생 동아리 '청조회' 출신 졸업생 모임 · 《제1회 충남조각회전》(7.3~7, 공주문화원)
39	그릴회	1975	·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 서양화 동문 단체 · 재학생 동아리 '빌리잔' 출신 졸업생 모임 · 《제1회 그릴회》(5.6~10, 공주문화원)
40	금강미회	1975	· 공주 시내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 모임 · 《금강미회》(공주문화원)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41	19751225 그룹	1975	· 송전대학교 재학생 실험미술 그룹 · 1976년 《제1회 19751225전》(5.7~13, 홍명미술관)
42	두령	1976	· 목원대학교(김학원, 복원규, 조재성, 허진권) 재학생 그룹 · 《두령전 창립전》(10.3~9, 대전문화원)
43	르뽀동인회	1976	· 대전 추상화 1세대 작가 모임 · 홍익대학교 졸업생 모임 · 《제1회 르뽀동인회전》(5.19~24, 대전문화원)
44	서미회	1976	· 서산 출신 미술인 모임 · 초기 미술교사가 주축, 서산 출신 출향 작가 동참 · 《제1회 서미회(瑞美會)전》(향원다실)
45	아사달회	1976	· 1976년 3월 17일 부여에서 창립 · 창립전인 《향토미전》 개최(11.6~11.13, 부여문화원)
46	한국미협 천안지부	1976	· 1976년 6월 1일 창립총회, 11월 24일 한국미협의 승인 · 초대 지부장 신양섭 · 《한국미협 천안지부 창립회원전》(12.24~30, 백궁다방)
47	토형회	1977	· 공주교육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조소 전공 연합 단체 · 《토형회전 창립》(5.16~21, 홍명미술관)
48	한발목지회	1977	· 임영순 문하생 모임, 1977년 4월 15일 창립 · 《제1회 한발목지회전》(대전여성회관)
49	대전'78세대	1978	· 목원대학교 출신 작가 중심 · 《제1회 대전'78세대전》(10.14~18, 대전문화원)
50	목목회(木墨會)	1978	· 목원대학교 미술과 동양화 전공 동문 단체 · 《제1회 목목회전》(12.1~?, 대전문화원)
51	송전대 미술동문	1978	· 《제1회 송전대 미술동문전》(6.30~7.7, 홍명미술관)
52	청림회	1978	· 송전대학교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 동문 단체 · 강구철, 이재호, 이계길 등이 청림회 출신 작가 · 《창립 청림회전》(5.27~31, 대전문화원)
53	한길회	1978	·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동문 단체 · 《한길미전 창립전》(10월, 공주문화원)
54	북우회	1979	· 대전북중 · 고등학교 미술교사 임양수와 제자 모임 · 《제1회 북우전(北友展)》(9.6~10, 홍명미술관)
55	이신회	1979	· 한국미협 대전지부 소속 작가 중 구상회화 분야 작가 단체 · 《제1회 이신회(以新會)전》(10.21~24, 대전문화원) · 1988년 대전구상작가회로 명칭 변경
56	창미회	1979	· 《창립 창미전》(10.1~5, 홍명화랑)
57	충남디자인협회	1979	· 공예 · 디자인 분야 작가 단체 · 대전 지역 대학교 교수 5명(강지민, 남홍태, 이종훈, 정해조, 최영근)이 창립 ·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전》(12.4~8, 남계화랑)
58	공주고미술동문회	1980	· 《공주고미술동문창립전》(10.26~11.2, 공주문화원)
59	금강현대미술제	1980	· 1980년 11월, 6박 7일간 진행한 미술행사 · 《금강현대미술제》(11.16~22, 공주 금강변)
60	뽕 그래픽	1980	·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자 모임 · 《창립 뽕 그래픽전》(9.24~27, 대전시민회관)
61	미림회	1980	· 대전 미림화실 모임 · 《제1회 미림미전》(12.16~20, 신신화랑)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62	송전조각회	1980	· 대전 최초의 조각가 단체 · 송전대학교 조각과 졸업생 모임 · 1983년 3월 한밭조각회로 단체명 변경 · 《송전조각회 창립전》(3월, 대전시민회관)
63	아미회	1980	· 1980년 여름 창립, 아산군미술교사회 · 《제1회 아미전》(11.26~12.1, 온양신평)
64	호동인회	1980	· 임병립(임립) 화실 출신 작가 단체 · 《창립 호동인전》(12.13~17, 오원화랑)
65	창공회	1980	· 공주교육대학교 공예 전공 졸업생 단체 · 《제1회 창공회전 精工전》(9.13~16, 공주문화원)
66	투영회	1980	· 《투영회전》(4.19~23, 대전시민회관) · 성시복, 이평규, 이강호, 전형주, 유영석 등 참여
67	Group 80~1	1980	· 《제1회 Group 80~1》(12.20~24, 대전문화원)
68	금동인회	1981	· 금산고등학교 미술반 출신 작가 단체 · 1988년부터 금산문화원 소속 단체로 등록 · 《금동인회 창립전》(9월)
69	드름염색회	1981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섬유 전공자, 대전 · 충남 최초의 섬유예술 단체 · 《드름섬유조형전》(5.1~6, 대전시민회관)
70	미구스	1981	· 송전대, 목원대, 공주사대, 중앙대 미술과 모임 · 《미구스동인전》(2.14~18, 대전시민회관)
71	송산서화회	1981	· 《제1회 송산서화전》(11.19~22, 가톨릭문화회관) · 윤익선, 공귀임, 구달희, 이완중, 차숙자, 구자선, 권영수, 김길수, 김동선, 김순남 등 참여
72	야투	1981	· 야투의 문자적 의미: 야(野, 들 · 자연)와 투(投, 던지다)의 합성어, 농구 용어 · 《제1회 야투현장미술연구회전》(8.14~19, 금강백사장)
73	오오현대미술동인	1981	· 임동식, 지식철, 유동조, 고승현, 허진권 참여 · 五悟: '다섯 명이 진리를 때닫는다' 는 의미 · 《창립 오오현대미술동인전》(6.20~28, 공주문화원)
74	한국미협 공주지부	1981	· 1981년 9월 22일 한국미협 인준 · 초대 지부장 공주교육대학교 안종호 교수 · 《한국미협 공주지부 창립전》(10.18~25, 공주문화원)
75	화촌회	1981	· 1981년 12월 24일 결성, 서산 미술인 단체 · '그림 그리는 마을'이라는 뜻 · 《화촌회 창립전》(1982.5.29.~6.5, 서산문화원)
76	도원회	1982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도자공예 전공 재학생 단체 · 《제1회 도원회전》(12.18~24, 동양백화점)
77	목원조각회	1982	· 《제1회 목원조각회전》(12.23~27, 대전시민회관)
78	미로회	1982	· 배재대학교 출신 회화 작가 모임 · 《미로회전》(3월, 대전문화원)
79	일청회	1982	· 기산(箕山) 정명희 제자 모임 · 《제1회 일청회전》(10.4~9, 대전시민회관)
80	학동인회	1982	· 당진시 초 · 중 · 고 미술 교사 참여, 당진 지역 최초의 미술단체 · 《제1회 학동인전》(11월)
81	남계문하서숙	1983	· 서예가 남계 조중국 문하생 모임 · 《제1회 남계문하서숙전》(8.27~2, 대전시민회관)
82	세라비	1983	· 공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서양화 전공자 모임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83	수석회	1983	· 《수석회원미전》(8.15~21, 천안문화원)
84	우경회	1983	· 《제1회 우경회전》(2.16~22, 대전시민회관)
85	울림미술회	1983	· 1990년 《제5회 울림 미술전시회》(10. 9~12, 공주문화원) 개최
86	청영회	1983	· 《청영회사진전》(2.5~3.5, 영상화랑)
87	충남한국화협회	1983	· 1983년 6월 11일 발기인 총회, 창립 당시 협회장 조평휘, 부회장 정명희 · 《제1회 충남한국화협회전》(11.7~12, 신신화랑)
88	한국미협 서산지부	1983	· 1983년 7월 16일 창립 · 창립 당시 지부장은 정철국 · 《한국미협 서산지부 창립전》(9.3~7, 서산문화원)
89	한목회	1983	· 《제1회 한목회전》(10.26~28, 대전문화원) · 권경태, 김병섭, 민윤식, 성장경, 정황래 등 참여
90	계룡사우회	1984	· 대전 사진가 단체, 계룡산과 금강 촬영 작가 단체 · 《제1회 계룡사우회전》(3.1~4, 대전시민회관)
91	구주회(九州會)	1984	· 공주사범대학 졸업생 여성화가 모임 · 《제1회 九州전》(2.25~27, 반도화랑)
92	대전실험작가회	1984	· 1984년 1월 1일 창립 · 실험작가 11명, 명예회원 5명 창립전 참여 · 《제1회 대전실험작가회전》(6.9~17, 반도화랑)
93	벽·바닥, 그리고 의식	1984	· 공주사범대학 동문 5명(이경우, 이동구, 이응우, 이종관, 임재광) 참여 · 《벽·바닥, 그리고 의식전》(2.25~29, 대전시민회관)
94	예산미술협회	1984	· 예산중등미술교사협회(1979년 결성)가 발전 · 1984년 예산미술협회로 명칭 개칭 · 《예산미술협회 창립전》(12.1~4, 예산문화원)
95	철길사우회	1984	· 《철길사우회전》(4.13~17, 대전시민회관)
96	충남시각디자이너협회	1984	· 《제1회 충남시각디자이너협회전》(10.15~21, 반도화랑)
97	충남판화협회	1984	· 대전 판화가 단체 · 유병호, 정장직, 정길호, 홍용선, 김진, 백철 6명, 창립전 참여 · 《제1회 충남판화협회전》(6.2~8, 반도화랑)
98	태우회	1984	· 《제1회 태우회전》(8.16~18,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관)
99	한남79	1984	· 《제1회 한남79전》(5.19~25, 영상화랑)
100	금강토회	1985	· 한남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도자 전공자 단체, 2회 전시 후 종료 · 《제1회 금강토회전》(9.7~15, 반도화랑)
101	녹양회	1985	· 《제1회 배재대학 녹양회 졸업사진전》(1.19~31, 영상화랑)
102	대전현대조각회	1985	· 1985년 1회 전시 후 해체, 창립전 회장 남철 · 《제1회 대전현대조각회전》(11.22~28, 현대갤러리) · 1989년 대전현대조각가협회 발족의 기폭제
103	영우회	1985	· 《제1회 영우회사진전》(6.15~19, 대전문화원)
104	정산고미전	1985	· 청양 정산고등학교 미술부 단체 · 《제1회 정산고미전》(11.28~12.2, 청양 예원사화랑)
105	존재회	1985	· 배재대학교 출신 작가 모임 · 《제1회 존재전》(5.4~10, 반도화랑) · 김병휘, 도병락, 유영석, 윤장열, 최무경 등 참여
106	창형회(創形會)	1985	· 한남대학교 출신 주축, 대전 구상회화 작가 모임 · 창형(創形): '새로운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 · 《제1회 창형전》(3.16~22, 반도화랑)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07	충남대산업디자인회	1985	· 《제1회 충남대산업디자인회전》(6.15~21, 반도화랑)
108	충남수채화협회	1985	· 대전 수채화 작가 단체 · 1989년 '대전수채화협회'로 개칭 · 《제1회 충남수채화협전》(7.6~12, 반도화랑)
109	충남조각연구회	1985	· 충남대학교 조소 전공자 모임 · 《제1회 충남조각연구회전(1986)》(4.14~20, 대전시민회관)
110	칠칠다섯조각회	1985	· 한남대학교 77학번 조각 전공 단체, 3회전 후 종료 · 《제1회 칠칠다섯조각전》(12.6~12, 반도화랑) · 고웅곤, 박수용, 변수현, 오수석, 이상돈 등 참여
111	터Group	1985	· 한남대학교 출신 실험미술 작가 모임 · 《제1회 터Group전》(3.22~28, 대전시민회관)
112	형상전	1985	· 구상, 비구상 평면회화 작가 단체 · 《제1회 형상전》(3.23~29, 대전시민회관)
113	대전예사회	1986	· 대전 사진 작가 모임 · 《제1회 대전예사회전》(4.16~20, 대전시민회관)
114	목과자연	1986	· 《제1회 목과자연전》(4.19~23, 대전문화원)
115	오버(OVER)	1986	· 배재대학교 미술교육학과 현대미술 연구 모임 · 《제1회 OVER전》(5.10~15, 대전 현대갤러리)
116	일신회	1986	· 《제1회 일신전》(5.24~30, 현대갤러리) · 이인영, 인완중, 조중국, 임립, 이근순 등 참여
117	충남서단회	1986	· 《제1회 충남서단전》(11.1~7, 대전시민회관)
118	충남대미술과동문회	1986	· 《제1회 충남대미술과동문전》(11.6~12, 대전문화원)
119	토방회	1986	· 공주사범대학 회화 전공 동문 모임
120	한발사우회	1986	· 《제1회 한발사우회전》(11.1~6, 대전시민회관)
121	OPUS	1986	· 《제1회 OPUS전》(10.14~19, 쌍인갤러리)
122	늘갈회	1987	· 공주교육대학교 한국화 전공자 동문 단체 · 《늘갈회 창립전》(공주교육대학교)
123	연우회(硯友會)	1987	· 《제1회 연우회전》(10.13~19, 대전 MBC문화공간)
124	충남서양화회	1987	· 충남대학교 서양화과 동문 단체
125	한국미협 온양·아산지부	1987	· 1987년 6월 11일 한국미협 온양지부로 인준 ·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의 통합 후 한국미협 아산지부로 명칭 변경 · 《한국미협 온양지부 창립전》(5.4~5.10, 온양 프라자쇼핑)
126	PURE	1987	· 《천안PURE전》(10.12~16, 천안문화원)
127	금강조각회	1988	·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조소 전공자 모임 · 1988년 1월 공주문화원에서 창립전
128	다시각	1988	· 목원대학교 서양화 전공 여성 작가 단체 · 《제1회 다시각전》(6.2~6, 대전시민회관)
129	목가와 신조형체	1988	· 충남대학교 미술학과 동양화 전공 동문 단체 · 《제1회 신세대 목채전》(5.11~16, 대전 MBC문화공간) · 1995년 제5회 전시부터 '목가와신조형체'라는 단체명 사용
130	배연회	1988	· 배재대학교 회화 작가 단체 '미로회'에서 한국화 작가 모임 분리 · 《제1회 배연전》(10.21~27, 대전 쌍인미술관)
131	아귀-토(土) 조각회	1988	· 한남대학교 출신 조각 작가 단체 · 《창립 8778 조각전》(11.6~19,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관)
132	우전서회	1988	· 《우전서회 창립전》(공주문화원)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33	천안미술작가회	1988	· 1988년 5월 천안 출신 작가 11명 참여 · 창립 당시 '천안미술인회' · 1989년 8월 '천안미술작가회'로 개칭 · 《천안미술인회 창립전》(9.12~?, 천안시민회관)
134	청란회	1988	· 《청란회 창립전》(공주문화원)
135	화이트 포름	1988	· 미상
136	한국미협 논산지부	1988	· 1988년 1월 창립 추진위원회 결성 · 1988년 10월 13일 한국미협 인준 · 초대 지부장 김희직 · 《한국미협 논산지부 창립전》(12.17~22, 태림상가)
137	한국미협 부여지부	1988	· 초대 지부장 정찬국 · 《한국미협 부여지부 창립전》(5.16~21, 논산 박산부인과 전시실) · 1999년 《제1회 부여국제현대조각 심포지움》 개최
138	한의사우회	1988	· 《제1회 한의사우회전》(6.27~7.2, 대전시민회관)
139	현강연서회	1988	· 현강 박홍준 문하생 서예가 단체 · 《현강 연서회 서예전》(10.16~20, 대전시민회관)
140	홍주예묵회	1988	· 홍성 서예가 단체
141	대전디자인협회	1989	· 미상
142	대전조각가협회	1989	· 1985년 창립 '대전현대조각회'의 재결성 · 창립 당시 회장 남철 · 《제1회 대전조각가협회전》(10.10~19, 대전미술관)
143	대전한국화회	1989	· 1989년 대전 직할시 승격 후 충남한국화협회와 분리 · 창립 당시 회장 조평휘 · 《대전한국화회 창립전》(2.24~3.1, 대전 MBC문화공간)
144	목원한국화회	1989	·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재학생 단체 · 《제1회 목원한국화회전》(9.8~13, 대전현대갤러리)
145	석정서실 연지회	1989	· 《제1회 석정서실 연지회전》(11.3~10, 대전 MBC문화공간)
146	신세대	1989	· 천안 미술가 단체 · 《제1회 신세대전》(6.16~20, 천안문화원)
147	장연회	1989	· 대전 서예가 단체, 장암 이근순 제자들의 모임
148	천안(충남)수채화협회	1989	· 1989년 10월 창립 발기인 대회 개최 · 1993년 충남수채화협회로 개칭 · 《천안수채화협회 창립전》(7월, 천안문화원)
149	천안여류화가회	1989	· 《천안여류화가회전》(11.18~24, 천안 로얄백화점) · 성정숙, 김미혜, 정금옥, 이춘희, 이영순, 채금옥, 오영순 등 참여
150	천안한국화회	1989	· 천안미술협회 한국화 분과 모임 · 《천안한국화회 창립전》(10.19~25, 천안시민회관)
151	충남흑백사진연구회	1989	· 1989년 4월 22일 창립총회, 창립 당시 회장 조임환 · 흑백사진 연구와 회원간 사진 기술 교환을 목적으로 창립 · 《충남흑백사진연구회창립전》(6.5~8, 대전시민회관)
152	MOVE	1989	· 충남대학교 산업미술학과 공예 전공자 모임 · 《제1회 MOVE전》(5.15~19, 대전 MBC문화공간)
153	대전의 숨결전	1990	· 《창립 대전의숨결전》(대전문화원) · 1996년 '대전공예가협회'로 단체명 변경
154	보문사진예술연구회	1990	· 《보문사진예술연구회창립전》(3.17~21, 대전문화원)
155	서해조형작가회	1990	· 당진, 서산, 태안 일대 미술교사, 미술학원 강사 등 참여 · 《창립 서해조형작가전》(11.17~20, 서산미술관)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56	천안서예인회	1990	· 《천안 서예인회 창립전》(6.1~5, 천안문화원)
157	한국미협 예산지부	1990	· 1984년 창립 예산미술협회에서 출발, 1990년 한국미협 인준 후 한국미협 예산지부로 개칭 ·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창립전》(12.14~19, 예산문화원)
158	현대미술교류회	1990	· 현재 대전현대미술협회 · 《제1회 현대미술교류회전》(9.10~16, 대전문화원)
159	46번가판화가회	1990	· 1990년 12월 대전 판화가 단체 · 《46번가판화가회전》(12.20~26, 대전 롯데호텔 갤러리)
160	창이회	1991	· 《제2회 창이회(創梨會)전》(1992. 4.10~15, 대전 현대화랑)
161	타타타	1991	· 《제1회 타타타전》(1.31~2.5, 대전문화원)
162	한국사협 천안지부	1991	· 《제1회 한국사협천안지부사진전》(10.2~?, 천안시민회관)
163	대전도예가회	1991	· 대전에서 활동하던 도예가 12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 · 대전의 1세대 도예가 이종수, 목원대학교 황웅식, 충남대학교 최병진, 중부대학교 이춘혜 등 참여 · 《대전도예가회창립전》(7.22~28, 대전문화원)
164	대전섬유조형회	1991	· 창립 당시 회장 목원대학교 김영순 교수 · 《대전섬유조형회창립전》(10.24~30, 대전문화원)
165	마음껏표출해보고자...	1991	· 《제1회 마음껏표출해보고자...전》(7.20~25, 대전시민회관)
166	만화예술회	1991	· 《제1회 만화예술전》(11.6~11, 공주문화원)
167	목원판화회	1991	· 《제1회 목원판화전》(11.28~12.4, 대전 수갤러리)
168	백제사우회	1991	· 《백제사우회 창립전》(9.6~8, 공주문화원)
169	창이회(創梨會)	1991	· 대전 거주 이화여자대학교 동·서양학과 동문 단체
170	한원회(한원조각회)	1991	·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문 단체 · 1995년 한원조각회로 개칭 후 조각 전공자들만 활동
171	대전카톨릭사진가회	1992	· 《대전카톨릭사진가회창립전》(5.7~12, 대전문화원)
172	충남산업디자인협회	1992	· 미상
173	한국미협 대전지부(현 보령지부)	1992	· 1992년 4월 12일 대전에서 창립 · 창립 당시 지부장 조각가 박명규 · 《한국미협 대전지부 창립작품전》(10.14~18, 대전문화원)
174	화우회	1992	· 《화우회 창립전》(8.6~8.11, 대전문화원)
175	대전금속조형회	1993	· 대전 연고의 금속공예가 단체 · 《대전금속조형회 창립전》(10.22~28, 대전 흥인갤러리) · 교수, 교사, 전업 작가, 대학원생 등 13명
176	묵상회	1993	· 《묵상회 도화작품전》(12.20~31, 대전 대화문화사랑)
177	연합전신포토클럽	1993	· 《연합전신포토클럽 창립전》(12.18~21, 천안시민회관)
178	예경회	1993	· 대전 한국화 중견작가 단체, '예술을 갈고 닦는 사람들의 모임' · 1994년 《제2회 예경회 한국화전》(11.7~11, 대전시민회관)
179	예전사우회	1993	· 《예전사우회 회원전》(6.3~7, 대전시민회관)
180	화연회(畫緣會)	1993	· '그림으로 인연을 맺은 모임' · 《대전의 중견-8인작가 초대전》(5.14~20, 대전 오원화랑) 전시 후 결성, 중견작가 단체
181	대전미술교육연구회	1994	· 대전 미술교사 단체 · 《대전미술교육연구회전》(10.18~19, 대전 현대갤러리)
182	대전초등교원미술회	1994	· 《대전시초등교원미술전》(10.10~14, 대전시민회관)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183	빛과얼 사진연구회	1994	· 《빛과얼 사진예술연구회원전》(12.15~18, 대전시민회관)
184	원목회	1994	· 목원대학교 서예 동아리 '목원서예연구회' 출신 동문 단체 · 《원목회 동문전》(12.15~18, 대전 신금갤러리)
185	충남대의대생미술동호회	1994	· 《충남대의대생미술동호회전》(8.21~24, 대전 MBC문화공간)
186	탐목회	1994	· 대전 간호전문대 서예 동아리 '백의 목연회' 출신 서예 작가 모임 · 《탐목회전》(12.12~15, 대전 삼성생명갤러리)
187	한발여성회	1994	· 《제1회 한발여성회회원전》(11.19~23, 대전시민회관)
188	한벽회	1994	· 《한벽회 한국화전》(11.24~28, 대전시민회관)
189	한빛예사회	1994	· 《한빛예사회전》(11.26~2, 대화문화사랑)
190	한우리사진동우회	1994	· 《한우리사진동우회 창립전》(2.6.~28, 서인화랑)
191	홍성미술협회	1994	· 1994년 5월 홍성미술협회 창립 · 《제1회 홍성미술협회 창립전》(9.28~10.1, 홍성문화원) · 1998년 12월 한국미협 홍성지부로 정식 인준
192	86모임	1994	· 《86모임전》(9.5~10, 대화문화사랑)
193	대전가톨릭미술가회	1995	·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12.22~28, 대전 흥인갤러리)
194	소원회	1995	· 20대 젊은 작가 중심의 서예 단체 · 《제1회 소원회 임서전》(12.21, 대전중구문화원)
195	충남민족미술협의회	1995	· 1995년 5월 창립 준비회 발족 · 1995년 6월 토론회, 7~8월까지 대전·당진 전시 개최 · 《충남민족미술협의회 창립전》(7.31~8.14, 대전시민회관)
196	르스폰타네	1996	· 《제1회 르스폰타네전》(4.26~27, 대전 MBC문화공간)
197	백합사우회	1996	· 《백합사우회 창립전》(10.2~5, 대전 삼성금융갤러리)
198	예미회	1996	· 《예미회 4인전》(7.28~9.6, 대전 교보아케이드갤러리)
199	옥목회	1996	· 《옥목회전》(9.1~7, 한림갤러리)
200	청년작가실험회	1996	· 《제1회 청년작가실험전》(7.5~11, 대전중구문화원)
201	채목회	1996	· 《채목회 창립전》(10.13~16, 대전시민회관)
202	화목회	1996	· 《화목회전》(9.5~15, 창신이벤트홀)
203	한국미협 당진지부	1996	· 1996년 4월 26일 한국미협 인준 · 창립 지부장 박기호 · 《한국미협 당진지부 창립전》(11.23~30)
204	가은서회	1997	· 《가은서회전》(12.12~18, 대전 MBC문화공간)
205	다담회	1997	· 대전 여성회관 한국화반 모임 · 《다담회 회원전》(12.5~12, 대전시민회관)
206	미라솔화회회	1997	· 《미라솔 회화전》(12.22~27, 대전시민회관)
207	오룡사우회	1997	· 《오룡사우회전》(11.1~3, 천안문화원)
208	초연회	1997	· 해강 김해선 문하생 단체 · 《초연회전》(11.27~12.1, 대전 MBC문화공간)
209	탈박	1997	·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단체 · '탈을 쓴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 · 1998년 《제2회 탈박전》(7.15~21)
210	대덕사진가협회	1998	· 《대덕사진가협회 창립전》(7.9~14, 대전중구문화원)
211	대전미술창작마을	1998	· 대전 동구 옹호동 폐교 활용, 창작마을 조성 · 작가 작업공간 겸 단체 명칭 · 《대전미술창작마을 창립전》(12.14~2.15, 대전미술창작마을)

번호	단체명	창립연도	개요
212	대전서연회	1998	· 1999년 《제2회 대전서연회전》(12.23~29, 대전 현대갤러리)
213	맥전회	1998	· 《맥전》(7.18~24, 대전시민회관)
214	아름사우회	1998	· 《아름사우회 창립전》(6.18~23, 삼성생명갤러리)
215	예강회	1998	· 《제2회 예강서예전》(5.28~6.1, 대전시민회관)
216	정담묵연회	1998	· 《제2회 정담묵연회전》(1999. 10.11~16, 대전시민회관)
217	채원회	1998	· 《채원회 창립전》(3.19~25, 대전 삼성생명갤러리)
218	한국전업미술가회 대전·충남협회	1998	· 《한국전업미술가회대전·충남협회 창립전》(11.1~7, 대전시립미술관)
219	대전여류화가회	1999	· 《대전여류화가회 창립전》(5.7~13, 대전중구문화원)
220	솔빛회	1999	· 《솔빛 창립전》(10.2~8, 대전 삼성생명갤러리)
221	수목마당회	1999	· 《수목마당 회원전》(6.24~30, 대전 삼성생명갤러리)
222	이소회	1999	· 《이소회전》(1.23~28, 대전 동양타임월드갤러리)
223	컴퓨터그래픽TOBE	1999	· 《제1회 컴퓨터그래픽 TOBE전》(3.15~20, 대전 삼성생명갤러리)
224	흑백사진연구회 예당	1999	· 《흑백사진연구회 예당 창립전》(6.13~19, 대전시민회관)

3. 충남 교육기관 및 미술교육자 목록

1) 해방 이전 충남의 교육기관과 미술교육자

[표1-1] 해방 이전 충남의 중등학교 개황

번호	학교명	설립연월일	교명
1	공주 영명학교	1906. 10. 5 1932. 4. 1 1941. 7. 20	공주사립영명학교 공주사립영명실수학교 강제 폐교
2	예산농업학교	1910. 7. 26 1922. 4. 1	공주농립학교 예산공립농업학교(예산 이전)
3	대전중학교	1917. 4. 1 1918. 4. 1 1921. 4. 1	관립경성중학교 대전 분교 관립 대전중학교 공립대전중학교(일본인학교로 소수 한국학생 재학)
4	대전여자중학교	1918. 4. 1	대전여자중학교(일본인학교로 소수 한국학생 재학)
5	강경상업학교	1920. 4. 1	강경공립상업학교
6	공주여자사범학교	1922. 4. 1 1938. 4. 1	충남공립사범학교(남여공학) 공주관립여자사범학교
7	공주중학교	1922. 4. 23 1923. 4. 9 1938. 4. 1	공주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공주공립보통학교 개교 공주공립중학교
8	조치원고등학교	1926. 4. 29	조치원공립농업보습학교
9	서산농업전수학교	1927. 4. 1	서산공립여자농업보습학교 서산여자공립보습학교
10	신창여자농업전수학교	1927. 4. 1 1944. 4. 1	신창공립농업전수학교 신창공립농업보습학교
11	조치원여자고등학교	1927. 4. 15	조치원공립실업여학교
12	대전공업학교	1927. 5. 20 1935. 4. 1 1944. 4. 1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대전공립공업전수학교(대전 이전) 대전공립공업학교(4년제)
13	공주고등학교	1928. 2. 28	공주공립고등여학교
14	당진농업전수학교	1929. 5. 7 1935. 6. 14 1944. 4. 1	면천공립농업보습학교 면천공립농업실수학교 당진공립농업전수학교
15	천안농업학교	1930. 4. 1 1933. 6. 4 1937. 6. 15 1940. 5. 14	천안공립농잠보습학교 천안공립농업실습학교 천안공립농업전수학교 천안공립농업학교
16	청양농업전수학교	1932. 6. 27 1944. 4. 1 1949. 4. 1	정산농업실수학교 청양공립보습학교 청양농업전수학교

번호	학교명	설립연월일	교명
17	공주농업학교	1933. 3. 13	공주공립농업학교
18	홍성농업학교	1935. 5. 25 1945. 4. 1	홍성공립농업실수학교 홍성공립농업학교
19	강경고등학교	1936. 4. 22 1943. 4. 22	강경공립실과여학교 강경공립고등여학교
20	논산농업학교	1936. 4. 22 1945. 3. 31.	논산공립실수학교 논산공립농업학교
21	대동고등여학교	1937. 3. 31 1938. 4. 1	대전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대동공립고등여학교
22	홍성중학교	1941. 3. 26	홍성공립중학교
23	예산실과여학교	1941. 4. 24	예산공립실과여학교
24	대전사범학교	1943. 4. 1	관립대전사범학교, 갑종중학교
25	서산농림학교	1943. 4. 1	서산공립농림학교
26	대전농업전수학교	1944. 3. 1	대전공립농업전수학교
27	금산농업학교	1945. 4. 1	장항공립농업학교

[표1-2] 충남 거주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교육자

번호	교사명	학교명	재직기간	조선미술전람회 입상 경력
1	이경배	공주중학교 온양중학교 대전중학교		8회(공주) 〈墨蘭〉 9회(공주) 〈菊〉 10회(공주) 〈幽谷香〉 11회(공주) 〈石蘭〉
2	박창래	충남 신암초등학교 교사	1953	3회(조치원) 〈문명사해(文明四海)〉
3	송병돈	공주 영명여학교	1930	3회(공주) 〈初夏의 錦江〉 5회(공주) 〈早春〉, 〈五月의 H양〉
4	이창규	천안보통학교 교사	1928~1930	9회(천안) 〈시골의 봄(田舎の春)〉
		청양 정산보통학교 교사	1931~1932	10회(청양) 〈丘〉 11회(청양) 〈春の村〉
5	구종서	충남 도내 중고등학교 교장	1945~	10회(공주) 〈早春의 風景〉
6	박성섭	대전사범학교 교사	1945~1947	10회(청양) 〈壁泉里春色〉 11회(청양) 〈靜物〉
7	권중록	대전 제1공립보통학교 훈도	1925~1935	11회 〈초가을의 시골〉 12회 〈시내가 있는 풍경〉
		강경상업학교	1936~1937	
		강경중정심상소학교	1938~1939	
		홍성군 장학사	1952	
8	박봉재	예산의 광시보통학교 교사	1934	13회 〈다리가 보이는 풍경〉
		대전제일보통학교	1935~1937	
		대전영정심상소학교	1938~1939	
		대전의 산내심상소학교	1940	
9	김두환	김두환회화연구소 예산농업중학교	1945	19회 〈어린이(子供) 2〉, 20회 〈일하는 기쁨(働く喜び)〉 21회 〈어머니(あまさん)〉

10	김화경	천안지역 중등교사	해방 후~1960년대	21회(아산) 〈三人의女〉 22회(아산) 〈溫陽郊外〉
11	이팔찬	공주여자사범학교 교사	1942년~1946	21회(공주) 〈雪暮〉 22회(공주) 〈支那의 婦人〉

[표1-3] 일제강점기 충남에서 활동한 일본인 교사

번호	교사명	학교명	재직기간	조선미술전람회 입상 경력
1	고바야시 다케후미 (小林武文)	강경공립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23~1926	3회(1924, 논산) 〈五月의의或日〉
		공주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27~1928	
		홍산심상소학교 訓導	1929	
2	아시타 칸 (明日 勘)	공주보통학교 訓導	1927	
		이인보통학교 訓導	1928	
		성환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29	
		부여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30~1932	11회(부여) 〈인물〉 특선
		당진 송산보통학교 訓導	1933~1934	12회(당진) 〈인물(男)〉 총독상 13회(당진) 〈인물〉, 〈풍경 秋〉
		조치원보통학교 訓導	1935~1937	14회(조치원) 〈老人〉(특선) 15회(조치원) 〈親子〉, 〈靜物〉(무감사) 16회(조치원), 〈兄弟〉
		조치원침산심상소학교 訓導	1938~1939	17회(조치원) 〈教室の一隅〉, 〈夏庭〉 18회(조치원) 〈조일(朝日)〉
		광석심상소학교 訓導	1940	
		광석국민학교 訓導	1941	
	계룡국민학교 訓導	1942~1943		
3	다카시마 이사오(高鳥 功)	대전고등여학교 囑託教員	1929-1932	9회(대전) 〈靑い服を着たる男〉 10회 〈野菜籠を持乙る女〉 11회 〈婦人座像〉
		대전고등여학교 教諭	1933~1942	12회(1933) 〈파이프 持한 男〉 16회(1937) 〈兄弟〉 17회(1938) 〈아이들(子供達)〉 18회(1939) 〈秋의 小兒〉 20회(1941) 〈飛行機이야기〉 21회(1942) 〈老母〉 22회(1943) 〈座像〉
4	사이토 오미시로 (齋藤三四郎)	대전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29~1931	제10회(대전) 〈초가을 풍경〉
		규암리심상고등소학교 교장	1933~1936	
		동명심상소학교 교장	1938~1940	
		공주여자사범학교 교사	1942	
5	모리 가츠미 (毛利克己)	대전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30	9회(1930) 〈斜陽〉
6	요시하라 고조 (吉原甲藏)	조치원소학교		10회(충남) 〈부인좌상〉
7	이시바시 요시로 (石橋吉郎)	대전중학교 教諭	1931~1942. 4	14회(대전) 〈淺春〉(특선), 〈菊〉 15회(대전) 〈春野〉 16회(1937) 〈金剛清秋〉

8	도요나가 시게유키 (豊永重行)	서천군 시초보통학교 訓導	1933~1936	
		논산 두마보통학교 訓導	1937	
		논산 두마심상소학교 訓導	1938~1940	18회(논산) 〈早春〉 19회(논산) 〈5월의 언덕(五月ノ丘)〉
		대전본정국민학교 訓導	1941~1942	21회(대전) 〈소녀〉 22회(대전) 〈少年劔士〉
9	미노우라 미치코 (箕浦道子)	대전심상고등소학교 訓導	1937	11회(1932) 〈정물〉
10	다나카 덴키치 (田中傳吉)	공주여자사범학교 敎諭	1938~1940	17회(1938) 〈讀書〉 18회(1939) 〈勤勞報國〉
11	후루타 요시헤이 (古田嘉平)	대동고등여학교 敎諭	1939	10회(대전) 〈靜物〉 16회(1937) 〈朝鮮婦女坐像〉 17회(1938) 〈기타있는 靜物〉
		대전공업전수학교 敎諭	1939	18회(1939) 〈犬과 스토브〉
		대동고등여학교 敎諭	1940~1942	20회(1941) 〈自畫像〉 22회(1943) 〈少女와 彫刻〉
12	가이 스스무 (甲斐進)	대전 진잠심상소학교 訓導	1939	
		논산 두마심상소학교 訓導	1940	
		아산 선장국민학교 訓導	1941	
		대전 영정국민학교 訓導	1942	22회(대전) 〈靑자켓〉
13	사노 마타오 (佐野 又雄)	공주여자사범학교 敎諭	1942	21회(1942) 〈再編〉
14	사토 신마로 (佐藤 信麿)	대전춘일국민학교 訓導	1942	20회(대전) 〈언덕의 집(丘の家)〉 21회(대전) 〈地圖に見る子供〉 22회(대전) 〈푸른 세타〉, 〈봄風景〉

2) 충남 소재 미술대학 교수 목록

[표2-1] 공주(여자)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 1963~)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김기숙(金基淑, 1924~2002)	교수	미술교육과	1963~1969
2	안종호(安鐘祐, 1926~1986)	교수	미술교육과(목공예)	1963~1986
3	이남규(李南圭, 1931~1993)	교수	미술교육과	1965~1968
4	최종태(崔鐘泰, 1932~)	교수	미술교육과	1967~1968
5	조영동(趙榮東, 1933~2022)	교수	미술교육과	1967~1984
6	강신철(姜信哲, 1934~1993)	교수	미술교육과	1969-1993
7	이지휘(李志輝, 1935~)	교수	미술교육과	1968~1969
8	황교영(黃敎泳, 1939~1986)	전임강사	미술교육과	1969~1986
9	김대열(金大烈, 1951~)	교수	미술교육과	1983~2017
10	구권환(丘權煥, 1951~)	교수	미술교육과	1988~2016
11	박홍순(朴洪淳, 1953~)	교수	미술교육과	
12	백인현(白仁鉉, 1956~)	교수	미술교육과	1987~2022
13	류영석(柳泳奭, 1959~)	강사	미술교육과	
14	이병한(李炳韓, 1955~)	강사	미술교육과	1992~1994
15	박동윤(朴東潤, 1957~)	교수	미술교육과	1990~현재

[표2-2] 대전실업전문학교(현, 우송정보대학교, 1964~)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이종수(李鍾秀, 1935~2008)	교수	생활미술과	1964~1975
2	김영배(金寧培, 1939~)	교수		1980 부임
3	강지민(1946~)	교수	응용미술학	
4	고창환(高昌煥, 1952~)	교수	시각디자인	1988~1992
5	정장직(鄭章植, 1952~)	강사	상업디자인과	1981~1984
		교수		1987~ (우송정보대학)
		교수	컴퓨터디자인학부	2000~2010(우송대학)

[표2-3] 목원대학교(1972~)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윤영자(尹英子, 1924~2016)	교수	미술교육과-조소	1973~1992
2	전상수(田相秀, 1929~)	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3. 3. 1~1973. 8. 31
3	김한(金漢, 1938~2008)	전임강사	미술교육과-서양화	1974-1978
4	박창돈(朴昌敦, 1928~)	대우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4~1990
5	김철호(金哲鎬, 1925~2011)	강사	미술교육과-서양화	1975~1988
6	조평휘(趙平暉, 1932~)	교수	미술교육과-한국화	1976~1999
7	권영우(權寧祐, 1941~)	강사	미술교육과	1977~1993
8	임봉재(林奉宰, 1933~)	강사	미술교육과	1978~1982
9	이건용(李健鏞, 1942~)	강사	미술교육과	1978-1980
10	유가용		산업미술과- 목가구디자인	
11	이영길(李英吉, 1942~)	교수	조소과	1979~2007
12	정명희(鄭莫熙, 1945~)	강사	미술학부	1978-1998
13	김홍주(金洪疇, 1945~)	교수	미술교육과	1981~2010
14	김영순(金榮順, 1947~)	교수	산업미술과	1980~
16	복원규(卜元圭, 1953~)	강사	미술교육과	1980~1991
17	이용휘(李容徽, 1937~2016)	강사	미술교육과	1980~1983
18	오정길(吳正吉, 1948~)	교수	시각디자인	1984~2020
19	최태신(崔台新, 1943~)	교수	회화과	1986~2008
20	홍용선(洪容宣, 1947~)	강사	미술교육과	1982~1995
21	윤장열(尹長烈, 1953~)	강사		1985~1998
22	신현진(申鉉珍, 1955~)	강사		1985~1990
23	이은기(李銀基, 1951~)	교수	미술교육-미술이론	1987~2017
24	황만영(黃滿泳, 1941~2015)	교수	회화과	1985~
25	황용식(黃龍植, 1947~)	교수	도자디자인학과	1985~2012
26	김철겸(金哲謙, 1954~)	강사	미술학부	1986~1987
27	박동윤(朴東潤, 1957~)	강사	회화과	1986~1992
28	송인헌(宋仁憲, 1955~)	전임강사	미술교육과	1987~2015
29	강정헌(姜貞憲, 1956~)	강사		1988~1996
30	계낙영(桂洛永, 1948~)	강사		1988~
31	허진권(許鎭權, 1955~)	교수	미술학부	1988~2020
32	오세열(吳世列, 1945~)	강사	미술학부	
33	강환섭(康煥燮, 1927~2011)	강사	미술학부	1990~1991
34	김학원(金學園, 1953~)	강사	미술교육과	1991~1992
35	유영교(劉永敎, 1946~2006)	겸임교수	조각과	1999~2006
36	이창수(李昌洙, 1958~)	교수	조형콘텐츠학부	1999~

[표2-4]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1972~)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이인영(李仁榮, 1932~2021)	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5~1997
2	강광식(姜光植, 1939~)	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3~2005
3	김수평(金水平, 1942~1989)	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3~1989
4	김세원(金世源, 1940~)	교수	미술교육과-한국화	1974~2004
5	백현옥(白顯鈺, 1939~)	교수	미술교육과-조소	1976~1981
6	김관호(金琯鎬, 1945~)	강사	미술교육과	
7	최영근(崔榮根, 1948~)	교수	디자인학과	1980~2020
8	최국병(崔國炳, 1938~)	교수	미술교육과-조소	1981~2003
9	김철호(金哲鎬, 1925~2011)	강사	미술교육과-서양화	1982~1984
10	홍용선(洪容宣, 1947~)	강사	미술교육과	1982~1995
11	이재호(李在皓, 1953~)	교수	회화과-한국화	1983~2018
12	정명희(鄭冥熙, 1945~)	강사	회화과-한국화	1983~1995
13	장순업(張淳業, 1947~)	교수	회화과-서양화	1984~2016
13	박병희(朴炳熙, 1948~2019)	교수	미술교육과-조소	1985~2014
14	변건호(卞健豪, 1948~)	교수	응용미술과	1985년 부임
15	송순영(宋淳永, 1952~)	교수	응용미술학과	1985~1999
16	장준문(張俊文, 1949~)	강사	미술교육과	1985~1995
17	안재옥(安在玉, 1957~)	강사	미술교육과	1987~2012
18	김동창(金東昌, 1953~2015)	교수	미술교육과	1988~2015
19	김석기(金奭基, 1947~)	강사	미술교육과	1988~1989
21	유영교(劉永敎, 1946~2006)	강사	미술교육과	1988~1998
22	정찬국(鄭燦國, 1952~)	강사	미술교육과	1989~2012
23	신중덕(愼重惠, 1949~)	교수	회화과	1990~2014
24	유병호(兪丙昊, 1948~)	강사	회화과	1990~2010
25	이장원(李長遠, 1959~)	겸임교수	회화과	1991~2013
26	이택우(李澤雨, 1946~)	강사	미술교육과	1992~2002
27	엄기환(嚴基煥, 1959~2014)	강사	미술교육과	1992~1996
28	강구철(姜求鐵, 1958~)	교수	회화과	1993~2022
29	박동교(朴東敎, 1957~)	교수	융합디자인학과	1996~현재
30	김문식(金文植, 1951~)	교수	미술교육과	
31	신동국(申東國, 1955~)	강사		

[표2-5] 공주시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 1973~)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조병호(趙柄鎬, 1914~2005)	강사	미술교육과	
2	손정리		미술교육과(도자공예)	1975~?
3	이재희		미술교육과(디자인)	1982~2002
4	이남규(李南圭, 1931~1993)	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5~1993
5	이정갑	교수	미술교육과-조소	1976~2000
6	강길원	교수	미술교육과-서양화	1977~2004
7	강신철(姜信哲, 1934~1993)	교수	미술교육과-한국화	1978~1993
8	김정현(金正憲, 1946~)	교수	미술교육과	1980~2010
9	김경화(金敬華, 1947~)	교수	미술교육과-조소	1980~2012
10	백준기(白俊基, 1953~)	교수	만화애니메이션학부	1985~2020
11	이석구(李錫九, 1942~)	교수	미술교육과	1990~2007
12	임재우(林載右, 1947~)	강사	미술교육과	1984~
13	김명태(金明泰, 1951~)	교수	조형디자인학부	1997?~2016
14	최기성(崔基成, 1954~)	교수	미술교육과	1995~2021
15	유순식(俞淳植, 1954~)	강사	미술교육과	1997~
16	임재광(林載光, 1957~)	교수	미술교육과	2009~2022
17	이종관(李鍾貫, 1958~)	강사	미술교육과	2007~ 2013
18	이충우(李忠雨, 1952~)	교수	디자인과	2001~2017

[표2-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1979~)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나재오	교수	시각디자인과	1983~
2	장옥란	교수	공예과	1988~
3	이상태	교수	공예과	1988~

[표2-7] 배재대학교(1980~)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김관호(金琯鎬, 1945~)	강사	미술교육과	
2	임립(林立, 1945~)	교수	미술교육과	1979~1983
3	백철(白喆, 1953~)	교수	미술교육과	1979~1993
			비주얼아트디자인과	1993~
4	정해조(鄭解朝, 1945~)	교수	미술교육과 칠공예과	1980~2012
5	김치중(金致中, 1947~2012)	교수	미술교육과	1984~2012
6	박명규(朴明奎, 1942~)	강사	미술교육과	1984~
7	홍성경(洪性暻, 1953~)	강사	미술교육과	1992~2018

[표2-8] 충남대학교(1982~)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홍동식(洪東植, 1926~2003)	교수	미술학과	1982~1992
2	남철(南徹, 1936~2017)	교수	미술학과	1982~1988
			조소과	1989~2002
3	김영배(金寧培, 1939~)	교수	회화과	1983~2005
4	임립(林立, 1945~)	교수	회화과	1983~2012
5	윤여환(尹汝煥, 1953~)	교수	조소과	1986~2020
6	김영대(金榮大, 1949~)	교수	회화과	1987~
7	유병호(兪炳昊, 1948~)	강사	회화과	1990~
8	강성열(姜聲烈, 1944~2005)	강사	회화과	1989~
9	김석기(金奭基, 1947~)	강사	회화과	1991~
10	김석우(金錫宇, 1956~)	교수	조소과	1992~현재
11	김난희(金蘭姬, 1958~2016)	교수	산업미술학과	1995~2004
12	한정수(韓楨洙, 1958~1998)	교수	회화과	1994~1998
13	임미강(林美岡, 1961~)	교수	디자인창의학과	1996~현재

[표2-9]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1984~)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강성해(姜聖海)	교수	섬유디자인학과	1986~
2	박남정		섬유디자인학과	1986~
3	서한달(徐漢達, 1944~)	교수	요업디자인학과	1986~
4	강완주(姜完周, 1956~2001)	교수	요업디자인학과	
5	김영배(金榮培, 1946~1999)	교수	만화예술학과	1996~1997
6	한영섭(韓永燮, 1941~)	교수	만화학과	1985~
7	손기환		만화학과	2000~
8	최연식		만화학과	1998~
9	고경일		만화학과	2001~

[표2-10] 대전개방대학(현 국립한밭대학교, 1985~)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박세관(朴世寬, 1955~)	겸임교수	산업디자인학과	
2	김희춘	교수	산업디자인학과	1984~
3	최영보	교수	산업디자인학과	1985~
4	김진용	교수	산업디자인학과	1987~
5	신용순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1992~
6	홍미희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2003~

[표2-11]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1988~)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이일로(李一魯, 1944~)	교수	도자공예	
2	고승관(高丞觀, 1943~)	교수	금속공예	
3	곽대웅(郭大雄, 1941~)	교수	목칠공예	1986~2006
4	류재우(柳在雨, 1943~)		시각디자인	
5	오근재(吳勤在, 1941~2022)	교수	산업디자인	

[표2-12] 공주문화대학(현 국립공주대학교, 1988~)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이충우(李忠雨, 1952~)	강사	민속공예과	1989~1991

[표2-13] 호서대학교(1992~)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나성남(羅成男, 1945~)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1992~
2	이원구(李元求, 1947~)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1987~2013
3	장옥선		시각디자인학과	

[표2-14] 남서울대학교(1994~)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고성희(高聖熙, 1961~)	교수	유리조형학과	1996~
2	김형중(金亨宗, 1963~)	교수	유리조형학과	
3	편종필	교수	유리조형학과	
4	한승문	교수	시각정보디자인학과	
5	김진근	교수	시각정보디자인학과	
6	유익상	교수	시각정보디자인학과	
7	정병국	교수	시각정보디자인학과	
8	선병일	명예교수	시각정보디자인학과	
9	강수돌	교수	영상예술디자인학과	
10	최영철	교수	영상예술디자인학과	

[표2-15] 건양대학교(1994~)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박완용(朴完用, 1959~)	교수	조형예술학부	1995~
2	안의중(安義鍾, 1958~)	교수	조형예술학부	1997~2015
3	이장원(李長遠, 1959~)	강사	회화과	1997~2002
4	류철호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5	박상진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6	윤봉환	교수	시각디자인학과	

[표2-16] 한서대학교(1996~)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정지원	교수	시각디자인	
2	이규섭	교수	공간디자인	

[표2-17] 대전대학교(1998~)

번호	교수명	직위	학과	재직기간
1	정태희(鄭台禧, 1951~)	교수	서예학과	1998~2016
2	임재우(林裁右, 1947~)	강사	서예학과	1997~2015
3	박선영(朴宣映, 1957~)	객원교수		

참고문헌

신문기사(연도순)

「부흥학교진취」, 『대한매일신보』, 1910.2.13.
「조선교육회발기(朝鮮教育會發起)」, 『동아일보』, 1920.6.23.
「공주백일장 입격(入格)」, 『매일신보』, 1921.8.20.
「美展入選의 (初夏錦江)의 揮毫-공주 宋秉敦氏의 영예」, 『매일신보』, 1924.6.3.
「朝鮮美術展覽會 作品入選發表」, 『조선일보』, 1929.8.29.
「第九回 協展印象記(四)」, 『조선일보』, 1929.11.2.
「書畫協展에서 六氏作品을 特選」, 『조선일보』, 1930.10.21.
「第一回東美展合評記(上)」, 『中外日報』, 1930.4.20.
윤희순, 「第十回朝美展評」, 『동아일보』, 1931.6.9.
윤희순, 「在東京美術協會 展覽會를 보고(下)」, 『每日申報』, 1939.4.25.
「公州繪畫會, 作品出品」, 『朝鮮新聞』, 1931.11.28.
「兩畫伯展覽會」, 『동아일보』, 1931.2.18.
김주경, 「第十回朝鮮美展評(六)」, 『조선일보』, 1931.6.2.
「서화계의 서광」, 『조선일보』, 1931.9.4.
「公州繪畫會 第一回作品展」, 『조선신문』, 1932.11.27.
「洋畫展覽會 夫餘支局主催」, 『동아일보』, 1932.12.21.
「牧時會 첫展覽會-十六일부터 四日間」, 『조선중앙일보』, 1934.5.8.
배찬국, 「학생전을 보고-중학도화부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1934.10.4.
「서협전 내용」, 『매일신보』, 1934.10.20.
「협전화첩」, 『동아일보』, 1934.10.20.
석영(夕影), 「제13회 협전을 보고서」, 『조선일보』, 1934.10.25.
「협전 명일부터 공개」, 『동아일보』, 1935.10.23.
「협전 진열품(協展陳列品)」, 『동아일보』, 1935.10.26.
「조선미술(朝鮮美術)의 전당(殿堂) 서화협회 전람회(書畫協會展覽會)」, 『조선일보』, 1936.11.8.
「牧時會展 화신『홍』에서」, 『每日申報』, 1937.6.1.
「在東京美術學生綜合展」, 『每日申報』, 1938.4.15.
「문인 서화전 명일(明日) 개막(開幕)」, 『조선일보』, 1940.1.15.
「후소회전 연일 대성황」, 『매일신보』, 1940.11.7.
「전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자 388인」, 『동아일보』, 1940.6.2.
「第十九回 朝鮮美展-明日잇는 畫家들(東洋畫(타조) 初入選」, 『朝鮮日報』, 1940.6.3.
윤희순, 「후소회전 평」, 『매일신보』, 1943.10.27.
「朝鮮美術同盟發足, 兩同盟合同遂實施」, 『자유신문』, 1946.11.12.
「김한 회화연구도장」, 『중앙신문』, 1948.3.25.
「東洋畫七人展」, 『自由新聞』, 1948.9.24.
「교통부우회미술전 동화화랑에서 개최」, 『경향신문』, 1949.1.7.
「미술전 입선자 백구십칠명을 결정」, 『동아일보』, 1949.11.19.
「민국미전특선자(民國美展特選者)」, 『경향신문』, 1949.11.22.
박영선, 「제1회 국전 서양화평」, 『민성』, 1950. 1.
「이회 전국미술전 개막(二回全國美術展開幕)」, 『경향신문』, 1953.11.26.
「現代美術의 志向精神(上)·(下)」, 『동아일보』, 1955.1.7.~1.8.
박고석, 「대견한 미술교육」, 『동아일보』, 1956.7.24.
「녹청회 발족」, 『경향신문』, 1958.4.9.
「제9회 국전입선자 명단」, 『경향신문』, 1960.9.25.
김병기, 「제10회 국전을 이렇게 본다」, 『동아일보』, 1961.11.19.
「젊어지는 한국미술계」, 『동아일보』, 1962.10.4.
「젊은 세대의 동양화가들, 청토회와 산수회대전」, 『경향신문』, 1963.11.20.

「동양화단에 새그림 청토회서 5월 첫 작품전」, 『동아일보』, 1963.4.22.
「제9회 청토전」, 『조선일보』, 1969.4.20.
신봉균, 「충남청년미술인협의회 창립전을 보고」, 『대전일보』, 1970.6.24.
「백양회 상수상 결정」, 『조선일보』, 1970.11.24.
「한국화회(韓國畫會) 발표회」, 『경향신문』, 1971.5.31.
「제12회 청토전, 신세계화랑서」, 『조선일보』, 1972.5.18.
「홍대출신 산수회원전」, 『동아일보』, 1972.10.21.
「우리 미술 정통성 정립 모색-7회 한국화회전」, 『경향신문』, 1973.8.30.
「충남향우회(忠南鄉友會) 창립기념 초대」, 『경향신문』, 1973.11.10.
「한·중 공동 서예전, 3월14일 대만서」, 『조선일보』, 1974.2.13.
「30대 동양화가 현대화회 창립전, “추상 토대 현대 감각 살려”」, 『경향신문』, 1974.6.26.
「한일 서운교류전(韓日書芸交流展)」, 『매일경제』, 1976.9.17.
「상림회(桑林會) 창립회원전」, 『동아일보』, 1977.11.30.
「강산만리(江山萬里)-(13)天安(천안)」, 『경향신문』, 1978.7.12.
「상림회 2회전」, 『동아일보』, 1979.6.11.
「한국화회전 개최」, 『경향신문』, 1980.9.8.
「향맥(鄉脈)고장 문화(文化)의 현장(現場)을 찾아 예산(禮山)」, 『경향신문』, 1983.2.5.
「한국화 전통과 현대의 전환기 작품 재조명 ‘광복(光復) 1세대 화가(畫家)’들 한자리에」, 『조선일보』, 1984.2.18.
「봄미술대전 입상자」, 『경향신문』, 1984.4.16.
정창환, 「지방 현대미술 구심점 마련」, 『매일경제』, 1989.8.5.
「서예(書藝)단체 통합 박차」, 『매일경제』, 1992.2.21.
「미술전시회도 가뭇이 8월」, 『중도일보』, 1995.8.20.
「기획시리즈(28)-지역 사진작가」, 『중도일보』, 1998.5.7.
「새해·새봄맞이 근대 민화·서예전」, 『경향신문』, 1999.1.9.
「한해를 맺는 전시 풍성」, 『중도일보』, 2001.12.6.
조상영, 「실험미술그림 19751225의 출발」, 『중도일보』, 2011.3.8.
정연민, 「문화시평- 미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미술」, 『충대신문 방송사』, 2011.8.30.
김구희, 「고교미술동아리, 52년 전 그 시절을 기억해본다」, 『충청데일리』, 2016.4.15.
강은선, 「한국화 정체성 치열한 탐구」, 『대전일보』, 2017.2.1.
「구상미술 40년, 대전미술 역사를 되새기다」, 『충청매거진』, 2019.11.2.

논저

강영주, 「조선 후기 화가의 재발견: 휴당 이계호(1754-1833)의 생애와 포도도 연구」, 『대동문화연구』 120, 대동문화연구원, 2022. 12.
강혜승, 「1970년대 이건용의 행위예술과 몸의 복권」, 『미학예술학연구』 59, 한국미학예술학회, 2020.
김경연, 『李東勳 評傳: 朝鮮鮮 풍경의 畫家 이동훈, 예술과 생애』, 열화당, 2012.
김관호, 「孝梯·文字圖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김미정, 「공주(公州)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작품세계-1900~1945년 출생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김미정, 「모더니즘과 국가주의의 패러독스 정치·사회적 관점으로 본

전후(戰後) 한국현대미술, 『미술사학보』 39, 미술사학연구회, 2012.

김미경, 「한국 앵포르멜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60년대 초반 정치적 변혁기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김소연, 「1930년대 서양화단의 성장과 학생화가들: 도화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6.

김소연, 「근대기 공주의 서화계: 서화 창작과 수집, 그리고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김시습, 「미술에 개입된 일제 식민주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8.

김영호, 「금강현대미술제의 의의와 역할 고찰-1980 금강현대미술제에 관한 소고」,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김이순, 『전후의 융접조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재석, 「工藝의 朝鮮의 使命」, 『新文藝』, 1945, 12.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1992.

김철호, 「목림회 화가들이 말하는 목림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김한중,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충북사학』 8, 충북사학회, 1995.

김현숙, 「朝鮮美術展覽會의 官展 様式: 東洋畫部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남 관, 「미술계의 1년」, 『신천지』 22, 1950. 1.

남궁윤, 「무릉동 이야기」, 『웅진문화』 32,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19.

류철하, 「대전미술의 시대정신」, 『Art in Culture』 vol.19, no.4.

박병천, 「특유의 서풍을 창안하고 응용하다」, 『미술관에 書, 한국근현대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2020.

박상우, 「인용과 확대의 미학」, 『bLow UP, aMeriKa』, 한미사진미술관, 2016.

백지홍, 「설봉 김두환, 근대미술사의 맞춰지지 않은 퍼즐」, 『미술세계』 76, 미술세계, 2018.

송희경, 「1960년대 동양화의 해외 체험-일본 전시의 참여와 그 출품작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20, 동서미술문화학회, 2021.

신권희, 『오늘을 대표하는 금속공예 8인전』, 호암갤러리, 1988.

신수경, 「1950-60년대 북한 조각계와 월북 조각가들의 활동」, 『분단의 미술사 잊혀진 미술가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신수경, 「김두환: 생동감 넘치는 색채의 향연」, 『월성 김두환전』, 진고원갤러리, 2009.

신수경, 「예산 출신 미술가들의 계보와 작품세계」, 『2021년 내포문화진흥포럼: 내포문화의 다양성과 의미를 논하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신수경, 「해방기(1945~1948) 월북미술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8.

양은희, 「1970~1980년대 제주미술의 지역성과 초지역적 연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유홍준, 「開花期: 舊韓末 書畫界의 보수성과 近代性: 1880년부터 1910년 사이 미술의 동향」, 『舊韓末의 그림』, 학고재, 1989.

유환동, 「논산 미술 발전의 선구자」,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윤범모, 「한국근대 조소예술의 전개양상」, 『근대를 보는 눈』, 국립현대미술관, 1999.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上-」, 『웅진문화』 20,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7.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下-」, 『웅진문화』 21,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8.

이구열, 『근대 한국화의 흐름』, 미진사, 1984.

이구열, 『화단일경』, 동양출판사, 1968.

이동원, 『학남 정환섭의 서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논문.

이민수, 「1980년대 한국화의 상황과 갈등: 미술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화의 현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39, 한국미술연구소, 2014.

이안나, 「충남화단으로 이어진 후소회의 맥」, 『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 2022. 2.

이준, 「한국의 미술제도와 전시의 문화정치학-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2. 4, 한국기초조형학회, 2011.

임양수 외,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1995.

임재광, 「1970-80년대 대전미술: 주요미술활동을 중심으로」,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 대전시립미술관, 2020.

장서윤, 「키워드로 읽는 이견용」, 『미술세계』 69(통권 제403호), 2018. 6.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키프트, 2009.

조수진, 「전위의 실험에서 실험미술로: 대안적 한국 모더니즘의 역사」,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2023.

조은정, 「광복 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인 본 한국미술」, 『미술이론과 현장』 4, 한국미술이론학회, 2006.

조은정, 「송병돈과 1950년대 서울대학교」, 『조형 아카이브』 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2011.

조희성, 「한국 현대 수묵채색화단의 태동-백양회, 목림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7.

진선희, 「한국자연미술가 협회 아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채승희,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식민지 문화정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최 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15.

황효순, 「1930년대~1960년 대전 화단의 동향」, 『대전문화』 29,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황효순, 「대전미술사의 현황과 과제」, 『대전문화』 18,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도록 및 자료집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대한민국 미술인인명록』, 20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근대도시 공주의 탄생』, 메디치, 2021.

『87 충남 오늘의 만남전』, 르뽕동인회, 1987.

『88 충남의 어제와 오늘전』, 르뽕동인회, 1988.

『90 회화초대전-배재대학 출신』, 대전 오원화랑, 1990.

『1+3 시각전』, 대전문화원, 1992.

『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센터, 2001.

『1990 대전 구조와 탈구조전』, 대전 현대화랑, 1990.

『2020 근현대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2022 자연미술학술세미나-재야생과 자연미술의 과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22.

『2번째 창이전』, 대전 현대화랑, 1991.

『FLUX GROUP전』, 관훈미술관, 1990.

『SELF-SO전』, 대전문화원, 1990.

『개교 제70주년기념 대전고등학교미술동문초대전』, 대전시민회관, 1987.

『開元五周年 記念行事要覽』, 공주문화원, 1959.

『갤러리금강 개관기념: 이두식 · 서정태 · 유영교의 4월전』, 1992.

『검이불루儼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 대전시립미술

- 관, 2019.
- 『공주교육십년사』, 공주고등학교교육십년사 편찬위원회, 1982.
- 『공주문화원 50년사』, 공주문화원, 2005.
- 『공주미술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2023.
- 『公州郡誌』 제1편, 공주군지편찬위원회, 1957.
- 『公州文化院五十年史』, 공주문화원, 2005.
-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2015.
- 『광자진취狂者進取 :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 대전시립미술관, 2020.
-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 국립현대미술관, 1997.
- 『금산문화원 50년사』, 금산문화원, 2017.
- 『논산문화원 60년사 1957~2017』, 논산문화원, 2017.
- 『눈과 마음 1989展』, 대전문화원, 1989.
- 『눈과 마음 1990전』, 대전문화원, 1990.
- 『다시, 바로, 함께, 한국미술 : 지역미술 다시보기』, 대전시립미술관, 2019.
- 『대전 '78세대』, 1987.
- 『대전 '87 청년트리엔나레』, 1987.
- 『대전 '87 행위예술제』, 1987.
- 『대전 '91 트리엔나레』 도록, 1991.
- 『대전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대전시립미술관, 2018.
- 『대전미술 돌 - 공예 · 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미협 대전시지회, 1995.
- 『대전미술 하나 - 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 『대전미술문화조망전』, 대전롯데화랑, 2000.
-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1.
-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미술관, 2012.
-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 『대전생태예술의 맹아를 찾아서: 임동식과 자연』, 생태미학연구소, 2021.
- 『대전의 숨결전』, 대전 현대화랑, 1991.
- 『대전중구문화원 50년사 1953~2003』, 대전중구문화원, 2002.
- 『대전중구문화원 60년사 1953~2013』, 대전중구문화원, 2012.
- 『대전중구문화원 향토문화자료 7. 중구문화길리잡이』, 대전중구문화원, 1998.
-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한민국십년지간행회, 1956.
- 『목원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 1991
- 『묵가와 신조형체전』, 삼성갤러리, 1993.
- 『미래가 지금이다-충남 도립미술관 건립관련 공개토론회 통합자료집』, 충청남도, 2020.
- 『미상록작가전』, 대전문화원, 1989.
- 『미술관에 쓴, 한국근현대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2020.
- 『사진으로 본 부여의 백년』, 부여문화원, 2008.
- 『서산문화원 60주년사』, 서산문화원, 2018.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0년사』,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6.
- 『시각과 통찰』, 대전시민회관, 1989.
- 『예산문화원보』, 예산문화원, 1978.
-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 강연회: 지역미술 활성화 및 정체성 모색』 자료집, 대전시립미술관, 2001.
- 『온양소식』, 제2호, 온양문화원, 1986.
- 『온양소식』, 제51호, 온양문화원, 1990.
- 『임동식: 동방소년 탐문기』, 대전시립미술관, 2016.
- 『자연미술가 고승현 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3.
- 『제16회 그릴회전, 천안 아라리오화랑, 1990
- 『제2회 충남 서양화회展』, 대전시민회관, 1988.
- 『제3 조각가협회전』, 1988.
- 『제3현대미술전』, 대전시민회관, 1986.
- 『제3회 목목회전』, 대전문화원, 1980.
- 『제3회 목원한국회전』, 대전시민회관, 1991.
- 『제3회 충남 서양화회展-인간표현』, 대전시민회관, 1989.
- 『제4회 OPUS展』, 대전 현대화랑, 1989.
- 『제4회 대전한국회회전』, 대전문화원 전시실, 1992
- 『제4회 리포트프린트전』, 대전 현대화랑, 1990
- 『제4회 충남서양화회전』, 대전시민회관, 1990
- 『제5회 남부 현대 미술제』, 대전시민회관, 1989.
- 『제5회 리포트프린트전』, 대전 현대화랑, 1991.
- 『제5회 천안미술작가회전』, 천안미술작가회, 1992.
- 『제5회 충남서양화회전』, 대전문화원, 1991
- 『제5회 충남판화협회전』, 대전시민회관, 1987.
- 『제5회 터GROUP전』, 대전시민회관, 1990
- 『제7회 르뽐동인회전』, 반도화랑, 1984.
- 『제8회 충남구상작가협회』, 1984.
- 『제8회 충남향토작가초대전』, 대전문화원, 1983.
- 『제8회 한밭조각회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8.
- 『朝鮮美術展覽會圖錄』, 총 19권, 1922-1940.
- 『중견조각가5인전』, 다도화랑, 1992.
- 『중앙로 근대를 걷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2015.
- 『창립 野投』, 야외현장미술연구회, 1980.
- 『천안시지 상』, 천안시지편찬위원회, 1997.
-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 충남문화재단, 2016.
-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 충남문화재단, 2021.
-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I』, 충남문화재단, 2022.
- 『충남미술사 간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충청남도, 2020.
- 『충남미술사』, (사)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 1995.
- 『충남미술사총서: 1900~2015』,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 2017
- 『충남미술의 연구 현황과 전망』 학술지포지엄 자료집, 2022. 2.
- 『충남의 자연전』, 대전 신신화랑, 1984.
- 『충남한국화연구회기획 '90 한국화 새 흐름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0
-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1896-1996) 下권』, 충청남도, 1997.
- 『충청남도 지리지』, 충청남도, 2020.
- 『충청남도지 2 충남의 인문환경』,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 『忠淸南道誌. 24. 현대예술』,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 『충청은행 20년사』, 충청은행, 1988.
- 『타임전』, 인테코화랑2층, 1992
- 『타타타』, 대전문화원, 1992.
- 『학동인전 창립 10주년 기념전』, 학동인회, 1992.
- 『한국 미술단체 자료집』, 김달진미술연구소, 2013.
- 『한국공예가회 9회전』, 서울 디자인포장센터, 1982.
- 『한국근대미술 : 유화-근대를 보는 눈』, 국립현대미술관, 1997.
- 『한국근대미술 : 조소-근대를 보는 눈』, 국립현대미술관, 1999.
- 『한국근대미술명품도록』, 삼성미술문화재단, 1992.
- 『한국미술 1900-2020』, 국립현대미술관, 2021
- 『한국미술전시자료집 I · II · III · IV』, 김달진미술연구소, 2014 · 2016 · 2017.
- 『한국미술전시자료집Ⅳ 1990~1999』,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 『한국미술전시자료집Ⅰ 1945~1969』,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 『한국미술전시자료집Ⅱ 1970~1979』,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 『한국미술전시자료집Ⅲ 1980~1989』,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 『한국조각의 맥』, 문화갤러리, 1991.
- 『한국현대미술전집(韓國現代美術全集)』 4, 한국일보사, 1977.

『한국화 1953~2007전』, 서울시립미술관, 2007.

『한남디자인전』, 한남대학교, 1988.

『한발미술의 여정 II 이동훈과 대전화단』, 대전시립미술관, 2003.

『합덕대건신협』 통권 7호, 합덕대건신협동조합, 2001.

『해방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2015.

『향토문화자료(7)중구문화길라잡이』, 1998

『현대미술소품전』, 대전 오원화랑, 1990

『현대화랑 개관기념 초대전』, 대전 현대화랑, 1984.

기타(웹사이트)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의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kjha.kongju.ac.kr/>

공주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gongju.do>

공주시청 누리집 <https://www.gongju.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http://www.mmca.go.kr/collections>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natureartbiennale.org/home/t>

금산군청 누리집 <https://www.geumsan.go.kr/>

금산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geumsan.do>

논산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nonsan.do>

논산시청 누리집 <https://nonsan.go.kr/>

뉴스라이브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http://www.dalseongart.com/content/menu02/content01.html>,

당진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dangjin.do>

당진시청 누리집 <https://www.dangjin.go.kr/kor.do>

대전시립미술관 <https://www.daejeon.go.kr/>

디지털공주문화대전 누리집 <http://gongju.grandculture.net/gongju>

디지털논산문화대전 누리집 <http://nonsan.grandculture.net/nonsan>

디지털당진문화대전 누리집 <http://dangjin.grandculture.net/dangjin>

디지털보령문화대전 누리집 <http://www.grandculture.net/boryeong/toc/GC08800009>

디지털서산문화대전 누리집 <http://seosan.grandculture.net/seosan>

디지털아산문화대전 누리집 <http://asan.grandculture.net/asan>

디지털예산문화대전 누리집 <http://yesan.grandculture.net/yesan>

디지털천안문화대전 누리집 <http://www.grandculture.net/cheonan/toc/GC04500234>

보령문화원 누리집 <http://br.cnkccf.or.kr/>

보령시청 누리집 <https://www.brcn.go.kr/>

부여군청 누리집 <https://www.buyeo.go.kr/>

부여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buyeo.do>

서산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seosan.do>

서산시청 누리집 <https://www.seosan.go.kr/www/index.do>

서천군청 누리집 <https://www.seocheon.go.kr/kor.do>

서천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seocheon.do>

아산시청 누리집 <http://asan.go.kr/>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누리집 <http://www.yangju.go.kr/changucchin/index.do>

연기(세종)문화원 누리집 <http://www.sejongcult.or.kr/page/PAGE1604061139032658>

예산군청 누리집 <https://www.yesan.go.kr/>

예산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yesan.do>

온양(아산)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onyang.do>

임림미술관 홈페이지 http://limlip3.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st&wr_id=88&page=8

천안시청 누리집 <https://www.cheonan.go.kr/>

청양군청 누리집 <https://www.cheongyang.go.kr/kor.do>

청양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cheongyang.do>

충남문화포털 <https://cnc.cacf.or.kr>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누리집. <https://www.cihc.or.kr/kor.do>

태안군청 누리집 <https://www.taeon.go.kr/kor.do>

태안문화원 누리집 <http://www.cnkccf.or.kr/taeon.do>

통계청 누리집 <https://kostat.go.kr/>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https://www.gokams.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한국예총 서산지회 누리집. <https://blog.naver.com/as6671305/222774347148>

한국예총 아산지회 누리집. http://asanart.co.kr/sub.asp?maincode=451&sub_sequence=465&sub_sub_sequence=#tab_tit4

한국진흥원 누리집 <https://kapatv.net/%ED%8F%89%EB%A9%B4%EC%9E%91%ED%92%88/view/197299>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누리집. <http://www.grandculture.net/gongju/toc/GC01701760?search=G1/2>

홍성군청 누리집 <https://www.hongseong.go.kr/kor/index.do>

홍성문화원 누리집 <http://hs.cnkccf.or.kr/>

찾아보기

- 19751225 그룹 • 144, 146, 148, 175, 176, 177, 186, 293, 289, 293, 380, 386, 387, 388, 390, 391, 402, 404, 438, 439, 469, 502
- 46번가판화기획 • 146, 149, 266, 507
- 가국현 • 84
- 가메카와 타다시(龜川忠) • 336, 337
- 가와무라 신타로(河村信太郎) • 337
- 가이 스스무(甲斐進) • 333, 337, 513
- 가톨릭문화회관 • 15, 16, 18, 52, 70, 81, 408, 486, 503
- 강광식 • 293, 470, 516
- 강구철 • 294
- 강규성 • 239, 240
- 강길원 • 472, 517
- 강명준 • 65, 181, 490
- 강봉승 • 258, 273, 274
- 강석규 • 308
- 강선정 • 217, 251
- 강성열 • 245, 518
- 강신철 • 29, 205, 217, 287, 441, 472, 474, 514, 517
- 강영희 • 77, 400, 497
- 강정현 • 185, 282, 383, 389, 468, 515
- 강중식 • 171, 406, 414, 437
- 강지민 • 195, 290, 502, 514
- 강태성 • 372
- 강환섭 • 515
- 건양대학교 • 285, 286, 311, 464, 470, 519
- 경암빌딩 화랑 • 18, 53, 85, 486, 490
- 계낙영 • 515
- 고리아마 미토시(郡山美利) • 318, 332, 346
- 고바야시 다케후미(小林武文) • 336, 512
- 고바야시 지로(小林二郎) • 324, 346
- 고성희 • 519
- 고승관 • 274, 305, 519
- 고승현 • 204, 381, 392, 393, 395, 444, 503, 523,
- 고웅곤 • 199, 470, 505
- 고창환 • 79, 259, 273, 274, 290, 379, 514
- 고희동 • 353, 457
- 곰나루 • 17, 18, 24, 203, 412, 482
- 곰나루다방 • 15, 18, 21, 412, 482
- 공간사랑 • 16, 19, 54, 55, 217, 408, 487
- 공산성(산성공원) • 18, 23, 482
- 공주 기독교회 • 15, 18, 25, 412, 483
- 공주 봉산구락부 • 15, 18, 32, 411, 412
- 공주 자연미술의 집 • 18, 39, 203, 484
- 공주 자연미술의 집 • 18, 39, 203, 484
- 공주공립고등여학교 • 15, 18, 22, 412, 482, 510
- 공주교육대학 • 33, 144, 149, 171, 172, 173, 174, 184, 205, 233, 234, 284, 286, 287, 288, 400, 412, 437, 441, 443, 449, 463, 464, 473, 475, 479, 483, 501, 502, 503, 505, 514
- 공주문예회관 • 17, 18, 28, 203, 206, 216, 217, 234, 237, 251, 412, 413, 416, 443, 482, 496
- 공주문화대학 • 285, 286, 295, 306, 307, 519
- 공주문화원 • 15, 16, 17, 18, 21, 30, 148, 149, 159, 162, 167, 172, 174, 192, 204, 206, 237, 307, 412, 443, 450, 452, 454, 474, 479, 482,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22, 523
- 공주사범대학 • 11, 191, 221, 237, 285, 286, 295, 296, 381, 400, 436, 439, 441, 443, 445, 446, 449, 463, 464, 471, 472, 473, 502, 503, 504, 505, 517
- 공주사범학교 • 15, 18, 21, 33, 284, 288, 412, 449, 473, 483
- 공주여자사범학교 • 286, 287, 332, 337, 483, 510, 512, 513
- 공주읍사무소 • 15, 18, 30, 37, 203, 412, 483
- 공주회화회 • 34, 144, 146, 150, 284, 338, 339, 428, 452, 482, 500
- 곽권일 • 77, 90
- 곽대웅 • 305, 519
- 구권환 • 288, 379, 514
- 구니토모 아사지로(國友次郎) • 150, 338, 339, 428
- 구드래조각공원 • 17, 19, 27, 102, 246, 247, 492
- 구드래 야외미술제 • 102, 260, 261, 384, 492
- 구상작가회 • 113, 381
- 구중서 • 150, 284, 317, 338, 339, 343, 347, 348, 354, 355, 428, 429, 458, 511
- 국립공주대학교(공주대학교) • 25, 191, 237, 278, 286, 295, 296, 298, 306, 307, 436, 445, 471, 479, 496, 497, 517, 519, 524
- 국립부여박물관 • 103, 246, 418, 492
- 국립한밭대학교 • 286, 303, 402, 518
- 권경태 • 247, 468, 504
- 권영우 • 54, 177, 220, 275, 380, 381, 386, 515
- 권중록 • 284, 341, 343, 349, 458, 511
- 권탁원 • 364, 365
- 그림회 • 31, 76, 97, 126, 144, 146, 148, 171, 173, 174, 233, 287, 436, 473, 474, 475, 488, 501, 523
- 근대화랑 • 16, 19, 55, 178, 213, 408, 487
- 금강변 • 24, 383, 412, 483, 502
- 금강조각회 • 29, 146, 149, 237, 296, 405, 406, 443, 446, 505
- 금강현대미술제 • 145, 146, 148, 175, 196, 204, 220, 383, 389, 392, 412, 444, 445, 454, 502, 522
- 금동인회 • 40, 146, 148, 200, 448, 453, 484, 503
- 금산문화원 • 16, 18, 40, 200, 422, 425, 449, 484, 503, 523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16, 19, 56, 408, 487
- 기독교회관 • 16, 56, 408, 487
- 기야마 마이아키(杞山鎮明) • 343
- 길진섭 • 356, 428
- 김경화 • 296, 472, 517
- 김관호 • 55, 70, 162, 434, 516, 517
- 김교만 • 379
- 김구림 • 385
- 김규진 • 32, 320, 323, 400, 411, 427, 428, 457, 483
- 김기권 • 74, 211, 383
- 김기반 • 173, 265
- 김기숙 • 31, 151, 287, 355, 365, 370, 378, 404, 461, 514
- 김기승 • 354, 358, 374
- 김난희 • 518
- 김대열 • 288
- 김동수 • 356, 362, 379
- 김동창 • 225, 470, 516
- 김두환 • 65, 317, 342, 343, 350, 351, 354, 355, 356, 371, 375, 458, 511, 522
- 김명태 • 517
- 김문식 • 111, 192, 496, 516
- 김배희 • 54, 70, 164, 165, 166, 194, 226, 275, 378
- 김병종 • 137
- 김복영 • 385, 389, 390, 466
- 김복진 • 328, 343, 371
- 김상구 • 134
- 김석기 • 54, 217, 251, 282, 516, 518
- 김석우 • 84, 184, 227, 248, 518
- 김성재 • 68, 153, 156, 365, 366, 368, 370, 404, 419, 431, 432, 460, 498, 500
- 김세원 • 217, 251, 293, 379, 439, 470, 516
- 김세중 • 55
- 김송열 • 299, 475
- 김수평 • 198, 199, 293, 378, 380, 388, 469, 470, 516
- 김순기 • 31, 205, 217, 379, 468

김여성 • 161, 164, 166
 김연숙 • 167, 437
 김영대 • 60, 248, 300, 379, 518
 김영덕 • 378, 404, 497
 김영배 • 55, 220, 265, 290, 300, 514, 518
 김영숙 • 201, 379
 김영순 • 60, 269, 270, 379, 507, 515
 김영천 • 110, 115, 183, 194, 208, 243, 244, 442
 김영학 • 107, 371, 372, 374, 394, 419
 김영호 • 185, 468
 김용진 • 320
 김우진 • 322, 348
 김윤집 • 171, 172, 205
 김은호 • 326, 327, 328, 329, 346, 364, 375, 457
 김익규 • 168, 186, 247, 389
 김장섭 • 185, 466
 김장한 • 354
 김재배 • 364
 김재석 • 353, 379
 김재선 • 54, 126, 133, 136, 244
 김정우 • 289, 290
 김정현 • 114, 115, 192, 278, 279, 296, 471, 472, 517
 김종영 • 372
 김지택 • 184, 198, 199, 437, 470
 김진 • 222, 223, 240, 300, 447, 504
 김창일 • 132, 411
 김철겸 • 79, 186, 232, 379, 389, 515
 김철성 • 356
 김철호 • 86, 151, 153, 154, 193, 226, 355, 365, 367, 404, 430, 432, 460, 461, 489, 515, 516
 김처중 • 54, 77, 78, 161, 164, 166, 193, 223, 226, 275, 370, 400, 460, 475, 517
 김학원 • 502, 515
 김한 • 282, 292, 378, 385, 389, 438, 466, 467
 김해민 • 379
 김홍주 • 292, 378, 385, 466, 467, 515
 김화경 • 83, 153, 156, 163, 317, 328, 329, 346, 350, 353, 359, 361, 364, 431, 432, 458, 460, 500, 512
 김희직 • 245, 451, 506
 김훈근(서예) • 31
 김훈근(서양화) • 265
 김희수 • 311
 김희춘 • 303, 518
 나가노 히로시(中野博) • 337
 나성남 • 308, 519
 나용환 • 207, 218
 나카니시 츠히사키(中西津久技) • 326
 남계화랑 • 15, 19, 57, 148, 185, 186, 195, 389, 390, 408, 409, 487, 502
 남관 • 356, 366
 남상균 • 161
 남서울대학교 • 285, 286, 310, 411, 464, 519
 남철 • 227, 248, 249, 300, 373, 504, 506, 518
 남홍태 • 195, 259, 502
 노구치 야스무(野口保) • 324, 346
 녹청회 • 144, 146, 147, 153, 364, 369, 401, 404, 416, 430, 431, 432, 433, 435, 452, 460, 486, 500, 521
 논산군민회관 • 16, 17, 18, 42, 418, 485
 논산문화예술회관 • 168, 245,
 논산읍사무소 • 16, 440
 놀피미술회 • 44, 144, 146, 148, 168, 407, 419, 420, 440, 441, 485, 486, 501
 늘갈회 • 31, 145, 146, 149, 171, 233, 234, 405, 443, 447, 475, 505
 니시무라 데츠지로(西村哲次郎) • 324
 다나카 덴키치(田中傳吉) • 336, 337, 513
 다나카 마사노리(田中正徳) • 345, 347
 다시각 • 95, 146, 149, 238, 443, 505
 다카시마 이사오(高島功) • 317, 329, 330, 332, 337, 347, 512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285, 286, 297, 298, 517
 당림미술관 • 17, 20, 118, 394, 416, 494
 당진문화원 • 15, 16, 17, 18, 45, 414, 415, 485
 대전 KBS방송국 • 17, 18, 49, 88, 270, 486
 대전 78세대 • 57, 95, 144, 146, 148, 175, 176, 177, 178, 185, 186, 220, 380, 381, 383, 386, 389, 390, 391, 395, 402, 404, 438, 439, 445, 465, 466, 467, 502, 523
 목목회 • 82, 95, 145, 146, 148, 187, 188, 381, 406, 414, 436, 439, 468, 471, 486, 490, 502, 523
 대전개발대학 • 285, 286, 303, 304, 402, 518
 대전고등학교 • 15, 58, 154, 356, 367, 431, 432, 487
 대전공예가협회 • 195, 258, 259, 506
 대전구상작가회 • 51, 145, 193, 194, 440, 446, 502
 대전금속조형회 • 146, 149, 273, 507
 대전대학교 • 17, 286, 313, 314, 358, 375, 520
 대전도예가회 • 49, 146, 149, 209, 268, 507
 대전디자인협회 • 506
 대전문화회관 • 17
 대전문화원 • 19, 67, 404, 408, 432, 439, 443, 452, 462, 471, 472, 488,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22, 523
 대전미술관 • 16, 19, 59, 149, 249, 408, 488, 506
 대전미술창작마을 • 17, 145, 146, 149, 282, 508
 대전백화점 • 16, 17, 19, 61, 408, 409, 488
 대전사생회 • 165, 166, 489, 501
 대전상공회의소 • 15, 16, 19, 72, 183, 284, 408, 470, 486, 488, 501
 대전섬유조형회 • 146, 149, 269, 270, 507
 대전소방서 • 15, 19, 73, 408, 487
 대전수채화협회 • 71, 74, 84, 226, 448, 505
 대전시민회관 • 19, 56, 75, 89, 148, 149, 158, 166, 170, 172, 174, 178, 183, 186, 188, 190, 192, 194, 197, 199, 201, 210, 211, 213, 217, 220, 221, 223, 227, 229, 230, 234, 238, 240, 241, 251, 253, 256, 265, 279, 301, 381, 408, 409, 443, 471, 472, 476, 488,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대전실업전문대학 • 195, 290
 대전실업전문학교 • 284, 286, 289, 290, 514
 대전실협작가회 • 70, 146, 149, 220, 381, 444, 445, 504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 15, 62, 158, 409, 488
 대전의숨결전 • 146, 149, 195, 258, 259, 440, 506, 523
 대전조각가협회 • 60, 84, 145, 146, 149, 248, 249, 446, 506
 대전중구문화원 • 52, 59, 64, 67, 68, 72, 73, 88, 94, 148, 152, 161, 194, 210, 223, 229, 230, 232, 249, 259, 270, 275, 425, 454, 488, 500, 508, 509, 523
 대전판화가협회(대전판화협회) • 95, 149, 222, 223
 대전한국화회 • 95, 145, 146, 149, 216, 217, 250, 251, 252, 506, 523
 대전현대미술협회 • 161, 264, 507
 대전문화원 • 16, 17, 19, 98, 420, 477, 492
 대화정 • 15, 18, 27, 411, 412, 483
 도미니카 마사후사(富中正房) • 335
 도사카 요시미(登坂喜美) • 335
 도요나가 시게유키(豊永重行) • 336, 347, 513
 도원회 • 63, 95, 146, 148, 209, 381, 404, 443, 444, 488, 503,
 동양백화점 • 16, 19, 63, 148, 158, 408, 487, 488, 503
 드름염색회 • 146, 148, 201, 443, 503
 뽕그라픽 • 75, 76, 197, 404, 443, 444
 라이카화랑 • 15, 408, 488
 루-불미술동인 • 144, 146, 147, 154, 357, 367, 404, 430, 431, 432, 433, 452, 500

루키야 미치코(安保道子) • 325, 346
 류영석 • 514
 류재우 • 305, 519
 류철호 • 311, 519
 르뽀동인회 • 35, 55, 65, 71, 144, 146, 148, 175, 177, 176, 178, 185, 186, 191, 380, 381, 382, 386, 387, 390, 395, 401, 404, 438, 439, 487, 502, 522, 523
 립화랑 • 19, 66, 230, 490
 마방화랑 • 16, 20, 108, 413, 493
 마츠다 레이코(松田黎光) • 325
 모리 가츠미(毛利克己) • 333, 337, 346, 512
 목원대학교 • 286, 291, 292, 380, 436, 437, 438, 439, 443, 444, 445, 447, 465, 467, 489, 502, 503, 505, 506, 507, 508, 515
 목원조각회 • 76, 145, 146, 148, 171, 210, 381, 443, 444, 446, 468, 503, 523
 목원한국화회 • 95, 145, 146, 149, 252, 253, 443, 447, 506
 목가와신조형체 • 145, 239, 240, 443, 447, 505
 문상욱 • 255, 256
 문우식 • 379
 문정규 • 55, 232, 379, 381, 383, 447
 문화화랑 • 15, 16, 19, 69, 408, 489
 미노우라 미치코(箕浦道子) • 334, 513
 미도백화점 • 16, 20, 129, 410, 497
 미로회 • 146, 148, 211, 241, 443, 447, 503, 505
 미상록 • 68, 146, 148, 161, 404, 407, 433, 434, 452, 462, 523, 500
 미술협회 • 144, 146, 147, 151, 158, 164, 287, 352, 353, 355, 363, 377, 401, 408, 430, 433, 435, 452, 476, 488, 491 500
 미우회 • 144, 162, 433, 500
 민경갑 • 163, 356, 359, 361, 379
 민동기 • 68, 226, 230
 민영익 • 320
 민중식 • 243, 244, 451
 민태식 • 300
 박관우 • 232, 383
 박광진 • 328
 박남정 • 470, 518
 박노수 • 163, 356, 358, 359, 470
 박동윤 • 474, 514
 박명규(회화) • 55, 162, 386, 517
 박명규(조각) • 271, 272, 288, 437, 507
 박병희 • 60, 184, 198, 199, 293, 294, 311, 437, 470, 516
 박봉재 • 284, 341, 343, 347, 349, 511
 박봉춘 • 55, 177, 232, 387
 박상욱 • 354
 박석원 • 385
 박선영 • 520
 박성섭 • 144, 151, 284, 317, 340, 343, 348, 352, 355, 365, 378, 418, 429, 430, 452, 458, 493, 500, 511
 박수용 • 470, 505
 박승대 • 310
 박승무 • 151, 362, 363, 365, 430, 457
 박승배 • 169, 170, 476
 박승수 • 171, 172, 247
 박여일 • 64, 65, 152, 379, 500
 박영숙 • 379
 박영환 • 296
 박완용 • 311, 519
 박용숙 • 185, 390, 466
 박주석 • 255, 256
 박창돈 • 515
 박창래 • 322, 323, 346, 348, 458, 511
 박창식 • 161
 박춘화 • 44, 144, 168, 419, 440, 501
 박홍순 • 192, 251, 379, 474, 514
 박희석 • 284, 429
 반도화랑 • 16, 19, 70, 149, 176, 220, 221, 222, 223, 225, 226, 361, 388, 408, 409, 447, 489, 504, 505, 523
 방효성 • 175
 배상명 • 302
 배연전 • 80, 149, 211, 241, 505
 배연희 • 145, 146, 149, 241, 443, 447, 505
 배운성 • 356
 배재대학교 • 145, 211, 212, 228, 241, 286, 299, 443, 445, 447, 475, 503, 504, 505, 508, 517
 백인현 • 192, 205, 217, 233, 474, 514
 백준기 • 196, 306, 467, 517
 백철 • 222, 223, 299, 447, 475, 504, 517
 백현욱 • 184, 293, 470, 516
 벽·바다, 그리고 의식 • 71, 114, 115, 132, 145, 146, 221, 222, 296, 381, 390, 444, 445, 447, 465, 473, 494, 504
 변건호 • 293, 516
 변관식 • 320, 457
 변영환 • 137, 254, 298
 보령군청 전시실 • 19, 99
 보령문화원 • 19, 98, 149, 271, 272, 420, 421, 477, 492, 507, 524
 보령보건소 • 17, 19, 100, 420, 421, 492
 보령시민체육관(현 대천체육관) • 17, 19, 101, 421, 492
 복원규 • 138, 187, 188, 439, 502, 515
 복중순 • 379, 381
 부여 청소년수련원 • 20, 107, 170, 419, 492, 493
 부여군민회관 • 16, 17, 20, 104, 105, 149, 170, 181, 246, 247, 418, 418, 450, 492, 493
 부여문화원 • 15, 16, 17, 20, 105, 148, 174, 180, 181, 234, 418, 419, 440, 493, 502
 부여읍민회관 • 16, 20, 106, 181, 418, 419, 493
 사노 마타오(佐野又雄) • 336, 337, 513
 사생회 • 165, 166
 사이토 오미시로(齋藤三四郎) • 330, 331, 333, 337, 346, 512
 사토 소우(佐藤湊) • 331
 사토 신마로(佐藤信) • 333, 337, 346, 513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 285, 286, 302, 402, 404, 411, 518
 서령미술회관 • 17, 20, 112, 413, 493
 서미희 • 108, 111, 115, 144, 146, 148, 179, 406, 413, 424, 440, 441, 442, 449, 453, 493, 494, 499, 502
 서산문화원 • 15, 16, 17, 20, 109, 113, 148, 183, 208, 219, 261, 406, 413, 448, 450, 477, 493, 504, 523
 서산문화회관 • 17, 111, 112, 179, 208, 261, 413, 493
 서산미술관 • 16, 17, 20, 113, 149, 206, 219, 261, 413, 493, 506
 서승원 • 385
 서인사랑 • 17, 20, 114, 215, 221, 261, 406, 413, 414, 494
 서천군민회관 • 15, 16, 17, 20, 116, 117, 420, 421, 494
 서천문화원 • 16, 117, 421, 477, 494
 서천읍사무소 • 116, 117, 420
 서해조형작가회 • 111, 114, 115, 145, 146, 149, 260, 261, 499, 506
 서흥원 • 162
 선병일 • 310, 519
 성능경 • 81, 185, 379, 385, 466
 성재경 • 152
 성창경 • 357, 379, 406
 손정리 • 472, 517
 손차롱 • 476
 손화동 • 215, 230, 236, 406, 414, 460
 송번수 • 378, 404
 송병돈 • 150, 163, 284, 338, 339, 347, 348, 428, 429, 458, 500, 511
 송순영 • 90, 270, 294, 379, 516
 송영수 • 373
 송영숙 • 154
 송인욱 • 230, 476
 송인현 • 468, 515
 송일영 • 186, 220, 389
 송진세 • 156, 432
 송창만 • 266, 267
 수선화공간 • 17, 18, 47, 279, 281, 414, 415, 486
 수요동인회 • 144, 146, 147, 155, 431, 430, 433, 462, 500
 승전대학교 • 97, 145, 175, 189, 198, 285, 286, 293, 436, 437, 438, 439, 443, 468, 470, 501, 502, 503, 516
 승전조각회 • 76, 145, 146, 148, 198, 199, 443, 444, 446, 471, 488, 503,

스기키 사다코(須ヶ木定子) • 318, 332, 333
스기미츠 다케우에몬(杉光武右門) • 318, 344, 345
스즈키 마키에이(鈴木牧榮) • 345, 347
시나위커피숍(전시장) • 17, 19, 74, 489
시라이 소스케(白井兼介) • 335
신동국 • 175, 267, 289, 293, 516
신동주 • 54, 55, 177, 220, 265, 381, 387
신범이 • 150, 284, 338, 339, 428, 429
신봉균 • 365, 368, 369, 374, 436, 461, 489
신신화랑 • 15, 16, 19, 77, 148, 176, 190, 194, 213, 217, 230, 408, 489, 502, 504
신양섭 • 133, 182, 183, 400, 441, 442, 497, 498, 502
신영삼 • 356, 406
신영일 • 232, 383
신용순 • 303, 518
신중덕 • 265, 516
신현국 • 87, 226, 370, 371, 378
신현대 • 175
심웅택 • 59, 476
심응길 • 78, 79, 404
심응섭 • 115, 126, 169, 170
심재구 • 175, 229
심춘자 • 198, 199
쌍인갤러리 • 19, 59, 79, 505
아귀-토(土) 조각회 • 145, 146, 149, 242, 443, 505
아라리오갤러리 • 16, 17, 20, 132, 174, 244, 405, 410, 411, 497
아마노 키요시(淺野清) • 337
아시달회 • 107, 144, 146, 148, 107, 180, 181, 419, 426, 441, 448, 451, 453, 502
아산(온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 17, 20, 119, 495
아시다 칸(明日勘) • 317, 334, 335, 347, 512
아카데미다방 • 15, 20, 133, 410, 497
안보 미치코(安保道子) • 318
안익중 • 311, 519
안재욱 • 230, 516
안중호 • 205, 287, 473, 503, 514
안치인 • 78, 185, 186, 220, 379, 381, 383, 389
양상불 조각장 • 19, 81
야스다 차카요시(安田近義) • 326
야투 • 35, 39, 146, 148, 196, 202, 204, 220, 228, 291, 354, 391, 392, 393, 442, 444, 445, 454, 503, 522
양승호 • 379
양창제 • 164, 433
양충모 • 210, 383
엄기환 • 251, 516
여일미술관(화랑) • 16, 19, 64, 65, 178, 408, 490
연기군민회관(세종시민회관) • 17, 20, 121, 122, 422, 496
연기문화원 • 524
영명여학교 • 27, 511, 338, 428, 483,
영명학교 • 15, 18, 34, 411, 412, 429, 483, 510
예가화랑 • 16, 19, 82, 213, 408, 490
예산 종합터미널 전시장 • 20, 125
예산문화원 • 16, 17, 20, 123, 149, 263, 416, 417, 425, 496, 504, 507, 523
예산문화회관(문예회관) • 20, 124, 263, 496
예원사화랑 • 16, 20, 139, 421, 498, 504
오근재 • 305, 519
오기선 • 155, 431
오세열 • 292, 466, 467, 515
오세출 • 260, 261
오에 스미코(大江澄子) • 330, 331, 332, 334, 347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 • 145, 146, 148, 204, 381, 444, 445, 503,
오원화랑 • 15, 17, 19, 83, 149, 199, 213, 227, 242, 251, 267, 275, 408, 476, 490, 503, 507
오정길 • 292, 515
오창환 • 170, 501
오카자키 다이치(岡崎爲一) • 335
오택학 • 157, 356, 360, 362
온양문화원 • 17, 20, 120, 416, 417, 425, 477, 495, 523, 524
요시하라 고조(吉原甲藏) • 335, 512
우민형 • 363, 374, 460, 461
우송정보대학교 • 284, 286, 289, 514
우에무라 이츠사쿠(植村逸策) • 323, 346
원골마을 • 17, 18, 35, 39, 412, 483
유근영 • 74, 77, 78, 82, 177, 196, 378, 380, 382, 383, 387, 388, 390, 391, 467, 489
유남식 • 97, 491
유도식 • 65, 77, 78
유동조 • 204, 381, 444, 503
유림회관 • 16, 18, 46, 414, 486
유명숙 • 167, 437
유병호 • 70, 77, 78, 175, 220, 222, 282, 289, 293, 294, 379, 381, 387, 409, 470, 504, 516, 518
유순식 • 296, 517
유영교 • 60, 184, 248, 379, 515, 516
유진명 • 317, 343, 344, 345, 347, 350, 354, 371
유치웅 • 319
유희영 • 154, 157, 431, 432
육명심 • 379
윤복희 • 110, 406
윤승욱 • 344, 372
윤여준 • 260, 261
윤여환 • 251, 300, 379, 518
윤영자 • 184, 248, 291, 292, 379, 465, 466, 515
윤장열 • 504, 515
윤진섭 • 379, 385
윤후근 • 153, 245, 355, 365, 367, 368, 378, 461
이건용 • 57, 185, 292, 379, 380, 383, 385, 388, 389, 390, 438, 466, 467, 515
이경배 • 22, 316, 317, 320, 321, 323, 347, 348, 362, 363, 374, 411, 428, 458, 482, 484, 511
이계길 • 189, 251, 379, 439, 502
이계호 • 316
이관순 • 57, 169, 505, 506
이국전 • 344, 353, 354, 357, 371
이규례 • 269, 270
이근신 • 154, 431, 432
이근희 • 61, 282, 468
이기호 • 213, 253, 476
이남규 • 155, 192, 287, 296, 368, 369, 370, 378, 431, 461, 471, 473, 514, 517
이돈우 • 126, 410, 497
이돈희 • 200, 476
이동 • 169, 170
이동구 • 192, 221, 504
이동훈 • 68, 89, 144, 151, 153, 158, 284, 352, 353, 355, 357, 358, 364, 365, 366, 367, 370, 371, 372, 374, 378, 403, 404, 429, 430, 452, 461, 462, 487, 500
이두한 • 185, 220
이마동 • 163, 354, 357, 371
이명자 • 164
이명희 • 364, 365, 500
이민구 • 251, 468
이병한 • 514
이상돈 • 252, 505
이상범 • 163, 319, 354, 357, 457
이상봉 • 55
이석구 • 29, 217, 296, 472, 517
이선이 • 317, 342, 349, 458
이소자 • 167, 437
이수옥 • 115, 207, 208
이순구 • 180, 228, 229, 470, 492
이순석 • 353, 357, 379
이승조 • 385
이시바시 요시로(石橋吉郎) • 318, 324, 325, 512
이신희 • 145, 146, 148, 193, 194, 381, 440, 446, 502
이영길 • 466, 515
이영래 • 78, 217, 251, 476, 501
이영수 • 57, 160, 161, 164, 166, 357, 379, 433, 487
이와타 요시노스케(岩田吉之助) • 324, 330, 346
이완석 • 317, 354

이완중 • 90, 476, 490, 501, 503
 이용휘 • 157, 356, 362, 515
 이원구 • 308, 519
 이은기 • 468, 515
 이응노 • 276, 277, 319, 354, 360, 379, 489
 이응우 • 115, 192, 221, 245, 504
 이인영 • 77, 83, 153, 164, 293, 353, 365, 367, 369, 370, 400, 404, 430, 461, 469, 470, 505, 516
 이일로 • 305, 519
 이장원 • 251, 311, 516, 519
 이재선 • 179, 270
 이재우 • 87, 185, 490
 이재호 • 54, 78, 189, 217, 251, 294, 379, 383, 439, 470, 476, 502, 516
 이재희 • 472, 517
 이정갑 • 296, 472, 517
 이정훈 • 175, 220
 이종각 • 379, 497
 이종관 • 192, 221, 504, 517
 이종구 • 111, 112, 114, 179, 406, 441, 442, 493
 이종무 • 118, 359, 378, 494
 이종상 • 112, 154, 163, 262, 263, 356, 357, 360, 361, 379, 432, 461
 이종수 • 71, 155, 164, 268, 284, 289, 290, 379, 431, 489, 507, 514
 이종필 • 200, 468, 476
 이종학 • 163
 이종협 • 175, 265, 266, 267, 289, 293, 379, 387, 388, 391, 394, 438, 469, 470
 이종호 • 48, 215, 281, 486
 이종훈 • 195, 292, 502
 이종환 • 397, 398
 이지휘 • 155, 287, 431, 514
 이진자(• 123, 210, 262, 263
 이창규 • 284, 317, 339, 340, 347, 348, 349, 458, 511
 이창수 • 405, 466, 468, 515
 이창인 • 79, 175, 267
 이창호 • 153, 364, 379, 492
 이채관화화랑 • 20, 134
 이철주 • 154, 356, 357, 432, 461
 이춘혜 • 268, 507
 이춘호 • 171, 172
 이충우 • 517, 519
 이치이 에이사쿠(市井榮作) • 150, 338, 339, 428
 이쾌대 • 356
 이택우 • 226, 275, 516
 이팔찬 • 327, 328, 329, 346, 350, 353, 354, 364, 458, 512
 이하응 • 78, 321
 이항성 • 59
 이환영 • 110, 141, 499
 이희세 • 356, 360
 인영선 • 170, 244
 일수회 • 146, 148, 159, 162, 434, 462, 500
 일요스케치회 • 146, 148, 165, 401, 501
 일청회 • 51, 82, 95, 146, 148, 212, 213, 402, 404, 476, 503
 임근우 • 185
 임동식 • 35, 36, 39, 159, 162, 196, 202, 204, 379, 381, 383, 384, 391, 392, 393, 412, 434, 444, 483, 503
 임립(임병립) • 17, 18, 31, 38, 59, 66, 164, 230, 299, 300, 378, 394, 412, 476, 484, 490, 503, 505, 517, 518
 임림미술관 • 17, 18, 38, 230, 394, 412, 484, 524
 임명철 • 83, 415, 499
 임미강 • 259, 518
 임봉재 • 164, 226, 230, 275, 370, 378, 400, 432, 461, 515
 임상묵 • 151, 430, 461
 임선빈 • 57, 59, 60, 84, 184, 210, 248
 임양수 • 93, 160, 164, 404, 462, 502
 임양환 • 255, 256
 임영우 • 173, 180, 181, 205, 247, 441, 451, 460
 임재광 • 108, 112, 113, 114, 173, 192, 218, 221, 260, 261, 296, 298, 378, 436, 455, 472, 504, 517
 임재우 • 169, 170, 296, 517, 520
 자연미술의집 • 17, 412
 장선백 • 356, 359, 360, 361
 장순업 • 112, 406, 470, 516
 장욱선 • 308, 309, 519
 장욱진 • 353
 장준문 • 199, 248, 516
 장철식 • 115, 214, 281
 재경 충남미술학우회 • 144, 146, 147, 157, 182, 357, 402, 461, 462, 500
 재경충남출신화가전 • 163, 89
 전래식 • 82, 357
 전상수 • 291, 292, 465, 515
 전성규 • 66, 490
 전영화 • 163, 356, 359, 361
 전형주 • 78, 503
 전호 • 59, 60, 488
 정경철 • 251, 470
 정관모 • 29, 391
 정광호 • 379, 391
 정길호 • 175, 266, 267, 293, 383, 387, 388, 391, 438, 447, 469, 504
 정덕영 • 141, 391
 정명오 • 255, 256
 정명희 • 54, 55, 78, 82, 97, 112, 160, 164, 212, 213, 216, 217, 251, 275, 294, 379, 400, 446, 462, 476, 503, 504, 515, 516
 정미현 • 251, 476
 정상원 • 124, 157
 정성원 • 316, 319, 320
 정세훈 • 182, 243, 244
 정술원 • 316
 정영복 • 54, 138, 226, 275, 370, 371, 417, 420, 498, 499
 정장직 • 175, 222, 223, 265, 267, 289, 290, 293, 379, 383, 387, 388, 391, 438, 447, 469, 504, 514
 정재성 • 84, 470
 정찬국 • 107, 115, 167, 171, 172, 180, 181, 198, 246, 247, 437, 441, 451, 470, 506, 516
 정창기 • 168, 247
 정창훈 • 184, 437
 정철곡 • 108, 208, 218, 230, 261, 275, 450, 493, 504
 정태궁 • 182, 214, 281
 정태희 • 57, 169, 313, 314, 476, 520
 정택은 • 153, 158, 355, 365, 379
 정해조 • 195, 299, 379, 475, 502, 517
 정환섭 • 358, 374
 정황래 • 187, 200, 213, 251, 468, 476, 504
 조동욱 • 316, 317, 320, 321, 322, 323, 346, 348, 349, 411, 428, 458, 484
 조병호 • 170, 517
 조성묵 • 157
 조영동 • 155, 164, 287, 368, 369, 374, 378, 431, 436, 441, 460, 461, 473, 501, 514
 조임환 • 255, 256, 506
 조종국 • 57, 64, 90, 169, 170, 408, 419, 487, 493, 503
 조중현 • 57, 163, 317, 326, 327, 329, 346, 349, 350, 353, 361, 364, 365, 379, 431, 458, 460, 462, 500
 조창래 • 161
 조치원문화원 • 20, 121, 421, 422, 496
 조치원읍사무소 • 121
 조평휘 • 216, 217, 250, 251, 292, 361, 365, 379, 439, 446, 467, 468, 504, 506, 515
 죽미회 • 88, 93, 144, 146, 148, 160, 401, 404, 433, 452, 462, 464, 500
 중도일보 • 19, 53, 61, 72, 75, 85, 122, 185, 187, 212, 222, 231, 238, 239, 243, 248, 264, 269, 280, 282, 388, 409, 435, 439, 490, 521
 중앙갤러리 • 16, 19, 87, 408, 490
 지식철 • 186, 204, 381, 389, 444, 468, 503
 지치우 • 74, 232, 378, 447
 지형민 • 55, 166
 진송자 • 184
 진정식 • 185
 차상권 • 210, 468
 차선영 • 161
 창형전 • 70, 71, 79, 149, 225

창형회 • 146, 149, 224, 304, 404, 504
 천안 도솔화랑 • 16, 20, 126, 174, 183, 410, 497
 천안 충남학생회관(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 17, 20, 135, 254, 410, 498
 천안문화원 • 15, 16, 17, 20, 127, 128, 130, 136, 183, 234, 236, 244, 254, 410, 411, 498, 504, 505, 506, 507, 508
 천안미술인회 • 149, 243, 244, 448, 451, 506
 천안미술작가회 • 132, 146, 149, 243, 244, 405, 451, 506, 523
 천안수채화협회 • 125, 128, 132, 226, 254, 405, 447, 496, 506
 천안시민회관 • 20, 130, 131, 411, 498
 청림전 • 65, 148, 189, 190
 청림회 • 65, 145, 146, 148, 189, 190, 191, 381, 401, 406, 414, 439, 471, 485, 486, 502
 청림회전 • 406, 414, 471, 486, 502
 청산회관 갤러리 • 18, 41, 484
 청소년수련원 • 20, 107, 170, 418, 419, 492, 493
 청양문화원 • 15, 16, 17, 20, 138, 371, 420, 421, 477, 498
 청조회 • 144, 145, 146, 148, 167, 171, 288, 401, 436, 437, 474, 501
 청포도회 • 144, 145, 156, 401, 404, 430, 432, 433, 452, 497, 500
 최국병 • 248, 293, 470, 516
 최기성 • 29, 192, 205, 216, 217, 251, 296, 441, 472, 517
 최덕휴 • 163, 183, 355, 500
 최명영 • 385
 최무용 • 173
 최병진 • 268, 507
 최영근 • 161, 195, 259, 293, 379, 502, 516
 최영보 • 303, 518
 최원진 • 255, 256,
 최장한 • 175, 470
 최재숙 • 173, 188
 최종걸 • 356, 359, 360, 361, 379
 최종태 • 155, 163, 184, 287, 371, 373, 374, 379, 431, 461, 474, 514
 최창식 • 354, 358
 최태신 • 265, 515
 최홍수 • 31, 405
 충남공보관 • 88, 147, 148, 148, 160, 408, 412, 450, 491
 충남구상작가회 • 145, 193, 194, 216, 446
 충남대학교 • 11, 17, 227, 239, 256, 257, 268, 285, 286, 300, 301, 443, 445, 447, 501, 505, 506, 507, 508, 518
 충남디자인협회 • 57, 145, 146, 148, 195, 440, 502
 충남민족미술협의회 • 146, 149, 278, 279, 508
 충남민족미술협회 • 145, 278
 충남사진연우회 • 144, 146, 147, 152, 487, 500,
 충남서예가협회 • 30, 31, 47, 51, 57, 146, 148, 169, 170, 415, 440, 501
 충남수채화협회 • 131, 135, 146, 149, 226, 254, 411, 447, 448, 505, 506
 충남예총 • 19, 62, 89
 충남예총화랑 • 15, 19, 89, 148, 158, 163, 164, 408, 491, 500, 501
 충남조각연구회 • 49, 51, 145, 146, 149, 227, 301, 381, 443, 446, 505
 충남조각회 • 143, 146, 148, 167, 171, 172, 233, 287, 381, 436, 437, 475, 501
 충남청년미술인회 • 89, 144, 146, 148, 164, 435, 436, 501
 충남판화협회 • 146, 149, 222, 223, 404, 447, 504, 523
 충남한국화협회 • 29, 145, 146, 148, 193, 216, 217, 250, 412, 504
 충남한국화회 • 29, 216, 217, 412
 충남흑백사진연구회 • 146, 149, 255, 256, 506
 충청은행 • 17, 18, 47, 170, 279, 281, 414, 415, 425, 486, 523
 태림상가 • 16, 18, 43, 245, 418, 450, 485, 506
 태안문화원 • 17, 20, 140, 208, 261, 414, 416, 493, 499
 태화산방 • 16, 20, 136, 183, 410, 498
 터Group • 146, 149, 228, 229, 443, 445, 505, 523
 토형회 • 145, 146, 148, 184, 437, 502
 평림화랑 • 17, 20, 137, 410, 498
 하동철 • 369, 378
 하시모토 다카오(橋本隆夫) • 334
 하시모토 모토타카(橋本元孝) • 326
 하중현 • 385
 하태진 • 157, 163, 356, 361, 362
 학동인회 • 46, 47, 114, 115, 146, 148, 214, 215, 406, 415, 448, 449, 453, 460, 486, 487, 503, 523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 29, 68, 158, 123, 144, 147, 151, 235, 246, 426, 451, 496
 한국미협 공주지부 • 98, 146, 148, 205, 206, 449, 450, 503,
 한국미협 논산지부 • 43, 44, 146, 245, 420, 450, 451, 506
 한국미협 당진지부 • 280, 508
 한국미협 대천지부 • 149, 271, 272, 507
 한국미협 보령지부 • 100, 271, 272, 492,
 한국미협 부여지부 • 146, 149, 246, 247, 406, 441, 450, 451, 506
 한국미협 서산지부 • 108, 110, 126, 146, 148, 207, 218, 219, 449, 450, 504
 한국미협 아산지부 • 235, 236
 한국미협 예산지부 • 124, 146, 149, 219, 262, 263, 507
 한국미협 온양지부 • 146, 235, 236, 450, 494, 495, 505
 한국미협 천안지부 • 127, 128, 129, 130, 131, 145, 146, 148, 182, 183, 404, 405, 411, 440, 442, 450, 497, 502
 한국화랑 • 16, 19, 90, 408, 491
 한길회 • 146, 148, 191, 436, 439,
 한남대학교 • 16, 17, 19, 91, 92, 145, 149, 175, 189, 190, 199, 224, 228, 242, 285, 286, 293, 370, 380, 400, 408, 436, 441, 443, 445, 469, 470, 491, 501, 502, 504, 505, 516, 507
 한밭상업고등학교 • 15, 19, 93, 160, 408, 433, 491, 500
 한밭조각회 • 80, 84, 92, 145, 171, 198, 199, 381, 446, 523
 한서대학교 • 285, 286, 312, 464, 520
 한유동 • 153, 364, 460
 한정수 • 518
 한정식 • 255, 256
 한중환 • 184, 437
 함중호 • 107, 278, 279
 함덕대건신용협동조합 • 18, 48, 414, 415, 425, 486, 524
 향미회 • 144, 146, 148, 163, 374, 500
 허강 • 379, 470
 허진권 • 187, 188, 204, 217, 251, 291, 292, 379, 381, 439, 444, 468, 502, 503, 515
 허훈 • 153, 461
 현대갤러리 • 16, 17, 19, 94, 225, 227, 251, 253, 408, 491
 현대미술교류회 • 146, 149, 264, 265, 507
 형상전 • 66, 71, 146, 149, 230, 505
 호서대학교 • 285, 286, 308, 309, 464, 519
 홍동식 • 154, 365, 367, 368, 432, 501, 518
 홍명다방 • 19, 96
 홍명섭 • 196, 220, 391, 467, 488,
 홍성경 • 299, 475, 517
 홍성문화원 • 16, 17, 20, 141, 149, 233, 234, 277, 416, 417, 499, 508
 홍성미술협회 • 146, 149, 276, 277, 417, 508
 홍용선 • 222, 223, 293, 294, 379, 447, 504, 515, 516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 154, 285, 286, 305, 311, 360, 361, 362, 380, 386, 422, 432, 435, 439, 454, 466, 467, 472, 474, 496, 502, 519, 522
 화연전 • 275, 370, 375,
 화연회 • 141, 146, 149, 275, 507
 화지산신용협동조합 • 16, 18, 44, 418, 420, 485

화춘회 • 146, 148, 207, 208, 413, 441, 448, 449, 453, 503
 황교영 • 167, 172, 184, 248, 287, 288, 379, 437, 474, 475, 501, 514
 황규태 • 379
 황만영 • 251, 292, 357, 515
 황선익 • 254, 277
 황영준 • 353, 354
 황용식 • 66, 209, 268, 379, 507, 515

황진국 • 153, 317, 342, 343, 347, 350, 460, 461
 후루야 겐스케(古谷鎌介) • 325, 346
 후루타 요시헤이(古田嘉平) • 329, 330, 331, 342, 513
 히로타 구니지로(廣田國司郎) • 342, 343, 347
 MBC문화공간 • 16, 17, 18, 50, 149, 168, 170, 178, 211, 213, 217, 225, 227, 240, 251, 253, 257, 301, 408, 409, 443, 486, 505, 506, 508, 523
 MOVE • 146, 149, 257, 301, 443, 506
 OPUS • 51, 79, 80, 84, 87, 95, 146, 149, 231, 232, 381, 390, 404, 447, 489, 505, 523

충남미술 연구총서 3
충남미술문화사(1900~1999)

발행인 김기영

발행일 2023. 12. 20.

총괄 충청남도

발행처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2층

Tel. 041-630-2900

Fax. 041-338-7963

조사·연구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조사·연구, 편·집필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인쇄 플럼디자인

디자인 박정미

ISBN 979-11-977032-1-8(세트)

979-11-977032-0-1

발간등록번호 11-B554911-000001-10

이 책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3 충청남도 · 충남문화관광재단

곰나루다방	당진문화원	문화화랑	대천문화원	(온양)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주공립고등여학교 강당	당진 유리회관	반도화랑	보령군청 전시실	연기군민회관
공주 공산성	당진충청은행 수선화공간	대전상공회의소	보령보건소	조치원문화원
금강변과 곰나루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대전소방서	보령시민체육관	예산문화원
기독교회	대전KBS방송국	시나위커피숍	구드래조각공원	예산문화회관
대화정 예배당	대전MBC방송국 문화공간	대전시민회관	국립부여박물관	예산종합터미널전시장
공주문예회관	가톨릭문화회관	신신화랑	부여군민회관	도솔화랑
공주문화원	경암빌딩 화랑	쌍인갤러리	부여문화원	천안문화원
봉산구락부	공간사랑	양상블 소극장	부여읍민회관	미도백화점
공주사범학교 강당	근대화랑	예가화랑	부여청소년수련원	천안시민회관
영명학교 강당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오원화랑	마방화랑	아라리오갤러리
원골마을	남계화랑	중도일보 회의실	서산문화원	아카데미다방
공주읍사무소	고등학교 강당	중앙갤러리	서산문화회관	이채관화화랑
임림미술관	대전미술관	충남공보관	서령미술회관	천안충남학생회관
자연미술의 집	대전백화점	충남예총 화랑	서산미술관	태화산방
금산문화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한국화랑	서인사랑	평림화랑
청산회관 갤러리	동양백화점	한남대학교	서천군민회관	청양문화원
논산군민회관	라이카·여일화랑	한밭상업고등학교	서천문화원	예원사화랑
태림상가	립화랑	현대갤러리	당림미술관	태안문화원
화지산신용협동조합	대전문화원	홍명다방	온양문화원	홍성문화원
공주회화회	충남서예가협회	금동인회	충남조각연구회	충남흑백사진연구회
미술협회(충남미술협회)	충남조각회	드림염색회	터Group	MOVE
충남사진연구회	그릴회	아투	형상전	대전의 숨결전
녹청회	19751225	오오현대미술동인	OPUS	서해조형작가회
루-불미술동인	르뵘동인회	한국미협 공주지부	늘갈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수요동인회	서미회	화촌회	한국미술협회 온양아산지부	현대미술교류회
청포도회	아사달회	도원회	금강조각회	46번가판화가회
재경 충남미술학우회	한국미협 천안지부	목원조각회	다시각	대전도예가회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토형회	미로회	목가와 신조형체	대전섬유조형회
미우회	대전'78세대	일청회	배연회	한국미술협회 대전·보령지부
죽미회	목목회	학동인회	아귀-토(土) 조각회	대전금속조형회
미상록	청림회	충남한국화협회	천안미술작가회	화연회
일수회	한길회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	홍성미술협회
향미회	이신회	대전실험작가회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충남민족미술협의회
충남청년미술인회	충남디자인협회	벽·바닥·의식	대전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일요스케치회	금강현대미술제	충남판화협회(대전판화협회)	대전한국화회	대전미술창작마을
청초회	뽀 그래픽	창형회	목원한국화회	
놀피미술회	송전조각회	충남수채화협회	천안(충남)수채화협회	

비매품/무료



ISBN 979-11-977032-0-1
ISBN 979-11-977032-1-8 (세트)